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제 1 부

석 윤 기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은 주체57(1968)년에 창작되였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무장투쟁로선을 높이 받들고 반일대전에 떨쳐나선 조선의 애국적열혈청년들이 그이의 지도와 육친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시련속에서 불굴의 혁명가로 성장발전하는 과정을 주인공 유철의 투쟁과 생활을 중심으로 예술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유철은 청년시절부터 일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혁명에 대한 열렬한 동경을 가지고 투쟁에 참가하였다가 서대문형무소에 갇히게 된다.

3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나와 중국 동북으로 가서 무모한 좌경모험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바람에 휘말려든다. 폭풍의 실패로 인한 후과로 그는 또다시 감옥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피로 얼룩진 교훈을 안고 시들어가는 유철과 같은 조선혁명의 해바라기들이 한결같이 갈망한것은 무엇이였던가? 해빛이였다. 탁월한 수령의 령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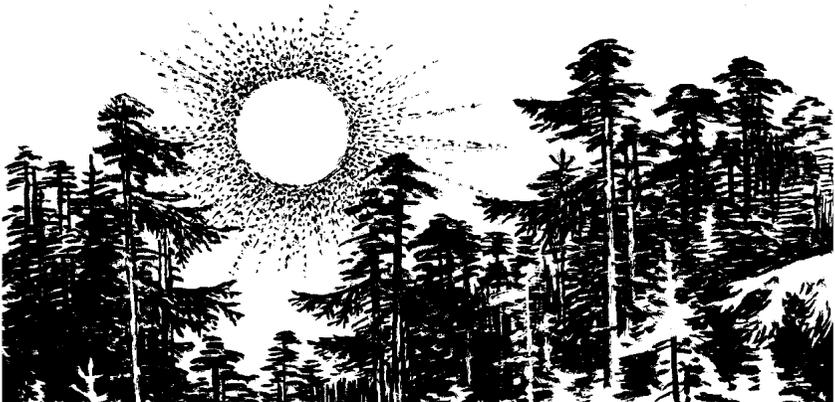
때문에 곡절많은 운명의 길을 거쳐 비로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에 안겼을 때 유철은 조선혁명의 진로는 오직 수령님에 의해서만 제시된다는것, 혁명의 태양이 없이는 혁명의 해바라기들이 무성할수 없다는것을 투쟁의 신념으로 간직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유철의 절대적인 충성과 의리심은 수령님으로부터 과업을 받고 하강지구에 파견되여 무장투쟁준비를 다그치는 지하공작임무수행에서 뚜렷이 발휘된다.

유철의 형상과 함께 혁명투사들의 다양한 전형들을 서사시적화폭을 통하여 진실하게 보여준 작품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 군인들을 혁명적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고무추동할것이다.

편집부

주 요 인 물

유철(박진규)	지하공작원, 후에 하강반일유격대 정치위원
주 삼 녀	유철의 안해, 혁명조직 성원
로 채 숙	지식인출신 녀성혁명가, 후에 유격대원
박 두 성	농민자위대출신 혁명가 후에 유격대중대장
박 병 섭	안골의 민족주의자 로인
쌍가매(김규화)	지주 정희겸의 집 머슴, 후에 유격대원
김 익 보	행세식맑스주의자
정 희 겸	안골의 지주
노무라 다이사꾸	일제의 특무단체 《흑룡강동지회》 총재
노무라 고지로	다이사꾸의 조카, 관동군 주임 참모

제 1 편

1

차라리 비라도 쏟아졌으면 시원할것 같았다. 날씨는 그냥 물쿤다. 이젠 장마가 들 때도 되였는데 하늘이 트일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해빛을 못본지 오랜 하늘도 땅도 속속들이 젖어버린듯 세상 어디에서나 곰팡내가 떠돈다.

그래도 거리는 바빴다. 모두 미친듯이 달린다. 진창을 휘뿌리며 승용차가 달린다. 뗑뗑 종을 울리며 전차가 달린다. 돌개바람처럼 정신없이 달아나는 그 틈바구니에 끼여든 인력거군은 긴 다리 사이사이로 콩알같은 땀방울을 뚝뚝 떨군다. 물장사의 지게는 찌걱찌걱하고 금시 숨이 넘어갈듯 신음소리를 질러대는데 형형색색의 장사군들이 외고 다니는 형형색색의 목소리가 골을 뗑하게 만든다.

《비웃드렁 사려—》

《무, 배추, 소금 사려.》

《달콤한 새우젓이요, 새우젓 사려.》

《헤— 사이다, 삐루, 라무네, 락화생, 군밤 사이소— 약밥.》

큰물진 삼남의 참상을 알리는 신문배달의 방울소리가 한순간에 거리의 모든 소음을 눌러버렸다.

《호외, 호외— 일가가 지붕우에서 구원을 부르는 목소리,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화한 락동강기슭—》

그러나 다음순간 복면을 한 사나이가 권총을 겨누어든 그림판을 둘러멘 우미관의 광고대가 질세라 꽹과리를 두들겨댄다.

벌써 불경기의 징조가 먼지 오른 은방의 유리장우에, 남대문시장 장사치들의 악쓰는 목소리에, 은행으로 쓸어드는 예금자들의 초조한 표정우에, 파리를 날리는 싸전주인의 부들부채우에 어두운 그림자처럼 얼씬거린다. 그래서 그런지 흐린 날씨가 불안한 민심에는 더 숨가쁘기만 하다.

비상경보처럼 종을 두들기며 달려오던 전차가 광화문네거리를 앞

두고 왕청같은데 멎더니 다시는 움직일 생각을 안했다. 목을 늘이고 기다리던 정류소의 손님들이 기관총의 일제사격같은 서울사투리로 한꺼번에 떠들어댄다.

《야, 이 자식아, 허리가 부러졌느냐.》

《청계천에 칵 빠져서 뒈져라!》

네거리의 교통순사가 달려가고 구경군들이 까맣게 모여든다. 그러자 새로운 웅성거림이 퍼져갔다.

《파업이다, 전차운전사들도 배고파 못살겠대.》

《잘됐군, 모두 해보라지.》

《옳지, 종로앞에서도 한대 섰군. 모두 서버렸군. 여러분, 우리는 정강말을 타고 갑시다.》

《요구조건은 뭐래?》

《요구조건?》 그 다음은 속삭임으로 변한다. 《그야 모르지. 뭐 보나마나 뻔하지. 독립하자는것 아니야?》

《파업해서 독립이 되나?》

《모르지, 그러나 좌우간 해봐야지. 이대로야 어떻게 살겠나?》

물안개가 굼실거리는 고궁의 담벽에는 노래기가 기여다니고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석축우에 철장대를 늘어세운 육중한 쇠울타리가 서있다. 시꺼먼 궤짝같은 수인차가 재판소뒤문으로 굽이를 꺾어돌면서 때마침 지팡막대를 끌고 올라오는 시골로인의 두루막자락에 진창을 뿌려놓는다. 놀라서 고개를 드는 로인의 눈앞에 쇠고랑을 찬 뼈마디투성이손이 보인다.

로인은 그렇게 쇠창살을 움켜잡고 바깥을 내다보는 황황 불타는 두 눈을 보았다. 용수를 쓴 얼굴을 창구멍에 갖다댄채 쇠고랑을 찬 손으로 창살을 움켜잡고 한순간에 지나치는 자유로운 거리를 바라보는 그 눈은 그 대문이 무슨 대문인지, 그 자동차가 무슨 자동찬지, 지어 골목이름조차 모르는 시골로인에게도 너무나 강한 충격을 주었다. 로인은 옷에 뿌려진 진창도 잊어버리고 구원을 부르듯 허둥거리는 눈길로 사위를 더듬었다. 공지를 넘어 저쪽에 구멍가게가 있다. 로인은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곰팡내가 풍기는 가게앞에 평상을 내다놓고 앉은 가게방주인은 한 50 나보이는 중늙은인데 동네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여적 일자리를 못구했나?》

《자꾸 새 실업자가 늘어가는데 어데서 일자리를 얻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번만 사정 좀 봐주십시오.》

《허— 안되겠네. 자네는 벌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나는 이렇게 파리만 날리고있는데도 꼬박꼬박 세금을 갖다바쳐야 한단말야. 그런데 외상까지 주구서야 어떻게 견디겠나?》

가게방주인은 《희연》봉지를 밀어내놓으며 딱한듯이 입맛을 다신다.

이때 서대문쪽에서 수인차가 또 한대 들이닥치더니 아까 그 대문으로 사라졌다.

《여보시오, 주인장, 저것이 대체 무엇하는데요?》

위태로운 걸음으로 진창길을 건너온 로인은 지팡막대를 들어 시꺼먼 수인차가 빨려들어가군하는 대문을 가리켰다. 우중충한 하늘에 곰같이 웅크린 뿌연 4층집이 솟아있었다.

《허— 령감님, 서울이 처음인가봅니다그려. 저게 바로 재판소라는데지요.》

가게방주인은 친절하게, 지나치리만큼 큰 목소리로 일러주었다. 그런데도 로인은 미심쩍은듯 《재판소라…》하고 받아외우더니 한참후에야 다시 물었다.

《그러니 저기로 들어가는 저 자동차에 실려가는것이 모두 죄인들이란말이시오?》

《그렇지요. 모두 죄수들이지요.》

가게방주인의 대답은 여전히 시원시원하다.

《아니, 무슨 죄수가 저렇게 많단말이요? 저런 쇠궤짝속에다 가두고도 모자라 쇠고랑을 채우고 용수까지 해씌웠으니 필경은 중한 죄인인가본데…》

로인은 아무래도 새길수가 없다는듯이 따지고들었다.

《요즘 죄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일본사람밑에서 조선사람 살기가 더 견딜수 없이 어렵게 됐기때문이라고들 합디다만 우리 같은 백성이야 어디 알겠습디까? 령감님, 이리 와 앉아서 담배나 한대 태우시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구멍가게주인은 이렇게 말하며 평상끝에 자리를 내여 권하였다.

《이거 초면에 안됐소이다. 내 저 경기도 광주 파발골 사는 사람이올시다. 이번에 집안에 대사가 있어서 서울장을 보러 온 길이올시다만 듣고 보는것이 모두 원통한 일뿐이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지 모르겠소이다.

우리 나라에 언제부터 저렇게 도적이 많아졌단말이요?》
로인은 수세미같이 구겨진 모시두루막자락을 헤치고 쌈지끈을 끄르며 가게방주인앞으로 흰 수염이 듬성듬성한 턱을 바싹 들이댔다.
《도적이 어디 그리 많겠습니까? 요즘은 사상가가 저렇게 많답니다.》
《사상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로인이 담배쌈지를 끄르다 말고 고개를 쳐들자 기름묻은 작업복주머니에 손을 지르고 서성거리던 실업청년이 좀 퉁명스러운 투로 말했다.
《조선독립을 찾자는 사람들이란말입니다.》
《허—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요?》
로인은 담배를 쟁이다 말고 손을 후들후들 떨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독립을 찾자고 나섰는데 나라는 못찾고 오히려 묶여간단 말이요? 이런 절통한 일이 어디 있나? 여보게 젊은이, 그래 저 사람들이 주장 무슨 죄를 지었다나?》
《죄가 무슨 죄란 말입니까? 나라를 잃은것이 죄지요.》
《그래—》 로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중얼거렸다. 《나라를 잃은것이 죄지. 어— 기막힌 일이군. 조선사람은 언제 그 죄를 벗나? 그 죄를 벗겨줄 귀인은 없나? 조선독립을 찾자고 나선 의로운 사람들이 저렇게 묶여가다니… 누가 저 사람들을 구해줘야 할게 아닌가, 이 사람아—》
《할아버지, 담배불 붙이십시오.》
청년은 로인의 후들거리는 얼굴을 무거운 눈빛으로 지켜보며 상냥하게 성냥을 켜댔다. 그리고 말하였다.
《나날이 묶여가는 사람이 늘어만 갑니다. 이제 누구든지 나서서 끝장을 내지 못하면 조선사람 다 죽을 형편입니다.》
가게방주인은 시름없이 뻐끔뻐끔 곰방대를 빨고있다가 혼자소리처럼 말참녜를 하였다.
《조선에 인물이 없어요.》
《그래 인물이 없어. 저렇게 나라 찾자는 사람들은 많건만 나라를 뻔칠 대들보가 없는 셈이지. 천도가 어찌 이리 무심탄 말인고…》
이때 한 젊은 녀인이 큼직한 함지를 이고 가게방앞에 나타났다.
《저— 말씀 좀 묻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구멍가게주인은 직업적으로 반색을 하며 재빠른 눈길로 행색을 살펴

보았다. 녀인은 등이 처져서 덧댄 베적삼에 검정토목치마를 둘렀는데 반듯한 가리마끝이 가까스로 드러나게 인 함지굽에는 생선비늘이 두어개 붙어있었다.

그러나 람루한 행색과는 달리 희고 맑은 얼굴이며 어딘가 지친듯도 하고 슬픔을 머금은듯도 한 커다란 눈에는 기품이 깃들어있어 사람보는데 리력이 튼 가게방주인도 속으로 고개를 기웃하며 《무슨 말이요?》하고 되물었다.

녀인은 한손에 꽁져쥐고있던 수건끝으로 입언저리의 가는 땀방울을 훔쳐내며 잠시 주저하더니 입을 벌렸다.

《저 서대문감옥이 저 집인가요?》

어딘가 억양 센 북관사투리는 녀인이 먼길을 왔다는것을 짐작케 하였다.

가게방주인은 무심히 대답하였다.

《서대문감옥이요? 잘못 왔는데요. 저것은 감옥이 아니라 재판소지요. 비슷한데지만 다르답니다. 감옥은 저,저기 가는 저 궤짝같은 자동차를 따라 한참 가야 합니다.》

《에그 이를 어찌나?》

녀인은 그만 락담하여 가볍게 한숨을 지었다. 실업청년이 그 실망한 표정을 동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다가 말하였다.

《감옥에 가려면 정거장에서 내려 곧장 가야 할걸 공연히 이리로 왔습니다.》

《정거장에서 오지 않아요. 걸어왔어요.》

《걸어오다니? 어디서 오시게요?》

가게방주인이 놀라서 물었다.

《룡정에서 와요.》

《룡정이라니? 아니,간도 룡정말이요?》

실업청년의 놀란 목소리에 녀인은 커다란 눈을 슴뻑거리며 말없이 마른침을 꼴깍 삼켰다. 세사람은 새삼스럽게 젊은 녀인의 람루한 행색과 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였겠군.》

시골로인이 이렇게 중얼거리자 가게방주인이 허리를 일으키며 말했다.

《여기 함지를 내려놓고 다리쉼이나 좀 하시오. 거 누구 면회를 오는길이시오?》

《네.》

녀인은 함지를 인채 눈덕을 내리깔았다.

《이리 내려놓으시오, 서대문에 간다 해도 어차피 오늘은 면회를 못합니다.》

《고마와요.》

녀인은 잠시 쭈밋거리다가 힘겹게 함지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함지에는 조막만한 보꾸레미 하나와 얼간을 한 고등어 몇손이 포개져 있을뿐이였다.

《흠— 행상을 하면서 왔군.》

세상물정에 밝은 구멍가게주인의 중얼거림이였다.

녀인은 얼없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서 재판소뒤문을 빠져나가는 쇠창살 달린 수인차를 바라보고있다.

《새애기, 누가 갇혔나?》

시골로인이 제 딸에게 묻듯 측은한 목소리로 물었다. 녀인은 웃이로 아래입술을 가볍게 물고 망설이더니 낮게 대답했다.

《애기아버지예요.》

《애기아버지가? 무슨 일로 간도서 여기까지 잡혀왔나?》

《…》

《간도서 잡혀왔다면 사상범이지요. 독립운동을 했소?》

녀인이 대답이 없자 가게방주인이 다잡고 물었다. 젊은 녀인은 물기어린 큰 눈으로 세사람을 번갈아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자 세사람은 따라서 고개를 천천히 흔들다가 외면하며 제마끔 중얼거렸다.

《간도서 온다?— 기막힌 일이군.》

녀인은 짓누르듯 눈앞에 우중충 솟아있는 재판소를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 그러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전 가보겠어요. 저길로 곧장 가면 감옥이 있나요?》

《가보시겠소?》

가게방주인이 엉거주춤 따라일어나며 잠시 가게방구석을 살피다가 갑자기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만, 그렇다면 그 함지의 생선은 나한테 넘겨주고 가시오. 어차피 망한놈의 장산데 고등어 몇토막 더 놓았다구 큰일나겠소?》

《에그, 이러지 마세요. 내내 그렇게 왔는데 일없어요.》

가게방주인이 돈궤에서 은전 몇잎을 꺼내여 쥐여주자 녀인은 당황하

여 부르짖었다.

《일없소, 받으시오. 아무래도 려인숙신세를 져야 할텐데 서울인심이란 각박합네다. 보태쓰시오.》

《옳은 말씀이요.》 시골로인은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쌈지를 끌렀다. 《나도 여기서 장을 봐야겠군. 거 고등어 몇손 나한테 되거리로 파시오.》

《허— 아주머니덕에 이 집 주인이 앉은자리에서 장사를 잘하는군.》

실업청년이 한결 밝아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나서 성큼 나섰다.

《자, 아주머니, 서대문으로 가시려거든 나하고 같이 갑시다. 나도 일감 구하러 그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마와요. 모두 복받고 편안히들 사세요.》

녀인은 고개를 숙이고 울먹한 목소리로 말하더니 이윽고 빈 함지를 옆에 끼고 종종걸음을 쳐서 철장대울타리 늘어선 언덕굽이로 사라졌다.

×

면회구의 쇠그물은 반들반들하였다. 네귀 구석진데는 뻘겋게 삭고 녹이 쓸었는데 유난히 가운데부분만 그렇게 새 철사처럼 반짝거리는것이였다. 손가락이나 가까스로 드나들수 있는 그 쇠그물을 부여잡고 두꺼운 담벽으로 갈라져있는 감옥과 사회의 면회가 이루어진다.

무수한 한숨이 그 쇠그물을 녹이고 무수한 손길이 그 쇠그물의 녹을 벗겨냈다.

삼녀는 면회실에 들어서자마자 쇠그물이 그렇게 반짝거리는 까닭을 인차 알아차렸다. 무섭다는것밖에는 감옥에 대해 들은 말도 없고 와보기는 더구나 처음인 삼녀였다.

하나 아프게 옥죄여드는 가슴을 안고 그 좁고 어둑한 방안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그 얼기설기 얽히고 맺힌 쇠그물앞에 그리운 남편의 얼굴이 나타나리라는것을 알았을 때 세상일에 대해 너무나 아는것이 적은 삼녀의 눈앞에도 그 쇠그물에 얽혀있는 천만가닥 사연이 한꺼번에 떠오르는것이였다.

녀인의 절박한 마음이 빚어낸 그 상상은 정확하였다. 수염이 꺼칠해진 남편이 벌기우리하게 바랜 깡뚱한 수인복을 걸치고 나타나서 그 쇠그물을 두손으로 움켜잡았을 때 삼녀는 자기 상상이 정확했다는것을 깨달았

다. 동시에 그의 가슴은 지지는듯 타들어왔다. 바로 옆에는 시꺼먼 옷을 입은 간수놈이 일부러 칼을 절컥거리며 딱 붙어서있었다. 쇠그물너머 저쪽에도 면회간수놈이 책상에 앉아 흐리멍텅한 눈으로 연방 남편의 거동이며 자기 얼굴을 살피고있다. 하지만 삼녀는 저도 모르는사이 남편앞으로 한걸음 다가섰다. 처음 형무소의 철문을 들어서서 컴컴한 양회담벽에 둘러싸인 무시무시한 세상을 겁먹은 눈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어리둥절했다. 육중한 쇠창살들, 칙칙한 자주빛 벽돌, 어디선가 울려오는 쇠고랑소리, 칼소리 그리고 금시 꿱 하고 고함을 치며 그 누가 덜미를 잡아누를것만 같은 험한 공기를 느끼며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그러나 남편을 보는 첫 순간에 삼녀의 생각은 뒤집히고말았다. 남편은 너무나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당신이？… 당신이 어떻게 왔소？》

남편의 목소리는 밝았다. 전이나 다름없이 시원한 남편의 얼굴이 쇠그물 저쪽에서 얼른거릴 때 삼녀는 반가운 나머지 멍하니 서버렸다. 신문에 그렇게 떠들어대고 소문도 요란하게 났었다. 집안에서는 이젠 거지반 죽어갈것으로 알고있었다. 반송장이라도 돼서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게 된다면 그런 천행이 없겠다고들 하였다. 그런데 정작 대하고보니 남편은 수염이 좀 꺼칠하고 얼마간 여위였으며 해볕을 못봐서 희멀끔해졌을뿐 대하는 느낌이 전과 다름없이 펄펄하고 싱싱하였다. 왜놈들 간수가 앞뒤로 붙어섰건만 남편은 조금도 기가 꺾이지 않았고 말하는데도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삼녀 역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앞뒤에 붙어서있는 왜놈간수놈들이 어쩐지 하치않게 느껴졌다.

그는 뉘우침에 시달리면서 남편이 묻는대로 식구들의 안부며 집안형편을 힘겹게 이야기했다.

《현아가 벌써 다섯살인가？》

남편은 집에 두고 온 딸 이야기를 혼자말처럼 외우더니 안해의 아픈 가슴을 달래주려는듯 전에없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이를 떼놓고 오기를 잘했소. 이런 생지옥 같은데 끌고와서 무얼 하겠소.》

삼녀는 눈앞이 흐릿해졌다.

뒤에서 땅딸보간수놈의 속편찮아하는 밭은 기침소리가 울리였다. 창너머 책상에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있던 텁석부리간수놈도 힐끔하고 남편을 치떠본다.

그러나 남편은 조금도 삼가는 기색이 없었다.
《그래 처남은 지금도 술을 마시오?》
《네.》
《거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술을 마시오? 책방을 다 들어마시지 않겠소?》
《빚이 자꾸 늘어간다고 형님이 걱정을 해요. 책도 령사관에서 많이 가져갔대요.》
《책을? 사회과학책을 다 압수했겠군. 개자식들!》
쾅! 뒤쪽에 서있는 땅딸보가 징박은 구두로 마루바닥을 굴렀다. 삼녀는 가슴이 섬찍해서 얼른 두손을 모두어잡고 뒤돌아보았다.
창너머에서 텁석부리간수놈이 졸음기어린 눈을 치떠보더니 불시에 으르릉거렸다.
《오이 오이, 할수없는자로군. 조심하지 않겠나?》
진규는 들은척도 않고 반들거리는 쇠그물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술을 걷어치우라고 하오. 화풀이를 한다는게 고작 술이란말요!》
삼녀는 남편의 말도 고마왔지만 그 꺾이지 않는 기개가 더욱 고마와 고개를 숙였다. 시집와서 5년, 첫딸을 낳고 남편이 체포된 재작년까지 해수로 3년을 살았다지만 그가 집에 배겨있은것이 불과 얼마 안되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어볼 기회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남편이라면 어렵게만 생각해오던 삼녀였다.
로자를 아껴쓰자고 국경을 넘어서는 생선행상을 해가면서 석달이나 걸어온 그 무덥고 발아프던 신작로우에서도 그저 남편의 얼굴을 한번 보는것이 소원이였지 이렇게 살뜰한 말을 들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더구나 자기스스로가 그 무섭다던 감옥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며 이렇게 많은 말을— 사실은 남편의 물음에 대답하는것이 고작이였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말을 할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해보았다.
《여보.》
남편의 놀란듯한 목소리에 삼녀는 얼핏 고개를 들었다.
《당신 어째 머리가 그리 성기여졌소?》
가뜩이나 수집은 삼녀는 삽시에 숫색시처럼 얼굴이 화끈해올라서 그 성기여졌다는 머리가 남편에게 더 잘 뵌다는 생각도 못하고 다시금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는 꺼져들어가는듯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간도에 염병이 돌았어요.》

《옘병？ 그래 당신도 앓았단말이요？》

《네.》

《음, 고생했구만. 농사를 해, 옘병까지 앓고… 그런데 여기까지 무엇하러 왔소？ 몸조리나 좀 하지. …》

《…》

삼녀는 저도모르게 코허리가 찡하고 매워와서 얼른 고개를 돌리고 옷고름을 눈굽에 가져갔다.

주삼녀는 아까 늦어서 미안하다는 발명을 한다는것이 얼결에 걸어온 이야기를 비쳤지만 이제 또 도중이야기를 캐여물으면 괜히 걱정만 시키겠는데 어찌나싶어 불안에 후둑거리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다행히 남편은 타고난 성미가 그런 눈치에 무딘 사람인데다 5분이라는 짧은 면회시간에 요긴한 말을 더 많이 하려고 서둘다가 결국 쓸데없는 말만 하고 시간을 다 보내게 마련인 그 초조감에 사로잡혀 별다른 눈치를 못채고 지나가버렸다.

《여보！》

잠시 침묵이 흐른후 진규는 무엇인가 결심한듯 정색한 어조로 불렀다. 남편의 달라진 목소리에 삼녀는 고개를 들었다. 집에 있을 때 웃방 고콜불아래 동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던 그때처럼 남편의 얼굴은 긴장돼있었다.

《네？》

삼녀는 무엇인가 중요한 말을 할것이라는 예감에 마음을 조이며 낮게 대답하였다.

《이제 돌아가거든 당신도 내 걱정 말고 혁명을 하오. 사람이란 혁명을 해야 하오.》

쾅！ 창문뚜껑이 떨어진다.

《칙쇼！ 한다는 수작이！》

면회간수 땅딸보가 칼을 절컥거리며 소리쳤다.

순간 진규는 뼈마디가 굵직굵직한 두손가락을 쇠그물구멍에 디밀고 떨어지는 창문덮개를 중간에서 위태롭게 멈추어세웠다.

《이건 왜 이래？ 내 좀 할 말이 있단말이야！》

남편은 뒤로 잡아당기는 텁석부리를 뿌리치고 덮개밑으로 얼굴을 내밀며 땅딸보에게 태연한 투로 말했다.

《불온사상을 선동하는것 용서할수 없다. 〈제령(制命)8호〉 위반

이란말이다. 게다가 면회시간도 다 지났어.》

《면회시간 지난줄 안다. 그렇지만 내가 할 말이 있다. 좀 물러서라.》

삼녀는 엄청난 말과 엄청난 분위기에 기가 질려 오돌오돌 떨며 허둥거리는 눈길로 앞뒤를 살폈다.

《여보,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이라도 일을 해야 하오. 어떻게 하든지 줄을 찾아서 조직생활을 하오.》

《네.》

삼녀는 어망결에 대답하였다.

땅딸보가 강제로 쾅 하고 덮개를 내리닫았다.

《덜된 자식이 면회시간 다 지났다고 마구 허튼소리 한단말야!》

창구멍은 시꺼멓게 막히고 남편의 모습은 사라졌다.

《허허허! 잘 가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절벽으로 막힌 저쪽 세계에서 남편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와 결결한 작별의 말소리가 울려왔다.

《1666번, 왜 자꾸 말썽인가? 가죽조끼나 또 한번 입겠는가?》

텁석부리의 통사정하는듯한 웅얼거림도 간신히 들려온다.

삼녀는 제 가슴을 꽉 껴안고 무엇인가 고마운 생각에 그리고 막막한 고독감에 사로잡혀 주르르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그 자리에 못박혀 서있었다.

2

모든 간수가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말썽군》이라는 표시로 감방문우에 번호를 박아쓴 붉은 표딱지를 내다붙인다. 진규는 제발 다시는 말썽을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텁석부리 면회간수놈의 애원절반, 위협절반의 지청구를 들으며 《중앙》을 거쳐 1666번이라는 붉은 표가 붙어있는 자기 감방으로 돌아왔다.

감옥살이를 하는데 편안하게 하는 요령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감옥의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간수들이 요구하는 정보도 제공하고 심부름도 들어주는 등으로 개노릇을 하여 소매에 《모범표》를 몇개 얻어다는것인데 이것은 개나 할수 있는 비루한 짓이라 정치범들은 애초에 생각할바가 못되고 시켜주지도 않는다. 다른 한 길은 감방호실 문우에 붉은

표를 달게 하는것이다. 붉은 표만 달아놓으면 저으기 편안해진다. 무릎을 꿇지 않아도 그만,제 자고플 때 드러누워도 그만,떠들어도 그만,면회시간을 어겨도 그만,하여간 특별한 취급을 받을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는것이 문제이다. 문우에 붉은 표딱지를 붙인다는것은 원체 이놈은 《악질》이고 말썽꾸러기라 그런줄 알고 잘 다루어야 한다는 표식이다. 그런것만큼 《말썽》을 부려야 하는데 이것이 감옥내에서 공인되기까지는 제재가 가해지는것이다. 붉은 표를 달자면 적어도 벌방을 한두번은 다녀와야 하고 가죽조끼를 대여섯번은 입어야 하며 《감식》도 몇번은 당해야 한다.

감옥살이에 리력이 튼 사람들은 이러한 안속을 알고는 있지만 저마다 그 요령을 따르지는 못한다. 겪어야 할 목전의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감방문우에는 감옥살이요령과는 관계없이 정치범들의 번호가 자주 나붙게 된다. 그것은 대개 그들의 불굴의 투지와 인간적 풍격,간수놈들까지도 감당 못하는 그 영향력때문이였다.

1666번이라는 붉은 표가 3동8방 문우에 나붙기까지 박진규가 치른 곡경은 남달리 심하였다.

1927년 가을에 체포되여 29명의 관계자들이 령사관경찰에서 이송된지가 벌써 2년하고도 두달에 잡힌다. 2년 가까운 예심과 공판과정에 그의 《말썽》은 감옥에서뿐아니라 신문에까지 보도되여 전사회가 다 아는것으로 되였다. 공판때 판검사가 경어를 쓰지 않았다고 대답을 거절했으며 《국체변혁과 사유재산제도를 철폐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에 가입했다》는 《치안유지법》 해당조목의 죄목규정에서 사유재산제도철폐를 목적으로 했다는것은 인정하였지만 《국체변혁》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우겼다.

《우리는 조선의 독립을 바랄뿐이다. 일본을 내몰았으면 그만이지 일본의 국체따위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말인가? 〈천황폐하〉를 모시든 무엇을 모시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바가 아니다.》

이렇게 냅다 우기는바람에 판검사와 형사,간수놈들이 진땀을 흘렸었다. 그날 오후공판부터 일체 방청이 금지되였다. 결과 한개 보통조직원으로서 중앙의 집행위원급 거물들보다 더 중한 2년의 징역에다 2년의 미결기간중 겨우 반년을 통산해준다는 언도를 받았다. 이름없는 한 청년이 갑자기 유명해져서 신문과 여론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검사를 상대로 통렬한 론쟁을 들이대는 푸른 미결수복의 사진과 용수를 쓴 머리를 높이 쳐들고 《비둘기장》앞에 서있는 그의 모습이 각 신문들의 2면 상단에 큼

직하게 나붙었다. 기자들은 어떤 틈바구니라도 뚫고들어와 그의 말, 옷차림, 표정을 보도하였다. 기결감으로 옮아와서도 덜되게 정치범들을 학대하려는 간수놈들을 정면으로 맞받아나섰다.

물론 진규가 처음부터 어떤 《명성》이나 붉은 표딱지를 노리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것은 아니다. 타고난 생매같은 성미가 아무앞에서나 굽신거릴줄 모르고 휘여들기를 죽기보다 싫어하기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잡히기전까지는 천하를 쥐락펴락할것처럼 기고만장해 돌아가던 소위 《지도자》급의 인물들이 경찰서 류치장에서 벌써 초주검이 다 되여 서대문어방에 이르러서는 파김치처럼 노그라져버린데 대한 울분이요, 반발이기도 하였다. 진규가 그러는바람에 체면을 생각하고 허세나마 부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럭저럭 감옥살이에 리력도 트고보니 이 붉은 딱지가 여간 편리한것이 아니다. 이젠 간수들쪽에서 오히려 쩔쩔매며 비위를 맞추려들게쯤 되였다. 언도공판에서는 다소 손해를 본 점이 없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1년 가까이 남은 징역기간을 보내는데는 리로운 점이 또한 적지 않다고 할것이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같은 감방《주민》들의 여론일뿐이요, 진규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다. 자기가 공판에서 좀 서툴게 굴었는지는 모르나 지금 생각해보아도 달리는 행동할것 같지 못했고 감옥에서도 역시 그 보기만 해도 역스러운 간수나부랭이들에게 고분고분 굴수가 없었다. 게다가 사회정치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안할수가 없고 동지들과 련계를 안가질수가 없는것이다.

…진규가 감방안에 들어서자 버쩍 마른 담당간수가 쾅 하고 문을 닫더니 절컥 자물쇠를 놓았다.

감방의 문 닫기는 소리— 쩡 하고 온 동을 다 울리며 쇠고랑에 얽매인 고달픈 넋을 쇠톱으로 켜듯 갈리고 이물리는 그 소리가 조용한 죽음의 심연속같은 감옥을 울렸다. 언제나 머리속을 긁어주는 그 저주로운 문소리의 여운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며 진규는 문을 등에 지고 잠시 눈을 감고 서있었다. 을씨년스런 그 여운은 오래도 끌었다.

잡범들은 다 외역에 나가고 정치범 세사람밖에 남아있지 않는 감방안은 휑뎅그렁하였다. 시지근한 습기와 변기통에서 풍기는 악취가 걸찍하게 떠도는 어둠속에서 최호빈과 김익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동작들은 나른하고 무료해보였으나 눈만은 열기를 띠고 이쪽을 쏘아보고있었다.

그러나 진규는 아직 어둠에 익지 않아 무엇인가 이야기할 기분이 되지 못했다. 안해를 떠나보내고 오는 지금 진규의 마음은 왜 그런지 저려올랐다. 그는 문소리의 여운이 사라지자 조용히 눈을 뜨고 맨 구석 통기창아래 자기 자리로 가 털썩 앉았다.

폐병을 앓는 최호빈의 기침소리가 쿨룩쿨룩할뿐 감방안은 고요하다. 가쁜 숨소리들이 연기처럼 떠돈다. 모두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듣고싶어 기대하고있는 그러한 말을 지금 당장 할수 없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었다. 복도에는 아직도 버쩍 마른 담당간수 《비석마르크》가 서있는것이다.

압착당할것만 같은 무겁고 어두운 공기속에 납덩이같이 무거운 침묵이 가라앉아있다.

《아이쿠—》 최호빈이 마침내 신음소리를 한번 지르고는 쾅 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며 돌아앉았다. 서북쪽으로 난 창구멍으로 해살이 들어오려면 아직도 몇시간이 지나야 한다. 그때까지 최호빈은 내내 해별을 그리워하며 하루에도 몇번씩 제 머리로 그렇게 벽을 짓찧군 한다. 그가 1년반을 두고 내내 머리를 짓찧어온 자리가 회벽우에 거무스레한 자국으로 남아있다.

문결에 앉아있는 《정의부령감》이 잔뜩 문틈에 대고있던 얼굴을 들더니 《갔어！》하고 말했다. 그 소리에 갑자기 감방안은 활기를 회복하였다.

《정의부령감》이 슬그머니 몸을 돌려 진규곁으로 엉금엉금 기여왔다. 옆자리에서 김익보가 바싹 무릎을 끌고 다가앉더니 속삭였다.

《누가 왔소？》

《안해요.》

《안해라니？ 부인이 여기까지 왔단말이요？》

진규는 말없이 익보를 힐끗 돌아보았다.

공판때에도 푸른 미결수복을 입고 법정에 섰던 진규는 자연 가족이 없고 면회 올 사람도 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모두 인정하게 되였던것이다.

김익보 역시 면회 올 가족이 없는 사람이였다. 다같이 징역살이를 하면서도 남 다 오는 가족면회조차 올 사람이 없다는 쓸쓸한 생각이 두사람을 더욱 접근시켰었다. 물론 캐여보면 처지가 꼭 같은것은 아니였다.

익보는 본시 충청도의 밥술이나 먹는 자작농의 집 서자였다. 그의 아버지가 늦도록 자식을 못봐서 익보의 어머니를 처녀때 데려왔는데 익보를 낳자 그 이듬해 본처가 해산을 하였다. 애초에 부엌데기 절반으로

힘겨운 시집살이를 하던 그의 어머니와 어린 익보는 드센 본처의 시샘과 시앗간의 암투에 역증밖에 낼줄 모르는 우유부단한 늙은 아버지의 거치른 주먹아래 시들어갔다. 어머니는 피기없이 마르더니 익보가 철도 들기전에 죽어버렸다. 익보는 소년시절에 벌써 자기 가정과 사회에 대한 반항심으로 뭉쳤다. 전문학교때 그는 스스로 가족들과 의를 끊고 고학을 하였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일가도 친지도 없는 김익보가 이 더러운 사회를 뒤집어엎자는 파도같이 밀려드는 새 사조에 휩쓸리여 자기의 온갖 정열과 넋을 다 기울이고 쏟아부은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였다.

그는 열렬하게 증오할줄 알았다. 그대신 살뜰한것에 대해서는 싸늘하였다. 그래선지 미결수복을 그대로 입고 공판을 받은 박진규를 혁명가답다고 좋아하였다. 가족들이 찾아와서 울고불고하는 혁명가란 익보에게는 리해되지 않는 인간들이였다.

고독한 사람과 사귀는것이 익보에게는 마음이 가벼웠다. 그렇기때문에 박진규에게 가족이 찾아왔다는것이 뜻밖이였다. 그것을 반갑다고 해야 할지 섭섭하다고 해야 할지 한동안 갈피를 출수 없었다. 섭섭한것은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였지만 우선 박진규같은 사람에게도 안해가 있다는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다.

하기는 진규자신이 《1666번,면회！》 하고 제 번호를 불렀을 때는 뜻밖이였다. 면회구에 나타난것이 안해라는것을 알았을 때는 더구나 놀랐다.

아버지도 간곳을 모르고 형도 총살당한 지금 간도에서 서울까지 다녀라도 갈만한 사람은 없었다. 억지로 꼽자면 처남이 한번쯤 다녀갈수 있는 사람이겠지만 처남자체가 령사관의 주목을 받는 사람인데다 신문사를 그만두고 헌책방을 벌린 다음부터는 또 그것이 영업이라 그 구멍가게같은 헌책방을 뜯어먹고 사는 수많은 입들을 생각해서라도 자리를 뜰 형편이 못될것이였다.

안해는 애초에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열아홉에 시집이라고 와서 지금은 스물넷이나 됐지만 아직도 문전출입을 두려워하는 봉건유습이 짝 박힌 구식녀자인데다 자기가 바깥에 나돌다가 어찌다 집에 들어가면 반가와한다는것이 마당에 있다가 옷고름을 입에 물고 부엌으로 뛰여드는 그런 녀자였다. 그런 안해가 서대문형무소 면회실에 나타나리라고는 아무래도 상상할수 없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올 생각을 했을가？)

진규 생각에 안해란 녀자는 피차의 부모가 정해주니 특별히 반대할 리유가 없었기때문에 간단히 결정해버린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류달리 즐거울것도 없고 류달리 언짢을것도 없는 가운데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안해와 얼굴을 맞대인 날자와 서로 나눈 말마디들은 헤일수도 있을만큼 기억이 적었다. 실상 그지간의 그의 생활이란 안해나 통털어 가정이라는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것이였다. 우선 5년간의 결혼생활중 절반이상이 간도와 이곳에서의 감옥살이에 흘러갔고 그전 생활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그 《운동》에 바쳐졌던것이다.

면회구 쇠그물을 사이에 두고 진규는 처음으로 안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느꼈었다.

허망한 그 5분간의 면회시간에 그는 안해를 위하여 아마도 결혼후 가장 많은 말과 가장 의미심중한 말을 했을것이였다. 그리고 오는데 석달이 걸렸다는 그 길로 다시금 로자 한푼 없이 떠나보낸 지금 중병금 《검은독방》에 열흘씩 갇혀있어도 끄떡않던 《무쇠》라고 하던 그의 가슴도 갈가리 찢기는것이였다.

《무슨 소식이 없었소?》

김익보가 초조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없었소.》

어둠에 익어가는 눈앞에 훤하게 떠오르는 마루바닥을 들여다보며 진규는 흥심없이 대답했다.

어느 세대의 《주민》들이 그어놓았는지 장기판이 그려져있다. 자기의 형기를 계산한 흔적인지 무수한 바를정(正)자가 새겨져있다. 또 그 옆에는 무슨 심보로 그랬는지 상소리를 정성들여 깊숙하게 파놓은것도 있다. 이미 낯익은것들이다.

《그래 담배도 한대 못구해왔나?》 《정의부령감》이 참을수 없다는듯이 염소수염이 다부룩이 자란 턱을 내밀고 따지듯이 물었다.

진규는 호랑이를 잡은 수와 왜놈을 잡은 수가 거지반 맞먹는다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이 독립군 령감의 기갈이 든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여태 움켜쥐고있던 주먹을 불쑥 내밀었다.

《옛소.》

《이크, 웅근대를 어떻게…》

면회실에서 돌아올 때 감옥《중앙》에서 텁석부리의 설교를 들으며 그의 책상우에서 뽑아온것이였다.

《아이구— 염소새끼처럼 담배는 받친다.》 최호빈이 벌써부터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키더니 절박한 목소리로 물었다. 《거 어디서 전쟁이나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없습디까?》

《간도에 염병이 돌았다오.》

《넨장, 세상이 잘은 되는군.》

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의부령감》은 담배를 가지고 고양이처럼 소리없이 제자리에 가더니 담배를 벽과 마루짬에 만들어놓은 비밀보관장소에 끼워놓고 저편 구석에 쌓인 뻘건 포대기쪽에서 솜을 뽑아내였다. 그는 감시구에서 아무리 《비석마르크》가 눈을 밝혀도 아무 흔적도 알아볼수 없게 격식대로 단정히 꿇어앉아서는 솜을 싹싹 피워가지고 나무꼬치처럼 단단하게 노를 꼬았다. 이제 외역에 나간 잡범들이 돌아오고 복도로 밥통을 멘 《당번》들이 밥그릇이며 국통을 들고 다니고 이 감방, 저 감방의 밥통구멍이 열리고 밥덩어리가 크거니작거니 하고 떠들썩해질 때 《정의부령감》은 포대기짝들옆에 가려놓은 목침통 하나를 꺼내여 마루우에 놓고 그 솜노를 맹렬히 밀어댈것이다. 한참 비벼대다가 노를 들어 가운데를 뚝 분지르고 훅 불면 발갛게 불이 당긴다. 그러면 《정의부령감》은 제꺽 《비밀창고》에서 담배를 꺼내여 붙여물고 마음껏 연기를 들이킨다. 그리고 그 연기 한모금도 밖으로 새여나오지 않게 오장륙부에 다 스미도록 게걸스레 삼킬것이다. 그러면 최호빈은 습관적으로 맹렬히 기침을 할것이고 강도 장기호나 사기군 민성준은 공연히 문옆에서 부산을 피우며 자기 차례를 기다리게 될것이다.

《그래 당이 재건됐다는 소식은 못들었소?》

김익보가 병적으로 새빨갛고 바싹 마른 입술을 감빨며 또다시 속삭였다.

《촌녀자가 그런걸 알겠소?》

진규는 여전히 흥심없이 대꾸했다.

《동무 나간 다음에 통방이 왔는데 문평파업이 점점 확대되여 원산에서 굉장한 총파업이 있었다는군. 혹시 당이 재건됐는지도 모른단말이요.》

《당이 그렇게 간단히 재건될게 왜 해산됐겠소?》

진규는 쓰겁게 말하고는 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제 또 익보의 입에서는 《엠엘》이며 《서상》이며 하는 《반역자》들을 욕하는 넋두리가 터져나올것이다. 벌써 몇달째 들은 역겨운 푸념이였다. 그래 지레

입을 봉하자고 고개를 돌리는데 익보는 그런 눈치도 못챘는지 망가진 축음기판처럼 쉭쉭거리는 소리로 똑같은 가락을 또다시 되풀이하였다.

《죽일놈은 종파들이요. 원체 우리 공산당지휘부가 체포된것은 그놈들의 간첩모략때문이란말이요. 〈엠엘〉이 왜놈들의 주구로 전락된지는 오래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몽땅 체포될수야 있소? 사실 당신네 사건도 〈엠엘〉의 작간이 많단말이요.》

그것은 사실일는지도 모른다. 혁명에 대한 동경과 열정에 불타서 작건크건 조직에서 하는 일이라면 신성시해온 순진한 청년이던 진규도 감옥살이 3년에 저으기 세상물정에 밝아졌다. 종파라는것도 보았고 그렇게 엄엄해보이던 《지도자》들이라는것도 별수 없는 한개 나약한 인간들에 지나지 않는다는것도 깨달았다.

처음 혁명에 눈뜬 청년앞에 그렇게도 눈부시게 열려있던 미래는 사라지고 암담한 현실이 가로막아나섰다. 감옥, 쇠창살, 고문, 쇠고랑 그리고 《지도자》들의 비굴한 권모술수와 열렬하던 《혁명》선배들의 한숨—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요, 이것이 이곳 서대문형무소에 갇힌 《혁명가》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준엄한 문제의 출발점이였다.

어떻게 이럴수 있단말인가? 그 도도하던 《리론》들은 다 어데로 갔는가?

진규는 다시금 쓰겁게 중얼거렸다.

《내 보니 〈화요〉도 별수 없더군요. 그저 그게 그게란말요.》

《하긴 〈화요〉라고 무슨 뾰족한 수야 있겠소? 하지만 그자들은 너무 심하단말요.》

《익보동무, 난 그따위 소리가 딱 듣기 싫소. 원쑤들앞에 무릎을 꿇겠거던 차라리 모두 국으로 가만 있는게 좋겠소.》

《아니 이 동무가? 동무는 그거 무슨 말본때요? 동무처럼 만용을 부리지 않았다고 그러는거요?》

《나자신도 너절하오. 하지만 잘난 사람들은 어데 있소? 나는 답답하오. 가슴이 터진단말요. 나는 조선공산주의운동이라는것이 이런것인줄은 참말 몰랐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여기 다 있건만 누구 하나 똑똑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소? 너절하오. 모두 너절하단말요.》

진규가 갑자기 울분을 터뜨려놓자 익보는 잠시 멍하니 바라보더니 입귀를 푸들푸들 떨었다.

《동무도 보아하니 동요하고있군.》

《동요? 그렇소, 나는 동요하는지도 모르겠소. 그런데 당신들은 뭐요? 겨우 혁명에 눈뜬 나는 동요한다치고 나한테 용감하게 싸우라고 말끝마다 다지고 맹세를 받아내던 〈지도자〉들은 어떻소?》

절컥 하고 감시구가 열렸다. 최호빈이 끌끌 혀를 차며 돌아앉다가 기침을 터뜨렸다.

《비석마르크》는 참하게 앉아있는 《정의부령감》의 손끝을 유심히 살피다가 입귀가 푸들거리는 김익보의 창백한 얼굴을 쏘아보았다. 진규는 모르는것처럼 하고 고개를 돌려 통기창을 올려다보았다.

《무언가 앙! 1600— 에 1666번, 규칙대로 꿇어앉지 못할가?》

그래도 진규는 벽만 쳐다본다.

《비석마르크》는 T자형으로 생긴 감방열쇠로 창구멍을 똑똑 두드리며 잠시 타산해보는 눈치더니 차라리 한마디 위협을 그럴듯하게 하는것이 자기 체면을 유지하는데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엄숙하게 선언하였다.

《1660—에 1666번, 너 벌써 나한테 여섯번째 들켰다는것을 기억해두라. 사상범은 사상범답게 놀아야 한단말이다. 내가 대단히 성급하다는것을 잊지 말아!》

감시구가 닫기고 뚜벅뚜벅 발걸음소리가 《중앙》방향으로 사라졌으나 진규의 눈길은 여전히 한곳에 못박혀있었다.

(동요? 아닌게아니라 동요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여기에 혁명을 한다는 내노라는 사람들은 다 들어와있다. 그런데 결국 꼴이 무언가? 과연 이렇게 돼도 조선혁명은 언젠가 되살아날수 있단말인가?)

진규는 공판이 지나고 비교적 감옥생활이 안정되자 어느때부턴가 이러한 의문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혁명의 기세는 무서운듯하였다. 누구나 주먹을 휘두르며 열변을 토했다. 그 주먹아래서 왕조가 허물어지고 그 열변밑에서 부르죠아의 정부가 산산쪼각이 나서 흩어질것만 같았다. 부르죠아, 지주, 《천황》, 《총독》—그까짓것들은 회의를 하나 하면 하루밤에 열두름씩이라도 요정낼것 같았다. 그러나 정작 부딪쳐보니 세상이란 그렇게 간단한것이 아니였다. 부르죠아란? 지주란? 《천황》이란? 《총독》이란?… 그것들을 하나도 한귀퉁이도 허물어내지 못하고 그처럼 기세충천하던 혁명의 《지도자》들은 한개 경찰류치장에서, 하나의 감옥속에서 벌써 향방을 잃고 갈팡질팡하였다. 감옥속에서는 열변이 쏟아져나오던 입에서 한숨이 새여나오고 나라와 계급을 구원하려던 그 억센 주먹으로 감옥

공장의 봉투를 붙이고 그물을 떴다. 아무도 혁명의 앞길을 예언하는 사람은 없었고 아무도 로선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많던 《로선》이 다 어디로 갔는가? 그 많던 《지도자》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어떻게 할것인가? 장차 어떻게 하면 나라를 찾을수 있단말인가? 어떻게 하면 이놈들 원쑤를 갚을수 있단말인가? 그래 이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을 살고 주저앉아야 한단말인가?)

어느날 밤 피로운 꿈끝에 깨여났다가 문득 이런 의문을 느끼기 시작한것이 탈이였다. 이날부터 진규는 어떤 감방, 어떤 고문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모진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사위를 둘러보고 통방을 날려보고 익보나 최호빈을 걸어 론쟁을 해보아도 조선혁명의 앞길은 막연하기만 하였다. 한다는 소린즉 그러느라면 세계혁명이 승리하고 그때면 자연 조선도 혁명을 하게 될것이라는 쓸개빠진 수작들이였다. 나라와 겨레를 생각하는 피끓는 가슴들을 처절한 판가리싸움판으로 부르던 신념이란 고작 그만한것이였다.

악몽과 같은 무서운 회의와 울분에 시달리는 어둡고 피로운 밤, 차고 딱딱한 감방마루바닥에 눈물젖은 볼을 안타까이 비벼대면 아득한 옛추억속에서 처량한 배고동소리가 들려오군하였다. 진규가 나서 자란 고향의 앞바다엔 암초가 많았다. 별빛도 새여나오지 못하게 안개가 자욱히 덮인 밤이면 바다에서는 출렁이는 파도소리속에 뭍을 찾아 헤매는 배가 밤새도록 구슬픈 고동소리를 울리였다. 지척도 분간할수 없는 두꺼운 안개의 장막을 뚫고 별이든 등대이든 거리의 불빛이든 무엇인가 향방을 가리켜줄 빛을 찾아내려고 안타까이 배전에 붙어서있는 배사람들의 형상을 머리속에 그리며 어린 진규도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라침판도 해도도 못가진 배들은 때때로 험한 바위에 부딪쳐 구원을 부르던 마지막 고동소리마저 파도소리에 삼키우고 물속깊이 가라앉았다. 빛을 그리던 그 구슬픈 배고동소리가 잊혀지지 않았다. 안개 자욱한 암초의 바다에 라침판도 해도도 없이 나서서 거치른 파도에 떠밀려가는 배우에 오늘은 바로 그자신이 타고있는듯하였다. 사공은 많아도 향방을 아는 사람은 없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검게 설레이는 파도가 있을뿐 배는 어데로 가야 할지 모른다. 어디에 빛이 있는가? 과연 조선의 민중이 타고 가는 이 배를 행복의 저 언덕으로 이끌어줄 등대는 어디서 빛을 뿌리는가? 두꺼운 안개, 습기찬 바람, 드높은 파도소리, 물새소리도 잦아든 거치른 밤바다에 안타까이 구원을 부르는 배고동소리만 처량한 여운을 끌며 울려오는것이다.

진규는 얄팍한 솜이 그나마 뚤뚤 뭉친 걸레같은 포대기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마음속에 울리는 그 고동소리를 지워보려고 모대기였으나 허사였다. 아무데서도 빛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진규는 자주 익보에게서 《동요》라는 말을 들었고 그러면 긴긴 밤을 뜬눈으로 밝힌 진규는 피발 선 눈을 공허하게 뜨고 멍하니 앉았다가도 불시에 불같은 항변을 쏟아붓군하였다.

지금도 하염없이 천장밑을 쳐다보지만 여전히 숨막히는 의문을 풀어줄 대답은 없다. 여전히 바다엔 안개가 두텁고 등대불도 별빛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때문인지 가슴을 허비는 안해의 영상이 떠오르는가 하면 억지로 떼놓고 왔다는 현아가 온갖 사설을 다 조잘거린다는 말이 생각났다. 안해가 어떻게 걸어갔을가? 문득 남아있는 형기가 아득하게 생각되였다. 가슴이 바질바질 타올랐다.

그러자 불시에 싸늘한 비수같은것이 머리속을 가르고 들었다.

(이런게 동요라는것이지. 혁명의 앞길은 막연한데 처자나 만나서 뭘 하겠다고… 더러운 소부르죠아근성이야. …)

진규는 랭소가 어린 입술을 가볍게 떨며 어둑시그레한 벽을 바라보았다.

어떤 장난군이 새겨놓았는지 간수들이 아무리 악을 쓰고 지워도 지워내지 못한 글줄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세끼 돌 섞인 콩밥은 모두 먹고	三食石飯 모두食
달밝은 철창아래 쿨쿨 잠든다	月明鐵窓쿨쿨宿
감옥동산에서 한스러운 뻐꾹새가 울면	恨馬獄山뻐꾹哭
붉은 수의의 거룩한 얼굴에 눈물짓는다	紅衣聖容줄줄淚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일제의 조선강점을 밑받침하는 폭력의 복마전 서대문형무소에서는 이렇게 날이 밝고 해가 저물어 세월이 흘러갔다.

3

질척질척한 장마와 공사장 삽날아래 쓰러지는 비명, 잡놈들을 싣고 망나니처럼 달리는 합승뻐스의 아세틸렌냄새, 먼지오른 아스팔트보도

를 울리는 칼소리,쇠고랑소리,회오리바람 그리고 목메인 사회운동자들의 웨침과 한숨,눈물속에 1920년대는 저물었다.
뜨거운 열풍에 폭동의 새 소식을 싣고 1930년대가 시작되였다.
광주학생사건의 파도가 전국을 휩쓸더니 뒤이어 신흥탄광의 폭동소식이 열풍과 함께 휘몰려왔다.
진규가 감옥살이를 마치고 세상에 나와보니 이번에는 5.30폭동의 소문이 귀가 멍멍하도록 세차게 고막을 두들겼다. 장거리에서도 전차간에서도 그 이야기였다. 신문도 잡지도 활동사진의 변사까지도 《폭동》,《폭동》하고 소리쳤다.
미증유의 세계적인 경제공황과 불경기,실업과 기아에 허덕이는 거리에 파쑈화의 물결이 덮치고 폭동의 열풍이 휩쓸었다. 4년 가까운 감옥살이에 허약해진 몸은 너무나 센 자극에 휘청거렸다.
진규는 울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우선 세상형편을 알려고 변호사 서천호를 찾아갔다.
다리는 떨리고 가슴은 초조감에 볶이였다. 변호사 서천호의 응접실에서도 들리느니 공황이요,전쟁이요,폭동이요 하는 말들이였다. 《하마구찌》내각의 《합리화》안과 《만주이민》정책,장개석,염석산,풍옥상간의 중국군벌전쟁,식민지요,침략이요 이따위 소리만이 담배연기 자욱한 방안에 떠돌았다. 신문기자도 변호사도 신간회의 거물들도 한결같이 무엇인가 반대하고 무엇인가 짓부셔야 한다고 웨쳐댔다.
《오,영웅이 왔구만.》하고 시꺼먼 와이샤쯔에 새하얀 삼베양복저고리를 받쳐입은 커다란 사나이가 마치 싸움이라도 걸려는듯이 정력적으로 걸어오더니 솥뚜껑같은 손으로 진규의 손을 틀어쥐였다. 목소리는 술때문에 갈리고 보매 멋을 부린듯한 그의 옷주제는 말할수 없이 거치른 인상을 자아냈다.
커다란 머리에 쑥대발처럼 뒤엉킨 머리칼을 뒤로 추어넘기며 그는 말하였다.
《내가 배윤종이요.》
응당 자기 배윤종이를 모든 사람이 알아봐야 하며 또 알아볼것이라는듯한 그의 어줍잖은 태도에 진규는 떨떨해졌다.
배윤종은 그런 진규의 표정에는 아랑곳없이 손에 쥐고있던 담배를 마루바닥에 툭툭 털고나서 삑 몸을 돌렸다.
《여러분,그리고 서천호선생,이 사람이야말로 영웅이란말입니다.

서천호선생이 비록 자진해서 변호계를 내고 간교한 일본법관들을 상대로 이 청년프로레타리아를 옹호하여 화려한 설전(舌戰)을 벌리기는 했지만 선생은 아직 이 조선청년의 진가를 다는 모른단말입니다. 시대는 바뀌였습니다. 바야흐로 폭동의 시대가 시작되였습니다.》

진가를 모르는것은 서천호보다 진규자신이 더하였다. 일찌기 혁명조직에 참가하여 조직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어떤 위험앞에서도 물러설줄 몰랐으며 과격한 선동연설을 서슴없이 들이대군하여 소문도 나고 또 그러는 과정에 일정하게 세련된것도 사실이지만 실상 그가 3년여의 징역을 살도록 일본제국주의에게 타격을 주었다고 볼만한것은 없었다. 그러니 오늘날 그가 《영웅》으로 된것도 따지고 보면 법정에서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한가지 사실이 울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러일으킨 환각에 지나지 않은것이였다.

진규는 서글펐다. 자기가 《영웅》일진대 이런 값눅은 《영웅》도 못된 혁명가들은 대체 뭣들이란말인가?

서천호는 배윤종의 그런 언행에 익숙한듯 담담한 표정으로 조카딸을 불러 배윤종이 도처에 뿌려놓은 담배재를 훔치게 하였다.

학생복을 입은 서천호의 조카딸은 역시 학생복을 입은 웬 청년과 나란히 앉아있었는데 그들의 눈길 역시 내내 진규에게로 쏠리고있었다.

《표정이 근본 다르군요. 혜숙씨 말대로 확실히 강철같습니다. 난 이젠 인테리들에 대해서는 환멸밖에 느끼는게 없어요.》

《두현씨도 신경이 예민해졌군요. 잠간 계셔요. 저 배선생,재털이를 좀 부시고 와요. 이 방은 통채로 배윤종선생의 재털이랍니다. 우리는 결국 배선생의 재털이속에서 조선의 운명을 론하고있는거예요,호호호.》

진규는 그들의 말이며 눈길이 모두 귀에 설고 눈에 설어 될수록 딴데로 주의를 돌리려 하였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가령 법률이라는것을 두고 봅시다. 저 함무라비법전으로부터 시작하여…》

배윤종은 서혜숙이 걸레질하는것도 아랑곳않고 또다시 온 방안에 담배재를 뿌리며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저쪽구석 커다란 종려나무화분 그늘에 앉아 신문을 뒤적거리고있던 똥똥한 사나이가 두꺼운 도수경너머로 힐끔 윤종을 건너다보더니 입귀를 찌그러뜨리고 웃었다.

《여보 윤종형.》하고 똥똥한 도수경의 사나이는 놀랄만큼 양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어제 보시던 백과사전에서 베껴온 이

야기요?》

《뭐요?》 윤종은 습관적으로 그 큼직한 손바닥으로 산발한 머리를 뒤로 쓸어넘기더니 갑자기 비굴할만큼 이지러진 웃음을 띠우며 말했다.

《한선생,선생은 그저 백과사전밖에 모르는구려. 선생은 이 요동치는 지구에 대해 도무지 무감각이란말입니다. 그건 지성의 빈곤이요,령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엇때문에 선생은 폭동을 반대합니까?》

서천호는 진규를 조용히 자기 곁으로 불렀다.

《주태화씨는 그저 책방을 하시는가요?》

《글쎄요.》 진규가 애매한 대답을 하니 서천호는 알만하다는듯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종이노를 꼬아 상아물부리를 정성스레 후벼냈다.

《고생을 하실거요. 재능이 있던 사람인데.》

서천호는 귀가 멍멍하도록 웨쳐대는 주위의 소음에서 될수록 멀어지려는듯 몸을 뒤로 젖히며 말했다.

《그 사람이말입니까? 주태화가 재능이 있단말입니까?》

방금 뚱뚱한 도수경의 사나이를 상대로 옆사람의 귀가 따갑도록 떠들고있던 배윤종이 불쑥 끼여들었다.

《천만의 말씀이올시다. 주태화야 내가 잘 알지요. 저 사람이 비록 주태화의 매부이긴 하지만 주태화의 비극을 나만큼은 모를거요. 주태화의 조부로 말하면 갑신정변때 쫓겨난 개화당 량반이요,그의 아버지 주상진으로 말하면 고종에게 외국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소장을 두번이나 써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다가 곤장만 맞고 쫓겨간 시골서생이라… 그의 집안이 지금도 회령에 있지만…》

과연 배윤종은 아는것이 많았다. 자기 처가의 래력을 생판 낯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얻어듣게 되는 진규는 무엇때문인지 가벼운 불쾌감을 느끼였다.

《그런데 주태화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배윤종은 마치 주태화의 본질을 규정하는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세계적인 문제라는듯이 열이 올라서 계속하였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1920년대가 남긴 초라한 사생아란말입니다. 그는 이붓애비도 친애비도 따르지 않는 비뚤어진 사생아처럼 어제는 사회주의자 흉내를 내였는가 하면 오늘은 부르죠아의 치부수단을 배워 졸부가 될 꿈을 꾸고있단말입니다.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이런자들을 조소하는바입니다. 한선생,나는 이러한 인간들,말하자면

기발의 색이 애매몽롱한 이러한 소부르죠아들에게 침뱉는바이올시다. 우리는 붉은기를 들고 단연 폭동에로 궐기해야 합니다.》

《윤종형,》한선생이라는 똥똥한 도수경의 사나이가 그 양간한 목소리로 가볍게 불렀다. 《윤종형은 오늘 리발소에 가서 면도를 하시고 래일은 검은 기발을 들고 청량리묘지로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주장하는 폭동이 순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천호는 떨떨해있는 진규의 여윈 손을 천천히 쓸며 다감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하지 마시오. 모두 괴로와들 하고있습니다. 저 배윤종이라는 사람은 신문기자인데 한때 주태화씨와 같이 일한적도 있습니다. 저렇게 싱거운 소리를 하는것도 아마 출로가 막힌때문이겠지요. 사실 우리들에게는 출로가 없습니다. 밀창 빠진 요설의 란발입니다. 참,나라가 이 지경이 될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엇때문인지 요즘 나는 자꾸만 누구와 헤여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부두에 서서 암만 손을 흔들어도 말이 나가지 않는구려. 그래 몸을 뒤척거리고 보면 꿈이란말입니다.》

서천호의 담박하고 조용한 목소리에는 왜 그런지 구슬픈 여운이 느껴졌다. 법정에서 정의를 옹호하여 사자처럼 울부짖던 서천호가 이처럼 아련한 사람이라는것이 뜻밖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매일 모여듭니까?》

진규는 경우에 맞지 않는 질문이라는것을 생각하면서도 한마디 물었다.

《모여듭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렇게 제마끔 떠들기는 하지만 실상 갈곳을 아는 사람은 없단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나말입니까? 허허허.》

서천호는 서글프게 웃더니 인차 진중한 표정이 되여 말했다.

《난 혁명가가 못됩니다. 나는 그저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조선이 조선사람의 조선으로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일뿐이올시다. 나는 그저 빌지요. 그 누가 조선을 건져줄 큰 인물이 태여나기를 밤마다 빌지요. 참으로 마음은 간절하나 우리의 앞길은 막막한듯합니다. 이 몇해사이에 내 머리도 세였습니다.》

서천호는 쓸쓸하게 짧게 깎은 머리를 쓰다듬어넘겼다. 희슥희슥한 귀밑머리가 가시처럼 진규의 눈을 찔렀다.

진규는 새삼스레 눈길을 돌려 방안을 살폈다. 웨치는 사람도 있다.

책장과 신문장을 번지며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있는 사람도 있다. 서천호의 조카딸과 나란히 앉은 청년들은 열정에 넘치는 시선으로 모든 말,모든 거동을 주시하고있다. 통털어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두고 안타깝게 모대기고있는 군상들이였다. 조선의 량심적인 지성이 몸부림치는 이 응접실은 무엇때문인지 진규의 가슴에 애수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나라를 생각하여 안타까와하고 괴롭게 모대기고있으나 그들이 보는것 역시 자기와 마찬가지로 뿌옇게 흐린 회색빛의 아리숭한 조선의 전망이였다.

진규는 서천호의 집에서 사흘밤을 묵으면서 감옥에 있는 사이 벌어진 당의 해산과 12월테제,코민테른이며 세계 각국 당의 움직임 등 아시아와 유럽의 정세에 대해 산만하나 꽤 풍부한 이야기를 들었다. 거기서 얻어진 인상은 조선도 세계도 폭동을 배태한채 몸부림치고있다는것이였다. 시절은 폭동의 진정한 예술가를 기다리고있다는 느낌이였다. 그러나 그뿐이였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폭동이 벌어지고있다는 간도로 화살같이 달렸다. 한시가 새로왔다. 아무 한 일도 없이 감옥살이만 강요당한 그 분풀이를 한시바삐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금시 날개가 돋친것만 같았다.

고민하는 지성들과의 리별은 적막하였고 왜 그런지 서먹서먹하였다. 목이 갈리도록 떠들고 웨쳤지만 밀려드는 파쑈의 물결과 폭동의 열풍속에 운동부족으로 배배 탈린 그들의 아래도리는 휘청거리는듯하였다. 술기운으로 웨친 호언장담이 이튿날아침이면 쑥스러워지는것과 같이 배윤종은 어설픈 웃음을 입가에 띠운채 진규의 손을 틀어쥐였다.

서천호의 조카딸과 나란히 앉아 자기를 자꾸 바라보던 그 해여진 학생복의 청년이 손을 굳게 틀어쥐며 물었다.

《폭동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탄압이 심하다는데 가서 일없겠습니까？》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로가 있습니까？》

《뚫어봐야지요. 부딪치면 길이 열리기도 하겠지요.》

두현이라고 하는 그 학생은 진규의 막연한 대답에 실망한듯 꿀꺽 침을 삼키고 슬그머니 손을 놓았다. 골목길까지 따라나온 서천호는 간절한 눈길로 거듭거듭 그를 바라보았으나 결국 말은 하지 못하였다. 로자돈을 찔러넣어주며 몸보양을 잘하라고 당부하는 그의 눈귀에는 뜻밖에도 핑하니 물기가 어리였다.

그것은 피눈물나는 회한과 교훈을 남긴 20년대에 대한 작별이기도

하였다.

진규는 남대문시장에서 밀짚모자를 하나 사쓰고 안해가 찾아간 나머지 령치품을 꾸린 조그만 보따리를 끼고 몇해만에 보는 태양이 너무나 눈에 시여 고개를 푹 숙인채 다시금 북행렬차를 탔다.

차간은 붐비였다. 화장실옆 구석진곳에 자리를 잡은 그는 삼등객차의 찌는듯한 무더위속에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얼굴을 덮은 밀짚모자를 치우지 않았다. 불깃한 전등불광아래 곤한 숨소리들과 아이들의 보채는 소리가 떠도는 밤이 왔다. 그래도 밀짚모자를 얼굴에 올려놓은채 자는듯이 변하는 차간의 행색과 사투리들을 느꼈으며 그 모든것을 어슴푸레 느끼면서 새로운 잠에 떨어지군하였다.

절커덕절커덕 레루짬을 넘는 단조로운 차바퀴소리에 무심히 귀를 기울이고있노라면 그렇게 레루와 레루가 이어지고 정거장과 정거장이 이어지고 그리하여 아득한 자기의 인생행로가 우불구불 이어지는것이였다.

자기를 이 길로 들여세운것은 아버지였는지도 모른다. 한말에 지방진위대에서 병정살이를 하던 아버지 박병무는 조선군대 해산과 망국에 피눈물을 토하면서 천하를 저주하더니 주권을 빼앗긴 고국에 무슨 낯을 들고 살겠느냐고 일가권속을 다 거느리고 간도로 건너갔다.

거기서 화전 한뙈기를 일궈놓고 홍범도를 찾아 봉오골로 들어가더니 소식이 끊어지고말았다.

혹은 자기를 이 길로 들여세운것은 형일는지도 모른다. 형은 젊은 나이에 벌써 사상계에 두드러졌던 식자 있고 도량 넓은 활달한 청년이였다. 독학으로 공부를 한 그는 민족주의자들이 경영하는 학교에서 체육교원노릇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아버지가 떠나간 다음 일가의 살림은 몽땅 형의 어깨에 짊어지워졌다. 그러나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아는것이 많아도 집안살림에 대해서는 판무식한 그는 통 가사를 돌보지 않았다. 결국 집안일은 어린 진규의 여린 두어깨에 실렸다. 어머니가 병약한 몸으로 뚜지는 화전 한뙈기로는 생계를 유지할수 없었다. 진규는 지주집 말몰이가 되였다. 무연한 초원으로 말을 몰고 다니였고 저녁이면 겨울날 꼴을 태산처럼 해지고 들어와야 했다. 물론 형이 억지로 붙여준 학교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형은 이런 일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진규를 못난놈이라고 욕하였다. 산 사람의 입에 거미줄 치는 법은 없다. 그러니 한창 소년시절에 배를 다소 곯더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것이였다. 형의 비현실적인

주장은 어머니의 가슴도 아프게 했고 진규자신의 가슴도 저으기 언짢게 했다. 그러나 현실은 진규로 하여금 말몰이로부터 머슴살이에로 그리고 머슴살이로도 구복을 채울수 없는 이 세상에 보복하는 길로 내몰았다. 일속에서 뼈마디가 굳어지고 그런속에서 앙심이 뭉쳐갈 때 비로소 형의 말이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나이도 지났거니와 형도 학교에서 종적을 감추고말았다. 3.1운동때 학생들을 두만강가에 데리고 나가 시위를 하고 만세를 부른것때문에 일제관헌의 추격을 받게 된 형은 할수없이 할미령턱밑으로 피신해갔는데 그후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곳에서 또 폭동을 조직하다가 발각되여 체포현장에서 다른 동지들과 함께 총살당했다는것이였다. 어린 나이에 말몰이가 된 동생을 보고 형은 내내 책망하면서도 속이 언짢아서 볼만한 책들을 보내주었다. 처음 진규가 나라를 생각하고 이 세상의 불합리성에 대해 깨치기 시작한것이 초원에 말을 풀어놓고 억새밭그늘에 드러누워 읽은 그 책장에서부터였다.

형이 떠나간 다음 집은 사흘돌이로 왜놈경찰의 수색을 당했다. 어머니도 진규도 매를 맞았다.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이 다 소식이 묘연해지자 심화가 덮친데다 왜놈들의 발길에 채여 몸져누웠다. 진규는 할수없이 머슴살이를 그만두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뚜지던 화전을 부치였고 이미 정혼이 되여있던 삼녀와 혼사를 치렀다. 형에 대한 끔찍한 소식이 있기전에 어머니는 그래도 큰아들이 어느 하늘아래에선가 큰일을 꾸미고 어느땐가는 대사를 이룩하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안타깝도록 가슴에 다지며 한많은 이 세상을 등졌다. 어머니의 소원에 따라 너무도 가벼워진 어머니의 시신을 멀리 고향하늘이 바라보이는 두만강가, 언젠가 피나리보짐을 지고 건너와서 첫울짱을 박던 버드나무그늘밑에 묻었다.

숨막히는 세월이였다. 가슴을 갈가리 찢어헤치고 선혈이 뚝뚝 듣는 심장을 꺼내여 야멸차게 내려다보는 랭혹하고 표정 없는 하늘에 대고 태질을 하고싶은 세월이였다. 머슴살이 수년에 농사일이라면 막힐데 없는 상일군이 돼버린 진규가 갑자기 세상을 저주하는 목소리를 자주 입에 올리고 바쁜 농사일을 제쳐놓고 거리의 머리 긴 사회운동자들의 연설을 들으러 다니기 시작한것이 그때부터였다.

혹은 자기를 이 길로 들여세운것은 처남의 헌책장에서 뽑아낸 어설픈 사회주의서적들이였는지도 모른다. 형의 덕분으로 가까스로 민족주의자들이 경영하는 비정상적인 보통학교를 몇해간 다니다 만 진규에게는 부르죠아요, 잉여가치요, 변증법이요 하는 소리들이 도무지 대중

할수 없는 말들이였다. 단지 그러한 책들을 왜놈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런 책을 보면 왜놈들이 잡아간다는 리유때문에 그렇게도 열정을 담아 고콜불에 코구멍을 그슬리며 밤을 패워 읽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자기를 이 길로 들여세운것은 학교마당에서 울려오는 나팔소리가 《집 팔아라, 소 팔아라!》하는 소리로만 들려온다고 이 세상이 하루속히 뒤집혀야 하겠다고 수군거리던 어머니와 동네 늙은이들의 한숨소리였는지도 모른다.

자기가 이 길에 들어선것은 조선력사를 가르치며 을지문덕이야기를 하다가는 눈물짓고 최영장군이야기를 하다가는 눈물짓고 강화도조약이며 을사망국조약이야기를 하고는 마침내 소리내여 엉엉 울군하던 동명학교의 채광한선생때문이였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지난 시절은 그렇게 흘러갔다. 해삼위에서 넘어왔다는 머리 긴 청년들의 열변도 들었고 아라사의 소식도 들었으며 웅변대회에도 가보았고 사회운동자라는 사람들의 강연도 들었다. 그 모든 착잡한 인상가운데서도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것은 철이 들자 자기앞이 꽉 막혀버렸다는 절망감이였다. 앞이 캄캄하게 막혔다는것을 느꼈을 때 희미하게 트인 길이 이 길이였다.

진규는 무작정하고 이 길을 걸었다. 그 길이 가닿은곳이 서대문감옥이요, 그 감옥을 거쳐 나온 길이 이 철길이였다.

감옥에서 나올 때 눈앞이 열리려나싶었다. 《폭동》, 《폭동》하는 소리에 그의 발걸음도 반달음으로 변하였다. 서천호의 집대문을 두드릴 때는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이 급하였다.

그러나 기대는 물거품같이 흩어졌다. 폭동은 이미 지나갔고 간도는 피바다에 잠겼다는것이다. 폭동이란 그저 그러고 마는것인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달리는 갈 길이 없었다. 길— 그것은 숙명과 같은것이였다. 그래서 그는 다시 초조한 마음을 안고 이 길에 올랐고 막연한 기대를 품고 아득한, 자기의 피맺힌 반생이 흘러간 그 거치른 광야를 눈앞에 그리는것이였다.

날이 훤히 밝자 차창가에 동해가 나타났다. 소금기어린 바람이 불어와서 밀짚모자를 날리는바람에 진규는 눈을 떴다.

바가지짝들이 데룽거리는 이사짐, 버들상자, 네귀가 꿰진 트렁크들, 광목천으로 호아맨 바랑과 삼베보퉁이에 싼 이불등속이 빼곡이 들어얹힌 선반우에 너덜너덜한 띠며 오줌내가 밴 포대기가 드리워 흔들거리고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와도 차간에는 독한 담배연기가 진하게 배여있는데 맨감투바람의 령감이 호물어진 볼에 구멍이 나도록 담배를 빨아댄다. 길다란 담배대끝에 달린 백통고불통에서 지글지글 대진이 끓고 조심히 걸어놓은 갓이 흔들리며 령감의 허옇게 센 나릇을 건드린다. 누가 짐을 뺏들어가기라도 할가봐 보퉁이를 잔뜩 껴안고 연신 턱방아를 찧는 젊은 아낙네, 통로에 퍼더앉은 중늙은이들, 목에 수건을 질끈 동인 인부모집에 가는듯한 로동자들과 쇠똥벙거지에 승마바지를 입은 감독풍의 사나이, 콩나물시루처럼 이지러진 군상으로 빼곡한 3등객차의 풍경은 서대문감옥의 풍경보다 조금치도 더 신선한데라고는 없다.

그러나 가난과 압제에 쫓겨가는 사람들의 그 무거운 표정속에서도 믿고싶고 무엇인가 살뜰한 말을 건네보고싶은 조선사람에게서만 느낄수 있는 그 순결하고 곧은 마음씨만은 어디서나 느낄수 있었다. 인부모집에 가는 로동자들은 한자리에 대여섯씩 포개여앉아있으면서도 시골역에서 새로 올라탄 한 할머니를 위하여 두사람이나 맨바닥에 내려앉았다.

기차는 수많은 사투리와 수많은 한숨, 넋두리에 지지눌려 숨가쁘게 달린다.

《에구, 이젠 그만 빨아라. 자꾸 빤다구 젖이 나오니?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아버지 있는데 간다. 그러면 쌀밥 지어줄게.》

언제, 어디서 탔는지 신포까지 옆에 앉아있던 장사군은 내리고 아이데린 젊은 아낙네가 앉아있다. 짜증 섞인 남도사투리와 함께 그 나이에 벌써 시들어진 젖을 뽑아내자 아이는 불에 덴것처럼 울어댔다. 호물때기령감은 눈살을 찌프리며 더욱 맹렬히 꾸륵꾸륵 담배대를 빨아대고 그 옆에 앉은 거간군같은 사나이는 포장지로 썼던 구겨진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며 돌아앉아 열심히 주식시장소식을 더듬고있다.

아낙네는 아이를 얼리다 얼리다 지쳐서 땀고랑이 죽죽 난 가슴을 여미며 맥을 놓고 팔을 쳐뜨렸다. 그 녀자의 먼지오른 시뿌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붓겼다. 아이는 무릎에 떨어져서 발버둥치고 우는데 젊은 녀인의 이마에는 벌써 주름살이 깊이 새겨지고 눈에는 가랑가랑 눈물이 어려있다. 허기진 바싹 마른 입술이 바르르 떨고있었다. 그 녀자를 통채로 짠대야 한방울의 젖도 나올것 같지 않았다.

《만주로 갑니까?》

진규는 오래간만에 해보는 말이라 아직도 굳어지는 입술을 가까스로 벌려 물었다. 특별히 알고싶었다기보다 무엇인가 말을 걸어주고싶었다.

《네? 네— 아이아버지가 목단강에서…》

아낙네는 첫눈에도 감옥에서 나온다는것이 알려지는 진규의 빡빡 깎은 머리와 해별을 못봐서 희누렇게 뜬 얼굴을 무섬기 어린 눈으로 힐끔 쳐다보고는 아이를 부둥켜안았다.

진규는 그런 눈치를 진작 느끼고있었지만 어쩔수 없는 충동에 또 한마디 하였다.

《먼길에 고생합니다.》

젊은 녀인은 그저 꼴깍 마른침을 삼켰다. 맞은편 늙은이가 무엇이 못마땅한지 담배대를 미투리바닥에 대고 탁탁 털었다.

진규는 다음 정거장에서 곽밥 두개와 숡음질해온 시퍼런 풋사과 여라문개를 샀다. 변호사 서천호가 준 로자가 얼마간 있고 감옥에서 봉투를 붙이고 그물을 떠서 번 돈이 아직 얼마간 주머니에 남아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유, 일없어유.》

곽밥 한개와 사과를 아이에게 쥐여주자 젊은 녀인은 펄쩍 뛰였다.

진규는 못들은것처럼 돌아앉아 나머지 곽밥과 사과 몇알을 벽에 걸려 데룽거리는 보따리에 끼워놓고 다시 눈을 감았다. 안해는 어떻게 갔을가? 오는데만 석달이 걸렸다니 이 녀자보다도 몇갑절 고생스럽게 저 뜨거운 신작로를 걸어갔을것이다. 포구마다 들려서 생선을 받아 이고 집에 두고 온 아이와 감옥에 두고 가는 남편생각에 볶이우면서…

진규의 눈길은 저도모르는사이 넓고 시원한 바다로만 달렸다. 차안의 멀미나는 정경에 지쳐서만 그런것이 아니였다. 차안풍경— 그것은 다름아닌 이 나라 겨레들의 삶의 정상이였다. 어찌하여 저 시원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두고 이들과 나는 이 찌는듯한 무더위에 지지눌리며 숨가쁜 이 궤짝속에 스스로의 몸을 얽매여 낯설은 벌판으로만 밀려가는가? 행복은 제 고향산천에 저렇게 황량히 버려두고 거치른 바람속에 정처없이 나서는것인가?

말없는 바다를 향하여 아— 아— 소리치고싶었다. 어린 시절 고향의 바다가에 저렇게 높이 솟은 바위우에 앉아 끝없는 바다를 향하여 손나팔을 갖다대고 누군가를 불러 소리치던 생각이 났다.

그때는 비록 토스레도 온전히 몸에 감지 못했건만 마음속에는 조국의 바다가 길러준 넓음과 순결함과 아름다움이 있었다. 쌍바위가 서있는 그 도래굽이에 두발을 적시고 서서 해별이 희롱하는 바다를 바라보았었다. 자그마한 반도끝에는 외로운 등대가 서있었다. 별빛이 뛰노

는 물결우로 그 등대의 불광이 뻗어나갈 때 소년 박진규는 허기진 배를 그러안고서도 커다란 포부가 가슴속에 싹트는것을 느꼈었다. 막연하게 어딘가 먼곳에 가보고싶던 고향바다의 그 시절, 그러나 오늘 그 바다를 바라보며 그 바다에 다시 정붙이고 살고싶어도, 살고싶어도 떠나야만 하는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니 절로 주먹이 쥐여졌다.

푸른 송림이 지나가고 여윈 소 한마리가 고삐에 매여있는 야산을 지나자 다시금 돛대들이 어수선한 포구가 나타났다. 저 멀리 또다시 펼쳐진 바다가 그 한순간사이에도 어찌나 반가운지 몰랐다. 다닥다닥 기운 돛폭이 한껏 부풀은 고기배가 기우뚱하게 포구로 미끄러져 들어온다.

저 바다에 안겨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는 거치른 그 벌판으로 다시 가야 한다. 그리고 이 3등객차의 고달픈 길손들도 역시 제 삶의 길을 찾기 위하여 이렇게 피눈물나는 모대김을 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허 이런 법이 있소!》

주식시장 소식을 다 보자 이 면 저 면을 괜히 뒤번지고있던 거간군 같은 사나이가 호들갑스러운 목소리로 누구에게라없이 소리쳤다.

《아이들 일을 가지고 이렇게 조선사람 모두를 걸다니 이거 너무 합네다그려.》

사나이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게 울렸으나 밥꾸레미라도 쌌던것을 풀어낸듯한 구겨진 그 신문장에 관심을 돌리는 사람은 없었다. 진규가 힐끔 돌아보자 사나이는 드러내놓고 반가와하며 격분해서 소리쳤다.

《이거 좀 보시오, 이거 이래가지구서야 어떻게 〈내선일체〉라고 할수가 있소? 아이들이야 혹 그럴수도 있지 않소?》

진규는 그자의 《내선일체》라는 말이 더럽기는 하였으나 신문을 보는데 주려있었던차라 저도 모르는사이 손을 뻗쳤다.

1930년 6월 24일 그러니까 보름전의 《동아일보》였다.

2~3면은 신흥탄광폭동사건에 대한 기사로 꽉 들어찼다. 그런데 거간군이 격분한 기사는 1면 사설란에 실린 《너절하다, 전북일보》라는 괴상한 제목의 시평이였다. 일제놈들이 일본말로 간행하는 전북일보는 6월 14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바지 벗은 사나이》(無袴漢)라는 필자의 《아이의 대신으로》라는 사설을 실었다.

그렇지 않아도 벗고 다니다십이하는 왜놈사나이가 유독 바진지 치만지를 벗었다고까지 자칭하여나섰을 때는 단단히 잡도리를 한것인데 알고본즉 이 벌거벗었다는 일본놈은 구와바라라는자로서 조선에 온지

23년이나 되며 오래동안 학교 교장질을 했고 지금은 전북일보의 기자로 편집고문을 한다는것이다.

그자가 쓴 글의 내용인즉, 네살난 일본아이가 거리에 나갔다가 조선아이에게 장난감을 빼앗긴것을 걸어 온 조선사람을 도적으로 취급하고 모독한 글이였다.

《우리들은 자라난 뒤에도 그런 도적놈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할것인가? 솔개보담도 조선인이 무던히 나쁘다.》

《도적놈과 융화인지 뭐인지 누가 할것인가?》

《전조선민족에 향하여 그 각오를 토하여둔다.》

《여태까지도 너희들에 대하여 동물대우를 주는것은 당연하다.》

《오래오래 내던져두었던 총의 소제라도 하여둘가.》

《바지 벗은 사나이》의 이러한 말들을 렬거하면서 《동아일보》는 이것이 도발이며 집단적악감을 선동하는것이며 조선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것이라고 격분하고있었다.

《여보 형씨, 그래 이래가지구 어떻게 〈내선일체〉라고 볼수가 있소? 나는 너무하다고 생각하우다.》

거간군은 진규가 신문장을 든 팔을 후들후들 떨자 큰 지지자나 얻은듯이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그는 인차 무슨 반응이 있을줄 알고 진규의 입을 바라보았으나 그 커다란 입은 빗장이라도 지른듯 꽉 다물려 벌어지지 않았다. 사나이는 멋이 적어졌는지 조끼주머니에서 담배곽을 꺼내여 마꼬물부리에 권연을 길다랗게 끼우고는 양철곽에 끼운 성냥을 드윽 그어댔다.

《빌어먹을 자식들, 해볼테면 해보자는 소리는 한마디도 못하고…》

진규는 《바지 벗은 사나이》보다도 그 무지한것들앞에 리치를 캐고 어쩌고 하는자들에게 더욱 화가 치밀어 이를 갈며 내뱉았다.

《그래 형씨 생각엔 어떻소?》

거간군은 진규의 말에 얼마간 희망을 느꼈는지 다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옛소!》

진규는 구문흥정에 쪼들린듯한 그자의 길다란 말상에 신문을 홱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난 〈내선일체〉가 싫소. 뭘 얻어먹겠다고 〈내선일체〉, 〈내선일체〉 하오!》

《아, 아니 이런 법이 있나 —응 대체…》

거간군은 격분해서 펄펄 뛰였으나 진규가 하도 기상이 무섭게 앉아있으니 감히 면바로 시비를 걸지는 못하고 웅얼웅얼하였다.

차간이 아니라면 논판에 구겨박아놓고싶었다. 왜놈들은 아이들 장난을 가지고 신문에 사설을 두번씩이나 들고나와 총소제를 하겠다고까지 을러대는데 고작 항의나 하고 여기 이런자는 《내선일체》를 아직도 씨벌이고있으니 가슴이 터지다못해 오히려 눈물이 머금어지는것이였다.

4

점점 차간에 이사군보따리가 늘어가고 더욱 비좁아졌다. 그에 따라 고향사투리가 많아졌다. 해질무렵에 기차는 고향역에 닿았다.

고향풍경은 쓸쓸하였다. 동네가까운 산들은 이 무성하는 철에도 벌겋게 벗겨져있었다. 논발뙈기를 떼우고는 저렇게 자꾸만 산기슭으로 바라올라 산판을 뚜지는것이다. 간도에 건너간후에도 철들어서는 매해 한번씩은 다녀갔고 또 조직의 일을 보면서는 그 일때문에 자주 래왕하게 된 고향이라 낯설것도 없는데 석양노을이 비낀 고향은 이국의 사막을 바라보듯 향수만 키질하였다. 산등에 가리워 가까스로 바라보이는 포구에는 낯익은 쌍바위가 서있었다. 죽지 늘어뜨린 갈매기가 어수선한 돛대우를 지나 바위우에 가앉았다.

어디에도 그전날의 평화로움과 활기는 보이지 않았다. 선체는 보이지 않으나 부두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여오르는것으로 보아 필시 한바다에 왜놈들의 기선이 닻을 늘이고 탐욕스런 짐승의 아가리처럼 조선의 자원을 삼키고있을것이다. 차라리 보지 않으니만 못한 풍경, 그러면서도 잠시도 눈뗼수 없는 고장이였다.

진규는 터지도록 답답해오는 가슴을 억지로 달래면서 한동안이나 낯익은 산굽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역구내로 눈길을 돌렸다.

이 근방에 많이 널려있는 지하자원의 출하역으로 꽤 큰 정거장이기는 하나 정차시간이 이렇게 오랠수는 없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다른 손님들도 《또 연착인가, 넨장.》하고들 두덜거리며

저마다 구내쪽을 기웃기웃 내다보고있다.

보퉁이들을 이고지고 서로 부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손님들도 이젠 동안이 끊어지고 차시간에 늦어진 어떤 엿장사가 개찰구를 급히 빠져나오다가 엿반퉁이가 걸려서 한참 쩔쩔매더니 이번에는 뒤통수에 붙인 대패밥모자가 날려서 철길침목우를 껑충거리며 뒤따라가는것이 보일뿐이다.

1등객차쪽에서 긴칼을 차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 왜놈군대중위가 반달음으로 달려오더니 전철기옆에 서서 뒤집진 손에 둥근테를 쥐고 연방 거리쪽을 내다보고있는 역장앞에 가서 딱 멈추어섰다. 중위놈은 다짜고짜로 역장의 따귀를 불이 번쩍 일게 올려붙이고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가 뒤로 꿋꿋이 젖히면서 찢어지는듯한 소리로 날카롭게 웨쳤다.

《왜 또 우물우물 늑장을 부리는거냐! 련대장각하께서 대노하셨다.》

역장은 먼지구뎅이속에 나딩굴어난 뻘건테를 두른 제모를 황급히 집어쓰고 똑바로 섰다.

《네, 황송합니다. 저 노무라각하께서…》

《노무라가 뭐 말라비틀어진게 노무라냐! 빨리빨리 발차시켜! 각하께서 더워서 못견디시겠단다!》

《네, 그런데…》

역장은 자못 립장이 딱하다는듯이 고개를 돌려 거리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환성을 올렸다.

《아, 저기 오십니다, 저기…》

마침 역구내로 시보레승용차 한대가 들어서고 그 뒤로 역장실어방에서 서성거리던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들었다. 양복을 입은 사나이들, 왜놈계집들, 헌병완장을 두른 장교놈들이 웅기중기 모여왔다. 승용차문짝이 열리더니 진규도 풋낯이나 아는 례복을 걸친 키꺽다리군수놈이 먼저 내려서서 고개를 깊숙이 수그리고 손님을 모시여냈다. 새하얀 여름양복에 헤르메트를 쓰고 가는 금테안경을 낀 사나이가 먼저 내려서고 그 뒤로 뱀가죽같은 희끗희끗한 무늬가 박힌 깡뚱한 왜옷에 애기띠같이 실한 띠를 한배나 되게 칭칭 허리에 동인 맨머리바람의 왜씨름군같은 사나이가 바오라기만한 끈이 달린 높직한 게다를 들들 끌며 내려섰다. 이 황소같은 사나이는 단장을 짚고있었는데 진규는 대뜸 그것이 보통단장이 아니라 단장처럼 깎은 칼집이라는것을 직감하였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그자의 깡뚱한 왜옷자락은 펄럭펄럭 앞자락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시꺼먼 털이 구지레한 넙적다리가 드러났다.

문득 《치마 벗은 사나이》라는 방금 본 신문구절이 떠올랐다.
그자가 차에서 내리자 모자에 누런 금테를 두른 경찰서장놈이 한손으로 패검을 잡고 한손으로 묵중한 가죽려행가방을 들고 급히 뛰여내렸다.
이때 역장은 자기를 곤경에서 구해줄 사람이 나타난 기쁨에 중위쪽은 돌아보지도 못하고 자동차께로 달려가려고 경솔하게 서둘렀는데 이에 기분을 잡친 젊은 중위놈이 발끈하여 역장의 뒤덜미를 움켜쥐더니 해볕이 이글이글하는 단단한 홈바닥에 개처럼 태를 치고말았다.
《노무라각하—》
역장은 한팔을 쳐들고 비명을 질렀다. 헤르메트를 쓴자는 상을 찌프리며 멈추어섰다. 그러자 역장실쪽에서 달려온 헌병놈들이 불의의 사건에 낯색이 변하여 칼을 걸어잡고 뛰려는데 그 먼저 홈에 올라선 황소같은 왜옷의 사나이가 게다를 들들 끌며 다가오더니 새파란 중위놈의 앞가슴을 그 지팽이로 쿡쿡 찌르며 웅얼거렸다.
《제국장교가 이게 무슨 꼴인가? 애숭이주제에 당돌하군!》
젊은 장교놈의 얼굴은 삽시에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당신, 당신…》
《이놈! 당신이 뭔가? 내가 누군지 모르는가?》
경찰서장놈도 군수도 별을 몇개씩 박은 헌병장교놈들도 감히 앞으로 나설 엄두를 못내고 뭇사람이 바라보는 면전에서 제국장교에게 가해지는 이 모욕을 부동의 자세로 똑바로 서서 바라볼뿐이였다.
문득 진규는 그 무리가운데 또 하나 낯익은 얼굴을 찾아보았다. 개여두었던 주름발이 그대로 남아있는, 몸에 솔은 레복바지저고리를 걸치고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는 사나이인즉 바로 진규의 이웃집에서 같이 자라다싶이 한 백동성이였다. 그 애비는 일찌기 고을에서 아전노릇을 하다가 후에 술도가로 치부하여 릉참봉을 하나 얻어해서 도가집 참봉으로 불리우던 백래봉이다. 진규의 아버지 박병무와는 한고향출신이지만 그놈이 일진회에 드나들고 박병무가 조선군대 해산후 의병들과 상종을 시작하자 서로 돌아보지 않게 되였다. 후에 아버지가 그놈의 고자질로 한번 집에 들렸다가 헌병분견소에 붙들려가서 달포간이나 곤욕을 치른후부터는 두 집안이 서로 원쑤지간으로 치부하는 사이였다. 그런 백동성이가 저렇게 쩔쩔매며 개올리는것을 봐서 두 왜놈들이 노무라일가의 패거리라는것을 진규는 어렴풋이 짐작하였다.
(흠, 일이 재미있게 되는군…)

일등객차쪽에서 성급한 걸음걸이가 또 하나 울려왔다. 작달막한 키에 팔자수염을 귀바퀴있는데까지 비틀어올린 나이 지숙한 장교놈이 와이샤쯔바람으로 붉은 가죽장화를 번쩍거리며 달려왔다. 그가 나타나자 젊은 중위는 한옆으로 물러서서 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울먹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련대장각하！》

《어떤놈인가！ 제국군인을 모욕하는놈은 썩 나서라. 한칼에 베여버릴테다！》

련대장이라는자는 약오른 독사상이 되여 사납게 웨쳤다.

《너는 어데놈인가？》

왜옷을 걸친 사나이는 세상에 사람이 없는것처럼 거만한 태도로 또다시 그 지팽이를 쳐들었다. 그러자 련대장이라는놈은 상대를 똑바로 노려보더니 무중 입을 딱 벌리고 저도모르게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니, 노무라중좌님, 이거 참 노무라각하！》

《흠— 자네 그러고보니 가와사끼군 아닌가？》

《네, 그 옛날의 가와사끼소위올습니다, 네.》

련대장놈은 팔자수염을 쫑긋거리며 자못 황송한투로 말했다.

《음— 내가 일찌기 자네를 전도유망한 청년으로 보아왔더니 과시 나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았군. 자네가 국경연선에서 련대를 훌륭히 지휘하고있다는 소식을 우리 고지로군한테서 이미 들은바 있네.》

《노무라각하》는 이빠진 호랑이처럼 쉰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가와사끼는 맨머리바람의 고개를 인형처럼 까딱 숙이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저 려순사령부에 계시는 노무라대좌말씀입니까？ 황송하올시다.》

《그렇네, 걔가 바로 내 조카네. 참 인사드리게. 이분이 바로 그 고지로군의 엄친이시고 또 내 종형되시는 슌스께상이네. 형님, 이 사람이 내 대위시절의 심복이였던 가와사끼군입니다. 아마 지금은 대좌겠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하여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두놈이 서로 인사를 끝내자 《노무라각하》는 새삼스럽게 그 유난스런 지팽이에 체중을 다 싣다싶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서서 시꺼먼 눈을 들어 불손하게 렬차의 창들과 구내를 죽 살피더니 울부짖듯이 한마디 하였다.

《에— 가와사끼군, 우리 형제는 지금 만주로 시찰하러 가는 길에 이

곳 광산들을 둘러보느라고 당지에 들렸다. 사정이 있어서 기차를 다소 연발시킨 모양인데 이에 대해 불평을 가질 필요는 없다.》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이 철도야 사실상 노무라상이 주인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약간한 오해를 했을뿐입지요.》

이때 삼등객차속이 갑자기 떠들썩해졌다. 왜놈들끼리 옥신각신하는것을 무슨 개싸움이나 구경하듯 구내를 바라보고있던 손님들은 판이 시시해진데다가 놈들의 놀아나는 품이 너무나 괘씸하여 저마다 분통을 터뜨렸다.

《여보,주인이면 차삯 도루 내오. 우린 연설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요.》

《개자식들,안갈테야!》

《손해배상을 물어라.》

차간들마다에서 이렇게 왁작 떠드는 소리가 터져나오자 방금까지 도고하게 뒤로 젖히고있던 왜놈들은 당황하였다. 놈들은 눈들을 빨며 무엇인가 욕설을 늘어놓으면서도 겁질린 눈길로 앞뒤를 살피더니 군중들의 목소리에 쫓기듯 일등객차쪽으로 비실비실 밀려갔다.

경찰서장놈이 묵중한 가죽가방을 들고 종종걸음으로 먼저 가고 뒤따라 구종군을 거느린 노무라형제와 가와사끼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따라갔다. 일등객차에 그들이 올라서자 배웅나온 일행은 모두 최경례를 하고 군인,경관놈들은 거수경례를 붙였다.

발차의 고동소리가 울리고 기차가 서서히 구내를 미끄러지고 여전히 최경례를 하고있는 역장이며 배웅나온 어중이떠중이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진규는 분노에 치를 떨며 마치 악몽에 시달리듯 그들의 몰골에 주의를 팔고있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가위눌린것모양 얽매인 자기의 육신과 넋의 몸부림을 느꼈다.

같은 차를 타고 국경선을 달리게 된 그놈들,진규는 그들의 대화와 정체를 다만 귀결에 얻어듣고 어렴풋이 짐작할뿐이지만 이 역시 자기 인생행로에서의 숙명같은 뒤얽힘을 느끼는것이였다.

진규가 노무라를 처음 본것은 근 20년전 일이였다. 한번은 노무라의 2세가 왔다는 소문이 들썩하여 동네아이들과 몰려다녔는데 그때는 사진에서나 본 새까만 홀테바지에 운두 높은 새까만 모자를 쓴 젊은놈이였다. 그놈이 다녀간지 얼마후에 동네어방의 논밭이며 광산과 산림이 모두 노무라의것으로 됐다고들 하였다. 백동성의 애비는 그때 노무라의 통변으로 따라다니더니 읍거리에 양조장을 내고 또 노무라상점

이라는 간판을 걸어 아이들의 코발린 돈까지 긁어모았다. 많지 못한 진규네의 땅뙈기들도 노무라에게 삼키우고말았다. 아버지가 간도로 떠날 결심을 한것은 바로 그 이듬해였다.

그후 고향에 올적마다 노무라의 소문이며 백동성의 소문을 들었다. 고향사람들의 생사문제가 그놈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듯 집을 팔아도 노무라, 매를 맞아도 노무라, 재판을 해도 노무라, 학교도 노무라, 병을 앓아도 노무라 모든것이 노무라와 관련되지 않는것이 없었다. 진규의 머리엔 어느새 노무라에 대한 인상이 꽉 뿌리박혀들었다. 고향정거장에 나타난 사나이를 척 보고 노무라라고 짐작한것도 이렇게 뿌리깊이 박힌 그 인상때문이였다.

그의 일가도 결국은 그 노무라때문에 고향을 버리나 다름없었다.

기차는 칙칙거리며 어둠에 잠긴 산줄기를 톺아올랐다. 20년전 마천령을 넘을 때 생각이 되살아났다. 그때는 기차가 없었다. 살림살이 이사짐을 모두 해지고 두만강얼음이 풀리기전에 간도의 농사철전에 가대려고 음력 정초에 떠나서 달포나 걸어갔었다. 아홉살 소년이던 진규는 주막도 드물던 그 멀고 아득한 길우에서 미투리에 발바닥과 뒤축이 몇까풀 벗겨지고 토스레에 쓸려서 추위에 얼어든 사타구니가 다 해여졌었다. 마천령턱밑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다 해여져 피가 흐르는 그 사타구니를 이불솜을 뜯어내여 감아주었다. 논밭과 집을 빼앗기고 엄동설한에 이 고생을 하는것이 모두 노무라때문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아홉살 진규는 《노무라새끼야, 죽어라!》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었다.

지금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때 벗겨진 발꿈치가 쓰려오는듯하였다. 그리고 눈을 아프게 찌르도록 노무라형제의 헤르메트와 칼집으로 된 단장이 떠올랐다.

×

진규는 이상하게 자기를 내려다보는듯한 눈길을 느끼고 고달픈 여우잠에서 깨여났다. 그러고보니 얼굴을 가리워놓았던 밀짚모자는 발치에 나딩굴어있다. 청진을 지나 시장기를 느끼고 곽밥을 먹은후 식곤에 못견디여 밀짚모자를 얼굴에 올려는 놓았지만 고향역에서 느낀 착잡한 생각에 쫓기우다나니 잠도 든것 같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자가 굴러떨어진것도 몰랐던것이다.

모자를 주으려고 손을 뻗치며 바라보니 목에 수건을 질끈 동인 청년이 자기를 바라보고있다.

《형님, 진규형님이 옳지요?》

《아니, 자네 영춘이 아닌가? 자네가 웬일인가?》

《진규형님이 옳구만요. 난 또 딴 사람인가 했지오다.》

청년은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듯 옆을 살폈다. 호물때기령감도 거간군도 다 내리고 목단강 간다는 젊은 아낙네와 머리에 수건을 쓴 안늙은이, 황아장사 그리고 친정나들이를 갔다오는듯한 촌색시가 앉아있었다.

영춘이가 이야기를 하고싶어한다는 눈치를 채자 이웃자리의 아낙네가 아이를 안고 자리를 좁혀주었다.

영춘이는 물이라도 길으러 다닌듯 빈 되병 하나를 들고 좁다랗게 옹송그린 몸을 비좁은 틈사리에 끼여앉았다.

《언제 나왔소다?》

영춘이는 이미 밀짚모자를 올려놓은 진규의 머리를 힐끔힐끔 살피며 물었다.

《자네도 내 소식 들었나?》

《듣지 않구요, 모르는 사람이 있는줄 알아요. 신문에 굉장히 났다면서요?》

《그래? 방금 나오는길이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요? 우리도 만주로 가요.》

영춘은 서글픈 어조로 말하고 쓸쓸한 미소를 그렸다.

《만주로 가는데 한창 농사철에 간단말이냐?》

《농사가 뭐 있는줄 알아요? 가물에 태우고 장마에 밀려 반반해졌는데다 벌써부터 지주놈들이 돌아치는 꼴이 북데기마저 싹 긁어갈 차빈걸요. 오다가 보지 못했소다?》

농사군이 가을을 앞두고 고향을 하직한다는 말을 들으니 진규는 기가 막혔다. 그는 옆차기에서 담배를 꺼내여 붙여물고 영춘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 만주 가면 무슨 수가 생긴다더냐?》

《거기는 땅도 많고 농사도 잘된다는데요.》

《너 우리 집 소식 듣지도 못했느냐?》

《형님네야 저 독립운동…》

영춘은 그러다가 차간이라는것을 생각하고 주위를 힐끔힐끔 살피

며 말끝을 얼버무렸다.

《우리 집뿐인줄 아느냐? 다 그렇다. 그래 식구들은 다 어쩌고 가니? 아버지, 어머니는 다 무고하시냐?》

《모두 같이 가요. 집이 모두 가는데요.》

《그래?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저쪽간에 있어요. 우리 집뿐만 아니지요. 낙수골에서만도 열두집이나 되는데요.》

《그렇게 모두 가서 살곳이나 있다더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대요, 차비까지 다 대주던데요.》

《거 어떤놈의 수작이냐?》

진규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바람에 촌색시가 기겁을 한듯 고개를 쳐들더니 몸을 옹송그렸다. 영춘은 진규가 노하는 까닭을 모르겠다는듯이 잠시 멀뚱멀뚱 바라보더니 대답했다.

《양조장집 백참봉네 큰아들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농장을 차린대요.》

《백동성이가?… 참, 너 오늘 정거장에 나왔던게 백동성이가 옳지?》

《그럼요. 백동성이도 있고 경찰서장도 있고… 뭐 다 떨어나왔지요. 오늘 노무라가 우리 고장을 둘러보고 만주로 떠났다우다, 이 차로.》

《음.》

자기 추측이 맞았다고 생각하니 왜 그런지 분한 생각이 났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그때 똑똑히 알았다 한들 따귀 한대 갈겨줄 힘도 자기에게는 없다는것을 깨닫고 이마살을 찌프렸다.

《참, 형님도 봤겠구만요. 오늘 굉장했소다. 노무라 4촌동생도 같이 왔다는데 소문에 들으니 그자가 또 만주를 쥐락펴락한다는군요. 노무라네 패거리가 만주에다 큰 이민회사를 차린대요.》

《그래 너네 목적지는 어데냐?》

《차표는 송강이라는데까지 뗐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또 며칠 간다구해요. 송강신개척구라구 큰 강가라는데 우리가 가는데는 큰 도시가 있대요. 까짓것, 아무데면 일있어요? 땅이 있구 농사나 잘되면 그만이지…》

진규는 쓰겁게 입을 다물고 어둠에 잠긴 연선의 컴컴한 산발들을 바라보았다. 이민이요, 이민회사요 하는 말마디들과 거기서 무엇인가 행복의 실머리를 찾아보려고 모대기고있는 고향사람들의, 겨레의 안타까운 정상이 가슴에 연기와 같은 울분을 피워올렸다. 넙적다리까지 드러나는 뱀껍데기같은 왜옷을 걸치고 섰던자의 스산한 꼴이 떠올랐다. 필시 몇해전부터

만주에 넘쳐나던 소위 《대륙건달》일것이다. 그러고보면 그놈이 짚고 있던 단장은 칼이라는게 분명해진다.

1925년에 일제의 간도내각당시 만주이민문제가 제기되여 내외의 여론이 끓어번지던 생각이 생생하다. 만주를 침략하고 동시에 조선사람의 민족적반항을 억누르고 이렇게 한꺼번에 두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하여 조선사람의 대대적인 만주이민을 강행하고 그대신 조선에다 1천만이상의 일본인을 이주시킨다는 당시의 여당 헌정회의 침략적인 인구정책이 다나까, 와까쯔끼, 하마구찌 등 어중이떠중이정강을 내건 반동내각들에 계승되여오는 가운데 만주에는 이렇게 떼를 지어 팔려가는 조선사람무리가 늘어가고 한편 직접적인 침략의 전초병으로 노무라의 동생따위 대륙건달이며 《대일본적화방지단》이요, 《건국회》요, 최근에는 《사꾸라회》요 하는따위 파쑈단체에 망라된 재향군인들, 변장한 파쑈장교들이 일본이민단의 명색을 띠고 만주곳곳에 박히고있는것이다. 여기에는 왜놈들다운 교활한 민족리간정책이 또한 바탕에 깔려있는것이다.

《영춘이.》

진규는 탄가루가 날려드는 차창에서 고개를 돌려 은근한 목소리로 불렀다.

《만주에도 가난은 있고 미운놈도 따라다닌다. 만주에 가면 팔자라도 고칠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가거던 강심을 먹고 살아보게만 더럽게 굴지는 말아라. 사람이란 남에게 숙보이기 시작하면 끝장이다. 영춘이도 어떻게든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고 살도록 해라.》

《알겠소다. 우리도 뭐 뾰족한 수가 있으려니 생각하는건 아니우다.》

진규의 목소리가 은근해지자 영춘이도 밤차를 타고 고국을 하직하는 슬픔이 몸에 배는지 목을 떨구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머리를 들고 진규를 바라보며 물었다.

《저 형님은 또 그쪽으로 가오다?》

《그렇다, 또 거기로 간다.》

《그럼?…》

《영춘이가 무엇을 묻고싶어하는지 나도 짐작한다. 묻지 말아라. 나는 내 할일이 있다. 객지에 나서면 부모님을 잘 도와드려야 한다.

그대신 더럽게 굴지 말고 떳떳하게 머릴 쳐들고 살란말이다. 조선사람이 어디에 가든 록록하게 보여서는 안된다. 공부도 하고 농사도 잘 짓고… 내가 고향에도 들리지 못하고 곧장 간다. 그러니 아무 보고

도 나 만났다는 말을 말아라.》
《알았소다.》
영춘은 고개를 푹 숙이고 낮게 대답했다.
옆자리의 아낙네는 아이가 빨고있는 시퍼런 사과를 내려다보며 진규를 가끔 곁눈질해보았다.
감옥에서 나온것은 분명한데 말투나 몸가짐이 강도나 도적놈이 아니라는것은 짐작이 가는 모양이였다.
체대에 비해서는 살이 쑥 빠진데다 구겨진 흰 바지저고리를 걸친 이 사나이가 낯선 벌판으로 외롭게 찾아간다는 아낙네에게는 무서워도 보이고 한편 미더워도 보일것이였다.
영춘이가 사라진 다음 아낙네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저, 거기에 가면 토비가 많다는데 사실인가유?》
《토비가요?》
진규는 아낙네의 오돌오돌 떠는듯한 눈길을 따뜻이 맞아주며 아이의 볼을 어루만졌다.
《토비도 더러 있지요, 그렇지만 여기 같지야 않지요. 이런 무법천지가 또 어데 있겠소. 아주머니, 맘 푹 놓으시오. 주인한테 가면 살길이 열릴거우다. 주인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한답디까?》
《농사를 짓는대요.》
아낙네는 한결 얼굴이 밝아져서 남편이 농사를 짓는것이 어떻겠느냐고 묻는듯이 진규를 바라보았다.
《그 고장은 원래 농사가 잘됩니다. 또 거긴 조선사람이 많지요. 허허허, 아주머니가 이제 가면 주인이 좋아하겠수다. 좋지요, 서로 맘맞는 사람끼리 의지해 살면 낯선 벌판도 살뜰해지지요. 토비보다는 칼차고 돈가진 놈들을 조심하시오. 아주먼네도 아마 토비보다는 그런 놈들한테 더 떨렸을거우다.》
《글쎄요, 그렇긴 해두…》
아낙네는 주위가 조심스러워져 옆을 살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무시무시한 소리를 함부로 탕탕 할수 있을가싶어 진규의 얼굴을 몰래 훔쳐보았다.
관골이 두드러진 수척한 얼굴에 시원하고 맑은 눈을 발견한 녀인은 왜 그런지 살눈섭을 슴뻑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만큼 나쁜 짓을 했다면 그건 대체 어떤 일일것인가?

순박한 촌아낙네에게는 아무래도 리해될수 없는 일이였다. 그 녀자는 아이의 볼을 다독거리며 웃고있는 젊은 사나이의 목덜미에서 어깨쪽으로 사라진 끔찍한 상처를 보고 못볼것이나 본듯 얼른 외면하였다.

5

철도 갈림역에서 차를 갈아타고 목적지에 내린것은 이튿날 저녁무렵이였다. 정거장에는 뜻밖에도 처남 주태화가 나와있었다. 아는 사람 만나는것이 달갑지도 않고 또 나와있을 사람도 없겠기에 애당초 얼굴을 푹 숙이고 구내를 벗어나려던 진규는 누군가가 슬그머니 옆구리에 따라서면서 보따리를 쥐여당기는바람에 고개를 들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요?》

《고생했네.》

처남은 전이나 다름없이 푸접없는듯도 하고 무관심한듯도 한 그 심드렁한 어조로 4년만에 만나는 매부에게 첫말을 건넸다.

《어떻게 알고 나왔소?》

《내 올 때가 된것 같아 신문사에 알아봤지, 자네 도착하는 기사를 쓰겠다고 지국에서 나오겠다는걸 내가 말렸네. 이곳 형편이 그럴 계제가 아니네.》

진규는 무심히 주위를 살펴보았다. 낯익은 얼굴들은 보이지 않았다. 차에서 내린 손님들도 마중나온 사람들도 누구를 만날가봐 저어하듯 총총히 헤여졌다. 인력거군, 마차군, 짐군들이 목을 길게 뽑고 서성거리는가 하면 곽밥목판을 어깨에 걸멘 흰 앞치마를 두른 청년이 바레춤이라도 추듯 홈을 이리저리 옆으로 뛰였다. 칼을 찬 순사며 사복한 형사놈들이 구내를 오락가락하고있다.

《얼른 가세, 이런데서 우물거릴 필요가 없네. 현아 에미는 자네 도착하는줄 아마 모를걸세. 이젠 출옥날자가 됐다고 사흘전부터 알아봐달라고 내내 다니더니 오늘따라 나오지 않았구만. 좀 시간이 있었으면 알리기라도 했겠는데 신문사에 들렸을 때는 벌써 차시간이 다 됐더군.》

주태화는 진규가 정거장구내를 두리번거리는것을 보고 변명투로 말했다.

《갑시다. 정거장에 나와서는 뭘하겠소? 왜 그런지 거리가 을씨년스럽군요.》
《을씨년스럽네.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말았지.》
주태화는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대중할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더니 그런 화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 불쑥 물었다.
《그래 상한데는 괜찮나?》
《이젠 다 나았소.》
《감옥이라는데가 이상한데지. 그런속에서도 사람이 살아갈뿐아니라 몸도 나으니…》
처남은 그를 호젓한 뒤길로 인도하며 말을 이었다.
《시장하지 않은가? 술이라도 한잔 할가?》
《그냥 가지요.》
두사람은 으스름이 천천히 밀려드는 해란강을 건너 강기슭을 따라 버들숲속을 걸었다. 저녁안개가 떠도는 어스레한 강우에는 불깃한 노을이 길게 비낀 여름하늘이 깔려있었다.
《당분간 얼씬않는게 좋겠네. 지금 간도에서는 높은 머리는 자르는판이야. 거리고 들판이고 조선사람의 피비린내가 풍기네.》
처남은 내키지 않는 어조로 한마디 하고는 또 잠잠해버렸다. 술기운을 빌리지 않고는 천생 과묵한 샌님인 주태화였다. 그사이 처남의 생활에서도 진규의 생활에서도 멀미날만큼 큰 변화들이 있었지만 피차 묵은 상처를 건드리고싶지 않는 심정이기도 하였다.
《고향엔 들리지 않았겠지?》
《곧장 왔소. 여기 일이 궁금해서… 정거장에서 노무라란자를 보았소. 그자와 한차를 타고왔소.》
《그자가 이번에 만주로 온다는 말을 나도 들었네. 그놈 동생이 노무라 다이사꾸라구 대륙건달의 거물이네. 〈흑룡강동지회〉인가 뭔가 하는 특무단체를 만들어가지고있지.》
《그놈도 봤소. 짐승같이 생겼더군요.》
《난 본 일은 없어. 아마가스랑 다 한패니까 보지 않아도 알만한 족속이지.》
《아마가스가 누구요?》
《거 관동대지진때 조선사람을 돌아가며 학살했다는 헌병대위놈 있지 않어?》

《아니, 그놈이야 재판받지 않았소?》

《웬걸 재판놀음만 벌려놓았지. 10년금고다 하고 소문만 내놓고 만주로 빼돌렸지. 노무라의 동생이란놈도 다 그런놈이야. 그놈 형이 이제 동척에 발을 들여놓고 이민회사를 시작한다니 판이 알조가 있지.》

《벌써 숱한게 이민으로 끌려갑디다.》

《그놈들이 재작년에도 만주를 다녀갔다네. 그때는 마침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화배척투쟁이 벌어져 한창 흟을 때라 놈들이 질겁해서 도망을 쳤다데만 이번은 또 어떻게 될려는지…》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이라는 말에 진규는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참, 그건 어떻게 된 이야기요? 감옥에서 들으니까 그때 길림학생들의 투쟁이 굉장했던 모양인데…》

《감옥에도 소문이 퍼졌던가?》 주태화는 즐거운 추억을 더듬듯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굉장했지. 그것은 단순한 학생투쟁이 아니라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한데 묶어세운 광범한 군중투쟁이였지. 그래서 모두 이렇게 싸우면 왜놈들을 내쫓을수 있다는 자신심들이 생겨났단말일세. 길림지구에 조선혁명의 새로운 지도력량이 자라난 것이 틀림없다는 말들도 돌았네.》

《그런데 어떻게 됐소? 우리도 감옥에서 그런 소리를 했소.》

진규는 안타깝게 뒤를 다우쳤다.

《그후 소식이야 나도 모르지. 일제의 이런 야수적인 테로속에서 지하투쟁을 하는데 나같은 사람까지 알도록 드러내놓고 활동하겠나? 얼마전에 길림에서 온 사람 말을 들으니 지금은 거기도 텅 비였다는군. 그때 투쟁에 관련했던분들은 모두 광활한 지대로 나가 광범한 군중속에서 일을 벌린것 같다고 하더군. 그 사람도 무슨 줄을 찾아보자고 갔다가 발붙일데는 고사하고 말 물어볼데도 없어서 괜히 돌아다니다가 붙들려서 하마트면 죽을번했다네.》

《하기는 벌써 이태전 이야기지요.》 진규는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져 맥풀린 어조로 말했다. 《혁명가가 이런 정세속에서 어떻게 한자리에 이태씩 소식 없이 붙박여있겠소. 우리는 그때 통방을 통해 들은 소식이라 투쟁의 극히 적은 부분에 대해 알았을뿐인데도 이것은 분명 새로운 지도력량이 있는것이라고들 추측을 했소. 그때쯤 석방이 됐어도 곧장 길림엘 가보는건데…》

아까보다도 더 무거운 침묵에 잠겨 말없이 걸었다. 어디선가 어두

운 구름짬으로 내비치는것만 같던 밝은 빛발은 한순간에 환각처럼 사라지고 눈앞에는 암담한 세월,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 가로막혀있었다.

《모순되고 뒤범벅이 된 세월일세. 바라고 기다리는것은 볼수 없고 더러운것만 현실로 되는 세월일세. 이민이야기가 나왔으니말이지만…》

주태화는 강기슭으로 고개를 돌린채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만주땅이 피로 젖을결세. 내 친구 한사람이 만주를 전골남비에 올려놓고 〈이민〉이요, 〈거류민보호〉요, 〈만철리권〉이요 하는 양념들을 뿌리면서 부글부글 끓이는 왜놈상을 장난삼아 만화로 그렸다가 지금 령사관경찰에 붙들려 경을 치르고있네.》

진규는 아무 응대도 하지 않았다. 주태화도 무슨 응대를 기다리지 않았다. 일제의 검은 배속을 이제 처음 느끼는것도 아니고 새삼스러운것도 아니였다. 만주까지 먹히우는 날이면 조국을 되찾아야 할 조선사람들의 앞길이 더욱 험해지리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뻔한것이였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수 있었을뿐아니라 피차의 마음속 몸부림까지도 력력히 느끼는것이였다.

《지금 〈흑룡강동지회〉의 세도가 대단하네. 일본파쑈두목들이 몽땅 거기 망라되다싶이 한데다가 그자들이 군부와 정부의 실권을 착착 틀어쥐기 시작했거던. 지금 대륙에서 무엇인가 한자리 하자면 〈흑룡강동지회〉를 끼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할 형편이야. 소위 〈일본정신을 창달〉한다는 군국주의사상단체로부터 이제는 특무조직의 성격까지 겸하다보니 그 방종하고 위험한것이 비길데가 없네. 관동군이나 만철의 실력가들이 몽땅 그 회원이거던. 그러니 노무라가 만주를 제 세상이라고 쏘아다니는 판이지.》

주태화는 신문기자를 하던 때의 버릇으로 어디선가 그러루한 소식을 곧잘 탐지해냈다. 그리고 기사는 안써도 누구에겐가 그 이야기를 했다. 술이 거나해지면 알고싶고 알리고싶다는 인간의 이 두 욕망을 버리기전에는 기자근성을 영원히 버리지 못하는가부다고 주태화는 스스로 비웃으면서 듣고 본 새 소식을 그냥 웅얼거리는것이였다.

《그 자식 이야기는 왜 자꾸 하시오? 그러지 않아도 내 그자를 만났을 때 쳐죽이지 못한것이 분해죽겠소.》

《흥, 이젠 혁명에 실패하니 테로라도 해볼텐가? 그런 만용 부리지 말고 몸이나 추세워서 농사지을 차비나 하게. 현아 에미가 손에 피멍이 들었네.》

무심히 하는 처남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사실 화풀이라도 하고싶었다. 폭동이 있었다는 이 거리의 쓸쓸한 모습을 보니 하다못해 길가는 부자든 왜놈군대든 무엇이든 닥치는대로 몇놈 쳐죽이고싶었다.

《나더러 그런 소리 할 필요야 없지 않소?》

《하긴 그렇지. 자네는 감옥살이 3년반에 〈영웅〉이 됐더군.》

주태화의 말은 스스로에 대한 환멸과 비웃음으로 떨렸다. 진규는 입을 다물었다. 폭동은 산산쪼각이 나서 흔적도 없이 흩어진것이다. 거리를 쓸고다니는것은 반혁명의 피비린내나는 복수이다. 사람들은 될수록 가슴을 좁히고 어깨를 구부리고 목을 움츠리고 뒤골목으로, 뒤골목으로만 밀려다닌다. 스크람도 기발도 노래도 없다. 자유롭게 걸어갈 한오리길도 힘차게 뻗디디고 설 한치의 땅도 없다. 이러한 숨죽인 땅으로 자기는 혁명을 찾아온것이다. 자기는 혁명을 찾아 그렇게도 숨가쁘게 달려온것이다.

진규는 지그시 웃이로 아래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걸었다. 갈림길이 나졌다.

《우리 집에 들렸다 가지, 뭔가 좀 마련해놓았을지 모르니…》

처남은 걸음도 멈추지 않고 너무나 평범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진규는 잠시 갈림길에 서서 망설이다가 말했다.

《곧장 가겠소. 왜 그런지 궁금하오.》

《감옥에 가더니 사람이 달라졌군. 자네 처도 서대문 문전에 얼씬하고 오더니 영 딴사람이 됐더군, 아마 지금 가면 없을지 몰라.》

《어디 갔소?》

《사흘째 도착시간을 물으러 오던게 오늘 꿈쩍 않는걸 보니 필시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일세. 그 사람도 아마 혁명을 하는 모양이야. 책을 꺼내가지고 분주히 돌아가는 눈치가 수상해.》

진규는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말하는 처남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안해가 혁명을 한다? 그 골방색시가?…

《난 집에 가겠소.》

《그럼 가보게. 가서 한동안 꾹 박혀있는게 좋겠네. 지금 조선청년이라면 시비를 가리지 않고 잡아가고 쳐죽이는 판인데 자네같은 판박힌 사람이야 걸리기만 하면 그 자리서 쳐죽이기 쉽네. 무지한것들이 어찌나 그악스레 구는지 거리에 다니기가 막 소름이 끼치네.》

《그리구도 가만 있단말요?》

진규는 가슴에 뭉쳐있던 울화를 더는 참을수가 없어 한마디 퉁명스레 내쏘며 보따리를 빼앗듯이 받아쥐였다.

《가만 있지 않으면 용빼는 재간이 있나? 자네 객기를 부리지 말게. 난 그럼 가보겠네.》

처남은 제먼저 길을 꺾어 걸음을 옮겨놓았다. 진규는 어깨가 축 처진 처남의 뒤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주먹을 움켜쥐고 입안으로 중얼거렸다.

(간도폭동이란 결국 이런것인가?…)

배반당한듯한 심정이였다. 폭동이 실패했다는 소식은 이미 서천호의 집에서부터 어렴풋이 알고 왔지만 적들의 탄압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마저 시라소니꼴이 돼버렸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해보았다. 그래도 동지들의 피에 젖은 땅에 억세게 뻗치고서서 선혈로 물든 기발을 높이 들고 앞으로 나아가고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모두 그렇게 싸우자고, 그렇게 싸우다가 청춘을 바치자고 맹세를 다지지 않았던가?

하기는 처남이란 원래 나약한 사람이였다. 전형적인 소부르죠아인테리인 그가 이런 어려운 시련을 감당해내리라고는 그자신 당초에 기대하지 않았던것도 사실이였다. 그러나 막상 그의 초라한 뒤모습을 볼때 분하였다. 억눌려 비굴하게 사느니 머리를 쳐들고 끗끗하게 죽자고 처남자신도 언젠가는 목이 갈리도록 웨치지 않았던가?

진규는 돌아서서 터벅터벅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최호빈을 찾아가보자. 반년전 김익보와 같이 출옥했으니 지금쯤 무엇인가 마련해놓았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숨막히는 공기를 혼자 마시며 울분에 그슬리는 가슴을 혼자 달랠수는 없었다.

최호빈네 집은 토성랑이 길다랗게 뻗은 강가의 둔덕 외진곳에 붙어있었다. 감옥에서 폐병에 걸려 자주 병감으로 오르내리던 사람이라 혹시 몸져눕지나 않았을가 은근히 꺼림직하기도 했으나 그래도 이 고장에서는 오랜 운동력사를 가진 사람인것만큼 동지들의 소식이라도 들을수 있을것이였다.

다닥다닥한 초막들이 몰켜선 토성랑굽이를 도니 3년만에 처음 오는 고장이라 낯이 설었다. 저녁연기가 어설프게 떠도는 골목길에 갈비뼈가 앙상한 개 한마리가 뒤다리를 뻗디디고 서서 짖어대고있었다.

《아이구, 워리생각을 깜빡 잊어버렸구나, 이것을 어쩐담.》

큼직한 보퉁이를 머리에 이고 다듬이방치가 비죽이 내솟은 보자기를

한손에 든 나들이차림을 한 체소한 할머니가 개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찼다. 뒤따라 애기를 업고 그 역시 큼직한 임을 머리우에 올려놓고 30전후의 녀인이 나오다가 개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더니 그만 울상을 지었다.
《데리고 가면 안되나요?》
《글쎄, 개는 차비를 안받겠는지. 원, 모두 정신이 빠졌다니까…》
진규는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고있다가 입을 다문채 그들에게로 가까이 갔다.
《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이게 누군가?》
로인은 기겁한듯 한걸음 물러서더니 진규의 행색을 조심스레 살폈다.
《저 배나무골에 사는 박진규올시다. 호빈형과 같이 서대문형무소에 있다가 오늘 놓여나오는길입니다.》
《아이구, 자네가 저 책방집 사위군그래? 하도 오래니 사람을 몰라보겠군. 그새 몸이라도 상치 않았나?》
최호빈의 어머니는 무릎을 치더니 고개를 푹 숙인 진규의 모습을 눈물이 그렁해서 바라보았다.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는 또 이사를 가네. 오늘 밤차로 떠나자고 이렇게 집을 나섰네. 모처럼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을 이렇게 로상에서 맞으니 이런 기막힐데가 있는가? 이 사람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어이구—》
《호빈형은 어데 있습니까?》
《저기 나올걸세. 뒤거둠을 하느라고…》
진규는 말없이 서서 로인이 턱을 쳐들어 가리키는 골목쪽을 잠시 여겨보았다.
《아주머니, 안녕하십니까?》
진규는 걸음을 떼려다가 다시 멈추어서서 젊은 녀인에게 인사말을 건넸다. 전에도 별로 낯이 익지 못한 녀인이였으나 그러려니 짐작하고 엉거주춤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현아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뜻밖에 안해의 말을 들으니 이 녀인이 몹시 자기 생활과 가까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인사를 하였다.
《고생하십니다.》
《저희야 무슨 고생이겠어요. 이렇게 떠돌아다녀도 제식구끼리 다니

는걸요.》
진규는 멍하니 살림살이에 쪼들린 녀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최호빈은 애처가였다. 그래서 못났다고 놀림도 받았다. 전에 피뜩 본 기억으로는 아닌게아니라 호빈이 애처가가 될만도 한 해사하게 생긴 녀자였다. 그러나 세월은 한때 미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 녀자에게서 고운 마음씨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것을 다 빼앗아가버렸다. 또 임신을 했는지 검버섯이 잔뜩 내돋고 볼편에 살이 빠져 관골이 유난히 두드러져보였다. 무거운 임에 눌린 목은 쇄골속으로 파고들고 머리는 이사짐에서 오른 먼지때문에 뿌옜다. 차를 타고오면서 느낀 고향산천의 고뇌와 비애가 그 녀인의 얼굴에 그대로 어리는듯하였다.
최호빈은 퇴마루에 걸터앉아 버들상자를 멜빵을 해서 지고 막 일어서려는 참이였다.
《최형.》
《아니 이게 누구요? 진규형이 아니요?》
호빈은 얼른 멜빵을 벗어놓고 달려나왔다.
《이게 웬일입니까? 최형,대체 어디로 가자고 이렇게 나섭니까?》
진규는 호빈의 어깨를 그러안고 흔들었다. 호빈은 멍하니 바라보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는 쿨룩쿨룩 기침을 깇었다.
《나를 용서하오.》
먼저 퇴마루에 가앉은 호빈은 겨우 기침을 진정하자 한숨과 함께 이런 말을 하였다.
막 이사짐을 실어낸 어수선한 마당을 바라보는 진규의 가슴은 커다란 집게에 물린듯 옥죄여들었다. 휴지장들,새끼토막들,마당구석에 피여오르는 무엇인가 불사른듯한 연기,골목에서는 여전히 개짖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모두 뿔뿔이 떠나가버리면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혁명은 누가 하는겁니까?》
진규는 밀짚모자의 채양을 움켜쥐고 바스러지도록 내흔들었다.
호빈은 말이 없었다.
《나는 최형을 비판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최형의 처지는 리해됩니다. 그러나 분합니다. 왜 우리 앞길은 이다지도 답답하단말입니까? 그래 이 피에 젖은 땅에 우리의 기발을 쳐들고 나갈 용감한 기수는 없단말입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오. 나는 약한 사람이요. 제노라고 하던 사람들도 다 전렬에서 물러섰소. 그러니 이 최호빈이가 결핵균이 뜯어먹

는 가슴을 안고 무엇을 하겠소? 암담하오. 들으니 도이췰란드도 파쑈화의 위험이 농후하다고 하더군. 이번 9월의 총선거가 판가리로 되리라는것이 거의 확정적인 추측인 모양인데 그러니 어떻게 하겠소? 여기서 이 세계적인 파멸에 직면해서 인민의 앞길을 밝혀낸다는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요. 애초에 나는 그러한 길이 있으리라고 믿을수가 없소. 한때 무모하게 총을 들고 맞섰던 사람들도 다 총을 놓고 호미를 잡았소. 자기야말로 〈지도자〉라고 하던 웅변가들도 이제는 복덕방에 틀고앉아 거간군노릇을 하고있소. 이런 판에 출로를 모색하기엔 우리의 머리는 너무나 비였구려. 나를 책망하지 마오. 나에게 길만 대달란말이요. 그러면 내 비록 처자권속을 다 버리고 이 병든 가슴이 다 터지더라도 내달려보겠소. 허지만 그 길이 어디에 있소?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말이요?》

최호빈은 제 가슴을 치더니 그 앙상한 두손바닥을 벌리고 진규의 눈앞에서 내흔들었다.

《그만두시오.》

진규는 저도 뜻밖이리만큼 소리쳤다. 최호빈을 욕하는것이 이 순간에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얼핏 머리속에 떠올랐으나 가슴에 서린 울화를 더는 그대로 안고 묵새길수가 없었다. 누군가를 잡고 주먹질을 하든지 아니면 땅을 치며 통곡이라도 해야만 직성이 다소라도 풀릴것 같았다.

《우리는 최형을 고이 배웅해드리리다. 그러나 자기 합리화는 하지 마십시오. 어딘가 길은 있을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자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길을 개척해낼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나에게도 부족하고 최형에게도 부족한것이 분하단말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는 혁명을 두고 말하지 맙시다. 짓밟힌 우리 조국을 이런 너절한 푸념으로 더는 모욕하지 맙시다.》

《진규형, 용서하오.》

최호빈은 한참 기침을 깇더니 진규의 손목을 틀어쥐였다.

《난 자기를 합리화할만한 건덕지도 없는놈이요. 그런 가치도 상실했소. 난 한갓 도피자일뿐이요. 내가 주제넘게 길이고 뭐고 할 처지가 못된다는것을 아오. 허지만 나도 이미 물러선 그 길이지만 분해서, 억울해서 하는 소리요.》

《최형! 잘 가시오. 로모님 모시고 이제 또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하시겠소? 우리 이담에라도 길이 열리면 혁명의 길에서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납시다. 나를 용서해주시오.》

두사람은 떨리는 소리로 작별인사를 하고 오래오래 서로의 손을 쥐고 놓지 않았다.

갈림길에서 최호빈일가를 배웅하고나니 진규의 가슴은 텅 빈것 모양 온갖 감정이 다 사라져버렸다. 무엇인가 가슴속 벌판을 채워줄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다. 문득 그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집으로 가자, 안해와 자식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자 불시에 멀리 저녁으스름속에 사라져가는 최호빈일가의 모습이 뒤돌아보였다. 개는 어떻게 했을가? 그 개를 내가 데리고 갈걸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났다.

그렇게 보짐을 꾸려지고 이 살벌한 땅을 떠나가는 최호빈의 심정이 리해되는듯도 하였다. 길손—광야에 길을 찾아 헤매다가 지쳐버린 길손, 그는 길손과 같이 또 다른 주막을 찾아 떠나갔다. 모두 떠나간다. 나는 또 어디로 누구를 찾아가는가?

×

진규가 거리에서 15리나 되는 자기 집 앞마당의 배나무아래 섰을 때는 오래도 실구던 여름철의 노을은 사라지고 커다란 괴물의 날개가 덮치듯 대륙의 어둠이 갑자기 내려덮는 밤중이였다.

막 설겆이를 마치고 부엌에서 나오던 삼녀는 희미한 초생달빛아래 마당에 들어서는 키큰 사나이를 보고 《누구예요?》하고 묻다가 주춤 서버렸다.

《나요.》

《어머니나.》

삼녀는 쓰러지듯이 배나무에 한팔을 짚고 서서 얼없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4년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안해였다.

진규는 그런 안해를 느끼자 왜 그런지 가슴이 저릿해올랐다. 그는 뚜벅뚜벅 다가가 가볍게 떨고있는 어깨를 쓸며 제대로 놀지 않는 뻣뻣한 혀를 저도 면구스레 느끼면서 말했다.

《당신이 고생했소.》

그럴 나이도 지났건만 진규의 얼굴은 후끈하고 달아올랐다.

《우리사 무슨… 에그, 현아야— 아버지 오셨다.》

안해는 남편이 쓸어주는 어깨가 그대로 불덩어리가 되는듯하여 머

리가 아찔해오는것을 감당할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그라지려는 스스로를 가까스로 걷잡고 아무도 듣지 못할 꺼져들어가는듯한 목소리로 딸을 부르면서 몸을 빼여 안방문앞으로 달려갔다.

진규는 그런 안해의 모습이 오히려 가슴아파 쓸쓸하게 미소를 지으며 머리우에 솟아오르는 반달을 바라보았다.

벌써부터 이슬이 내렸는지 두툼한 배나무잎사귀가 뿌윳한 달빛을 받아 유난히도 번쩍거렸다.

삼녀는 모기가 들어갈가봐 꺼놓았던 방등을 내려놓고 성냥을 켜댔다. 여러날째 켜지 않은 방등에는 겨우 팥알만하게 파란 불이 달렸다. 삼녀는 울렁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며 옷섶에서 바늘을 찾아 불티를 긁고 심지를 돋구었다. 그리고는 차던진 현아의 포대기를 덮어주며 깨웠다.

《현아야, 아버지 오셨다. 얘, 현아야.》

진규는 한참이나 마당에서 서성거리며 비로소 주인다운 눈매로 집안구석구석들을 살펴보았다. 처져내린 추녀를 새로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당구석에 수북이 자란 잡초를 무심히 발로 걷어차다가 습관적으로 쭈크리고앉아 몇웅큼 뽑았다.

집뒤로 벽에 붙여세운 닭장이 보인다.

(그래도 닭을 치는 모양인가?)

안해가 혼자 농사를 짓느라고 손끝에 피멍이 들었다고 하던 처남의 말이 생각났다. 전에 없던 어떤 뉘우침이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잡았다. 불시에 아이를 안아보고싶은 생각이 불처럼 급하게 솟아올랐다.

《현아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며 방안으로 뛰여들어갔다.

한잠이 들었다가 투정을 하면서 가까스로 눈을 비비고 일어나앉은 현아는 아직도 잠에 취해 금시 쓰러질것만 같이 앉아있다가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눈꼽을 뜯던 손을 멈추었다. 아버지란 말은 무던히도 많이 들어왔지만 정작 그 아버지는 생소하고 서먹서먹하였다. 진규가 집을 마지막으로 떠난것은 현아가 한창 말수더구가 늘어 혀밭은 소리로 세상 온갖것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짤짤 늘어놓던무렵이였다. 그때로부터 세해나 지나가고보니 아버지란 말만 있고 실체는 없는 몹시 추상적인것으로 습관되여온 현아였다.

억지로 현아를 무릎에 안고 흔들어보는 진규의 마음은 현아의 그 서먹해하는 표정때문에 더구나 아팠다.

《내가 아버지다. 얘, 너 나를 모르겠느냐?》

《알아, 아버지야.》

《그래 내가 아버지다.》

《아버지, 사탕 사왔나?》

《응? 사탕!》

당황한것은 진규보다 삼녀쪽이 더하였다.

《애구, 애가 왜 저럴가? 아버지가 몇해만에 오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사탕은 랠 엄마가 사준다.》

《그래두 엄마가 그렇게 말하구선…》

현아는 시무룩해서 아버지무릎에서 빠져나가려 하였다.

진규는 일순 눈을 감고 고개를 약간 뒤로 젖혔다. 왜 아이 생각을 못했는가? 사탕봉지를 살만한 돈은 있었다. 정거장에 내려서라도 생각만 있었더라면 무엇인가 어린것을 섭섭하지 않게 할수 있었을것이다. 그저 한시바삐 와닿아서 폭동형편을 알아보고 자기도 그속에 뛰여들고싶다는 한가지 생각에 다쫓기다나니 이렇게 눈이 새까맣게 기다리는 자식 생각은 할 겨를이 없었다. 무슨 큰일이나 칠것처럼 이렇게 분주히 달려는 왔지만 정작 와보니 막막하기는 전보다 더하다. 그런데 아이는 이렇게 자기에게 손을 내밀고 사탕을 조르는것이다.

《현아야, 내가 사탕보다 더 맛있는걸 사왔다. 너 사과라는거 뭔지 아니?》

진규는 자기도 남도 속이고싶지 않았지만 아이의 천진한 마음을 섭섭하게 만드는것은 더욱 죄라고 생각하며 방바닥에 내던졌던 보짐을 풀었다.

《에그마, 정말 사과네.》

현아만 못지않게 관심이 컸던 주삼녀는 보짐속에서 시퍼런 사과가 굴러나자 가볍게 환성을 질렀다.

현아는 다짜고짜 두손으로 한개씩 움켜쥐더니 부르짖었다.

《배, 배다!》

《이건 배가 아니라 사과야, 아무게나 그저 배지. 배밖에 본게 없으니 둥글면 다 배로군. 허허허.》

진규는 이처럼 간단히 기쁘게 해줄수 있는 딸을 한번도 기쁘게 해줄 궁리를 못한 자신을 스스로 꾸짖었다. 만일 목단강 간다는 그 젊은 아낙네와 젖을 보채던 아이가 없었더면 자기에게 차례진 이 자그마한 행복도 없었으리라는것을 생각할 때 자식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의심

해보지 않았던 스스로의 자부심이 매우 어설프게 느껴졌다.
《여보, 당신도 앉구려.》
진규는 눈을 슴뻑거리며 서있는 안해에게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아이에 대한 관심이 적은것은 곧 안해에 대한 관심이 적은것이기도 하였다. 그렇기때문에 몇알 벌레먹은 신 사과를 두고 안해는 벌써 눈물이 그렁해 서있는것이다. 이러한 가족들을 여태껏 속만 태워주었다고 생각하니 그지간에 고생한것은 육체적으로 보나 정신적으로 보나 자기가 아니라 안해와 아이였다고 생각되였다. 또한 그 고생끝에 온것이 이 자그마한 상봉의 기쁨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한순간의 기쁨역시 오래 가지는 못할것이고 결국 그러고보면 이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한다고 나섰던 그 목적은 아직도 저 멀리에 있다는것을 생각할 때 막막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것이였다.
삼녀는 쭈밋거리며 중얼거렸다.
《저…》
삼녀의 주저하는 눈치를 채자 처남에게서 들은 말이 생각났다.
《참, 당신이 어디 갈데가 있소?》
《네, 저…》
《알겠소. 당신이 조직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소. 참 잘 생각했소. 난 무엇보다도 그게 반갑소. 헌데 그 이야기는 이따 또 하기로 하고 우선 당신은 가보구려. 내가 현아와 같이 있을테니…》
《어떻게 그렇게…》
삼녀는 몸둘바를 몰라하며 망설였다.
《이 집 새애기는 아직 집에 있소?》
마당에서 인적기가 나더니 뒤미처 귀에 익은 이웃집 한희도처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네, 잠간.》
안해는 남편에겐지 손님에겐지 모를 소리를 한마디 하고는 신을 끌며 황황히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녀인들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잠시 들리더니 불쑥 문앞에 한희도처가 절구통처럼 뚱뚱한 몸을 나타냈다.
《에그 선생님 오셨소다? 얼마나 고생을 했소. 원…》
《이거 종성댁 아닙니까? 그새 안녕하십니까?》
진규는 물끄러미 들여다보고있던 딸의 얼굴에서 눈길을 돌리며 무릎을 세우고 엉거주춤 일어났다.

《그간 페를 많이 끼쳤을줄 압니다. 그래 계덕아버지랑 댁에는 모두 무고들 하십니까?》

《페가 무슨 페겠소. 나라를 찾자구 그렇게 애를 쓰구 고생들을 하는데 머리를 베서 신을 삼아드린들 우리가 할일을 다 했다고 하겠소? 우리 집에는 모두 잘 있다오다. 잘 있다는게 여적 귀신이 잡아갈걸 깜빡 잊어버려서 그런지 이 북간도에 사람씨종이 마를 지경인데도 우리 집은 모두 눈이 시퍼래서 살아있다오다. 다 사람이 못나서 그렇지오다. 사람구실하구사 이 판에 살아배긴답데까? 참 무서운 판이라우.》

《허허허, 계덕아버지가 왜 못났단말입니까? 속이 깊은분이지요.》

진규는 종성댁의 여전한 수다를 너그럽게 받으며 조용히 웃었다.

이 배나무골의 개척자라고도 할수 있는 한희도로 말하면 입이 무겁고 깡마르면서도 경우가 밝은 사람이였다. 종성두메산골에서 내외간이 살림살이를 모두 지게 하나에 해짊어지고 살길을 찾아 떠나기는 벌써 15년이 넘었다고 한다. 30전후의 젊은 내외이던 그들은 부지런하고 참을성이 있었다. 남편은 한번 마음먹으면 드티지 않는 결패가 있었고 안해는 안해대로 수다스러우면서도 이악하고 드센데가 있었다. 처음에는 마천령을 넘어 바다를 따라 강원도땅까지 내려갔고 다음에는 다시 후치령을 넘어 갑산으로 들어갔다. 그사이 로상에서, 혹은 울짱이나 박고 거적을 드리운 움막에서 아이를 낳고 또 마마에 떼운 피덩지같은 자식들을 양지바른 산비탈에 묻으면서 악착할만큼 애를 썼으나 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건강한 온 육체와 모든 심령을 기울여 그토록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도 자식들의 목숨도 돌보지 못했던 그 간절한 소원은 대체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세끼 죽이나마 건네지 않고 먹을수 있는 낟알이였으며 그 낟알을 씨뿌리고 거두어들일 땅과 비바람을 가리워줄 부엌이 달린 한간집이였다. 그것은 엄청난 희망이였다. 이 세상에서 그런 엄청난 행운을 누릴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불과 몇이 되지 못했다. 그처럼 얻기 어려운 팔자를, 성주님이 점지해주지 않는 그 행운을 찾아 하늘의 별을 따려고 들듯이 분별없이 길을 떠난 그들에게 무엇이 차례질것인가는 당초에 명백한것이였다. 남에게는 그처럼 부질없고 지어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들은 단념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압록강을 건너 할미령을 넘었다. 북만에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거의거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나싶었을 때 난데없는 《땅임자》가 나타났고 뒤미처 토비떼가 달려들어서 그해 소출과 다 성장한 아들을 빼앗아가버렸다. 그런 연후에야

잘살아보겠다는 엄청난 꿈을 버리고 이제는 조선사람 이웃이 있는데 발붙여야겠다고 다시 할미령을 넘어 울짱을 박은것이 이곳 배나무골이였다.

그지간에 한희도는 강대처럼 시꺼멓게 타고 깡말라버렸으며 말수더구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와 반대로 안해는 그 고생속에서도 몸이 나고 남편이 잃어버리는 말수더구를 다 물려받은듯 수다가 늘었다. 진규가 처음으로 야학을 차리기까지는 내외가 다 낫놓고 기윽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였지만 그러나 여느 무식한 사람들하구는 경우가 달랐다. 세상 못본것이 없고 청진, 원산 하는 큰 도시에도 가보고 기차도 타봤으며 지주를 걸어 재판도 해보았다. 남편은 자기가 쌓은 풍부한 경험과 넓은 견문을 남에게 드러내기 좋아하지 않았지만 안해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였다.

《에그, 내가 무엇인들 못봤겠소? 나하구는 말도 마시유, 세상이란 다 도둑놈판이라우. 그러니 이 세상에서 못사는게 외려 떳떳하지 잘살자면 도둑질을 해야겠으니 그 노릇을 어찌하오? 그저 꽉 죽게만 돼먹은 세상이 아이겠소.》

무슨 이야기끝이든 종성댁의 결론은 이런데 와서 떨어지군하였다.

처음에 부녀조직을 내올 때 일부에서는 종성댁이 입이 너무 헤픈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그런것을 제쪽에서 눈치를 채고 거의 우격이다싶이 조직에 들었는데 들어서는 비밀을 잘 지켰을뿐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사업을 열성적으로 하였다. 남편을 조직에 끌어들인것 역시 종성댁이였다. 아들 계덕이도 지금은 농사일을 하면서 벌써 청년조직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고있는데 이번 검거선풍에 어디로 튕겨 달아났다고 하였다.

《선생님, 신색이 말이 아니오다. 제 나라를 찾자고 일신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앨 쓰시는분을 이 고생을 시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소다. 왜놈들이란 선생님 말과 같이 그저 열번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은 종자들이지요. 여기서도 얼마나 행패를 부렸는지 모른다오다.》

종성댁은 진심으로 격분해서 살을 떨며 말하였다.

종성댁이 수다를 늘어놓자 삼녀는 딱한듯이 망설이며 잠시 진규의 눈치를 살피더니 살그머니 종성댁의 옷자락을 잡아끌었다. 두 녀인은 토방끝에 나가 또다시 무엇을 소곤거렸다.

《그럴것없이 삼녀동무는 오늘밤 좀 빠지지…》

이런 종성댁의 말에 뒤이어 안해의 당황해하는 말소리가 몇마디 들리였다. 그러다가 뒤울안으로 돌아갔다. 푸드득푸드득 닭이 깃을 치는

소리와 목 따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는 이어 잠잠해졌다.
녀인들은 다시 부엌에 나타나서 두세두세하였다.
《내 그럼 먼저 가서 말하지 않으리, 천천히 오오다.》
이런 말을 남기고 마당으로 나서던 종성댁은 치마자락에 손을 훔치며 다시 방안을 기웃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오늘 회의가 있소다. 낮부터 새애기가 련락을 다니느라고 정거장에 못나간 모양인데 마음을 풀어주시오다.》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회의가 있다면 가보십시오. 조직일을 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집 사람도 함께 데리고 가시지요.》
《인차 뒤따라온다오다. 그럼 가보겠소다.》
안해는 아궁에 불을 살라넣더니 토방에 서서 잠시 쭈밋거렸다.
《어서 가보오. 이야기는 이따 들을셈치고 우선 조직일을 먼저 봐야할게 아니요. 어서 가보오.》
진규가 너그러이 웃으며 말하자 안해는 잠시 멍하니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더니 불시에 홱 몸을 돌려 고개를 푹 숙이고 약간 옆으로 몸을 기울일사한 자세로 종종걸음을 쳐 마당을 질러나갔다.
안해가 자기의 한마디 말, 한번의 웃음에 그처럼 고마와한다는것을 생각하니 왜 그런지 진규의 가슴은 서글퍼졌다.
현아는 어머니가 문밖으로 사라지자 아버지 무릎에서 발딱 일어나 문고리를 잡고 멀어져가는 어머니의 발걸음소리를 엿들었다. 자기가 없을 때 이 집에서 항용 벌어질 광경이였다.
《이리 오너라, 현아야.》
진규가 손을 뻗치자 딸은 고개를 돌리고 갸웃이 바라보았다.
《어머니 인차 온다. 그때까지 아버지하구 재미있게 놀자.》
진규가 손을 뻗치자 현아는 잠시 말끄러미 바라보더니 한옆에 와서 앉았다. 진규는 딸을 다시 무릎우에 끌어앉히고 가볍게 흔들며 속삭이듯 말했다.
《현아야, 엄마가 집에 없을 때는 누가 집을 보니?》
《내가 보지뭐.》
현아는 서먹해하던것과는 판달리 또랑또랑하게 대답했다.
《무섭지 않니?》
《무서워.》
《그럼 어떻게 하니?》

《눈을 꼭 감구있지뭐.》

《그럼 무섭지 않니?》

《더 무서워.》

《허허허.》

진규는 측은한 생각과 함께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옥맺혔던 마음이 풀리는것을 느꼈다.

《현아야, 무서울 때는말이야 눈을 꼭 감지 말구 눈을 딱 부릅뜨구 어떤 귀신이나 호랑이가 와도 잡아죽여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구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무섭지 않다.》

《내가 귀신이랑 호랑이랑 잡아죽일수 있나?》

《있구말구. 이 세상에 제일 힘이 세고 제일 훌륭한것이 사람이다. 지금 엄마는 혁명을 하러 갔다. 그런데 혁명가가 그 힘세고 훌륭한 사람가운데서도 제일 세고 제일 훌륭하단다. 그러니 현아도 힘이 세고 훌륭한 아이지.》

《참, 아버지도 혁명가지?》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도 혁명하러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훌륭한 혁명가는 못된다.》

부엌에서 문문 김이 피여올라 사이문짬새로 구수한 닭곰냄새가 풍겨왔다.

강기슭에서 물새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강건너 동네에서 개짖는 소리도 들려왔다.

몇알의 사과로 힘들이지 않게 딸과 친해진 진규는 뜻밖에 찾아온 자기의 이 가정적행복이 너무나 스스러워 과연 이것이 자기의 행복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현아는 노래를 불렀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내 돌아올 때까지
무산자정권인 우리 나라 새로 설 그때엔
어머니품속을 떠난 이몸 돌아오렵니다

진규는 뜻도 모르는것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못 심중한 표정으로 노래하는것이 여간 신기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시절의 변화도 느껴졌다. 3년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주로 많이 부른 노래는 《료동벌

팔백리를 쳐서 없애고…》하는따위 창가였다. 몇해사이에 아이들의 노래소리에도 무산자요, 혁명이요 하는 말마디가 섞이게 되였으니 그사이 왜놈들이 아무리 발악했어도 인민들사이에 퍼져가는 새 사조의 힘은 어쩔수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너 그 소리 누구한테서 배웠니?》

진규는 뻔한것을 물었다.

《엄마— 엄마가 노래 많이 가르쳐줬다.》

《어디 다른것 또 하나 해봐라.》

선생좋고 이름난 레닌그라드
수십년을 별러서 찾아가보니

레닌에 대한 노래였다.

《너 레닌이 무슨 말인지 아니?》

《알아, 오라는 소리야.》

《오라는 소리라— 그건 누가 가르쳐주더냐?》

《그건 내가 다 알지뭐…》

《애 현아야, 레닌이란 사람이름이다. 우리같이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훌륭한 사람이 레닌이다.》

《참, 엄마가 그렇게 대줬어. 그건 사람이 아니구 선생이래. 아버지도 선생이지?》

《응? 난 선생이 아니야. 아버지는 학생이다.》

《피, 아버지같이 큰 학생이 어디 있나? 모두 그러는데 아버지는 선생이래.》

진규는 새삼스럽게 집안을 살펴보았다. 평화로운 집, 즐거운 집, 보매딸 현아는 든든하고 똑똑하게 생겼다. 안해는 얼마나 알뜰한가! 처음 시집왔을 때 한글을 깨쳐주려고 애쓰던 일이 생각났다. 동네에 야학을 내오고 마을청년들을 다 끌어내도록 안해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욕을 하여 우격다짐으로 끌어내다싶이 해가지고도 사람들의 뒤전에 앉아서 고개도 들지 못하던 안해였다.

다른 사람에게는 붙임성이 있고 차근차근 잘 타이르기도 했지만 안해에게만은 그것이 잘 안되였다. 야학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들부터 잘 교양하여 남먼저 야학에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고 그자신이 회합때마다 동무들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스스로 하자니 얼마나 게면쩍고 멋적은지 조리있게 사리를 따져가며 말하게 되지를 않았다. 원체 안해는 뭐라고 말을 붙여도 달다쓰다 말한마디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옷고름만 매만질뿐이였다. 어쩌다 쳐드는 얼굴을 보면 눈굽에 그렁하게 물기가 어려있기도 하였다.

그러던 안해가 이제 조직생활에도 참가하고 또 아이에게 혁명가요를 가르치게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발전인가? 그런 안해를 천생 골방색시라고만 속치부했던 자기가 한갖 우습기도 하였다. 그것은 뉘우침이라기보다 몇갑절 더 대견한 생각이였다.

해란강다리쪽에서 먼 총소리가 울렸다. 뒤따라 개짖는 소리가 멀리 메아리쳐왔다. 진규는 귀를 강구고 어둠속을 쏘아보았다. 그러나 이어 사위는 다시금 조용해지고 어둑한 배나무그늘에서 잠시 조용해졌던 밤벌레가 울기 시작했다.

부엌에서는 닭곰 익는 냄새가 한방 들이찰만큼 세차게 풍겨왔다.

방등의 불을 보고 하루살이와 모기가 날아들어 앵앵하고 귀전을 맴돌았다. 진규는 아이를 무릎에 안고 천천히 모기를 날리는데 어떤 부드럽고 살뜰한 생활의 맛을 느끼며 은근히 안해가 빨리 돌아왔으면 하고 기다려졌다.

사과를 매만지고있던 현아가 불쑥 일어났다.

《엄마, 엄마 온다.》

아닌게아니라 급히 옮겨놓이는 녀인의 발걸음소리가 다가오더니 어느새 마당앞에서 가쁜 숨소리가 울렸다.

《엄마—》

《웬일이요？》

심상치 않은 기색을 눈치챈 진규는 한팔을 문지방에 짚고 고개를 바깥으로 내밀었다.

안해는 토방우에 올라서서 잠간 멍하니 진규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는 흐트러진 귀밑머리를 가볍게 떨리는 손으로 쓸어넘기고 조용히 말했다.

《몸을 피해야겠어요. 거리에서 경찰이 떠났대요.》

《왜 그러오？ 뭣때문이요？》

《매일 그렇게 잡아가요. 오늘은 몰래 기마경찰까지 풀어서 아래 웃동네 몽땅 둘러싸고 살살이 뒤질거라고 해요. 당신을 지명수배했대

요. 한시바삐 룡정땅을 벗어나라는거예요.》
안해는 말을 마치자 맥이 진한듯 토방에 털썩 주저앉았다. 현아는 눈치가 말짱해서 근심에 싸인 아버지, 어머니의 기색에 눌린듯 구석지에 오도카니 서버렸다.
안해는 딸을 끌어당겨 와락 그러안고 볼을 비볐다. 진규는 물끄러미 모녀의 그 모양을 바라보았다. 불덩어리를 삼킨듯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내가 방금 감옥을 살고 나오는데 무엇때문에 또 붙든단말요?》
진규는 격분에 차서 소리쳤다.
《요즘은 세상에 아무 법도 없대요. 닥치는대로 잡아다가는 재판도 없이 쏘아죽인대요. 당신은, 당신은 그놈들이 잡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을거예요. 어서 피해주세요.》
삼녀는 울먹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하였다.
진규는 전에 없던 안해의 조리있고 꺾을수 없는 의지가 박힌 말을 듣자 다시금 일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며 말없이 서버렸다. 토방에 조용히 내려서는 아버지를 보자 현아가 저도 수심이 낀 눈초리로 말끄러미 아버지, 어머니를 번갈아보며 붙어섰다. 진규는 기계적으로 딸을 끌어당겨 옆에 끼고 새꽁지처럼 짤막하게 땋아늘인 머리를 쓸었다. 달빛을 받아 얼룩덜룩해보이는 구름이 낮추 드리운 여름의 밤하늘에 떠있었다.
《에그, 내 정신 좀 봐.》
안해는 기신없이 앉았던 몸을 급히 일으키며 날렵하게 몸을 빼여 부엌으로 들어갔다.
진규는 하늘을 올려다본채 한손으로 현아의 손목을 잡았다.
《아버지, 어디 가나?》
현아가 바싹 무릎을 그러안으며 얼굴을 쳐들고 물었다.
《그렇다, 아버지는 또 떠난다.》
《왜 또 가나? 엄마는 이제 아버지가 오면 오래오래 같이 산댔는데…》
《너와 함께 오래오래 같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는 지금 떠나야 한다. 현아는 이제 다 자랐으니 엄마 말 잘 듣고 씩씩하게 잘 자라라. 아버지는 네가 아까 노래한것처럼 가난하게 사는 무산자를 위해서 혁명을 하러 간다.》
《혁명하면 배를 주나?》
《그래, 배도 주고 집도 주고 학교도 준다. 너와 또 네 동무들에게

아름다운 조국을 준다!》

진규는 저도 알수 없는 격정에 사로잡혀 어느새 딸을 한팔에 끼여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막막한 여름밤의 어둠너머 기봉을 이룬 구름새로 별이 하나 반짝였다. 저 별빛아래 혁명의 길이 틔여있을것인가?

열려진 부엌문으로 불빛이 새여나오고 훈훈한 김이 뭉게뭉게 쓸어나왔다. 이윽고 삼녀는 조그마한 귀떨어진 륙모소반에 무드기 솟아오른 닭곰대접과 빈 주발 몇개를 받쳐들고 나왔다.

토방에 나서서 잠시 남편의 얼굴을 훔쳐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안해와 남편의 타는듯한 눈길이 마주쳤다.

뚜루룩! 따따따! 그 순간을 기다리고있었던듯 예리한 총소리가 밤공기를 찢어놓았다. 두마장도 못떨어진 이웃마을에서 울리는 총소리였다.

《엄마—》 현아가 질겁하여 어머니 치마자락에 매달렸다.

삼녀는 소반을 든채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이웃마을쪽에서는 총소리가 그냥 자지러지는데 멀리 말발굽소리가 울려오고 하늘에는 불길이 비쳐올랐다. 보매 가냘픈 삼녀의 몸은 회오리바람에 시달리는 연약한 풀대처럼 휘청거렸다. 소반우에서는 닭곰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여전히 김이 피여올랐다.

《현아야—》

삼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불렀다.

《어서 방등의 불을 꺼라. 왜놈들이 왔다. 어서 아버지를 떠나보내자!》

삼녀의 목소리는 방금전의 오돌거리던 숫색시 같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소반을 토방 한구석에 밀어놓더니 바람처럼 가볍게 방으로 달려갔다.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당장 떠나야겠어요. 오빠도 위험해요. 그러니 이 밤으로 동네를 벗어나세요. 거처를 알려주시면 후에 이곳 형편을 알리겠어요.》

그 녀자는 캄캄한 어둠속에서 신문지로 바른 사과궤짝을 들추어 전에 진규가 변장할 때 입군하던 옷 한벌과 모자까지 꺼내놓더니 이어 조그마한 보따리를 꾸리기 시작하였다.

진규는 촉박한 위험을 느꼈다기보다 안해의 그렇게도 침착하고 결단성있는 태도에서 어떤 현실의, 또는 사랑하는 모든것으로부터의 엄숙한 요구와 조국앞에 진 자기의 책임감을 뿌듯하게 느꼈다.

그는 이미 익숙해진 솜씨로 제꺽 옷을 갈아입고 안해의 손에서 보따

리를 받아들었다.

《왜놈들은 조선사람만 만나면 잡아가요. 몸조심하세요. 부디 몸조심…》

안해는 끝내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진규는 그런 안해를 잠시 바라보다가 눈이 둥그래서 울지도 못하고 서있는 어린것의 머리를 다시한번 쓰다듬었다.

《내 배를 사가지고 곧 돌아올게.》

어린것의 눈에 맺힌 눈물방울에 달빛이 어려 반짝거리더니 도르르 굴러떨어졌다.

《아버지, 빨리 와.》

《어서 떠나세요. 말발굽소리—》

이웃마을의 총소리는 뜸해지고 화광이 밤하늘을 불태웠다. 생명을 재촉하듯 말발굽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멀고 가까운데서 개짖는 소리가 요란해졌고 강건너 시가쪽에서는 불이라도 났는지 엥— 엥— 싸이렌소리가 울려왔다. 그 사이사이로 다급히 두드리는 종소리도 들려왔다. 배나무가지에 깃들었던 밤새가 후드득 깃을 치며 어두운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잘 있거라.》

진규는 옷자락이 찢어질만큼 날쌔게 마당을 질러 동구쪽을 벗어났다. 버들방천에 나서서 뒤를 돌아보니 이웃마을의 불빛은 여전히 황황타오르는데 강건너 거리쪽에서도 먼 총소리가 들려왔다. 불빛에 비치여 달려오는 기마대의 행렬이 얼른하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진규는 무작정 버들숲을 따라 강기슭쪽으로 달렸다.

한참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보—》하는 목소리가 간신히 들려왔다. 구새먹은 커다란 백양나무등에 의지하여 돌아보니 안해가 치마자락을 한손으로 부여잡고 넘어질것처럼 자갈밭을 걷어차며 달려왔다.

《웬일이요?》

진규는 맞받아나가며 금시 쓰러질것만 같은 안해의 몸을 부축하였다. 삼녀는 가쁘게 숨을 톺으며 《이걸—이걸—》하고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고름을 더듬었다. 그 옷고름에 맺힌 매듭이 안타깝게 떨리는 손으로는 종내 풀리지 않아 입으로 끄르는 안해의 달빛어린 옆얼굴에는 귀밑머리가 두어오리 땀발에 착 달라붙어있었다. 옷고름에 꽁꽁 붙들어맨 몇푼의 은전과 끄깃끄깃해진 두장의 지전이 풀려나오는것을 멍하니

바라보던 진규는 고개를 떨구었다. 자갈밭을 밟고 선 미투리가 한짝, 한짝은 어디서 벗어져 달아났는지 돌자갈을 딛고선 맨발이 떨고있다.

《몇푼 안되지만 가져가세요.》

《여보.》

진규는 와락 안해를 그러안았다. 넓고 억센 가슴에서 가냘픈 어깨가 참새와 같이 떨리였다. 삼녀는 머리를 깊숙이 파묻고 고개를 들먹거리며 가볍게 흐느꼈다. 진규는 떨리는 안해의 어깨를 쓸며 말했다.

《당신 우는구려? 혁명을 한다는 사람이 이쯤 일에 울어서야 되겠소?》

《울지 않아요. 저, 꼭 돌아오세요.》

안해는 고개도 들지 않은채 아이들같이 흐느끼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그러다가 문득 전류에라도 닿은듯 삼녀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가슴을 저만치 단호하게 떠밀어내며 야멸찰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떠나요.》

진규는 안해의 용수철처럼 탄력에 넘치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백양나무가지로 새여나온 푸르른 달빛이 그 녀자의 얼굴을 푸르게 아롱질만큼 맑게 비쳤다. 가벼운 밤바람에 흰 토스레적삼과 삼베치마가 날렸다. 안해의 모습은 거룩하게 보였다.

(사랑하는 사람아, 잘 있으라!)

진규는 마음속으로 외우며 안해의 그러한 모습을 오래오래 뇌리에 인찍어둘양으로 바라보고 서있었다.

6

《레닌에 의하면 폭동은 예술이요. 폭동에서 어떤 결과를 얻는가 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상 폭동에 매혹된 인간을 본다는것은 최상의 예술품을 감상하는것보다 더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단말이요.》

김익보는 팔목을 걷어올린 명주루바쉬까자락을 펄럭거리며 한손을 들고 마치 그것이 폭동이기나 한것처럼 내흔들었다. 그에 따라 어느새 길게 자란 머리카락이 귀바퀴우에서 춤을 추었다. 감옥에서 나온지

1년 남짓한 사이에 벌써 피둥피둥 살이 오른 얼굴에 혈색이 번져갔다.
《폭동이야 멋이 있지요. 허지만 이렇게 쫓겨다니는 폭동은 이젠 이에 신물이 납니다.》
진규는 의기소침했던 감옥에서의 김익보가 생각나서 이따금 서글픈 어조로 이런 말을 하군하였다.
김익보는 전 같으면 의례 발끈할수 있는 사람인데 웬일로 매우 너그럽게 받아넘기였다.
《그렇소. 그건 그렇단말이요. 그러나 혁명가의 립장에서 볼 때 혁명의 씨뚜아찌야가 느껴지면 생리적으로 피가 끓어야 하오. 그런 의미에서 혁명가란 특별한 체질을 타고난 사람이란말요. 참 나는 반갑소. 이 광막한 땅에서 나는 마음을 나눌 동지가 없어 얼마나 고독했는지 모르오. 이젠 진규동무가 왔으니… 참 유철이라고 가명을 달았다지? 그게 좋소, 혁명을 하자면 낡은 모든것과 깨끗하게 결별해야 하오. 그래 오는길에 고생을 하지는 않았소? 할미령의 그 객주집이 아직 있습디까?》
《객주집이 한채 더 늘었습디다.》
《그놈들이 사람고기를 먹이지는 않습디까? 하하하, 난 유쾌하오. 어쨌든 앞쪽에서는 사람들이 혁명할줄 알거던. 거기 혁명에서 세련된 벗을 맞이한다는것은 여기 하강의 혁명조직으로 본다면 뻬쩨르의 로동자들이 빨찍 해병들의 지원을 받은것만치나 큰 힘과 고무를 주는것으로 된단말요. 이제 우리 지방에서 맹렬히 좀 일해줘야겠소.》
《폭동이 준비되고있습니까?》
《준비되나마나 실상 우리는 그쪽보다 먼저 서둘렀던거요. 그런데 인물이 없단말요. 수십만 군중을 열광시킨 로베스피에르의 불타는 열변을 가진 그런 선동가가 있어야 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보니 우린 그만 선코를 빼앗겼소. 로베스피에르 없는 단톤이 무슨 일을 해내겠소? 이제 유철동무가 왔으니 여기 혁명도 전도가 양양하게 되였소.》
유철은 자기에게 로베스피에르가 되라는것도 우습거니와 스스로 단톤으로 자처하는듯한 익보가 애들같이 순진해보이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였다.
《난 프랑스혁명이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로베스피에르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익보동무로 말해도 우리가 프랑스혁명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는것은 좋지만 역시 프로레타리아혁명을 하면서는 프로레타리아혁명의 경험과 교훈을 더 중시해야 하지요.》

《그건 그렇소. 그러나 프랑스혁명도 멋은 있단말이요. 나한테 책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오. 로베스피에르의 선동연설이란 기가 막히오. 막 피가 끓는단말이요. 그러니 그 빠리친구들이 어찌 미쳐나지 않겠소. 하하하. 이것은 다 여담이고… 참, 우선 사처를 정해야지.》

《천천히 하지요. 그리 급할게 있습니까?》

사실 유철은 아직 점심을 먹지 못하고 또 감옥에서 나온 길로 집을 떠나 두달이나 방랑행각을 하다나니 피곤이 몰릴대로 몰려있었다. 집에 들어서서 잠시를 지체하고 인차 피신하여 처음 한달가량은 배나무골을 가운데 두고 이곳저곳 동지들을 찾아 돌면서 정세를 보았다. 그러나 간도의 검거선풍은 진정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험해만 갔다. 동지들은 하나둘 체포되고 나머지는 모두 집을 떠나 사처로 흩어져버렸다. 아무데서도 조직과 련계를 지을수 없었고 지어는 제몸을 감추고 돌아다닐수도 없었다.

유철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오던 미련을 버릴수가 없어 길림으로 가보았다. 벌써 2년전에 있었던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의 지도자를 이제 와서 찾는다는것이 부질없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지도자에 대한 갈망은 너무나 목마른것이였다. 그러나 처남의 말과 같이 길림은 어찌나 반동들이 그악스레 설치는지 발들여놓을데도 없었다. 겨우 뜬소문으로, 그때 지도자께서는 새로운 투쟁을 벌리러 드넓은 지대로 나갔으리라는 일반군중의 추측만 얻어듣고 또다시 추격을 받아 할미령 턱밑으로 밀리여났다.

할미령 남쪽골안에는 리용수라는 기왕부터 면식이 있는 사람이 청년조직을 지도하고있었다. 마지막 희망을 거기에 걸고 찾아갔더니 리용수 역시 쫓기여 험한 산속의 외따른 농막에 숨어있었다. 그의 안해가 한밤중에 남몰래 내다주는 밀기울떡을 씹으며 멍하니 농막천장만 바라보고있는 그를 만났을 때 유철은 마지막으로 걸고있던 기대가 산산이 부서져나가는것을 느끼며 수척해진 동지를 그러안고 서로 가슴을 쳤었다.

《그래 어떻게 해야 하오? 어디에 우리의 갈길이 있소?》

《캄캄하오. 조선의 앞길은 어둡소. 아— 사랑하는 우리 조국은 이렇게 갈가리 찢기고 마는가보오.》

누가 묻고 누가 대답하는 말이였는지 똑똑치 않았다. 보름동안이나 두사람은 서로 묻고 서로 대답하면서 마침내는 안타깝게 가슴을 치

며 울부짖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말이요?》

《그걸 누가 알겠소.》

그 역시 누구의 물음인지 누구의 대답인지 모를 몸부림과 웨침이 엇갈리고 그 뒤끝에는 의례 무엇인가 짓부시고 두들겨엎자는 발작적인 제의가 나오군하였다.

한번은 바깥형편을 알아보러 산을 내려갔던 리용수가 며칠후에 현성에서 령사관으로 다섯명의 동지들이 후송된다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돌아왔다.

두사람은 다 흥분하였다. 그놈들을 치고 동지들을 빼앗아내자는 말을 누가 먼저 하였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그들은 의례 그렇게밖에 달리는 길이 없는것으로 무의식중에 확신하였다. 그러면서도 실상 두 사람 다 그것이 어떤 현실성있는 계획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다만 달리는 길이 없었다. 길이 없다고 한뉘 썩은 삭정이가 무너져내리는 농막천장을 바라보며 가슴만 치고있을수는 없는 일이였다. 그렇기때문에 두사람의 힘으로 호송도중에 동지들을 탈환한다는것이 너무나 무모하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입밖에 내비치지 않았다. 리용수는 젊었으나 침착하고 듬직한 사람이였지만 그역시 앞길이 막막한 오랜 도피생활에 우선 정신적으로 지쳐빠졌었다. 그렇기때문에 그 어떤 무모한 행동이라도 해서 아무런 앞길도 약속되여있지 않는 피차의 무의미한 방랑을 일단 끝장내자는 유철의 주장에 적극 호응해나섰었다. 그들에게는 한알의 수류탄과 번쩍번쩍 날이 선 손도끼가 있었다. 그들은 벼랑길이 바투 강가로 나가붙은 굽인돌이 험지에 매복하였다. 네놈이나 되는 경찰이 동지들을 끌고왔다. 그들은 모두 리용수와 련계를 맺고있던 청년들이였다. 그들을 다 빼낸다면 다시 조직을 꾸리고 앞으로 무엇인가 할수 있을듯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호송대렬이 나타났을 때 유철이도 리용수도 자기들이 너무나 타산없이 접어들었다는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우선 놈들의 경계가 예상외로 삼엄한데 이쪽은 수적으로나 무장에 있어서 대비할바가 못되였다. 뿐만아니라 네놈을 그 자리에서 몽땅 잡아치운다면 좋지만 한놈이라도 뛰는 날이면 즉시에 추격이 있을것이였다. 그러나 이쪽은 탈환한 동지들까지 일곱명이 어디에 은신할데도 피해갈데도 마련되여있지 않았다.

이 모든 생각들은 적의 호송대렬이 산굽이를 돌아서는 그 순간에 떠오른것이였다. 그러나 두사람은 다같이 최초의 계획을 재검토할 용기가 없었다. 울분이 지나쳐서 리성을 되찾을 여유가 없었다. 어쨌

든 부딪쳐보자. 되든 안되든 끝장을 보자. 이러한 충동이 그들을 맹목적인 습격에로 내몰았다. 유철이가 뒤에 처져오는 두 경관놈을 향하여 수류탄을 쥐여뿌리는것과 동시에 리용수는 도끼를 들고 앞장선놈을 까기로 미리 약속을 정하였었다. 그러나 일이 안될 때라 어느 산림경찰에게서 샀다는 그 수류탄은 불발이였다. 수류탄 폭발소리가 없다보니 맨 앞에 선놈은 예견한대로 당황하지 않았고 따라서 도끼를 쳐들고 접어드는 리용수앞에 총창을 내댔다. 유철은 폭발은 없었지만 수류탄에 맞아 한놈이 비칠거리는 순간에 다른 놈에게 달려들었다. 그놈은 놀라기는 무척 놀란 모양으로 총을 쏠 생각보다 소리부터 치면서 총자루를 휘저으며 접어들었다. 그 사이 포승을 진 동지들은 뿔뿔이 산속으로, 벼랑밑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총소리가 터져올랐다.

《뛰라!》

유철은 마주안은 놈의 아래도리를 걷어차고 산으로 올리뛰였다. 와당탕거리는 발소리와 고래고래 웨치는 경관놈들의 목소리가 마구 쏘아대는 총소리 사이사이로 들려왔다. 그날저녁 유철은 할미령턱밑 약속한 지점에서 리용수를 기다렸다. 그러나 용수는 오지 않고 사냥개를 앞세운 경찰대가 밀려들었다.

이튿날에야 유철은 고개턱에 있는 객주집에서 습격이 완전히 실패했다는것을 알았다. 일단 흩어졌던 동지들은 도로 잡히고 리용수는 행방불명이 되였으며 적들은 할미령일대에 삼엄한 경계망을 늘이고 두사람을 추격하고있다는것이였다. 그사품에 여태 숨어있던 산막도 습격당하였다. 아무데도 의지할데가 없었다. 개를 앞세운 경찰들이 골짜기마다 참빗질하듯 훑고다녔다. 유철은 마치 포수에게 쫓기는 외로운 사슴처럼 몇날몇끼를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숲속을 헤매다녔다. 어느 바위밑에 숨어있느라면 바로 코앞에 있는 오솔길로 적들이 지나갔다. 그때마다 자기의 경거망동을 뉘우치면서 다시금 그놈들을 덮치고싶은 강한 충동을 억누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또다시 발작적인 어떤 무모한 행동에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시빨리 눈앞에 적들이 얼씬거리는 그곳을 빠져나야 하였다. 그러나 이미 유철이 낯익은곳에는 갈곳이 없었다. 그래 떠오른것이 감옥에 있을 때 출옥하면 기어코 자기를 찾아와 달라고 신신당부하던 김익보의 말이였다. 화룡에서 총총히 만난 한 동지를 통해 그가 하강지구의 백리허에서 일하고있다는 소식도 들은바 있었다. 그

래서 할미령을 넘었고 현성에서 우연히 큰개로 가는 길을 물었던것이 마침 이 동네의 김익보 영향하에 있는 청년이여서 곧장 찾아온것이였다.

《이담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 하강지구에서 문제의 초점은 안골의 지주토호들과 민족주의자, 특히 안골의 부르죠아적, 봉건적민족주의자들을 사상리론적으로 때려눕히는것이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이요.》

김익보는 마루바닥에 앉아서는 도무지 진정할수 없는지 백구두뒤축을 아무렇게나 꺾어신고 마당을 거닐었다. 거닐다가 주머니에서 대통이 주먹만한 골통대를 꺼내여 조급히 써레기담배를 다져넣었다.

《안골이라는데가 반동의 소굴이라면 응당 쳐야지요. 그런데 력량이 있습니까?》

유철은 익보의 거동이며 과격한 말투가 다소 미타하게 느껴지기도 하였으나 전부터 아는 익보라는 사람이 지나치게 틀을 차리기 좋아하는데다 바람기가 좀 센 편이라 그저 한바탕 불어대는것이려니 생각하고 가볍게 응하였다. 유철의 그런 태도가 익보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 쓰거운 표정으로 한마디 하였다.

《유철동무, 동무는 아직 여기 형편을 모르오. 동무는 여기가 생소하기도 하지만 또 리론을 실지 투쟁에 구현하는데서 교조주의를 범할 위험도 있는것 같소. 리론이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요. 대체 혁명의 력량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단순한 수자적개념이라면 이는 혁명의 영웅성을 모욕하는것이요. 하여간 좋소. 폭동이 당장 오늘저녁에 있는것은 아니니 몸도 조심할겸 하강지구의 혁명정세를 잘 연구해보오. 그리고나서 나와 좀 이야기해봅시다.》

익보는 맹렬한 기세로 한바탕 섬기더니 덤덤해있는 유철을 보자 게면쩍어졌는지 갑자기 어투를 낮추어 부드럽게 덧붙였다.

《하여간 유철동무와 같은 사람이 여기에 몇몇만 더 있다면 나는 하루아침에 하강지구에서 토호렬신들을 다 쫓아낼 자신이 있소.》

유철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과정에 누군가를 찾아갔다가는 의례 느끼군하던 그 서글픔이 또다시 가슴 한구석에 싹터오는것을 느꼈다. 여기에도 확고한 로선이 없다. 여기에도 안개가 질다. 어디선가 빚을 그리는 배고동소리가 울리는것만 같다.— 익보의 요란한 말속에서 얼씬얼씬 내비치는 이런 피맺힌 현실의 속삭임을 느낄 때 유철은 설레설레 고개를 내저으며 마음속으로 울부짖다싶이 자신을 타일렀다.

(그래도 여기엔 혁명의 기세가 고조되고있지 않는가?

어쨌든 혁명가들이 폭동을 준비하고있지 않는가?

그리고 어쨌든 아직 조직이 움직이고있지 않는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 혁명이란 결국 이런 유년기를 거쳐야만 성장하는것인지도 모른다. 《소아병》을 앓지 않고는 어른이 되기가 힘드는것인지도 모른다.)

유철은 애써 론쟁을 피하려고 스스로의 마음을 눅잦히면서 말하였다.

《익보동무, 서대문형무소가 동무에게는 이상한 작용을 논것 같군요.》

《일제의 감옥이 감히 이 김익보를 어떻게 한단말이요.》하고 김익보는 어처구니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는듯이 이었다. 《나는 체포전이나 출옥후나 여전히 공산주의자 김익보일따름이요. 이제 두고보오만 안골이라는데 지주들이 틀고있는데다 경상도출신의 완고한 봉건세력과 독립군잔당들이 또 그놈들에게 매수되여 갖은 흉모를 꾸미고 있소.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미 타격을 든든히 주고 그 발판을 홀가닥 뒤집어버렸소.》

김익보는 사뭇 기세등등해서 주먹같은 골통대에서 곰잡듯 문문 연기를 피워올렸다. 체격을 보면 키는 거의 유철이만큼은 큰 키이지만 훨씬 가는 편이고 또 감옥때를 다 벗었는데도 인테리특유의 그 창백한 안색을 하고있어서 어딘가 메마른 인상을 주게 하였지만 본인은 스스로를 큰 호걸로 자부하는지 모든 행동거지를 크게만 하려고 들었다.

유철은 감옥에서 짜증스럽게 굴던 그의 신경질을 문득 상기하고 그렇던 그가 다른 환경에서는 이처럼 사람이 틀스러워졌구나 생각하니 무엇때문인지 자기의 아래우를 스스로 내려다보게 되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역시 감옥에서의 익보 못지않게 캄캄한 현실을 두고 불안을 느낀 나머지 어린애와 같은 무모한 습격을 서슴지 않았다. 그것은 혁명도 동지애도 아닌 단순한 짜증의 폭발이요, 시련을 이겨낼 힘이 자기에게 없는데 대한 무의미한 반항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던 내가 오늘은 마치 혁명가로서의 리성이나 가진 인간처럼 대범하게 앉아있는것은 가소롭지 않는가?

그러나 다시 생각해볼 때 자기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대범한척해 보아도 메꾸어지지 않는 빈구석이 검은 동굴과 같이 뻥하니 뚫려있는것이다. 조선혁명의 미래에 대한 확신은 없다. 조국은 눈앞에서 찢기고 밟혀도 그것을 되찾을 방략은 없다. 그러면서도 갈길 모르는 이 벌판을 이렇듯 갈팡질팡 헤매는것은 하나의 타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혹은 이런것이 김익보의 말대로 목적도 결과도 따지지 않고 오직 폭동 그자체에 매혹돼버린 인간의 구슬픈 숙명인지도 모른다.

하기는 익보라는 사람은 아무런 사랑도 끼쳐주지 않은 사막과 같은 그의 생활환경때문인지 무엇에 대해서나 반항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였다. 거기에 비해볼 때 사랑하는 아이와 안해를 버려두고 자기가 헤매다니는 이 길은 과연 어디로 통해있는것인지 스스로도 종잡기 어려웠다.

이것이 과연 내 조국과 내 겨레를 건지는 그 길로 이어져있는가?

유철은 흰구름이 뭉게뭉게 피여오르는 숲우의 하늘을 바라보며 덧없는 생각에 잠겼다.

광막한 숲의 검은 변두리가 끝없이 뻗어나갔다. 태양은 흰구름뭉치를 눈부시게 비치여 일순 확 불이 당길듯이 밝아졌다. 그러나 숲은 여전히 그 검은 변두리에 싸이여 침묵에 잠겨있었다. 그것이 마치 제 가슴속처럼 답답하였다. 그 속을 와락 잡아헤치면 조선혁명의 앞길이 환히 열리지 않을가 하는 환상이 문득 떠올랐다.

《얘 채숙아, 밥상 내가거라. 시장들 하겠다.》

부엌에서 아까부터 밥그릇 부딪치는 소리가 나더니 집에 들어올 때 피뜩 인사를 한 이집 안주인늙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엌에 잇달린 아래방에서 뒤울안으로 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잠시후 부엌에서 새하얀 무명적삼에 짧은 곤색치마를 입은 단발의 젊은 녀인이 밥상을 들고나왔다. 얼굴은 새하얗고 키는 후리후리한데 첫눈에도 리지적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는 반면에 어덴지 모르게 애틋한 향수 같은것을 느끼게 하는 인상이였다.

(채숙이라?)

유철은 그 녀자가 부엌을 나서는 첫순간에 왜 그런지 무척 낯익다는 생각이 들어 찬찬히 뜯어보았으나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채숙은 유철이가 찬찬히 뜯어보는바람에 면구해선지 밥상을 든채로 눈을 내리깔았다. 스물댓이나 났음직한 나이에 짤막한 곤색치마며 수수한 무명천이지만 가뜬하게 다려입은 적삼이 생신하고 세련된 취미를 충분히 엿보게 하였다.

무척 당황한 모양으로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여 퇴마루까지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온 채숙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과 같이 점심드십시오.》

《로자동무, 고맙소. 같이 합시다.》

《저를 로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채숙이는 밥상머리에 서서 적삼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낮게 말했다.

《허— 오늘은 로자양이 무척 주눅이 들었다—》

김익보는 유쾌한 모양 껄껄 웃었다. 그 순간 채숙은 피뜩 익보를 치떠보았는데 유철은 그 눈길에서 처녀가 익보에 대한 어떤 불쾌감을 가까스로 누르고있다는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저를 로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채숙은 다시한번 낮게 반복하였다. 그 말투는 매우 싸늘하였다. 익보는 채숙의 그런 말투에 다소 당황한 모양 유철을 돌아보더니 두팔을 쩍 벌렸다.

《허허허, 로자가 왜 나쁘오? 자, 그건 그렇고 서로 인사나 하시오, 이분은 저 서대문형무소에서 이름난 혁명가 유철동무요. 그리고 이 동무는 조선의 로자 룩셈부르그인 로채숙양이요.》

익보는 두팔을 쩍 벌리기는 하였으나 일상 그 녀자에게서 그런 대접을 받는 모양으로 조금도 노여워하는 빛 없이 반죽좋게 거북한 대목을 굼때버렸다.

《저도 한번 강연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하고 채숙이는 긴 살눈섭을 슴뻑거리며 유철을 반가운 눈길로 치떠보더니 가벼운 웃음과 함께 다시 눈을 내리깔고 이었다.

《전 로채숙양이 아니라 로채숙이예요. 룡정에서 녀학교를 좀 다녔기때문에 저도 만나뵈온적이 있어요.》

유철은 그제야 어디서 만난듯하다는 첫인상이 전혀 착각이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녀자가 자기를 무척 반가와하나 김익보의 앞이라 될수록 실무적으로 말하려 한다는것, 그러면서도 얼굴이나 몸매, 지어 될수록 차겁게 말하려고 애쓰는 그 말투에서조차 지성적이면서도 아늑하고 부드럽고 따뜻한것이 내풍기는것을 느꼈다.

《난 유철이올시다.》

유철은 채숙에게서 느끼는 그 지성과 향수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때문인지 문득 오늘은 피바다에 잠긴 아름다운 고향에서 흘러간 생활을 머리속에 그리며 조심스레 내미는 채숙의 손을 마주 잡았다. 자그마한 그 손은 뜻밖에도 굳은살이 박여 꽛꽛하였으나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동무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인운동에 대한 테제는 다 준

비되였습니까?》

유철은 그 녀자의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채숙의 얼굴은 삽시에 발갛게 상기되여 열여덟 소녀와 같은 말투로 물었다.

《조직은 모든것을 알고있지요, 난 로채범동무와 가까왔습니다. 동무를 보니 채범동무생각이 나는군요.》

《오빠를 아세요? 오빠가 학살당할 때 보셨어요?》

채숙은 한걸음 다가서며 두손을 앞가슴에 모두어잡고 안타깝게 물었다.

유철은 그 녀자의 긴 살눈섭이 삽시에 젖어드는것을 보고 이처럼 순진한 녀자가 무엇때문에 김익보에게 그처럼 쌀쌀하게 대하는지 리해되지 않았다.

《그날 나도 그 회합장소에 있었습니다. 내가 몸이 좀 날랬기때문에 화를 면하고 문건을 빼낼수 있었을뿐입니다. 그 사건이 로채범동무 한사람의 희생으로 끝나고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것은 전적으로 채범동무의 자기희생적인 투쟁때문이였지요. 채범동무는 약골이였지만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싸우다 경찰의 흉탄에 희생되였습니다.》

《알겠어요. 장례때 닉명으로 부조를 보내주신것은 동지였군요?》

《부조가 닉명이였다면 5～6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걸 캘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 어머님을 모시고 여기에 계십니까?》

《네.》

채숙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거리며 새삼스럽게 유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오빠 돌아가신후에는 어머님께서 영 그집에 있기 싫다고 하고 또 제가 나다니니까 겁도 나고 해서 그냥 이사를 하자고 조르는거예요. 저의 외가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 여기 와서 조직의 위임에 의해 야학교에서 교원노릇을 하고있어요.》

《그러고보니—》

두사람의 이야기가 길게 늘어나자 제먼저 밥상앞에 가앉은 익보는 수저를 든채 무료히 기다리다가 마침내 기회를 얻어 한마디 하였다.

《상당히 깊은 전생활이 있는 셈이군. 자, 이야기는 이따 천천히 하기로 하고 일부러 더운밥을 지었는데 식기전에 점심부터 들고보지…》

《참, 어서 드세요. 사처를 정하시면 제가 찾아가겠어요.》
채숙은 처음과 같이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다.
《나도 어머님을 찾아뵙겠습니다.》
《무서운 녀자요.》
채숙이 사라지자마자 한끝이 검붉게 약이 올라가는 풋고추를 하나 덥석 집어 접시에 담은 토장에 꾹 찍으며 익보는 말하였다.
《오늘은 별로 얌전한체하는데 사실은 녀걸도 보통 녀걸이 아니요. 현에서 부위공작을 시켜볼가 하는데 좀 과격해서 탈이거던.》
유철은 잔말없이 시원한 랭국을 훌훌 들이마시다가 구수하게 잘 퍼진 수수가 한 절반 섞인 밥을 한술 떠넣었다.
《저 동무의 오빠는 견실한 동무였소.》
《참, 그런데 어떻게 인차 알아봤소?》
고추를 와삭와삭 씹어먹던 익보는 매운티도 내지 않고 물었다.
《모습이 꼭 같군요. 이름도 엇비슷하고…》
《참 놀라운 기억력이요. 들으니 저동무 오빠가 희생된것은 벌써 5년전이라는데… 보지도 못한 처녀를 그때 사건을 통해 알아맞힌다는것은 놀라운 일이요.》
익보는 전혀 놀라와하는 빛도 없이 연방 풋고추며 마늘이며 생파를 토장에 꾹꾹 찍으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유철은 그저 듣기만 하면서 랭국에 밥을 한술 떠놓고 시원한 맛으로 훌훌 마시다가 한참 동안이 지나서 조용히 대꾸하였다.
《시시한 일은 다 잊어버리지만 혁명동지에 대한 일인데 어떻게 잊어버릴수가 있겠소.》
채숙이가 다시 숭늉을 가지고 나왔다.
《찬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마치 오래간만에 돌아온 친오빠나 대하듯 상냥하고 스스럼없는 어조로 이렇게 말하며 퇴마루 한귀에 대접을 내려놓았다.
《로자동무가 오늘은 카메레온 같이 변화무쌍하군.》
익보는 닁큼 숭늉대접을 집어들며 한마디 하였으나 채숙은 잠자코 서있더니 잠시후 아까와 꼭 같이 차거운 어조로 말하였다.
《저를 비판하시는거예요?》
《뭐 특별히 비판은 아니라도 그렇다는 말이지. 변덕이란 소부르죠아인테리의 고유한 특성이요.》

《비판을 하시려거든 회의에서 해주세요.》

유철은 이들의 관계를 도무지 대중할수 없었다. 처음 익보를 만났을 때는 이 집이 혁명가의 집이고 이 집 처녀가 대단한 녀자라고 극구 칭찬하였었다. 그런데 오고가는 이야기들을 보면 지나치게 가까와서 그런지 지나치게 비뚤어져서 그런지 도무지 한지붕아래 사는 동지간의 대화라고는 믿기가 어려울만큼 가시가 돋쳐있었다. 기왕에 알고있는 익보의 인상과 방금 자기와 주고받은 몇마디 대화며 익보의 틀스레 구는 품으로 미루어보아 어렴풋이 이 사람이 조직의 지위와 지나친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고있지나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곁을 잘 안주는것이나 아닌가 하는 짐작이 떠올랐으나 속단할 일도 아니여서 스스로 그런 생각을 눌러버리고말았다.

채숙이가 밥상을 들고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옆골목에서 와당탕거리는 발자욱소리가 들려왔다.

《놓소. 내가 말만 할텐데 뭘 그러는가? 동무는 돌아가란말이야!》

마치 징소리같이 왕왕거리는 목소리가 골목을 쩡 울리더니 어느새 허물어진 토담을 지나 마당안으로 키가 륙척같은 희멀끔한 청년이 쑥 들어섰다. 그 뒤로 조선바지저고리에 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인 중년의 농민과 밤빛으로 물들인 광목단체복을 입은 청년 두사람이 따라섰다. 앞선 키큰 청년은 나이 스물댓살이나 났겠는데 역시 밤빛단체복을 입고있었다. 소매를 걷어올린 그 옷자락밑에서 근육이 솟아올랐다.

유철은 마을로 들어오면서 이미 그런 옷을 입은 청년을 한사람 만났는데 자기를 안내해오던 젊은이로부터 그것이 부단히 출몰하는 토비들의 로략질을 막기 위해 이 큰개부락과 안골마을 일대에 조직된 농민자위대의 간부들이라는 말을 들었다.

《김익보동무, 이리 좀 나서오!》

청년은 마당한복판에 이르자 두다리를 떡 뻗치고서더니 집이 허물어질것만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흰 바지저고리를 입은 농민이 곁에 와 서며 무엇이라고 소곤거렸으나 한팔로 뿌리치고말았는데 가볍게 밀어낸다는것이 그 사람은 옆으로 자빠질것처럼 비칠거렸다.

《두성동무, 웬일이요? 무엇때문에 우정 찾아왔소?》

익보는 웬일인지 낯색이 변했으나 될수록 침착한 외양을 지으려고 천천히 백구두의 꺾어진 뒤축을 바로 펴신고 마당으로 나섰다.

《내가 우리 5촌 아재비때문에 폭동을 꺼려한다고 말한다니 나는 지

금 당장 폭동을 일으키자는것을 제기하러 왔소.》

청년은 한자리에 뻗치고서서 여전한 큰 목소리로 웨치다싶이 말하는데 수북이 자란 검은 눈섭이 푸들푸들하였다. 익보의 얼굴은 삽시에 백지장처럼 질렸다.

그러나 웃사람다운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날카롭게 꾸짖었다.

《박동무, 이게 무슨 짓이요? 조직의 비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들어대는 법이 어디 있소? 게다가 숱한 사람들을 몰고와서…》

《그렇게 비밀인것을 왜 동무는 이 사람들보구 떠들었소?》

박두성은 김익보가 그런 말을 하려니 하고 미리 기다리고있었던 모양으로 제꺽 걸고늘어졌다. 익보의 입귀는 눈에 알리게 푸들거렸다.

《내가 사업을 토의하기 위해서 하부일군들과 고려할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수도 있단말요. 동무가 박병섭의 조카인것은 사실이 아니요? 우리가 안골 지주를 치는데 장애물인 박병섭문제를 토의하면서 동무가 박병섭의 조카라는것을 고려한것이 무엇이 잘못이란말요?

그리고 조직의 비밀을 들고다니면서 이따위 말썽을 일으킨자는 누구요? 당장에 조직규률문제를 보겠소!》

익보는 사태가 이미 순조롭게 풀리기는 틀렸다는것을 느꼈는지 맹렬한 기세로 반격해나섰다.

《원칙을 지키겠으면 똑똑히 지키오. 그래 동무가 강성재동무에게 무슨 사업토의를 했단말이요? 난 폭동을 주장하오. 당장 안골을 치잔말요. 박병섭이가 우리 혁명을 가로막는다면 5촌아재비가 아니라 바로 친아버지라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해치우겠단말이요.》

《여보세요, 동무!》

로채숙이가 들었던 밥상을 도로 마루바닥에 놓고 야무지게 불렀다.

《너무하시지 않아요? 손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떠들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피차 한 일도 없이 큰소리만 친다는것은 부끄러운 일이예요.》

《뭐요!》

박두성이 소리치자 마루끝에 기여나와서 킹킹거리던 개가 혼이 빠져서 꼬리를 살에 끼고 마루밑으로 쑥 기여들어가버렸다. 박두성은 주먹을 움켜쥔채 후들후들 떨었다.

《강성재동무! 동무가 이야기 좀 하오. 김익보동무가 이 박두성이를 뭐라고 모욕했는지 말 좀 하란말이요!》

중년의 농민은 박두성이 등을 내밀자 오돌오돌 떨며 말하였다.

《진정하게, 혁명동지간에 이렇게 해서야 쓰겠나? 제발 진정하게, 내가 혹 잘못 들었을수도 있고하니…》

유철은 이들의 소동을 묵묵히 들으며 조용히 숭늉을 마시였다.

자기가 처음 혁명에 나섰을 때 온몸에 넘쳐나는 혈기를 이기지 못하여 동무들끼리 시답잖은 문제를 가지고 귀결에 얻어들은 고전의 명제들을 끌어대가며 밤을 새워 론쟁하던 일이 생각났다. 혁명적실천은 없고 과격한 혁명의 언사만 희롱되였다. 당시만 해도 지금 이 하강지구와 같이 혁명은 앙양되여 회관같은데 수천명 군중을 모아놓고 사회주의선전을 공개적으로 해내던 시절이였다. 그런 시절에 말시비만 캐고 백해무익한 유치한 론쟁만 하다보니 조직은 로출되여 반혁명은 마음껏 피비린내 나는 탄압을 할수 있었던것이다.

유철은 괴춤에서 종이를 찢어내여 써레기를 말았다. 불을 켜대여 담배 한모금을 깊숙이 빠니 간도의 그 삼엄하던 정세가 절로 생각나서 마치 딴세상에 온듯한 느낌이 새로왔다.

《허허허.》 유철은 저도모르게 웃음이 나서 허구프게 한바탕 웃었다.

《동무는 누구요? 동무가 간도에서 왔다는 사람이요?》

박두성은 웃음소리를 듣고 비로소 유철을 발견한것 모양 여전한 그 징치는 소리같은 큰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소, 동무 이리 좀 와앉소. 내가 보건대 동무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렇게 마당에 서서 떠들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게, 조직적분위기속에서 토의되여야 할 문제 같은데 동무생각엔 어떻소?》

유철의 조용한 목소리를 듣자 박두성은 어리둥절하여 새삼스럽게 주위사람들을 한바퀴 돌아보더니 말하였다.

《나는 지금 대단히 흥분되였소, 아무래도 가만가만히는 말할수가 없소.》

《보매 동무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있는것 같은데 책임적인 사업을 하는 동무들이 흥분하는것은 혁명에 해롭소. 이리 와서 담배나 한대 피워보시오.》

유철은 담배곽을 밀어놓으며 눈짓으로 그를 불렀다. 박두성의 목소리는 차차 가라앉고 그의 훤칠한 얼굴에는 좀 난처해하는듯한 빛이 떠올랐다. 이로써 그가 매우 소박하고 솔직한 사람이라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박두성은 잠시 주저하더니 데리고온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돌아가오, 돌아들가오！》

그는 털썩털썩 마루바닥에 와서 쾅 소리가 나게 걸터앉았다.

그제야 농민자위대원들과 강성재는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며 골목으로 나가고 로채숙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나갔다. 부엌문이 열리더니 걱정스럽게 바깥동정을 살피던 채숙의 어머니가 딸을 맞아들이며 하는 말소리가 들렸다.

《에그, 나그네가 아니더면 살인이 날번했구나. 두성이를 제발 건드리지 말라는데 넌 계집애가 왜 오지랖넓게 아무데나 나서군하니？》

《어머닌 혁명에 대해 간섭하지 마세요.》

《원, 혁명은 혼자 하는것 같다, 쯧쯧.》

두성은 엄지손가락만하게 담배를 말더니 뻑뻑 피워댔다. 그리고는 아직도 낯빛이 질려 마당한귀에서 서성거리는 김익보의 뒤통수를 바라보았다.

《난 도무지 말을 해서는 당할수가 없소.》

유철은 그의 건장한 육체와 준수한 얼굴을 보자 웬일인지 즐거운 생각이 났다.

《그래 동무는 어떻소？ 내 보기에 동무는 조직성이 부족하고 혁명가의 수양이 부족한것 같은데…》

《그건 옳게 잘 보았소. 난 말하자면 개인영웅주의가 좀 있는것 같소. 그래 저 김익보동무랑 로채숙동무한테 자주 비판을 받소. 여보 익보동무, 이리 와 앉소. 내가 오늘은 좀 과하게 한것 같소. 허지만 동무도 옳지 않단말이요.》

박두성은 체통에 비해서는 어린애처럼 단순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는 채숙에게 랭수 한사발을 청해가지고 벌컥벌컥 단숨에 다 들이켰다. 익보는 허물어진 토담가에 서서 한참이나 서있더니 중얼거렸다.

《이런 판에 혁명이 무슨 혁명이요. 수준이 그래도 웬만해야 일을 해먹지…》

《그렇소. 우린 수준이 어리오.》

박두성은 이제는 익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대수롭지 않다는듯 선선히 맞받아넘기며 아직도 타고있는 그 엄지손가락만한 담배를 또 뻑뻑 피워물었다.

《그러나 수준은 어려도 밸은 있단말이요. 안그렇소, 간도동무？》

《자, 이젠 그런 소리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를 합시다. 난 유철이요. 우리 알고 지냅시다.》

《내 이미 동무의 소식은 들었소. 난 박두성이요.》

두성은 솥뚜껑 같은 손을 내밀어 유철의 손을 꽉 틀어쥐고 말을 이었다.

《우리 집안은 다 안골에 있는데 거기 반동두목이 우리 5촌아재비 박병섭이요. 이걸 가지고 저 익보동무랑 조직에서는 그냥 나를 몰아댄단말이요. 그때문에 내가 살이 내릴 지경이요.》

《동무의 당숙이 땅이 얼마나 되오?》

《땅이야 보잘것 있소? 한 사나흘갈이 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데 이 령감이 독립군을 하다가 홍범도랑 국경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가지 않고 쥐뿔도 못하면서 떨어져서는 이 큰개에다 조선학교를 만들고 또 촌공서를 조직해가지구는 백리허일판을 쥐락펴락했단말이요. 그러다가 재작년 중동선 철도문제때문에 어중이떠중이 군대들이 밀려드는바람에 점점 세력범위가 줄어드는 판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서 학교도 빼앗고 청년단체도 빼틀어서는 령감을 안골로 내쫓고말았지요. 그랬더니 이 령감이 안골에 남아있는 독립군패들과 완고한 늙은이들을 묶어가지고는 우리 공산주의자들하구 기어코 해보자고 독을 피우고있단말이요.》

《아니, 그건 무슨 소리요? 그래 동무의 당숙이 그렇게 악질이라면 그까짓 령감하나 잡도리를 못해서 그리 대단하게들 야단이요?》

유철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알수 없게 되여 다우쳐물었다. 그 령감이 학교를 조직하고 반동군벌을 반대해서 촌공서를 조직하고 한것들이 설사 민족주의적색채를 진하게 띠였다 한들 그것이 그리 큰 문제로 될것이 없지 않은가? 게다가 학교를 빼앗고 청년단체를 빼앗고 안골로 내쫓았다는것은 무슨 말인가?

《동무, 이야기를 하려면 혁명적립장에서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소?》

김익보가 비로소 흥분을 가라앉히고 저으기 심중한 어조로 말하며 점잖은 걸음으로 다가와서 두사람사이에 걸터앉았다.

《이제 안골문제는 조용히 따로 보겠지만 실상 이 하강지구 백리허일대에서 안골문제는 중심문제나 다름없소. 박병섭은 단지 독을 피우고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조직을 비방중상하고 군중들속에서 악독한 반공선전을 일삼고있소. 이 늙은 반동은 이왕에 아무 한일도 없는 독립군생활을 코에 걸고 대중을 기만하여 제 손아귀에 틀어쥐고

갖은 반동음모를 다 꾸미고있소. 가령 우리 조직에서 공작원을 들여보내면 은밀히 감시조직을 하고 안골청년들을 시켜서 폭행을 가하게까지 하오. 뿐만아니라 악질지주 정희겸과 한짝이 되여 인민들을 간악하게 착취하고있소. 그런데 위험한것은 안골의 무지몽매한 군중들이 전부 이 간악한 늙은이의 악선전에 속아넘어가서 령감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대도 곧이듣는 형편이요. 이 령감은 말하자면 백리허에서 총독 쫄짜크 같은 존재란말요.》

김익보는 류창하게 박병섭의 본질을 규정짓고 더는 첨부할 말이 없다는듯이 먼산을 바라보았다.

《정희겸과 한짝이 되여 인민들을 간악하게 착취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지만 그까짓것은 문제가 아니요. 사실 이 령감이 위험한것은 안골동네에서도 정희겸을 제일 미워하는것이 이 령감이고 또 이 령감만이 정희겸을 상대해서 골을 못쳐들게 할수 있기때문이요. 게다가 이 령감은 착취커녕 자기가 어쩌다 농사를 못지은 해에는 곡식을 먹지 않고 솔잎을 먹고 짐승사냥을 해서 연명한다는 늙은이요. 그때문에 이 령감이 인기가 있단말이요.》

박두성은 김익보와는 전혀 딴 문제에 대해 말하듯이 서글서글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 비본질적인것을 가지고 사태를 모호하게 만들지 마시오. 동무는 마치 자기의 육친관계를 초월한듯하면서도 실상 언제나 가족주의적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음으로 양으로 그 령감을 두둔하고 옹호하고있소. 그런 경향은 다른 사람에게도 극히 유해로운 작용을 하고있소. 안골은 대부분 경상도출신의 농민들로 주민구성이 되여있소. 그중에서도 많은것이 밀양박가네 패들이요. 이러다보니 이들이 모두 지방주의,가족주의적으로 얽혀있고 종파를 형성하고있소.

그 터전을 뒤집지 않고는 혁명은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소.》

박두성은 숱이 진한 눈섭을 치켜들고 익보의 창백한 얼굴을 어처구니없는듯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침을 탁 내뱉았다.

《박병섭이란 흥미있는 인물이군요.》

유철은 아직 보지 못한 완고한 늙은이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며 문득 아버지 생각을 하였다. 결곡하고 괄괄하고 주대가 세던 아버지였다. 그래서 그 완고하다는 령감에게 마음이 끌렸다.

로채숙이가 새까만 치마저고리를 입고 얄팍하게 싼 책보를 끼고 안

방에서 나왔다.

《어디로 가오?》

익보가 묻자 마루밑에서 뒤굽이 높지 않은 구두를 찾아 신고 돌아섰다.

《아지트에 가요. 부녀회열성자들의 강습을 위해서 미리 출판물을 준비해야겠어요. 그리고 유철동지 숙소문제도 좀 토의하구요.》

《저녁에는 우리가 아지트를 써야겠소. 회의를 빨리 끝내시오.》

로채숙이 사라지자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무엇때문인지 꿈속에서 현실로 돌아온듯하여 해빛이 서먹서먹하였다.

《지금 간도정세는 어떻소?》

박두성이 새삼스럽게 유철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지 않아도 며칠후 유철동무에게 간도정세에 대한 강연을 시키자고 하오. 우리는 동만에서 배울 점이 많소. 여기서는 말만 하고있는데 거기서는 실천을 한단말이요.》

김익보는 피뜩 박두성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러나 두성은 이미 그런데 관심이 없는듯 유철의 대답을 기다렸다.

《5.30폭동은 실패했소. 종파분자들이 남의 부추김에 넘어가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맨주먹으로 군중들을 내몰았소. 그런데 적들이 가만있겠소? 간도는 무질서하게 진출한 폭동군중에 의해 죄없는 군중이 피해를 입은데다 여기에 복수해나선 반동군벌과 일제의 백색테로에 또 짓밟혀서 피바다에 잠겼소. 혁명은 멀리 후퇴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소. 그러니 결국 꼴이 뭐요? 민족리간을 획책하는 일제에게 어부지리를 얻게 한것뿐이란말이요.》

《그건 폭동의 일면에 지나지 않소. 우리도 상급조직의 통보를 받았지만 그런 지적은 없었소. 혁명이란 어차피 희생이 있기 마련이요. 류혈이 없는 혁명이란 애당초 혁명이 아니란말요. 다만 우리가 간도의 폭동에서 배울 점과 아울러 교훈을 찾아야 할 점도 있긴 할거요. 하지만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말할것은 아니란말이요.》

유철은 김익보의 말을 구태여 탄하려고 하지 않았다. 론쟁은 어느때라도 할수 있지만 감정은 발작의 시기가 있는것이다. 지금 날카로운 문제를 끄집어내여 옥신각신하느라면 반드시 흥분된 신경들이 곤두서서 사태를 험하게 만들수도 있을것 같아 입을 다물어버렸다.

박두성도 유철의 그런 타산을 눈치챘음인지 굳이 캐묻지 않았다.

서로 터놓지 못한 마음속을 느끼자 자리는 더욱 어색해졌다.

《난 가보겠소. 오늘저녁은 우리 집에 와서 류하도록 하지 않겠소?》

박두성이 허리를 일으키며 이렇게 말했다.

《유철동무 숙소는 내가 해결하겠소. 오늘저녁 회의를 잊지 마시오.》

익보가 잘라서 말했다.

박두성이 나가자 익보는 가슴이 답답해서 못견디겠다는듯이 연방 심호흡을 했다.

《보오, 내가 얼마나 고독하겠는가? 저런 사람이 이 백리허일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혁명가라고 하는 사람이요. 대체 그 사람에게 무슨 혁명적리론이 있소? 혁명은커녕 아직 봉건적관념에서도 해방되지 못했단말이요. 내 들으니 저 박두성동무가 7～8년전에 홍범도부대를 찾아갔다가 나이 어리다고 쫓겨왔답디다. 첩경 화승대나 메고 독립군노릇이나 하기 알맞는 사람이요.》

《하지만 바탕은 좋은것 같고 사람이 진실한데가 있는것 같은데요.》

유철은 감정을 건드리지 않게 조심을 두며 한마디 하였다.

《바탕? 바탕이란게 밀양박가네 집안이고 박병섭의 조카라는것이지.》

《허허허, 익보동무, 좀 흥분한것 같소. 그 이야기는 뒀다 들읍시다.》

익보는 담배를 풀썩풀썩 피우며 앉아있더니 유철의 웃음소리를 듣자 좀 어색해졌는지 몸을 돌려 앉았다.

《바람을 좀 쏘이지 않겠소? 난 동네구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유철은 익보의 마음을 눅쳐볼모양으로 이렇게 말했다.

익보는 힐끔 유철을 돌아보더니 벌떡 일어났다.

《동무는 피곤할텐데 좀 누워서 쉬오. 동네구경은 급하지 않고 또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오. 내가 오늘 조직에서 토의해서 동무의 공식적인 신분을 확정한 다음에 우선 어딘가 발을 붙이고 활동을 시작하는것이 좋겠소.》

이야기가 조직적인 성격을 띠는것을 느끼자 유철은 잔말 않고 들었다.

익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휙 나가버렸다.

사람들이 다 사라지자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다. 머리가 무거웠다. 피바다에 잠긴 간도, 3년여의 형기를 마치고 돌아온 집에서 한겻도 머물지 못하고 뛰여나온이래 그 어수선한 산과 골짜기와 벌판을 떠돌아다니면서 몇번이나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겼는지 모르건만 이렇

게도 머리속이 무거워보지는 못했다. 여기서 이곳 혁명조직에 발을 붙이고 무엇인가 해보겠다던 희망 역시 너무나 허황한것이 아니였던가?

유철은 좁다란 퇴마루에 길다랗게 쓰러지듯이 드러누웠다.

《여기 목침이 있소. 해별이 들겠는데 차라리 방안이 시원하니 이리로 들어와 누우소.》

안방에서 채숙의 어머니가 목침과 홑이불 한장을 내오며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잘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다리가 좀 아파서…》

《왜 안그렇겠소? 간도가 여기서 몇천리게… 어서 눕소.》

《어머니, 말씀 낮추십시오. 제가 채범동무와 퍽 가까이 지냈습니다. 아들쯤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원 국사를 맡아나선 사람을 설사 내 아들이라 한들 그럴 법이 있소? 어서 누우소.》

(국사를 맡아나선 사람?)

유철은 저도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소박한 인민들의 정성을 저버린 스스로의 무능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그런 내심을 누구에게 터놓을 형편도 못되였다. 유철은 하는 수 없이 목침과 홑이불을 받아쥐고 엉거주춤 일어난채로 있는데 늙은이는 기어코 목침을 되찾아서는 웃간에 자리를 보고 눕히고야말았다. 유철이 마지못해 비스듬히 옆으로 눕자 늙은이는 미닫이밖에 쪼크리고앉아 바느질감을 펼쳐놓으며 중얼거렸다.

《요즘은 시절이 왜 이리 수상한지 모르겠소. 이 큰개도 전에 박선달이 총괄할 때는 조용하더니 젊은이들이 일어나자부터는 사흘돌이로 들썩하게 물론이 벌어지곤한다오. 뭐니뭐니해도 백리허에서 인물을 꼽자면 박선달이지, 지금 젊은이가운데서 그만치 인망있고 손탁센 사람이 어디 있겠소?》

《박선달이가 누굽니까?》

유철은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갔지만 못들은척할수도 없고 또 늙은이의 공론이 흥미도 있어서 반신을 일으키며 물었다. 안늙은이는 아직 검은머리가 절반이나 남아있는 귀밑머리를 정성스레 쓰다듬어 넘기며 분홍물을 들인 치마감을 단을 접어나갔다.

《거 방금 죽이겠다고들 야단치던 박병섭로인 아니요. 지금 두성이가 박씨문중의 난 인물이라고들 하지만 제 당숙을 당할수야 있소.

두성이도 호랑이를 한마리 잡아오기는 했지만 그 늙은이가 산에 들어가면 호랑이들이 피똥을 싸고 뛴다고들 했다오. 경우바르기는 대쪽같애서 홍범도도 이 령감앞에서는 한수를 접혔다고들 합데다.》

《그런분이 왜 지금은 그리 덧나서 그러는가요?》

《모르지요. 지금은 젊은이들에게 돌려서 아주 앙숙이 져버렸지요. 그 늙은이가 여기서 촌공서를 차리고 각처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정사를 볼 때야 학교에 글소리가 랑랑하고 젊은이들도 그 늙은이앞에서는 쩔쩔맸지요. 그러던게 모두 공산을 한다, 쇠버치를 한다 하고 떠들더니 젊은이들 인심이 싹 돌아서버립데다. 그러고부터야 매일같이 란장이지요. 령감이 지금 안골에 쫓겨는 갔지만 속이 댕댕하게 살아있는데 어째 가만 있겠소. 이젠 두성이까지 척을 져서 자위대를 다 끌고 총까지 메고 와버렸으니 그 령감이 펄펄 뛴다오.》

유철은 채숙어머니의 말을 듣자 점차 사태가 엄중해진다는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러고보면 폭동을 서두는 김익보나 박두성이같은 사람이 류혈적모험을 단행하여 얻어낼것이 무엇일가 하고 지금부터 의심이 갔다.

《거 자위대라는것은 뭡니까?》

《여기에 이왕엔 토비들이 많았다오. 백리허숲속이 온통 토비판이였지요. 그래서 이놈들이 밤낮으로 쳐들어와서는 행패를 하는데 그 성화를 견디여낼수가 있소. 두성이 그 사람이 한번은 토비들에게 잡혀 숲속까지 끌려가다가 그놈들을 두들겨패고 돌아와서는 동네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낸게 농민자위대라오. 그런데 지금은 그 자위대가 빨갱이라고 해서 백색구역에 가기만 하면 잡혀서 쥐도새도모르게 죽는다오.》

《자위대는 안골에도 있습니까?》

《웬걸요. 큰개와 안골이 원쑤지간처럼 갈라지자 안골은 백색구역이 돼가지구는 보위단이 따로 나왔지요. 그걸 정희겸이라는놈이 쥐고있어서 지금은 그놈의 처남되는 망나니가 끌고다니는데 휘딱하면 자위대와 보위단이 붙어서 싸움질이 벌어진다오. 워낙 뒤진곳이라 숲에는 토비요, 거리엔 군대요, 사람 사는 동네에서까지 이 란장이니 이 세상이 넓다한들 백성들 발붙이고 살곳이라구 어디 있소? 무법천지지요.》

늙은이는 치마단을 쫑쫑이 접어서는 새 광목으로 마른 치마말기에 갖다맞추고 천천히 시침을 해나가면서 넉두리처럼 중얼중얼 말하였다.

유철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천장우에 어수선하게 뒤얽힌 구름모양의 복잡한 무늬를 그려보았다. 머리속이 욱신욱신하였다. 무엇인가 안

정되고 드팀없는 생활이 그리웠다.

분홍치마, 분홍치마, 늙은이가 거치른 세상을 통탄하면서 시름없이 시침을 떠나가는 어느 색시의 허리에 둘려질 분홍치마가 무엇때문인지 유철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혼수감입니까？》

《그렇다오. 이젠 눈이 어두워서 바늘귀도 잘 보이지 않는데 첫날 입을 치마라 여간 조심이 가지 않는구려.》

《누가 시집갑니까？ 혹시 사위를 보시는게 아닙니까？》

《흥, 사위가 무슨 사위요. 내가 청상과부로 늙어오면서 오누이를 삯바느질로 길렀건만 채범이는 종래 나라를 찾으려다 죽고 이제 딸자식 하나가 남았다는것이 그것마저 내 자식치부를 하기가 만만찮게 되였소그려. 모르지요. 저는 나라를 찾고 혁명이 성공해야 살림도 한다는데 과연 그날이 오기나 하겠는지…》

유철은 고개를 돌려 다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딱히 늙은이가 무엇을 물어온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로서는 어떻게나 늙은이의 서글픈 마음을 위로해줄 그러한 대답을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수십년 거치른 생활의 가시덤불길을 헤쳐온 늙은이에게 값싼 위로의 말은 하나마나일것이다. 오직 진실을 말해야 한다. 과연 우리 나라는 광복되고 우리 혁명은 승리할것인가？ 채범이와 수많은 조선청년들이 목숨을 바친 그 위업은 어느날에 가서 성취될것인가？

유철은 괴롭게 몸을 뒤챘다. 그것을 안다면, 아니 그 누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엔가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청춘도 희망도 목숨도 가정도 모든것을 다 바치고나선 이 나라 청년들의 가슴이 이다지도 울분에 타고 그슬릴것인가？

《그럼 누가 시집을 갑니까？》

유철은 자기 마음속의 괴로움을 감추기 위하여 별로 흥미도 없었지만 일부러 캐여물었다.

《이제 좀 있어보우. 그 신랑자가 올거요. 최갑룡이라구 이 동네 홀애비령감의 아들인데 그 령감이 고향을 하직하고 살길을 찾아오다가 로상에서 로친을 잃고 석유궤짝우에 갑룡이를 올려앉히고 수륙 수만리를 떠돌아다닌끝에 이 백리허에 울짱을 박았다우. 이젠 그 령감도 아들이 장성해서 며느리를 맞게쯤 됐으니 앞으로는 팔자가 펴일는지… 갑룡이란

녀석이 사람이 무던해서 철들어서는 사내손으로 아버지 공양을 어찌나 갸륵하게 하는지 온 동네에서 칭찬하지 않는이가 없다우. 색시는 저 가막골에서 데려오는데 그 집이 또 밑이 째지게 가난한 집이라 신부가 첫날 입을 치마 한감을 끊을수 없는 형편이 아니겠소. 그래 갑룡이녀석이 지난 겨울부터 백리허목재판에 들어가서 나무를 실어내더니 그에 치마 한감을 이렇게 끊어왔구려, 원 아이도 좀 기특해야지. 그러구선 이 싱거운 아이가 나한테 갖다 맡겨놓구는 매일 문안 오듯 찾아와서는 채근이라오. 혼사는 아직 사흘이나 남았는데 벌써 나흘전부터 성화같이 다그쳐대질 않겠소. 하긴 왜 안그렇겠소? 인륜대사, 인륜대사 하지만 갑룡이네 집안으로 본다면 이런 대사가 또 어데 있겠소?》

유철은 무슨 옛이야기라도 듣듯 솔근히 찾아드는 잠결속에서 늙은이의 조용한 말소리를 달콤하게 들었다. 현실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꿈속의 이야기 같기도 하였다.

늙은이가 막 이야기를 마치자 바깥에서 인기척이 났다.

《옳지, 범이 제소리하면 온다더니… 갑룡이냐?》

《네—》

《왜 또 왔느냐? 내가 일을 끝내면 가져간다고 하지 않더냐?》

《그래서 온게 아니예요. 저 지짐이 부치는데 번철이 있어야 한다지 않아요.》

《원, 녀석두, 벌써 지짐을 부쳐서 어찌자구…》

늙은이는 일감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실이 꿰인채 있는 바늘을 머리밑에 꽂으며 일어섰다.

유철은 무심히 허리를 일으켜 마당을 내다보았다. 머리가 더부룩하게 자라고 눈부리가 억실억실한 젊은이가 서있었다.

유철이의 눈길과 마주치자 청년은 당황하여 얼굴이 수수떡처럼 시뻘개가지고 꾸뻑 절을 하였다.

유철은 마음속이 훈훈해오는것을 느꼈다. 그래서 허리를 아예 일으켜앉으며 마주 눈인사를 하고 청년을 손짓해불렀다.

《이리 와서 앉소.》

《일없습니다.》

《이녀석아, 가서 인사드려라, 혁명하러 다니는 선생이시다.》

《나도 알아요.》

《갑룡동무, 잔치는 언제 하오?》

《잔치는 웬 잔치요?》

갑룡이는 너무나 당황하여 해빛에 탄 얼굴이 붉다못해 거매지면서 허둥지둥 말을 더듬었다.

《어머니가 또 쓸데없는 말을 했군요? 지금 그런 안일한 생각할 짬이 있는줄 아세요? 그저 훌 데려오고말테예요. 밤에 동무들하고 술이나 한잔 마시면 되지요 뭐.》

《그건 무엇때문에 그러오?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일인데 그래서야 섭섭해서 되겠소?》

유철은 청년의 말투가 심상치 않아 물었다.

《사실 잔치도 하자고 했지요. 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못돼요. 혁명을 해야지 언제 그런 개인일을 돌볼새가 있어요.》

《혁명을 한다?…》

유철은 어안이 벙벙하여 아무 뜻 없이 이렇게 받아외우며 갑룡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아니 이녀석아,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갑자기 번철을 찾아 돌아가느냐?》

《그런건 묻지 마세요.》

《묻지 말라니? 아니 저녀석이…》

안늙은이는 어처구니가 없어 중얼거렸다.

《갑룡동무, 무슨 일이 있었소?》

유철은 까닭없는 불안을 느끼며 은근히 물었다. 갑룡은 좀 난처한듯이 눈을 껌뻑껌뻑하더니 조심스럽게, 그러나 열정에 넘치는 어조로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린 혁명을 해야 한단말이예요. 이제 폭동을 해서 왼쑤들을 다 때려엎으면 우리같은 프로레타리아들이 마음대로 잘살수 있겠는데. 폭동이 곧 시작된단말이예요. 그러니 언제 안일하게 잔치준비를 하고있겠어요. 내가 우리 색시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까짓거 혁명에서 이기면 다지 뭐예요.》

《아니 얘야, 폭동이란게 뭐냐? 그게 또 무슨 란을 만들자는게 아니냐?》

《어머닌 그런건 묻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갑룡은 늙은이의 손에서 더덕더덕 녹쓴 번철을 빼앗다싶이 받아쥐더니 꾸뻑 절을 하고는 총총히 달아나버렸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고?》

늙은이는 토방끝에 서서 맥없이 무릎을 철썩 치더니 혀를 끌끌 찼다.

유철은 쓰러지듯이 자리에 누웠다. 반들반들 귀가 닳은 목침이 눈앞에 있었으나 손을 뻗칠 생각이 없었다. 이상한 허탈과 같은 막막한 생각이 머리속에 꽉 서리였다. 갑룡이는 왜 잔치를 그만두어야 하는가? 혁명을 위해서… 분홍치마, 분홍치마, 새빨갛게 아롱진 분홍치마가 눈물무늬처럼 부옇게 흐렸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할미령을 넘을 때 무인지경 밀림속에서 길을 잃고 빽빽한 관목덩굴을 막대기로 후려치며 나오다가 문득 노린내가 풍겨 뛰려고 하나 다리가 칡덩굴에 걸려 안타깝게 애쓰던 꿈을 꾸었다.

7

조직은 아직 꾸리는 중에 있었고 그나마 여기저기 흩어져있어서 통일적인 지도체계가 서있지 못했다. 이웃 현에 있는 상급조직으로부터 익보가 내려와서 반년이 잘되였으나 조직장성사업도 군중단체조직사업도 별로 진척을 못봤는데 달포전에 폭동준비를 하라는 상급의 지시가 떨어졌다.

김익보가 반년사이에 해놓은 일이란 큰개의 민족주의영향하에 있던 학교를 장악하고 청년조직을 개편하여 거기에 박혀있던 좌익 프락찌야를 로출시킨것뿐이였다. 다행히 큰개와 안골 일대에는 과거 독립군이 주둔해있을 때부터 애국주의적감정이 짙고 안골의 정희겸과 다른 두사람의 지주를 내놓고는 태반이 계급적토대가 좋았다. 문제점은 역시 큰개에서 몰려난 민족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적대시하며 그 영향하의 주민들도 곁을 주지 않는것이였다. 이는 운동발전에 매우 유해로운 작용을 놀았을뿐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극도로 첨예화시켰다.

김익보는 안골 박병섭의 적의가 주로 자기에게 돌려지고있다는것을 느끼고있기때문에 폭동을 준비하면서 은근히 안골에 대한 적개심을 부채질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리하여 큰개와 안골 그리고 이 두 동네가 들어앉은 백리허숲속과 하강지구일대에 폭풍을 품은 어두운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있었다.

유철이가 도착한 날 저녁 백리허숲속의 한 골짜기에 있는 술기막

골의 아지트에서는 비상회의가 소집되였다. 상급조직에서 순시원이 내려와서 백리허의 폭동준비정형을 토의하였다. 여기서 박두성은 기밀을 루설하고 조직규률을 위반하였으며 간부를 모욕했다는것으로 하여 호된 비판을 받았다. 준비를 다그쳐 한시바삐 폭동을 일으킬데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유철의 문제도 토의되였는데 상급조직 순시원의 의견에 의해 폭동전야인것만큼 신분을 드러내지 말고 정식으로 상급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 술기막골의 아지트에 은신해서 백리허의 사업을 방조할것으로 결정되였다.

그러나 유철이가 술기막골의 대장간에 나가 풍구질을 하루도 못하여 상급조직의 통신원이 와서 그를 불렀다. 상급조직에서는 그를 잡아둘 심산이였다. 그러나 그 눈치를 먼저 알아채고 같이 따라간 김익보가 생억지를 쓰고 비틀어서 도로 백리허로 와서 정식 조직성원으로 일하게 되였다.

상급조직에서 유철은 폭동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말하였다. 간도에서의 경험은 심중한 교훈을 남긴것만큼 일률적으로 내밀어서는 안될뿐아니라 백리허의 실정은 매우 위험한 요소들을 내포하고있다는점을 강조하였다.

상급조직에서는 그의 의견을 신중히 들었다. 그리고 폭동은 이미 상급조직의 방침인만큼 기정사실로 취급하면서도 장차 백리허의 폭동준비에서는 그런 점을 잘 타산해서 사업을 진행하자는 정도로 양보하였다.

그러나 일은 뜻밖에도 발작적인 진전을 보이였다.

김익보의 요구에 의해 유철은 간부들의 회의에서 간도폭동에 대해 보고를 하게 되였다. 익보는 박두한 백리허의 폭동을 위해서 간도의 폭동을 영웅적인것으로 묘사할것을 강요하였다. 만일에 이 폭동을 비판적으로만 묘사한다면 당면한 이곳에서의 폭동에 대해 회의적으로 대하게 될것이고 앙양된 분위기에 랭수를 끼얹는다는것이였다. 그것은 있을수 있는 요구였고 또 론리적타당성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수일간의 료해과정에 준비되고있는 폭동의 성격에 대해 수많은 의문을 느끼고있을뿐아니라 이곳 조직의 사업에 대해서 좋게만 볼수 없는 유철은 그의 요구에 대해 묵묵한 침묵으로 대답하였다. 회의에서는 유철의 보고와 아울러 폭동의 구체적인 계획이 토의비준될것이였다. 따라서 유철의 보고는 회의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도 있었다. 상급조직에서도 순시원이 내려오게 되여있었다. 이런 사정으로 해서

김익보는 적잖게 신경을 썼다.

광막한 백리허숲우에 저녁노을이 엷게 덮였다. 해가 먼 산줄기의 거무스레한 변두리너머로 기울어지자 잠자던 대륙의 바람이 살포시 눈을 뜨고 백리허숲변두리를 간지럽히기 시작하였다. 노을은 점차 진하게 번지더니 이윽고 시뻘건 락조가 낮추 드리운 뿌연 하늘을 먹어들어갔다. 솨—솨— 숲이 설레이고 그너머 강기슭쪽에서 물결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까마귀떼가 날아오르더니 노을 불타는 북쪽 으스레한 산발쪽으로 날아갔다.

유철은 저고리섶을 날리며 짙어가는 저녁노을을 바라보았다. 일제에게 짓밟힌 겨레들의 피가 저렇게 하늘을 물들인것이나 아닌가? 서대문에서 고향도 못들리고 곧장 달려간 그 땅에서 그를 맞이하던 친근한 사람들의 한숨이 저렇게 하늘을 흐리게 만든것은 아닌가? 그의 가슴에서는 복수심이 부걱부걱 끓어올랐다. 눈앞에 얼씬거리는것, 발끝에 채이는 모든것을 짓밟고 마사버리고싶었다. 그러나 노을 비낀 하늘변두리를 따라 고개를 남쪽으로 돌리니 아득한 저 하늘끝에 있을 조국의 푸른 산야가 생각났다. 푸른 하늘을 담아 이고 출렁이던 고향의 도래굽이가 떠올랐다. 사과를 모르고 자라나는 딸 현아의 검은 눈동자가 삼삼하였다. 버들숲에서 들먹이던 안해의 동그란 어깨가 이 텅 빈 숲속에 하나 가득 정을 풍기는것만 같았다.

어찌하여 혁명을 버리고 복수의 막다른 길을 갈수가 있단말인가? 사랑하는 조국, 사랑하는 고향, 사랑하는 이웃들과 자식들— 이들을 위하여 혁명의 한길에 나선 내가 자기의 자그마한 감정과 일시적으로 옹색한 처지를 이기지 못한단말인가?

그러나 다음순간 할미령턱밀에서 리용수와 주고받은 말이며 서로 나눈 한숨이 다시금 가슴을 메웠다. 길은 없다. 앞은 캄캄하게 막혔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막다른 골목에 처박히듯 이렇게 숨가쁘게 몰려있느니 차라리 머리가 깨지더라도 무엇인가 짓부시는 편이 낫지 않는가?

리용수 같이 건전하고 침착한 사람도 길을 모르다보니 발작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였다. 물론 그때의 그 습격은 무모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유해로운 행동이였다. 그러나 달리는 길이 없지 않았는가? 밤낮 썩어서 무너져내리는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을수는 없지 않았는가?

유철은 저물어가는 저 하늘을 향하여 웨치고싶었다.

《나에게 길을 가르쳐다오. 조선이 나가야 할 길을 가르쳐다오!》
이윽고 그는 목대가 부러진것처럼 털썩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리용수는 지금 어느곳을 헤매고있는가? 그리고 최호빈은 기어코 시정배로 전락하고말았는가? 할미령턱밑에서의 모험은 결코 영웅적인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앞길이 막힌자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한 몸부림은 도처에서 볼수 있다. 지어 한겨울을 품을 팔아 새각시의 분홍치마 한감을 장만한 순진한 신랑 갑룡이에게서도 그러한 몸부림은 느낄수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것인가? 의원이 없을 때는 먼저 앓은자가 의원노릇을 해야 한다. 몸부림을 내가 먼저 겪은 이상 그 몸부림이 빚어낼 후과를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몸부림을 치다가 쓰러진다면 그야말로 조선은 망하고말것이다. 혁명은 파멸할것이다. 자기 감정을 누르고 개인적인 복수심을 누르는것— 이것은 헐치 않은 혁명적수양이다.
유철은 자기앞에 나선 공교롭고도 엄숙한 문제를 곰곰히 따져나갔다.
간도폭동을 영웅적으로 묘사한다는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가슴을 울렁거리며 들은 첫 소식이였고 거기에 어떤 희망을 걸고 간도로 달려갔던것만큼 집을 나서 피해다니는 몇달사이에 그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가지고 폭동의 내막과 그 경위며 결과에 대해 캐내려고 애쓴것도 사실이였다. 그러나 결국 그가 얻어낸것은 처음 간도땅에 들어서서 느끼던 실망보다 더 큰 환멸과 혁명을 롱락하는자들에 대한 격분이였다. 수많은 류혈을 빚어낸 그 참극의 바탕에는 더러운 공명주의와 종파들의 리기주의가 깔려있었다. 자기 파의 리익을 위하여 인민의 피를 강요한 그 추악한 행위를 영웅적으로 묘사한다는것은 우선 량심이 허락치 않았다. 그보다는 인민이 귀중하였고 조국이 귀중하였고 혁명이 귀중하였다. 혁명을 위해서라면 열목숨이라도 바칠것이다. 그러나 혁명에 유해롭다면 백목숨을 바치더라도 뻗칠것이다.
유철은 이런 결심을 품고 술기막골의 아지트로 갔다. 현조직의 간부들외에 농민조직이며 청년조직과 부녀조직의 책임자들도 와있어서 대장간바닥을 다 치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메우던 수레바퀴며 수레채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맨바닥에 거적들을 깔고 앉았다. 먼곳에서 오는 참가자들을 기다리느라고 회의는 밤이 깊어서야 시작되였다.
김익보가 회의를 개회하면서 먼저 정치정세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하였다.

《목하 국제정치정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하고 김익보는 원고도 없이 연설을 시작하였다. 《15차당대회결정에 의하여 위대한 쏘베트동맹에서 농업집단화가 승리적으로 진전되고있고 또한 제1차 5개년계획이 착착 추진되여 전세계 프로레타리아의 희망의 등대인 첫 사회주의국가 쏘베트가 제국주의반동련합의 악랄한 비방중상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미 허물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되였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다른편으로 중요한 특징은 자본주의세계를 휩쓴 전대미문의 대공황이 곧 그것인바 이는 우리의 스승인 맑스가 일찌기 그 불후의 로작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의 불치의 암으로 명석하게 규정한바 있는 그 현상인것입니다. 1929년 10월 24일,부르죠아들이 〈어두운 화요일〉이라고 일컫는 그날에 월가에서 시작되여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이 공황은 오늘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부르죠아와 그 독재정권 및 그 사환군들인 정상배와 장군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있습니다. 실업자는 홍수와 같이 거리에 밀려나고 조업단축과 이른바 〈산업합리화〉에 의하여 자본주의경제는 밑바탕으로부터 뒤흔들리고있습니다. 이에 당황망조한 부르죠아들은 파쑈화의 길을 더욱 재촉하여 이미 동지 레닌이 지적한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인 제국주의가 머리를 쳐들어 약소국들을 탐욕스레 집어삼키고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는 코민테른 제6차대회결정에 따라 제국주의렬강을 반대하는 싸움에 떨쳐나섰습니다. 3차에 걸치는 일본군벌들의 〈산동출병〉을 비롯한 파렴치한 침략에 대하여 〈배일운동금지령〉의 공포로써 대답한 장개석국민당정부의 배신행위에도 불구하고…》

개회사 겸하여 간단히 한다던 김익보의 정치보고는 세계를 동서로 휩쓸면서 화려하게 전개되여갔다. 일본파쑈군부에 의한 장작림폭살사건으로 인하여 동북에서 장학량군벌의 배일감정이 농후해지고 한편 년초에 진행된 런던해군군축회의에서 렬강의 압력에 굴복한 일본정부의 외교정책때문에 정부와 군부간의 반목이 격화되여 일본 하마구찌내각은 빈사상태에 처하고… 이리하여 일제도 세계반동도 이제 한주먹만 더 먹이면 나가넘어질것처럼 묘사되였다. 따라서 폭동을 서둘러야 하는데 어찌다가 그 거창한 세계반동의 원흉이 안골의 정희겸을 비롯한 몇몇 지주와 박병섭에게로 압축되여갔다.

그러나 20여명의 참가자들가운데 론리의 줄거리에 주의를 돌리고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파멸에 처한 부르죠아,빈사상태에서 허우적거리

는 제국주의정부, 최후발악하는 반동군벌, 전세계에서 불타오르는 혁명의 불길— 이 모든 화려한 말마디들은 독한 배갈과 같이 울분에 차넘치는 사람들의 가슴을 흥분시키고 불을 질렀다. 장내에 숨소리가 높아갔다.

《안골의 반동들을 쳐라!》

박두성이가 불끈 틀어쥔 주먹을 쳐들고 소리쳤다.

《반동군벌을 타도하라!》

《지주, 부르죠아를 타도하라!》 흥분한 목소리, 단 입김이 좁은 대장간을 메웠다.

상급조직의 순시원도 연방 고개를 끄덕거렸다.

김익보는 로베스피에르의 연설에서 배워온듯한 웅변술로써 한바탕 사람들의 가슴을 쥐여흔들어놓고나서 긴 머리칼을 뒤로 쓸어넘기며 유철을 돌아보았다.

유철은 숨이 가빠올랐다. 숲속에서 바라보던 불타던 저녁노을이 눈앞에 그려졌다. 과연 흥분한 군중을 다시 식힐 필요가 있는가? 김익보의 눈길에는 자기 선동력에 흡족해하는 빛과 함께 어린애같이 순진한 위훈에의 갈망도 어려있었다. 그것이 폭동 그자체에 매혹된 인간의 눈빛일는지도 모를 일이였다. 유철은 가쁜 숨을 겨우 진정하며 조용히 그의 눈길을 맞이하였다. 김익보는 루바쉬까자락에 감추어진 바지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여 이마의 땀을 훔치더니 이번에는 점잖은 어조로 장내를 진정시켰다.

《동지들, 조용하십시오. 다음은 예정한대로 동지 유철의 간도정세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직의 방침에 의해 동지 유철에 대해서 길게 소개하지 못하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동지 유철의 보고는 목하, 백리허의 혁명조직앞에 나선 과업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조직은 평가하고있습니다. 근청해주기 바랍니다.》

유철은 모루판우에 궤짝 하나를 올려놓은 연단앞으로 나갔다. 남포등의 등피에 까맣게 그을음이 피여올랐다. 연단에 나서보니 머리가 덥수룩한 얼굴들에서 빛나는 눈동자들이 일제히 자기에게로 달려왔다. 앉아서도 유난히 두드러지는 박두성의 큰 몸집이 눈에 뜨이고 앞줄에 앉은 로채숙의 열기 띤 얼굴이 어쩐지 까마득하게 멀리 보이는가 하면 갑작스레 바투 다가서는것 같이도 보였다. 《어험! 어험》하고 순시원이 발언을 재촉하듯 헛기침을 깇었다.

유철은 사람들이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한참이나 동안을 두었다가 천

천히 입을 벌렸다.

《동지들, 이 거치른 땅에서 조선혁명의 기발을 들고 씩씩하게 투쟁하고있는 여러 동지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존경과 인사를 드립니다.》

유철의 목소리가 너무 조용하기도 하고 또 이 지방에서 진행되는 연설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투였기때문에 청중들은 다소 어리둥절하여 옆사람들을 돌아보고 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거나말거나 유철은 계속하였다.

《제가 조직으로부터 위임받은 제목에 대해서는 연구한바가 없고 평소에 수양이 부족하여 여러 혁명동지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이야기를 할것 같지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다만 국내와 간도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몇토막 하면서 저의 좁은 소견을 피력해볼가 합니다.》

김익보의 개회사가 화려한 연설이였다면 유철의 강연은 처음부터 도란도란 무릎을 맞대고 나누는 친근한 사람끼리의 담화와 같은 투였다. 유철도 기왕에는 피를 토하는듯하는 격동적인 연설이 몸에 밴 사람이였다. 그러나 체포후 4년여의 체험과 또 오늘 이 마당에서 느끼는 야릇한 예감 그리고 이 거치른 광야에서 혁명의 한뜻으로 하여 만난이들에 대한 육친적인 친근감이 서로 뒤엉켜 그의 마음을 누잦히고 그의 목소리를 가라앉혔다.

《저는 서대문감옥 철창속에서 원산로동계급의 제네스트와 광주학생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별로 한 일도 없으면서 감옥안에 편안히 앉아 이 영웅적인 투쟁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만해도 나갈수 없는 우리속에 갇혀 바깥에서 피흘리며 싸우고있을 여러 동지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투쟁의 새로운 단계를 암시해준 세찬 혁명적앙양의 이 새 소식은 바로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천추의 한을 남긴 저 조선공산당 해산의 소식을 접수한 직후에 들려왔던것입니다. 하강의 혁명동지 여러분!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을 비롯한 민중은 하나로 뭉쳐 일본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를 반대하여 싸울데 대한 결연한 태세를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대답이였습니다. 여기 김익보동지도 있지만 감옥안에 앉은 우리들의 심정이 이러했으니 바깥에서 직접 투쟁을 조직하고 진행한 동지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조국의 독립과 계급적해방을 위하여 일체 분파적행동을 하지 않을것이며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칠 각오를 품고

설한풍 사나운 이 거치른 이국벌판에 서있습니다.》

장내는 숙연해졌다. 유철의 목소리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푹 가라앉아 조용히 울려나왔으나 그 한마디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을 쳤다. 연사와 청중사이에는 손바닥만한 틈도 없고 피가 서로 통하듯 호흡이 들어맞았다. 그것은 유철의 조용한 말마디들이 진실을 말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투쟁은 고조되여…》하고 유철은 계속하였다. 《제가 감옥문을 나서자 간도폭동과 신흥탄광폭동의 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철은 불같은 여름을 맞이하여 조국땅은 뜨거웠습니다. 폭동의 새 소식에 들끓는것같은 조국을 뒤에 두고 저는 단숨에 간도로 달려왔습니다. 간도에는 제가 피줄을 맺다싶이한 조직이 있고 필시 이번 폭동에 관계했을 저의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나온것은 나라를 찾고 지주,자본가들을 때려부시기 위한 이와 같은 폭동에 한몸을 바치기 위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저는 폭동 그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도 가지지 않고 어린애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달려갔던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맞이한것은 들끓는 혁명의 물결이 아니라 피바다에 잠긴 쓸쓸한 이국산천에 불과했습니다. 간악한 일본제국주의는 맨주먹의 폭동군중에게 야수와 같은 백색테로를 가하여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겨레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습니다. 저는 피에 잠긴 간도땅을 두달동안이나 헤매다니며 간도폭동이 가져온 비참한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조직은 깡그리 마사지고 우수한 많은 동지들이 학살되거나 붙잡혀갔습니다. 중국인민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일제를 반대하는 두 나라 인민간의 련대성에는 금이 갔습니다. 그러나 저의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희생 그자체가 큰데 있는것이 아닙니다. 혁명은 간고한 류혈적인 투쟁을 동반하는것이며 장구한 혁명과정에는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참혹한 실패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는것을 우리는 각오하는바입니다. 그러나 조국을 찾고 민중을 해방하자는 우리의 붉은 마음은 비록 실패로 끝난 투쟁에도 깔려있어서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투쟁에로 부르는것입니다. 제가 간도폭동에서 참으로 슬프게 생각하는바는 이런 붉은 마음이 참혹한 류혈을 빚어낸 그 거사의 바탕에 깔려있지 않았다는 그 점입니다. 저는 혁명가의 고결한 뜻을 찾아보려고 광막한 벌판을 두달동안이나 헤맸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나 들리는것은 극단적인 좌경적구호와 자기 파의 리익을 탐내여 날뛰는 종파분자들의 책동이였습니다. 간도는 일제에 의한 백색테로로 말미암아 류혈에 젖었을뿐만아니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는 혁명가들의 피눈물로 또한 젖었습니다.》
장내는 점차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서로 눈치들을 살피며 연방 고개를 기웃거렸다. 김익보는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초조한 눈길로 유철과 청중을 번갈아보았다. 그처럼 잘 통하던 연사와 청중과의 호흡은 완전히 헝클어지고 거치른 숨소리가 장내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어험! 어험!》 상급조직 순시원이 큰기침을 깇었다. 그것이 신호이기나 한듯 장내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배신자다!》하고 소리쳤다.
《끌어내다 감자농사 지어라!》 뒤구석에서 탁하게 갈린 목소리가 뒤를 받았다.
《강사는 자기 립장을 똑똑히 밝히세요!》 앞줄에 앉은 로채숙이 쨍하니 소리쳤다. 한편에서는 《조용하라! 이야기를 시켜라!》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유철은 확 하고 머리속이 달아올랐다. 《투항분자다! 끌어내여라!》하는 목소리가 뒤전에서 터져올랐을 때 그의 눈길은 사납게 빛을 뿌리며 목소리의 임자를 찾았다. 그러나 그 임자를 찾을 사이도 없이 바로 눈앞에서 한사람이 불쑥 일어났다.
《혁명을 모욕하지 말아라!》
《동지들!》 유철은 이미 침착성을 잃고 웨쳤다.
《5.30폭동은 좌경모험주의자들의 롱락에 의한 무모한 망동에 불과했습니다. 혁명적인민들의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운동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류혈의 참극이였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절대로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런데 동지들! 우리가 오늘 계획하고있는 폭동은 과연 철저히 준비되고 조직된 진실로 혁명적인 진출이겠습니까?》
유철은 처음에는 차근차근 간도의 형편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본질을 파악하도록 할 작정이였다. 그러나 흥분한 군중들이 유철의 폭동에 대한 회의적인 립장을 먼저 간파하고 공격을 들이대자 면밀하게 짰던 당초의 이야기내용은 뒤죽박죽이 되였다. 그럴수록 군중은 들끓었다.
《비겁분자는 갈테면 가라!》
《투항분자다! 폭동을 반대하는자는 끌어내라!》
군중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간다는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유철은 더욱 머리속이 혼란되고 가슴이 터져나갈듯이 답답해올랐다. 그는 가

슴을 치며 웨쳤다.

《나도 폭동을 주장합니다. 나도 이 숨가쁜 압제의 분위기를 참을수가 없어 할미령밀에서 무모한 습격을 기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혁명동지 여러분！》

유철은 모루우에 놓인 궤짝을 두손으로 움켜쥐고 뒤흔들었다.

《프로레타리아혁명은 최고의 리성을 가진 맑스—레닌주의자들이 지도하는 혁명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조건을 타산해야 합니다, 동지들！》

그의 말은 점차 사개가 밀려나고 마구 감긴 실꾸리처럼 헝클어지기 시작하였다. 온 세상이 다 자기를 반대한다 해도 혁명동지들만은 자기를 알아주려니 하고 생각해오던 믿음은 산산이 마사져 달아났다. 온갖 고통도 시련도 거기에 의지하여 견디여오던 기둥이 뿌리채 뒤흔들렸다. 그러자 유철의 가슴속에서는 피눈물이 솟구치고 머리속에서는 사나운 우뢰가 울었다.

《동지들, 다시 말하지만 간도폭동은 무모한 망동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훈을 저버리고 또다시 맨주먹으로 무장한 반혁명앞에 돌격하려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무모합니다. 아까 김익보동지는 빠쳐놓았지만 1928년엔 코민테른에서 우경투항주의가 비판되였다면 달포전인 금년 7월에는 같은 코민테른에서 좌경모험주의가 비판받았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도 폭동을 주장합니다. 과연 나라를 찾고 계급적해방을 바라는 혁명가치고 누가 폭동을 반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처자를 다 버리고 일신의 안락과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청춘의 한목숨을 모두 바칠 결심 품고 혁명의 길에 나선 이상 과연 희생을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론의되고있는 폭동은 무모합니다. 너무나 준비가 없습니다. 우리는 간도폭동의 쓰라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를 끌어내려라！》

유철이가 미처 숨도 돌릴 사이 없이 이런 웨침소리가 울려왔다. 회의장은 그대로 쑤셔놓은 벌둥지같이 형형색색의 웨침과 쑥덕거림과 야유소리로 웅성거렸다.

《주제에 누구를 가르치려드는군.》

《비겁분자다！ 썩 없어져라！》

유철은 자기 가슴에서 우적우적하고 갈비뼈가 이물리는 소리를 내는듯이 느껴졌다. 심장은 그 좁은 틀속에서는 더는 용납할수 없을만큼

세차게 고동쳤다. 답답하였다. 어금이를 앙다물고 아무리 삭이려 해도 마음속 웨침을 누를길이 없었다.

(내가 과연 비겁분자인가?)

이때 앞줄에 앉았던 로채숙이 벌떡 일어났다.

《강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동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는 안골의 지주들과 다정하게 지내야 합니까? 아니면 계급적원쑤를 반대해서 용감하게 일어나 싸워야 합니까? 원산제네스트도 신흥탄광폭동도 결국은 진압되고 우리는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다시는 폭동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것입니까? 나는 강사에게 묻는바입니다. 오늘 우리의 폭동을 반대한다면 동지가 제기하는 구호는 무엇인가고— 조선의 무산대중은 폭동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잃어진 조국을 다시 찾고 기한에 떠는 계급의 형제를 구원할수 있는지 이에 대해 강사의 주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옳소! 립장을 밝혀라!》

《자기 로선을 내놓아라!》

로채숙이가 앉기도전에 사처에서 총알같은 목소리가 날아왔다.

그것은 결정타였다. 유철은 치명상을 입은 사람과 같이 윽— 하고 신음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털렁 떨구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과연 여기서 론의되고있는 폭동이 잘못된것임을 무엇으로 확증하는가? 조선의 민중은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안개 자욱한 바다, 검게 설레이는 거치른 파도, 구원을 부르는 처량한 배고동소리—

유철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가을바람을 만난 나무가지처럼 이마우에 마구 뒤엉켜있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것이 괴여올랐다.

《여러분!》하고 유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폭동대렬의 선두에 서서 나갈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로선도 주장도 없습니다. 나는 충심으로 우리 조선혁명이 승리하기를 바라며 우리 동포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싸우고싶을뿐입니다. 나는 희생을 두려워 않고 여러분과 함께 싸움에로 나갈것입니다. 그러나 이 폭동은 무모한 폭동입니다. 나는 실패할 폭동에서 여러 혁명동지들이 흘릴 피가 너무나 애석하며 그 후과가 두렵습니다.》

유철은 말을 마치자 다시 고개를 푹 떨구고 제 일신도 가누기 힘들

어 두팔로 건들거리는 모루우의 궤짝을 뻗치고 한동안 서있었다. 무엇인가 더 할 말이 있을듯하였다. 그러나 목이 잠기여 말소리가 새여나오지 않았다. 그는 몇번 헛되이 목을 휘젓다가 힘없이 연단에서 물러섰다.
　뜻밖에도 도가니속처럼 들끓던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유철의 마음속 몸부림이 회의참가자들의 흥분에 이상한 진정작용을 논것이였다. 처참한 모양이 되여 연단을 떠나는 유철의 모습은 어떤 혁명을 위한 수난자의 형상과도 같이 보이였다.
　유철이자신에게는 그것이 뜻밖이기도 하였지만 이미 아무런 현실적의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푹 수그린 그의 눈앞에 떠오른것은 비참한 종말에 대한 끔찍한 예감이였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적인 체념이 얼음덩어리처럼 싸늘하게 엉켜드는것이였다. 이때 무엇때문인지 채숙이 어머니가 마르던 갑룡이 색시의 첫날 분홍치마가 눈물에 아롱진 무늬처럼 눈앞에 얼른얼른 춤을 추며 지나갔다.
　유철이가 기진맥진하여 제자리에 가 털썩 앉자 기다리고있었다는듯이 김익보가 울분에 찬 태도로 벌떡 일어나더니 거치른 어조로 휴식을 선포하였다.
　그러자 일단 가라앉았던 회의장은 다시금 술렁대기 시작하였다. 성냥긋는 소리, 부시치는 소리에 뒤이어 마라초, 곰방대에서 한꺼번에 연기를 피워올렸다. 이와 함께 사처에서 열렬한 론쟁이 벌어졌다. 유철의 립장을 규탄하는가 하면 무모한 폭동을 론난하는 소리들이 서로 마구 엇갈렸다. 회의를 할 때는 모두 유철의 말을 반대하는것 같았으나 사실은 그런것도 아니였다. 열광적으로 달아올랐던 공기가 식자 리성이 눈뜨기 시작하였다. 회의장은 여전히 론쟁으로 떠들썩하였다.
　그런 장내분위기를 차거운 눈길로 바라보며 김익보는 골통대에 담배를 피워물고 순시원과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순시원도 김익보도 유철에게는 전혀 알은체를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회의분위기에서 완전히 외토라진 유철은 그 자리에서 더는 견딜수 없어 바깥으로 나왔다. 동쪽하늘이 훤했다. 북방의 8월밤은 벌써 쌀쌀한 랭기를 풍겼다. 우수수 설레이는 커다란 봇나무우듬지우에서 하얀 갈구리달이 파르르 떨며 지새여가고있었다. 술기막 앞마당 관목덩굴에서 경비를 보고있는 자위대원과 나란히 박두성이가 서있었다. 그는 빽빽 담배를 피워대며 한참 서있었으나 특별히 자위대원과 말을 나누는것도 아니였다. 그역시 자기 5촌당숙을 쳐야 한다느니 말아야 한다느니 하는 시끄

러운 공론이 듣기 싫어서 바깥으로 나왔을것이 틀림없었다. 잠시후 박두성은 바깥에 서있기도 멋적어졌는지 회의장으로 돌아가다가 문득 유철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동무의 보고는 옳지 않소!》

유철은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나 이미 박두성은 문을 열고 회의장안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유철은 그의 심정이 리해되는듯도 하였다. 역시 박두성은 우선 사람으로서 성실하며 또한 혁명적립장이 굳건하다고 느껴졌다. 그것은 아무 까닭 없이 마음속의 외로움을 보태주었다.

유철은 쓸쓸하게 머리를 들어 봇나무우의 달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판자에 무엇인가 우지끈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경비를 서고있는 자위대원이 흙덩이를 연거퍼 세개나 다급하게 창문으로 들여뜨렸다. 위험신호였다. 얼핏 회의장을 들여다보니 로채숙이가 재빨리 일어나서 남포등을 훅 불어 껐다. 일순 잠잠해진 회의장에서 담배불을 비벼끄며 뒤문으로 빠져나가느라고 비비대는 소리가 부산스러웠다.

박두성이 경비서는 자위대원에게로 뛰여갔다.

《뭐요?》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과연 큰개부락쪽에서 숨가쁘게 달려오는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나무덩굴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바라보니 말소리가 점차 높아가는데 그리 많은 사람 같지는 않았다.

《적은 아니지 않아?》

김익보가 조용히 다가서며 소곤거렸다.

《모두 피했소?》 박두성은 뚝뚝하게 되물었다.

《피했소.》

《그럼 동무도 어서 피하시오. 유철동무도 가시오. 결과는 내가 알리겠소.》

아지트 뒤문으로 해서 얼마간 떨어진 백리허의 밀림속까지 익보는 앞서고 유철은 뒤따라갔다.

그들이 밀림속의 집결장소에 채 이르기전에 박두성이 밤눈에도 땀에 뜬것이 알리는 두사람의 자위대원을 데리고 따라왔다.

《큰일났소.》

《무슨 일이요?》 김익보가 다급하게 되물었다.

《안석태동무와 길문복동무가 안골에서 걸려 안동무는 겨우 빠져

나왔는데 길동무는 보위단에 잡혀 갇혀있다오.》
《뭐야?》 김익보는 날카롭게 소리치더니 다시 물었다. 《가는길에 그랬다오, 오는길에 그랬다오?》
《갔다오다가…》 큰개에서 달려온 모양인 자위대원이 아직도 숨을 가쁘게 쉬며 말했다. 《상급의 지시가 급하다고 해서 에돌아올것을 곧장 오다가…》
《그래 어떻게 됐소?》
김익보는 혀를 차며 뒤를 재촉했다.
《정희겸의 집앞에서 그놈의 개새끼들이 접어드는바람에 개를 몇놈 걷어찼더니 소리가 요란해져서 보위단이 깨여난 모양입니다. 그래 싸움이 붙었는데 워낙 적수가 많으니 안동무는 머리가 터지고 팔이 하나 부러져서 겨우 빠져나오고 길동무는 잡혔답니다.》
《그게 어느때 이야기요?》 박두성이 침울한 어조로 물었다.
《방금전 일입니다. 우리도 안골에서 개짖는 소리가 요란하길래 이상해서 동구밖까지 순시를 나왔던겁니다.》
《잘됐소, 가기요.》 김익보는 화가 나서 홱 돌아서더니 숲속으로 급히 걸어갔다. 그러면서 중얼거렸다.
《때려눕혀도 시원치 않겠는데 매를 맞고 게다가 붙잡히기까지 해… 그까짓 보위단 같은것들한테…》
자위대원이 뒤따라가며 상급조직에서는 나올 사람이 없으니 이미 나간 순시원과 모든 일을 토의하라는 지시를 알렸으나 김익보는 들은체도 안했다.
반디불처럼 담배불들이 반짝거리고 모기 두들기는 소리가 절퍼절퍼하였다. 발걸음소리를 듣자 집결장소에 모인 사람들은 잠간 뒤설렜다.
《동무들!》 김익보는 그들께로 다가서자 다짜고짜 소리쳤다.
《폭동의 시뚜아찌야는 이미 성숙되였고 절박한 생활적요구도 제기되였소. 안골의 반동들은 중요한 공작임무를 받고 상급조직에서 돌아오던 동지 길문복을 감금해놓았고 동지 안석태에게는 중상을 입혔소. 이런 만행을 당하고도 참는다면 세상에 못참을 일이 어디 있겠소. 동무들, 우리 공산주의자는 혁명동지의 생명을 위하여, 원한에 젖은 전우들의 복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것을 서슴지 않는바이요. 신성한 복수를 위하여, 동지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당장 폭동에 궐기합시다. 지주, 자본가들을 타도하라! 안골의 토호렬신들에게 죽음을 주라!》

사태는 급전환을 하였다. 김익보의 연설은 기름항아리에 불을 지른것모양 일시에 사람들을 불타오르게 하였다. 모두 들고일어나서 제가끔 웨쳐댔다.

《그놈들을 때려엎어라!》

《당장 쳐들어가자!》

《안골의 지주들을 타도하라!》

폭동은 이미 움직일수 없는 기정사실로 되여버렸다. 시간을 지체한다는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이였다. 김익보와 순시원은 술기막골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는 당장에 군중을 동원할 과업을 주었다. 밀림의 한옆에 자리잡은 이 외딴 산막은 삽시에 폭동지휘부로 변하여 열기띤 사람들이 뛰여가고 뛰여오고 하였다.

숲속에서 좀 늦어 술기막골로 돌아온 유철은 처음 한동안 사태의 엄청난 발전에 어리둥절해있었다. 그러나 열광적으로 끓어번지는 폭동분위기가 점차 몸에 배자 마음 한구석에 얼어붙었던 회의적인 기분이 저도모르는 사이에 녹아내리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무모하다 하더라도 폭동은 이미 시작되나 다름없다. 이 폭동을 제지시킬 그러한 힘은 이미 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런 이상 이 폭동을 어떻게 하든지 승리에로 이끌어야 한다. 어쨌든 이것은 조선무산계급의 혁명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론리였지 생활적인 감정은 아니였다. 방금까지 반대하던 폭동에 선뜻 참가할 생각은 아무래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공산주의자라고 하는것이 인민들이 피를 흘릴 각오를 다지고 폭동에 궐기했는데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할수는 없지 않은가?

유철은 난감한 립장과 복잡한 심정을 어떻게 조화시켰으면 좋을지 몰라 망연히 한자리에 못박혀 서버렸다. 그는 이마우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연기에 그을은 시꺼먼 거미줄타래가 어수선하게 드리운 대장간의 컴컴한 천장을 바라보았다.

8

안골의 지주 정희겸은 한말에 탁지부(度支部)에서 주사를 지내던 사람으로 궁중의 끝없는 랑비바람에 가뜩이나 거덜이 난 국고에서 적

지 않은 몫을 제주머니에 훌쳐넣었을뿐아니라 리완용이네 무리가 나라 파는 일에도 한몫을 보아 일본작위는 얻어걸리지 못했지만 섭섭찮을 정도의 사례금을 분배받은 위인이였다. 필경 경술년의 합방을 보게 되자 저로서도 제가 팔아먹은 조국의 푸른 하늘이 두려웠다. 인민들이 방방곡곡에서 역적을 찾아 연장을 들고 나섰다. 정희겸은 서울에 있으면서도 제집 거처를 못하고 일부러 망가진 갓을 얻어쓰고 돌아다니다가 마침내는 무슨 지사나 되는것처럼 돈주머니를 바랑에 해지고 방랑의 길을 떠났다. 그러나 아무데 가도 독립운동자들과 의병들이 득실거렸다. 더구나 대처에서는 견디여배길 자리가 없었다. 결국 길림시내에 한 1년 엎디여있다가 거기서 색주가집 계집 하나를 차가지고 될수록 으슥한곳을 골라 자리잡은곳이 이 백리허 안골이였다. 그는 체통이 옆으로 벌어지고 팔자걸음에 기형적으로 비뚤어진 안짱다리와 말총같은 시꺼먼 수염이 궁상스레 뒤덮인 미욱하게 생긴 위인이였으나 어떻게 롱간을 부려 현성의 관리들을 삶고 또 토착지주와는 의형제를 뭇고 해서 백리허 일판의 밭 20여정보와 함께 황무지를 300여정보나 사들였다. 한편 백리허 숲속에다 목재판도 하나 꾸렸다. 미욱한 머리로 이 모든 재부를 관리하자니 품도 품이려니와 계교가 잘 떠오르지 않았다. 다행히 길림서 데리고 온 화월이가 사람 등쳐먹는데는 이골이 난 계집이였다. 사람을 놓아 국내나 간도에서 들어오는 농민들을 농쟁기와 농량을 대춰가면서 황무지를 개간시켜 3년째부터는 대바람에 반작으로 된오라를 넘겨씌웠다.

경신년 《토벌》이 있은 직후에 간도에서 경상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정희겸의 땅을 부치게 되여 가없는 백리허의 황무지가 거지반 다 개간되였다. 정희겸은 몇해 못가서 하강지구의 졸부가 되여 현성에 들어가서도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또 손을 상강지구에까지 뻗쳐 일제의 동척이 발을 붙이고있는 신개척구에 린접한 노곶에 새로 막대한 땅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 무렵에 정희겸의 신상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덮여왔다. 봉오골싸움이 있은후 독립군의 각파들이 이리로 밀려들었다. 그가운데는 그의 정체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다행히 독립군들은 한두달씩 묵고는 로령으로 넘어갔는데 정희겸은 그들에게 감정을 사지 않으려고 내외가 보선발로 뛰다싶이 하여 우두머리로부터 하졸에 이르기까지 후하게 환대해 보냈다. 거지반 독립군들이 사라져서 가슴을 쓸어내리

는데 일이 안될 때라 홍범도와 함께 일단 국경쪽으로 떠나갔던 박병섭이가 자기 영향하의 한패거리를 거느리고 되돌아와서 불과 열마장도 상거가 안되는 큰개에 자리잡았다.

박병섭은 본시 경상도출신으로 안골에도 그의 일가가 많았고 정희겸과는 서울에서부터 픗낯이나 아는 사이였다. 그런 가위에 위인이 결백하고 강직하여 나라를 잃은 백성이 싸움에 패했으면 차라리 스스로 죽는것이 떳떳한 도리이지 구태여 욕된 목숨을 이국땅에서 구하자는것이 부질없다고 되돌아선것이였다. 그는 큰개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일어날 때를 기다리면서 착착 준비를 하였다.

박병섭은 인망이 있었다. 그의 고결한 인품을 따라 사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일시에 큰개를 중심으로 백리허일판에 독립운동의 기운이 넘쳐났다. 학교가 설립되여 글소리가 랑랑하고 독립군의 군가를 비롯한 창가소리며 나팔소리가 백리허숲을 울리고 청년장정들이 무시로 순라를 돌아다녔다.

촌공서가 조직되여 세금까지 걷어들이는 판이라 정희겸은 울며 겨자먹기로 가을이면 며칠씩 량식포대를 큰개로 실어나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숲속에서 군대훈련도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정희겸은 신상에 위협을 느끼고 집안에 개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사나운 개 30여마리를 구해다가 이밥과 날고기를 먹이면서 파수를 세웠다. 그럭저럭 몇해가 지났는데 일은 점점 맹랑하게 되여갔다. 큰개에 사회주의자들이 나타났다. 안골에도 사회주의물이 들어 자기집 대문과 담벽에 무시로 《타도하라》는 삐라가 나붙었다. 사회주의바람에 박병섭도 큰개에서 밀려나서 박씨문중이 많은 안골로 건너왔다. 정희겸은 그가 쫓겨온것은 고소했지만 자기 집 문전에 얼른거리는 사회주의의 그림자를 느끼고는 잠을 잘수가 없었다. 인력거를 타고 현성에 드나들고 성관리들도 만났다. 그는 마침내 집안에 20여명의 보위단을 두고 화월의 오래비라는 망나니를 길림에서 끌고 와서 그 두목으로 박았다. 그러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루는 그의 과거죄행을 폭로하고 문책하는 삐라가 큼직하게 대문짝에 나붙었다. 보위단을 시켜 동네를 발칵 뒤집었으나 아무 단서도 못잡았을뿐아니라 농민들의 집에 갔던 보위단원 몇이 동네 사람들의 모두매를 맞고 쫓겨왔다. 언제 제 가슴에 깜장콩알이 날아들지 모르는 판이였다. 게다가 박병섭이 안골로 넘어와서 독을 피우는바람에 큰

개와 안골사이에는 잘못하면 주의사상을 초월한 패싸움이라도 붙을 위험이 없지 않았다. 그는 고래싸움에 등이 터질것만 같아 노곶에 새로 사들인 땅도 볼겸 자주 배를 타고 상강지구로 갔다. 그러다가 동척이 상강지구에 본격적으로 이민을 시작하는 기미를 보고는 제꺽 국내에서 가족을 데리고 와 노곶에 농장을 차리고 일년내내 거기에 눌러있다가 추수철이면 안골로 돌아오군하였다.

이번 가을은 각별히 어려운 조건이 예견되였다. 세계적인 불경기의 여파로 곡식값이 대폭락이였다. 백태를 비롯하여 수수, 조, 강냉이 모든 낟알이 절반값도 나가지 않았다. 이것을 서뿔리 시장에 실어냈다가는 량곡상인에게 바닥이 들리우고말것이였다. 그럴바엔 차라리 배심좋게 든든히 낟가리를 가리고 때를 기다리느니만 같지 못하다. 앞으로 크게 벌어질 일본 이민회사의 식량과 종곡 뒤바라지를 할 구멍수를 노상 못뚫을것도 없을것이였다. 노무라재벌이 상강지구에 크게 판을 차린다는것은 이미 확정적인 사실이였다. 지난 여름 노무라형제가 심양에 와서 총령사며 관동군의 실력자들을 만나보고 아울러 장춘, 길림, 할빈 등 요지를 다 돌아보고나서 상강지구에도 왔었다. 그때 정희겸은 뜻밖에도 노무라의 부름을 받고 4촌동생이라는 노무라 다이사꾸를 만났었다. 곧 조선에서 백동성이라는 사람이 올테니 앞으로 편의를 서로 보며 사업에 협조하라는 친절한 말도 들었다. 아니나다를가 그들 형제가 돌아간지 달포가 못되여 백동성이 현성에 나타나서 인사를 나누었고 앞으로 만주에서 일본의 권력이 무제한으로 확대될것이라는 매우 시사적인 말을 들었다. 노무라재벌의 이민회사인 《간민사》가 조직되고있다는 확실한 정보도 얻어들었다. 그러니 앞으로 본격적인 이민이 시작되면 백동성이 자기를 괄세하지 않을것이고 그러느라면 자연 길이 트일수가 있을것이였다. 이런 타산을 한 정희겸은 행여나 곡식을 루실할가봐 부랴부랴 안골에 나타난것이였다.

이번에 와서는 전처럼 우들우들 떨지만 않았다. 노무라재벌의 당대 주인인 노무라 슌스께의 아들 고지로가 관동군의 주임참모로 한다하는 실력자라는 말도 들었고 또 일본이 장차 만주를 다 삼키게 되리라는것도 아무런 비밀이 아니였다. 그날이 언제일지 딱히 짚지는 못한다 해도 몇해씩 끌 일이 아닌것만 사실이였다. 그러고 보면 이따위 벽지에서 용을 쓰고있는 독립군의 잔당이나 무식한 농군들의 갈잖은 사회주의자흉내에 지레 겁을 집어먹은 스스로가 오히려 민망할 지경이

였다. 그는 감히 큰개쪽으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안골과 현성에만은 활개짓을 하며 다녔고 박두한 가을을 위해 무섭게 이악을 떨었으며 꿔준 농량이나 리자 채근을 미리부터 혹독하게 다몰아쳤다.

《쌍가매야—》 그는 조선식으로 높다랗게 올린 대청에 올방자를 틀고 앉아 놋재털이에 장죽을 비스듬히 갖다 뻗치고 뻐끔뻐끔 담배를 빨며 식모계집애를 불렀다. 그러나 원체 악청인 그의 목소리인데다 대설대까지 비죽이 물고 웅얼거린 말이고보니 부엌까지 들릴리가 없었다.

《네 이년 쌍가매야！》 희겸은 놋재털이가 화닥닥 뛰여오를만큼 담배대를 땅 치고 빽 소리쳤다.

《아니 웬일이요？》 안방에서 늦으감치 아침화장을 하던 화월이가 신식으로 조막만큼 쪽찐 머리에 금비녀를 꽂으며 미닫이를 열었다.

《이런 년의 행실이 어디 있나. 꼭 두번, 세번 목이 터지게 불러야 이년의 대답을 받아보겠으니…》

《아따, 역정 그만 내시고 분부나 하시구려. 누구를 찾소？》

화월은 뽀얗게 분되박을 뒤쓴 얼굴에 금이가 박힌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눈을 야릇하게 치떴다.

《거 아무나 좀 부르오, 난 이놈의 고장에 오면 모두 배속이 엉큼해서 숨이 답답해 못견디겠다니까.》

《원 령감님두, 모두 속이 엉큼하다니 누구를 잡자는 말씀이시오？ 그럼 내가 령감님을 잘못 모신단 말씀인가요？》

《아 임자야 나와 일심동체인데 그럴 법이 있나？ 내 오늘 거 강필재놈의 버릇을 좀 고쳐주겠소. 거 잔말 말고 아무나 좀 부르오.》

《참, 령감！》

화월은 경대를 한옆으로 밀어내고 치마를 훌훌 떨면서 일어났다. 그녀자가 질질 끌리는 치마자락을 가볍게 쳐들고 뭉클 분내를 풍기며 옆에 나와앉자 정희겸은 멀미가 나는것을 느끼며 이마살을 찌프렸다.

《내가 우리 창도때문에 달포전에 그 로친을 불러왔댔다오.》

《그 로친이라니？ 아니 그럼 기어코 무당굿을 했단말이요？》

정희겸은 대설대를 쑥 뽑고 몸을 한옆으로 비키며 화월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럼 어찌오？ 애는 골골 앓지 령감은 돌아보지도 않지 애간장이 마르는데 굿이라도 해봐야 직성이 풀릴게 아니요？》

《그런 잡스러운짓을 하면 집안이 망한다니까. 허 참, 여기를 비우

면 여기서 야단, 저기를 비우면 저기서 야단, 이노릇을 어찌단말인고…》

《그러게 안골에 꾹 박혀있구려.》

화월은 지어서 새침한 태를 해보이며 눈을 할겼다.

《내가 여기 있고싶지 않아 나다니는줄 아오? 거 철없는 소리 작작하고 그 무당할미가 무슨 수작을 합데까?》

《글쎄 아이가 령감바람피우는 살이 박혀서 첩경 요절하기가 쉽다는구려. 그래 살을 파기 위해서는 장가를 들여야 하는데 동쪽에 토성가진 사람과 혼인을 해야 한다는구려.》

《원 미친 수작두, 아 창도가 올해 몇살이요? 이제 아홉에 난것을 장가를 들인단말이요?》

《아홉은 왜 아홉이라고 멀쩡한 아이 나이를 깎아내리면서 이 야단이요? 령감이 우리 모자에 대해 끔찍이 생각하는줄 이제사 알았소. 정 싫으면 그만둡시다그려.》

화월은 정말 새침해서 빽 돌아앉아버렸다. 창도는 10년전에 희겸이가 길림에서 한창 나돌아다닐 때 생긴 자식으로 실상 아이 가진 날자와 화월이를 알게 된 날자를 따져보면 어느 놈팽이의 씨인지 모를 껄끔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제 자식이라는 정이 도무지 붙지 않는데다 이것이 태여나자부터 골골 앓는게 도무지 사람구실할것 같지를 못했다. 하기는 정희겸은 본댁에게서도 화월에게서도 전혀 소생이 없었다. 그러기때문에 더욱 제자식이라는것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기때문에 억지로라도 마음을 돌려세워 이놈에게 대를 물려야겠다는 욕심도 나지는것이였다.

《허허허, 우리 변덕쟁이가 또 성이 났거던. 허허허, 어디 이리 돌아앉구려. 그래 창도가 열살이란말이요?》

《열살은 왜 또 열살이요? 열한살이지, 옛날 량반집 같으면 정혼한지도 오랬겠소. 요즘 량반부스레기란 지체도 가릴줄 모른다니까.》

《허— 이거 화가 대단히 났군. 그래, 당신 생각엔 창도를 정혼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이겠군?》

《어이구, 말귀도 무디다.》

화월은 하도 미련스럽게 노는 꼴이 징그러워 저도모르게 역정이 폭발하려는것을 가까스로 걷어잡고 코맹맹이소리를 냈다.

《내 말 좀 들으시오. 동방에 토성 가진 사람이라니 그게 누구겠소? 동방이면 해뜨는쪽이라 저쪽이 아니요? 저쪽에 있는 집이 거 강필

재와 박두환이네 집인데 박가는 목성이고 강가는 제비강자니 잘 새겨보면 토성이라고 볼수도 있지 않소? 내가 무당한테 그 소리를 했더니 그 로친도 그럼직하다고 합데다.》

《옳지, 강필재가 토성이라. 이거 천하에 희한한 일이군. 헌데 그건 그렇다치고 그집 조카놈이 우리 집에서 머슴살고 나간 일은 있지만 그 집에 무슨 규수감이 있나?》

정희겸은 계집의 수작이 자못 귀염성스럽기도 하고 또 어처구니도 없다는듯이 껄껄 웃었다.

《그 집에 규수감이 있으면 좀한 규수감이 있는줄 아시오? 강봉이라구 열일곱살난 처녀가 있는데…》

《뭐 열일곱살, 아니 열한살짜리 신랑에 열일곱살난 신부라면 거 너무 나이가 벌어지지 않을가…》

《어이구, 이거야 액땜으로 하는 혼산데 나이를 가지구 그리 어렵게 생각할것이 있소? 내가 미리 사주를 알아다 궁합을 봤더니 아주 천정배필입디다그려.》

《흠, 계집이란 앙큼하군… 그 계집애가 면추나 했나?》

《인물말은 내지도 마시오. 아마 이 백리허에서 그만한 인물을 찾아내자면 힘들거웨다. 아이가 똑똑하고 얌전하고 속이 깊기로 소문이 났다오. 게다가 일솜씨가 여북 밝은줄 아시오? 내가 무당 말이 아니라도 마음이 동하던차에 동쪽에 있는 토성 가진 사람이라니 그만 귀가 확 쏠리고말지 않았겠소.》

《허허허, 거 막상 정혼한다고 하면 그 지체가 너무 낮단말이야.》

정희겸은 심각한 표정이 되여 혼자 중얼거리듯하였다.

《하긴 그런 점도 없지는 않지요.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것도 없는것이 알고보니 그 집 문벌이 그리 한미한 집안은 아닙데다. 워낙 은진 강씨가 량반인데다 그 강필재령감 아버지는 진사까지 지냈다고들 하더군요.》

《지금이야 그까짓 집안보다는 땅이 있고 돈이 있어야 하는거야. 그따위 가난뱅이사둔이라는건 원쑤지간이나 다름없는데 이건 가난하기로 말하면 거지도 상거지니…》

《그래도 아이를 구하고봐야지 어찌겠소. 정혼을 하면 집에 데려다 일을 시켜도 손해볼건 없고 또 본시 그 아이가 일손이 재서 종년 둘폭은 일을 제낀다오. 이까짓 구석진곳에서 지체를 해서는 무엇하겠소.》

정희겸은 갑자기 무거운 생각에 잠겨버렸다. 그러나 화월은 지금 령감이 아무것도 생각하고있지 않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는 그저 지금은 생각에 잠긴척해야 할 대목이기때문에 그런 외양을 지었을뿐이였다.

《좌우간》 정희겸은 마침내 장죽에다 다시 담배를 쟁여넣으며 마치 큰 결심이나 한것 모양 점잖은 어조로 말했다.

《내가 그 강필재령감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본후에 가부간 결판을 내리기로 하겠소. 헌데 이년은 아직 안온단말이요?》

《쌍가매말이지요? 얘! 쌍가매야, 령감님 부르신다.》

화월은 정희겸의 장죽끝에 성냥을 그어대며 부엌에 대고 소리쳤다.

《네— 가요.》

무슨 힘쓰는 일을 하는지 몹시 가빠하는 대답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쌍가매가 벌겋게 피가 지고 갈라진 큼직한 손을 누데기치마자락에 씻으며 토방으로 나왔다.

《이년, 귀가 멀었느냐? 네년 부려먹으려다간 사람목이 상하겠다.》

《아이구, 부르자마자 왔는데 별스레는구네.》

쌍가매는 크고 억실억실한 눈을 놀랍다는듯이 부릅뜨고 전혀 삼가는 빛 없이 맞대고 말했다.

《이년, 주인령감님앞에 무슨 말대답질이냐!》

화월이가 빽 소리쳤다. 그러나 쌍가매는 눈도 끔쩍 않고 마주 소리쳤다.

《내가 놀고나 있다면 주인령감님 부르나 하고 기다리고있겠지만 언제나 일이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부르자마자 올수 있어요? 오늘은 부르자마자 왔는데도 이 성화니 난 참 힘들어서 못해먹겠어요.》

《아니 저런 년의 말버릇 보게나.》

정희겸은 화가 꼭뒤까지 치밀어 담배대를 쥔 팔을 후들후들 떨었다. 화월이가 씽하고 달려나가 쌍가매의 재티가 뽀얗게 앉은 머리채를 감아쥐고 실팍한 등을 고무신짝으로 마구 짓조겼다.

《아야야—》 쌍가매는 주위 상관 않고 마구 소리쳤다.

《사람 살려요.》

《아니, 이년이 누가 절 죽이기나 하는것 같이 엄살을 떠네. 이년, 이래도 버릇을 못고치겠느냐?》

너덜너덜한 적삼이 갈라져서 맨살이 드러난 등에 쩍쩍 신바닥이 들어붙도록 악착하게 매질을 했다.

《아이구, 이젠 그만 때려요, 아파서 일 못해요.》
쌍가매는 그냥 소리쳤다.
《그년 더 때리오, 더 조기라니까. 어디서 저런 미련한게 나졌단말인고…》
정희겸은 쌍가매 맞는 꼴을 보니 저으기 속이 후련한지 다시 재털이를 끄당겨 뻐끔뻐끔 담배를 빨았다.
《이년, 배은망덕한 년, 내가 네년 키우느라구 애간장이 다 마른 생각을 하면 네년을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겠다. 이년, 우리 량주가 네년을 거두어주지 않았더라면 네년은 진작 얼어죽어서 까마귀밥이 된지가 오래리란걸 벌써 잊었느냐?》
《다 알아요. 그러게 죽도록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때리니 어떻게 해요.》
《이년, 그래도 아직 주둥아리가 살았어! 이년! 이년!》
이 집에서 쌍가매가 매맞는것은 너무나 자주 반복되고 또 그때마다 되풀이되는 말마디들은 언제나 판에 박은듯 같은것이여서 다 자란 처녀가 이렇게 아우성치며 매를 맞는데도 집안팎에 수십명씩 득실거리는 일군들중 하나도 내다보는 사람이 없고 토담그늘에 늘어져누운 숱한 개새끼들도 본체를 안했다.
화월은 쌍가매의 머리칼을 한웅큼이나 쥐여뜯고야 직성이 좀 풀리는지 숨을 할딱거리며 마루로 올라앉았다.
《이년, 냉큼 가서 거 강필재령감 좀 불러오너라. 그리구 보위단장 좀 안으로 들어오라구 해라.》
정희겸은 화월이를 대견스레 바라보다가 볼을 불궈가지고 쌍가매에게 호령하였다.
《참, 별꼴 다 보겠네.》 쌍가매는 조금도 주눅든 빛이 없이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어올리더니 팔을 돌려 찢어진 적삼자락을 여미며 힝하니 달아났다.
《저런 말광대 같은 년이.》
정희겸이 또 꿱 소리쳤으나 쌍가매는
《그까짓 갔다오면 될걸 가지구 야단이야.》
하고 대문밖으로 사라져버렸다.
년놈이 쌍가매욕을 한창 신이 나게 하고있는데 빡빡 얽은 곰보가 들어왔다. 청색제복에 권총을 찼는데 바로 화월의 오래비인 보위단장 윤

철목이다. 허우대가 크고 눈매가 사납게 치째진데다 얽은우에 볼따귀에 칼맞은 자리까지 죽 째고 지나가서 험하기 짝이 없다. 벌건 장화목다리를 승마용 가죽채찍으로 툭툭 치며 토방에 올라선 곰보는

《형님, 부르셨소.》

하고 불손한 투로 한마디 하고는 마루바닥에 털썩 걸터앉았다.

《이 사람아, 자네가 노상 수고를 안하는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제 동네를 돌아보니 아직도 박병섭이 기가 펄펄해있고 그 집안놈들의 눈치가 일매지게 사나우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노릇인가? 경우가 옳자면 큰개 〈주의자〉들도 굴복을 시켜야겠지만 그것은 덮어둔다치더라도 자네가 20명이나 되는 장정에 소 세짝씩이나 주고 산 총을 10여자루나 가지고 다니면서 안골동네 하나를 휘여내지 못하니 이게 놀음이 됐나말일세.》

《허, 이거 난 도무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시다.》

윤철목은 다짜고짜 눈을 가로 치떠보더니 가죽채찍으로 마루바닥을 딱 치며 삑 돌아앉았다.

《바른대로 말해서 이 안골동네가 누구네 동네요? 내가 똑바로 말한다면 이건 박병섭의 동네란말이요. 이게 거저 토배기 존백성들이 사는 고장도 아니고 모두 총을 들고 하다못해 노루사냥이라도 해봤고 웬만한놈은 다 독립군놀음을 하던자들이 아니요? 여기에 리치를 놓고 따진다면 형님 같은 협잡군이 발을 붙이고 살 형편이 됐소? 그래서 형님도 노곶으로 줄행랑을 친게 아니요. 하지만 오늘은 정희겸이가 버젓이 마차를 타고 성내까지 마음놓고 나다니게 되지 않았소? 이게 다 누구 덕이요? 내가 형님 재물 모으는데 뭘 보탰다는 말은 안하리다. 하지만 형님 목숨이 붙어있는데는 내가 장담해도 하늘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더러 오히려 한 일이 없다고 책망이니 이건 너무 섭섭하외다그려.》

정희겸은 이마살을 찌프리며 옆으로 돌아앉았다. 원체 처음 데려올때부터 꺼림직한걸 화월이가 하도 보채기도 하거니와 그놈의 두꺼비상판이 이런 일에는 오히려 쓸모가 있음직도 하여 데려왔던것인데 오늘은 그 꼴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였다고 속으로 혀를 찼다.

《임자가 노상 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것은 아니라고 내가 진작 말하지 않던가? 하지만 난 자네 실력을 좀 더 비싸게 봤던차라 그래 섭섭했던걸세. 자네가 길림 같은 대처에서도 난다긴다하던 사람인데 이

런 벽지에서 조그마한 동네를 손아귀에다 넣지 못한대서야 누가 곧이듣겠나?》

정희겸은 그래도 속은 엉큼해서 윤철목을 은근히 얼리려 들었다.

《어이구 당신두…》 화월이가 옆에서 딱하다는듯이 말참견을 하였다.

《당신은 아직 우리 오래비 애 태우는걸 손톱눈만큼도 모른다우. 요즘 시국이 여북 험한줄 아시오? 큰개에서 공산당들이 욱욱 벼르지, 박가네 패들은 또 좀 기승스러운줄 아시오? 게다가 백리허에는 요즘 사처에서 토비떼가 몰려들어 득실거린다우. 그러니 오래비 마음이 한신들 편안한 날이 있는줄 아시오?》

《그걸 내 모르나. 하지만 이렇게 그냥 눌려만 있어가지구는 안돼. 멀지 않아 일본이 일을 꾸밀 모양인데 우리가 여기서 죽었소이다 하고 가만 있다간 이담에라도 할 말이 없단말일세. 뒤는 든든하니까 이젠 기를 짝 펴고 좀 크게 놀아보아야 한단말이요.》

정희겸은 담배대로 재떨이를 딱딱 두들기며 제법 시국물정에 밝은티를 지었다.

《오래비도 사실은 창도 아버지 일을 위해서 일을 더 좀 착심해서 하긴 해야 해요. 그런 일을 하자면 술도 노상 안먹지는 못한다 해도 노박 취해서 살아서야 일이 되겠어요? 전날도 창도 아버지가 걱정하는데 앞으로 일이 크게 벌어질 모양입데다. 그러면 이런 구석진곳에서 그냥 보위단장이나 하겠어요? 좀 정신차려요.》

화월은 장구 치고 꽹과리 치고 하는격으로 이쪽저쪽으로 채를 돌려가며 두 사나이를 번갈아 두들겼다.

《좋시다.》

곰보는 끅— 하고 군트림을 하며 바로앉았다. 독한 배갈내가 확 하고 풍겨올랐다.

《형님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힘을 아끼겠소? 칠놈은 치고 깔놈은 까고 이 백리허 일판에서야 윤철목이 마음 하나에 달렸죠.》

《바로 그래야 하네. 내가 생각이 있어서 오늘부터 이놈들을 좀 닦달을 하자고 하는데 행여나 뒤에서 말썽을 부리는놈이 있더라도 자네가 잘 기찰해서 움쩍 아가리질을 못하게 해야 하네.》

《알았시다. 윤철목이가 이래뵈두 록록한 위인은 아니웨다.》

곰보가 용돈을 억지로 타내여가지고 가죽채찍을 휘두르며 마당을 꿰

질러나가자 엇바뀌여 쌍가매의 뒤로 강필재가 따라들어왔다. 쌍가매는 마루쪽을 한번 치떠보고는 그채로 부엌에 들어가버렸다. 혼자 마당에 처진 강필재는 잠시 체소한 몸집을 주체하기가 거북한듯 머뭇거리다가 토방으로 조심스레 다가섰다.

《주사나리, 행차하셨습니까?》

《음, 그새 강령감도 잘 있었소?》

정희겸이가 령감이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사대부대접을 한것은 물론 아니고 이쪽을 하대해서 마구 불러던진것이였다. 강필재가 지금은 비록 지체가 없고 또 집안이 가난해서 능히 행세를 못하지만 심중으로는 정희겸이따위를 비루먹은 당나귀 취급도 안하는 사람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정희겸의 땅을 부치고 그의 농량을 꿔먹고 그의 마소와 가대기를 빌려쓰는 판이라 속이 메스꺼운것을 억지로 참으며 한껏 주사나리를 개올렸는데 이놈이 안하무인격으로 나오니 불끈 밸이 동했다. 그래 대척을 않고 엉거주춤 서서 땅바닥만 내려다보고있었다.

《어서 이리 올라오시오. 봉이아버지는 늘 봐야 저렇게 사람이 직심스럽다니까…》 하고 화월이가 간사를 떨며 말했다.

《우리 집 령감께서 여러날 보지도 못하고 집일이랑 농사일이랑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의논할 일도 있어서 그래 청한거라우.》

《어험》 변죽을 울리는 화월의 수작을 듣고보니 딴은 자기가 너무 뭉툭하게 대했다는 생각도 들어 정희겸은 좀 눅쳐야겠다고 마음먹고 우선 헛기침을 깇었다.

《이리 올라오소. 내 좀 할 말이 있소.》

필재는 년놈들의 수작이 암만해도 수상쩍어 다시한번 눈치를 살피다가 말없이 마루 한끝에 엉뎅이를 붙이고 말했다.

《무슨 용건인지 어서 말씀해주시우. 말을 밭에 매논채 들어와서 얼른 가봐야겠수다.》

강필재가 얼굴이 댕댕해서 말하자 두년놈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화월은 필재의 낯색이 글렀다는것을 느끼였다. 자기 이야기를 꺼낼 계제가 못된다는것을 깨닫자 령감더러 료량대로 해보라는 시늉으로 고개를 끄떡하고는 외면하였다. 정희겸은 배심이 생겼다. 그는 담배대를 재털이에 대고 맹렬히 두들기고나서 다시 담배를 쟁이면서 입을 벌렸다.

《내가 이번에 특히 안골로 좀 일찌기 나온것은 시국형편도 소연

하고 또 내 일신상의 사정도 좀 있고 해서 그간 밀렸던 도조관계며 금전관계를 깨끗이 아퀴를 짓자고 해서요. 그래 강령감과도 회계를 봐야겠는데 내 보기에 강령감도 렴치가 없단말이요. 대체 령감의 집안이 이 안골에 거접한것이 뉘덕이요? 이 정희겸이 아니더면 강령감네 집안이 벌써 이 험한 땅에서 굶고 얼어죽은지가 오랬을거란말요. 이젠 그럭저럭 5～6년이나 년사를 괜찮게 치렀고 가산도 그만했으면 펴인편인데 내가 이렇게 따로 구차스런 말을 비치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응당 인사가 있어야 경우가 옳지 않소?》

강필재는 묵묵히 듣고있었다. 정희겸이 이런 말을 꺼내는것은 비단 올해 처음 시작한것도 아니고 또 5～6년이나 묵은 빚을 그대로 눌러둘 위인도 아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나타나서 마당질에 앞서 이따위 수작을 한바탕 늘어놓고는 타작하자마자 깡그리 털어가고 이듬해 화월이를 통해 장리로 농량을 꿔먹게 만들었다. 이 여우같은 년이 또 《곱패》로 장리를 내주는데 그것도 성차지 않아서 말질,저울질에서까지 롱간을 부려 쌀 한말이라는것이 여덟되가 되나마나하였다. 그것도 뜬내가 나는 묵은 낟알을 먹고는 가을이면 햇곡식으로 갑절을 갚는데 두말이면 서너되를 더 쳐서 결국 세곱이나 물게 마련이였다. 그러나 빚진 죄인이라 강필재는 묵묵히 듣고있을밖에 수가 없었다.

《거 장부 좀 가져오우.》

정희겸은 담배를 빽빽 빨며 괴춤에 달린 돋보기집에서 다리 중간이 접히게 된 누런 테가 달린 구식돋보기를 꺼냈다.

돋보기알너머로 힐끔힐끔 강필재를 건너다보며 화월이가 수장궤에서 꺼내온 장부책을 벌컥벌컥 뒤졌다.

《재작년 수수 3석중에 2석을 물었으니 곱패로 치면 1석은 문셈이고 2석이 남았는데… 거 수판 이리 주오.》

《아따 거 옆에 있지 않소.》

정희겸은 수장궤옆에 놓인 알굵은 수판을 끌어다놓고 손톱이 시퍼런 둘째손가락으로 툭툭 튀기였다.

《2석이 곱패면 4석이라 올해에는 그 4석도 곱패로 쳐서 8석이렸다. 수수가 8석이요.》

화월이 얼른 수장궤우에서 벼루집을 가져오자 정희겸은 가는 붓을 들어 작인 강필재 채무세목이라고 쓰고 한단 낮추어서 수수 8석이라고 써넣었다.

《다음은 콩인데… 콩 4두를 가져간것이 4년전이렸다. 그런데 강령감이 이 점을 생각해야 하오. 4년전의 콩시세란 지금의 곱절이였거던. 그런데 지금은 불경기라 콩값이 회계가 없단말이요. 그러니 이걸 그때 시세로 환산해서 돈으로 물든지 아니면 지금 콩을 그때 시세로 쳐서 8두로 회계를 보든지 해야겠단말이요. 경우가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이것은 워낙 강령감의 신상이 궁해서 내가 땅임자로서 못본척할수도 없는 처지라 선심을 쓴것인데 손해를 이쪽에서 보랄 법이야 없지 않소.》

강필재는 듣다듣다보니 하도 기가 막히고 또 놈의 수작이 더럽기도 하여 멍하니 정희겸의 푸르딩딩한 상통을 바라보았다. 희겸은 돋보기알밑으로 눈을 치뜨며 말했다.

《그래 어느쪽으로 하는것이 좋겠소? 4년전 시세로 말하면 소매가격이 백태 1승에 15원각수로 도매로 쳐도 14원50전이나 하던것이 지금은 6～7원금사야. 허 참,이런 사람 죽일노릇이 또 있나…》

정희겸은 제사 기가 차다는듯이 한바탕 너스레를 떨었다.

《내가 가만 료량해보니…》

정희겸은 자못 표정이 심중해져서 말을 이었다.

《강령감이 시제 무슨 현금이 있겠소? 엊그제 내가 대충 년사를 돌아보니 강령감네 콩도 소출이 하 고이찮을 모양이라 콩으로 장리를 갚되 그때 시세로 곱쳐서 원금을 8두로 보고 한해면 〈곱패〉로 16두에 이태면 32두에 3년이면 64두 그러니 올해에 128두라,하니까 12석 하고 8두로 회계를 짓는것이 나을듯하오. 강령감,생각이 어떠하오?》

강필재는 몽당수염을 파들파들 떨었다. 천하에 이런 도적놈이 또 어데 있겠는가? 하나 시절이 무법천지요 사람마다 도적놈행세를 하는 세상이다. 그는 고개를 짓수굿이 숙이고 단마디로 배알듯이 잘라 말했다.

《난 못하겠소.》

《아니,못하다니? 그건 무슨 억하심정이야. 못한다면 어찔텐가? 그럼 내 곡식을 떼먹겠다는 수작인가?》

희겸은 대바람에 언성을 높이며 야료를 부렸다.

강필재는 야무지게 말했다.

《난 못하겠소. 세상에 곡가가 올랐으니 원금을 지금 시세로 받을수 없다는것은 혹 몰라도 이것은 곡가가 떨어졌는데 원액을 받고도 모자라서 곱치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또 어데 있단말이요. 그래 주사

네가 콩을 너말 장리로 주었는데 가령 오늘 너말로 받으니 그게 시세때문에 손해를 본단말이요?》

《손해가 아니구! 지금 콩값이 똥값이야. 그때 콩 한말이면 14원이상을 받았는데 지금은 반값도 되나마나니 이게 손해가 아니고 무엇이 손해란말인가?》

《당신하고 내가 무슨 리치를 캐겠소? 골목을 막고 물어보시오. 이게 경우에 닿나… 난 그렇게 갖다바칠 콩도 없거니와 그 노릇을 하느니 차라리 돌피를 심고 곡식을 매든지 해서 페농을 하고말아야지 사람탈을 쓰구는 못하겠소.》

강필재는 가래침을 돋구어 뱉으며 막말로 잘라버렸다.

정희겸은 주산틀을 움켜쥐고 후들후들 떨며

《아니 저런, 저런 우둔한것이 있나!》하고 펄펄 뛰였다.

《봉이 아버지도 그렇게 막말을 할것이야 못되지요. 일은 오손도손 말을 해서 의논 좋아 해야지 그렇게 서로 감정을 품고 말해서야 홍정이 되겠어요. 시세로 말해도 모든 물가들이 골고루 떨어졌다면 모르지만 유독 곡가가 떨어지고 그중에도 콩값이 많이 떨어졌으니 우리 집 령감이 기가 차지 않겠소. 그러지 말고 피차 경우 봐서 잘 말씀들 해보시라구요.》

때리는 남편보다 말리는 시에미가 더 밉다고 강필재는 그년의 분되박을 뒤쓴것 같은 여우상에 퍼런 가래침을 탁 뱉아주고싶었지만 억지로 참았다.

《그래 령감이 그렇게 도고할적엔 필시 믿는 구석이 있으렸다. 좋아, 이녁경우가 정 굽히지 못할 형편이라면 내가 경우를 굽혀야지 용빼는수가 있나. 그러나 만약시에 정 원액대로밖에 갚지 못하겠다면 그대로 하되 일후엔 우리 이런 각박한 홍정을 않게시리 깨끗이 거래를 끊어버리잔말이야. 세상에 땅 없어 농사 못짓는 손포가 남아돌아가는데 내가 굳이 강령감앞에 굽신거리며 농사지어달랄 필요도 없는것이고 강령감도 넓으나넓은 땅에 하필이면 정희겸의 땅을 부쳐야만 맛이겠나. 그러니 생각대로 하란말야.》

강필재는 초연히 어깨를 떨구고 정희겸이앞을 물러났다. 안바친단말도 못하고 바친단 말도 못하고 그저 눈앞이 아찔했다. 얼굴이 새까맣게 죽어서 돌아가는 강필재의 뒤통수를 쏘아보며 정희겸은 으르릉거렸다.

《제놈이 어디 갈데가 있나? 코구멍을 꿰인 쇠지지.》

그날 한밤중이였다. 모기장에 날아든 모기가 하도 성화를 부려서 잠을 못이루고 화월이가 속곳바람으로 초불을 켜들고 모기를 잡고있는데 벼락같이 개들이 짖어댔다. 스무마리도 넘는 개가 고요히 깊어가는 재밤중에 한꺼번에 짖어대니 온 동네가 당장 란리라도 난것 같았다. 개가 누구한테 어디를 채웠는지 깨갱깨갱 죽는 소리를 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무섭게 으르릉거리며 돌아갔다.

《얘들아, 거 무슨 일인지 나가봐라!》

정희겸은 얼른 머리맡에 둔 륙혈포를 더듬어잡자 벌겋게 벗은 웃통을 드러내고 바지괴춤을 움켜잡은채 모기장밖으로 나와 소리쳤다. 바깥마당에서 보위단이 뛰여나가는 발구름소리가 와당탕거리고 서로 맺다치는 소리, 죽여라 살려라 하는 아우성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곰보 윤철목이가 반죽음이 다 된 사람 하나를 질질 끌고 왔다.

그것이 바로 큰개에서 상급조직으로 보낸 련락원이였다.

워낙 큰개에서 현성이나 타곳에 나다니는 사람은 공작원이 아니라도 벌써 이태째 안골을 거치지 않고 딴길로 돌아다녔다. 그런것을 밤이 깊었고 또 련락도 급하다보니 몰래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그만 정희겸의 개한테 걸리고만것이였다.

붙잡힌것이 큰개의 공산당패라는것을 알자 정희겸은 처음에는 아차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래 사람을 온통 짓밟아놓은것을 보고 곰보를 욕질도 하였으나 곰보의 상통 역시 얻어맞아서 으깨여져있는것을 보고 이미 사태를 순조롭게 풀기는 케가 틀렸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미련한 체통에서 배심이 생겨났다.

《저놈들이 필경 사람을 찾으러 올테지?》

정희겸은 주섬주섬 옷을 주어입으며 혼자소리처럼 물었다.

《한놈이 뛰였으니 오겠지요. 그러지 않아 요즘 큰개에서 잔뜩 벼르고있던차에 마침 잘됐다 하겠시다.》

《흠, 그럼 그놈들이 거저 말이나 해가지고 찾아가자고들지는 않을걸.》

《편지에 문안이지요.》

곰보는 얻어맞은 볼이 부어올라 연신 물고기 아가미 놀리듯 턱을 이리저리 실구며 응대했다.

《그럼 이래서는 안되겠네. 자네들은 지금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동네 장정들을 몽땅 두들겨 깨워 큰개에서 쳐들어온다고 알려서는 남녀로소 가리지 말고 몽둥이를 들고 나서도록 하게. 자네들은 모조리 총을 들

고 나서서 동네놈들을 감독해야 하네. 혹시 박병섭이놈이 무슨 작간을 할지 모르니 행여 그 두상이 움찍 못하게 단속도 하고… 모두 몽둥이면 몽둥이,쟁기면 쟁기,뭐든지 들고 나오도록 하란말일세. 그리구 거끌끌한것들을 대여섯명 떼서 새벽에 나하구 성내로 가도록 차비를 하게. 마차를 미리 준비시키고… 내가 가서 대장어른을 만나봐야겠네.》

《아니,패린 당나귀 귀 떼고 뭐 떼면 먹을게 없다고 아이새끼 스무나문 되는것을 이리 떼고 저리 떼고 해버리면 정작 큰개에서 쳐들어올 때는 그림자로 막겠소?》

곰보는 정희겸의 처사가 못마땅하기도 하거니와 뒤일이 불안도 스러워 한마디 퉁을 놓았다.

《글쎄,일이 그렇게 된걸 지금 당장 어찌겠나? 어차피 군대나 공안국의 힘을 빌리지 않구는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울판에 내가 들어가잔즉 혼자는 못갈테요,그렇다고 동네에 숱한 장정들을 두고 임자네들 몇몇이서 일을 겪지는 못할것 아닌가베? 그러니 동네 장정들을 불러내는 이상에는 또 그놈들속을 어떻게 알고 저희끼리 내버려두겠나? 일이 어렵게는 됐네만 기왕지사 그렇게 된걸 어찌겠나?그러니 술상이나 채려내다가 지금부터 기운을 돋구어보게.》

화월이가 부엌에 나서고 쌍가매를 비롯한 식모부엌데기들이 모조리 벼락호령을 맞고 눈을 비비며 나섰다. 대청마루끝에 높이 등장대를 내다걸고 관솔불을 피우면서 술상을 보았다. 보위단놈들은 곰보의 지시를 받고 동네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깨워서 불러왔다.

한편 정희겸은 곰보와 함께 잡혀온 큰개의 련락원을 고간에 감금해놓고 큰개의 사정을 알아내느라고 고문을 들이댔다.

동이 붐하니 터올무렵,정희겸은 마차를 타고 앞뒤로 말탄 보위단 다섯명에게 옹위되여 현성으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큰개와 안골에서는 하루밤사이에 전투준비를 갖추어놓고 대적의 시각을 기다리게 되였다.

9

동이 트자 폭동군중이 이른 조반들을 해먹고 큰개로 모여들었다. 큰개나 안골주변의 산재부락은 말할것도 없고 30리 떨어진 가재울이며 대마

치, 가막골 등 멀고 가까운 동네에서 모두 삽이며 괭이들을 둘러메고 줄을 지어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날이 희뜩 밝자 큰개 학교마당에서 군중집회가 벌어졌다. 여기서는 주로 농민조직이며 청년조직의 표면상 책임자들이 나가 연설을 하였다. 강성재가 대렬을 총섭하여 그길로 안골쪽을 향해 떠났다. 농민자위대원들이 렵총을 벗어놓고 순수 농민으로 가장하여 대렬 중간중간에 끼여서는 규찰을 하였다. 학교에서 소선대원들이 동원되여 대렬 앞뒤에서 구호를 웨치고 노래를 부르며 기세를 돋구었다.

《지주, 자본가를 타도하라!》

《일제와 결탁한 반동군벌은 물러가라!》

폭동군중의 대렬이 누런 먼지발을 일으키며 퍼져오는 아침해살속에 안골로 들어가는 숲굽인돌이를 돌자 군중속에 섞여 경과를 보던 폭동지휘부성원들은 술기막으로 돌아왔다. 직접 폭동지휘는 김익보와 박두성이 하게 되여있었다.

유철은 술기막아지트에서 새도록 삐라를 찍다가 그것도 일감이 진해서 지금은 멀리서 들려오는 군중의 함성에 귀를 기울이며 가슴을 조이고있었다.

머리가 무겁고 사지에 피곤이 몰려들었다.

폭동은 이미 시작되고 대렬은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폭동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한가지 사실을 가지고 밤새 토론하고 생각하고 골몰하다보니 이제는 판단할 힘도 없거니와 오직 머리가 무겁다는 생각밖에 떠오르는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징 울리는 머리틈새로 무시무시한 환영과 같은 의문이 검질기게 솟아오르군하는것이였다.

그는 아지트의 찌그러진 문설주를 잡고 멀리 안골쪽을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폭동 그것으로 왜놈을 꺼꾸러뜨리고 지주, 자본가를 다 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중의 기세를 시위하고 혁명을 앙양시킬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것이다. 혁명의 기세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투쟁을 거쳐서 앙양되고 그 힘이 장성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작적인 폭동의 결과가 무엇이 될것인가는 간도의 경우가 너무나 잘 말해주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때문에 준비도 없고 목표도 뚜렷하지 못한 이런 위험한 일을 한사코 하자고 나서는가? 그것은 소위 상급의 로선이 그렇고 방침이 그렇고 지시가 그렇기때문이며 또 폭동을 할

밖에는 다른 출로가 없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러면서도 스크람을 짜고 구호를 웨치며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큰 혁명사업을 한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내대고 나서는 순진한 사람들인것이다. 대부분의 군중은 그런 사람일것이다. 그리고보면 어떻게 하나 폭동을 말렸어야 하지 않았는가?

간밤에는 이렇게까지 똑똑한 추리는 못했다 해도 어쨌든 무모한 진출을 막아보자고 애썼다. 그러나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 자기 역시 맹목적인 폭동이외에 달리 혁명을 앙양시킬만한 방책이 없었으며 조선의 무산대중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몰랐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폭동대렬은 이미 떠났다. 갑자기 대오를 따라가지 못한것이 뉘우쳐졌다. 폭동지휘부를 튼튼히 꾸려야 하고 앞으로의 사업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익보의 호의적인 제의가 접수되여 지휘부성원으로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정작 대오가 떠나고보니 손에 잡히는 일감도 없어 허전하고 불안한 한편 안타깝도록 피가 끓었다.

유철은 등사잉크가 얼룩덜룩 내밴 휴지뭉테기속으로 돌아와 알싸한 등사잉크냄새를 맡으며 자꾸만 엄습해오는 불안을 누르려고 못쓰게 된 삐라를 한장한장 펴서 간종그렸다. 여느날 같으면 로채숙이가 아침밥을 내다주었을테지만 오늘은 그도 바빠서 할수없이 조반은 굶게 되였는데 속이 텁텁할뿐 시장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밤새 콩기름불의 심지를 어떻게 돋구었던지 코구멍에는 굴뚝속같이 그을음이 앉았다.

바깥에서는 쉼없이 인기척이 드나든다. 시위대렬에서 두간두간 련락원이 이리로 달려오고 여기서 또 지시를 가지고 시위대렬로 사람을 띄우고 하여 래왕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득 조용해졌다.

정신을 차려 보니 해는 벌써 백리허숲우에 높이 솟아올랐다. 대륙의 폭양이 벌판을 지지기 시작했다. 멀리 들려오는 폭동군중의 함성도 이제는 들리지 않고 숲속에서 뻐꾹새소리만 한가하게 울려온다. 유철은 벌떡 일어났다. 불안한 예감이 더는 어찔수 없게 뒤골을 채웠다. 그는 코구멍만한 방안을 휘 살펴보았다. 경험있는 지하공작원의 눈으로 볼 때 이 방에 어수선하게 널려있는 선전물공작의 흔적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것이다. 그는 재빨리 서둘러서 대장간에 있음직하지 않는 모든 물건과 일체 흔적을 없애버렸다. 작업장에 나오니 순시원과 농민자위대에서 뽑아낸 련락원 두명이 마당에서 서성거리며 멀리 안골쪽을 바라보고있었다. 작업장에도 마당에도 회합을 가진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담배꽁초

며 남포등이며 구겨던진 종이쪽 같은것을 걸어내고 술기를 메우던 자리답게 어수선하게 흩어놓았다. 대장쟁이는 오늘 폭동에 나가고 작업을 할 형편은 못되였으나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불을 피우고 풍구질을 하여 달구지 쇠테감을 하나 벌겋게 달구어놓았다. 그러자니 적잖이 시간이 흘렀다.

저 앞 수수대의 그늘이 길게 비꼈던 달구지길우에 가물가물 아지랑이같은 해별이 비쳐올무렵 탕 하고 총소리 한방이 울려왔다. 풍구앞에 앉았던 유철이 후닥닥 뛰여일어나 바깥에 나가니 순시원도 련락원들도 저마끔 키돋움을 하며 총소리가 울려온 안골쪽을 바라보고있다. 한적한 분위기는 순시에 흩어져달아났다. 아무리 초조하게 바라보아야 키넘게 자라난 수수밭과 조밭들에 가리운 안골이 보일리 없었다.

《틀림없이 보위단놈들이 쏘는겁니다. 그놈들이 가지고있는 토퉁소리에요.》

《토퉁은 아니야, 칠성자소리야.》

두 련락원이 이러고있는데 연거퍼 따 따따 땅! 하고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토퉁소리도 칠성자소리도 어떻게 들으면 신식보총같은 소리도 엇갈려 들려왔다.

총소리가 자지러지자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버렸다. 들리는것은 총소리뿐이였지만 그 총소리뒤에 있을 어마어마한 광경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던것이다.

《음— 이놈들이 기어코 발포하는군.》 순시원이 무엇에 얻어맞은듯이 놀라며 부르짖었다.

《사태가 엄중해집니다.》

유철은 무엇때문인지 새삼스러운 그 어조가 마음에 불쾌하였으나 자기 뉘우침이 앞서 신음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순시원은 너무 충격이 심해서 여전히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릴뿐이였다.

《이거 야단났는데. 혼란이 일어나겠는걸.》

《아니, 그럼 이런 경우를 전혀 타산하지 못했단말입니까?》

유철은 이번에는 정말 놀랍고 어처구니가 없어 물었다.

《타산을 못했소. 설마 그놈들이 이렇게까지 야만적으로 나올줄은 생각 못했소.》

《그건 무슨 소립니까? 동무들의 주장이 겨우 그런 타산우에 서 있었단말입니까? 그럼 동무들은 대체 그자들이 어떻게 나오리라고 생

각했습니까?》
유철은 너무 기가 차서 주먹을 틀어쥐고 안타깝게 물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자기 역시 이 무모한 폭동에 책임이 없지 않다는것을 생각하고 피가 지도록 입술을 앙다물었다.
뙤약볕아래 쓰러지는 사람들의 모습과 무질서하게 흩어지는 시위대렬 그리고 개처럼 미쳐날뛰는 반혁명무리들의 모습이 언뜻언뜻 머리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순시원은 유철의 말이 꽤 아픈 모양 이마살을 찌프렸으나 총소리가 계속 울려오고 사태가 엄중하다는 느낌이 너무 현실적으로 절박했기때문에 그것을 탄할 마음의 여유를 잃고있었다. 그저 우리속에 갇힌 짐승처럼 대장간앞마당을 분주히 오락가락하며 행여나 무슨 소식이 있을가 해서 왁새처럼 목을 빼고 안골쪽을 돌아볼뿐이였다.
총소리는 그냥 자지러진다.
—적들의 탄압같은것은 문제도 아니요.
—우리의 기세는 하늘을 찌른단말이요.
—그까짓것들 우리가 쳐들어가면 혼비백산해서 달아날거요.
어린애처럼 흥분해서 웨치던 김익보의 말이 토막토막 끊기여 귀전을 때렸다.
그러나 그가 저 총소리속에서 얼마나 당황하고있을것인가? 갈팡질팡하는 그의 모습이 선히 눈앞에 그려졌다. 순시원의 허둥거리는 꼴을 봐도 그들이 이런 정황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니 폭동에 궐기한 인민들에게 어떤 참혹한 시련이 닥칠것인가 하는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유철은 고개를 떨구었다. 적어도 자기는 이렇게까지 똑똑히는 몰랐다 해도 이 준비 없는 폭동이 시원한 결과를 빚어내지 못하리라는것만은 예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들을 설복하지 못했고 결국엔 그들의 부정확한 주장앞에 무릎을 꿇고말았다.
그리하여 조국과 계급을 생각하는 인민들의 피끓는 열정은 저렇게 원쑤들의 불뿜는 총구앞에 벌거숭이가슴으로 서있게 된것이다.
자기의 무능과 우유부단성이 저주스러웠다. 이 참혹한 시련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바로 자기자신의 무책임한 자포자기와 무지가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할 때 눈앞에 벌어진 참극이 너무나 두려웠다.
그러나 그냥 자지러지는 총소리는 유철로 하여금 그런 뉘우침에 잠

겨있을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조직의 희생을 덜 내고 폭동에 궐기한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뒤수습이나마 잘하여야 한다. 유철은 자꾸만 머리를 어지럽히는 자책감에 볶이면서 어떻게 하면 폭동을 큰 희생 없이 수습할것인가 하고 안타깝게 궁리하였다.
《사태를 알아보고 곧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유철은 순시원을 향하여 결연한 태도로 말했다.
《글쎄, 그래야 하겠는데… 어쨌으면 좋겠소?》
순시원은 당황한 나머지 자기의 처지마저 잊어버린듯하였다. 모든것을 일임할테니 마음대로 해보라는듯한 그의 태도에 유철은 다시한번 속이 꿈틀하였으나 참았다. 시간이 급하다. 오래 끌면서 따지고 캘 여유가 없다.
《동무!》
잠시 머리를 움켜쥐고있던 그는 저 앞에서 역시 안절부절 서성거리고있는 련락원을 불렀다.
《동무는 곧장 안골로 가오. 가서 폭동형편을 알아보시오. 틀림없이 란장판이 됐을것이니 김익보동무나 박두성동무 혹은 강성재동무를 만나서 침착하게 대렬을 잘 수습하라고 하시오. 그리고 만일 적의 공세가 심하면 일단 물러서라고 하시오. 적앞에서 무질서하게 흩어지는것은 가장 치명적인 패배요. 그러니 희생자가 혹 나더라도 굳건히 대렬을 짜고 규찰대의 역할을 높여서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질서정연하게 후퇴하도록 조직하라고 하시오. 만일 사태가 그런 형편도 못된다면 간부들은 서로 련락해서 일단 이 밤으로 피신하도록 하시오. 이미 대렬이 흩어졌다면 틀림없이 복수가 있을것이니 거기에 대처해서 조직을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하오. 저 총소리는 단순히 보위단놈들이 쏘는것이 아니요.》
유철은 단호한 어조로 여기까지 말하고 잠시 숨을 쉬였다. 두 련락원은 말할것도 없고 순시원까지도 감히 뭐라고 간참할 생각을 못하고 정숙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그리고 이쪽 동무도 같이 가서 안골이 바라보이는 어방에서 되돌아와서 사태를 본대로 보고하시오. 그만큼 가면 틀림없이 먼저 빠져나오는 사람을 만날테니 그 사람을 데리고 사태를 잘 캐물어보시오. 그러되 절대로 아지트로 데리고 오지는 마시오. 안골로 가는 동무역시 임무를 전달하고는 곧장 돌아오되 만일 사람들을 인차 못만나

서 시간을 끌 형편이면 믿을만한 자위대원 한사람을 골라서 우리가 이 동무를 다시 내보낼테니 동무들이 헤여지는 지점을 련락장소로 정하고 그리로 보내시오.》

유철은 있을수 있는 여러 경우를 머리속에 그리며 침착하게 그러나 촉급한 시간에 다쫓기며 급히 일렀다. 순시원은 유철의 말을 듣자 더구나 급하다는것을 느끼는지 안타깝게 두발을 번갈아 구르더니 자기가 지시한 말이기나 한것처럼 공중 을렀다.

《어서 떠나오. 어서 떠나란말이요.》

《됐소. 빨리 떠나시오. 조직군중을 만나면 누구든지 간부를 보호하고 적들에게 절대로 간부들을 넘겨주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특히 자위대원들은 결사적으로 간부들을 보호해야 하오. 어서 떠나시오.》

두 련락원은 쏜살같이 뛰여달아났다.

안골동구앞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폭동군중들과 정희겸의 보위단사이에 일대 격투가 붙어 혼잡이 일어났었다. 폭동군중들은 처음 무서운 기세로 함성을 지르며 안골로 육박해갔으나 미리 기다리고있던 보위단원들이 총대를 내대고 길목을 지키고있는데다 영문도 모르고 보위단원에게 끌려나온 안골청장년들이 역시 손에손에 농쟁기들을 들고 와— 모여들자 주춤거리지 않을수 없었다. 정희겸의 개들이 수십마리 한꺼번에 쓸어나와 사납게 짖어댔다. 그러자 동네의 뭇개들이 다 쓸어나와 미친듯이 이리뛰고 저리뛰며 붉은 혀를 드러내고 울부짖었다.

《지주, 자본가들을 타도하라!》

《일제와 결탁한 반동군벌을 타도하라!》

《길문복을 내놓으라!》

《간악한 토호질을 하는 정희겸을 타도하라!》

폭동군중들은 소리소리치며 어깨를 겯고 한걸음한걸음 죄여들었다. 그러나 보위단원들은 한껏 술을 처먹어 얼혼까지 취해버린 우에 형세를 보아 뒤걸음을 쳤다가는 삽시에 짓밟혀죽을것 같고 게다가 정희겸이 성내로 가서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바람에 총자루를 휘둘러대며 위협할뿐 길을 내지 않았다.

《기여나오는놈은 갈겨버리라!》 곰보 윤철목이가 칠성자를 뽑아 휘둘러대며 소리쳤다.

《길문복을 내놓으라!》

《이놈들아！ 왜 죄없는 사람을 패고 가두느냐？ 사람을 내놓아라！》

폭동군중들은 그냥 웨쳤으나 일체 반응이 없었다.

김익보는 대렬중간에 섞여있다가 암만해도 형세가 시원치 않은것을 보자 박두성에게로 가서 내밀라고 신호했다. 두성은 결연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갔다.

《안골의 여러분.》 박두성은 대렬 맨앞에 나서자 보위단원 한놈이 내대는 총구를 한손으로 비틀어잡고 한손을 높이 쳐들며 큰 소리로 불렀다.

《당신들은 무엇때문에 우리 길을 막는가？ 간밤에 우리 청년 길문복이와 안성태가 정희겸이놈 개한테 물리고 보위단놈들한테 얻어맞아 골이 터지고 팔이 부러진 우에 길문복이는 붙잡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알수 없소. 한 동네에 이런 무도한 토호를 두고 그놈을 지키기 위하여 당신들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단말인가？ 우리는 모두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 등가죽을 벗겨먹는 정희겸이나 토호지주들의 편을 드는가？ 우리는 또 왜놈오랑캐들을 만주에까지 끌어들이려는 반동군벌을 치러 가오. 길을 내라！ 당신들은 애매하게 혁명의 손에 죽음을 당하지 말라！》

박두성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군중들이 받아웨쳤다.

《지주, 자본가를 타도하라！》

《길문복의 원쑤를 갚자！》

박두성은 계속 주먹을 흔들며 그 징 치는것 같은 우렁찬 목소리로 웨쳤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찾자면 반드시 정희겸이 같은 토호들과 반역자들을 먼저 쳐야 하오. 이놈들은 제 배속을 채우기 위해 왜놈들을 끌어들이고 백성들의 등을 치고있소. 반동요언에 속지 말고 길을 내고 우리와 합류하시오. 정희겸의 편을 드는자들은 언제든지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될것이요. 동지들！ 혁명을 위하여 앞으로！》

《민족반역자 정희겸을 타도하라！》

박두성이 앞으로 돌진하자 와— 하고 군중들이 뒤를 밀고 쓸어나갔다.

《빨갱이를 쳐라！》

윤철목이 칠성자를 휘두르며 소리쳤으나 아무도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선두에서는 벌써 란투가 벌어졌는데 안골의 청장년들은 자기들이 보위단원에게 속았다는것을 알자 눈치빠르게 뒤로 빠지고 보위단원들과 폭동군중이 한데 뒤엉켰다. 이때 뒤로 한참 물러났

던 윤철목이 바로 등뒤에서 《반동분자들을 타도하라！》 하는 우렁찬 웨침이 터져서 기겁하여 돌아보니 맨 앞장에 선 더벅머리청년이 괭이자루를 움켜쥐고 달려왔다. 윤철목은 앞으로 달려가다가 술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몸에서 만용이 불끈 치솟았다. 그는 바로 자기앞으로 아무런 겁도 없이 씩씩하게 육박해오는 그 더벅머리청년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악！》

청년은 외마디소리를 지르고 나가넘어졌다. 일순 끓어번지던 동구앞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흰 적삼우로 피가 붉게 번져나오는 청년을 일으켜안은 폭동군중들의 눈에는 분노의 빛이 이글이글 불탔다.

《갑룡이가 죽었다.》

이런 웨침이 대렬로 퍼져가자 다음순간 화산이 터진듯

《저놈 잡아라！》

하는 함성이 터져오르고 폭동군중은 동이 터진듯 정희겸의 대문을 향하여 밀려나갔다. 윤철목은 어망결에 발포는 해놓았으나 너무도 무서운 그 반응에 혼비백산하여 뒤걸음질을 쳤다. 그러자 주춤거리던 보위단원들이 삑 돌아서서 줄행랑을 놓았다. 군중들은 삽시에 골목을 삼키고 어물거리던 보위단원들을 삼키고 캥캥거리던 개새끼들을 짓쳐죽이면서 사태 터진것 모양 쓸어나갔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따따따！ 따따따 하는 총소리가 울려오고 사람들이 삼대 넘어가듯 우수수 쓰러졌다. 아까부터 멀리서 말발굽소리가 들려왔던것이나 아무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었는데 정희겸의 집앞으로 키넘게 자란 드넓은 강냉이밭머리에서 기마경찰의 무리가 한꺼번에 들이닥치더니 제잡담 총질을 해댄것이였다. 그뒤로 정희겸이와 기마경찰대장놈이 나란히 탄 4두마차가 나타났다.

《저놈들은 모두 공산당이다！ 마구 쏘아없애라！》

메기수염을 기른 경찰대장놈은 칼자루를 짚고 마차간에서 일어서더니 군중을 손가락질하며 호령하였다. 시꺼먼 복장을 하고 땀이 번지르르한 호마들을 타고 온 경찰놈들은 모자끈을 끌어내려 턱에 걸고 어깨우로 높이 쳐든 총을 마구 갈겨대며 군중속을 헤치고 들어왔다. 와— 하고 시위대렬은 뿔뿔이 흩어졌다. 뒤걸음치던 보위단원놈들이 되돌아서서 흩어지는 군중을 잡으러 뛰여왔다.

《개새끼들！》 박두성은 마구 접어드는 기마경찰놈을 맞받아 두팔을 쫙 벌리고 나갔다.

《당신들은 인민들의 진정을 무엇때문에 총칼로 탄압하는가？ 경

찰대장은 여기 나서라!》

앞선 경찰놈은 목석같이 낯색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말을 내몰았다. 아차하면 깔릴번한 아슬아슬한 순간에 홱 몸을 돌린 두성은 돌아서는참 말고삐를 움켜쥐고 잡아챘다.

히힝— 말이 코구멍을 벌룩거리며 앞발을 곧추 쳐들고 옆으로 돌았다. 말우에 탔던 경관놈은 공중걸이로 꽝 하고 땅바닥에 떨어졌다.

《저놈이 두목이다. 저놈을 잡아라!》 정희겸이 소리치고 경찰대장놈이 앙앙 발을 구르는것과 동시에 경찰과 보위단원놈들이 박두성에게 밀려들었다.

한편 김익보는 적의 기마경찰대가 나타난것을 보자 일이 글렀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이 정황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몰라 망설이는차에 선두에서 란투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쓰러졌다. 앞에서 비명소리가 울리자 뒤에서는 뿔뿔이 흩어지면서 큰개쪽으로 혹은 숲쪽으로, 수수밭속으로 달아났다. 김익보도 우선 몸을 피할 생각으로 수수밭속에 뛰여들었다가 술기막골아지트에서 숨가쁘게 달려오는 련락원과 딱 마주쳤다.

《익보동지!》

련락원은 수수밭머리에 멈추어서자 가슴을 가쁘게 들먹거리며 불렀다.

《기창동무, 웬일이요?》

《긴급지시입니다. 적의 폭압이 심한 조건에서 무모한 반항을 중지하고 일단 후퇴하랍니다. 후퇴할 때는 적앞에서 무질서하게 흩어지지 말고 대렬을 잘 수습해서 질서정연하게 하랍니다. 무질서하게 흩어지면 희생도 더 많아지고 적에게 얕잡아보이기도 하기때문에 다소 희생을 내는 경우에도 결코 대렬을 흐트려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규찰대의 역할을 강화하며 특히 간부들을 결사적으로 보호하랍니다.》

순간 김익보의 달아오른 머리속에는 서늘한 리성의 바람이 불었다. 그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안골 동구앞을 돌아보았다. 일부 견결한 청년들이 돌팔매질을 해대며 대항을 시도하고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가고있었다. 게다가 몇몇 사람들은 적들에게 체포되여 끌려가고있었다. 박두성이가 피투성이 되여 보위단원들과 치고 받고 하면서 결투를 하고있었다.

《누구의 지시요?》 익보는 멀찍이 사람들 틈에 있는 강성재를 찾

아내여 그리로 달려가면서 무심결에 물었다. 련락원 기창이 역시 혼란이 벌어진 동구앞으로 박두성을 구하려고 달려가면서 대답했다.

《동지 유철의 지십니다.》

《동지 유철의?》 김익보는 내닫던 걸음을 문득 멈추고 짤막하게 되물었으나 인차 달려나갔다.

그자신도 이 순간에 자기 머리속에 떠오른 감정이 대체 어떤 종류의 감정인지 가려낼 여유가 없었다.

《알겠소.》 하고 익보는 달리며 말했다.

《동무는 빨리 규찰대동무들을 만나 이제 그 지시를 전달하고 동지들을 구하도록 하시오.》

처음 폭동계획을 세울 때는 익보는 표면에 나서지 않기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사태가 이쯤 험해졌는데 애초부터 책상머리에서 적당히 만들어낸 그 계획을 고집할 형편이 못되였다. 그는 강성재를 찾아 대렬을 수습하라는 지시를 주는 한편 흩어지는 폭동군중앞에 주먹을 틀어쥐고 나섰다.

《동지들, 용감한 투쟁에 궐기한 무산로력대중 여러분! 대렬을 짜고 어깨를 겯읍시다. 단결은 우리의 힘입니다. 집에는 배고파 우는 아이들이 있고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늙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소원을 풀기 위하여 우리는 피를 흘리더라도 싸워야 합니다. 적들은 우리의 단결을 두려워합니다. 압박받고 착취받는 로력대중 여러분! 우리가 혁명에서 잃을것은 철쇄뿐입니다. 모두다 뭉칩시다.》

한편 강성재며 농민자위대원들, 조직의 핵심들이 도처에서 선동연설을 시작하였다. 대렬이 일단 수습되자 익보는 강성재에게 후퇴할것을 지시하고 규찰대들에게 든든히 뒤를 끊을것을 지시했다.

자위대원들의 필사적인 투쟁에 의해 하마트면 붙들려갈번한 아슬아슬한 판에 가까스로 구원된 박두성은 이를 부득부득 갈며 다시 원쑤들에게로 진공할것을 고집했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자신 보위단원들의 몽둥이에 맞고 총창에 찔려 얼굴이며 팔다리에 랑자하게 피가 흐르고있어 자기 힘으로 걷기도 힘드는 형편이였다. 안골에 갇힌 길문복을 탈환하지 못한것은 말할것 없고 최갑룡이외에 새로 두사람의 희생자와 많은 부상자를 내고 그우에 일곱명이나 경찰에 체포당하였다. 그러나 희생을 그만한 정도에서 멈추어세운것만도 불행중 다행이라 할것이였다. 폭동군중은 초연하게 마을로 돌아왔다.

술기막골아지트에서 중간에 내세운 련락원으로부터 시시로 변하는 정황을 장악하고있던 유철은 대렬이 돌아오자 사람을 시켜 적의 있을수 있는 반격에 대처하여 각 부락 특히 큰개에 경비를 강화하며 주목받을만한 사람들은 미리 백리허숲속으로 몸을 피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될수 있으면 혁명군중들은 일단 모두 몸을 피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뒤따라 사람을 보냈으나 이것은 김익보가 접수하지 않았다.

불안한 공기를 싣고 저녁바람이 불어왔다. 사람들은 각기 흩어져가고 피에 젖었던 길은 저녁 어스름속에 묻혀들었다.

밤에 술기막아지트에서는 비극으로 끝난 폭동을 총화하고 앞으로 수습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간부들의 회의가 열렸다. 유철은 지나간 폭동을 정확하게 총화짓는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에 처한 조직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조직사업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밑에 이 회의를 진행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정작 열어놓고보니 회의는 왕청같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낮에 피를 보고 많은 희생을 낸 사람들은 흥분될대로 흥분되여있었다. 대책문제를 론의할 마음의 여유들이 없었다. 그리하여 저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휘부성원들의 책임을 추궁하였다.

김익보는 폭동을 세밀히 조직하지 않고 무모하게 군중을 내몰았다고 집중적으로 비판되였으나 익보는 내심 자기 책임을 느끼면서도 후과가 너무나 큰데 겁을 집어먹고 비판을 선뜻 접수하지 않았다. 그는 상급조직을 걸고 직접적인 책임은 박두성에게 밀면서 조직성이 없고 첫 타격앞에 벌써 무질서하게 흩어진 사람들을 비난하였다. 순시원은 자기 책임을 느껴서인지 혹은 회의경과를 보자는 배심에선지 가타부타 말이 없었으나 사람들은 격분에 몸을 떨며 익보의 말을 반박해나섰다.

《처음 무질서하게 뛴게 누구예요?》

로채숙이 야무진 소리로 말했다.

《동지자신이 맨먼저 뛰지 않았어요? 동지는 비록 표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군중들은 다 동지를 알고있어요. 폭동을 조직하고 지도한 동지들자신이 뛰였으니 누가 안뛰겠어요? 동지가 지도자가 아니라 해도 혁명동지들의 희생을 이렇게 많이 내놓고 동지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단말이예요?》

박두성은 부상을 당했기때문에 회의에 참가한다기보다 몸을 치료하기 위해 구석진 이 아지트에 와 누워있었던것인데 김익보의 말을 듣

자 벌떡 상반신을 일으켰다.
《동무! 이제도 할 말이 있소? 사실 나는 혁명앞에 죄가 많소. 나는 당초에 이 폭동에 의견이 많았소. 동지 유철이가 폭동이 무모하며 구호가 옳지 않다고 비판하는것이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소. 그러나 나는 적극적으로 폭동을 하자고 주장했소. 이것은 동지 김익보가 언제나 나를 박병섭의 조카이기때문에 그를 옹호한다고 나를 공격하기때문이였소. 이런 사사로운 감정때문에 오늘 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폭동을 주장하여 혁명앞에 씻을수 없는 죄과를 범했소. 나는 이와 같이 자기를 비판하고 저주하는만큼 조직에서 어떤 처단을 내려도 달게 접수할것이요. 그런데 동지 김익보는 무언가? 이 동무는 우리 혁명조직을 적앞에 로출시키고 많은 혁명동지들을 희생시키고 붙잡혀가게 한 이번 폭동에서 제일 책임이 큰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무는 자기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씌우고있소. 이는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요.》
유철은 흥분된 말소리들과 어수선한 회의장 분위기에 주의를 돌리면서도 무엇때문엔지 자꾸만 치밀어오르는 초조감에 볶이여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 원인을 그자신도 잘 알수 없었다. 그래서 적당한 기회에 몇마디 말을 하고싶었으나 말을 하자고 하면 문득 그 불안한것이 앞을 막아서서 주춤거리게 되고 어찌다 말할 기회를 타서 입을 벌리려 하면 또 그 불안한 생각때문에 자기가 말하고저 하는 요점이 흐리마리해지군 하였다.
그는 종내 불안을 이기지 못하여 마당으로 나왔다. 으슥한 나무그늘에서 자위대원들이 보초를 서고있었다. 그들은 낮에 위험에 처한 폭동대렬을 제때에 수습하게 한것이 유철이라는것을 알기때문에 존경심을 품고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수고들하십니다.》
《수고랄게 있습니까?》
그중 한 동무가 이렇게 받으며 유철의 눈치를 살폈다. 낮에 안골과의 도로중간에서 련락을 보장한 백리허목재판의 채벌로동자 김기창이다. 그는 유철이 말이 없자 조용히 말했다.
《출상은 3일장으로 래일 한답니다. 한 동무는 갓 결혼한 동무인데 새색시가 시체를 안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갓 결혼한? 그럼 혹시 최갑룡동무가 아니요?》

《옳습니다. 갑룡이가 색시 치마감을 끊겠다고 나한테 목재판에서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조르던 일이 어제 같은데… 그 펄펄 뛰던 친구가 그만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유철은 명치끝에 한대 얻어맞은것 같은 심한 아픔을 느꼈다. 갑룡이의 순결한 꿈도 모든 희망도 그의 듬직하던 육체와 함께 원쑤들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흉탄에 으깨여졌다. 그의 어린 안해도 늙은 아버지도 다시는 그 어질고 소박하던 갑룡이를 보지 못할것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과연 그들의 불행을 막을길이 없었던가?

유철은 너무 숨이 가빠 버릇처럼 하늘을 우러러보며 긴숨을 내쉬였다.

자위대원 김기창은 유철의 침통한 표정을 보고 저도 잠시 고개를 숙이고있더니 조용히 입을 벌렸다.

《저, 유철동지.》

유철이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자 기창은 말을 끊고 또다시 유철의 표정을 살피다가 말하였다.

《체포된 동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지탈환투쟁을 해야 할것입니다. 아마 지금 그 문제를 토의하게 될것입니다.》

유철은 고개를 떨구고 무거운 어조로 대답했다.

《저기서말입니까?》 기창은 포장으로 가리웠으나 틈사리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여나오는 대장간 뒤고방을 턱질로 가리키며 말했다. 어쩐지 못미더워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또 더 잡히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니 정희겸이도 그렇고 경찰놈들도 그렇고 그저 공산주의라면 죽자구 해본다는데 이 밤이 무사할것 같지 못합니다.》

무심히 하는 기창의 말을 듣자 유철은 번쩍 머리를 쳐들었다. 무엇인가 번개같이 머리속을 치고 지나갔다.

《참, 동무, 동무는 그 체포된 사람들을 다 잘 압니까?》

《다는 모르지만 다섯사람은 우리 큰개 사람들이니 잘 알지요. 나머지는 가재울사람이 하나 하고 또 한사람은 가막골사람이라더군요.》

《이런 말을 해서 안됐소만.》 유철은 바싹 다가서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동무들이 다 믿을만한 동무들입니까?》

《네? 글쎄요— 믿을수 있겠지요. 하지만, 글쎄요—》

유철은 비로소 자기 불안의 원인을 알아냈다. 그는 급히 회의장으로 되돌아섰다.

《동무들, 경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오늘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유철이 회의장에 들어가니 강성재가 울음섞인 소리로 자기비판 같기도 하고 호상비판 같기도 한 두루 엇갈린 토론을 하고있었다. 유철은 안타깝게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순수 농민투의 장황한 말은 그냥 계속되였다.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던 유철은 마침내 마음을 질정하고 이야기중간에 벌떡 일어났다.

《긴급제의가 있소. 나는 회의장을 다른 안전지대로 옮길것을 제의합니다. 오늘 적과 대결이 있었고 또 체포된 동지들도 있는 조건하에서 오래전부터 써오던 이 아지트를 계속 쓴다는것은 지하공작원칙상 옳지 않소. 특히 간부들이 이렇게 많이 한자리에 모였다는것은 대단히 위험하오！》

《아니, 그건 무슨 소리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중둥을 잘리운 강성재가 불복인듯이 되물었다.

《옳소, 장소를 옮기는게 좋겠소！》 뜻밖에 김익보가 찬동해나서는데 박두성이가 드러누운채

《하던 회의야 마저 끝내야지, 왔다갔다 하느라면 다 식어버릴것이 아닌가？》 하고 어정쩡하게 말했다.

《동무들,》 유철은 큰 소리로 웨치다싶이 말했다. 《토론을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낮의 형편을 보아 반혁명도 결사적입니다. 위험은 촉박했습니다. 기마경찰대가 이미 출발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놈들이 우리 아지트를 어떻게 안단말이예요？》 로채숙이 야무지게 소리쳤다.

《더 시비를 캐는자는 반혁명분자로 규정될것이요. 빨리 백리허로 옮깁시다.》

유철이 미처 말을 끝맺지 못했는데 꽝！ 하고 난데없는 렵총소리가 밤공기를 찢었다.

뒤미처 가까이서도 총소리가 울렸다. 보초를 서고있는 동무들이 접근해오는 적을 견제하면서 회의참가자들에게 위험신호를 울리는것이였다. 회의장은 삽시에 어수선해졌다. 말소리가 쑥 들어간 대신 모두 엉거주춤 허리들을 일으키고 술렁댔다. 유철은 살그머니 문짝을 비집고 틈새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밤눈에도 경찰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무리들이 은밀히 아지트를 포위하여 점점 죄여들고있다는것이 알렸다. 기마경찰이 오겠거니 하고 기다렸던 자신을 어리석게 생각했으나 이미 미치지 못할 뉘우침이였다. 같이 바깥을 내다보던 김익보가 당황하여 말했다.

《벌써 포위됐군. 가만, 뒤쪽을 봅시다.》

《보나마나 이미 때는 늦었소.》

유철은 이를 악물고 노가주나무 그늘에 의지하여 맞불질을 하고있는 두 자위대원을 지켜보며 말했다. 김익보는 어쩔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뒤문쪽으로 갔다. 그러나 김익보가 갈 사이도 없이 그쪽으로 나가려던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 하고 뒤로 물러섰다. 바깥에서는 적의 총소리와 자위대원들의 외로운 사격소리가 들려왔다.

《사로잡아라, 사로잡아라!》 하는 목소리도 울렸다. 적들은 일정한 지점에 이르렀는지 악—악— 소리들을 쳤다.

《동무들!》 유철은 아래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말했다. 《적들에게 붙들려서는 안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체포되더라도 혁명앞에 조직의 비밀을 지킬것을 우리 서로 맹세합시다.》

술렁거리던 방안은 갑자기 엄숙해졌다. 바깥에서 적들이 한걸음한걸음 죄여들고있는 조건에서 큰 소리를 칠수도 없었으나 저마다 눈빛으로 혁명의 비밀을 목숨으로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것을 일일이 확인한 다음 유철은 박두성에게로 다가갔다. 두성은 옆구리에서 목갑총을 뽑아들고 한 절반 일어서려는 참이였다.

《총을 이리 주시오.》 유철의 어조에는 꺾을수 없는 무게와 힘이 어려있었다. 박두성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총을 내놓았다. 유철은 로채숙이와 강성재 그리고 농민자위대에서 온 몇몇 젊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 어물거리다가는 모두 붙들릴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나갈테니 동무들은 기회를 봐서 인차 간부들을 호위하여 숲속으로 빠지시오. 앞에서 적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틈을 타서 로채숙동무와 강성재동무는 자위대장동무와 다른 간부들을 호위해서 뒤문으로 뚫고 나가시오. 덮어놓고 뛰기만 하면 잡힙니다. 그러니 손에 몽둥이든 돌멩이든 들고 답새겨야 합니다. 적들은 체포할것을 목적으로 삼는만큼 함부로 사격하지 못할것입니다. 결단성있게, 대담하게 뚫고나가야 합니다.》

《내가 앞을 서겠소!》

박두성이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인차 비칠거렸다. 비칠거리는 그를 유철은 무자비하게 밀어던지고 권총을 쑥 뽑아들었다.
《혁명동지들, 원쑤를 치러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람들은 일제히 작업장에 나가 널려있는 수레바퀴살이며 쇠붙이며 맞춤한 돌멩이들을 틀어쥐였다. 유철은 문짬을 비집고 잠시 바깥을 감시하였다. 나무덤불에서 맞불질을 하던 두 자위대원중 한사람이 이미 부상당한 모양 총소리는 하나밖에 울리지 않는데 그리로 시꺼먼 그림자들이 우르르 쏠렸다. 그 순간을 노리고있던 유철은 와락 문을 열어젖히고 문밖으로 뛰여나갔다.
《이놈들, 총을 받아라!》
숲을 울릴듯한 소리로 크게 웨치자 적들은 우뚝 발걸음을 멈추었다.
다음순간 유철의 손은 연거퍼 권총방아쇠를 당겼다.
《악—》
외마디비명이 울리였다. 잠시 적들은 주춤거리였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유철은 몸을 날려 적의 한복판에 뛰여들었다. 수북하게 자란 관목숲에 몸을 의지하고 좌우로 사격을 퍼부으니 가까이 있는 놈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고 멀리 있는놈들은 총을 쳐들기는 하였으나 유철이 자기편의 한가운데 끼여있기때문에 함부로 갈기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앞으로 기여나왔다.
뒤문쪽으로 나갔던 적들이 우르르 앞으로 쓸어왔다. 이때 문앞에 지켜서있던 사람들이 손에 든 몽둥이며 쇠붙이들을 휘두르고 돌팔매질을 하면서 무서운 기세로 적들에게 달려들었다. 어둠속에서 쩔쩔매고있던 적들은 불시에 우르르 쓸어나오는 사람들을 보자 질겁하여 뒤걸음질치며 마구 총질을 해댔다. 누군가가 쓰러지는것이 알렸다. 동무들은 쓰러진 동지를 부축하려고 한곳으로 모여들었다. 유철은 위험을 느끼고 엎드렸던 관목덤불에서 뛰여나와 소리쳤다.
《헤치시오! 모두 헤쳐!》
사람들이 흩어지자 유철은 좌우로 권총사격을 퍼부으면서 쓰러진 동지에게로 달려갔다. 농민협회책임자 강성재였다.
《나한테 업히시오!》
유철은 한쪽 무릎을 꿇고 가까이 다가선 정면의 적에게 두어방 불질을 한 다음 어깨를 들이댔다.
《일없소. 어서 피하시오. 난 일없소.》

강성재는 신음소리를 씹어삼키며 한손으로 땅을 허비면서 일어서려 하였다.

《어서!》

유철이가 손을 끌어당겨 어깨에 걸치는 순간 발뒤꿈치가 화끈하더니 공중 쳐들리면서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본능적으로 손이 가서 발을 만져보니 로동화뒤축이 훌 달아나고 질퍽하고 끈적끈적한것이 손바닥에 묻어났다. 맞았구나 하는것을 느끼자 유철은 고개를 쳐들었다. 이미 동지들은 태반이 어둠속에 사라지고 맨뒤에 처진 그림자를 향하여 대여섯명의 적이 쫓아가고있다. 유철은 침착하게 무릎을 꿇고 따라가는 적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겼다. 연거퍼 두놈이 쓰러지자 나머지 놈들은 주춤거리더니 나무뒤에 붙어서서 이쪽을 향해 총질을 하였다.

가까이서 적들이 몰려들었다. 유철은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격철이 절컥할뿐 탄알은 나가지 않았다. 탄알이 다 떨어진것이다.

그 눈치를 챈 지휘관놈이

《사로잡아라!》

하고 소리쳤다.

유철은 벌떡 일어나서 다가드는 한놈을 발길로 걷어차고 다른 한놈의 멱살을 틀어쥐고 옆으로 메꼰잤다. 뒤에서 세놈이 한꺼번에 덮쳐들었다.

옆에서는 강성재가 용을 썼으나 그역시 적에게 깔리고말았다.

유철은 강성재, 부상당한 젊은 자위대원 김기창과 함께 체포되여 현성 련대부로 호송되여갔다.

10

삼굿속 같이 찌고 물쿠던 더위가 지나가더니 시누런 황토먼지가 벽체처럼 치솟아서는 초원이고 강이고 거리고 산이고 모조리 누렇게 덮씌워버렸다. 광야는 먼지를 한벌 뒤집어쓰자 생기를 잃고 메말랐다. 강들은 누런 물거품을 물고 모든 귀찮은것에 엇서기를 단념해버린듯이 천천히 끝없는 벌판을 누비며 흘러갔다. 누런 먼지가 켜로 앉은 대지를 내려다보며 수리개는 기진한듯 천천히 떠돌다가 그래도 산이 좋다

고 그 역시 누렇게 황이 들어가는 산으로 날아갔다. 키높이 자란 새초며 싸리 등속이 배배 비탈려서 바람에 설렁거리는 산속에서는 낮잠을 자던 갈범이 어슬렁어슬렁 기여나와서 사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먹을것이라군 없으니 심술이 나서 개미굴을 앞발로 툭툭 치군 하였다.

오직 사람들만이 바빴다. 먼지 오른 신작로와 오솔길로 짐을 지고 수레를 몰고 사람들은 닥쳐올 추위에 미리부터 몸을 옹송그리며 반달음을 놓았다. 이해—1930년의 상서롭지 못한 예감은 모든 사람들을 까닭없는 불안에로 내몰았다. 피에 젖은 대지에서 망령이 일어나 배회하듯 무엇인가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드넓은 광야에, 먼지 오른 거리에, 실그러져가는 오막살이에 그리고 불안한 사람들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신문과 떠도는 소문들은 흉흉한 소식들을 전하였다. 조국에서는 근래에 없는 대풍으로 1,900만석이나 쌀이 더 났으나 아글타글 일해서 그렇게 많이 거두어들인것이 도리여 화가 되여 지주들에게 다 빼앗긴 우에 쌀값마저 땅바닥에 뚝 떨어지는바람에 수많은 새 거지들이 밀려다니고 한편 압록강과 두만강의 나루와 다리는 이렇게 살림을 들리운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오느라고 길이 멨다고 하였다. 앞으로 만주에도 땅이 귀해질것이라는 말이 떠도는가 하면 벌써 일본에서는 만주를 치기 위해 중폭격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수많은 땅크를 실어내고있다는것이였다. 그뿐이 아니라 일제의 파쑈테로분자들이 미쳐날뛰다 못해 저희네 내각총리를 저격하는 형편에까지 이르렀다. 중국에서는 지난 몇달동안의 군벌전쟁바람에 30만의 송장이 썩은데다 장개석이 또 10만대군을 끌고 북으로 쳐올라오는바람에 연도에는 곡성이 랑자하다는것이다.

조선의 방방곡곡에서는 인민들의 폭동이 련달아 일어났다. 눈에 피발선 경찰놈들과 헌병놈들이 주야로 사람들을 끌어가는데 모든 재판소에서는 매일같이 사상범들에게 사형 혹은 무기를 비롯한 중형선고를 내리고 수많은 감방과 류치장들은 사상범들로 넘쳐나서 감옥의 증설을 성화같이 재촉하고있었다. 이런 시국에 편승하여 대륙의 숲에서는 도적떼가 날뛰였으나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 관공리라는것 역시 망조가 든 시운을 느끼고 부어라, 마시여라로 세월을 보내는가 하면 어떤자들은 스스로 제복 입은 도적으로 되여 그 어떤 강도보다도 가혹하게 인민들을 략탈하였다. 이리하여 이 거치른 땅에서는 도적놈도 도적이요, 군대도 도적이요, 경찰도 도적이요, 장사군도 도적이라 그 등쌀에 그저 억울하게 빼앗기고 찢기는것은 인민들뿐이였다.

황토먼지가 밀려들자 이어 가을도 없이 사나운 광풍과 함께 겨울이 불쑥 다가들었다. 모든것이 얼어들었다. 그처럼 태평스레 흘러가던 강도 딱 흐름을 멈추고 허여멀겋게 굳어져버렸다. 숲은 헐벗고 초원은 황폐화되였다. 푸르딩딩 찌프린 하늘에 이따금 여우별이 반짝하다가도 인차 사라지고 세상만물은 더는 살 희망을 잃어버린듯 알몸을 드러내고 나가넘어져 얼어터질 그날을 기다리는것이였다. 활엽수림이 일제히 이렇게 벌거벗고 나서자 침엽수림들은 더욱 서슬이 푸르러져서 생명 가진 나무라기보다 독기 서린 창대와 같이 하늘을 향해 곤두 치솟아올랐다.

유철은 음침한 감옥속에서도 바깥세상의 이러한 변화들을 속속들이 느끼고있었다. 차라리 중중첩첩한 감옥속에서도 세월의 그 무거운 표정은 그대로 내비쳤다.

서쪽으로 난 복도의 맨 구석 북향방인 이 독방에는 1년내내 해별이라군 들지 않았지만 여름에는 더위가 짓물쿠고 겨울이면 거치른 바람이 벌판과도 같이 마구 쳐들어왔다. 겨우 한사람이 기거하고 팔다리를 놀릴수 있는 폭이여서 아무리 거센 바람과 추위가 휘몰아쳐도 오히려 공기는 부족하여 언제나 숨가쁨에 허덕이였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숨가쁨의 원인은 공기의 부족에도 있지만 마음속에 느끼는 압박감때문에 더한것만 같았다.

그가 백리허에서 체포되여 성 도독관하의 련대에서 죽도록 매를 맞던 끝에 이 감옥으로 넘어온것은 10월중순이였다. 자기네 사람이 몇사람이나 죽었으니만큼 련대에서는 재판이고 뭐고 그채로 쳐죽일 잡도리였다. 다행히 그 련대의 젊은 부관 한사람이 박두성이와 막역한 사이였다.

유철이네가 체포된후 백리허에서는 동지탈환을 위한 시위와 진정운동을 강력하게 벌리는 동시에 박두성이가 부관을 통해 련대장에게 여러가지로 교섭을 하였다.

한편 유철은 자기를 취조하는 장교를 심문과정에 꾸준히 교양하였다. 그는 공산주의자라는것은 감추면서도 큰개폭동의 조직자라는것은 선뜻 승인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라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독립운동자인 동시에 만주침략을 노리는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사람이라고 서슴없이 말하였다. 지금 만주와 전중국을 일본이 다 삼키려들고 이미 수많은 일제군대가 조선을 강점하였을뿐아니라 만주며 중국땅에까지 쳐들어와서 야만적인 침략행위를 감행하고있는데 일제와 야합하여 조중인민을 괴롭히는 정희겸이 같은놈을 어찌 가만 둬둘수

있는가? 항차 그는 큰개의 죄없는 사람을 잡아다 부상을 입히고 제멋대로 가두어두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하고 통렬히 규탄하면서 정희겸이가 일제의 주구라는것, 이런자를 편든다는것은 곧 일제를 도와주는것이라고 불을 뿜듯이 호소하였다. 공산주의라면 질색을 하지만 그래도 민족적량심이 약간이나마 남아있었던지 그 말에 대해서는 취조하던 장교도 외면하고말았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하고 따져묻는것이였다. 유철은 그것만은 한사코 부인하였다. 그것을 승인하는 날이면 그자들은 틀림없이 자기를 쏘아죽일뿐아니라 앞으로 백리허의 혁명발전에도 큰 장애를 조성할것이기때문이였다.

사건의 모든 책임을 유철이가 지고 또 동지탈환투쟁과 박두성의 교섭이 맥을 쓴데다가 유철의 꾸준한 교양이 또한 효력을 발생하여 강성재는 무죄로 석방되고 부상당한 채벌로동자 김기창과 유철은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총기를 불법휴대했다는 죄목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이 감옥으로 이송되였다. 군대영창에서도 호송도중에도 또 이 감방에서도 이 땅의 경찰사법제도라는것은 조선에서처럼 깐지고 악착하지 않은 대신 우둔하고 거칠며 빈구석이 많은 한편 포악하기가 그지없었다. 돈만 있으면 아무리 중죄를 지어도 빠져나오기가 여반장인데 음식집에서 만두 한개를 훔쳐먹고도 사형당하기가 례사였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도 간수를 잘 삶아놓으면 감방에서도 불을 뜨끈뜨끈하게 때고 외부와 임의로 련락할수 있는 대신 싸움이나 투전을 한두번 하고 잘못 걸려 들어온 사람도 미련하게 굴다간 생죽음을 당하기가 쉬운곳이다.

그러니 유철이가 군인을 몇사람 쏘아죽이고도 무기징역정도로 감옥살이를 할수 있게 된것은 법까지 다 좀먹어버린 무법천지의 시국풍조때문이라고 할것이다.

유철은 마음속이 무거웠다. 자신이 위급한 혁명정세속에 어쩔수없이 자유를 구속당하여 기약도 없는 감옥살이를 하는것도 마음을 울적하게 하였다. 대체 언제 다시한번 자유를 얻어 기어코 끝장보고야 그칠 혁명에 몸바쳐 싸울 날이 돌아오겠는지 막연하였다. 그러나 정작 마음을 괴롭히는것은 혁명자체의 전망이였다.

큰개의 자위대원 김기창은 체포당할 때 어깨박죽에 관통상을 입은데다 취조과정에 또 많이 상해서 몸이 마련없이 되였는데 갈이 수인차를 타고 오면서 내내 자기는 아마 머지않아 죽을것이라고 하였다. 유철이가 아무리 위로해도 듣지 않았다. 지어 어떤 때는 얼굴이 새빨개가

지고 화를 내면서 자기가 희망이 없다는것을 기어코 납득시키려 하였다. 유철에게는 그것이 어느정도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되였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기어코 회복될수 있다는것, 혁명은 기어코 승리한다는것을 증명하려 하였다. 호송원도 마차군도 끝없이 펼쳐진 광야를 달리는데 지쳐빠져 뿌연 시야에 피로가 어려있을뿐이였고 그나마 자주 졸았다. 그래서 결박을 단단히 지워놓고는 마음놓고 자기도 하였다. 그러기때문에 그들이 말을 주고받는데는 큰 불편이 없었다.

여기로 도착하는 즉시로 유철은 전옥을 만났다. 그는 자기들이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다가 이렇게 됐다는것을 당당한 태도로 말하고 자기와 함께 온 젊은 독립지사가 지금 매우 위독한데 즉시 병감으로 옮겨달라고 말하였다. 조선독립을 위해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지사는 많다, 만일 당신이 이 청년의 생명을 법적으로 보호해준다면 우리들은 당신을 감사하게 생각할것이다.… 유철의 이 말은 깊이 생각하고 한 말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전옥은 유철의 문건과 얼굴을 한참 번갈아보더니 그를 이 음침한 감옥에서도 제일 구석진 서쪽채 맨 북향방에 가두고 철저히 감시를 조직하는 한편 김기창은 그날로 병감에 옮겨놓았다. 조선독립을 위해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많은것은 사실이였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것은 전옥이였다. 그러니 그들이 자기네 동지를 보호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시할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복을 할수도 있다. 전옥에게는 감사도 달갑지 않았지만 더욱 보복은 달갑지 않았다. 유철은 전옥의 이런 심리를 깊이 생각지 않고도 인차 간파할수 있었다. 아니나다를가 담당간수는 지독한놈이 왔다. 볼따귀로부터 턱밑으로 반달형의 칼자국이 지나간 메돼지갈이 흉칙하게 생긴놈인데 입에서 항상 술내를 풍기며 수인들을 마구 차고 때려서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그대신 돈푼이나 있는 협잡군에게는 갖은 심부름을 다 해주고 바깥에서 료리를 시켜다가 감방안에 들여놔주기까지 하였다.

유철은 이자를 갈아치우지 않고는 옴짝할수가 없다는것을 깨닫고 기회를 엿보았다. 아침산보에 나가서 이웃방 죄수들을 만나 은근히 이놈이 못된짓 하는데 대해 욕을 했더니 모두 눈치를 슬슬 보면서도 이 메돼지에 대해 품고있는 앙심을 내비쳤다. 밤중에 이놈이 함빡 술에 취해 건들건들 조는것을 보고 행여나 해서 서대문감옥에서 쓰던 통방을 해보았다. 옆방 역시 독방이였다. 한참 동정이 없더니 재차 호출

신호를 치자 뜻밖에도 대답을 하는데 서대문의 통방이 그대로 통하였다. 조선의 사회운동자들이 쓰던 이 통방암호가 여기까지 퍼져왔다는것을 생각하니 감개가 새로왔다. 통방을 통해 그전에는 내내 감방사이에 련계가 있었는데 이놈들이 감옥에서 자꾸만 소동이 벌어지는바람에 그 방지대책의 하나로서 두간두간 빈 방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이사이에 잡범들만을 쓸어넣어 련계를 못짓게 했다는것을 알았다.

메돼지를 내쫓자는 유철의 제안은 전체 사동에서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다.

어느날 유철은 맞은편 잡방에서 도적놈 와주노릇을 하다가 붙잡혀왔다는 뚱뚱보가 돈뭉치를 메돼지에게 건네여주는것을 보았다. 얼마후 바깥에 나갔던 메돼지가 흰 눈을 함빡 뒤집어쓰고 들어오더니 옷자락밑에 감추어가지고 온 술병을 뚱뚱보에게 몰래 넘겨주는것이였다.

유철은 패통을 두들겼다.

《뭐야?》 메돼지는 외투에 앉은 눈을 털며 다가오더니 첫마디부터 사납게 나왔다.

《배가 아프오. 의사를 좀 불러주오.》 유철은 침착하게 말했다.

《뭐 배가 아파? 이 자식, 이게 너희 집 아래목인줄 아느냐? 나도 배가 아플 때마다 의사를 찾지는 않는다. 참아!》

《참지 못하겠소. 의사를 불러주오.》

《야, 이자식이 엇선다. 너 소문 들으니 공산당이라지? 공산당이란 죽여도 내 속이 시원치 않겠는데 의사를 불러줘? 가만 엎데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데도 안아프도록 아예 깨끗이 고쳐줄테다.》

이때 벌써 메돼지와 유철의 싱갱이를 눈치챈 다른 감방들에서는 맹렬히 통방이 날아가고있었다.

《나는 의사를 불러줄것을 요구한다. 불러줄테냐, 안불러줄테냐?》

유철은 온 감옥에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웨쳤다. 서대문형무소를 들고놓던 그의 서슬푸른 태도와 우렁찬 목소리는 대번에 메돼지의 속을 떠끔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미 메돼지가 양보할 형편은 못되였다. 감방마다 불타는 눈들이 복도를 내다보고있으며 웅성웅성 떠들고있다는것을 아는 메돼지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도 엇설수밖에 없었다.

《이 자식, 내가 치료해줄테다.》

메돼지는 허리춤에 꿰여찬 열쇠뭉치를 더듬어서는 철컥 하고 감방문을 땄다. 그 순간 유철은 제먼저 밀어제끼고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의사를 불러라! 너는 의사를 부를 의무가 있다. 너는 방금 저 사람에게는 술까지 사다주면서 배가 아프다는 사람에게 의사를 불러주지 않는단말이냐!》

《뭐,뭣이 어찌구 어째!》

외투를 활 벗어붙인 메돼지가 뛰여들어 멱살을 틀어쥐려 하는 순간 유철은 목청을 가다듬어 웨쳤다.

《의사를 불러라!》 그러자 온 동안에서 일제히 함성이 터졌다.
《의사를 불러라!》

달려들려던 메돼지는 흠칫하여 뒤로 물러섰다.

《의사를 불러라! 정치범을 학대하는 악질간수놈을 타도하라!》

구호소리가 다시 터져올랐다. 그러자 간수놈들이 여기저기서 총을 꼬나잡고 밀려들었다.

《뭐야,뭐야!》 칼자루를 움켜잡은 간수부장놈이 팔자수염을 쭝긋거리며 달려오더니 이 방 저 방 눈을 부릅뜨고 들여다보며 소리쳤다. 그러나 함성은 그치지 않았다. 《의사를 불러라. 악질간수놈을 배격한다!》

유철은 전옥에게 불려갔다. 전옥은 유철의 말을 듣더니 로골적으로 불쾌해하는 빛을 보이면서도 담배를 권하였다.

《그 간수는 매우 충직한 사람이요. 다만 좀 무식해서 시대의 변천을 잘 모른단말이요. 내가 간수들에게 삼민주의를 매일같이 해설해주지만 그들은 그것을 잘 리해하지 못하오.》

전옥은 자기가 시대에 민감한것과 삼민주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한후 안락의자등받이에 길게 몸을 뉘우며 후—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술병은 청할수 없어도 몸이 아플 때 의사는 청할수 있어야 참다운 삼민주의라고 할것이 아닙니까? 나는 전옥이 삼민주의를 가지고 지도하는 이 감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소. 난 그자에게 징벌을 주겠소. 한데 요즘 세상이야기를 좀 들어봤소?》

《난 감옥에 갇힌 몸인데 어떻게 바깥세상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그건 날 속이는 소리요. 내가 이 감옥에서 일한지 벌써 4～5년되는데 그동안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을 만나봤소. 그들은 감옥담벽에다 요지경을 해붙이기라도 하는지 언제나 바깥세상을 다 내다보고 제하고싶은 일은 다 한단말이요. 몇달전에만 해도 이 감옥에 한 공산

주의자가 들어와있었소. 그는 이 길림지구일대의 청년학생운동을 지도한 인물인데 이 감옥에서 수많은 내 부하간수들을 공산주의동정자로 만들어버렸소.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는 언제나 바깥세상형편을 제 손바닥을 보는것처럼 환히 꿰뚫고있더라는것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불과 19세의 젊은 사람이라니 참 나도 놀라지 않을수 없소.》

《그건 누구 이야깁니까?》 유철은 흥분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또 당신은 나를 속이려 하는군. 당신이 이 길림일대를 선풍속에 몰아넣은 조선의 혁명가 **김일성**을 모른다니 말이 되오? 우리가 알기에는 그는 당신들의 운동을 지도하는분일텐데…》

《**김일성**!》 유철은 조용히 그 이름을 받아외웠다. 틀림없이 그 이름이다. 서대문에서부터 알아내자고 애쓰다가 길림까지 찾아왔었건만 종내 뜻을 이루지 못한 바로 그 지도자의 이름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마침내 알아낸 오늘 그는 또다시 감옥에 갇혀있는것이다.

《하여간》 전옥은 자기가 공산주의 내막을 환히 꿰뚫고있다는것을 충분히 납득시켰다고 생각했는지 흡족해서 말을 이었다.

《우리는 마지못해 당신들을 이렇게 감금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즉 일본인들이 만주로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고있지는 않다는것을 리해해야 할것이요.》

유철은 그의 말에서 일제의 만주침략이 이제는 이런 어리석은 전옥따위까지도 깨달을만큼 현실적으로 박두하였다는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문에 많은 관공리들과 군대, 경찰에서도 일정한 동요를 일으키고있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오늘 전옥의 태도가 이처럼 부드럽고 또 허심한것 역시 그런 사정의 반영이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안타까운중에도 유철의 마음을 기쁘게 한것은 **김일성**동지의 이름을 알게 된것이였다.

×

메돼지는 갈려갔다. 그러나 다음에 온 간수놈은 메돼지보다 결코 헐한놈이 아니였다. 얼굴이 뾰족하고 창백한 이놈은 삵처럼 담벽에 살살 붙어서 복도를 지나다가 감방에서 조금만 이상한 눈치가 보여도 바싹 귀를 갖다붙이고 한시간이든 두시간이든 움직이지 않는 지독한 놈이였다. 그러나 그는 단지 그렇게 모든 수인의 동정을 파고들고

밝힐뿐 그것을 가지고 메돼지처럼 우둔하게 소동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이놈도 눈치가 멀쩡한놈인데다 필시 전옥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고 온것이 틀림없었다.
어느날 산보시간에 마당에 나갔다가 뜻밖에도 김기창을 만났다. 어제 병감에서 이리로 넘어왔는데 부상은 그럭저럭 나았다는것이다. 병이 나았다는것이 사람은 더 못쓰게 되여 가뜩이나 갱핏하게 생긴 사람이 온통 뼈만 남은것 같았다. 낯색도 펴지 못하여 창백하다 못해 검은 그림자가 얼굴에 꽉 덮여있었다.
《만주는 다 먹힌거나 다름없어요.》
김기창은 높은 감옥담벽을 향해 마치 해라도 구경하는듯한 양을 하면서 수군거렸다.
《왜놈군대가 봉천이랑 대련에는 우글우글한다는군요. 그래도 이놈들은 문을 활짝 열고 도적을 맞아들이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원래 반동이란 그런것이요.》 유철은 반대쪽 우중충한 재빛 감방을 향해 팔다리를 놀리면서 낮게 응대했다.
《그래도 우리 조선에서는 잘 싸우고있어요. 정초에는 함흥에서 대파업이 있었고 광주랑 청진에서도 크게 싸움이 벌어졌대요. 금년 5.1절은 굉장했다는군요. 원산, 마산 이런데서 한꺼번에 투쟁이 벌어지고 농민들도 용감하게 투쟁에 떨쳐나섰대요. 룡천 불이농장에서도 그렇고 단천에서는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답니다. 그런데 지금 평양에서는 고무공장로동자들이 한창 파업을 벌리고있답니다.》
《문제는 옳은 로선과 지도를 보장하는데 있소. 우리 조선혁명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요.》
유철은 뿌연 하늘을 우러러 오래동안 가슴에 서리고 맺혔던 번뇌를 내뿜듯 한숨소리와 함께 중얼거렸다.
《참 옳은 말이예요.》 김기창은 유철의 울적한 마음에 전염되듯 그 역시 하늘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왜놈들은 지금같이 날백정질을 하는것도 성차지 않아 쩍하면 정변이요, 테로요 하면서 파쑈분자들이 미쳐날뛴다는데 이러다가는 필경 우리 조국은 피바다에 잠기고말거예요. 만주까지 먹히는 날이면 조선혁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게말이요. 모든 투쟁을 한손에 틀어쥐고 힘차게 끌고 나갈 지도자가 지금이야말로 나타나야 할 땐데—》
유철은 공기부족과 저기압에 시달리면서 마음속으로 맑고 시원한

바람을 그리워하였다. 그리고 언제나 시원치 못한 전망을 보고 온 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열어줄 그러한 지도자를 공상을 즐기는 소년처럼 머리속에 그렸다. 뜻있는 모든 사람들이 투쟁을 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반대하고 누군가를 때려부셔야 한다고는 소리치지만 정작 그 투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 모든 투쟁이 일매지게 모여서 웨치고 우르르 밀려가게 마련인데 장한 기세와 고귀한 희생을 바치고 얻어내는것은 항상 기대와는 엄청나게 거리가 먼 자그마한 승리와 너무나 큰 피해였다. 조선혁명가들의 무수한 피로 얻어낸 교훈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그 교훈과 경험들은 정확하게 총화되지 못하고 똑같은 운동이 똑같은 과정을 밟으며 되풀이되고있는것이다.

사람들가운데서도 가장 뛰여난 사람들인 혁명가들이 어찌 똑같은 돌에 매번 넘어지는 어리석은 노릇을 거듭할수 있는가? 그러나 슬프게도 조선의 혁명은 막막한 어둠속을 헤매다보니 언제나 똑같은 길목에서 똑같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비칠거리는것이 아닌가? 조선의 민중은 과연 용감하지 않았는가? 원산에서도 신흥에서도 영흥에서도 모두 조국의 독립과 계급적해방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조국의 발목에 감긴 철쇄는 더욱더 살속 깊이 먹어들어가고 우수한 조국의 아들딸들은 단두대의 이슬로, 철창속의 한스러운 넋으로 사라졌다.

새색시에게 입힐 치마 한감을 벌기 위해 한겨울을 목재판에서 일했다는 최갑룡이가 무엇때문에 안해를 데려다놓은지 사흘도 못되여 원쑤들의 흉탄에 쓰러졌는가? 그는 그렇게도 별러오던 잔치도 집어치우고 조선프로레타리아혁명의 전렬에 서서 씩씩하게 나아갔다. 그는 영웅적으로 자기의 순결한 피를 조국과 계급을 위하여 바쳤건만 그 보람은 없다. 오히려 그가 그토록 열망하던 혁명은 멀리 후퇴하였다.

이것이 무엇때문인가? 이 엄청난 배신적인 결과는 무엇때문에 초래된것인가?

유철은 가슴을 갈가리 찢어내고싶도록 속이 답답하여 수인복 앞자락을 쥐여뜯으며 얼없이 중얼거리는것이였다.

(길이 없다. 조선의 민중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억세게 걸어나갈 길이 없다. 우리는 지금껏 헛된 길을 헤매여왔다.)

천장을 우러러 조국의 전도를 생각하고 친근한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면 저도모르는 사이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볼을 타고 내렸다.

앙증스럽게 혁명가를 부르던 딸의 모습 그리고 버들숲에서 어깨를 떨던 안해의 모습이 처절한 회환이 되여 파리똥과 거미줄이 더덕더덕한 낮은 천장우에 겹치고 덧쌓였다.

우울한 나날은 흘러갔다.

며칠후 유철은 다시 산보시간에 김기창을 만났다. 다행히 이날 수인들을 데리고 나온 간수들은 모두 순한축들이였다. 기창은 슬쩍 유철을 전번에 말을 나누던 그 담벽밑으로 불렀다.

《**김일성**동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일성**동지? 들었소. 그런데 기창동무는 어떻게 아오!》

유철은 한순간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것 같은 흥분을 느끼며 약간 더듬거리며 물었다.

《나도 들었어요. 이 길림에서 청년학생운동을 지도하시던분이라는데 2년전에 세상을 들썩하게 한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도 그분이 지도하신거라는군요.》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소식은 나도 서대문에서 들었소. 그런데 내가 듣기엔 그분이 불과 열아홉살의 청년이라는데 그러니 그 투쟁을 지도한것이 겨우 열일곱살 났을 때의 일이 아니요?》

《그렇지요. 나하구 한방에 그분의 지도를 받던 사람이 한사람 들어왔어요. 그분은 여기서 석방되자 곧 농촌으로 나가셨다는군요. 장춘, 길림 부근 농촌에는 그분이 지도하는 조직이 꽉 뿌리가 박혀있대요. 그 공작원은 돈화에서 일을 보다가 무기를 나르던것이 들켜 들어온 모양인데 참 굉장한 혁명가거던요. 그런 사람을 지도하는 지도자라는데 그렇게 젊은분이라니 정말 놀랍군요.》

유철은 전옥의 말을 상기하였다. 《당신이 이 길림일대를 선풍속에 몰아넣은 조선의 혁명가 **김일성**을 모른다니 말이 되오? 우리가 알기에는 그는 당신들의 운동을 지도하는분일텐데…》

머리속이 웅웅거렸다. 이곳으로 말하면 보통 도시가 아니다. 여기에 정의부를 비롯한 독립군의 거두들이 틀고있었고 《상해림정》에서도 직접 거물들이 손을 뻗쳤으며 《화요》며 《엠엘》의 한다하는 이른바 《지도자》급 인물들이 자기 지반을 닦으려고 갖은 계략을 다 부리던곳이다. 대륙에서의 사상운동과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이 고도에서 뭇사조의 거물들을 누르고 사람들의 주목을 일신에 집중시켜 시대변천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른분은 과연 어떤분이실가? 아무리 반동

의 말이라지만 자청해서 하는 그 말을 덮어놓고 부정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그무렵 자기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분이 관계했던 그 투쟁소식은 서대문까지 들썩하게 만들었었다. 그때 벌써 조선혁명의 새로운 지도력량이 태여났다는 말이 돌지 않았던가? 사실 조선의 혁명가로서 그처럼 확고한 지도적권위를 일반군중속에 가지고있었던 사람은 없었다. 《지도자》노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마음속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처럼 우러러 받드는 **김일성**동지는 과연 어떤분일가?

김기창은 간수들의 눈치를 흘끔흘끔 살피며 재빨리 말했다.

《그분이 농촌에서 공작을 하시던 이야기를 몇번 들었는데 그건 벌써 보통사람은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기틀이 있거던요. 벌써 공작원을 한두사람 미리 박아놓고는 군중단체를 조직하고…》

너무 이야기가 오래 끈다고 봤던지 간수가 총을 둘러메고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두사람은 각기 돌아서서 부지런히 심호흡을 하면서 팔다리를 놀렸다.

《무슨 말이 많은가?》 간수는 다른 간수놈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말하고는 지나가버렸다.

《저 간수도 그분께서 교양했다는군요.》 간수가 저만큼 사라지자 기창은 아무 념려 없다는듯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공작원은 외부와 련계를 가지고있어요. 우리 사건을 이야기했더니 혀를 차지 않아요. 우선 군중적지반을 닦고 광범한 반일세력을 묶어세워야 하겠는데 단결할수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적편으로 밀어넣었다는거지요. 그리고 투쟁을 통해서 혁명력량을 키우는것은 좋지만 아무런 군중적지반도 없고 준비도 없이 몇몇 사람끼리 폭동을 한다는것은 혁명의 전략전술이 아니라는거예요. 박병섭로인과 안골농민들에 대한 태도는 근본적으로 조선혁명의 동력과 대상을 모르고 그 특성을 모르는데서 초래된 좌경적과오라고 말하면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이룩하자면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전취하여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군요.》

《그게 그 공작원동무의 말이요?》

유철은 눈앞에 자욱하던 안개가 확 개여 흐리마리하던 사물의 륜곽이 뚜렷해지는듯한 거뜬함을 일시에 느끼며 흥분하여 물었다. 다른 간수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기창은 아닌보살하고 저쪽 담벽을

향해 돌아서며 낮게 말했다.

《이야기를 듣고보니 너무나 당연한듯한데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가요? 내가 유철동지 이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혁명에 충실하려 해도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을 모르고 진정한 혁명의 수령의 령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별수없이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군요. 그런데 아마 우리들 이야기도 그 공작원동무가 바깥조직으로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게 어제 바깥에서 련락을 받고나서 적들이 정치범들을 학살하기 위해 어떤 흉모를 꾸밀지 모르니 경각성을 높이라고 나한테 말하고 또 유철동지에게도 전하라고 하지요.》

《그 공작원이 나에 대한 이야기도 하더란말이요?》

《처음엔 심상히 들었는데 어제 바깥에서 련락을 받고는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캐묻더군요.》

유철은 심장이 쿵쿵 뛰였다. 이 감옥속에도 강력한 외부의 혁명조직과 련결된 선이 있고 그 선끝에 자기도 이어져있다는 생각이 들자 어쩐지 막막하기만 하던 눈앞이 열리는듯하였다.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어쨌든 조직의 관심하에 살고있다는 이 자각이 자기로 하여금 이 생활이 멎어버린 감옥속에서도 떳떳하게 살수 있는 마음의 기둥이라고 생각되였다. 더구나 낯모르는 그 공작원의 말은 얼마나 정확하고 확신에 차있는가? 그것이 비록 자신의 과오에 대한 뼈아픈 비판이기는 하였지만 눈앞에 안개가 뽀얗게 끼여 도랑창을 마구 건느고있을 때 꾸짖으면서라도 눈앞의 안개를 헤쳐주고 발밑에 있는 무시무시한 심연을 똑바로 바라볼수 있게 해준것과 같아 고마운 마음이 앞섰다.

물론 유철의 가슴에서는 자기의 무능과 잘못으로 해서 백리허의 혁명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나 스스로의 무익한 몸부림에 대해서 뉘우침과 부끄러움을 함께 느꼈다. 그러나 자기가 몇날 몇밤, 아니 몇달 몇해를 두고 더듬고 생각하고 찾아헤매여도 찾지 못하던 그 길과 해답을 감옥담벽속에 앉아 몇마디 말을 전해듣고 제꺽 문제의 본질을 밝혀내는 그 공작원이라는 사람이 놀라왔다. 그리고 그러한 공작원을 가르치시고 키워내신 **김일성**이라는분에 대한 경탄의 정이 몇갑절 더 컸다.

《대체 그 공작원동무는 뭘하던 사람이요?》

《뭐 나같이 농사짓다가 목재판에서도 일하고 나중엔 할바령근방의 철도공사장에서 막벌이로동을 했다는군요. 자기도 **김일성**동지를 만나뵙기전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고 하면서

나를 위로까지 해요. 젊은 사람인데 벌써 통이 커요. 이번 사건도 저놈들이 떠드는것을 보면 규모가 요란한데 그 동무는 그저 태평이지요. 자기는 무기상의 점원으로 심부름을 했을뿐이라고 넵다 우기고 3년징역을 받았는데 3년씩 감옥에 있다가 혁명을 언제 하겠느냐고 웃지 않아요. 바깥에서 석방공작을 하는지 아니면 탈옥할 생각인지 도무지 대중할수가 없어요.》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그러나 산보시간은 제한되여있었다. 간수놈들이 호각을 불고 집합구령을 치자 유철은 아쉬움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기창동무, 좋은 소식 들려주어서 고맙소. 그런데 내 한가지 부탁이 있소. 그 공작원동무에게 어떻게 하면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올수 있겠는지 그것을 꼭 좀 알아다주오. 하기는 내가 무기징역이니까 언제 나가겠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러나 꼭 알아다주오.》

유철은 자기 감방에 돌아왔으나 도무지 한자리에 앉아있을수가 없어 그냥 감방안을 거닐었다.

김일성동지는 어떤분이실가? 무엇때문에 전옥이 그러한 말을 했을가? 혁명에서 지도자를 만나뵙는다는것이 이처럼 중대하고 이처럼 힘드는 일인가?

의문은 끝이 없었다. 밤이 깊어서야 유철은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조선의 공산주의운동은 새로운 단계, 발랄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롭고 힘찬 그러한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세대, 앞선 시기와 본질적으로 다른 참으로 혁명적인 세대가 력사무대에 진출하였다. 생각하면 서대문감옥을 나오면서 느낀 첫인상, 군중의 폭동적진출과 앙양되는 혁명적기분에 대답을 줄 진정한 혁명의 천재, 폭동의 예술가는 이 새로운 혁명의 세대가운데서 반드시 태여나고야 말것이다. 그것은 엄숙한 력사의 요구이며 절박한 시대의 요구이다.

감방안을 홀로 거니는 유철의 심장은 쿵쿵 하고 소리치며 뛰였다.

방안은 여전히 좁고 숨가쁘다. 키가 큰 그에게는 파리찌가 다닥다닥한 천반이 곧장 머리우에 덮씌울것만 같이 낮추 드리워있다. 장마철에 접어들어 담벽은 젖고 손바닥만한 통기창으로는 물안개가 흘러들뿐 시원한 바람 한점 불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어둡고 습기찬 이 감방안에서 유철은 그 어느때에도 느끼지 못한 그런 마음의 시원함과 환한 앞길을 느끼는것이였다.

겹겹하고 자욱하던 안개는 걷히였다. 어수선하게 얼어붙었던 대지는 풀리고 웅송그렸던 만물이 활개치며 머리를 쳐드는것만 같다.

얼마나 밤이 길었던가!

가슴에 쌓인 울분은 어진 마음들을 얼마나 독하게 절구었던가!

그 긴긴 밤을 밀어제끼고 울분의 안개를 헤치면서 해가 솟는다. 바람 거칠던 대지에 동이 튼다. 어둡고 숨막히던 민족수난의 력사우에 조선민족재생의 태양이 솟아오른다.

유철은 걷잡을수 없는 흥분때문에 신접힌 사람처럼 감방안을 맹렬한 기세로 오락가락하였다. 철창을 움켜쥐고 뒤흔들어본다. 행진이라도 하듯 발걸음을 힘껏 내디뎌본다. 그리고 금시 푸르른 하늘이 보이기나 할것처럼 한껏 가슴을 벌리고 키낮은 천장을 올려다보군하였다. 초조할만큼 자유가 그리웠다. 분명 새로운 로선,새로운 지도자는 있다. 조선혁명의 앞길은 열려있다. 그 앞길을 똑바로 바라보며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에 불타서 힘차게 전진하는 새로운 조선공산주의의 세대가 있다. 억세고 슬기롭고 생기발랄한 혁명의 조직이 싸우고있고 그 조직이 나까지도 포함한 조선의 2,000만 민중을 날날이 살피고있다. 이 감방에도 그런 조직과 련결된 공작원이 있다. 이것은 현실이다. 이것은 엄연한 조선의 현실이다.

한시빨리 달려나가고싶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김일성**동지를 만나뵙고싶었다. 자기가 걸어온 길,자기가 안타까와하던 모든 문제를 내놓고 그분의 령도를 받고 조선혁명에 대한 그분의 구상을 듣고싶었다.

그날도 그 이튿날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엇때문인지 김기창은 이튿날부터 산보에 나오지 않았다. 남동에서 탈옥사건이 있었다는 간수들의 쑥덕거림을 듣자 유철의 가슴은 옥죄여들었다. 혹시 그 공작원이 빠져나간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첩경 먼저 떠올랐다. 한사람의 혁명동지가 탈옥에 성공했다는것은 물론 기쁜 일이였다. 그러나 수많은 의문과 기대,희망과 동경을 안겨준 그 공작원이 일순에 사라져버렸다면—하고 생각하니 한가닥 섭섭한 정이 가슴속을 파고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이러나저러나 기창이를 한시바삐 만나 진상을 알아보고싶었으나 탈옥사건때문인지 그쪽 동에서는 일체 산보를 금지해버렸다.

유철은 기대와 불안으로 설레이는 가슴을 달래며 매일같이 키낮은 감방안을 끝없이 오락가락 거닐었다.

11

만보산사건의 경과를 살피기 위하여 현지에 나갔던 노무라 다이사꾸가 심양에 돌아와서 조카를 만나려고 사령부에 전화를 걸었더니 고지로는 려순으로 출장을 가서 며칠후에야 돌아온다는것이였다. 다이사꾸는 조급해지는 마음을 억지로 달래며 려관에서 며칠동안 술을 퍼먹었다. 만보산사건은 기가 막히게 꾸며지기는 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만주에서 전반적인 군사행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제는 하찮은 구실을 하나 만들면 된다는것을 조카로부터 들었을 때 다이사꾸의 머리에 먼저 떠오른것이 장춘 북쪽 한 80리 되는곳에 있는 조선사람들의 수전공사였다. 작년부터 중국인지주를 통해 땅을 빌릴 교섭을 해오던 만보산의 조선농민들이 마침내 이 교섭에서 성공하여 금년 3월부터 이통하에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수로공사를 하고있었다. 거기에는 약 200명의 조선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리용하면 적당한 사건을 만들어낼수 있을것이였다. 그리하여 장춘령사관을 통하여 조선농민들의 수전공사를 《협조》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이 취해졌다. 자금융자가 주어지고 갑자기 측량기사가 파견되여 이왕 하고있던 20리 가까이나 되는 수로를 15리로 줄여놓았다.

그대신 중국인민들의 논밭은 수다히 짓밟혀졌다.

일본수비대놈들이 나타나서 중국토착민들을 횡포하게 두들기고 패고 밭을 짓밟으면서 그것이 모두 조선농민의 진정에 의하여 진행하는것이며 조선농민들의 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듯이 묘사하였다. 도발은 즉시에 효과를 나타내였다. 5월말에 장춘공안국은 경찰을 파견하여 공사를 당장 중단시키고 조선농민들에게 전부 만보산에서 떠나갈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항거하는 조선인 9명을 체포하였다.

기회는 더없이 좋았다. 장춘령사놈은 장춘시장에게 항의를 제출하고 조선농민들을 부추겨 완강하게 뻗치도록 사촉하였다. 아니나다를가 중국농민들은 자기들을 못살게 구는것이 눈앞에 보이는 조선사람인줄로만 알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지어 이미 파놓은 수로를 파괴하고 대포를 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에 일제의 군부와 재벌은 조

선과 일본, 만주에 있는 선전기관을 몽땅 떨어내여 조선인민과 중국인민간의 감정을 극도로 날카롭게 만드는 맹렬한 선전깜빠니야를 벌렸다.
노무라란놈은 현지에서 직접 감정을 격화시키는 한편 거사의 때를 엿보기 위하여 현지에 갔었다. 그러나 거사가 있기전에 조선에서 사건이 먼저 벌어졌으며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을 간파한 조선과 중국 인민들의 규탄의 목소리가 각 방면에서 울려퍼졌다. 불길은 꺼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미 관동군이 손을 쓸 아무런 구실도 찾아낼수 없게 되였다.
돌아오는길에 장춘에 들려 떨떨하게 군다는 왕청같은 역정을 령사놈에게 퍼붓고나서 도대체 우리가 실력으로 만몽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이런 조작이 필요할것인가 하는 강개한 심정을 품고 심양으로 돌아온것이였다.
만주를 일본이 삼킬것이라는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세계정계에 다 알려져있고 렬강들도 이에 대해 특별한 의심도 이의도 없는 눈치가 분명하지 않은가? 특히 미국인들은 중국을 만주와 양자강 이북, 양자강 이남의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독립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은근히 그중 하나를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눈치를 보이고있다. 일은 서둘러야 한다. 얼른 조카를 만나 이런 자기의 신념을 내놓고 필요하다면 관동군내의 늙다리우두머리들에게 압력이라도 가해야겠다고 벼르고있었다. 그런데 와보니 조카는 없고 자세히 알아보아야 관동군의 실권을 틀어쥐고있는 참모들은 누구나 바삐 돌아치는데 도무지 조용히 만날 시간을 탈수 없었다. 조카인 노무라 고지로는 자기를 만나기전에 일체 다른 사람과 련계를 가지지 말것과 이번 려행은 그자체를 비밀에 붙여야 한다는것을 신신당부하였었다.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도 전 동양을 뒤흔들어놓은 이번 사건에 자기자신이나 혹은 《흑룡강동지회》가 껴들어있고 나아가서 관동군의 입김도 닿아있다는것이 드러나면 앞으로의 일을 위해 큰 장애를 빚어낼수도 있을것이였다. 이래저래 함부로 나다니지도 못하고 넓다란 려관방에 홀로 틀고앉아 술병만 기울이고있자니 속이 괴여올랐다. 너무나 클클하여 반반한 계집들을 몇몇 불러 소리도 시켜보고 스스로 지팽이자루속에 든 칼을 뽑아 칼춤도 추어보았지만 그것으로 온몸에 끓어넘치는 검은 피가 수그러들지는 않았다.
때는 벌써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가을바람이 불어 거리의 가로수들은 황이 들어갔다. 며칠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낸 다이사꾸는 알수없

는 울분에 시달리다 못해 황토먼지 뒤덮인 대륙을 마구 끌고 다닌 그 유난스런 게다를 신고 칼자루지팽이를 움켜쥐고 문득 거리로 뛰여나왔다. 이때 려관접대부가 딸딸 조리를 끌며 급히 뒤따라왔다.

《노무라나으리, 저 참모나으리께서 전화예요. 어서 돌아오셔서 전화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집은 숨을 할딱거리며 마치 큰 죄나 지은듯이 한광주리 틀어올린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빌어먹을 자식, 이제야 왔어! 어디 보자!》

고지로는 전화에서도 알려질만큼 랭랭한 어조로 춘일정의 일본료정 《백란》으로 오라는 말을 하였다. 사람을 꺼려선지 틀을 차려선지 마치 제 아재비가 아니라 무슨 심부름군에게나 분부하는 어투였다. 대체로 현재 현역에서 실권을 쥐고있는 좌관급들을 자기의 대를 이을 계승자쯤으로 알고있는 다이사꾸는 엊그제까지 위관으로 있다가 자기 힘도 적잖이 입어서 오늘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조카녀석의 그런 거만한 태도가 얼핏 괘씸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 이미 고인이 된 다나까대장의 만몽제패에 대한 구상이 그들 젊은 장교에 의해 구현되고있다고 생각할 때 그 중심인물의 하나인 조카의 그러한 자신심과 도담한 행동거지가 기특하기도 하였다.

인력거가 순수 일본식으로 꾸린 료정 《백란》의 현관에 닿자 큼직하게 점호가 쓰인 초롱을 든 작부가 기다리고있다가 안으로 안내했다. 현관 한옆에 번쩍거리는 쎄단 한대가 서있었다. 현관마루에 료정의 안주인과 청지기 그리고 작부들이 한줄로 무릎을 꿇고앉아 머리를 조아리고있었다.

다이사꾸는 이미 《백란》에 몇번 출입한적이 있는지라 그것이 별로 유난스레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역시 이러한 료정에서 《야마도 다마시이》를 주입받은 호걸답게 칼자루지팽이를 두손으로 짚고 현관바닥에 서서 사열이나 하듯 죽 훑어보았다.

《하하하.》 함지박같은 배를 한바탕 뒤흔들며 호걸웃음을 터뜨린 다이사꾸는 불쑥 진한 화장을 한 한 계집의 볼을 칼자루지팽이끝으로 다독다독 두들겼다.

《모두 잘 있었나, 응? 하하하, 점점 예뻐지는구나 응? 하하하.》

《황송하옵니다, 나으리.》

애되게 생긴 계집은 몸둘바를 모르고 바들바들 떨면서도 교태를 부

리며 웃음을 지었다.

《참,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나으리께서 왕림하시지 않으니 저희 집은 정말 빈집 같이 적적했습니다.》

볼이 축 처진 뚱뚱한 안주인이 눈밑에 조그만 물주머니라도 매달린듯한 불룩한 눈시울을 떨며 징그러울만큼 끈적끈적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 말아, 네년은 참말을 하면 배가 아프다는 족속이 아닌가? 하하하, 좋다, 좋다. 그래 누가 와있나?》

《네, 저 국화꽃간에 가와아이나으리께서 기다리고계시옵니다.》

《뭐, 가와아이가?》

하고 다이사꾸는 피뜩 현관의 쎄단을 돌아보며 덧붙여물었다.

《우리 고지로도 같이 있는가?》

《저 주임참모나으리께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주인은 계속 교태를 만면에 지으며 말했다.

《가와아이가 와있다? 하하하, 좋다. 그리로 가자.》

국화꽃간은 벚꽃간, 란초간 등 각색 꽃이름을 붙인 방들을 거쳐 긴 복도가 끝나고 다시 조그마한 정원을 건너 따로 떨어져있는, 《백란》에서는 국빈급의 손님들에게나 빌리는 그중 안침지고 또한 호화로운 방이였다.

만철 리사 가와아이는 다부진 몸에 딱 맞는 양복을 입고 비스듬히 안석에 기대여있었다. 주홍칠을 한 넓고 두터운 교자상우에는 차잔이 댕그렇게 놓여있는데 《백란》의 명물인 남경명차의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오, 노무라군, 오래간만일세.》

담배를 피우고있던 가와아이는 슬그머니 상반신을 일으키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안내해온 작부가 복도에 무릎을 꿇자 가와아이는 이미 솔발모양으로 교자상둘레에 놓여진 방석을 노무라에게 권하며 가볍게 눈짓을 하였다.

《네.》

계집은 흰 목덜미가 드러나도록 깊숙이 머리를 숙이고 소리없이 일어나 사라졌다.

《하하하, 왕년에 장작림을 단숨에 요정내던 관동군의 호걸이 오늘은 만철의 반또라니 거치른 옛성터에서 영웅을 사모하는 마음이 새롭네그려. 그래 거 무슨 수지타산이라는것이 괜찮은가? 들으니 실업계는 전대미문의 불경기라는데…》

노무라는 자기 자리라고 짐작되는 맨 구석 상좌의 방석에 털썩 주저

앉으며 말했다.

《참새,제비의 무리 어찌 대붕의 뜻을 알리오. 자네가 비록 분주히 만주벌판을 쏘아다니지만 제국의 륭성을 위해 거두어들이는것은 참으로 새발의 피만도 못하니 이것이 오히려 통탄할 일이 아닌가? 하하하.》

두사람이 이렇듯 껄껄거리며 웃고있을 때 아까 왔던 작부가 교자상우에 놓인것과 똑같은 차잔을 들고 왔다.

계집이 차잔을 놓고 나가자 바깥에서 승용차 멎는 소리가 나더니 군복을 입고 정장을 한 고지로가 안주인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왔다. 다이사꾸는 조카가 그렇게 번쩍거리는 훈장들과 누런 수실을 드리운것을 본적이 없는지라 료정출입을 하면서 유난히 요란하게 차린데 대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고지로가 흰 장갑을 벗으며 안주인에게 눈짓을 하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집은 소리없이 사라졌다. 고지로는 그제야 제자리에 앉으며 《아저씨, 수고했습니다. 돌아오셨다는 말은 들었지만 일이 바빠서 인차 오지 못했습니다.》

하고 정중하고 그만큼 랭정한 투로 말했다. 다이사꾸는 왜 그런지 여기가 질려 퉁방울눈을 부릅뜨고 조카의 기분나쁠만큼 새하얀 백자기같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장춘령사에게 여러 말씀 하신 모양인데 국책에 관계되는 말씀은 앞으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 군부는 시데하라(당시의 일본외무대신)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을 터놓는것을 좋은 계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뭐 깊이 이야기한것이야 있나? 나도 시데하라란자는 마음에 들지 않고 더구나 그자의 〈명랑외교〉니 〈협조외교〉니 하는것은 시라소니 수작이라 늘 가래침을 뱉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미 고지로는 그의 말을 듣고있지 않았다.

《이렇게 맨숭맨숭하게 앉아있으면 수상하게 보이지 않을가요?》

고지로는 가와아이를 보고 물었다.

《료정에 온것만큼 형식적이라도 뭔가 좀 차려야 자연스럽겠지.》

가와아이는 안석에 다시 기대며 간단히 대답했다.

고지로는 손벽을 딱딱 쳤다. 그러자 인차 복도가 알릴듯말듯 울리더니 해사한 얼굴을 한 계집이 무릎을 꿇고 미닫이를 열었다.

《부르셨습니까?》

고지로는 잠시 계집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친절한 어조로 말했다.
《안주인에게 차를 가지고 좀 오라고 말해라.》
《분부대로 아뢰겠습니다.》
젊은 작부는 꺼져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미닫이를 닫았다. 이윽고 복도가 다시금 천천히 울렸다. 미닫이가 가볍게 열리더니 안주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눈을 치뜨고 방안공기를 살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손님들을 얼마나 받았느냐?》
고지로는 차겁게 물었다.
《저, 받지 말라고 말씀이 계셔서…》
안주인은 고지로의 말투에서 벌써 위협을 느꼈는지 겁에 질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무엇때문에 시키는대로 안하느냐? 〈백란〉의 안주인이 그렇게 도고한가?》
《…》
안주인은 그 잘 짓던 웃음도 못떠우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푹 숙였다.
《이제 그 계집은 무엇인가?》
《네, 제 양딸인데 믿을수 있는 아이기때문에…》
《난 믿을수 없다. 차를 놓고 나가서 간단한 술상을 차려라.》
고지로의 말투는 안주인을 떨게 했을뿐아니라 다이사꾸까지도 떠끔하게 만들었다.
《하하하, 안주인이 나이 들더니 점점 지혜가 무디여지는 모양이군.》
다이사꾸는 분위기를 눅쳐보려고 한마디 너스레를 떨어보았으나 아무 보람이 없었다. 안주인은 나가서 손수 료리들을 날라오기 시작했다.
《얘— 고지로—》
다이사꾸는 술잔을 먼저 들려다가 랭랭한 두사람의 표정이 마음에 걸려 차만 한잔 기울이고 개탄조로 말했다.
《난 대체 요즘 청년들이 일하는 본때가 마음에 들지 않어. 무엇때문에 그리 잔재간을 피우려드는지 모르겠거던. 장부의 사업에서는 그런 롱간이 자고로 없는 법이다. 우리 현양사(玄洋社)에서는 뜻과 기개가 장하면 그만이지 아녀자처럼 무슨 속임수를 꾸며내는것은 장부의 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만보산사건만 해도…》

《만보산이야기는 꺼내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고지로는 다시 다이사꾸와 가와아이의 차잔을 채우며 말했다.

《지난 3월에 〈사꾸라회〉(櫻會)에서 망친 〈3월사건〉실패의 요인이 그런 우둔한 생각의 산물입니다. 현양사로 말해도 우찌다상 같은분들까지 만일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우리는 조선인들속에서 〈일진회〉를 만들지 못했을것이고 따라서 많은 친일세력과 일본의 아시아주의정책에 대한 지지자를 구하지 못했을것이며 따라서 제국은 아직도 조선을 삼키지 못하고 자뜨라운 섬우에서 안타까이 대륙을 건너다보고만 있었을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풍쟁이들이 많던 현양사에서 우찌다상 같은분이 중진으로 틀고있었다는것은 제국을 위해서 커다란 복이였다고 말할수 있지요. 장부의 뜻과 기개는 허황한 고담준론이 아니라 착실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고지로는 차잔을 들어 가볍게 입술에 갖다댔다가 놓았다.

《대체로 너희들의 말은 무엇때문에 그리 까다로운지 모르겠다. 요즘 제국장교들은 통털어 궤변은 많이 늘어놓고 실천은 적게 한다. 이것은 무사도가 점차 쇠퇴하는 징조이다. 〈3월사건〉으로 말하면 그런 궤변을 적게 말했기때문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말했기때문에 탄로가 된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거기에 우가끼같은 로마를 끌어댄것이다. 만일에 더 좀 손탁 센 령감을 끌어냈더면 일이 달리 될수도 있었다. 지금 그 〈3월사건〉에 관계했던 장교들이 내 밑에도 적잖이 와있지만 내가 아는데는 실정이 그렇다.》

《3월쿠데타 참가자들을 아무 징벌 없이 그대로 우리 관동군이나 기타 만주의 중요직책에 데리고 오게 한것은, 달리 말하자면 패기에 넘치는 그 젊은 장교들이 〈제국의 생명선〉인 이 만주땅의 가장 중추적인 자리에서 활동하고있다는것은 비록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쿠데타의 정신은 살아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허허허, 숙질간이 무엇때문에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이처럼 싱갱이를 하는지 모르겠군.》

가와아이는 자못 흥미진진하다는듯이 히물히물 웃으며 듣고있다가 불의에 한마디 이렇게 말했다.

《하하하.》

노무라 다이사꾸는 다소 열적은것을 느끼며 두툼하게 감은 왜옷허리띠를 좀 끄르고나서 말했다.

《이놈이 내가 만보산에 가서 일을 잘못했다고 역정을 내는 모양인데 그게 틀려먹었단말이거던.》

고지로도 비로소 계집 같이 얇고 붉은 입술을 약간 벌리고 웃는척하였다. 그러나 분위기는 무엇때문엔지 풀어지지 않았다. 무르익은 가을, 쌀쌀한 대륙의 밤바람이 어디선가 애잔한 호궁소리를 싣고왔다. 《이럴바에는》 가와아이는 이미 세상만사에 초탈한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다.

《계집들이나 불러서 술이나 좀 마셔보지.》

《아니, 일을 먼저 끝내야겠소.》

고지로는 손수건을 꺼내여 찬찬히 입언저리를 훔치더니 정색하고 말했다.

《이번에 우리가 만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사업의 대선배인 가와아이상이나 아저씨와 더불어 좀 의논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자고 한것입니다. 실은 이다가끼나 특무기관장 도히하라와도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참, 이다가끼와 도히하라 량군이 아저씨의 안부를 묻습디다.》

《그래? 그 사람들이 관동군의 꽃이지. 내 일전에 혼죠대장을 만나니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나를 내쫓을 모양 같은데 그런 눈치가 보이지 않던가고 대단히 걱정을 하더군. 너희들도 그 령감을 너무 불안하게 하지 말아라. 그 령감도 다 불쌍한 령감이다. 우가끼도 그렇고 미나미도 그렇고 아라끼도 그렇고 지금 다 늙어빠진 그들에게도 너희들처럼 한때 화려한 대좌시절이 있었느니라. 참, 도히하라군이 나의 계획에 대해 무슨 말이 없더냐?》

《우리 참모부에서는 상강지구에 새 개척구를 만들고 크게 이민기업을 하여 관동군의 식량조달을 하는것도 중요하게 보지만 이민자체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히하라군은 그런 스파이놀음을 좋아하기때문에 기업체로서의 〈간민사〉(墾民社)보다는 재향군인들과 퇴역장교들을 집결시킬 〈흑룡강동지회〉의 활동, 특히 상하강지구에서의 활동에 대해 중요시하더군요. 령감들은 아버지의 돈을 좀 먹었기때문에 이민회사가 좋다고 야단이구요.… 아저씨로서는 간데족족 선화당인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자고 한것은 좀 성격이 다른것입니다. 저와 가와아이상, 이렇게 세사람이서 의논한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래 너희들이 관동군과 만철의 실력자들이라니 내가 이를테면 력사적인물들사이에 끼여있는 셈이군, 하하하.》

다이사꾸는 롱을 섞어 가볍게 말했으나 이런 어마어마한 허두뒤에 올, 고지로가 말하려는 이야기의 내용을 얼핏 머리속에 그려보려고 애썼다. 가와아이가 지금 비록 사복을 입고 만철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 행세는 하고있지만 이왕에 쟁쟁한 관동군의 참모대좌로 3년전에 장작림의 특별렬차에 폭탄을 던져 로도구철교와 함께 만주정세를 한꺼번에 뒤집어놓은 일세의 풍운아인만큼 지금 만주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오느냐, 마느냐 하는 대목에 룩룩히 앉아있을 위인이 아니라는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관동군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역할을 놀고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었다. 요컨대 가와아이도 이미 지나간 세대나 다름없다. 그러니 고지로가 그를 끌어댄것은 단지 만철리사라는 그의 사회적배경과 재력을 빌자는 타산일것이고 만일 일이 잘못됐을 때 정부로부터의 추궁을 다소라도 완화시키자는 술책쯤으로 짐작하였다.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고지로는 은제담배곽에서 권연 한대를 뽑아물고는 성냥을 켜대면서 말했다.

《만약 우리가 만주를 직접 경영하게 된다면 아저씨 생각에 가장 큰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는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야 조선공산주의자들이지. 그걸 몰라서 묻나?》

다이사꾸는 생각해볼것도 없이 대뜸 이렇게 말했다.

《옳습니다.》

고지로는 담배재를 탁탁 털면서 말했다.

《우리가 직접 당하고있고 느끼고있는바이지만 조선은 먹어는 놓았지만 좀처럼 삭이기가 바쁜 거창한 존재입니다. 잘못하면 제국은 조선으로 말미암아 중태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렇게 잘 삭여지지 않고 그냥 살아서 요동치는 조선을 그채로 둔채 우리는 만주를 경영하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만주마저 잘 삭이지 못한다면 조선도 게워야 할것이고 나아가서 제국자체가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할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것도 그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국으로 하여금 걸음마다 그 발목을 잡아매고 속을 비트는 그러한 세력이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존재를 잘 들추어내서 제때에 없애치워야 하는것입니다.》

《네 이야기가 비록 그럴듯하기는 하다마는 그러나 너무 사태를 과장하는것이 아니냐? 만일 관동군이 전반적으로 군사행동을 일으킨

다면 네가 말하는것은 그 다음 문제로 될것이 아니냐?》
《군사행동을 일으켜놓고 비로소 무엇을 할것인가 생각한다는것은 바보나 할 궁냥입니다. 미리 모든것을 타산해서 물샐틈없는 계획을 짜놓아야 합니다. 그래 아저씨는 우리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모종의 중대한 거사를 일으킨 다음에 무엇으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그야 외교방면에서는 국제여론을 수습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만주자체를 삼키고 또 조선을 완전히 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말입니다. …》
《글쎄.》
다이사꾸는 마치 시험이나 치르는 아이처럼 잠시 난처해있다가 여전히 시물시물 웃고있는 가와아이를 보자 이것들이 나를 우습게 아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불끈 화가 치밀었다.
《대체 무엇때문에 나한테 그런것을 묻느냐? 나의 신념은 이미 잘 알려져있고 너도 잘 아는바이다. 나는 제국을 위하여 조선과 만주를 제국의 령토로 만드는것을 나의 필생의 사업으로 알고있다. 그래서 일신의 안락을 다 내던지고 뼈를 깎고 살을 저미며 노력해온 사람이다. 앞으로도 나는 제국이 조선을 아주 삼키고 만주를 새로 얻는데 앞을 막아서는것이 있다면 이 칼로 단칼에 베여던지기를 주저하지 않을것이다.》
다이사꾸는 벽에 세워두었던 칼자루지팽이를 와락 집어들고는 시퍼런 칼을 쑥 뽑아들었다.
《아저씨, 그 장난감은 치우십시오. 우리는 전국시대에 살고있지 않습니다.》
고지로는 랭랭하게 다이사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만일에 우리가 만주를 군사적통제하에 넣었을 때 주민들의 감정을 어떻게 돌려세워야 할것인가, 또 위험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아저씨는 조선사람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까?》
《글쎄, 그야 닥치는대로 잡아죽여야지. 아니, 통털어 조선인들은 다 잡아죽여야 해. 조선인처럼 공산주의자가 많은 민족은 드물어. 공산주의란 다름아닌 가난과 천대의 산물이니 조선사람가운데 많은 공산주의자가 나는것은 당연한 리치다. 나는 모든 조선인들을 잡아치우면 이 시끄러운 문제가 해결될것으로 믿는다.》

《그것도 한 방법인것만은 사실입니다.》
고지로는 가와아이를 피뜩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다. 가와아이는 여태까지 시물시물 웃고있다가 이 대목에 와서 고지로의 시선을 받자 갑자기 상을 찌프렸다.
《허허허.》
가와아이는 어색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자네 생각이 어제까지의 내 생각과 신통히도 같네그려.》
《좋습니다.》
고지로는 다시 신중한 낯빛이 되여 말을 이었다.
《필요하다면 그러한 방법을 채택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우리 계획에 위험을 조성하는 세력을 제거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아저씨의 수법대로 따른다면 우리는 전세계를 원쑤로 만들어버릴것입니다. 그러나 제국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못합니다. 당면해서 필요한것은 우선 우리가 조선사람과 중국사람들을 위한다는것 특히 조선사람을 위한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되 위험한 공산주의세력은 없애치워야 합니다. 아저씨의 생각에는 가장 위험한 세력이 누구라고 봅니까?》
《글쎄 작년에 간도에서 시작되여 온 만주로 퍼져간 폭동은 그 성격이 불과 같아서 장차 이러한 폭동이 일어난다면 위험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내막을 알아보니 꼽을만한 인물은 별로 없는것 같고…》
《작년의 폭동같은것은 위험한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실현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 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집안싸움이였으니까요. 한데 가와아이상은 독립군들도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독립군? 그게 하상 뭐란말인가? 그따위것은 아무 문제가 될것이 없네. 한개 보병중대만 동원해도 잔당을 한그물에 잡아넣을수가 있네. 문제는 역시 공산주의자들인데 그자들은 모두 정체를 감추고 다니니 누가 누군지 알수가 없단말야.》
《재작년에 있었던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화배척투쟁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다뿐인가? 형님도 같이 만주에 왔다가 혼이 나서 돌아갔는데 그것도 이를테면 공산주의자의 지도하에 진행된것인가?》
《아저씨는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가와아이상이 그 지도자에 대한

정보를 령사관 정보계통을 통해 장악하고있습니다. 군보도과에서도 일정한 자료를 쥐고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한자루의 쇠꼬챙이로 만주를 후려칠것처럼 타산하는 허황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닌게아니라》

하고 가와아이가 무겁게 몸을 일으키더니 이야기에 끼여들었다.

《폭탄 하나로 모든것을 끝내려고 들던 때는 지났어. 나는 고지로군으로부터 설명을 받고 또 나자신도 두루 알아봤는데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사실이 한두가지가 아니네. 제국경찰은 이미 조선공산당이라는것을 산산이 헤쳐놓은 경험이 있고 수완이 있네. 그러나 그런 과정에 배우는것은 우리만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야 하네. 최근 군과 령사경찰계통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확실히 조선공산주의운동에는 새로운 경향이 뚜렷이 엿보이네. 그들은 과거처럼 둥둥 떠다니는 부평초가 아니라 민중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있네. 가령 이통이나 장춘일대의 조선인농촌에서 조그마한 삐라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해도 그뒤를 캐여보면 놀랄만큼 깊이 뿌리박힌 공산주의조직이 있고 물샐틈없는 준비공작이 선행된것을 볼수 있네. 이것은 확실히 새로운 지도자가 그들속에 나타난것을 의미하네. 그런데 최근에는 놀랍게도 제국을 반대하는 조선혁명군이라는 군사조직까지 그들속에 박혔다는것이 여러 징조로 보아 확실해졌네. 최근에 와서 도처에서 무기반출사건이 드러나는것도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시켜 보지 않을수 없네.》

《으음, 그러니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동일한 지도자가 서있단말이겠군?》

다이사꾸는 아직도 이야기의 요점을 똑똑히 파악할수가 없어 애매한 질문을 한마디 던졌다. 고지로는 풀썩풀썩 담배만 피우고 가와아이는 다이사꾸의 질문에는 아랑곳 않고 사뭇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물론 현상 그자체도 중시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그 본질을 보는것이네. 다행히 우리 군과 경찰의 조선공산주의운동전문가들은 그리 우둔하지 않네. 그런데 드러난 모든 자료가 한결같이 심상찮은것이란말일세. 가령 길림에서 조선민족주의자들의 통합을 위한 회의가 수삼년에 걸쳐 진행되여왔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것이 몇해전에 〈국민부〉라는것을 만들어냈는데 알고보니 그뒤에도 같은 사람의 영향이 컸던것으로 보고되였네. 그러면 그가 민족주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하면 그런것은 전혀 아니고 전번에 안창호가 길림에 왔을 때 조선독립

의 방책문제를 두고 서면질문을 들이대여 민족주의거두들을 쩔쩔매게 한적도 있고 우둔한 민족주의자들의 완고성과 협애성을 규탄하는 성토문을 발표한적도 있네. 그런데 그가 비단 가난한 민중이나 청년학생들속에서뿐만아니라 이렇게 완매한 민족주의자들속에서까지 절대한 권위와 인기가 있다는것이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이 아닐수 없네. 게다가 그 자신은 벌써부터 큰 도량을 가지고 조선인의 각계각층을 모두 포섭하는 길로 나가고있다는 점이 또한 커다란 시사를 던지고있네. 그러한 징조는 이미 오래전에 나타났던것인데 우리는 미처 몰랐네. 가령 그는 이곳에서 조선의 첫 공청을 조직했는데 그것을 핵으로 해서 그 외곽을 〈반제청년동맹〉이라고 하는 보다 광범한 청년조직으로 둘러싸고 또 그 주변에는 〈조선인류길학우회〉라든가 〈조선인길림소년회〉같은 대부분의 조선인청소년학생들을 망라한 조직으로 둘러싸고있네. 그는 벌써 화전에서는 〈ㅌ. ㄷ〉 말하자면 〈타도제국주의동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무송에서는 〈새날소년동맹〉이라는것을 조직하였는데 이 모든것들이 일매지게 우리 제국을 반대하는데 예봉을 돌리고있고 광범한 반일력량규합을 지향하고있네. 그런데 지금은 제국을 반대하는 군사조직까지 가지게 되였으니 장차 그가 우리 제국앞에 어떤 위험을 조성할는지는 전혀 예측하기 어렵네. 어느모로 보나 잡도리가 단단하고 틀거지가 크네. 대체 우리가 장악한 자료자체가 그가 실지 해놓은 일의 몇분지 일이나 되는지 그것조차 추측할길이 없는 형편일세. 한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의 뛰여난 감화력과 민중속에서의 절대적인 지도적권위, 나아가서는 제국의 아픈 점을 면바로 찌르고나서는 그의 비상한 통찰력과 완강한 활동력이네. 만일에 그의 활동을 제때에 제압하지 않으면 조선공산주의운동은 말할것 없고 조선인들의 이른바 독립운동이 하나로 뭉치고 모든 조선인들이 그를 중심으로 하나의 커다란 세력으로 뭉칠 가능성이 너무나 크네. 자네 2천만을 헤아리는 조선인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자네의 그 칼로 능히 베여던짐즉한가? 그런데 목하 일본을 반대하는 하나의 구호아래 각양각색의 조직과 계층이 뭉치기 시작하는 기운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네. 과연 우리가 우려하는것이 기우라고 할수 있겠나?》

《흐음, 듣고보니 심상찮은 일은 일이군. 한데 그 지도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있나?》

다이사꾸는 차잔을 들어 입술에 댔다놓으며 물었다.

《실은 자네나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 위험을 너무나 늦게 깨달았네. 뒤늦게야 우리 전문가들이 그것을 감촉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았더란말일세. 탐문한바에 의하면 그는 최근까지 길림감옥에 갇혀있었는데 그 우둔한것들이 그만 놓아주었다는군. 이런 통탄할데가 어데 있겠나? 그는 지금 길림을 벗어나 활동무대를 넓은 대륙전반에 뻗치고있네. 만일 그에게 조선과 만주에 수많이 널려있는 공산주의자들과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내맡긴다면 이는 곧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구름을 불러주는 격이 될것이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그를 적극 추격하고 한편으로 날개가 붙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것이네. 노무라군, 자네 여기서 중요한 일을 맡아주어야겠네. 자네는 통이 커서 이런 일은 경시하는 나쁜 버릇이 있는데 이것은 제국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라는것을 명심하고 부디 삼가주기를 바라네.》

《대체 나더러 어찌라는건가? 그래 너희들이 그처럼 벌벌 떠는 그 조선공산주의자의 이름이나 알려주어야 할게 아닌가?》

《이름이 **김일성**이라지만 그것은 크게 믿을것이 못됩니다. 공산주의자란 우리 제국에 호적계를 내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니 오늘의 **김일성**이가 래일 무슨 이름으로 나타날지 알수가 없습니다. 혹 한별이라는 별명을 쓴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제국의 운명 전반과 관련되는만큼 보다 심중한 대책과 론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우선 아저씨는 다른 일을 맡아주십시오.》

조카의 맺고 끊는듯한 말투에 다이사꾸는 저으기 자존심이 상했다.

《너희들이 갑자르기만 하고 말하지 못하는것을 보니 필시 이제 나더러 외양간청소나 시키자는 수작이 아닌지 모르겠다.》

《노무라군.》

가와아이는 정중하게 불렀다.

《자네가 그런 경솔한 태도로 이 일에 접어들었다간 필경 실수하기가 쉬우리.》

《그래 대체 무슨 일인가?》

《말씀하십시오.》

고지로는 이미 이야기는 끝났다는듯이 담배불을 재털이에 끄고 아까처럼 차잔을 가볍게 입술에 갖다댔다.

가와아이는 잠간 고지로의 눈치를 살피더니 일어서서 벽장문을 열고 새까만 가죽가방을 꺼내왔다.

《우선 이것을 받게.》

가와아이는 얄팍한 검정가죽가방에서 미농지에 깨알처럼 박아쓴 무슨 서류 한건을 꺼냈다.

《〈재만조선인사상범수감자요록〉이라, 이게 뭔가?》

노무라 다이사꾸는 멀찍이 불빛아래 서류를 내대고 벌컥벌컥 번지며 두사람을 번갈아보았다.

《이건 감옥에 있는 조선사람 정치범 명부가 아닌가?》

《그렇네.》

《그런데?》

다이사꾸는 이제는 더욱 모르겠다는듯이 눈을 껌벅거렸다.

《아저씨.》

고지로는 차잔을 비우고 손수건을 꺼내여 천천히 입술을 훔쳤다.

다이사꾸는 얄미울만치 침착한 조카를 지켜보며 기다렸다.

《우리는》 하고 고지로는 말했다.

《이 사람들을 다 석방시킬 작정입니다.》

《뭐, 석방을 시켜? 아니, 이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명부라면서? 너희들이 방금 한 조선공산주의자의 일을 가지고 감히 제국의 운명을 우려하던 주제에 어찌 이 숱한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들일 궁리를 하는것이 아니라 놓아줄 궁리를 한단말인가? 또 너희들의 말을 장학량이가 들어줄것 같은가? 가뜩이나 제 애비 죽인 원쑤라고 윽윽 벼르는 판인데.》

다이사꾸는 와락 무릎을 일으켜세우고 팔을 걷어올렸다. 시퍼렇게 먹물뜸을 한 구렁이가 그 털부숭이팔에 드러났다.

《우리는 우리 계획이 실행된 다음을 가상해서 말하는것입니다.》

고지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가령 계획이 다 성공돼서 전 만주가 우리의 군사적통제하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엇때문에 필요하단말이냐? 장학량이가 떨떨해서 다 죽이지 못한것이 있다면 응당 우리가 마저 요정을 내야 할것이 아니냐?》

《제국은 조선과 만주, 또 아시아전역에서 대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당분간은 정의의 너울을 써야 하고 백성들의 환심을 값비싸게라도 살 필요성이 있는것입니다.》

《누가 너희들의 잔꾀에 넘어간다더냐? 공산주의자들이란 작두로 목을 잘라도 노래를 부르는 독종들이다. 죽여버려야 한다.》

《바로 그러한 독종이기때문에 이러한 대책이 필요한것입니다. 레닌은 혁명가를 주먹이나 곤봉으로 붙잡기는 어려우나 때때로 호의로써 붙잡기는 쉽다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수작 말아. 참으로 나는 너희들의 다변과 번다한 궁리에는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 너희들이 그 어떤 바보도 감히 할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생각이 있다면 구태여 나에게 부탁할 일이 무엇이란말이냐?》

《아저씨, 레닌은 모든 경우에 그런것이 아니라 때때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석방으로써 조선과 만주에 있는 많은 조선사람들속에서 일본이 조선사람들을 보호하고 거두어준다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조선인들의 첨예한 감정을 적잖이 완화시킬수 있으며 그야말로 때때로 어리석은 공산주의자는 우리편에 끌어들이거나 무익한 반항을 중지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다 그것을 기대할수는 없습니다. 그런자들을 족쇄를 벗겨서 내보낸다는 것은 곧 **김일성**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돌로 두 새를 한꺼번에 잡자는것입니다. 우리는 석방하는자들가운데서 아무래도 우리가 휘여잡을수 없는 위험한 존재들을 점찍어놓았습니다.》

《이 붉은 동그라미를 그어놓은자들말이냐?》

《그렇습니다. 이자들은 우리의 그 어떤 〈호의〉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그냥 둬두고 사상범석방이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더러 죽이라는것이냐?》

《이 명부는 〈흑룡강동지회〉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정복을 입고 하기는 적당치 않은 사업입니다. 다행히 이 땅에는 〈흑룡강동지회〉의 용사들이 마음대로 활약할수 있는 으슥한 뒤골목과 무인지경 벌판과 태고의 밀림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아저씨의 활동에 좋은 위장을 지어줄것입니다.》

《듣기 싫다!》

다이사꾸는 와락 명단을 넓다란 소매자락속에 휴지와 함께 쓸어넣으려다가 다시 생각하고 몇장 번져본 다음 옷자락안으로 손을 디밀어 허리띠밀에 든든히 감추어넣었다. 그리고는 말을 이었다.

《대체 궁리한다는것은 이따위 잔롱간뿐이지. 그래 너희들이 긴긴 세월을 허송하면서 한뉘 이따위 궁리만 하고있다면 언제 우리가 그

사상범들을 마음대로 석방할 처지가 돼보겠느냐?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것은 천하의 바보나 할 짓이라고 보고있긴 하지만…》

《노무라!》

가와아이는 담배 한대를 붙여 내밀며 말했다.

《흔연히 응해주어 고맙네. 난 제국을 위한 자네의 충성과 무사로서의 의기를 믿는바이지만 이렇게 쾌히 응해주니 이는 제국의 복이라,자네에게 감사를 드리네. 사실 이게 간단한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네. 대상은 자네가 데리고있는 꾀있고 힘센 용사들의 수자에 비해볼 때 하등의 문제도 될것이 없지만 수많은 사상범들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인물들만을 골라낸만큼 여간 어렵지가 않을걸세. 각별히 조심을 두어서 실수가 없기를 바라네.》

다이사꾸는 기분이 상해서 가와아이의 담배를 받지 않으려다가 너무 옹졸한것 같기도 하여 마지못해 받았다.

《좋다. 너희들이 종당에는 나를 무슨 자객두목으로 만들자고 드는 판인데 그렇다면 나도 한가지 너희들에게 의논할 일이 있다. 내가 래일이고 모레고 우리 아이들을 시켜 장학량이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군대를 풀어 봉천을 점령하겠느냐?》

《허허허.》

고지로가 비로소 트인 목소리로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재미있는 연극인데요. 한번 해보시지요. 장학량이가 죽으면 길림독군 장작상이가 좋아할지도 모르지요.》

《네가 내 말에 그닥 주의를 돌리지 않는 모양인데 나에게는 다른 계획도 있다.》

다이사꾸는 로골적으로 화를 내면서 시뻘겋게 충혈된 눈을 부릅떴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한 200～300명 풀어서 모두 중국옷을 해입혀가지고 봉천과 장춘에 있는 일본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죽이겠다. 그리고 일본수비대도 한개쯤 요정을 내놓겠다. 이렇게 하고도 너희들이 거사를 안하고 꾸물댈 용기가 있으면 어디 견디여봐라.》

《아저씨,모두 훌륭한 계획입니다. 아저씨는 아저씨 계획대로 적극사업을 추진시키되 다만 오늘 부탁한 조항은 어김없이 집행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젠 사업이야기는 그만두고 술이나 한잔 해봅시다.》

고지로는 딱딱 손벽을 쳤다. 가와아이는 가죽가방을 얼른 벽장에 감추고 태연히 안석에 기대여앉았다.

안주인이 소리없이 미닫이를 열었다.
《술과 계집을 들여보내라!》
질탕한 술판이 벌어졌다. 얼룩덜룩 화려한 왜옷을 걸친 작부들이 락화처럼 온 방에 흩어져서 살벌한 분위기가 떠돌던 방안에 삽시에 분내와 간지러운 교태와 달짝지근한 가무소리가 어우러졌다. 술이 넘쳐나고 웃음이 넘쳐나고 노래가 넘쳐나고 추잡한 소리가 넘쳐나는 가운데 밤도 깊어갔다.
화도 나고 울분도 있어서 두루 계집들이 권하는 술을 다 받아먹고나니 전에없이 만취가 되여 정신이 얼떨떨해졌던 다이사꾸는 새벽녘에 방바닥이 드르릉 울리는 거대한 폭음소리에 문득 정신을 차렸다. 눈을 떠보니 온 방안에 계집들이 한방 쓰러져자다가 모두 화닥닥 놀라 깨여나서 흐트러진 옷자락이며 머리를 수습할 생각도 않고 공포에 질려 떠들어댔다.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전쟁이 아닐가?》
《저게 어디여?》
오직 고지로와 가와아이만이 태평스레 코를 골고있었다.
《무슨 소린가?》
다이사꾸가 눈을 두리번거리니 고지로가 비로소 한쪽 눈을 뜨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모양이더니 벽을 향해 돌아눕고말았다. 폭파소리에 뒤이어 소총사격소리가 한참 자지러졌다. 류조구방향이였다. 피뜩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다이사꾸는 목이 컬컬하여 얼른 먹다 남은 술병을 기울여 한잔을 들이키고 가와아이를 흔들어 깨웠다.
《으음—》
가와아이는 크게 기지개를 켜더니 돌아누우며 중얼거렸다.
《아—곤하다. 난 술 그만 마시겠네. 자네 많이 먹게.》
다이사꾸는 고지로도 가와아이도 절대로 자지 않는다는것을 간파하였다.
《얘,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봐. 무슨 일이 난 모양이다.》
그 순간이였다. 쾅! 하고 시내에서 요란한 대포소리가 울렸다.
《악—》
계집들이 기겁을 하여 서로 불안고 벽장밑으로 기여들어갔다.
포사격은 계속되였다. 그제야 고지로도 가와아이도 하는수 없었던지 부시시 일어났다. 그러나 시내 한복판에서 대포소리가 울리는데도 관동군주임참모 노무라 고지로는 사태를 알아볼 생각도 않고 술병을 기

울이고있었다.

《북대영이 맞는것 같아요.》

창에 얼굴을 반쯤 갖다대고 바깥을 내다보던 한 계집이 소리쳤다. 포소리는 계속되고 시내에서 전투소리가 울려왔다.

이날 1931년 9월 18일 밤 류조구의 철길 폭파이후 온 시내와 만철연선의 사람 사는 집들에서는 아무도 잠을 못잤다. 그러나 만철 리사 가와아이와 관동군주임참모 노무라 고지로만은 태평스레 코를 골았고 깨여나서는 또 태평스레 술을 퍼먹었다.

노무라 다이사꾸는 자기가 속았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아침에 북대영을 바라본 그는 기가 막혀 하늘을 우러러 자기의 늙음을 개탄하였다. 북대영꼭대기에는 이미 저희네 국기가 날리고있었던것이다.

12

《현아야, 아버지 어데 가셨지?》

부엌에서 나온 주삼녀는 머리수건을 벗어 어깨에 앉은 재티를 털다가 무심히 물었다.

《아버지 혁명하러 갔지뭐…》

문턱에 걸터앉아 혼자 실뜨기를 하고있던 현아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하였다. 삼녀는 안타까운 눈매로 이윽히 딸을 지켜보았다. 동산에 비죽이 달이 떠올라 현아의 얼굴엔 푸른빛이 어리였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못 말했어.》

이윽히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길을 느끼고 고개를 쳐든 현아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깜빡 까먹었어. 헤헤헤, 난 다 알아. 이젠 누가 물어도 아버지 혁명하러 갔다고 말 안할래.》

《그럼 뭐라고 하겠니?》

《돈벌러 갔다고 그러지뭐. 엄마, 그렇게 말하문 되지, 응?》

삼녀는 고개를 끄떡일 생각도 잊고 현아의 초롱초롱한 눈매를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요즘 반동들의 준동이 심하고 여러 복색으로 가장한 주구들이 무시로

드나든다. 그래서 조직에서도 경각성을 높일데 대해 한두번만 강조되지 않았다. 삼녀는 제 마음속을 터놓을데가 없다보니 홀로 지내는 긴긴 낮과 밤을 현아를 벗삼아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남편에 대해서나 세상일에 대해서 아이에게 꼭 해주고싶어서 한 말도 있지만 그중에는 그저 제 마음속을 터놓는,어린 현아에게는 잘 리해되지 않는 이야기도 적지 않았다.

이제는 보다 현실적으로 정신을 바싹 차리고 살아야 할 때가 되였다.

지난해 남편이 떠나간 그 직후에 이곳 배나무골일대에도 모든 혁명조직이 파괴되고 혁명가들은 뿔뿔이 흩어져버렸었다. 어수선한 시국을 그저 막연하게 느끼며 안타깝게 세월을 보냈다. 남편에게서는 꼭 한번 소식이 있었다. 그러나 별로 한 일이 없는 오빠마저 체포되여가는 형편이라 오라고 할수도 없고 가볼 형편도 못되였다. 인편에 이곳 소식을 전하고 어서 몸을 피하라고 적어보냈다. 그리고는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반년전에 남편이 한때 몸을 숨기고있었다는 솔개골로 가보았으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간도에서는 이름난 사람인것만큼 어딘가 근방에 있다면 꼭 알려지겠는데 이렇게 소식이 묘연한것을 보면 먼곳으로 갔든지 아니면 무슨 불행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삼녀는 마음속이 불안하고 뒤숭숭하였다. 오빠가 놓여나오기는 하였으나 마음의 의지는 안되였다. 시집 와서 여태까지 떨어져있게만 되고 그럴수록 그리워지고 정이 쌓이는 남편이였다. 남들은 그렇게 오래 떨어져 살면 자연 정도 멀어진다는데 살뜰하지도 못하고 얼굴조차 똑똑히 마주 바라보지 못했으며 지어는 말조차 세일 정도로밖에 나누지 못한 그 남편에게 이렇게도 피줄이 아프게 켕기는것은 무슨 일인지 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남편이 그의 가슴에 이렇게 살아있다보니 형체는 없어도 두사람의 호젓한 생활에 늘 함께 참여하고있었다.

《엄마,내 집 잘 볼게 갔다와. 난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아. 호랑이나 귀신이 와도 눈을 똑바로 뜨고있으면 무섭지 않대.》

어머니의 눈길에서 심상찮은것을 느낀 현아는 근심스런 어조로 말했다.

《그건 누가 그러더냐?》

《아버지가 그랬어.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세대.》

삼녀는 고개를 돌렸다. 현아는 그런 어머니의 거동이 마음에 걸려 살그머니 치마자락에 매달렸다.

《엄마, 왜 그래? 또 울라구 그래?》

《울기는 내가 왜 울어? 현아가 이렇게 착한데… 그런데 너 또 운다는건 무슨 소리냐?》

《전날 내가 우는거 다 봤어. 어머니 울면 난 싫어.》

삼녀는 현아를 꼭 끼여안았다.

그것은 시어머니 제사날 이야기였다. 남편이 없다고 안차릴수도 없고 그렇다고 험한 시절에 제사를 요란하게 벌릴 형편도 못되였다. 게다가 제상 차릴 마련도 없었다. 다행히 저녁때에 오빠가 입쌀 두어되박을 꿍져가지고 와서 조촐하게 제사를 지내라고 지방까지 써주었다. 잠에 취한 현아를 깨워 할머니 신위앞에 절을 시켰으나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잠에 취해 비칠거리다가 도로 쓰러졌다. 오빠는 령사관경찰에서 놓여난 직후여서 가뜩이나 약한 몸이 수척했고 수염이 더부룩했다. 어두운 제상앞에 말없이 앉아있는 자기와 오빠 두사람의 그림자가 유난히 흔들렸다. 꽁다리만 남은 초불이 뚝뚝 눈물을 지었다. 고생끝에 락도 못보시고 돌아가신 어질고 사랑깊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절로 눈물이 났다. 남편생각, 친정생각, 아이생각에 홀로 속을 태우던 지난나날과 앞일을 생각하니 제 설음도 겹쳐 핑게삼아 자꾸만 치마자락으로 눈물을 훔쳤었다. 아이는 이미 잠들었으려니 생각한게 불찰이였다.

《그날은 제사날이니까 울었지. 여느날은 울지 않는다. 엄마가 왜 울겠니? 이제 현아가 집을 잘 보고 튼튼하게 자라면 아버지도 곧 오신다. 이젠 정말 아버지 오실 날도 머지 않았다.》

《혁명을 다 했나?》

《그래, 혁명에서 우리가 이기게 됐단다.》

《야— 좋다.》

어린것은 손벽을 치며 깡충거렸다.

새해가 잡혀서 배나무에 새움이 돋고 새하얀 배꽃이 필무렵, 배나무골에는 조선에서 건너온다는 젊은 내외가 옥금이라는 딸 하나를 데리고 와서 동네 한끝에 거접을 하였다. 남정 이름은 리용수라고 하는데 울짱을 박고 대충 농막같은 집을 꾸리더니 저희 집 일은 뒤전으로 밀다싶이하고 마을의 집집을 돌아다니며 일을 거들어주고 농사일도 도와주고 하면서 사람들과 낯을 익혔다. 그들이 먼저 래왕을 튼것은 계덕이네 집이였다. 전부터 그 집과 가까왔고 종성댁과는 부녀회에서 같이 일해온적도 있는 삼녀 역시 리용수의 안해 고분녀와 인차 친해졌는데 이들 내외의 활동

으로 한때 숨죽었던 조직이 다시 꾸려지고 야학이 열렸으며 동네는 활기를 회복하였다. 들리는 말에는 길림쪽에서 큰 혁명가가 간도로 오셨는데 지금 간도 전반이 들끓고있다는것이였다. 리용수가 그분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래서 한번은 계덕이가 그런것을 물어보았으나 웃을뿐 종내 시원한 대답을 받아내지 못했다는것이였다. 조직을 꾸리는 본때가 전과는 판판 달랐다. 하나하나 사람들을 교양해서는 꽉꽉 묶어나가는데 그러다보니 겉으로는 별로 요란해보이지 않는것도 실상은 그 뿌리가 깊이 박혀있었다.

들끓는것은 비단 배나무골뿐만이 아니였다. 조선사람 사는 모든곳에서 적들의 극심한 탄압을 박차고 혁명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세차게 불타올랐다. 그럴수록 리용수는 경각성을 높이며 조직의 비밀을 엄수할것과 사람들을 꾸준히 교양해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모든 조선사람들을 묶어세워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일제가 기어코 만주를 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도 하였다. 그때면 우리는 일체 반일세력을 하나로 묶어 무장한 반혁명에 대해 무장으로 반격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어느날 리용수는 삼녀네 집에 찾아왔다. 현아를 데리고 한참 놀더니 허청간을 뒤져내여 농쟁기들을 손질해주었다. 삼녀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다. 남자의 손이 가지 못한 집안은 아닌게아니라 허술한데가 많았다. 이튿날은 와서 몇해째 못이은 이영을 반나절이나 걸려 거의 절반이나 새로 잇다싶이하였다.

《주인이 없어서 살아나가기가 힘들겠습니다.》

리용수는 뙤약볕에 땀을 철철 흘리면서도 오히려 삼녀를 위로하였다. 삼녀가 너무나 송구하여 말을 못하고 섰는데 용수는 익숙한 솜씨로 척척 곱새를 틀며 말하였다.

《이제 좋은 날이 올것입니다. 주인도 돌아와서 마음놓고 잘살 날이 올것입니다.》

《고마와요, 정말 저는 주인이 없어도 이렇게 동네에서들 도와주시니 주인 있을 때보다 더 살아나가기가 헐한걸요.》

《하긴 바깥량반이 집안일을 돌볼 새도 별반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아주머니 마음이야 그렇겠습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오히려 일손이 더 가더라도 주인이 돌아왔으면 할테지요. 그렇지만 아주머니는 여느 사람과는 립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런분이니 남보다 고생도 하지만 그만큼 영광스럽고 보람찬 일에 관여하고있지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아주

머니를 더 존경하는것입니다. 거기에 또 락이 있지요. 떳떳하게 혁명가의 안해로서 자랑스럽게 사셔야 합니다. 아이도 그렇게 기르구요.》

삼녀는 이왕에도 조직에서 생활해보았고 조직의 책임자들과 이야기도 나누어보았지만 이렇게 자기 마음을 깊이 꿰뚫어보고 헤아려주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었다. 그저 혁명이란 중대한 일이니만치 의례 그러려니만 생각하고 조금도 딴마음을 가져보지 않았었다. 그러나 용수의 말을 들어보니 까닭없이 눈물이 나올만큼 고마와졌고 제 마음을 낱낱이 터놓고싶어졌으며 조직에서 주는 혁명과업이라면 진심으로 목숨을 내놓고라도 해내고야말 굳은 결심이 절로 솟아나는것이였다.

《언제나 그이가 돌아올는지 전 애타게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저 어디서나 무사히 일하셨으면 하고 빌뿐이예요.》

삼녀는 제 친살붙이라도 만난것만 같아 어느덧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제 마음속의 말을 하였다.

《아주머니,》 리용수는 이미 다 튼 곱새를 이리뒤적 저리뒤적 하면서 잠시 집주위를 살피더니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진작 아주머니에게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 오늘까지 미루어왔습니다.… 실은 제가 저 진규동지와는 퍽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네? 아니 그럼…》

삼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얼굴이 화끈해져서 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용수의 소박하고 듬직해보이는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용서하십시오. 일에 쫓기다보니 차일피일하다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저 그이는…》

《사실 나도 지금은 진규동지 소식을 직접은 모릅니다. 작년여름에 할미령밑에 있는 저의 집으로 왔더군요. 그때는 폭동직후라 어디 들어가 박힐데라고 없었지요. 저도 쫓기여 산속에 숨어있었는데 그때는 나도 진규동지도 앞길이 캄캄해서 좀 모험적인 행동을 하고는 또 놈들의 추격을 받게 되여 그만 헤여졌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할미령을 넘어갔다는군요.》

《그럼 저 작년에 집을 떠난후 인차 만나셨군요? 4년 가까이나 감옥을 살다가 놓여와서 하루밤도 집에 류하지 못하고 그만 떠나가셨어요. 밥 한끼도 못드시고… 닭을 한마리 잡았었는데 그것까지 못잡숫고 가시더니 그에 또 할미령까지 넘어가셨군요.》

삼녀는 그날 그 억이 막히던 광경이 불현듯 눈앞에 떠올라 저도모르게 눈덕을 내리깔고 푸념처럼 중얼거렸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삼녀의 말은 조용하였고 가벼운 시름을 띠고있을뿐 낯빛조차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그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이며 표정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저리게 하였다.

용수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한숨을 쉬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너무 무심히 지낸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진규동지와의 사이로 보아서도 그럴수 없는 처지입니다. 큰일도 못하면서 일에 쫓기다나니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 별말씀을 다 하세요. 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그런줄 저도 압니다. 아주머니 심정이 왜 안그렇겠습니까? 사실 저도 어려운 때 나를 찾아온 혁명동지를 더운밥 한끼 못대접하고 그렇게 섭섭히 헤여진것이 한이 되는데 아주머니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무심했습니다. 더 좀 살림도 보아드리고 뭐 해드릴것은 없다 해도 각근히 찾아뵈옵고 했어야 할걸 미처 손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용수는 낯빛이 무거워져서 먼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삼녀는 얼결에 한 말 한마디때문에 그를 불안하게 한것 같아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정말 이젠 그런 말씀 말아주세요. 여기 배나무골에서는 저뿐아니라 모두가 옥금이 아버지 신세를 안지는 집이 있어요? 얼마나 고맙게들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삼녀는 사실 용수에게 외롭게 사는 마음의 의지를 발견하고 그에게 갈수록 마음이 기울어지던참이라 그가 그리운 남편과 남달리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정작 남편을 만난것만 못지않게 기쁘고 든든하였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그런 마음을 그에게 전할것인가 하고 골몰하는데 용수는 그냥 무거운 낯빛으로 말을 이었다.

《참, 지금 진규동지와 만나고싶습니다. 그때 둘이 다 조선혁명의 앞길을 생각하고 얼마나 괴로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도 목마르게 기다리던 지도자께서도 나서시고 로선문제도 다 해결되였으니 이럴 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이제 생각하면 그이가 혁명을 하면서도 늘 괴로와하시던게 그 일때문이였던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아는게 없지만 그때만 해도

더 어리석었으니 그렇게 속태우는줄도 모르고 그저 뚝뚝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지요.》

《다정다감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혁명가에게 가장 중요한 그 문제가 풀리지 않다보니 누구나 낯빛이 무거워질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때는 막 몸부림이라도 치고싶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왜놈들이 호송해가는 동지들을 빼앗아내려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추격을 받아 할미령에서 뿔뿔이 헤여졌지요. 그런데 저는 그 길로 돈화쪽으로 피해가서 뜻밖에도 제가 일생동안 찾아헤매던 조선혁명의 령도자를 거기서 만나뵙게 되였습니다.》

《어쩌면… 그럼 그분은?…》

《사실 그분을 만나뵙기전까지야 제깐으로 혁명을 한다 하고 돌아다녔지만 쓸모있는 일은 하나도 못하고 그저 일이나 저지르고 돌아다닌셈이지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갈팡질팡했단말입니다.》

《저 그럼 혹시 그분께서 저 길림에서 오셨다는…》

삼녀는 아까 물어보려다가 너무 무엄한것 같아 주춤한 질문을 기어코 하리라 마음먹고 말을 뗐으나 역시 마무릴수는 없었다. 남편이 그토록 찾아헤맸고 오빠나 가까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그런분이 나서시였다니 아무리 수집은 삼녀의 마음이라도 궁금증을 누를수 없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라와 혁명의 운명을 판가름할 그런 중하고 어려운 일을 맡아나서신분이고 또 조직과도 관계되는 일일것이라 무망중에 입을 벌리긴 하였으나 끝을 맺을수는 없었다.

그런데 리용수는 삼녀의 진심이 가득 고인 커다란 눈을 바라보더니 뜻밖에도 시원시원하게 말하는것이였다.

《그렇습니다. 벌써 소문이 크게 났지만 길림에서 혁명을 지도하시던 **김일성**동지십니다. 전 돈화에서 바로 그분을 만나뵙고 영광스럽게도 직접 그분의 지도를 받게 되였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도 길을 몰라 헤매던 혁명가가 진정한 지도자를 만나뵙고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을 하나하나 터득해나갈 때의 기쁨과 보람을 리해하실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 깊은 속까지야 다 알겠습니까만 저도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정말 그 괴로와하시던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쁨이 컸겠는지 알듯도 해요.》

삼녀는 거칠한 낯빛으로 등잔밑에 묵묵히 앉아있군하던 남편의 모습

을 눈앞에 그리며 가슴이 찡해서 눈길을 떨구었다.

《아주머니앞이니 말이지만 그 캄캄하던 눈앞이 환히 열리고 답답하던 가슴속이 희망으로 꽉 차오를 때 전 진규동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여기저기 수소문도 해봤지요. 그래서 좀 막연하긴 하지만 하강지구에 가있는듯하다는 소식도 얻어듣게 된겁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제가 진규동지 이야기를 그분께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도 퍽 걱정하시더란말입니다. 말씀은 안하시는데 진규동지가 관계했던 사건이랑 말씀올렸더니 혁명에 충실한 사람인데 길을 몰라 고생을 한다고 하시면서 찾아보라고 아래사람들에게 이르시더군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분께서 우리 현아 아버지 걱정을 해주셨단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아주머니. 그러니 아주머니도 마음 푹 놓으시고 더 억세게 사셔야 합니다.》

리용수는 감격에 떠는 삼녀의 물기어린 눈시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제 우리 조선혁명은 앞길이 환히 열렸습니다. 내 언젠가 말했지만 우리 혁명은 비록 국내에서, 국외에서, 사처에서 진행되지만 이제는 통일적인 하나의 로선을 받들고 나가게 됩니다. 장차 우리는 무장투쟁으로까지 투쟁을 끌고갈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의 정확한 로선을 가지고 모두가 뭉치지 못했을뿐아니라 정확한 로선자체가 없었고 또 그러한 로선을 내놓을만한 지도자가 없었던것입니다.》

《현아 아버지도 이젠 그걸 알았을가요? **김일성**동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그럼 이젠 우리 현아 아버지도 그분과 련계가 지어졌을가요?》

삼녀는 짚북데기를 안타깝게 주무르며 물었다.

《제가 지난달에 그분에게서 떠나왔으니 아마 그뒤에 련계가 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혹 아직 모르고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만간에 해결될 문제입니다. 지난날과는 근본적으로 조건이 다르니까요. 과거에는 혁명한다는 사람들이 제가끔 뿔뿔이 흩어져서 로선도 전략전술도 못가지고 제각기 제 생각대로 마구 덤비다나니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도 알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아주머니가 여기서 투쟁하고 주인이 어디 먼곳에서 투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의 조직에서 함께 싸우는것으로 되며 실제상 가깝게 련계를 지을수도 있는것입니다.》

《참,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전 그이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 혁명의 앞길이 열리고 그이가 애쓴만큼 혁명에 보람이 있게 되였으면 더는 소원이 없어요.》

삼녀는 자기의 참된 마음속을 스스럼없이 말하였다.

《아주머니, 서로 잘 싸워봅시다.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가리키시는 조선혁명의 길을 곧장 달려가면 됩니다. 그 길에서 진규동지와도 만나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조선혁명의 총적임무를 내놓으시고 일제를 반대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투쟁을 발전시킬 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앞에는 더 벅찬 혁명과업이 나서는것입니다.》

삼녀에게는 처음 듣는 새로운 말이 많았고 또 생각이 가정의 울타리밖에서 멀리 벗어나본 일이 적은 그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말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자기 생활과 직접 련결되여있는 말들이였기때문에 심장에 마쳐왔다. 또한 남편의 일상적인 념원을 미루어 생각해볼 때도 그 새로운 단계에로의 투쟁의 발전이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왔다.

그날부터 삼녀는 힘이 나서 조직생활에 더욱 열성을 냈으며 용수나 조직이 주는 어떤 분공도 어김없이 실천하기 위하여 애를 썼다.

일제가 만주를 강점하리라던 리용수의 예언은 한달도 못가서 딱 들어맞았다. 일제는 마침내 《만주사변》을 조작하여 전 만주를 무력으로 강점하였다. 조선쪽에서 군대들이 건너와 이미 현성에서는 왜놈군대가 득실거린다고들 하였다. 조직은 더욱 활발히, 더욱 은밀히 맹렬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 한편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규탄하는 삐라가 거리에 나붙고 밤마다 산기슭이며 버들숲, 으슥한 농막같은데서는 회의가 진행되였다. 왜놈들은 벌써 야학을 중단시켰으나 야학생들은 전처럼 흩어지지 않고 더욱 튼튼히 조직에 뭉쳐졌으며 아이들도 아동단을 조직하여 어른들의 투쟁을 도왔다. 주구들이 드나든다는 통보가 상급에서 내려왔다. 삼녀는 바빴다. 통신공작도 해야 하고 밤에는 삐라공작에 나가야 했으며 거의 밤마다 회합이 있었다. 이렇게 혁명이 들끓고있을 때 남편이 돌아왔으면 작히나 좋으랴, 남편은 돌아올것이다. 혁명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낄줄 모르던 남편, 배나무골일대에서 혁명을 처음 시작한 남편이니만큼 그가 그렇게 기다리던 지도자께서 나서신 지금 여기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큰일을 할수 있을것이였다. 더구나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남편에 대해 걱정해주셨다고 하지 않았는

가! 그러니 남편이 없는 이상 정성이나마 남편의 몫까지 내가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자기 몸도 집일도 다 잊어버리고 조직의 일에 몸바쳤다.

그전에 연연한 제마음을 그대로 아이에게 옮기던 그러한 말은 일체 하지 않았다.

혁명은 앙양되고 그에 따라 적들의 준동은 심하니 행여나 무슨 실수가 있다면 이는 무엇보다도 조직에 주는 손실이 클것이다. 그래서 현아에게도 그것을 단단히 단속하였다. 그전에 가르쳐주던 혁명가요를 못부르게 하고 아버지가 혁명가라는 말도 다른 사람에게는 일체 못하게 하였다. 처음엔 말을 잘 듣지 않았지만 네가 딴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아버지가 또 왜놈들에게 붙잡혀가서 다시는 못돌아오신다고 하였더니 다음부터는 조심을 하였다.

오늘도 웃마을로 통신을 가지고 갈 일이 있어서 일찌기 저녁을 마치고 길을 떠나자고 생각하니 집을 비웠을 때 혹시 못된놈이 아이에게 달려들것만 같아 다시 현아를 붙잡고 다짐을 받은것이였다.

오늘의 통신은 특히 중하기도 하거니와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을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였다.

낮에 리용수는 멀쩡한 울바자를 손질해주겠다고 연장을 가지고 와서 한참 뚝딱거리더니 부엌앞에 와서 랭수 한사발을 청하여 받아들고는 밑도끝도 없이 말하는것이였다.

《삼녀동무, 저녁에 웃마을로 가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예요?》

용수는 대접굽을 훔치며 말하였다. 《왜놈들은 간교하게도 만주를 강점하자 조중인민을 리간시키고 조선사람들의 반일기세를 무마할 목적으로 조선인정치범들을 석방시켜놓고 뒤로 암살하거나 되잡아가두고있습니다. 조직은 그런 혁명가들을 일제의 마수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지대로 탈출시키며 조직과 련계를 지어줄 과업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접 **김일성**동지께서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실수 없이 잘해야겠습니다. 통보에 의하면 래일아침 이리로 두 동무가 넘어오겠는데 그뒤에 적의 특무들이 달려있다는것입니다. 오늘 밤중으로 웃마을에 이 사실을 전하고 그 동무들이 넘어오면 즉시로 산으로 보내며 특무놈들을 처단할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겠습니다. 웃마을은 특히 복잡하고 특무들이 많이 드나드는곳이니 조심해서 실수 없이 다녀와야겠습니다. 이것은 **김일성**동지께서 관심을 가지고계시

는 두사람의 혁명동지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는것을 잊지 마십시오.》
삼녀는 긴장되였다. 그래서 해종일 어떻게 하면 웃마을로 무사히 다녀올수 있겠는가 궁리하면서 전에없이 집단속도 엄하게 하였다.
달이 모아산우에 둥실 솟아올랐다. 이제는 떠나야 할 때다. 삼녀는 다시 현아에게 집을 잘 보라고 당부하고 막 집을 나서려는데 사립문을 열고 한 녀인이 들어섰다. 삼녀는 마당한복판에 주춤하고 섰다. 아이를 업고 보퉁이를 하나 이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퍽 낯익었으나 너무나 긴장했던 삼녀는 잠시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하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이게 누구예요? 형님이 저물어서 웬일이예요?》
《모두 잘 있나? 아이구, 해 있을 때 떠난게 오다가 다리목에서 망할 놈들 단속에 걸려 이렇게 늦었지. 현아가 컸구나.》 리순옥은 보퉁이를 삼녀에게 넘겨주고 땀발이 번지르르한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말하였다.
《얘, 넌 외숙모 보고 인사도 안하니. 어서 내려놓아요. 아이구, 영민이는 자는구나, 어서 내려놓아요.》
삼녀는 올케를 친언니처럼 따랐고 순옥이 역시 시누이를 친동기처럼 생각하고있었다. 남들은 시누이가 고추당추보다 맵다고들 하지만 삼녀는 남편의 성미를 닮아서 착하고 어질뿐아니라 마음씨가 곱고 녀자치고 속도 넓었다. 그래서 순옥은 고향으로 떠나가버린 시어머니 대신하여 시누이의 뒤를 돌아보았다. 시누이를 출가시킬 때 례장도 푼푼히 마련하노라 애썼고 살림을 난후에도 틈틈이 가보고 무엇인가 보태주지 못해 속을 태웠다. 이웃에서는 이것이 별일이라고들 하였다. 그렇지만 자기가 갓 시집와서 아직 숫기를 벗지 못해 쩔쩔맬 때 세상에 무섭다던 시누이가 고맙게 굴어주던 일도 끔찍하였지만 워낙 삼녀란 누구나 위해주고싶어지는 사람이기도 하였다.
그렇게 다정하던 시누이올케간도 이즈막에 와서 남편들이 번갈아 경찰서며 감옥출입을 하고 몸을 피해 나돌고 세상이 흉흉해지면서 자연 발걸음이 멀어졌다. 한번 다녀가려면 강을 건너 불과 15리길이지만 여간 별러서는 떠나게 되지를 않았다. 그런만큼 어찌다 서로 만나게 되면 정말 친정어머니가 집난이를 만난듯 반갑기도 하였다.
《그래 무슨 소식이라도 있나?》
《소식이 무슨 소식이 있겠수? 전에 솔개골에 있었다기에 알아봤더니 며칠 있다가 떠난후로는 만난 사람이 없다지 않아요. 그런데 할

미령에서 현아 아버지를 만났다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어요.》
두 녀인은 배나무가지사이로 달을 바라보며 토방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였다.
《오빠는 여전해요?》
삼녀는 조카를 받아안고 흔들며 물었다. 순옥은 달빛아래 해사하게 떠오르는 시누이의 맑은 옆얼굴을 홀린듯이 들여다보다가 《응, 오빠? 그저 늘 그렇지…》하고 한숨과 함께 외면하였다.
《참, 내 정신 좀 봐. 저녁은 어떻게 했수?》
《글쎄 영민이 아버지 저녁 지어드린다고 해가 있을 때 밥을 지어먹고 떠났다니까…》
순옥은 삼녀보다 나이는 불과 네살 우이지만 몸집이 실하고 성미가 괄괄할뿐아니라 통이 커서 집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사람들을 휘둘러댔다. 그대신 마음은 어질고 부드러웠다. 현아를 데리고 보퉁이를 풀더니 강냉이이삭을 꺼내여서는 아이들처럼 웃으며 좋아하였다.
《저 언니, 내 잠간 웃마을에 다녀올게 아이들하고 좀 있어요.》
삼녀는 모처럼 온 올케를 혼자 두고 집을 비우는것이 안됐지만 급한 통신이라 어쩌는수가 없었다.
《아니, 이 밤중에 어디로 간다고 그래? 젊은 녀편네가 밤길을 다녀서는 재미없어. 밝은 날 가지 뭘 그리 서두나.》
《가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인차 다녀와요.》
《내가 눈치를 다 짐작하지. 어이구,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변할가? 갓 시집갔다가 첫나들이를 왔을 때 생각나나? 남편이 공부를 하라고 자꾸 조르는데 부끄러워 하지는 못하겠고 야단이 났다고 찔끔찔끔 눈물을 짜더니…》
《아이구, 별소릴 다해요. 내 그럼 얼른 다녀와요.》
삼녀는 웃마을에 있는 방아간에 가는것처럼 수수쌀을 두어되박 함지박에 해이고 길을 나섰다.

×

별빛은 재롱을 부리는듯하였다. 달은 재롱스러운 별들을 바라보며 행복에 겨워 웃는것만 같다.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푸른 달빛이 길우에 비꼈다.

삼녀는 무엇인가 즐거운 생각에 잠겨 달빛속을 걸어갔다. 수집던 숫색시시절이 생각났다. 열정에 들끓는 불덩어리같은 청년이던 남편은 살뜰한 말은 한마디도 못했지만 나란히 발고랑을 타고앉아 김을 맬 때면 이 세상 리치를 혀가 꿋꿋해지는 굳은 말투로 가르치려들었다. 무엇때문에 부자와 가난뱅이가 생겨났는가, 무엇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고향산천을 버리고 이렇게 낯설은 이국땅에 와서 고생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여 새하얀 머리수건을 쓴 새각시는 그만이야 고개를 푹 숙였던것이다.

시집오기전에 삼녀는 남편의 강연을 한번 들은적이 있었다. 부모들이 정혼해주니 좋다는 말도 싫다는 말도 못하고 그저 자기 운명이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매여버리겠거니 하고 단념해버린 삼녀였다. 동무들이 좋겠다고 놀려주었지만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차라리 자유롭고 꿈많던 처녀시절도 이제는 마지막인가 생각하니 오히려 서글펐다. 오빠가 가끔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입이 무겁던 사람이 갑자기 수다를 피우며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늘어놓다가는

《얘 삼녀야, 너 새서방하고 내가 오늘 싸움을 했다. 그건 생매야, 어찌나 성깔이 사나운지 모두 그 사람곁에 가면 상할가봐 겁을 내는 판이다. 네가 시집살이를 어떻게 하겠는지 벌써부터 걱정이다.》하고 진담인지 롱담인지 모를 소리를 곧잘하였다.

선볼 때 얼핏 대면했을뿐이라 삼녀는 두말할것도 없고 다른 집안사람들도 그저 인물이 훤칠하고 남자답다느니 키가 너무 크다느니 스물두살치고는 여간 숙성해보이지 않는다느니 이러루한 말을 했을뿐 사람의 진속은 알길이 없었다. 다만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간 아버지가 시아버지와 막역한 사이였고 남편이 어렸을 때 《천자》며 《동몽선습》을 가르친적이 있어서 아낙네들의 공론들을 찍소리 못하게 눌러버렸던것이다.

오빠의 말을 듣고 당자인 삼녀보다도 속이 더 단것은 올케 순옥이였다.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에게 좋은 신랑감을 골라주고싶은 그는 남편에게 주근주근 물었지만 술만 깨면 아무말도 하지 않는 주태화였다. 그러다가 한번은 집에서 회의가 있은 날 저녁인데 밤이 이슥하여 회의가 필하고 모두 돌아간 다음에 순옥이가 또 그 이야기를 꺼냈었다. 그러자 주태화는

《오늘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댔는데 직접 당신 눈으로 다시한번 보

지 뭘 그러우.》 하고 퉁명스레 말했다. 그제야 부엌에 와서 랭수를 청하던 토목검정두루마기를 입은 키 큰 청년이 낯이 익던 생각이 모두 되살아났다. 그래 삼녀에게 물었으나 부엌에서 랭수를 떠준 삼녀자신도 전혀 그런 눈치를 못챘다. 그러고 보면 남편은 랭수를 마시고싶었다기보다 자기가 무방비상태에 있을 때 한번 보자는 엉뚱한 속이 있었던것 같았다. 허줄하게 입고 얼없이 설겆이에 바삐 돌아치던 자기 꼴을 상기하니 분하였다. 올케도 혀를 차며 일생을 매워 살 남편을 그렇게 몰라보느냐고 책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그러던중 야학에서 강연이 있는데 바로 남편이 온다는것이였다. 올케는 초저녁부터 가보자고 졸랐다. 그러나 삼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권하다못해 내라도 가본다고 올케가 가버린 다음 삼녀의 가슴은 널뛰듯하였다. 집안식구들의 동정을 살핀 다음 몰래 세면을 하고 난생처음이다십이 거듭거듭 머리를 곱게 빗었다. 볼은 홧홧 달아오르고 가슴은 상사말이라도 달리는것처럼 걷잡을수 없이 뛰였다. 마지막으로 버선을 신는데 손끝이 신장대처럼 떨렸다. 그러나 강심을 먹고 올케의 장옷을 꺼내여 머리에 푹 쓰고 야학으로 갔다. 사람들의 눈을 피한다는 그 변장은 얼마나 서툰것이였던가? 모두 가난하고 천대받는 농민들인 청강자들속에서 그렇듯 곱게 비다듬고 나선 모습은 너무나 유표하였다. 학교마당에 들어서서 문틈으로 방안을 엿보고나서야 그것을 깨달은 삼녀는 이번에는 당황하여 두다리를 후들후들 떨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가 생각하였다. 그때 마침 방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많이 일하고 문명의 진보를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우리 무산대중입니다. 여러분, 농민이 없으면 그 어떤 임금도 대신도 장군도 백만장자도 당장에 굶어죽을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굶어죽는것은 임금도 아니고 대신도 아니고 장군도 백만장자도 아닙니다. 제손으로 땅을 걸구어 기름진 곡식을 거두어들인 우리 농민들이 그 벼더미우에서 굶어죽고있습니다.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연사는 책상을 탕 치고 이마우에 길게 흘어진 머리를 뒤로 쓸어넘겼다. 장내는 숨을 죽이고 기침소리 한마디 없었다. 연사는 연신 팔을 쳐들어 기한에 떠는 인민들의 처지를 말하고 억울하게 숨져가는 우리의 어린이들을 구원하자고 웨쳤다. 장내 이구석 저구석에서 쿨쩍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야기가 끝나갈무렵 삼녀는 먼저 집에 돌아와 얼른 옷을 갈아입고

자는체 누웠다. 그 사람이 제 남편이겠거니 생각하니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출중한 인물의 안해가 된다고 생각하니 더럭 겁도 났다. 그래저래 신혼생활은 서먹서먹한 눈치보기로 지나갔는데 오직 마음속으로 즐거운것은 그 청산류수같던 남편의 언변이 자기앞에서는 안타까울만큼 굳어진다는 사실이였다. 그러나 남편은 고집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 굳은 혀로 자기에게 한글을 가르치려 들었다. 남편앞에서 책을 펴놓고 앉으니 글자가 보이는것이 아니라 커다란 남편의 손과 자기가 정대답을 못할 때면 든든해보이는 후들후들 떨리는 턱이 보일뿐이였다. 마침내 핑게를 대고 친정에 다니러 가서는 올케에게 하소연하여 보름이나 눌러앉아서 올케한테서 한글을 깨쳐가지고 돌아왔었다.

남편이 자기에게 사사로이 한 말은 모두가 그러한 말이였고 내외간에 있음직한 다른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남편은 그나마 집에 붙어있는 날이 드물었다. 그러다가 문득 체포돼간것이였다.

두둥실 동산높이 솟아오른 달을 바라보니 눈물마저 자아내던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던가싶었다. 그러나 더 큰 행복은 앞에 있을것이다. 여기에 혁명의 지도자께서 계시니 남편도 돌아올것이다. 옛날처럼 어리석게 굴지 않고 혁명에 몸바쳐 싸우고있는 자기를 본다면 남편은 얼마나 좋아할것인가? 서대문감옥에 갇혀서도 혁명을 당부하던 남편이다. 피골이 상접해 돌아와서도 조직에서 일하는 자기를 보고는 무척 대견해하던 남편이다. 그러한 남편과 이제는 앞이 환히 열린 혁명의 한길을 나란히 간다면 우리의 살림은 얼마나 즐거울것인가.

삼녀는 문득 남편이 떠나간 날자를 세여본다. 벌써 1년하고 한달 열하루가 되였다. 동무가 많고 활동하던곳이 넓으니 어디에 가나 의지가 없지는 않겠지만 여태 남편의 생활에 대해 너무나 아는것이 적다보니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갑자기 시름이 가슴에 가득찼다. 그 건장한 몸과 출중한 지식으로 살림이나 꾸려나가면 여북 잘 살랴하고 생각하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다시는 안할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건강한 남편을, 아이와 자기를 잊지 않고있는 그러한 남편을 보고싶었다. 해란강 버들숲에서 자기 어깨를 쓸어주던 그날밤의 생각이 가시처럼 마음을 후볐다. 뜨거운 입김이 볼에 아직도 남아 푸른 달빛이 어린 이 청신한 밤바람속에 손을 내뻗치면 금시 미더운 남편이 불쑥 나타나 《여보.》하고 다시금 제 어깨를 쓸어줄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만 머리속을 어지럽혔다.

《누구야!》 꿱하는 고함소리에 삼녀는 흠칠하고 멈추어섰다. 순찰을 도는 경찰놈들이였다.

예기는 하고있었다지만 정작 만나니 속이 떨렸다. 더구나 딴생각을 하다가 불쑥 만나니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다행히 살펴보니 이미 방아간이 멀지 않아 불빛이 새여나오고 거기서 도란도란 아낙네들의 말소리도 들려왔다.

《어디로 가?》 이번에는 뒤에 선자가 물었다. 그리고는 두놈이 좌우로 벌려서서 죄여들었다.

《방아간에 가요. 가루 봏으러 가는 길이예요.》

삼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가루 봏으러 왜 밤에 가는거야? 이거 내려놔!》

한자가 아래우로 훑어보더니 함지박을 기웃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낮에는 지주댁 쌀을 찧기때문에 우리들은 쓸수 없어요. 그래서 밤에 가는거예요. 보세요, 모두 찧고있지 않아요.》

삼녀는 함지박을 내려놓고 제손으로 수수쌀자루를 헤쳐보였다.

이쪽에 섰던 놈이 엎어진 바가지쪽을 들어 앞뒤로 살펴보더니 달빛에 비치인 삼녀의 고운 얼굴을 탐이 나는듯이 한참이나 쏘아보았다. 삼녀는 그놈의 더러운 눈길보다도 엉거주춤 꿇어앉아 쌀자루를 뒤적거리고 있는놈때문에 가슴이 후둑거렸다. 통신은 수수쌀밑에 깔려있는것이다.

《이까짓거 봏으라 이렇게 멀리 댕기나?》 의심이 나선지 동정심이 생겨선지 아니면 제 마음이 후하다는것을 보여주고싶었던지 수수쌀을 휘젓던 손을 멈추고 불쑥 이렇게 물었다.

이놈들을 어떻게든 얼려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은 났으나 졸지에 아무런 궁리도 떠오르지 않았다.

《방아가 없으니 어찌겠어요, 그건 저—우리 집 아이가 돌이 돼서 떡을 좀 하자고 그래요.》

삼녀는 저로서도 신통치 못한 거짓말을 꾸며대며 어떻게 모면할것인가 분주히 궁리했다.

김일성동지께서 관심을 가지고계시는 두 혁명동지의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통신이라고 하던 리용수의 말이 자꾸만 귀속을 울리여 가슴이 답답해날뿐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한놈이 쌀자루를 그렇게 찬찬히 뒤지는것을 보자 이쪽놈도 가만 서있기가 안됐던지 삼녀의 팔을 잡아끌었다. 그리고는 옷고름을 더듬

더니 머리로 손을 뻗쳤다. 요즘 부녀자들이 그런데 련락문건을 감추어 다닌다는것을 알아낸놈들은 몸수색을 심하게 하기때문에 일체 통신을 몸에 거두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놈의 더러운 손이 제몸에 와 닿는다는것을 느끼자 삼녀는 살을 떨었다.

《뭘 그러세요, 보고싶으면 내가 보여드려요.》하고 삼녀는 제먼저 머리태를 풀어헤쳐보이였다. 그 순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저 분서장님 지금도 편안하세요?》

《응 분서장? 분서장님을 아는가?》

《알지 않구요. 저의 주인과 아주 친한 사인데요. 만나거든 방아골친구네 집에서 래일모레 돌잔치를 차린다구 놀러 오라구 하세요. 나리님들도 같이 오세요.》

그것은 물론 거짓말이였다. 작년에 남편이 떠나간 뒤 령사관경찰에서 가택수색을 왔을 때 분서장이란놈이 따라나온것을 본적이 있고 그자가 뢰물을 좋아한다는 풍문을 들었을뿐이였다. 그러나 어리석은 순경놈들에게는 그만한 말도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

《방아골친구네 집이라면 서장님이 아시오?》

방금까지 수수쌀을 뒤지고있던 순경이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아첨기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방아골에는 서장님 친구라군 우리 집밖에 없어요.》

《그럴테지, 거긴 맨 가난뱅이들뿐이니, 그럼 잘 가시오.》

《밤길을 조심하시오. 요즘 공산당들이 무섭게 야단이요.》

삼녀는 먼저 구반일회장네 집에 들려 통신을 전하고 총총히 방아간으로 갔다. 그러나 거기서 우물거리다가 혹시 우둔한것들이 다시 방아간에라도 나타나든지 혹은 분서장에게 그 소리를 해서 무슨 사단이라도 일으킬가봐 사람이 많아서 래일 봏아야겠다는 핑게를 대고 돌아오고말았다.

집에서는 올케가 몇줌 가지고 온 풋콩으로 현아에게 비지를 한끼 해먹인다고 망질을 하고있었다. 밤늦도록 망질을 하며 두 녀인은 세상이야기를 하였다.

《형님.》

주삼녀는 세상이 험해만 간다고 개탄하는 올케를 웃음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이 그렇게 험하지만은 않대요. 이제 우리 나라도 독립할 날

이 멀지 않고 우리같은 어려운 사람들도 처지가 달라진대요. 우리도 저 아라사사람들처럼 혁명해서 사회주의를 한다나봐요.》

삼녀는 자기 말로 올케를 납득시킬 자신도 없었지만 또 그럴 처지도 아니여서 어디서 들은 이야기나 전하는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어이구, 마음같아서야 무엇을 못하리. 우리 영민이 아버지도 10여년이나 내 속을 썩여주더니 이젠 종내 물렸는지 나앉는것 같더라. 아라사에서 어찌구어찌구 했다는것도 그게 다 인물이 있어야 하는건데 우리 나라에 무슨 그런 인물이 있나?》

《우리 나라에도 백성들을 건져주실 큰 어른이 나서셨대요. 이젠 그분께서 세상에 나오시여 모든 일을 다 총섭하시기때문에 우리 조선사람 앞길이 환히 열렸다는거예요.》

삼녀는 망질하던 손을 멈추고 눈을 빛내이며 용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밤가는줄 모르고 하였다.

《하긴 나도 길림쪽에서 대단한 혁명가 한분이 이쪽으로 나오셨단 말은 들었지, 그래 그분 함자를 어떻게 쓰신다나?》

《그건 저도 잘 몰라요. 큰 혁명가이시니 아마 이름도 많으시겠지요. 그런데 흔히 **김일성**동지라구들 하더군요.》

《**김일성**동지? 그 참 함자도 훌륭하다. 날일자, 이룰성자라면 해님이란 말이지. 참 우리 조선사람들이야 여북 해님이 그리운 판인가. 그런분이 어서 나라를 찾아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나라를 찾아주시기를 기다리기만 해서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분께서 지시하시는대로 무엇인가 해야지. 그분께서는 왜놈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모든 조선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구 말씀하셨대요.》

《글쎄 그야 그럴테지. 모두 들고 일어나야지. 나라를 찾는 일에 너 남없이 다 일어서야 할것은 당연한 리치지.》

《호호호, 그러게 형님도 싸워야 한단말이예요.》

《뭐 내가? 원 이사람아, 그게 무슨 소린가? 나같은 아낙네가? 원 허허허.》

리순옥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던지 마치 남자들 같은 목소리로 한바탕 크게 웃었다.

《왜 웃으세요? 형님은 조선사람이 아닌가요?》

삼녀는 정색하여 말하였다. 식자도 그렇고 세상문리도 그렇고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 봉건적인 가정에서 태여나서 그저 녀자라면 집안에

꾹 박혀있는것이라는 관념으로 꽉 굳어져있는것이다. 몇해전까지의 자기 생각도 돌이켜져서 삼녀는 더구나 올케의 막힌 생각이 안타까왔다.

《조선사람이야 조선사람이지만 반값짜리 아낙네가 뭘 한단말인가?》

《왜 할게 없겠어요. 이번에 큰 투쟁이 벌어질거예요. 모두가 왜놈들과 악독한 지주놈들을 반대해서 들고일어나야 해요. 그때면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이 싸움에 참가해야 해요. 늙은이도 아이들도 다 참가하는데 반값짜리 아낙네라니 당한 말이예요. 우리 녀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제값을 깎고들지 누가 반값으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놈들이나 지주, 자본가같은것들이 우리 녀성들을 그렇게 무슨 짐승처럼 생각하지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아니 이사람아.》 리순옥은 망질하던 손을 딱 멈추고 열기오른 삼녀의 얼굴을 멀뚱멀뚱 들여다보았다.

《큰 투쟁이 벌어진다니 또 작년같은 폭동이 일어난단말인가? 어이구 끔찍해라. 그래 작년에 한번 겪어봤으면 무던하지 그때 흘린 피가 적어서 그 짓을 또 해?》

순옥은 더럭 겁이 나서 무릎을 바싹 끌며 말을 이었다.

《자네는 제발 덕분에 그 일에는 간참 말게. 현아 아버지도 안계신데 자네까지 그러다가 아이 일을 어찔 작정인가? 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살이 떨리네.》

《형님.》 삼녀는 진정이 넘치는 올케의 얼굴을 마주 들여다보며 그의 손우에 제손을 덧포갰다.

《걱정마세요. 이번 싸움은 작년과는 달라요. 작년에는 지도자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어요. 그저 우격으로 내밀었지요. 말을 들으니 목적도 똑똑치 않고 그저 때려부시자는 판이였대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일본놈들이 만주로 쳐들어왔기때문에 조선사람뿐아니라 중국사람들까지도 왜놈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불같대요. 그런데다 지금은 조직이 아무데나 꽉 뿌리를 박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이젠 **김일성**동지와 같은 령도자가 계시지 않아요? 우리에겐 모든 싸움을 이끌어주시는 지도자가 계신단말이예요.》

어느덧 열에 떠서 말하는 삼녀의 말을 들으며 순옥은 홀린듯이 빨갛게 번져가는 시누이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주빛댕기를 드려 커다랗게 틀어올린 낭자가 무거워 잠시도 얼굴을 들지 못하던 삼녀였다. 남편이 한글을 가르치려든다고 친정으로 도망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

기에게 국문을 깨쳐달라고 애원하던 시누이였다. 그런 시누이가 남정들도 감히 생각 못할 혁명의 리치를 말하고 나라 찾을 방도를 말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야 시누이는 여전히 얌전하게 토목수건을 쓰고 고생살이에 좀 여위기는 했으나 갸름한 흰볼에 말할 때마다 빨갛게 피가 번지는 귀인성스러운 남의 집 며느리였다. 하긴 제 오래비도 한때 젊은 혈기로 사회운동을 한다고 돌아다녔고 남편되는 사람이 이름난 혁명가이니 시누이가 친가로나 시가로나 혁명을 편역들 까닭은 많고 그래서 저역시 혁명가라면 지금이라도 온갖 시중을 다 들어줄 생각도 없지 않지만 이렇게 녀자몸으로 담차게 속이 영글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였다. 그러자 순옥의 가슴에는 새로운 근심이 안개처럼 서려올랐다.

《이사람아.》

순옥은 제손우에 덧놓인 삼녀의 가시 박힌 손을 제손으로 다시 포개여잡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말이 다 옳고 리치에 닿는 말이지만 제발 몸을 조심하게. 시가를 생각해봐야 하네. 시아버지가 독립군으로 집을 나가 객사를 했지, 시아주버니가 또 왜놈총에 맞아죽었지, 그밖에 집안에 나라일때문에 일신을 바친분이 한둘인가? 그 가위에 아이 아버지가 또 국사에 몸바쳐 나섰는데 자네까지 이러지 않은들 누가 뭐라고 하겠나. 자네는 이 집 가문을 지켜야 하네. 아이를 잘 키워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무슨 탈이 없어야 그게 남편 위하는 길이고 시댁 위하는 길이 아닌가? 내 소견엔 그게 나라 위한 길이라고도 생각되네. 이사람아, 난 왜 그런지 자네 말을 들으니 벌써부터 속이 떨려서 못견디겠는데 자넨 어쩜 그렇게도 도담한가?》

《호호호, 참 형님도, 우리 집이 그러니 나야 더 이 길에서 물러설수 없지 않아요. 하지만 난 너무나 약하고 마음이 헤퍼서 아무것도 해낼것 같지 못해요. 그저 마음만 간절하지.》

아까 초저녁에 당한 봉변이 생각나서 새삼스럽게 살이 떨렸다. 앞으로 그런 일을 얼마나 겪게 될지 모른다. 마음을 더욱 다지고 어떤 어려운 정황에서도 의젓하게 솜씨있게 일을 실수없이 처리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됐으면 하는 간절한 념원이 녀인의 어진 마음 한귀에 보이지 않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삼녀는 포대기를 차던지고 곤하게 자는 현아를 바로눕혀놓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염없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쯧쯧, 세월도 어수선하지…》 순옥은 다시 망을 돌리며 그저 외롭게 사는 시누이의 신상에 새로운 불행이 닥칠가봐 마음이 어두웠다. 그러나 그는 시누이의 그 아련한 모습과 소박하고 담담한 말마디들이 자기 가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그 당장은 몰랐다. 후날 그는 불붙는 혁명의 싸움마당에서 이 밤, 조용히 돌아가는 망소리에 가락맞추어 도란도란 울리던 삼녀의 말을 수없이 되새겼지만 어찌면 그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생활적인 말들이 자기 가슴에 그처럼 깊숙이 혁명의 불씨를 묻어주었는지 그 까닭을 선뜻 깨칠수가 없었다.

삼녀는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다. 아무런 강요도 강박도 없는 그의 진정의 토로는 그 어떤 화려한 선동연설이나 째인 교양자료보다도 사람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 그리하여 한때 뒤흔들리고있던 종성댁이며 한희도는 말할것 없고 많은 새 사람들이 싸움의 길에 들어섰다. 이미 삼녀의 주변에는 배나무골의 부녀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뭉쳐있었다.

그런것을 전혀 모르는 순옥은 삼녀의 말이 놀랍기만 하고 그에 비해서는 너무나 수수하고 아련한 그 몸가짐에 오히려 겁이 났다. 녀자가 저렇게 마음이 사무치고보면 무섭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것이였다.

밤은 깊어가고 망소리는 다르락다르락 이슥토록 그치지 않았다. 녀인들은 망질을 끝내고도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래오래 앉아서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날밤 방아골로 넘어온 두명의 출옥자들은 방아골 공청원들의 안내를 받아 감쪽같이 안전한 아지트로 피신하였다.

×

추수폭동은 벌써 사흘째 계속되였다.

배나무골, 방아골은 말할것 없고 동만천지가 모두 들고일어나 들썩하였다. 폭동군중은 나날이 늘어났다. 길은 싸움에 궐기한 농민들의 대렬로 메워지고 방금 가을을 하였거나 가을을 앞둔 들판은 함성으로 지동쳤다. 삐라는 현성의 관공서담벽에도 나붙고 장거리에도 뿌려졌다. 지주와 일제주구들의 문전에 《반동지주들을 타도하라!》는 구호가 큼직하게 나붙었다. 지주들은 쥐구멍을 찾고 반동주구들은 보따리를 꿍져 현성으로 달아났다. 진수사는 군대를 동원하였으나 워낙 수십만이 궐기한 폭동을

우격으로 탄압할 방법이 없어 괜히 위협을 할뿐 결정적인 공세를 취하지 못했다. 투쟁위원회는 규찰대를 통하여 폭동군중들의 대오를 든든히 꾸리는 한편 탈선행위를 엄격히 금지시켰다. 당초에 소작료를 3.7～4.6제로 제정할데 대한 성정부의 포고문을 들고 이를 실행하라는 요구조건을 제기한만큼 이를테면 합법적인 성격을 띤 이 투쟁을 탄압하고파도 찾아낼 구실이 없었다. 그러나 투쟁은 단순한 감조투쟁이 아니였다. 투쟁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는 첨예한 정치적구호를 내세웠다. 기마경찰대가 출동하여 시위군중의 앞길을 가로막고 혹은 지주집을 포위한 폭동군중들을 해산시키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으나 군중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삼녀는 투쟁위원회의 지시나 선전문을 가지고 구역으로 돌아다녔다. 장한 투쟁기세를 보는 그의 발걸음은 날개라도 돋친것모양 가벼웠다. 처음 폭동이 일어났을 때는 아닌게아니라 겁도 없지 않았다. 지난해의 폭동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가 자꾸만 머리속에 떠올랐다. 그러나 정작 싸움이 시작되고보니 이번 싸움은 처음부터 잡도리가 달랐다. 우선 조직이 사처에 꽉 뿌리박고 모든 농민들이 이번 싸움의 의의를 똑똑히 깨친 우에 일어났기때문에 처음부터 폭동은 빈틈없이 째여지고 그 규모가 또한 어마어마하였다. 기세도 무서웠다. 방금 일제가 만주로 기여들어와 여기까지 살길을 찾아온 조선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우리 조국을 영원히 삼키려든다는바람에 민족적감정이 격화된데다가 소작료문제는 추수철에 들어선 농민들의 절박한 생활적요구를 반영하고있었다. 게다가 투쟁위원회가 얼마나 든든히 꾸려졌는가? 어디에나 리용수와 같은 **김일성**동지께서 길러내신 공산주의자들이 이 싸움을 지도하고있었다.

방아골에서는 지주 장돼지네 집을 사흘째 포위하고 장돼지와 직접 담판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장돼지는 질겁하여 비밀지하통로로 해서 현성으로 도망쳐갔다는것이 보고되였다. 리용수는 즉시 방아골의 투쟁을 지휘하고있는 한계덕이에게 삼녀를 보냈다. 장돼지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가지고 선전선동을 하되 절대로 장가네 집에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현성으로 밀고 가라, 뒤따라 다른 구역의 폭동대렬도 그리로 집중시킬것이다, 장돼지가 빠져나갔으니 필시 경찰의 탄압이 예견되나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성정부의 포고를 가지고 뻗대라, 반동당국의 언질을 받아낸후에야 지주집을 습격할수 있다.—이러한 내용의 지시를 가지고 삼녀는 멀리 함성이 울려오는 방아골로 달렸다. 현아는 아

침부터 어디로 튕겨 달아났는지 보이지 않았다. 동네아이들은 사흘째 점심도 못먹고 때로는 저녁까지 굶었지만 신이 나서 막대기를 끌고 폭동대렬을 묻어다녔다. 삼녀는 말릴수도 없었지만 말릴 짬도 없었다. 통보는 비발처럼 날아들어오고 지시는 그칠새없이 날아갔다.

《규찰대의 역할을 강화하라!》

《밀정과 주구들을 경계하라! 폭동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사소한 동요도 제때에 방지하라!》

《핵심들을 보호하라!》

《구두선전을 강화하라!》

투쟁위원회의 한마디 지시에 따라 한줄에 얽힌것모양 수만군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노한 사자와 같이, 휩쓰는 물결과 같이 현성으로, 현성으로 밀려들어갔다. 삼녀는 조직의 힘, 단결의 힘의 위대함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리고 이렇듯 크나큰 힘을 길러내신 **김일성**동지께 참으로 뜨거운 감사의 정이 끓어올랐다.

반동당국의 승인을 얻어 장돼지네 집을 습격하고 농민들자신의 손으로 이미 바친 소작료를 되찾는 날 한계덕이는 삼녀의 몫을 맨먼저 찾아내여 달구지로 실어다 마당에 쌓아주기까지 하였다. 삼녀는 현아의 머리를 쓸며 눈물이 그렁해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현아야, 좋지?》

《응, 엄마. 장돼지가 녀자처럼 차려입고 내뺐대. 그게 우쭐거리더니 녀자가 됐대. 참 우습지. 야, 재미있다.》

《우리가 모두 싸워서 이긴거란다. 싸우면 이렇게 이길수 있단다.》

현아는 어머니의 말이 잘 리해되지 않았으나 마당에 가려지는 낟가리가 좋아 그저 손벽을 치며 깔깔거렸다.

×

노무라 다이사꾸는 《흑룡강동지회》의 수완있는 졸개 몇놈을 데리고 추수폭동이 시작되자마자 간도로 왔다. 조카의 당부도 있어서 앞으로 만주경영에 큰 장애를 만들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여러모로 궁리하였으나 워낙 조선농민들의 투쟁기세가 예상외로 높았기때문에 당국의 우유부단한 양보가 마음엔 들지 않았지만 달리 손을 써보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때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을 다이사꾸가 아니였다. 령사관경찰이 장악한 자료들을 통해 이 투쟁이 벌써 5.30폭동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고있고 이 투쟁을 지도하는것이 든든히 뿌리박혀있는 공산주의조직이라는것을 간파한 그는 이 기회에 아예 그 뿌리를 들추어내여 뽑아던져야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그리하여 자기 수하 졸개들을 시켜 도처에 밀정들을 박아넣었다. 그러나 뿌리를 들추어내기는 간단하지 않았다. 심양에서는 새로 상강지구에 벌릴 이민사업이 기다리고있었고 정치범석방과 관련된 사업도 아직 미진한채 기다리고있었다.

《빌어먹을, 조선놈들 사는 동네는 모조리 불살라버려라! 의심스러운놈들과 컴컴한 동네를 몽땅 요정내는 날이면 공산주의조직도 제절로 없어질것이다.》

다이사꾸는 헌병대장놈과 령사관 경찰부장놈에게 소리쳤다.

아끼시마라는 《흑룡강동지회》의 밀정놈이 방아골 장돼지네 집에 나타났다는 통보가 있었다. 중놈, 엿장사, 넝마주이 등 갖가지 복색으로 가장한 형사놈이 배나무골에도 나타났다. 폭동에 승리한 농민들의 기세는 무서웠으나 이 기세를 계속 보존하며 동시에 반혁명의 복수에 대해 대오를 결속하고 사소한 손실도 미연에 방지해야만 하였다. 동만의 다른 지방에서는 아직도 투쟁이 끓고있는데도 있어서 투쟁위원회는 여전히 자기 사업을 계속하고있었다. 리용수의 지도하에 조직된 마을의 아동단과 소년선봉대 그리고 공청원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경계근무를 섰다. 지난 투쟁때 드러난 각 대중단체의 책임자들과 핵심들은 일시 몸을 피신하게 하고 투쟁위원회성원들은 밤에만 산밑에 있는 농막에 나가 있으면서 한동안 사업하다가 적의 준동이 점점 심해지자 아예 뒤산 자연굴속으로 자리를 옮아앉았다. 등사기도 그리로 옮겨서 선전물사업도 하였다.

삼녀는 계속 통신공작을 하면서 투쟁위원회성원들에게 식사를 보장하였다. 부녀회에서 쌀을 모았다. 밥을 나르는것은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삼녀가 혼자 맡았다. 새벽이슬을 밟으며 밥함지를 이고 갔다가 해가 뜨기전에 돌아왔다. 밤에는 사람들이 잠들어야 동네를 벗어나서 재밤중에 돌아오군하였다. 캄캄한 밤, 으슥한 산모퉁이를 혼자 돌다가 나무숲에서 밤새라도 후드득 깃을 치고 날아나면 삼녀는 가슴이 철렁해서 온몸에 식은땀을 쭉 뽑고 한동안 놀라 서있군하였다. 짐승들도

가끔 나타났다. 그러나 제일 무서운것은 사람이였다. 산길에서 벗어나 들로 접어들다가 어디선가 멀리 기침소리라도 나면 삼녀는 귀신이라도 만난듯이 온몸이 굳어져버리고 심장이 뚝 멎는것을 느꼈다.

매 밤, 매 걸음이 삼녀에게는 강심을 먹고야 움직여지는 간고한 걸음이였다. 그렇게 온몸이 식은땀에 함빡 떠서 집으로 돌아오면 벌써 스산한 랭기가 풍기는 캄캄한 방안에서는 현아가 홀로 깨여나서 말뚱말뚱 앉아있다가 발자국소리를 듣고 문을 벌컥 열며 《엄마—》하고 울음섞인 소리로 불렀다.

《왜 안자고 깨여났니? 현아는 다 큰게 못나기도 했다.》

삼녀는 급히 함지박을 아무렇게나 토방에 내려놓고 얼른 딸을 꽉 껴안았다. 그러면 어둠속에서 현아의 조그만 손이 뻗어와서 목을 꽉 움켜안는것이였다.

《엄마, 치마가 또 젖었어.》 이윽고 현아는 어머니의 눈을 들여다 보며 천연스레 말하는것이였다. 그때마다 삼녀는 가슴이 아파 아이를 한옆에 끼고 자리에 쓰러지면서 어딘가 멀리 있을 남편을 그리는것이였다.

어느날 새벽이였다. 현아 몰래 일어나 불찌가 새여나가지 않게 굴뚝을 거적으로 씌워놓고 밥을 지은 삼녀는 불기 없는 굴속에서 밤을 새운 동지들을 생각하여 헌 누데기나마 밥이 식지 않게 두툼히 함지박을 덮어가지고 급히 어둠속을 나섰다. 대륙의 10월밤은 벌써 겨울이나 다름없게 싸늘했다. 별빛이 아직도 땅땅 여문 하늘에 은하수만이 희슥하게 색이 바래가고있었다. 우수수 나무잎이 떨어져서 치마자락에 휘감겼다. 산모퉁이를 돌아서니 캥캥하고 여우가 울었다. 매 밤 들어야 매 밤 머리끝이 곤두서는 소리였다. 삼녀는 어금이를 악물고 바위너설이 비죽비죽한 산굽이를 돌았다. 그 굽이가 그중 험한 모퉁이였다. 골짜기가 패인 그쪽 기슭은 달빛도 잘 비쳐들지 않아 거기를 돌때마다 삼녀는 매번 야릇한 신음소리같은 을씨년스런 소리를 느끼는것이였다. 바위츠렁을 돌아서면 키넘게 자라난 억새가 설렁거리는 밋밋한 등성이였다. 그 등성이끝이 바로 이 바위츠렁과 잇달린 산꽉대기로서 그 밑창에 그 옛날 호랑이가 살았다는 깊숙한 굴이 있었다.

삼녀는 밥이 식을가봐 억새글기에 걸채이는 치마자락을 부여잡고 부지런히 등성이를 올라갔다. 쌀쌀한 바람이 그 녀자의 마음을 까닭없이 초조하게 만들었다. 이제 머지 않아 눈이 내릴터인데 그때면 용수동지랑 계덕이랑 어떻게 한지에서 견딜것인가? 그전에 어서 무슨 마련을

보아야 할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번번한 등성이를 다 올라온 삼녀가 이제는 좀 물매가 급해지는 산꼭대기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틇는데 설렁거리는 무연한 억새발속에서 번쩍 하고 불이 켜졌다가 사라졌다. 삼녀는 가슴이 덜컥하였다. 반디불인가? 아니다, 틀림없이 무슨 소리가 났다. 다음순간 가슴은 쾅당쾅당 방망이질을 하고 아래도리가 비칠거렸다. 삼녀는 소리 안나게 무릎을 꾸부리고 풀숲에 몸을 숨기였다. 또 불이 반짝한다. 이번에는 제법 오래 빤하게 비쳤다가 사라졌다. 정신을 가다듬으니 담배냄새가 풍겨온다. 혹시 우리 동무들일가? 누가 담배를 피우는구나 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귀에 선 사람의 목소리가 웅얼웅얼하였다.

《에—쌍, 이거 더러워서 어디 해먹겠나…》

틀림없이 왜놈의 목소리다.

《참을성있게 기다리게. 이젠 무언가 나타날 때도 됐어. 이 어방에 무엇이 있다면 제놈들이 어디로 가겠나?》

삼녀는 극도로 조심을 두고 하는 이런 웅얼거림을 들었다. 말뜻은 왜놈의 소리라 알아들을수 없었다. 원체 목소리가 낮아서 조선말이라 해도 분간하기 어려웠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원쑤들이라는것 그리고 이 근방에 아지트가 있는것을 눈치채고 매복을 하고있다는것만은 충분히 짐작할수 있었다. 지금은 아직 어두우니 그렇지 이대로 날이 밝는다면 굴속에서 인적을 낼 념려도 있다. 혹 굴속에서 이런 상태를 짐작했다 하더라도 눈치를 보니 사람이 드나들수 있는쪽은 저놈들이 죽 둘러싼 모양이니 만일 저놈들이 검질기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망을 본다면 필경 불행이 일어나고말것이다.

삼녀는 눈앞이 아찔하였다. 굴속에는 리용수를 비롯하여 투쟁위원회의 지도간부들이 다 모여있다. 그 사람들은 현내의 조선사람들의 운명을 두어깨에 걸머진 사람들이다. 특히 리용수는 직접 **김일성**동지께서 이곳 인민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공작원이다. 리용수를 통하여 그이의 뜻이 이곳 조직에 전해지며 리용수를 통해 이곳 인민들의 간절한 념원이 그이께 반영된다. 리용수가 없고보면 오직 **김일성**동지 한분을 믿고 싸우며 살아나가는 이곳 인민들이 어떻게 될것인가? 리용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곧 이 나라 겨레들을 건지시기 위해 밤낮으로 잠못 이루신다는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받드는것이며 그이의 사상을 지키는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어찌랴, 자기의 여린 힘으로 그들을 구해낼

방법이 없다. 자신이 붙들릴셈치고 소리를 치고싶어도 그 소리는 굴안의 동지들에게 더욱 위험을 보태줄뿐일것이다. 적들은 자기들의 포위속에 동지들이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겠지만 굴안의 동지들은 설혹 위험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이미 포위된만큼 빠져나갈 길이 없을것이다.

촉박한 위험을 느끼면 느낄수록 머리속이 웅웅 울고 눈앞이 어찔어찔할뿐 아무런 방도도 떠오르지 않았다. 쪼크리고 앉은 다리가 소리날만큼 후들거렸다. 그래도 삼녀는 강심을 먹고 분주히 생각을 더듬었다. 남편이 체포될 때 포위한 적들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제먼저 뒤울을 넘어 뛰였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저놈들을 딴데로 끌고가야 한다. 저놈들을 어떻게 끌고갈것인가? 과연 저놈들이 굴이 여기 있다는것을 알고 왔을가? 알고있다면 왜 이렇게 풀숲에 몸을 숨기고 밤을 새우며 지킬가? 혹은 굴안의 동지들은 이미 다 잡히고 나를 잡기 위하여 지키고있는것이나 아닐가? 아니다, 그럴수는 없다. 저녁밥을 갖다주고 돌아간것이 불과 몇시간 안된다. 저놈들은 그저 이 근방에서 무슨 수상한 눈치를 챈데 불과할것이다. 이 어방에 무슨 굴이 있다는것도 토배기가 아니면 모르는데 토배기들이란 모두 우리 사람들이다. 요즘 동네에 밀정들이 많이 나다닌다니 혹이 근방에서 공작원들이 드나드는것을 한두번 목격했을수도 있다. 혹은 마을에서 누군가를 따라오다가 이 근방에서 놓쳐버렸을수도 있다. 누구든지 이 굴로 들어올 때는 산기슭에서 뒤를 똑똑히 살피고 일단 다른쪽으로 해서 자취를 감춘 다음 비밀통로를 거쳐 들어가게 되여있다. 그러니 이 근방에서 누군가를 놓치고 멀찍이 그물을 친것인지도 모른다. 틀림없이 그렇다. 그러나 위험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놈들을 어데로 끌고가야 할텐데 저놈들을 어떻게 하면 끌고갈것인가?

삼녀의 머리속은 마침내 깨여지는듯 왕왕거렸다. 저놈들이 나를 따라오게 하자면 내가 여기로 오는것처럼 꾸미고, 그리고는… 그리고는 어데로 갈가? 장돼지네 농막이 있던 쑥밭으로 해서 강가 버들숲으로 끌고갈가? 그렇지만 동지들에게 어떻게 련락할가? 내가 도망칠 때 저놈들이 총이라도 쏘아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하여튼 가자, 저놈들이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동네로 끌고가지. 내가 잡힌것을 알면 자연히 조직에 보고될것이다.

벌써 별들이 한둘 자취를 감추고 동쪽하늘이 불그레 물들어간다. 광야에 바람이 분다. 아직도 어둠에 잠긴 끝없는 대지우에 연하게 연하게 노을이 번져간다. 설렁대는 억새숲에 조용히 허리를 일으킨 삼녀는

새삼스레 어둠에 잠긴 먼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잠깬 바람이 그 녀자의 옷자락을 날리고 머리카락을 날렸다. 삼녀는 이마우에 흩어지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왜 그런지 말없는 대지가 그리워지는것을 느꼈다. 아직도 어둑한 산발너머 고향쪽 하늘우에 새별이 빛나고있었다.

삼녀는 이윽토록 별을 바라보고있다가 문득 저앞에서 무엇인가 중얼거리는 적들의 목소리를 다시금 들었다.

삼녀는 살그머니 자리를 떠서 올라온 길을 한참 되내려갔다. 여기서는 굴과의 거리가 너무나 가깝기때문에 딴 길로 돈다 해도 적들이 쉽게 속아넘어가지 않을것만 같아서였다.

올 때 그처럼 머리끝이 쭈뼛해지던 그 후미진 바위너설아래까지 되돌아내려왔다. 이번에는 여우소리도 안들렸지만 아무런 겁도 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자연스레 저놈들에게 인적기를 느끼게 해야 한다. 삼녀는 일부러 큰 돌을 하나 벼랑으로 굴려놓고 《에그마—》하고 낮게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아니나다를가 억새밭이 술렁댄다. 무엇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잠간 나더니 낮은 구령소리같은것도 들려왔다. 그러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저놈들도 들키지 않을 작정으로 무던히 조심을 두는것이다. 삼녀는 함지를 이고 재빨리 억새밭을 헤치고 그놈들과 반대쪽으로 산굽이를 돌았다. 두그루 자작나무가 선 기슭을 돌면서 피뜩 돌아보니 멀찍이 허리구부린 두놈이 따라오고 가을을 끝낸 강냉이밭쪽으로 또 몇놈이 짚낟가리에 붙어돌아가며 자기 뒤를 조이고있다. 장돼지네 농막에 와서 삼녀는 모르는것처럼 하고 밥함지를 내려놓고 잠시 땀을 들였다. 돌아다보니 여섯놈이 풀숲이며 강냉이짚낟가리, 혹은 땅바닥에 기겁을 하여 나가 엎드렸다.

삼녀는 갑자기 마음속이 확 트이는것을 느꼈다. 이제는 굴속의 동지들도 덜 위험하게 되였다. 겉으로 보기에 무시무시한것 같이 보이던놈들도 정작 마음을 먹고나서니 하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였다. 훤히 밝아오는 새벽빛속에 며칠전 피뜩 본 아끼시마라는놈의 안경이 번쩍하였다. 키가 껑충하고 버쩍 마른 그놈은 강냉이짚단뒤에 숨어서 동정을 엿보다가 삼녀가 그리로 홱 눈길을 돌리니 기겁을 해서 깃을 일으켜세운 봄외투자락을 한옆에 비죽이 내여민채 목을 움츠렸다.

그때였다. 《앗, 저것! 저리로 뛴다!》하고 한놈이 웨쳤다. 몸을 숨겼던놈들이 일시에 허리를 일으키고 산꼭대기쪽을 바라보았다. 삼녀

는 말뜻은 몰랐으나 본능적으로 사태를 짐작하였다. 고개를 돌려보니 희슥한 억새밭을 헤치고 검은 그림자가 비호같이 달려간다. 계덕이다! 그러니 다른 동지들은 먼저 몸을 피했는가? 아마 그들도 포위된것을 알고 기회를 엿보다가 재빨리 위험에서 벗어져나간것이 틀림없다.

《속았구나!》 아끼시마가 한팔을 쳐들어 홱 허공을 베더니 날카롭게 소리쳤다. 《추격! 저년도 잡아라!》

네놈은 도로 산꼭대기쪽으로 달려갔다. 권총을 저마다 뽑아들고 구을듯이 달려가는 원쑤들을 보자 삼녀는 밥그릇과 된장찌개를 얼른 땅을 파고 묻었다. 그리고는 함지만 머리에 이고 저만치 떨어져있는 버들숲을 향해 죽을 기를 써서 달렸다. 가을한 번번한 수수밭이 새벽어둠속에 누워있었다.

《서라, 쏜다!》 아끼시마의 멱따는것 같은 고함소리가 들렸다.

《서라, 서라!》 다른놈이 웨치며 따라왔다. 어수선한 발자국소리를 들으며 삼녀는 뒤도 안돌아보고 마구 뛰였다. 그러나 버들숲은 아직 멀고 뒤따르는놈들의 발걸음은 점점 죄여들었다.

삼녀의 머리속에는 번개같이 현아의 모습이 떠올랐다. 수수그루턱에 걸려 넘어졌다. 함지박이 저만치 나가떨어졌다. 삼녀는 이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 함지박을 배밀이를 해서 움켜잡자 또 달렸다. 여태 아이 생각이 안떠오른것이 이상하였다. 내가 붙잡히면 현아는 어떻게 될가? 아— 남편과 헤여지던 강기슭의 버들숲이 눈앞에 있다. 남편이 곁에 있으면 물어보기라도 하련만…

훤히 동터오는 하늘이 눈앞에 희슥하니 비꼈다가 핑그르르 옆으로 돌아갔다. 새벽공기를 가르며 총소리가 땅! 땅땅! 연거퍼 세방을 울렸다. 삼녀는 다리가 화끈하는것을 느끼며 버들가지를 휘여잡고 번듯하게 나가넘어졌다. 하늘은 다시 똑바로 섰다. 별이 눈물이라도 짓듯 파르르 떨고있었다.

×

전 만주와 조선국내까지 진감시킨 동만조선인민들의 추수폭동은 수천수만 농민들의 절실한 념원을 반영한 정확한 정치적 및 경제적 투쟁구호의 제기와 능숙한 지도의 보장, 그 규모와 조직성, 그리고 반동세력들의 무력적탄압속에서 3개월간이나 진행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절한 그 줄

기찬 투지와 완강성, 복잡한 정황들의 능숙한 처리와 투쟁대오의 주도세밀한 편성 등에서 이미 앞서 있었던 어떤 투쟁과도 같지 않은 새로운 질적 비약과 발전을 보여주는 수많은 특징들을 간직하고있었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그이께서 파견하신 공작원들의 직접적조직에 의해 진행된 추수폭동에서의 커다란 승리는 야수적인 반동공세앞에서 어느 정도 풀죽어있던 조선인민들에게 단결된 힘은 불패이며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심을 안겨주었다. 투쟁은 갈수록 더욱 고조되여 1931년 9월부터 이해 12월까지 완강하게, 줄기차게 끌고가는동안에 무려 10여만의 농민들이 이 투쟁대오에 들어섰다. 싸움의 나날에 사람들의 의식성과 조직성은 더욱 높아져서 여러가지 반일단체와 혁명조직들이 더욱 늘어나고 억세여졌다.

노무라 다이사꾸란놈은 일단 심양으로 돌아왔으나 자기의 한팔처럼 믿고있는 아끼시마로부터 매일같이 보고를 받고있었다. 그는 동만조선농민들의 폭동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들을 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카와도 의견을 나누어보았고 도히하라나 이다가끼 같은 관동군의 실권자들과도 의논을 해보았는데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의견이 반드시 **김일성**이란 지도자가 동만으로 간것이라고들 추단하였다. 아닌게 아니라 노무라도 미타한 생각이 없지 않았다. 간도지방은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이 개척한 땅이다. 그렇기때문에 간도에 가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조선적인 분위기이며 생활풍습과 감정 역시 그대로 조선적이라 조선보다 자연이 거칠다 하지만 고향을 등지고 온 조선사람들이 그대로 조선에서의 생활을 연장하고있었다. 간도의 주민구성에서 조선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중국관리들이 원주민의 리권문제를 자주 들고 나오지만 다이사꾸가 보기에도 사실 간도땅의 원주민은 전통적으로 보나 법문적으로 보나 조선사람이라는 편이 훨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장차 바로 이러한 특성에 튼튼히 발붙이고 서서 간도에서의 치안을 유지할 방책을 세워야 할것이라고 일치하게 군부와 외무성의 실력가들이 말하고있고 며칠전에 만난 늙다리 관동군사령관 혼죠시게루대장같은 허수아비까지도 그런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의 문제이다. 당면해서는 우선 새발에 번져가는 불길같은 폭동을 갈앉혀야 한다. 다이사꾸는 아끼시마에게 조직의 줄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여 지도자급의 인물을 하나 잡아야 한다고 각별히 주의를 주었다. 워낙 아편밀수업자로 동양천지를 안다녀

본곳이 없는 아끼시마는 동양의 모든 말에 통해있을뿐아니라 머리가 면도칼같이 날카로왔다. 아끼시마의 골이 뒤꼭뒤가 뾰족한것이 아무래도 성실성은 없다고 보아왔고 또 벌써부터 자기 지시뿐아니라 관동군 특무기관으로부터도 직접 공작비를 받고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나까무라대위 실종사건》을 만들어낼 때부터 이러한 일에서 익달이 돼온 그의 수완만은 다른데서 빌릴곳이 없었다.

당면한 추수폭동이 방금 만주를 목구멍으로 넘기는 참인 이 마당에서는 준치가시같아서 목젖에 딱 걸려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게 할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 그런것만큼 이것을 우선 뽑아던지면서 장차 계속 배속을 불안하게 만들 우환덩어리를 지금부터 없애버려야 할것이였다. 그래서 불을 끄는것은 우둔한 경찰이나 군대에 맡겨두고 너는 날쌘놈들을 골라서 깊이 농군들속에 들어가 어떻게나 연줄을 찾아서 지도자급의 인물을 잡아내야 한다, 한놈 잡아가지고 그 줄을 잘 잡아 당기면 **김일성**의 행처를 알게 될는지도 모른다— 이런 지시를 주었던것이다.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아끼시마의 공작은 수일전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더니 드디여 현투쟁위원회의 거물들이 피신한 비밀아지트가 있는 지역을 탐지하고 매복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고 뒤이어 그 범위를 점차 압축하여 이제는 한개 중대 인원만 풀면 능히 일망타진할수 있는데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 다이사꾸는 군대나 경찰을 동원하는것을 반대하였다. 일을 들썩하게 해놓으면 줄은 끊어지고 만다. 그러면 줄기나 가지는 자를수 있되 뿌리는 못뽑는것이다. 그리하여 다이사꾸는 계속 너희들 힘으로 압축하여 다문 몇놈만이라도 잡으면 대성공이라고 고무하고 공작비를 다시 보내줄것을 은근히 암시하였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였는가? 한 계집에게 얼려 거의 그물안에 다 들어왔던 큰 고기는 놓치고 계집만 잡았는데 이것은 또 어찌나 독한지 《흑룡강동지회》의 이름난 고문명수들이 번갈아 번을 대며 갖은 최신식 수법을 다 써보았으나 아무런 보람이 없다는것이다.

실로 태산이 운끝에 나타난것이 무엇인가? 아끼시마가 직접 다루었다니 그 녀자의 입을 벌리게 할 사람이나 수단이 달리 있을수가 없다. 더구나 나쁜것은 튀여 달아나는 아지트의 거물들을 붙잡으려고 유혹에 못이겨 그만 현지에 주둔하는 군대와 경찰까지 풀었다는것이다. 일은 들썩하게 벌려놓고 《흑룡강동지회》의 정체까지 폭로시키면서 얻어낸것이 무언가? 장차 그 지방에서 활동할 지반까지 흔들렸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다이사꾸는 화가 꼭뒤까지 치밀었다. 그는 왜옷자락을 활 헤치고 앞가슴의 더부룩한 털을 벅벅 쥐여뜯으며 전화통에 대고 소리쳤다.

《그년을 농군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죽여라! 이미 물든 빨갱이를 잡지 못할바에는 앞으로 생겨날 빨갱이라도 없애야 하겠다. 제국을 반대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것을 그 무지한것들한테 똑똑히 보여주어라!》

×

삼녀의 사형집행을 맡은 현지의 헌병중대장 구마모도란놈은 권연 한대를 꺼내여 엄지손톱에다 톡톡 쳐서는 집추녀로 번져가는 불길속에서 불달린 지푸래기 한끝을 쥐여 불을 붙였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불은 당장 끌수도 있고 또 포승을 풀어 버리면 너는 살수도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널름널름 번져가는 불길이 얼굴을 쬐였지만 헌병중대장은 독기어린 웃음을 입가에 띠우고 태연한 자세로 서서 말했다. 번쩍거리는 그놈의 안경알속에 활활 번져가는 불이 벌겋게 비쳤다.

삼녀는 살을 파고드는 바줄이 거북하여 몇번 어깨를 비튼 다음 이마며 머리우에 날리는 재티를 흔들어 털고 마당밖에 죽 둘러선 동네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비죽비죽 총창이 서있다. 왜놈군대와 경찰에게 강제로 끌려나와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고있는 그들의 얼굴에서, 그 불타는 눈들, 악물린 입술, 이마에 새겨진 깊은 주름살들 그리고 가까스로 울음과 아우성을 참고있는 낯익은 얼굴들의 비통한 표정에서 자기의 고통을 짐작하였으며 자기의 최후를 의식하였다. 불길은 이미 헛간에 번져 그앞에 서있는 배나무에 불찌가 튄다. 황이 든 배나무잎사귀가 배배 탈려간다. 현아가 돌을 집어던지군하던 그 배나무에는 아직도 노랗게 익어가는 배가 두세개 달려있다. 현아는 어디에 있는가? 아끼시마란놈이 심문할 때 아이를 어찔것처럼 위협했지만 조직에서는 벌써 아이를 빼돌리고 자기에게 그런 련락까지 해주었다. 앞으로도 자기가 철석같이 믿은대로 동네사람들은 끝내 아이를 지켜줄것이다.

저러한 사람들속에 맡기고 가는 이상 현아는 어떤 놈들의 간악

한 손길앞에서도 막아줄것이다. 그렇다, 현아는 튼튼하게, 행복하게 자랄것이다. 이젠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니 우리 현아는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될것이다. 천천히 둘러보는 삼녀의 간절한 눈길에는 신심이 어려있다. 자기 눈을 마주 바라보는 수많은 눈들, 눈들… 불빛이 이글거리는 그 눈들에는 죽음앞에 선 자기에게 앞으로 투쟁을 다짐하는 말없는 결의가 어리여있다. 그가운데는 종성댁의 눈도 한희도아바이의 눈도 있다. 자기가 처음 이 세상 리치를 깨우쳐주고 혁명의 길로 이끌어들인 아낙네와 처녀들의 눈도 있다. 아직 조직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장차 틀림없이 투쟁의 길에 나서리라고 믿고싶고 또 믿어지는 그러한 얼굴들, 올케 순옥이며 이웃집 새각시며 그밖에 모든 사람들이 복수를 다짐하듯 주먹을 틀어쥐고있다. 저 사람들은 앞으로도 조직을 통하여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게 될것이다. 나는 비록 죽더라도 저 사람들은 나대신 두곱세곱 혁명을 위해 일해줄것이다. 저 그리운 사람들을 **김일성**장군님의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주는 그 조직을 지키다가 죽는다는것은 얼마나 장한 일인가! 저 사람들에게는 **김일성**장군님이 계신다. 그리고 저 사람들속에는 나의 귀여운 아이도 있다.

《그래 할말이 없느냐?》

헌병중대장놈이 한쪽다리를 까불며 후 담배연기를 내뿜으면서 재차 물었다. 놈은 태연한척하지만 무척 뜨거운것이다. 그래서 상이 잰내비처럼 새빨갛게 익어가지고 가끔 바람결에 불길이 널름거리면 저도 모르는사이 고개를 짓숙이거나 외면하는것이다. 나도 저렇게 얼굴이 빨개졌을가? 나는 곱게 죽고싶다.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답게 죽고싶다. 혁명가 박진규의 안해답게 떳떳하게 죽고싶다. 후날 **김일성**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좋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 현아가 어머니를 아름답게 추억하도록 어머니답게 어엿하게 죽고싶다.

와르르 용마루 한끝이 무너지더니 산더미같은 불길이 마당까지 번져왔다. 삼녀의 머리우에 불찌가 튀였다. 배나무에 불길이 번져 정수리를 와스스 떨면서 락엽을 털었다. 밑그루가 그슬리자 배배 탈려가는 가지에서 한쪽이 까맣게 그슬린 배 한개가 뚝 떨어졌다.

군중속에서 흐느낌소리가 들려온다. 누군가 울지 못하게 엄한 목소리로 꾸짖는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울음이 아무 소용에도 닿지 않는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 기어코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 독한년아, 정 안댈테냐? 타죽고싶으냐?》

헌병중대장놈이 더는 참을수 없어 빽 하고 소리쳤다.

삼녀는 멍하니 열기에 괄아서 발광해버린듯한 왜놈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잘 처먹은놈이 뼈다구가 앙상하게 바싹 여윈게 새빨갛게 익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제법 기광을 부리노라고 담배연기가 피여나오는 코구멍에는 비죽이 코털이 내밀고있다. 친정아버지가 말하기는 그런 상을 한 놈은 천생 빌어먹는다는것이였다.

《뜨겁거든 저리 가거라, 나는 할말이 없다!》

《뭐야!》

헌병중대장놈은 저도 모르는 사이 담배를 홱 집어던지고 권총을 뽑아들었다.

《이년, 정말 죽고싶으냐?》

《이 원숭이같은놈아, 조선의 아낙네들은 네놈들 오랑캐들처럼 한입으로 두말을 하지 않는다. 저리 썩 물러가라!》

삼녀는 열에 못이겨서가 아니라 증오에 못이겨서 몸을 비틀며 왜놈의 상판에 침을 탁 내뱉았다.

이 순간 억지로 참고 견디여오던 헌병중대장놈의 참을성은 마침내 끝이 나고말았다. 그는 약이 오르다 못해 그것이 당초의 자기 계획이나 아끼시마의 엄격한 지시에 위반된다는것도 모르고 땅, 땅 권총을 발사해버렸던것이다.

《현아야—》

삼녀는 목청껏 아이의 이름을 부르느라고 하였다. 그러나 벌써 목이 잠겨 말이 잘되지 않았다.

눈앞이 어릿어릿하더니 점점 흐릿해졌다. 누가 누군지 분간할수 없는 숱한 얼굴들이 뒤엉킨다. 삼녀는 조용히 작별인사를 하였다.

《여러분, 편안히들 계세요. **김일성**장군님 모시고 혁명에서 기어코 이기세요.》

불달린 배나무는 탁탁 튀면서 타들어갔다. 장가지 하나가 몸을 배배 비틀더니 뚝 하고 한복판이 부러져내렸다. 와스스 락엽이 흩어졌다.

와— 군중이 설레였다. 그속에서 《엄마—》하고 발버둥쳐 부르는 현아의 목소리를 삼녀는 최후의 의식속에 들은것만 같았다.

(장군님! 우리 현아를 건져주십시오. 저는 장군님만 믿고 갑니다. 현아야! 아버지가 돌아오거든 이 말을 해라.)

13

강물은 차거운 랭기를 뿜으며 흐느끼듯 천천히 흘러갔다. 엷은 해빛이 이따금 강우에도 어렸으나 보는 눈에 더욱 을씨년스러울뿐이다. 말똥내,소똥내가 코를 찌르고 우마차와 인력거로 붐비는 거리를 지나 북산을 바라보는 이 기슭에 나서니 시원은 하나 마음은 더욱 초조해질뿐이다.

유철은 김기창을 데리고 사흘동안이나 거리를 헤매다녔다. 왜놈군대가 활개짓을 하며 행진해다녔다. 큰 건물들, 상점들, 기관들에는 왜놈의 기발이 날리고있었다. 번화한 거리에는 양복을 입었거나 왜옷을 걸친 첫눈에도 얌치없어보이는 족속들이 분주히 오갔다.

9.18사변에 대한 소식을 유철은 이미 감옥에서 들었다. 이 사변은 비록 예기는 하고있었다지만 정치범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니 졸지에 나라를 잃게 된 군벌정권의 하부관리들가운데는 당황망조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전옥이 며칠째 나타나지 않는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이런 불안한 분위기속에서 조선사람정치범을 무조건 석방한다는 연극놀음이 벌어진것이였다. 떨떨한것은 감옥측뿐아니라 석방되는 당자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몰라하였다. 그러나 내막이야 어떻든 우선 석방된다는것은 나쁠것이 없다. 어쨌든 풀려난이상 다시한번 용감하게 싸워보자고 저마끔 결의를 다지면서 저주로운 감옥문을 나섰다. 더구나 유철이 같이 중형선고를 받고있는 사람들에게는 뜻밖에 차례진 이 기회가 꿈같이 생각되였다. 그러나 유철은 이것을 다행으로만 생각할수 없었다. 벌써 정치범들을 그처럼 포악하게 다루던 간수들도 유독 조선사람정치범들만 석방하라는 말을 듣자 원래 조선놈들은 왜놈의 앞잡이라는 말들을 한다는것이였다. 그러니 이 사실이 의식수준이 낮은 일반주민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는 너무나 뻔하였다. 바로 여기에 약고 좀상스런 왜놈들의 계교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혁명을 하는데 주저할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유철은 김기창을 데리고 사흘동안이나 혁명의 길을 찾아 헤매는것이였다. 여기서 **김일성**동지께서 활동하셨다니 필시 무슨 선을 찾아낼수 있을지 모른다. 감옥에서 함께 나온 사람들을 수소문하면 그 줄을 못찾을것도 없을것이다. 좀 막연하지만

이런 타산을 세우고 조선사람들이 많이 사는 우마행대도로 주변이며 덕승문언저리를 살살이 뒤지다싶이하였다. 그러나 만나뵈올 길은 없었다.
《틀림없이 동만쪽으로 나가신겁니다. 그 동지가 돈화에서 지도를 받다가 잡혀왔다니 지금도 돈화에 계시거나 간도쪽으로 나가신게 틀림없어요. 지금 동만에서 싸우는걸 보십시오. 이건 벌써 큰 지도자가 계신다는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김기창은 찬바람에 어깨를 으쓱 솟구며 말했다.
유철도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추수폭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인차 그런 생각을 하였다. 마음은 화살같이 간도로 달렸다. 그러나 조선혁명을 지도하실분이 활동하셨다는 이 유서깊은곳에 머물러있으면서 찾아보지도 않고 무턱 떠오르는 생각대로 가버릴수는 없었다. 그래 여기서 알수 있는 연줄을 다 톺아 알아낸 결과 길림에는 그이께서 계시지 않는다는것이 확실하였다.
《내 생각에도 그런것 같소.》 유철은 강물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정말 여기서 만나뵈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이 말씀을 듣고 과업을 척 받고 이렇게 떠난다면 좋겠는데…》
유철이가 몹시 섭섭해하는 눈치를 채고 김기창이 역시 이렇게 덧붙였다.
《참 공교롭게 되였소. 그때 하루만 여유가 있었어도 혹시 그 공작원동무를 통해 만나뵈올 길을 찾았을수도 있을번했는데…》
《그러게말입니다. 아마 탈옥은 외부에서 조직하다보니 그 동지도 탈옥날자는 전혀 예견 못했던모양입니다.》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이야기를 들려준 이미 탈옥해나간지 오랜 공작원을 새삼스럽게 아수하게 회상하였다. 김기창은 공작원이 총총히 탈옥해나가면서 절대로 락망하지 말고 감옥을 나오거든 꼭 **김일성**동지의 품으로 찾아오라고 한 격려의 말을 전하였었다.
사흘동안 거리를 헤매는 과정에 유철은 무던히 애를 말리였으나 결국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올 연줄을 찾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메마른 사막을 헤매는 목마른 나그네가 맞다들린 푸른 숲과 같은것이였다. 갈증을 덜어줄 맑은 샘물은 아직 못보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맑고 깊은 샘이 솟아날 푸른 숲이였다. 그것만으로도, 어디엔가 샘이 있다는 확신 하나만으로도 나그네

의 마음은 벌써 소생의 기쁨을 느끼는것이다. 유철은 가슴을 울렁거리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흠모의 정을 담아 이야기하는 아직도 만나뵙지 못한 그분의 영상을 머리속에 그려보는것이였다.

학생시절 **김일성**동지께서 지도하시던 《조선인류길학우회》에 망라되였다는 한 학교 교원은 마치 큰 론쟁이나 하는것 같은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당신들이 그분의 소식을 캐여묻는 그 심정을 내가 모를줄 아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도 그만한것은 다 짐작한단말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는 당신들의 그 끝없는 욕망을 만족시킬만큼은 그분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지요.》

그는 갑자기 눈을 쪼프리고 심중한 낯빛이 되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난 17년간 공부를 했고 3년간 이렇게 교원생활을 하고있으니 그럭저럭 20년이상이나 학교에서,학생들속에서 살아온 셈이지요. 한데 그렇게 여러곳으로 다니시며 많은 일을 보시면서도 그처럼 학과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본적이 없단말입니다. 그야 이른바 수재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보았지요. 하지만 **김일성**동지와 같은 학생은 있을수 없단말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그이께서는 학생시절에 벌써 혁명운동의 중심에 서계시였고 광활한 지역에 널려있는 혁명조직들을 학교에 다니시면서 지도하셨단말입니다. 가령 사나흘씩이나 학교를 못나오신다고 합시다. 그래서 후에 알아보면 무송이라든가 돈화 같은데를 가셔서 조직을 지도하고 오신단말입니다. 그러고도 학과성적은 내내 제일이였단말입니다. 내가 말하는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 교원은 유철이나 김기창이 이야기에 팔려 응답이 없자 다시 열이 올라 말을 이었다.

《무엇때문에 그러십니까? 나는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학교에 적을 두고계실 때도 우리는 그분의 거처를 언제나 아는것은 아니였습니다. 가령 오늘 그분께서 웅변회에 참가하시여 례를 들면 〈조선혁명의 현단계〉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셨다고 합시다. 참 당신들은 그 연설을 듣지 못했겠지요? 그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대체 우리들의 인생에는 이런 일이 많단말입니다. 어디 가서 쓸데없는 속물들의 잡담을 듣느라고 해는 다 저물고 마당앞의 오동잎은 우수수 락엽이 지는데 아차하고 정신을 차려보면 나라와 겨레

를 위해 몸바쳐 싸울 황금같은 시절은 멀리 사라지고 이 세상의 참된 길을 이깨워주는 귀한 사람은 멀리 타곳으로 떠나간단말입니다. 참으로 그 연설은 훌륭했습니다. 갈길 잃고 이곳에 모여든 수많은 조선의 장님들이 그분의 연설에서 눈을 떴지요. 조선의 민중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일체 파벌을 없애고 조선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은 말할것 없고 량심을 지닌 자산계층까지도 일제를 반대하는 싸움에 떨쳐나서야 한다는 그이의 열렬한 호소는 협소한 파벌적리해관념에 사로잡혀 옥신각신하던 흐리터분하고 고린내나는 머리들속에 청신한 바람을 불어넣었단말입니다. 한데 오늘 그러한 연설을 하신 **김일성**동지께서 래일은 신안툰에 나가시여 농민들과 함께 밭김을 매시면서 고생스러운 생활을 위로해주시고 앞으로 살아나갈 길을 차근차근 이깨워주신단말입니다. 실로 그이의 활동무대는 이 광활한 땅에 안미치는곳이 없고 조선사람의 생활과 관계되는것이면 그분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일이 없단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학생시절의 그분의 이야기를 단순한 학창생활과 같이 간단히 알수 있겠습니까? 지나간 일이 그렇거든 황차 그분께서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시며 장차 어디로 가시겠는지 그것을 어떻게 안단말입니까? 그걸 알아내자는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다만 여러해 그이의 지도를 받은 한사람으로서 내가 의견을 말할수 있는것은 어디선가 커다란 혁명투쟁이 벌어지고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분께서 참여하고 계시거나 그분과 직접 련결되여있는 어떤 조직이 거기에 있으리라는 점입니다. 나보고 더 묻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이 다 아는 이런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되풀이하는것이 그분에 대해 오히려 송구합니다.》

그날밤에 만난 한 늙은 독립군령감은 또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였다.

《**김일성**선생님에 대해서야 내가 잘 알지요.》

허두부터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오기때문에 다소 성급한 편인 기창이가 만나뵈온적이 있느냐고 물으니 태연하게 대답하는것이였다.

《만나뵈온적이야 없지요. 하지만 **김일성**선생에 대해서 누가 모르겠소? 항간에 떠도는 말을 들어보면 뭐 그분께서 무척 젊으신분이라고들 하지만 그건 다 모르는 소리외다. 내가 우리 우강령감이나 다른 령감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슴에 천하를 품은 인물이라고들 그 완고한 늙은이들이 혀를 차지 않겠소. 젊은이들도 알겠지만 우강 량기택령감이 〈황성신문〉에서 이름을 날리던 때는 옛일이고 이

젠 망녕할 나이라 족히 이야기할것이 못된다쳐도 정의부 군사위원장령감으로 말하잘것 같으면 아직도 펄펄 살아서 울던 아이들도 아무개 온다 하면 뚝 그친다는 무서운 령감이란말이요. 그런 령감들이 쩔쩔매는 판이니 가히 짐작할수가 있지 않소? 들으니 그 령감들이 3부합동을 합네 하고 복흥태정미소에 틀고앉아 몇해동안이나 말시비질만 하다가 **김일성**선생의 벼락을 듣고서야 정신을 차렸답데다. 도산(안창호의 호)도 길림에 와서 씨먹지 않은 연설을 하다가 그분의 꾸중을 듣고 넋이 나갔다고들 합데다. 아무튼 큰 인물이지요. 근세에 인물을 꼽자면 아마 그분곁에 나설 인물이 지난날에나 앞날에나 찾아보기 어려울거웨다. 뭐니뭐니 해도 조선을 떠메고나선 큰 인물이지요. 그런 절세의 영걸이 세상에 나서시였으니 우리 늙은것들도 이젠 나라일에 대해선 마음 푹 놓고 눈감게 됐단말입니다.》

객주집에서 우연히 만난 농민들이나 저자의 아낙네들,책방에 드나드는 학생들 모두가 조선사람이면 그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이에 대해 아는 사실과 들은 이야기는 달랐고 지어 외모나 나이에 대해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 더구나 지금 행처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보건대 그들가운데 퍽 가까이 만나뵈왔다는 사람조차도 직접 그이께서 지도하시는 혁명조직에서 일해온 사람은 없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쯤 할일없이 거리에 남아 돌아갈리도 없었다.

그러나 그이를 만나뵈온 사람들은 말할것 없고 그저 소문만 들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하나의 진실이 깔려있었으니 그 모든 사람들이 조선을 건지고 민중을 해방해줄분은 오직 **김일성**동지밖에 없으며 **김일성**동지만이 비운에 잠긴 조국의 운명을 떠메고나서실분이라는 절절한 기대와 념원이였다. 그러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유철의 가슴에서는 피가 끓었다. 눈앞이 환히 열리는듯하였다. 비록 일제의 만주침략과 관련하여 불충분한 생활적관찰을 통해서도 조선혁명의 앞길에는 더욱 곡절이 많아질것이 예견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철저히 혁명리론으로 무장되고 온 겨레의 신망을 한몸에 받고계실뿐아니라 한 나라,한 민족의 운명을 한가슴에 다 품어안으실 큰 심장을 지니신 지도자가 계신다면 무엇이 두려울것이 있겠는가? 그렇기때문에 유철은 자기가 온 생애를 바칠것을 맹세한 혁명의 운명을 환희에 넘쳐 머리속에 그리는것이였다.

두사람은 여름철에 붙들려왔기때문에 옷이 얇았고 그나마 혹독한 고문과 감옥살이에 다 판이 났다. 강바람은 찼다. 그러나 그들은

김일성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칠줄도 모르고 하였다. 때로는 지겨운 가을비마저 들써서 우들우들 떨면서도 나무밑이건, 공원의 긴 걸상이건, 강기슭이건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였다.

《그분이 그 완고한 독립군들속에서까지 인망이 높으신 모양이요.》
유철이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자 김기창이 기다렸다는듯이 받았다.

《그렇구말구요. 원체 그이 아버님께서 큰 인물이셨답니다. 그 공작원동무의 말을 들으니 한평생을 나라를 위해 바치신 반일혁명투사이시고 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다는군요. 한때는 림강, 무송같이 조선과 가까운 지대에서 동북의 반일투쟁과 국내투쟁을 련결시키는 중대한 일을 보시기도 하고 그전에 평양에서도 크게 싸우셨다는군요.》

《난 처음 듣는 소리군. 아버님 함자는 어떻게 쓰신답디까?》

《김형직선생님이시라고 그러더군요.》

《김형직선생님!— 음 바로 그분의 자제분이셨군.》

유철은 먼 허공을 바라보며 벌써 오래전에 아버지에게서 들은 당시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김형직선생의 이름을 상기하였다.

《저 평양근방에서 〈조선국민회〉라는 큰 조직을 지도하시던분이요. 그 시절에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지하혁명조직이였소. 열렬한 애국자이시고 또 혁명적인 교육자이시기도 하시였지.》

《옳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런분이시니 **김일성**동지께서 그처럼 젊으신 나이에 혁명에 나서신것이 더구나 우연치 않군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이와 연고있는 장소며 알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것은 한편 초조하기도 했지만 한편 즐겁기도 하였다. 끝없이 그렇게 찾아다니고싶은 마음조차 없지 않았다. 그러나 부상당한데다 감옥에서 상한 김기창의 건강이 긴장이 풀려선지 갑자기 악화되였다. 게다가 어느날 유철은 자기들 뒤를 밟고있는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였다. 한번은 려인숙에서 나오다가 수박씨를 까먹는 다부산자에 중절모를 푹 눌러쓴 젊은 사람을 보았었다. 그 사람은 태연한체 옆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유철은 그옆을 지나면서 그 사람이 비록 변장은 했지만 틀림없이 조선사람이라는것, 그것도 군사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것을 그 자리에서 꿰뚫어보았다. 그러나 이 도시에 워낙 특무, 간첩, 밀정들이 많이 드나든다는것을 아는 유철은 이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아침 북산공원엘 갔다가 내려오는길에 김기창이가 휴지를 버리려고 좀 뒤떨어졌다가 바로 그 사람이 등산객처럼 양복차림을 하고 내려오는것

을 보았다는것이였다. 그 사람이 무엇을 뒤쫓는지 모르나 아무튼 오래 겨루어 리로울것은 없다. 더구나 이젠 **김일성**동지께서 동만쪽으로 나가신것이 거의 확정적인 이상 한시라도 빨리 그리로 찾아가야 할것이다. 황차 지금 거기서는 거창한 투쟁이 한창 벌어지고있지 않는가?

저녁에 유철은 하강방면으로 가는 짐마차 한대를 주선하여 김기창을 태웠다. 강기슭에서 두사람은 굳게 손을 잡았다.

《나도 몸이 웬만해지면 곧장 그리로 가겠어요. 그러니 나한테 꼭 기별을 해주십시오.》

《그래 그러지. 그분을 내가 먼저 만나뵈오면 기창동무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겠소. 그러니 안심하고 몸 조섭 잘하오.》

《유철동지도 몸조심하십시오. 이다음에 꼭 만납시다. 나를 꼭 불러주십시오.》

유철은 마차부에게 도중 내내 환자를 잘 돌봐줄것과 여러날 가는 것만큼 길을 조심할것을 신신당부하였다. 보매 보통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차 알아차린듯 마차부도 선선히 응낙하였다.

유철은 성문밖에 나와 마차가 강기슭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있다가 그 길로 곧장 정거장으로 나왔다. 댕강댕강 종을 울리며 어딘가로 떠나는 기차소리를 듣자 그의 마음은 벌써 혁명이 들끓는 간도땅에 가있었다.

×

푸실푸실 눈이 내렸다. 하늘은 잔뜩 흐려서 어두운데 어둠속에서 소리없이 눈이 내려서는 거치른 자연을 포근히 덮어주는것이였다. 유철은 마음이 급하여 눈속을 헤가르듯 낯익은 길을 바삐 걸었다. 1년 남짓한 사이 어쩐지 몰라보게 달라진듯도 하고 그런가 하면 아침에 온 길을 되돌아가는것 같은 마음이기도 하였다. 작년에 올 때도 같은 시각에 같은 차에서 내렸지만 그때는 여름이라 아직 해빛이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눈이 내릴뿐아니라 산도 강도 어둠에 잠겨있는것이다. 강물은 벌써 얼음이 붙어 흐름을 멈추었다. 강기슭에 띠염띠염 보이는 인가의 불빛이 앞을 가리는 눈송이때문에 퍽 가까이 와서도 아주 멀리 있는것만 같이 흐릿하게 가물거렸다.

안해는 지금쯤 무얼 하고있을가? 유철은 정거장에서 사든 과자봉지를 만지작거리며 딸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작년에 만일 사

과 몇알을 남겨가지고 가지 않았던들 현아를 얼마나 섭섭하게 했을 것인가? 그때 풋사과 몇개를 가지고 그렇게도 좋아하던 어린것을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면구스럽기도 하였다.

눈이 내렸다. 푸실푸실 눈이 내려 거치른 자연을 푹 감쌌다. 이 눈 뒤끝이면 무서운 광풍이 휘몰아와서 사납게 울부짖을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급하게 달리는 유철의 마음을 쓸어주듯 눈이 어두운 하늘에서 소리없이 내려 포근히 쌓이는것이였다. 어깨며 머리우에 수북수북 쌓이는 눈이 싫지 않았다. 안해는 지금쯤 저녁을 지어놓고 현아와 깨여진 소반앞에 앉아있을지도 모른다.

동네 개들이 짖기 시작한다. 배나무골어구에 들어섰다. 개소리가 들릴뿐 동네는 조용하다. 불켠 집은 몇 집 안되고 눈속에 웅크린 새하얀 무덤같은 집들이 띠염띠염 보인다. 유철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왜 그런지 동네의 적막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안해진다. 골목을 돌아서자 하얗게 눈을 쓴 자기 집 마당의 배나무우듬지가 보인다. 락엽이 져서인지 별로 앙상해진것도 같다. 너무 성해서 가지들을 쳐낸것인가?

저만치 집이 한옆으로 건너다보이는 토담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유철은 우뚝 멈추어섰다. 집이 없다. 그처럼 그리워하던 집이 없다. 그러고보니 없는것은 자기 집뿐이 아니다. 계덕이네랑 이웃집들도 몇채 없어지고 서있는 집들도 불켠데는 한군데도 없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단숨에 마당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너무나 억이 막혀 한동안 배나무줄기에 한팔을 뻗치고 가슴을 벌름거리면서 참혹하게 변한 옛보금자리를 바라보고 서있었다. 눈속에 비죽이 떠들린 서까래가 밤눈에도 그슬린것이 알린다. 바로 옆에 서있어야 할 헛간은 폴싹 내려앉아 재무지우에 눈만 들쓰고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떼려던 순간 유철은 자기 손바닥에 느껴지는 감각이 이상한것을 깨닫고 홱 고개를 들어 배나무를 바라보았다. 새까맣게 타고 그슬린 나무가 그렇게 줄기만 남아 앙상하게 서있는것이였다. 무의식중에 우듬지를 쳐다보니 잔가지들은 반반히 없어지고 메마르고 비틀린 가지 몇대가 눈을 쓰고있었다. 유철은 우르르 마당을 꿰질러갔다.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눈을 헤집었다. 수북이 쌓인 재를 헤치니 마사진 구들장이 드러났다. 유철은 미친듯이 이 구석 저 구석을 헤쳤다. 딱히 무슨 목적도 없이, 거기서 안해와 아이를 찾아내기나 할것처럼 이 구석 저 구석을 더듬었다. 한곳에서 깨여져서 박산이 난 질그릇쪼박이 나타

났다. 그리고 그옆에서 묘하게 까부라진 상다리 한개를 주어들었다. 그날 안해가 닭곰을 해서 받쳐들고 토방을 나서다가 총소리에 기겁해서 든채로 떨던 그 귀떨어진 륙모소반의 깨여지다 남은 쪼박이였다.

유철은 부질없이 재무지를 헤치던 손을 툭툭 털고 허리를 일으켰다. 매캐한 파벽토냄새가 아직도 코를 찌르는 이 재무지우에서 나를 기다리던 두 생명은 어떻게 됐는가? 너무나 큰 충격에 한동안 멸멸했던 유철의 머리속에 비로소 구체적인 의문이 떠올랐다. 틀림없이 불이 났다. 불이 왜 났는가? 불이 났다면 안해와 딸은 어떻게 됐을가? 아무리 불이 났다 해도 이렇게 깡그리 타버릴수가 있는가? 배나무까지 저렇게 숯이 될수야 있는가? 또 이웃집들도 몇 집 건너에 있는 계덕이네 집까지 저렇게 풀썩 무너져앉은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이건 보통불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다면,그렇다면 안해와 현아는 어떻게 됐단말인가?

유철은 분주히 사위를 살펴보았다. 누구를 잡고서든지 이 진상을 밝혀내야만 하였다. 그런데 이웃집들은 다 빈집처럼 캄캄하다. 정 찾으면 알만한 집들을 찾아낼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어쩐지 심상치 못한 예감을 느낀 유철은 바싹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자기가 파벽토를 헤치고있을 때 또다시 동네에서 자지러지게 개소리가 울렸다는것을 상기하였다. 이 어방에서 우물거리느니 차라리 곧장 처남에게로 가는것이 옳다. 누군가가 살아있다면 필경 거기에 있을것이다. 궁금하더라도 그때까지 참아야 한다. 이 불이 여느 불이 아니라면 더구나 경솔하게 내 얼굴을 동네에 내놓지 말아야 한다.

유철은 마음을 굳게 먹고 성큼 걸음을 떼놓았다. 두주먹을 틀어쥐며 주머니에 찌르고 사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급히 밤길을 걸었다. 주위를 자꾸만 살피고 더듬으면서도 걸음은 저도 모르는사이 빨라졌다. 그러면서도 머리속으로는 그냥 번거롭게 방금 본 그 참경의 원인을 풀어보려고 모대겼다. 원쑤들이 나에 대한 보복으로 불을 질렀을것인가? 혹은 안해의 조직이 드러났을가? 보통불이라면 그렇게까지 타버릴수가 있는가?

처남네 집까지 15리길을 단숨에 달려왔다. 도중 눈은 멎고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녹은 눈이 목덜미로 흘러들고 찬바람이 옷자락새로 스며들었지만 유철은 지겨운것도 찬것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빈집처럼 빗장을 든든히 지른 대문을 한참이나 두드려서야 부엌에서 칭얼대는 아이를 얼리며 처남의 댁이 나왔다.

찌그덕찌그덕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면서 겨우 빗장을 뽑고 빠끔히 대

문을 연 녀인은 어둠속에 우뚝 서있는 유철을 보자 흠칫 굳어져버렸다.
《아이구, 이게 누구요?》
유철은 말없이 인사도 못하고 처남의 댁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수더분하고 그리도 자기를 끔찍하게 위해주던 처남의 댁 역시 반가와하는것 같기도 하고 난처해하는것 같기도 한, 그런가 하면 원망하는것 같기도 한 그런 표정으로 잠시 말을 못하고 서있었다. 그 복잡한 표정에서 유철은 벌써 일이 글렀다는것을 번개처럼 느꼈다.
《여보, 현아 아버지 돌아오셨수.》
녀인은 어망결에 돌아서더니 치마자락을 눈굽으로 가져가며 안방쪽에 대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부엌으로 사라졌다.
《누가 왔어?》
풀을 먹인것 같은 쉰 목소리가 나더니 찌걱하며 안방지게가 열렸다. 거물거리는 방등불빛아래 처남이 게슴츠레한 눈으로 바깥을 내다본다. 초라한 저녁상을 놓고 펑덩하게 앉았는데 두무릎에 각각 하나씩 자기 아들 혜민이와 현아를 앉혀놓고 밥을 먹고있다.
어둠속에 우뚝 서있는 유철을 한참 살피더니
《자네가 왔군, 들어오게.》하고 좀 비칠거리며 일어났다. 안해의 목소리도 안해를 찾는 말도 없다. 보매 처남은 슬픔과 울분때문에 제정신이 없는듯하였다.
유철은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마당을 질러 성큼 방안으로 들어섰다. 해쓱하게 질린 현아의 까만 눈동자가 자기에게로 총알처럼 달려온다. 반가운 기색이란 전혀 없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서먹서먹하게 바라보는 그 눈에 눈물보다는 오히려 본능적인 경각심이 어려있는것을 유철은 느꼈다. 그역시 딸을 안아볼 생각도 못하고 펄썩 상앞에 주저앉았다.
《자, 현아야, 아버지한테 절을 해야지. 혁명을 하러 갔던 아버지가 돌아왔다. 자, 절을 해라.》
현아가 일어서서 깍듯이 절을 하였다. 그러자 혜민이도 따라일어서서 꾸벅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두 아이 다 전처럼 주태화의 무릎에 오도카니 주저앉는것이였다. 부엌에서는 처남의 댁이 무엇을 하는지 등에 업은 아이가 칭얼칭얼 보챈다. 주태화에게는 큰 아이들이 둘 있으나 둘 다 조선에 내보내여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공부시키고 지금 데리고있는것은 혜민이와 젖먹이뿐이였다.
《여보, 그 대문 닫고 아이 젖 먹이오, 이거야 시끄러워 살겠소?》

주태화는 여느때라면 집안에서 기침소리도 안들릴 위인인데 울분이 차올라 이렇게 안해에게 지청구를 댔다.

《처가라고 찾아왔겠지만 이렇게 란가가 되고말았네. 그 애는 죽었어. 놈들이 죽였지.》

유철은 고개를 떨구고 앉았다. 그리고 말없이 상우의 물대접을 들어 꿀꺽꿀꺽 들이켰다.

《집에는 갈 궁리도 말게. 그 앤 이미 죽었어, 우리 삼녀는 죽었어, 응 흑—》

주태화는 흐느끼는가싶더니 마감엔 미친 사람처럼 선웃음을 쳤다.

아이들은 아무 소리를 해도 눈섭 하나 까딱않고 인형처럼 오도카니 앉아있다.

《흥, 현아가 이젠 울지도 않는군. 저놈들이 내 누이의 항복을 받아보겠다고 이 애마저 잡아가려고 날쳤지, 그런걸 동네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지켜주었네. 삼녀가 죽은 다음에야 우리 집에 데려왔네. 그래서 좀 놀랐지만 뭐 일없을거야. 현아야, 일없다. 외삼촌이 있지 않니? 보게, 동네사람들이 옷까지 이렇게 두툼하게 해입히지 않았나. 애비보다 몇곱절 낫지. 혜민이는 졸리는 모양이구나. 자, 그럼 너희들은 먼저 자거라. 외삼촌은 너희 아버지랑 이야기 좀 해야겠다.》

주태화는 벽장에서 이불을 꺼냈다. 유철도 잘 알지만 이 집에서는 한채밖에 없는 그나마 이젠 오리가 나들나들해진 양단이불을 아이들에게 펴주었다. 아이들은 소리없이 일어나더니 그대로 이불속에 들어가 나란히 누웠다.

《옷을 벗고 자야지. 자, 옷을 벗고 똑바로 누워서…》

그러자 아이들은 다시 발딱 일어나더니 옷을 벗어서 차곡차곡 개여 머리맡에 놓고 나란히 누웠다. 주태화의 말대로 현아의 옷은 솜을 두툼하게 두고 새로 지은 누비옷이였다. 동네사람들의 정성이 느껴졌다. 그 모든것을 보는 유철은 제가슴에 칼이 들어오는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할 아무런 말도 방법도 없었다. 처남의 댁이 새로 저녁을 차려들였다.

처남은 밤새 지치지 않고 그냥 무엇인가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유철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마치 목석을 앞에 놓은듯 아무런 반응 없는 유철을 상대로 주태화는 그냥 중얼대는것이였다. 그러면서도 삼녀의 최후에 대해 죽 달아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안해가 운다고

꾸짖으면서 한마디 하고 아이들이 이불을 차던지면 그것을 바로잡아주며 현아가 불쌍하다고 또 한마디,이런식으로 한토막 한토막 말하는것이 결국 할 이야기는 다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유철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안해가 그 불속에서 그렇게도 어엿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는것이 특히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이상한 생각을 해보았다.

《사람이란 먹기만 하면 사는것은 아니야. 저것이 제 에미 죽는것을 보더니 하루밤을 울고는 그만 저렇게 이상하게 돼버렸거던.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하지. 외삼촌이나 외숙모가 아니라 어머니가 필요하지. 그런데 저 애에게는 이런 한심한 외삼촌이 있을뿐이거던. 외숙모라는건 덜렁이고…》

마구 뒤엉키는 의식속에서도 처남이 자기 아이를 마치 애비없는 자식처럼 취급한다는것을 느꼈다. 보매 처남은 어진 그 품성대로 제자식은 운다고 지청구를 대면서도 조카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사랑을 기울이는것 같다. 놀란 아이를 진정시키고 졸지에 외기러기처럼 의지가지 없어진 아이에게 설음을 안느끼게 하자고 그로서는 무던히 애를 쓰고있다는것이 제울분을 못이겨 뱉어놓는 한두마디 말을 통해서도 력력히 느낄수 있었다.

유철은 그런것을 느끼며 무심중 주머니속의 과자봉지를 으스러져라고 움켜쥐였다. 이미 그것을 꺼낼 기회도 지났고 또 자기나 아이나 그런것을 가지고 마음의 아픔을 달랠 처지가 못된다. 어린 나이에 딸은 벌써부터 과자봉지로써는 위로할수 없는 참혹한 정신적시련을 겪고있는것이다.

이튿날 현아를 데리고 처남의 뒤를 따라 안해의 무덤을 가보았다. 간밤에 내린 눈이 바람에 불리다가 희슥희슥 남아있는 새 봉분에는 떠다 옮긴 풀이 그나마 다 말라서 바람에 설렁거리고있었다. 현아는 절을 하라니 절을 하고 물러서더니 우두커니 봉분앞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말없이 지키고있었다.

유철은 생땅이 그대로 드러나있는 흙덩이를 무심히 바스라뜨리며 하염없이 앉아있었다. 그는 할 말도 없었지만 실상 마음속에 슬프다든가 어쨌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감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답답하여 자꾸만 목깃을 끄르며 고개를 휘저었다. 왜놈이 안해를 불앞에 세워놓고 굴복시켜보려다가 종내 못하고 제손으로 쏘았다는 그 광경이 눈앞에 거듭거듭 떠올랐다. 머리속에 웅—웅— 소리를 지르며 불길이 타오른다. 배나무가 비틀리고 서까래가 무너진다. 가슴이 금시

한줌으로 죄여드는것처럼 답답해졌다. 갈비뼈를 갈가리 제손으로 잡아헤치고 가슴속으로 이 차거운 눈바람을 몰아넣고싶다. 그러다가 문득 이렇듯 가슴은 답답한데 무심히 누워있는 대지가 이상하여 새삼스럽게 황량한 땅덩어리를 굽어보는것이였다.

주태화 역시 묵묵히 서있었다. 현아는 외삼촌의 손목을 잡고 멍하니 자기와 어머니의 무덤을 지켜보고있다. 저것은 무엇을 생각할것인가? 어찌하여 저 애마저 울지 않는가? 어찌하여 저 애마저 말이 없는가?

유철은 슬그머니 일어났다. 주머니에서 바스라진 과자봉지를 꺼내여 현아에게 쥐여주었다. 현아는 겁이라도 나는듯 과자봉지와 외삼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외삼촌은 멍하니 지평선을 바라보고있었다.

《현아야, 우리 이젠 외삼촌네 집으로 가자.》

유철은 아이의 어깨를 한손으로 어루만지며 까만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말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부드러운 말소리를 듣는 딸은 한동안 어리둥절한 모양이더니 불시에 《아버지—》하고 가슴에 매달렸다. 유철은 아이를 안고 일어섰다. 과자봉지가 떨어졌다. 그러나 유철은 주을념을 않고 아이를 안은채 안해의 무덤을 다시한번 돌아보았다. 안해는 말이 없다. 말없이 둥그런 봉분이 되여 자기를 바라보고있다.

유철은 홱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겨놓았다. 한참후 주태화는 천천히 몸을 돌려 현아가 떨군 과자봉지를 주어들고 흩어진 부스레기마저 찬찬히 주어모아들고 뒤따라왔다.

저녁에 처남의 댁이 술상을 차려들였다. 산에 가지고 가고 남은 술병을 가운데 놓고 처남매부는 밤새 앉아있었다. 주태화는 거나하게 취해서는 유철을 상대로 무엇인가 그냥 중얼중얼 말을 하였다. 유철은 일체 말이 없었다. 그래도 주태화는 물리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현아는 외삼촌의 무릎을 차지하고 앉아서 불안에 떠는 까만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한곳을 지켜보고있었다.

유철은 딸의 놀란 가슴을 달래주고싶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부르며 마음놓고 울게라도 해주고싶었다. 그러나 그역시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제가슴을 차고 바깥으로 튀여나오려고만 드는 마음속의 격정을 억누르고있는것이 고작이였다. 이따금 처남이 술을 권했지만 술을 가지고도 그의 팽팽한 마음을 누칠수 없었다. 오히려 골만 뗑하고 속만 아니꼬와지군해서 정 부득이하지 않으면 될수록 잔을 받지 않았다. 주태화는 유철이 잔을 받거나말거나, 자기 말에 응대를 하거나말거나

자기 홀로 강개한 기분에 사로잡혀 자기의 울분을 터놓는것이였다.
《우리 아버지같은 봉건이 어느 구석을 믿고 자네에게 딸을 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거던. 설마 자네가 착실한 농사군이 될줄로 생각했단 말인가? 아니면 진사급제라도 할줄 알았겠나… 그 완고한 늙은이가 실수도 이만저만한 실수가 아니지, 아들은 공부시켜놓으니 사회운동자 흉내를 내다가 류치장살이나 하고 그끝에 이 모양 이 꼴로 배갈이나 마시고 넉두리나 하지, 딸이라는건 시집가는 첫날부터 생과부모양으로 지내다가 횡사하지, 또 사위라는건 뭔가? 불꺼진 화로요, 딸없는 사위라니, 그까짓 사위가 무엇이 되든 크게 상관할배는 없다 해도 하여간에 사위라는건 10년을 돌아다니던 끝에 일도 성사 못하고 빈주먹으로 돌아와서는 제 녀편네가 죽었대도 눈물 한방울 못흘리는 위인이거던. 허허허, 령감이 제자백가에 통달했다지만 사람 볼줄은 몰랐거던. 사람 볼줄은 몰랐단말이야.》
유철은 묵묵히 앉아서 처남의 넉두리를 들었다. 현아는 외삼촌무릎에서 졸다가 전처럼 해여진 양단이불밑에 4촌동생 혜민이와 나란히 누워 쌕쌕 잠들었다. 처남의 댁은 아래방에서 바느질을 하더니 밤이 깊어지자 역시 그대로 쓰러져 자는 모양이다.
《자네 한잔 들게. 이 불쌍한 식민지청년아, 그래 자네가 우리 조국을 독립시켜보겠다고… 허허허, 뜻이야 좋지. 우리 조국에 사회주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뜻이야 여북 좋은가, 혁명이란 아름다운것이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해도 거기에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비상한 매력이 있거던. 하지만 값이 비싸. 너무나 비싼 값을 요구하거던. 우리같이 정신이 빈곤한 사람에게는 그 값을 치를만한 정신적량식이 부족하네. 아—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는가! 반도 삼천리에, 료동 8백리에 가난한 조선의 넋이 치른 피값이 그래 적었단말인가? 그래도 우리는 혁명의 한쪼박도 사지 못했네. 말해보게. 그래 우리가 값을 적게 치렀는가? 자네는 아버지, 형님을 다 빼앗기고 오늘은 안해마저 빼앗겼지만 자네에게 무엇이 차례졌나. 저 애는 아마도 고아가 되기 십상일테지만 그래도 저 애에게는 조국이 없네그려. 혁명이란 영웅서사시야. 공훈은 없고 눈물만 자아내는 영웅서사시야.》
유철은 처남의 역설적인 말을 들으며 자기 마음보다도 오히려 처남의 심정이 더 잘 리해되는듯하였다. 한때 혁명을 하겠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돌아가다가 길은 막히고 모진 시련에 견디여낼만한 힘은

없고 하여서 주저앉아버리기는 하였지만 량심은 그대로 간직하고있었다. 그 량심의 몸부림이 때로는 울분으로, 때로는 개탄으로, 또 지금처럼 절망적인 넉두리로 나타나군하는것이였다. 그렇기때문에 혁명의 어떤 손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고 가슴아픈 나머지 마음에도 없는 뒤틀린 소리를 하군하였다. 입으로 무슨 소리를 해도 그는 여전히 혁명의 편에 서있는 사람이였다. 그러나 혁명의 길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가 다시 혁명적실천의 길에 들어서자면 그의 지난날이 복잡했고 정신생활이 어수선했던 그만큼 곡절많고 험한 길을 거쳐야 할것이였다.

새벽에 유철은 한마디 물었다.

《형님은 어떻게 하겠소?》

《어떻게 하다니? 난 이젠 패배한 인간이야. 정력도, 재능도 다 불어먹었으니 무얼하겠나? 혁명을 하재도 난 전시대의 인간이야, 내가 혁명에게 보태줄것은 넉두리밖에 없지. 그런데 난 넉두리조차 할 맥이 없네그려. 그렇다고 내가 일본제국주의의 개노릇도 못할게 아닌가? 난 영웅서사시의 주인공은 못돼, 난 구슬픈 류행가수이지. 그저 농사나 지어먹으면서 명이 다하는 날까지 세상을 개탄하며 쓸쓸하게 살아갈뿐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속물로 살아가겠네. 고상하지도 못한 주제에 괜히 날뛰는것보다는 속물이 편하고 좋아. 그러면 자네도 나를 반대하지 않겠지만 일본제국주의도 크게 나를 반대할 까닭이 없지. 틈바구니는 좁지만 어찌겠나, 그 속에서라도 옹송그리고 살아야지.》 그러다가 문득 주태화는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왜 그러나? 그것을 자네가 무엇때문에 묻나?》

그러나 유철은 아무런 대답도 안했다. 그의 입은 다시 철문처럼 꽉 잠겨서 열려지지 않았다.

이튿날 주태화는 골이 아프다고 자리에 누웠다. 자면서 꿈을 꾸는지 그냥 쿨쩍거렸다. 먹다 남은 술상을 앞에 놓고 유철은 술도 안마시면서 해가 저물도록 앉아있었다. 땅거미가 들자 하늘이 자욱히 흐리더니 또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바람까지 일면서 눈은 진눈까비로 변하였다. 주태화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랭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이젠 정신 좀 차려요.》 처남의 댁은 지청구를 댔다.

《저리 가! 계집들은 저리 가.》 주태화는 간밤에 먹은 술이 아직 깨지 않아 한팔을 쳐들어 새 쫓는 흉내를 하며 혀꼬부라진 소리

로 중얼거렸다.

처남이 중얼거리는 옆에서 유철은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다. 저녁상을 물린후 물끄러미 현아를 바라보았다. 현아는 여전히 처남의 무릎에 앉아있었다.

《난 가보겠소.》 유철은 불쑥 말하였다. 실로 사흘밤낮을 꼬바기 앉아 가슴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한 말이였다.

《가다니, 어디로?》 주태화는 게슴츠레 감겨드는 눈을 뜨고 쳐다보았다.

《혁명을 해야겠소. 비록 내 피를 다 흘리더라도 난 원쑤를 갚고 나라를 찾아야겠소.》

주태화는 고개를 푹 떨구더니 말없이 한숨을 내쉬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술잔을 유철이앞에 내밀었다.

《어찌겠나, 혁명도 팔자소관이니, 내가 말린다고 자네가 그만두겠나? 가겠으면 가보게나. 허 진눈까비가 날리는군, 날자를 잘못 받았네그려.》

유철은 처남이 따라주는 술을 마셨다. 평소에는 드러내놓고 말못하는 처남의 뜨거운 인정과 신의를 믿으며 헛소리처럼 내뱉는 말속에 고인 그의 성실한 우정을 믿으며 술을 마셨다. 뒤일을 부탁하자니 너무나 많고 너무나 사연이 복잡하였다. 처남이 만일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새삼스럽게 부탁하지 않는다고 내 심정을 모르랴.

유철은 손을 뻗쳤다. 무엇때문엔지 자기의 신상에 닥치는 어떤 운명적인것을 예감하고 오돌오돌하고있던 현아가 와락 아버지 가슴에 매달렸다. 유철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쓸면서 볼을 비볐다.

《너를 두고 아버지는 간다. 외삼촌을 아버지 삼고 잘 있어라. 언제든지 너를 찾으러 오마.》

딸은 새새끼처럼 그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조그만 손이 제가슴을 더듬는것을 느낄 때 유철은 머리를 쳐들었다. 얼룩덜룩 비물이 배인 천반, 누렇게 퇴색한 신문지의 특호활자가 내려다보고있다. 《간도의 풍운 또다시 급전, 국경의 민심 소연.》

유철은 급히 허리를 일으켰다. 현아의 볼을 다시한번 쓸어보고는 홱 몸을 돌렸다.

《아주머니, 부탁합니다.》 그는 부엌문앞에 비스듬히 서서 이렇게 말하고 마당을 걸어나갔다.

진눈까비가 살을 찌를듯이 후려갈겼다.

《아니, 이 궂은 날씨에 어디로 가시려우? 후날 가시지…》
순옥은 당황하여 문밖으로 뛰여나왔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벌써 심상치 못한 눈치를 챈것이다. 주태화는 방안에 앉은채 쿨쩍거리는 현아의 머리를 쓸며 말했다.
《여보, 그 사람에게 도롱이라도 내주오. 그리고 자네 부탁은 내가 다 짐작하네. 아이 걱정은 말게. 이 주태화가 혁명은 못할망정 조카자식 하나 못건사하겠나. 그러니 자네는 내친김에 골이 쪼개지더라도 실컷 해보게, 밑창이 날 때까지 실컷 해보게.》
유철은 처남의 댁이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내미는 도롱이를 받아 쓰고 그 녀자의 겁질린 눈을 한번 바라본 다음 말없이 문전을 나섰다. 휘뿌리는 진눈까비속을 고개를 짓숙이고 어둠속을 곧장 뚫고가는 그의 발걸음은 빨랐다.
첫 갈림길에서 유철은 우뚝 걸음을 멈추어섰다. 사위는 캄캄한데 진눈까비는 천지를 자욱히 메우며 쏟아져내렸다. 아무리 둘러보아야 불빛 한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갈림길이라는것을 가려낼수 있은것도 너무나 자주 다닌 낯익은 길이기때문이였다. 진눈까비라 삽시에 도롱이에 무겁게 쌓이는 눈을 흔들어털고 얼굴을 줄줄이 타고내리는 물기를 뻑 훔친후 다시 사위를 살폈다. 여전히 천지는 캄캄하고 진눈까비는 장벽처럼 앞을 막으며 퍼붓는다.
어디로 갈것인가? 유철은 비로소 막막한 자기의 앞길을 의식하고 기가 막혀 캄캄한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하늘이 높은지 낮은지 어둡기만 한 그 밤하늘은 주먹같이 굵고 질쩍질쩍한 눈을 휘뿌려줄뿐이였다. 이번에는 고개를 푹 떨구고 땅을 내려다보았다. 어느새 발등까지 질펀하게 묻히는 질쩍한 눈더미속에 조선과 만주광야를 다 누비고 다닌 헐어빠진 로동화가 함씬 젖어 묻혀있다. 발은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잡지 못하고 그냥 얼어들뿐이다.
유철은 눈사람이 다 되도록 갈림길에 서있었다. 그래도 앞이 막막하기는 매한가지요, 진눈까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릴뿐이였다. 좌우간 어딘가로 가자. 이대로 서있을수는 없지 않은가? 어딘가로 가느라면 또 길이 나질것이다. 그때 또 생각해보자. 좌우간 가노라면 눈이 멎을것이고 날은 밝을것이다. 우선 이렇게 걸으면서 자꾸 헝클어만지는 머리속을 좀 정리해야겠다.
유철은 걸음을 옮겨놓았다.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듯도 하고 그

런가 하면 아무런 생각도 없는 정신적허탈상태에 빠져 어슴푸레 드러나는 한오리 밤길을 터벅터벅 끝없이 걸어갔다.

문득 걸음을 멈추니 하얗게 눈을 쓴 둥그런 봉분이 나타났다. 밤눈에도 매끈한 자작나무 한그루가 서있었다. 새하얀 그 나무그루에 한손을 짚고 안해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이국땅 눈내리는 이 거치른 등판에 안해는 진눈까비를 맞으며 홀로 누워있다. 아이도 남편도 부모도 다 버리고 안해는 봇나무만 외롭게 서있는 이 쓸쓸한 등성이에 홀로 묻혀있다. 안해의 생애를 더듬듯 유철은 무덤으로부터 지금은 어둠속에 묻혀 보이지도 않는 이미 없어진 집과 또 안해와의 생활이 얽혀져있는 처남의 집이며 현성거리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서대문형무소 면회실에 숱이 성기여진 머리를 깊이 숙이고 아직도 숫색시처럼 울먹해서 서있던 안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면회를 오고가는 뜨거운 한여름의 신작로가 떠올랐다. 혁명을 하라는 자기의 말을 잊지 않고 그렇게도 용감하게 자기의 깨끗한 생애를 혁명앞에 고스란히 바친 안해의 정갈한 모습이 가슴 에이는 회한이 되여 진눈까비 흩날리는 밤하늘에 우렷이 그려졌다.

그밖에 안해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더듬어보아야 구름을 잡는것과 같이 어슴푸레한것뿐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철은 자기 가슴에 언제나 어엿하게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안해를 느꼈었다. 일에 쫓기여 잊어버리고있을 때조차 말없이 수집기만 하던 안해에 대한 사랑의 잠재의식이 깊이 깔려있었다. 두사람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서먹하게 살았지만 세상의 그 어느 부부보다도 서로 사랑하고있었다. 안해의 무엇을 사랑했던지는 똑똑치 않았다. 아마도 너무나 조선적인 그 품성에 사랑했다기보다 그리움을 느꼈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안해는 마음속에 있는, 오직 마음속에만 살아있는 녀인이였다. 안해에 대한 사랑을 처음 느낀것은 심장속에 불타는 말이 있고 무쇠같은 근육이 있어도 사랑을 나타낼수 없는 감옥속에서였다. 그리고 안해에 대한 마음속 깊이에 파묻혀있던 그리움을 사무쳐 깨닫게 되는 지금 안해는 이미 주검이 되여 땅속에 묻혀있는것이였다.

유철은 쓰러지듯이 무덤앞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봉분에 쌓이는 축축한 눈을 두팔을 벌려 어루더듬었다. 진눈까비인지 눈물인지 뜨거운 물줄기가 볼을 타고 내렸다. 유철은 안타깝게 봉분을 쓸며 마

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난 당신을 너무나 섭섭하게 한것 같소.)

남처럼 하루도 오손도손 살아보지 못하고 그나마 하루도 마음 편히 살아보지 못하고 사시로 자기에 대한 걱정과 불안속에서 살다가 마감에는 그처럼 깨끗이 절개를 지키고 떳떳하게 죽은 혁명동지인 안해를 위하여 유철은 마음껏 눈물을 흘렸다. 소리없는 흐느낌속에서 유철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히 제가슴에 인찍혀있을 안해의 한점 때 묻지 않은 깨끗한 모습을 눈앞에 환히 그리며 자기가 살아있는 한 안해에 대한 그리움과 그에게 못다한 사랑이 언제나 불타오르리라는것을 느꼈다. 혁명가로서 떳떳한 최후를 마친 안해에 대한 커다란 자랑이 솟아났다. 실상 살아서는 그러한 안해라고까지는 생각 못했었다. 그러다보니 그것은 자랑인 동시에 고통이기도 하였다.

《난 또 길을 떠났소.》

유철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평생 울어보지 못한 유철이였다. 안해의 죽음앞에서 사나이가 울수 있다고 생각해본적이 없는 그였다. 그러나 우직우직 타들어가는 불길앞에 선 안해의 모습과 그 결곡하고 청백한 마음을 생각하며 유철은 아낌없이 울었다. 무덤에 눈은 쌓이고 유철은 바위처럼 굳어져서 오래오래 움직일줄 몰랐다.

14

터벅터벅 산비탈을 내려오니 중둥까지 눈에 묻힌 억새줄기가 허리에 휘감겼다.

사건이 일어난것은 바로 이 시각이였다. 산기슭을 얼추 다 내려온 유철은 비로소 자기뒤를 따르는 인기척을 느끼고 번쩍 정신을 차렸다.

그가 소리나는쪽을 돌아보는 그 순간이였다. 불시에 화닥닥하는 격투소리가 나더니 악— 하고 맹수의 울부짖음같은 외마디비명이 울렸다. 그리고는 잠잠해졌다. 유철은 몸을 날려 길섶의 눈무지를 의지하고 엎드렸다. 손에 잡히는대로 무엇인가 더듬어쥐였다. 쥐고보니 나무뿌리였다. 그것이나마 맨손보다는 나으려니 생각하며 어둠속을 쏘아보는데 억새

밭에서 시꺼먼 그림자가 우뚝 일어섰다. 불과 일여덟걸음밖이였다. 검은 그림자는 손에 쥐고있던 번쩍거리는 단도를 옷자락속에 깊이 감추더니 사위를 한번 휘 살펴보고나서 뚜벅뚜벅 유철에게로 다가왔다. 유철은 칼쯤 가진자라면 한두놈은 제낄 자신이 있었다. 게다가 상대도 인적을 꺼리는 눈치가 완연하고 또 다른 도당이 없는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저기서 비명을 지르고 쓰러진것은 누구인가?

검은 그림자는 서너걸음앞에 와 서더니 유철이가 단단히 준비를 하고있는 눈치를 채자 멈추어섰다.

《유철동무, 안심하십시오. 위험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내 리용수올시다.》

젊고 침착한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리자 유철은 어떤 귀신을 만난것보다 더 놀랐다.

《리용수라니? 아니 용수동무, 이게 웬 일입니까?》

《반갑습니다. 벌써 헤여진지 1년이 넘었군요.》

두사람은 굳게 손을 틀어쥐고 흔들며 눈에 덮인 서로의 어깨를 얼싸안았다.

《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그때 할미령에서 어데로 갔댔습니까? 나는 잘못되지나 않았는가 해서 은근히 걱정했는데…》

《유철동무, 쌓인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부인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리용수는 피뜩 무덤이 있는쪽을 돌아보더니 잠시후 고개를 번쩍 들고 말하였다.

《그러나 밀린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합시다. 시간이 급합니다. 지금 당장 위급한 고비는 넘겼지만 적들이 계속 유철동무의 뒤를 따르고있습니다. 빨리 이 지구를 벗어나라는 조직의 지시입니다.》

유철은 용수의 손을 쥔채 한걸음 더 다가서며 다우쳐 물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된것입니까? 조직이라니 무슨 조직입니까? 이제 저기서 죽은자는 누굽니까?》

한꺼번에 퍼붓는 유철의 여러가지 질문을 받고 리용수는 잠시 묵묵히 서있더니 전이나 마찬가지 그 소박하고 침착한 투로 말하였다.

《내가 이야기를 하자면 응당 부인의 최후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야할것입니다만 사실 지금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내 저자를 처치하고 이곳을 떠납시다. 갈림길까지 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리용수는 전혀 덤비지 않고 찬찬히 익숙한 솜씨로 뒤처리를 하였다.

《마침 눈이 와서 흔적을 없애줄것입니다. 이곳은 유철동무에게 관계가 깊은곳이라 반드시 수색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니 이놈의 시체는 될수록 멀리 드러나지 않을데 갖다버려야 합니다.》

리용수는 어수선하게 짓밟혀진 억새밭을 고르롭게 바로잡아놓고 시체를 메여다 벼랑끝으로 가더니 강우에 쌓인 눈구뎅이속에 처넣어버렸다.

《자, 갑시다. 저놈은 〈흑룡강동지회〉의 특무로 암살솜씨가 있다고 소문이 난 놈입니다.》

《〈흑룡강동지회〉?》

《놀랐을겁니다. 왜놈들은 간교합니다. 이놈들이 9.18사변을 도발해놓자 조중인민을 리간시키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무마해보려고 〈정치범석방〉이라는 기만극을 꾸몄지요. 그래놓고는 뒤로 중요한 사람들을 도로 잡아들이기도 하고 자객들을 보내서 소리없이 암살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놈들의 잔꾀에 넘어가서 희생된 동지들도 적지 않습니다. 조직에서 그것을 간파하고 저놈들이 주목하는 동지들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눈치를 전혀 몰랐습니까?》

《듣고보니 수상한 일들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유철은 아직도 어리둥절한채 길림에서 뒤를 따르던 다부산자에 중절모를 쓰고 수박씨를 까던 젊은 사람의 얼굴을 상기하였다.

《사실 유철동무 뒤를 저놈이 길림에서부터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곳 조직에서 계속 보호해 다녔기때문에 손을 못쓰다가 이번에 여기까지 따라온것입니다. 우리 동무들도 역시 적들의 감시하에 행동하기때문에 기회가 적당치 않아 귀띔도 해주지 못하고 해서 유철동무에게 좀 불안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직에서 련락을 받고보니 그게 바로 유철동무란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고 또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렇게 달려왔지요.》

《나는 그런것을 전혀 몰랐지요. 여러 동지들에게 이렇게 수고를 끼쳐서…》

리용수는 눈길을 앞장서서 걷다가 문득 유철의 말을 중동무이시키며 말했다.

《유철동무, 부인의 이야기는 들으셨겠지요? 사실 부인은 우리 조직을 자기의 목숨으로 구원했습니다. 나도 부인에 의해 구원된 한사람입니다. 유철동무, 그러니 새삼스럽게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유철

동무의 신변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시는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차차로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 이 자리를 빨리 떠나야 합니다. 어서 걸읍시다.》

리용수는 유철이 우뚝 멈추어서자 되돌아와서 그 손을 더듬어쥐며 말했다.

《우리 서로 헤여진 다음의 이야기는 이따 조용한 기회에 또 합시다. 내 유철동무의 심정을 리해할만합니다. 사실 유철동무가 그지간 어떤 정신적고통을 체험했으리라는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옛일로 되였습니다. 유철동무도 아마 이젠 조직에서 사업하게 될것입니다.》

유철은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어떤 예감에 부풀어오르는 흥분을 억지로 누르며 약간 더듬거리는 어조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난 조직에서 이렇게 나를 아껴줄줄은 몰랐고 또 적들의 흉계도 전혀 눈치를 못챘습니다. 이것은 내가 혁명적경각성이 없고 수양이 부족하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수동무, 내가 여기서, 바로 안해의 무덤앞에서 동무를 만난것은 참으로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군요. 용수동무,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한 말을 다시한번 똑똑히 말해주시오. 내가 조직에서 일하게 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철동무, 그 할미령턱밑의 산막에서 하던 말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선혁명의 지도자를 그리워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혁명을 확고한 승리의 길로 이끌고나가실 그런 탁월한 령도자께서 나서시였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번에 유철동무뿐아니라 많은 조선혁명가들의 신변을 념려하시여 이런 조치를 취하시였습니다.》

《아니 그럼 **김일성**동지께서?》

유철은 우뚝 길가에 멈추어서서 주위를 상관 않고 큰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일성**동지를 아십니까?》

리용수는 다시금 유철의 소매를 잡아당겨 함께 걸으며 물었다.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번에도 감옥을 나오자바람으로 그분을 찾아헤매다가 종내 만나뵙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께서는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십니다. 지금 왕성한 정력으로 큰 투쟁을 조직하고계십니다.》

용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유철은 자기의 마음속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몰라 모대기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용수동무, 그럼 내가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올수 있단말이지요? 나를 그분께 데려다주겠지요?》

그러나 리용수는 뜻밖에도 한동안 말없이 걷더니 이윽고 무겁게 대답했다.

《지금은 기회가 좋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요즘 날카로운 정세와 관련하여 무척 사업에 분주하십니다. 내 알기에는 요즘 매우 중요한 공작을 하고계시는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혹 만나뵈올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내가 유철동무 이야기를 여쭈어본적도 있는데 그때도 무척 걱정하시는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고보니 그 감옥에서 같이 있던 동무가 나와서 또 유철동무 이야기를 말씀드렸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분께서는 유철동무에 대해서는 전에도 잘 싸운 동무라고 알고계십디다. 그러나 만나뵈옵는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일이지요. 혁명을 하는데 수령을 직접 만나뵙는가 뵙지 못하는가 하는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밝히신 로선과 전략전술을 어떻게 접수하는가 하는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니 우리 조직의 지시에 따릅시다.》

《용수동무.》

유철은 용수의 손목을 잔뜩 움켜쥐고 단김을 내뿜으며 말했다.

《동무는 날 잘 알지 않습니까. 조직의 원칙을 가지고 나를 막지 마십시오. 혁명가가 자기의 정치적수령을 만나뵙는것은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의 필생의 소원입니다. 물론 나는 만나뵙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직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들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수동무, 나도 인간입니다. 나는 그분을 만나뵙고싶은 욕망을 누를길이 없습니다. 용수동무는 그분을 만나뵈왔겠지요? 그리고 거기서 큰 힘을 얻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일하고있겠지요? 그런데 왜 나는 만나뵈올수 없단말입니까? 용수동무, 그 할미령턱밑에서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기어코 그분께 좀 데려다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필생의 소원입니다.》

《허허허.》 리용수는 유철의 뜨거운 입김을 피하듯 외면하며 웃었으나 유철의 열렬한 호소에 대해 동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왜놈들을 쩔쩔매게 하던 혁명가 유철동무도 이런 때는 마치 어린애같군요. 사실 유철동무도 아다십이 할미령턱밑에서 우리가 헤여질 때만해도 나는 그저 막연하게 혁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정도의 농촌청년에 불

과했지요. 그런데 **김일성**동지를 만나뵙고 짧으나마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사이 나도 조선혁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왜 유철동무의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약속이 없더라도 나는 유철동무를 그분께 데려가고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할수 있는것은 내 힘껏 유철동무의 열렬한 희망과 심정을 조직에 반영하는것뿐입니다. 그런데 내 짐작에 그분께서도 사정만 허락하신다면 유철동무의 희망을 들어주실것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원래 사람들의 그런 희망과 생활문제에 대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관심이 깊으신분이십니다.》

《아— 용수동무, 고맙습니다. 내가 근 반평생 길을 찾아 헤매돌아가다가 오늘에야 제길에 들어섰군요. 고맙습니다. 참말 고맙습니다.》

유철은 용수의 손을 잡고 흔들며 거듭거듭 목메인 소리로 되뇌였다. 눈발이 자욱한 하늘도 그 하늘처럼 답답하던 가슴도 일시에 개여오르는듯하였다. 세상만물이 정답고 고맙게 생각되였다. 푹푹 발등을 묻는 흰눈도, 어디선가 들리는 개소리도 눈가루를 목덜미에 뿌려주는 차거운 바람도 모든것이 포근하고 다정하고 후덥게 느껴졌다. 유철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안해의 무덤은 이미 눈발과 어둠 속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형체없는 봉분대신 살아있는듯 선명한 안해의 영상이 그 정답고 포근한 하늘에 그려졌다.

(이것은 혹시 당신이 나를 위해 마련해준 행복이 아니요? 나는 그이를 만나뵈올것 같소. 아— 나는 우리 조선혁명의 수령을 만나뵈올것 같소.)

15

하늘은 높이 개였다. 새파랗게 가시여낸듯한 공기속에 성에가 가시처럼 박혀 반짝거렸다. 사나운 추위가 계속되였다. 유철은 소년처럼 가슴을 울렁거리면서 무시로 지게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기도 하고 사립문밖으로 나와 저 멀리 길이 돌아오는 산굽이를 내다보기도 하였다. 행복의 그 순간을 기다리는 지금 그의 마음은 안타깝도록 죄여들기도 하였지만 평생에 있어보지 못한 그런 정신적앙양을 스스로 느끼는것이였다. 어디로든지 막 달려가면 그이를 만나뵈올 시각을 조금이라도 앞당길것만 같은 충동이 불쑥불쑥 치밀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무리 안타까와도

그이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기다리는길밖에 다른 수가 없었다.

그날 리용수는 일단 그를 30리가량 떨어진 어떤 농가에 은신시켜놓고 가더니 이튿날밤에 다시 와서 이곳 비밀아지트까지 데리고 왔다. 그리고는 다른 공작때문에 그지간의 회포를 풀 겨를도 없이 총총히 떠나갔다.

지금 **김일성**동지께서는 중요한 공작때문에 인차 오시지 못하는데 몸도 조섭할겸 며칠 기다리라는것이였다. 보매 그의 청이 **김일성**동지께 반영되여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것 같았다.

깊은 산속에 외따로 떨어져있는 이 집은 직접 그이께서 쓰시는 조선혁명군의 비밀아지트였다. 그렇기때문에 마음을 푹 놓고 자유롭게 이야기할수도 있고 또 마음껏 생각을 가다듬을수도 있었다.

무시로 다른 지방에 갔던 조선혁명군대원들이 나들기도 하고 국내와 각지의 중요한 혁명간부들이 사업토의나 련락을 위해서 찾아왔다. 그들은 만나면 의례 서로의 손을 억세게 틀어쥐고는 우선 **김일성**동지의 안부를 물었으며 오래 떨어져있던 사람들은 가까이 만나뵈온 사람들에 대해 부러움을 감추지 않고 그이에 대한 그리움을 터놓군하였다. 두간두간 주고받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유철은 여기에 드나드는 수많은 혁명가들이 **김일성**동지께서 열어주신 조선혁명의 길을 따라 신심과 환희에 차서 내달리고있다는것을 생동하게 느낄수 있었다. 그들은 농민차림이나 공사판의 로동자차림으로 오기도 하고 혹은 교원이나 지방유지같이 가장한 사람들도 있었다. 첫눈에 세련된 투사임을 엿보게 하는 그런 간부도 있었고 아직도 젊고 씩씩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속에라도 마음 푹 놓고 내놓을수 있는 듬직한 청년들도 있었다. 한결같이 어엿한 몸가짐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그이께서 돌아오실 날을 손꼽아기다리며 그이를 만나뵙지 못하는것을 안타까와하면서 떠나가고 또 새로 찾아들군하였다.

이 산속에 깊이 들앉아있는 작은 초가집아지트는 조선혁명의 중심지였다. 여기에서 **김일성**동지의 지시가 각 혁명조직으로 내려가고 또 모든 혁명조직의 활동이 여기로 반영되여 올라왔다. 그러기때문에 그이께서 계시지 않는 지금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여왔고 쉼없이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유철은 여기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 김기창이와 함께 길림에서 그이를 찾아 헤매일 때 뒤를 따르던 중절모에 다부산자를 걸친 그 청년이였다. 유철이 깜짝 놀라니 그 청년은 서글서글 웃으며 악수를

청하였다. 그제야 유철은 그역시 조선혁명군대원으로서 전날 리용수가 말한대로 **김일성**동지의 지시에 의해 감옥에서 나온 자기를 일제의 마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따라다녔고 그후 자기가 길림을 벗어나자 용수네의 조직에 인계해준것임을 짐작하였다. 유철은 자기의 신변을 위하여 그처럼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김일성**동지께 다시한번 감사의 정이 끓어올랐다. 윤동무라는 그 청년에게 거듭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했으나 그는 오히려 난처해하며 말하는것이였다.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한 조치는 직접 그이께서 취하신것이기때문에 모든 혁명조직이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혁명동지를 구하는 의미에 있어서나 혁명력량을 준비하는 의미에 있어서나 그이의 지시를 정확하게 집행하는것이 너무나 당연한것입니다. 어디 구원된것이 유철동무 한사람뿐인줄 아십니까? 수많은 동지들이 적들의 간계를 환히 꿰뚫어보시는 그이의 통찰력과 세심한 보살핌에 의해 구원되였습니다. 유독 나한테 이런 개인적인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내 립장이 오히려 곤난합니다. 차라리 마음 푹 놓고 이젠 몸을 추세워서 함께 그이의 혁명사상을 받들고 잘 싸워봅시다.》

보매 아직 무척 젊어서 어딘가 애티조차 느껴지는 사람이였으나 윤동무의 말은 무게가 있고 대범하면서도 될수록 유철의 정신적부담을 덜어주려는 깊은 뜻이 느껴졌다. 유철은 그럴수록 마음속으로부터 머리가 숙어졌으며 여기 그이의 두리로 모여드는 믿음직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새세대들에 의해 조선의 미래는 든든히 약속되여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유철은 우선 이 건전하고 생신하고 그러면서도 열정으로 들끓는 분위기에 몸도 마음도 훈훈해졌다. 마치 제 고향집에 돌아와 어디 바깥에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는것 같은 심정으로 그이를 기다렸다.

그날도 유철은 누군가가 읽다가 둔 얄팍하게 등사한 선전물을 훑어보며 종일 공상에 잠겨있는데 바깥에서 누군가가 뛰여들어왔다. 어제밤에 안도쪽에서 왔다는 혁명군대원이였다.

《오십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오세요.》

이렇게 급히 한마디 하고는 도로 뛰여나갔다.

방안의 사람들은 모두 벌떡 일어났다. 아지트의 책임자인 나이지숙한 내외도, 밤에 어디 공작나갔다가 쉬고있던 학생복차림의 청년 두사람도 그리고 어느 현의 혁명조직책임자라는 몸집이 실한 중년의 사나이도 모두 일단 문을 열고 산굽이쪽으로 난 길을 내다보고는 본능

적으로 제 옷매무시를 바로잡았다. 모두 방안을 이리저리 거두면서 기쁨에 들떠 가볍게 부산을 피웠다.

유철은 허줄한 자기 주제가 갑자기 면구스레 생각되였으나 달리 어찌할 방법도 없어서 잠시 주저하다가 신을 더듬어 신고 바깥으로 나갔다. 엉성한 싸리울바자를 돌아가자 껑충하게 선 백양나무아래에서 벌써 뚜벅뚜벅 힘차게 옮겨놓이는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유철동무가 와서 기다린다지? 벌써 여러날 기다렸겠구만.》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이로구나, 생각할사이도 없이 유철은 조급히 옮겨놓던 발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그리고는 조마조마한 심정에 사로잡혀 앞을 바라보았다. 그이께서 흰눈이 깔린 산을 배경으로 백양나무아래 나타나신것이였다. 검은 양복에 행전을 치셨는데 먼길을 오시느라고 신우에는 눈가루가 묻어있었다. 한겨울 맵짠 바람을 맞으시며 걸어오신 그이의 얼굴에는 혈조가 엷게 번지고있었다. 태산을 압도하는것 같은 름름한 체구의 분이시였다. 산천정기가 어린듯 그렇게도 빛나는 눈을 가지신분이시였다. 호수와 같이 넓고 시원한 이마에는 빛나는 예지와 깊은 사랑이 바다속처럼 가라앉아있는듯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철은 그이의 젊음에 넘치는 모습에 그만 눈물이 날만큼 큰 기쁨을 느꼈다. 이러한분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니 우리 나라의 장래는 이제 다시는 아무런 념려도 없을것이다.

잠시 걸음을 멈추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주 걸어오는 사람이 유철이라는것을 알아보시고 먼저 다가오시였다.

《유철동무지요? 반갑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안됐습니다.》

유철은 그이께서 내미신 손을 두손으로 마주잡고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만나뵙게 해주시니 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춥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어서 들어갑시다.》

유철의 손을 이끌고 마당으로 들어가시려던 그이께서는 유철의 옷주제를 퍼뜩 훑어보시더니 걱정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하하— 이 동무들이 손님대접을 잘못하는군. 옷이 있겠는데…좌우간 어서 들어갑시다.》

유철은 자기의 허줄한 옷주제때문에 공연한 걱정을 끼쳐드린다고 생각하니 송구스러워 몸둘바를 모르게 되였다.

《아닙니다. 제 옷이 뭐랍니까? 전 평생 처음이다싶이 뜨뜻한 아래

목에서 호강을 하며 지냈습니다.》

《좀 쉬였습니까? 잘됐습니다. 참…》

토방앞에서 신을 벗으시려던 **김일성**동지께서는 갑자기 허리를 도로 펴시였다. 그리고 유철의 손을 다시 더듬어 찾으시더니 힘주어 굳게 틀어쥐시였다.

《부인께서 불행이 있었다지요? 내가 일에 쫓기다나니 인사가 늦었습니다.》

유철은 황급히 물러서며 가볍게 머리숙이신 그이앞에 고개를 떨구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쟁을 더 하지 못하고 죽은것은 안됐지만 그래도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싸움의 길에서 죽었으니 저로서는 한이 없습니다. 걱정을 말아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유철의 목소리는 저도 걷잡을수 없을만큼 떨리였다. 그것은 안해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이 아니였다. 제 한가슴에 안고 삭이려던 자기 한사람의 슬픔을 그이께서 알아주실뿐아니라 이렇듯 만나뵙자마자 위로해주시는 그이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였다.

《왜 한이 없겠습니까? 주삼녀동무의 최후에 대해서는 리용수동무와 그곳 조직을 통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인의 희생은 유철동무에게도 큰 타격이겠지만 우리 혁명에도 아픈 손실이였습니다. 부인의 고귀한 희생에 의해 우리 조직은 위기를 벗어날수 있었습니다. 내 그 보고를 받고 부인의 높은 혁명정신과 모범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양하라고 일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철의 손을 잡으신채 멀리 어둠에 묻혀가는 산발을 바라보시면서 침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돌리시여 깊이 고개숙인 유철을 똑바로 바라보시였다.

《그래 아이는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리용수동무가 아이걱정을 하는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아이는…》

유철은 고개를 숙인채 들릴듯말듯한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처남에게 맡기고 왔습니다. 저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잘 키워줄것입니다.》

《처남에게 맡기고 왔다? 그러니 아이는 외삼촌에게서 크는 셈이군. 외가가 좋지요. 나도 한때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혁명을 하게 되면 자식들은 외가에서 자라는것이 있을수 있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어찌 친부모 손에서 자라는것 같기야 하겠습니까? 비록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것입니다.》
유철은 마침내 목메인 소리로 말했다.
《제 자식에게는 그래도 외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철동무, 외가마저 없는 조선의 아이들이 허다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철의 손을 놓고 잠시 생각에 잠겨 서계시였다. 높이 개인 하늘이 어둠에 번져가더니 백양나무 정수리우에 별이 하나 반짝 하고 빛났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다.
《유철동무, 부인이 감옥에서 나온 유철동무를 더운밥 한끼도 못대접하고 떠나보냈다고 가슴아파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인께서 살아서 유철동무를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희생되였으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삼녀동무의 뜻을 어기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나는 부인께서 그 누구보다도 유철동무와 어린아이를 사랑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혁명을 위하여 그렇게도 용감하게 싸울수 있었습니다. 주삼녀동무의 그런 희생적인 투쟁으로 하여 그곳에서 혁명은 더욱 앙양되고 우리 조직은 강화되고있습니다.》
유철은 깊은 시름에 잠기신 **김일성**동지의 모습을 부잇하게 흐려드는 시야속에 멍하니 바라볼뿐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안해의 희생이 자기에게 끼친 상처가 아파서보다 차라리 지금까지도 못다 깨친 그 연약한 안해의 가슴에 간직되였던 참된 사랑을 새삼스럽게 느낌과 동시에 모든 조선사람의 운명을 한가슴에 품고계시는 수령님의 위대한 품이 너무나 고마와 목이 메여왔다.
유철의 말못하는 심정을 헤아리시듯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계시더니 이윽고 좀 가벼워진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내 감옥에서 고생하는 소식도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디 몸이 불편한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 당장이라도 일할수 있습니다.》
유철은 번쩍 제정신에 돌아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허허허, 좋은 일입니다. 내 유철동무의 희망을 대충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줄 알았으면 저번 회의에도 참가하게 할것을 그랬습니다. 난 유철동무의 결심을 지지합니다. 물론 부인의 희생도 그렇고 아이일도 걱정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겨있거나 걱정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수는 없습니다. 혁명가의 진정한 사랑— 그것은 혁명투쟁에서 표현됩니다. 아이들이나 안해를 사

랑한다는것은 결국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데서만 진실한 사랑으로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질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우리 조선의 불쌍한 아이들을 위하여, 불쌍한 조선의 녀인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형제들의 원한을 풀고 원쑤를 갚기 위하여 혁명을 합시다.》

《저에게 과업을 주십시오. 저에게는 오직 하나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조선혁명의 길을 달려가는것밖에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저에게 혁명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허허허, 좋습니다. 들어갑시다. 저번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혁명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이께서는 유철의 손을 이끌고 성큼 토방에 올라서시였다.

×

《…본시 명색뿐이던 왜놈들의 부르죠아민주주의라는것은 이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키낮은 책상우에 한팔을 올려놓으시고 국제국내정세를 도도하게 풀어나가시였다. 창가에 심지를 돋구어놓은 방등불의 그림자가 그이의 넓은 이마우에 얼른거렸다.

유철은 이틀째 그이의 앞에 단정히 앉아 그이의 말씀을 빠짐없이 공책에 적어나갔다. 약간 틈서리가 벌어진 창문에서 문풍지가 파르르 떨고 그밑으로 보초를 서는 조선혁명군대원의 가벼운 발자국소리가 간간이 들려온다. 옆방에도 아지트책임자며 외지에서 온 공작원들 그리고 접견의 차례를 기다리고있는 각곳의 혁명조직책임자들이 몇몇 있으나 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모두 **김일성**동지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고있는것이다.

《일제의 파쑈군벌들은 독점재벌들을 등에 업고 침략전쟁에 미쳐날뛰면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이렇게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독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것은 내각총리대신도 쏘아죽이고 내각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판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결국 〈동방회의〉라는것도 생겨나고 〈다나까 상주문〉에서 나타난 침략계획이란것도 태여난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흉한놈들은 그 본질을 은폐할 목적으로 〈만주는 일본제국의 생명선〉이니 뭐니하는 반동적인 구호로 대중을 기만하면서 〈공

산주의 남하〉를 떠들어서 반쏘반공사상을 불어넣노라고 야단입니다. 이와 같은 일제의 침략정책이 가장 로골적으로 드러나고 또 그때문에 가장 큰 희생을 당하고있는것이 바로 우리의 조국 조선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중단하시고 고개를 숙이시였다.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실 때 도도하게 전개하시던 정세분석도 그만 가슴이 아파 숨을 돌리시는듯하였다.

유철은 침을 꿀꺽 삼켰다. 공책장에 쓴 글발들이 춤추는듯하였다. 어수선하게 머리속을 떠돌던 막연한 인상들이 정연한 체계속에 한줄로 꿰여졌다. 개개로 흩어졌던 세계의 쪼각쪼각들은 하나로 엉켜들어 혁명과 반혁명의 피어린 결전장으로 화한 1930년대초의 지구덩어리가 그리고 독오른 이를 갈며 달려드는 흉악한 맹수 일본제국주의의 쩍 벌린 아가리앞에 놓인 사랑하는 조국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세상과 온 나라를 한가슴에 안으신듯 그렇게 선명하게 오늘의 태동하는 정세를 그림처럼 펼쳐보이시는것이였다. 유철은 그이의 말씀을 또박또박 적어나가는사이 그이의 음조에 따라 주먹을 틀어쥐기도 하고 가슴치고싶은 울분에 모대기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이렇듯 복잡하게 뒤엉킨 세계의 수많은 문제들을 마치 날카로운 보검으로 헝클어진 삼거웃을 한칼에 베듯 하나하나 그 인과관계와 본질 그리고 전망까지를 환히 밝혀내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께서 이처럼 젊으시다는것에 대해 조선공산주의자로서의 크낙한 긍지와 행복 그리고 민족적자부심을 느끼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침략전쟁준비와 관련한 조선에서의 군사력의 증강과 군사파쑈통치의 강화 그리고 그때문에 빚어진 조선인민의 무권리와 생활고의 참상을 가슴아픈 어조로 그려보이시고나서 이어 놈들의 《만주사변》조작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준절하게 말씀을 이으셨다.

《…이놈들은 삼척동자도 속이지 못할 잔꾀를 부려 만주를 강도적으로 침략하였지만 여기에 대해 똑똑하게 말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위 〈국제련맹〉이라는것은 애당초 일제를 비호두둔하던놈들의 꼭두각시놀음판이니까 무슨 〈조사단〉이라는것을 보낸다고 떠들어대지만 기대할만한것은 없고 중국의 국민당정부라는것은 또 어떠냐할것 같으면 이자들은 빈말로나마 항의 한마디도 똑똑히 못하고있는 형편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에 있어서의 이놈들의 계급적립장이 같고 정책이 같고 또 인민들을 략탈착취하며 인민들

의 혁명적진출을 내리누르는데 있어서 리해관계가 같기때문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기서 잠시 말씀을 중단하시고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윽고 번쩍 고개를 드시였다. 그 순간 천지의 온갖 불의를 한꺼번에 불사를것 같은 강한 빛이 그이의 눈에서 내뻗치였다. 유철은 마음이 송구하여 저도모르게 고개를 떨구었다.

《내보기엔 대체 이와 같은것들이 오늘날의 정세에서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런 정세하에서 우리 인민들은 어떻게 하고있는가? 우리 조선인민들은 그저 손발을 쇠사슬로 얽매도 가만히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 인민은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있지는 않습니다. 왜놈들이 비록 우리 나라를 감옥과 병영으로 뒤덮고 우리 인민을 구두발로 짓밟고있지만 이에 대해 우리 로동계급과 농민들은 결정적인 항쟁으로 넘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일제와 조선인민간의 민족적계급적 모순은 극도로 첨예화되였고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들은 싸움에 떨쳐나섰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20년대말과 30년대초에 급격히 앙양된 조선인민들의 반일투쟁과 그 폭동적성격의 강화에 대해 찍어서 말씀하시고나서 이으셨다.

《그러면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공산주의자들앞에는 극악한 반동으로 굴러떨어진 일제를 결정적으로 쳐없애며 나날이 앙양되고있는 우리 로동자, 농민들의 폭력적진출에 조직성과 목적의식성을 부여하고 그를 더욱 발전시키게끔 적극적인 투쟁에로 넘어갈 커다란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이것은 말과 같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날에도 조선인민은 독립을 찾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웠고 많은 사람들이 피도 흘리고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투쟁에서 아무것도 얻은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피의 교훈이 있을뿐입니다. 결국 경험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책상우에 올려놓으신 두팔을 안으로 모으시고 조용히 책상 한끝을 다독거리시였다. 그 가락맞는 소리에 따라 피와 눈물과 한숨으로 아로새긴 지난날의 반일투쟁의 곡절 많은 나날이 하나하나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서서 오늘의 싸움에 대해 무엇인가 암시하고 속삭이는것만 같이 느껴졌다.

《결국 경험은…》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광복과 민족적독립을 일제에게 청원하거나 다른 제국주

의 세력, 또는 어떤 강대국이나 혁명을 먼저 한 나라의 힘에 의거하여 이룩해보자는것은 전혀 어리석은 망상이라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경험은 사상계몽운동이나 파업투쟁도 민족해방투쟁에서 일정하게 긍정적인 의의를 가지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에게 결정적타격을 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중의 앙양된 폭력적투쟁도 확고한 주체적 혁명리론에 의해 조직되고 지도되지 않는다면 실패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철동무가 하강지구에서 체험한것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습니다. 유철동무가 말한바와 같이 거기 사람들이 혁명을 하기 위해 용감하게 폭동에 궐기한 그 정신은 좋은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희생만 내고 걷어쥔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곳 조직에서 진정한 주체적혁명리론을 가지고 대중의 혁명적진출을 잘 짜고들어 지도했다면 그렇게 될수는 없습니다. 시기를 고르는것도, 대렬을 편성하는것도, 구호를 내세우는것도 모두가 정확한 주체적혁명리론에 근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강지구에서만 있은 일도 아니고 유철동무 한사람이 체험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이 문제를 똑똑히 총화하고 정확한 결론을 끌어내야 합니다.》

유철은 긴장되였다. 자기가 10여년간 혁명의 길에서 몸부림치면서 찾아헤매던 조선혁명의 근본문제가 바야흐로 해명되려 한다는 예감을 느낄 때 그의 머리속은 불덩어리가 들어앉은듯 화끈 달아올랐다. 손이 떨려 공책에 적어나가는 글줄이 비틀거렸다. 때로는 너무나 열중하여 적는것도 잠시 잊어버리고 그이의 엄숙한 얼굴을 바라보기도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셨다가 준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조성된 정세,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경험, 앞으로의 투쟁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우리가 일제를 쳐부시고 우리 나라의 광복과 독립을 달성하며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손에 무기를 잡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상비적인 무력을 가지고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하는것입니다.》

《네? 무장투쟁입니까?》

유철은 저도모르게 반문하였다. 뜻밖의 말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목마르게 기다리던 말씀이기도 하였다. 무

장투쟁！ 그렇다！ 총을 잡아야 한다.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가？ 그런데 무장투쟁을 어떻게 하겠는가？ 순간적으로 유철의 머리속에는 수만가지 생각이 떠올랐다가는 사라지고 그러다가는 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군하였다.

유철은 그이의 말씀을 새기려고 안타깝게 모대기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철의 모습을 너그럽게 바라보시면서 그가 자기 생각을 수습할동안 잠시 여유를 두셨다가 천천히 타이르시듯 말씀을 이으셨다.

《그렇습니다. 내 이미 30년 여름부터 말해옵니다만 우리는 무장투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한바와 같이 일제의 파쑈적폭압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소한 합법적활동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일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하고 조선인민을 총칼과 구두발로 마구 짓밟고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오직 이 무장한 반혁명을 무장한 혁명으로,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써만 격파하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길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체적혁명리론에 의해 지도되며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확고한 대중적지반우에서 진행되는 이와 같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써만 우리 손으로 포악한 일본제국주의를 철저히 소탕할수가 있으며 민족해방의 위업을 조선사람의 힘으로 실현할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힘을 믿고 자기 혁명을 하겠다고 추호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우리 손에 튼튼히 무장을 틀어잡고 우리 손으로 원쑤일제를 쳐부셔야 합니다. 무장투쟁만이 현시기 조선혁명을 한계단 발전시키고 최후승리를 달성할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준비로서 조선혁명군을 조직하고 2년가까이 경험을 쌓았는데 그 길이 옳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밤은 깊어갔다. 방등불의 심지는 여러번 돋궜으나 또다시 기름 타는 냄새가 지지 끓어올랐다. 장지문 저쪽 옆방에서는 간간이 아지트책임자의 기침소리가 들려오고 연필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풍지가 떠는 창밖에는 보초의 발자국소리가 이따금 뚜벅거렸다.

유철은 가슴속에서 화산이라도 내뿜는것 같이 자꾸만 숨이 가빠오르는것을 억지로 누르며 그이의 말씀을 한마디도 빠칠세라 열심히 적어나갔다. 그이께서는 이미 이틀째 말씀을 계속하시고 또 이 밤도

깊었건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이의 안광에는 더욱 정기가 넘치고 어조는 갈수록 거침이 없었다. 수만 조선의 혁명가들이 피와 청춘과 생명 그리고 온갖 개인적안락과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다 버리고 그것을 찾아 숲을 이루다십이한 동서의 무수한 고전들을 책갈피가 닳도록 뒤지다가는 산으로, 벌판으로 혹은 바다건너 멀리 낯설은 이국에까지 찾아 헤맸건만 그 아무도 못찾아내고 만나지도 못한채 헛되이 혁명의 열정만 불태우던 조선혁명의 로선이, 그처럼 위대하고 선명하고 곧바른 조선혁명의 길이 뚜렷하게 열려진것이였다. 유철은 문득 이것이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남달리 안타깝게 기다리고 찾아헤매였기때문에 급기야 이렇게 위대한 령도자를 만나뵙고 혁명의 수령으로서의 그이의 위대한 풍모에 접하였을뿐아니라 직접 그이로부터 이렇듯 명쾌한 로선을 접수하고 보니 자기의 지난 나날의 모대김과 안타깝던 갈망이 오히려 부족하고 그대신 이루어진것이 너무나 큰듯하여 자기의 행복이 차라리 송구스럽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철은 자기의 마음속에 끓어 넘치는 이런 착잡한 감회를 드러낼 기회가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항일무장투쟁의 로선을 제시하신데 그치지 않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까지를 낱낱이 일깨워주시는것이였다.

《내 이미 지난 9월에 송강에서 진행된 군중단체 지도자들의 협의회에서도 말했고 또 저번 명월구에서 진행된 당일군들의 회의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무장투쟁을 진행하는데는 몇가지 원칙적인 문제들을 똑바로 규정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을 이으셨다.

《우리는 이 투쟁이 매우 가혹한 조건에서 진행돼야 한다는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것만큼 만난을 무릅쓰고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정확한 주체적혁명령도를 보장하며 줄기차게 혁명을 끌고나갈 핵심적골간을 자래우는것이 무장투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파분자들의 책동과 일제의 야수적탄압으로 말미암아 조선공산당은 해산되였으나 앙양된 투쟁속에서 기본계급출신의 새로운 공산주의자의 세대가 매우 빠르게 자라나고 공산주의대렬은 질적으로 확대강화되였습니다. 이들은 온갖 종파주의와 좌우경기회주의 특히 대국주의와 사대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면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중심력량으로 등장하였고 또 이미 대중투쟁에서 광범한 인민들의 높은 신임도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는 계급적각성이 높고 대중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선진분자들을 골라서 그들을 우수한 공산주의 핵심으로 자래워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준비된 핵심들을 골간으로 투쟁대렬을 꾸려야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장차 조직될 무장투쟁대렬과 전반적혁명운동에 대한 정확한 령도도 보장할수 있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도 보장할수 있는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문제와 결부하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어떻게 닦을것인가 하는것을 알기 쉽게 실례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시였다. 그런 다음 투쟁형태를 정확하게 규정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지어진 적아간의 력량관계와 투쟁조건으로부터 우리의 무장투쟁은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유격전이라는 말에 유철은 다시한번 귀가 번쩍 띄여 고개를 들었다.

아닌게아니라 무장투쟁이라는 말씀만 들었을 때는 가슴속이 울렁거리면서도 일제의 강대한 무장을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것인가에 대해 노상 의문이 없지도 않았다. 유철은 수령의 명쾌한 방침에 다시한번 머리속이 확 트이면서 눈앞이 환해지는것을 느꼈다.

《유격전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깨우쳐주시였다. 《싸움을 할 지대가 어떤곳인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리용할것인가, 이러한것들을 알고 인민대중의 광범한 지지성원에 의거함으로써 자그마한 힘을 가지고도 큰놈을 야금야금 먹어들어가서 결국 꺼꾸러뜨릴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유격대를 조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직하자는 유격대는 어떤 성격의 무력인가？ 그것은 일제를 타도하기 위해 직접 손에 무기를 잡고 싸우는 혁명무력일뿐만아니라 조선혁명의 주도적력량으로서 여러가지 형태의 다른 투쟁에 대한 전반적지도를 실현할수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부대로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해서는 혁명군중에 확고히 의거해야 하며 대중속에서 무장투쟁의 필요성과 유격대의 계급적성격을 꾸준히 해설해주며 무장을 준비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무장투쟁을 하는데는 총을 잡을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총이 있어야 한다는것입니다.》

그이의 말씀에는 갈수록 정채가 넘치였다. 그에 따라 유철이 역시 이미 밤이 깊었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이의 말씀에 점점 깊이 끌려들어갔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니 여태 인적기 하나 느껴지지 않

던 정지간이 갑자기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옆방에 계신다는것을 아는만큼 극도로 조심을 하는 눈치이기는 하나 어쨌든 급히 드나드는 발자국소리며 다급하게 주고받는 말소리들이 느껴졌다.

김일성동지께서도 옆방의 심상치 못한 기미를 느끼신듯 말씀을 중단하시고 잠시 그쪽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누가 왔소?》

그러자 여태 문가에 붙어서서 기척을 낼가 말가 주저하고있었던 모양인 아지트책임자의 목소리가 얼른 대답하였다.

《저 금방 윤동무가 도착했습니다. 급한 보고가 있어서… 지금 여쭈어야 할지 어떨지 몰라 망설이고있는중입니다.》

《윤동무가 이 밤중에 왔단말입니까? 어서 들여보내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가우신듯 절반쯤 허리를 일으키시였다.

《문건을 전하고 방금 돌아왔습니다.》

길림에서 만났던 다부산자차림의 청년 윤동무가 문가에 나서더니 먼길을 급히 달려온것이 한눈에 알리는 가쁜 목소리로 보고를 드렸다.

《수고를 했소. 어서 이리 들어앉으시오. 그런데 어떻게 되여 이렇게 빨리 왔소? 무슨 사고라도 있은게 아니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윤동무의 한쪽 손을 잡고 방안으로 이끄시며 물으시였다.

《실은…》하고 윤동무는 그이앞에 앉기가 거북한듯 옆으로 몸을 돌리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하였다.

《저 홍창성동지가 체포되였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려고 그 자리에서 되돌아섰습니다.》

《홍창성동무가?》

김일성동지께서도 뜻밖이신듯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어

《그건 어떻게 된 일이요? 어디서 잡혔소?》하고 물으시였다.

《제가 가니 이미 홍창성동지는 이리로 떠나고 없었습니다. 저번 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지시를 집행하자고 정작 사업을 벌려놓으니 제기되는 문제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생각다못해 홍창성동지가 직접 **김일성**동지께 문의도 하고 여쭐 말씀도 있고 해서 이리로 떠났다는것입니다. 그래 제가 **김일성**동지의 지시를 조직부책임자에게 전하고 되짚어 따라오면서 알아보니 룡정에서 그전날에 이미 체포되였다는것입니다.》

《하긴 무장투쟁이 누구나 처음 해보는 일인만큼 예견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와 부딪칠수밖에 없지. 한데 홍창성동무가 나와 헤여진지 불과 열흘이 되나마나한데 직접 나설 생각을 한것을 보면 긴급한 일이 생기긴 생긴 모양이요.》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들으며 유철은 속이 죄여들었다. 이 아지트에 와서 묵는 사이 알게 된 일이지만 홍창성이란 여러 현을 포괄하는 큰 지역의 혁명조직책임자로서 **김일성**동지께서 무척 아끼시는 간부의 한사람이였다. 그런 사람이 눈앞에 중대한 사업을 두고 적들에게 체포되였다는것은 이만저만한 일이 아닌것이다. 유철은 긴장된 윤동무의 표정이며 옆방의 동정이 우연치 않다는것을 느끼며 저역시 숨소리를 죽이고 **김일성**동지의 안색을 조심스레 살폈다.

《음— 그놈들이 홍창성이를 체포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드시며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호탕한 목소리로 이으셨다.

《제법 기광을 부리는걸. 그놈들이 홍창성이가 누군지 알기나 하고 잡았소？》

《아마 매복에 걸린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직 똑똑한것은 모르겠습니다.》

윤동무는 **김일성**동지의 태연자약한 안색에서 힘을 얻은듯 좀 밝아진 어조로 재빨리 대답하였다.

《그러기가 쉬울거요. 그놈들이 홍창성인줄 알았다면 그렇게 가볍게 손을 댈 생각을 못했을거요. 하나 아무튼 왜놈들의 발광으로서는 제법인걸.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윤동무와 유철의 얼굴을 번갈아보시더니 근심어린 목소리로 물으셨다. 피뜩 돌아보시는 그이의 안광에서는 순간 노한 불빛이 번쩍 하고 지나갔다. 유철은 송구한것을 느끼며 한편으로 그이께서 한아래일군의 문제를 두고 얼마나 심려하고계시는가 하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여전히 태연하신 안색으로 말씀을 이으셨다.

《그놈들이 홍창성이를 잡았다.— 홍창성동무가 한창 바쁠 때에…좋소, 이젠 날씨도 찬데 그 사람을 거기다 그냥 둬둬서는 안되겠소. 가뜩이나 몸이 약한 동문데 혹 그놈들이 홍창성동무를 알고있다면 재미없을수도 있소. 그러니까 곧 빼내도록 합시다. 만일에 그놈들이 홍창성동무라는것을 이미 알고있다면 간단히 내놓자고 안할거요. 그러니까 빼내는데는 좀 준비를 잘할 필요가 있을것 같소. 이 문제를 지방조직에 맡기지

말고 동무들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는것이 좋겠소.》

《알겠습니다.》

윤동무는 **김일성**동지의 반석같은 몸가짐과 자신만만한 말씀에 이젠 모든 근심이 사라진듯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얼마나 걸리겠소?》

《한 일주일이면 될것 같습니다.》

《일주일?》

김일성동지께서는 짧게 반문하시더니 이으셨다.

《그렇게 끌어서는 안되겠소. 일주일이면 놈들도 눈치를 챌수 있고 무엇보다는 홍동무의 건강이 문제요. 일이 바쁜데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해서는 안되겠소. 한 사나흘이내에 빼내도록 해보시오. 그리고 그 동무가 직접 여기까지 올 생각을 한것을 보면 뭔가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인데 우선 누가 먼저 가서 홍동무를 만나보고 오는것이 좋겠소. 내가 지시에다 기본적인것은 다 써놓았지만 뜻밖의 정황이 생겼을수도 있으니 될수록 빨리 알아야 할것 같소.》

《그럼 제가 이 밤중으로 다시 갔다오겠습니다.》

윤동무는 당장 떠날 차비로 한절반 허리를 일으키며 그이의 허락을 기다렸다.

《아니 그러지 말고 동무는 오늘밤 쉬면서 탈옥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것은 딴 동무를 조직해서 보내시오. 그건 간단히 들어가서 만나고 오면 되는 일이니까. 동무는 오늘밤은 좀 쉬오.》

《전 일없습니다.》

《그렇게 덤빌 필요는 없소. 또 이쪽 탈옥문제가 중요하기도 하니 내 시키는대로 하오. 한데 그놈들이 제법 기광스럽게 굴거던. 허허허 유철동무. 왜놈들이 우리 혁명조직의 큰 책임자를 붙잡았다오.》

유철은 결코 좋은 일이라고 할수 없는 혁명동지의 체포와 관련된 사건을 앞에 두고 어쩐지 경우에 닿지 않는 자신심이 뿌듯하게 생겨났다. 왜놈들은 어떤 발악이나 책동으로써도 그이를 동하게 할수 없으며 그이를 상심시킬수 없다는 확신이 온몸에 확 퍼져왔다.

윤동무가 돌아가자 그이께서는 방금까지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신듯 전과 꼭같은 어조로 항일유격대의 창건문제를 두고 말씀을 이어나가시였다.

정지간에서는 무슨 사업조직이 벌어진듯 잠시 두런두런하는 목소

리들이 들려왔으나 인차 잠잠해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까 하시던 말씀에 이어 유격근거지문제와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문제를 제기하시고 이에 대해 명석한 결론을 지으시면서 힘에 넘치는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내가 회의에서도 말하고 우리 동무들에게도 말하지만 우리가 무장을 잡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는 이미 일제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되여 주권도 민족군대도 가지고있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누구에게서 방조를 받거나 빌어서 우리 혁명을 수행할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자체의 힘으로 무장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한탄하면 누가 무기를 가져다주겠는가? 절대로 그럴수는 없습니다. 무기도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무기는 어디서 구하는가? 돈이 있으면 살수도 있고 또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길은 적의 무기를 빼앗는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기를 해결하는 가장 혁명적인 방도입니다. 지혜를 짜내고 장소를 골라서 용감하게 나서면 각기 자기가 잡을 무기는 해결할수 있습니다.》

산너머 먼 동네쪽에서 닭이 첫홰를 치는 소리가 아슴푸레 들려왔다. 바깥에서는 새벽바람이 이는 모양 나무가지들이 윙윙 울부짖기 시작하였다. 문득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을 중단하시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 내가 오늘밤도 또 유철동무 건강을 생각 못했습니다. 감옥에서 갓 나온 몸인데다 최근에 심신이 다 고단하겠는데 이렇게 밤을 패게 해서 안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만하고 래일 또 이야기합시다. 이젠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밝기까지 잠시라도 눈을 붙이십시오. 참, 이건 우리 동무들이 무장투쟁을 준비하면서 만든 호소문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래일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좀 이야기해봅시다.》

《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다가 **김일성**동지 역시 이틀째 이렇게 밝히실뿐아니라 낮에는 국내외 각처로부터 모여드는 보고와 문의에 대해 결론을 주시고 새로 각처로 공작원들을 파견하시는 등으로 잠시도 쉬실 짬이 없으셨다는것을 생각하고 차라리 순순히 물러나는것이 그이의 건강을 위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급히 인사를 드렸다.

《그럼 편안히 주무십시오. 전 물러가겠습니다.》

《아니 같이 여기서 잡시다. 하긴 내가 새벽잠이 없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것쯤 일이 있습니까? 잠이 깨면 또 우리 혁명을 두고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아닙니다. 저는 저 방에서 자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유철은 너무나 황송하여 황급히 인사를 다시 올리고 장지밖으로 물러났다. 홍창성에게로 떠날 사람은 이미 출발했는지 정지간은 조용했다.

×

잠자리에 누워서도 유철은 가슴이 울렁거려 도무지 잠들수가 없었다. 혁명의 앞길은 그렇게도 명백하고 휘황하였다. 그이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조선혁명의 앞길에는 물론 허다한 애로와 난관이 있고 수많은 곡절이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사람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모실 위대한 수령님이 계시여 이미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아무리 애로와 난관이 중첩되더라도 그이의 정확한 로선과 그처럼 위대하고 독창적인 전략전술에 의해 하나로 뭉쳐 싸운다면 뚫고 나가지 못할 장애가 없을것이다. 길도 불빛도 없는 거치른 광야를 마구 헤매여다니다싶이 한 지난 나날이 떠올랐다. 생각만 해도 무섭고 몸서리쳐지는 암흑의 나날이였다. 그속을 용케 뚫고나와서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행복을 누리게 되였다는것이 꿈같이만 생각되였다.
《항일무장투쟁!》
유철은 홀로 외워보았다. 이제 그이의 말씀을 듣고보니 달리는 조선인민이 나갈 길이 있을수 없는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로선이라는것이 명백하였다. 무장투쟁이 아니고는 조국을 광복할수도 없으며 조선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할 길도 없었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 이러한 위대한 로선을 밝히시기전에는 그 아무도 감히 이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로선을 제시할수 없었다. 사실 오늘과 같은 형편에서 강대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생각한다는것은 여느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1910년대부터 기울어지는 나라를 바로세워보려고 한때 의병운동이며 독립군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에 더는 견딜수 없어 몇자루 안되던 초라한 화승대마저 땅속깊이 파묻고 흩어진지 오랬다. 그 뒤로 여러 세대의 혁명가들이 수많은 곡절을 거치며 몸부림도 쳐봤으나 결국 오늘에 와서는 더는

뻗치여낼 신심도 전망도 준비도 정열도 다 밑창이 나서 멀리 물러나앉았고 그 가운데 많은자들이 변질타락하였다. 아직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혁명의 길에서 아글타글 헤매고있는 많지 못한 사람들조차 시대의 거치른 광풍을 맞받아나가기에는 너무나 신념이 약하였다. 그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구슬플만큼 애틋한 사랑을 산산이 깨여진 비좁은 가슴에 남몰래 감추어안고 고작 피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허송하고있을따름이다.

과연 그 누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를 그 어떤 다른 사람의 힘도 빌리지 않고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때려눕혀야 하며 때려눕힐수 있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는가? 그와 같은 드팀없는 혁명의 신념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구상하고 작성하며 그 구현을 위한 방대하고 장기적인 준비와 투쟁을 조직할 그런 혁명의 영재가 과연 어디에 있단말인가? 과연 **김일성**동지가 아니고 그 누구에게서 그런 천재적인 주체적혁명사상, 빛나는 예지, 그리고 무한한 창조력과 완강한 의지를 생각할수 있겠는가?

아시아를 제패하려는 파쑈열병에 걸려 미쳐날뛰는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눕히기 위해서 조선인민은 손에 무장을 들어야 한다!

시대의 엄숙한 요구를 대변하신 그이의 이 우렁찬 말씀은 곧 진리의 위대한 메아리이며 그것은 바로 력사가 처치해야 할 일본제국주의의 정수리에 내려진 준엄한 선고이다. 그렇기때문에 유철이 역시 이제 와서는 마음속으로 부르짖는것이였다. 달리는 길이 없다, 달리는 방법이 없다 하고. 그러나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 아무도 그것을 생각 못하고 차라리 그 길에서 더 먼곳으로만 피해가지 않았는가? 그것을 보는데는 아득한 력사와 광막한 시대를 한눈으로 굽어살피는 영재의 눈이 필요하다. 그것을 확인하는데는 거인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을 정연한 체계로 리론화하고 완성하며 현실로 전변시키는데는 심오한 혁명리론의 터득과 풍부한 실천적경험 그리고 무한한 창조력과 불면불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인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구현하는데는 자기의 모든것을 그것을 위하여 고스란히 바치며 그것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도 달게 받으려는 숭고한 혁명정신, 조국과 인민, 계급에 대한 고귀하고 위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 모든것을 한몸에 겸비하신분, 그런 위대한 혁명의 수령, 절세의 애국자, 민족적영웅을 **김일성**동지 이외의 그 누구에게서 찾을수 있겠는가? 참으로 이 민족수난의 시기에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게 된 조

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의 행복은 끝이 없다.

유철은 숫제 잠들 생각을 잊어버리고 어둠속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경건한 마음에 이어 기쁨이 용솟음쳤다. 그는 아이들처럼 행복에 취해 누군가를 잡고 밤을 밝히며 실컷 자랑이라도 해보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생각하였다. 이제 나는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작더라도 하나하나 혁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그러한 사업을 수행해나갈것이다. 나에게 어떤 과업을 주실것인가?

그이께서는 앞으로 전개할 유격전쟁의 특성으로부터 근거지를 조선의 북부지대와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일대의 국경지대에다 설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니 국내에 나가 지방조직에서 일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도 헤매일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그이께 여쭈어볼수 있는 기회가 늘 지어질것이다. 그러나 지방조직에 나가는것보다는 역시 직접 그이옆에서 무슨 일이든 할수 있게 되였으면 얼마나 좋을가. 그렇게 되면 나는 혁명리론학습도 더 깊이있게 하고 또 군중을 조직하고 교양하는 방법도 직접 배울수가 있을것이다.… 아무튼 그이께서는 나에게 가장 알맞는 과업을 주실것이다. 직접 그이의 지도를 받으며 혁명사업에 몸바칠수 있다면 일을 가릴것이 있는가? 당장 래일부터라도 나는 일할수 있다. 나에게는 당장 떠나갈수 있는 혁명의 뚜렷한 길이 열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자 가슴은 걷잡을수 없이 설레이고 머리속은 터져나갈지경 흥분되였다. 아무래도 잠을 청할수 없었다. 그는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지 않게 살그머니 일어나 방등에 불을 켜고 제 머리맡에 조심히 갖다놓았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적은 공책을 소리 안나게 한장한장 번지며 심오하게 전개하시던 정세분석과 우리 혁명의 현단계의 임무 그리고 유격투쟁의 새 로선과 그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방침들을 하나하나 더듬어나갔다. 책갈피에서 아직도 등사잉크냄새가 풍기는 호소문이 나왔다. 혁명적군중을 무장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호소문이였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누나, 아우를 잃은 무산청년들아! 금강석같이 굳고굳은 투지로 이를 갈고 주먹을 쥐고 무산계급 총전선마당으로 나와 판가리싸움에서 원쑤를 복수하자!…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피끓어넘치는 청년들아! 신을 든든히 신고 오라. 무장로선으로 준비

하라… 동무들아！ 단결하라！ 준비하라！ 무장로선에 총동원하라！》
　심장의 붉은 피가 펄펄 끓어넘치는듯한 호소문의 구절구절들을 더듬으니 세계를 진감하며 일어서는 조선무산계급의 힘찬 진군의 발구름소리가, 혁명을 웨치는 그 우렁찬 합성이 광야를 짓누르며 울려오는듯하였다. 유철은 도무지 앉아있을수 없었다. 그는 공책과 호소문을 움켜쥐고 바깥으로 뛰여나갔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고있었다. 이미 어둠은 희슥희슥 엷어지고 동쪽산마루가 불그레 물들어가고있었다. 유철은 두팔을 활짝 벌리고 차겁고 신선한 새벽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웨쳤다.
　《아— 태양이 솟는구나. 조선에 태양이 솟는구나—》

16

　《유철동무, 나는 동무에게 특별히 중요한 일을 맡겼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시아전도를 펴놓으시고 이구석 저구석 더듬어보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침내 고개를 드시여 말씀하시였다.
　유철의 가슴은 활랑거리기 시작하였다. 오늘아침부터 유격대의 조직방법과 유격전쟁의 몇가지 원칙적문제, 전략전술상의 특징들 그리고 군중적지반을 꾸릴 구체적방도들과 사업방법 등 치밀하고 세심한 부문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깨우쳐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점심참에 일단 이야기를 중단하시고 유철로 하여금 생각할 여유를 주시더니 겨울해가 벌써 기울어져가는 지금 이렇게 불러앉히시고 정중한 어조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사실 간밤부터 꼬바기 밤을 밝히며 이 순간을 머리속에 그리고 가슴을 울렁거려온 유철이였다. 아니, 생각해보면 바로 이 시각을 위하여, 조선혁명의 수령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혁명의 전사 유철은 10여년전부터 피어린 싸움의 길을 걸어온것이였다. 유철은 너무나 감격하여 말도 못하고 그저 그이의 웃음어린 너무나 소탈하신 얼굴을 바라보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 지도우로 눈길을 돌리시더니 《우리가 지금 이쯤 앉아있는 셈이요.》하고 껄껄 웃으셨다. 《이 한점에서 우리는

조선혁명의 불길을 추켜들고 이 모든 땅을 환히 비쳐보자는것이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손바닥을 펴시여 지도를 덮더니 단번에 쓱 쓸어버리시였다. 그이께서 하시는 한마디 말씀, 하나의 움직임은 곧 그대로 힘이요, 정열이요, 지혜였다. 유철은 삽시에 가슴이 후련해지는것을 느끼며 《저에게 과업을 주십시오.》하고 거리낌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큰일을 하자면 근거지를 잘 잡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혁명이 하루이틀에 끝날 간단한 일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국가적후방이라는것도 없고 우리와 함께 싸울 다른 군대도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근거지를 잘 꾸려서 장기적인 싸움에 대처할 발판을 삼아야 합니다. 싸움을 하자면 후방도 보장해야 하고 들고나면서 휴식도 해야 하고 훈련과 학습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혁명의 정세와 력량관계 그밖의 여러가지 조건들을 타산해서 나는 이 일대를》 그이께서는 조선북부지대와 백두산주변의 국경지대 그리고 주변산림을 가리키시면서 말씀을 이으셨다. 《유격투쟁의 근거지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기본적으로 이 근거지에서 일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조선과 만주 도처에 널려있고 우리의 혁명군중 역시 이 근거지일대에 그중 많이 집중되여있기는 하나 또 다른곳에도 많이 펴져있습니다. 그런것만큼 우리는 다른 광범한 지대에서 적극적으로 혁명활동을 벌리여 혁명적군중을 묶어세우고 도처에서 적들에게 타격을 주어야 합니다. 군사적으로 말할 때 적을 기본전선에서 칠뿐아니라 보조전선에서도 쳐야 하며 머리를 칠뿐아니라 팔다리도 하나씩 각을 떼내여 옴짝달싹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만큼…》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긴장되여 지켜보는 유철을 마주 바라보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따라 어떤 거창하고 줄기찬 산맥과 같은 형상이 지도우에 떠올랐다. 푸른 벌판, 갈색 산발들로 이루어진 조국땅우에 동서를 누비고 남북으로 내뻗친 억세인 줄기—그것은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백두산으로부터 줄기차게 뻗어나가는 조선혁명의 산발이였다. 크고작은 봉우리들이 땅밑을 흐르는 련연한 피줄을 타고 조종의 산, 혁명의 사령부 백두산에 이어져있다. 비록 작은 산이라 하더라도, 혹은 땅속깊이 지맥이 가라앉는 경우에도 온몸을 굽이치는 피줄과 같이 산줄기는 이어져있으며 그 모든 줄기는 혁명의 심장—백두산에서 뻗어내리고있다.

조국땅우에 그려보는 그 산발은 얼마나 거창하고 억세인가? 조선혁명의 거룩한 주봉 백두산은 구름우에 아득히 높이 솟아 천하를 굽어보고있다.
소위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미쳐날뛰는 일본제국주의가 그이의 손바닥우에서 갈팡질팡하고있는것만 같아 한없는 긍지감이 피여올랐다. 그러면서도 유철의 가슴에는 왜 그런지 불안한 예감이 떠오르는것이였다. 어쩐지 자기에게 과업을 주시겠다는 전제밑에서 하시는 말씀이고보니 다른곳에서의 혁명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심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나다를가 그이께서는 지도우를 천천히 더듬으시더니 손가락으로 한곳을 짚으시였다. 그것은 바로 하강지구 백리허어방이였다.
《나는 유철동무가 이 일대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리허를 중심으로 하강지구와 상강지구 일대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밀어나가시며 말씀하시였다. 《혁명을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이 지대는 군사적으로 중요할뿐아니라 적들의 중요병참기지이고 또 중요하천을 비롯해서 간선적인 수송로가 분포되여있으며 특히는 일제의 쏘련침공을 위한 발판으로 되여있습니다. 그런데다 여기엔 우리 조선인민들이 많이 집중되여있습니다. 만일 이 지대를 놈들에게 내맡긴다면 이놈들에게 우리 혁명을 반대할 매우 안전한 후방을 제공해줄뿐만아니라 모든 힘을 우리 혁명의 근거지를 반대하는데 집중할수 있게끔 조건을 지어주는것입니다. 이 일대를 우리가 장악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대를 적들에게 내줄수 없습니다. 이 지구를 우리가 차지하여야만 전반적인 조선혁명을 힘있게 앞으로 밀고 나갈수 있습니다. 유철동무, 내 말을 리해하겠습니까?》
《네.》 유철은 침중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이의 크낙한 구상이 한장의 지도우에 그림처럼 선명히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자신에게 내려진 혁명의 엄숙한 과업이며 요구이다. 그이께서 자기를 그리로 보내시겠다는것이 우선 무엇보다도 가슴을 서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서운한것—그것만이라면 참을수도 있다. 비록 떨어져있다 해도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전선에 튼튼히 발붙이고있는 이상 그이를 항상 마음의 태양으로 가슴에 모실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느 조그만 지방이 아니라 한 지역을 통털어 내맡기시는것이였다. 자기에 대한 그이의 믿음을 생각하니 스스로의 무능이 부끄럽기도 하였다. 한편에서는 이것이 혁명의 요구인 이상 비록 힘에 부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목숨을 내대고 완

수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떠올랐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과업을 서뿔리 맡아서 일을 망친다면 그이의 높은 신임과 기대를 저버린 죄를 어떻게 씻을것인가? 그럴바엔 지금은 어렵더라도 그이옆에서 더 공부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것이 혁명을 위해서 옳은 태도가 아닐가?…

한순간에 떠오른 이런 착잡한 생각때문에 유철의 얼굴은 긴장되여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고 지도우의 한점—백리허의 숲속을 쏘아보고있었다.

《그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온지가 오랩니다. 어디 의견을 좀 말해보십시오.》

《**김일성**동지.》 유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저는 혁명의 요구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다만 제 준비정도가 그와 같은 큰 일을 맡을수 있겠는가 생각되여 걱정스럽습니다. 전 여태 **김일성**동지의 한 전사로서 곁에서 모시고싶다는 생각밖에 해오지 않았습니다.》

《하하하, 유철동무가 그런 생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을 혁명을 위해 모두 바쳐야 합니다. 유철동무가 부모형제를 일제에게 다 빼앗기고 부인도 잃고 이제는 어린 자식마저 남에게 내맡기고 혁명하러 나서서 자기의 그런 훌륭한 각오나 힘을 아낀다면 오히려 혁명앞에 손실을 주는것으로 됩니다. 좋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지방에 가서 어떻게 사업할것인가 하는 방향에서, 말하자면 지난날의 경험과 앞으로 부닥칠 구체적인 조건들을 타산해서 걸리는 문제를 푸는 방향에서 생각해보십시오. 유철동무의 말을 들으니 하강지구란 매우 복잡한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철동무의 일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혁명가가 한번 하자고 마음먹고 나서서 해결 못할 일이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가자고 하는 새 로선에 따라 지나간 사업을 정확하게 총화하고 앞으로 일할 방향과 방법을 정확하게 찾아내는것입니다.》

그이의 어조에서 유철은 이미 자기 문제가 결정되여가는것을 깨달았다. 자기를 그곳으로 보내실 생각을 해오신지가 오래다고 하신 말씀이 퍼뜩 떠올랐다.

그는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백리허벌판에 엉켜돌던 복잡한 일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사실 제힘으로 해낼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철은 고개도 못들고 조용히 말하였다.

《허허허,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할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혁명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걸어놓고 하는 일인것만큼 가볍게 대할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누가 해줄것을 기다릴수도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가령 하강지구문제만 봐도 공중 띄워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크고 복잡한 문제 같지만 구체적으로 따지고보면 그렇게 종잡을수 없는것도 아닙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도우에서 하강지구일대를 짚으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하강지구는 이렇게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혁명을 한다고 하여 이런 숲이나 벌판에서 혼자 떠들고 덜렁덜렁 돌아다니는것이 혁명을 하는것이겠는가? 물론 그럴수는 없습니다. 그럼 혁명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사상을 불어넣어서 낡은 제도, 낡은 사회의 철쇄를 뚜드려부시고 새 사회를 세우게 하는것입니다. 그러자면 혁명은 무엇보다도먼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교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강지구가 넓다 해도 유철동무가 가야 할곳은 명백합니다. 우선 이 주민지대— 즉 백리허둘레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할것입니다.》

유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벌판에 가서 혼자 떠들고 덜렁덜렁 돌아다닌다는 말씀에 저도모르는사이 어줍은 미소가 그려졌다. 그이께서 딱히 누구를 짚어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도 지난날 이른바 혁명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의 한 모퉁이가 생생하게 그려지는 그 특징적인 비유속에서 어제날의 자기— 아니 방금까지의 자기의 혁명에 대한 몸가짐이 느껴지는 것이였다. 혁명이란 그저 웨치고 떠들고 짓부시는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해온 지난날의 버릇이 아직 깨끗이 가셔지지 못했기때문에 언제든지 구체적인 현실을 놓고 착실하게 일을 짜고들줄 모른다. 그러다나니 머리에 크게 울려오면 내용도 따져보기전에 놀라고 만만하게 울려오면 재여보지도 않고 덤벼드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그런 점을 타산하시여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시는것이였다.

유철은 얼른 목책을 펼쳐들고 받아쓰기 시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번의 폭동을 비롯하여 혁명조직의 활동과 군중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경향적으로 지적하시고나서 서글서글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결함은 엄중합니다. 그리고 후과도 큽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유철동무가 사업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도 없지 않습니다. 우선 유철동무가 거기서 일정한 기간 일한만큼 그곳 사람들을 잘 알고 일정한 련계도 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만도 우리는 많은것을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정확한 대책을 세울수 있습니다. 이리 좀 다가앉으십시오. 우리 그 자료에 근거해서 앞으로 사업할 내용을 좀 짜봅시다.》

그이께서는 책상빼람에서 8절지 한장을 꺼내시여 절반을 접어놓으시였다. 그리고는 활달한 글씨로 《중심방향》이라고 써넣으셨다.

《자,생각해봅시다. 중심방향을 어디다 두고 일해야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지우개 달린 연필을 거꾸로 드시고 방금 써놓으신 글자들을 가볍게 두드리시면서 유철의 얼굴을 바라보시였다.

유철은 얼굴이 붉게 피여오르는것을 느끼며 좀 거북한 어조로 말하였다.

《어제 말씀하신것처럼 하나는 핵심들을 먼저 키우고 조직을 튼튼히 꾸리면서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 두어야 할것이고 한편으로는 무장대오를 짜고 무기를 해결하여 한시바삐 유격대를 조직하는데 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것은 지난날 우리가 범했던 잘못을 깨끗이 총화하고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새 로선과 모든 방침들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침투시키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합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럼 그것을 여기다 이렇게 씁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중심방향》밑에다 방금 유철이 말씀드린 대답의 내용을 요약하여 조목조목 쓰시였다. 그리고는 번쩍 고개를 드시였다.

《그럼 핵심을 키우는 문제를 두고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장차 우리가 당을 새로 창건해야 하는만큼 이것은 곧 당창건의 준비로도 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사업하겠는지 좀 생각해봤습니까?》

《아직 별로 연구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과업을 주실줄은 몰랐기때문에… 더구나 당창건의 준비라는 측면에서는 고려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거기 좋은 동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유철은 자기의 머리가 얼마나 산만한가 하는것을 새삼스레 깨달으며 생각하는바를 숨김없이 말씀드렸다. 그곳에 가서 사업하게 된 이상에는 그곳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결론을 받는것이 무엇보다도 요긴한 일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렇습니다. 유철동무의 말을 들으면 그곳에도 좋은 동무들이 있습니다. 우선 박두성이든가 김기창이 같은 동무들은 핵심으로서 앞으로 그 동무들의 방조를 많이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 동무들은 사상의식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계급적토대도 그렇고 또 일정한 군중적지반도 가지고있는만큼 많은 일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핵심을 많이 자래우자면 역시 로동자, 농민출신의 새세대들속에서 좋은 동무들을 찾아내여 키워야 합니다. 이미 있는 동무들을 잘 교양하여 같이 이끌고나가면서 이런 새세대들에 의거하는것이 기본으로 되여야 합니다. 그밖에 로채숙동무같은 인테리문제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그 동무도 지난날의 잘못된 공산주의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입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무는 환경이 좋을뿐만아니라 민족의식도 매우 강하고 혁명하자는 각오가 좋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교양하면 훌륭한 혁명가로 될수 있습니다. 식민지나라의 인테리란 부르죠아에게 복무하는 측면도 있지만 민족적차별대우를 받기때문에 민족의식이 강하고 또 진리를 누구보다 먼저 깨달을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인테리인 경우에 일률적으로 출신계급을 가지고 그 사상동태를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혁명적실천속에서 사람들의 사상상태를 판단하는것이 일반적으로 중요하지만 인테리인 경우에는 특히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테리란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공부를 하자니 그들의 집안이라는것이 대부분 자산계급이 될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을 경솔하게 하면 혁명을 하겠다고 용감하게 나선 좋은 사람들을 적의 편으로 떠밀어주는것으로 될것입니다. 그러나 교양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비판할것은 비판하고 때로는 투쟁도 하고 그러면서도 떼버리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과오를 범했을 때도 구체적조건에 따라 계급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그 사람을 혁명의 길로 끝까지 이끌어가자는 뜨거운 동지애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때로는 비판도 하고 때로는 충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벌도 주어가면서 온갖 방법을 다해서 교양을 해야 합니다. 기본계급출신의 어린 동무들에게는 자기의 계급적처지를 잘 깨우쳐주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간부들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대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인만큼 책임이 무겁고 또 각오정도도 높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얼리는 식으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혁명규률은 자원적인 규률인만큼 엄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유철의 눈앞에는 백리허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여태까지 막연하게 동지라고만 생각해오던 그들의 온갖 본질적인 특징들이 제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그려졌다. 어떻게 일할것인가 하던 어중간한 생각은 어느새 사라졌다. 하나하나 일할 대상과 방법, 자기가 취해야 할 태도까지 뚜렷이 떠올랐다. 그는 저도모르는사이 신명이 나서 그이의 말씀을 빠짐없이 적으려고 자리를 이리저리 고쳐앉으며 분주히 연필을 놀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철의 표정에서 점차 일에 대한 자신심이 생겨난다는것을 읽으시고 가볍게 미소를 그리시며 쌍바라지쪽을 내다보시였다.

《그런데 정말 일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격대를 꾸리고 무기를 해결하는 문제는 이미 일반적원칙을 이야기했으니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 그곳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하십시오. 나머지 문제는 군중토대를 닦는것입니다. 실상 이것이 제일 복잡하고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의 원쑤인 일본제국주의는 강대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이 강대한 적을 맞받아싸우자고 하며 승리하자고 하는가?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인민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 무엇보다 큰 의의를 부여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혁명의 군중토대를 튼튼히 닦아야 합니다. 하강지구에서 군중토대를 닦자면 백리허현성을 비롯해서 그 주변 농촌들과 목재판들에 다 혁명조직을 뿌리박고 인민들을 모두 혁명화해서 조직에 묶어세워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시 중요한것이 안골혁명화문제입니다.》

《저, 그들이 우리 공산주의자들을 계속 반대하는 경우에도 말입니까?》

유철은 연필을 멈추고 **김일성**동지의 시원한 안색을 지켜보았다.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것이 우스운 일이란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혁명을 하는것도 아니요 반대로 그들도 찾자고 하는 우리 조국을 광복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데 무엇때문에 우리를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잘 모르는데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공산주의자들을 오해하고있는데는 지난날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이 잘못한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그들을 쟁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하고 교양하지 않은데 있는것입니다. 내보기에 백리허에서 혁명적군중토대를 닦자면 우선 안골을 혁명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연필끝으로 이미 빼곡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적혀진 종이우를 다독다독 두드리시며 생각에 잠기시였다.

유철도 연필을 멈추고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았다. 그이께서는 혼자소리처럼 말씀하시였다.

《우선 침투하는것,발붙이는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유철동무는 물론 전반적인 사업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자고 해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리더라도 사람들을 믿고 과업을 주어서 그 과정에 키워나가야 합니다. 가령 유격대조직사업같은것을 놓고보더라도 간부문제라든가 정치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철동무가 직접 보면서도 훈련이라든지 무기쟁취라든지 이러루한 문제들은 다른 동무들에게 맡길수도 있습니다. 유철동무는 모든 사업을 틀고앉아서 방향을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골문제가 걸렸습니다. 내 보기에 우선 전반적인 조직사업이 끝나면 그 즉시로 이 문제를 푸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디에 어떻게 발을 붙이며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사업할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유철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안골혁명화문제를 그이께서 이처럼 중요시할줄은 미처 몰랐었다. 따라서 그 방도에 대해 당장 말씀드릴 무슨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다시 쌍바라지쪽을 바라보시더니 결단성있게 고개를 돌리시며 책상우의 종이를 공책넓이만큼 접으시였다.

《좋습니다. 들어가는 방도라든가 공작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잘 타산해서 좀 연구해보고 다시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이것을 가지고 좀 생각해보십시오. 사업계획이란 구체적인 조건에 맞게 짜야지 추상적으로 돼서는 공연한 일거리만 만듭니다.》

유철은 그이께서 내미시는 종이를 약간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그것은 그이께서 말씀하시기 편리하게 그저 쓰신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일부러 정성을 들여 작성하셨다고 생각하니 새삼스레 가슴이 후더워졌다. 그가 종이를 한손에 쥔채 멍하니 그이의 얼굴을 바라보고있는데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원한 목소리로 화제를 돌리시며 말씀하시였다.

《이젠 사업이야기는 그만합시다. 벌써 해가 저무는군.》

산골집치고는 꽤 널직하게 터놓은 쌍바라지로 불타는 저녁노을이 번

져들어왔다. 그이께서는 넓고 시원한 이마에 그 연분홍빛 노을을 받으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고향에 가본지도 오랬겠습니다?》

자기대로 생각에 잠겨있던 유철은 번쩍 고개를 들었다. 그윽한 빛을 뿌리는 그이의 눈을 바라보니 답답하던 가슴속 시름이 봄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네,작년에 지나치긴 했습니다만 정작 가보기는 몇해 잘됩니다. 그런데 참 고향생각이란 이상합니다. 못가본지가 수십년도 더 되는것 같이만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엊그제 본 딴 고장의 경치는 다 잊어버렸는데 벌써 오래전에 본 고향마을의 풍경은 그대로 눈앞에 선합니다.》

유철은 어떻게 들으면 철없다고 할 자기의 심정을 숨김없이 말씀드렸다. 그러나 역시 말을 다 해놓고보니 부질없는 감상을 아무 어려움없이 여쭈었구나 하는 뉘우침이 떠올랐다.

그이께서는 다시금 쌍바라지쪽으로 고개를 돌리시고 잠시 침묵에 잠겨계시였다. 산골짜기를 훑어내리는 바람소리가 어딘가 애틋한 정취를 자아냈다. 저녁으스름이 어둑시그레 스며드는 방안에 유난히 서향으로 난 쌍바라지만이 노을을 담고있었다.

《고향생각이란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모양입니다. 나도 가끔 어릴 때 떠나온 고향을 꿈에서 볼 때도 없지 않습니다. 허허허, 혁명을 하겠다고 고향도 가정도 모든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눈보라 사나운 산과 벌판을 돌아다니는 우리가 어릴 때 자라던 고향산천을 잊지 못하고 꿈에까지 본다는것을 알면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고향과 크게는 조국, 인민— 이런것을 잊지 못하고 사랑하기때문에 만난을 무릅쓰고 혁명을 하자고 나선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철은 그이의 다정다감하신 말씀에 저도모르는사이 고개를 푹 떨구었다. **김일성**동지의 담담한 어조에 풍기는 뜨거운 인간적인 사랑과 정이 몸에 푹 배여왔다.

날이 저물도록 그이께서는 유철을 데리고 앉으시여 고국의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하나하나가 자기 생활과 이어져있는 그이의 정어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있느라니 유철은 어느덧 방금 그이로부터 받은 크고 무거운 혁명과업의 어려움도 잠시 잊고 그이께서 펼쳐보이시는 사랑하는 조국의 살뜰한 이모저모를 눈앞에 그리며 마치 단란한 가정에 돌아

와 너그러운 어버이품에 안겨있는듯 온갖 시름이 놓이는것을 느꼈다.

×

밤사이 눈이 하얗게 내렸다. 유철이가 새벽에 잠이 깨여보니 바깥이 훤하여 다 밝은것 같았다. 후닥닥 뛰여일어났으나 옆에서는 여전히 곤한 숨소리들이 들리였다. 부엌에서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서리고있었다.

눈이 내렸구나 하는것을 느끼자 유철은 얼른 웃옷을 걸치고 지게를 열었다. 함박눈이 발등에 묻힐만큼 쌓였는데 아직은 으스레한 새벽하늘에 이따금 눈송이가 훨훨 날아다녔다. 가뜩이나 맑은 산속 공기에 정갈한 흰눈의 슴슴한 냄새까지 박이여 숨을 쉬지 않아도 밤사이 풀어졌던 몸과 마음이 절로 그 차고 시원한 공기를 게걸스럽게 들이마시였다. 유철은 담벽에 세워둔 싸리비 한자루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마당은 이미 쓸려있었다. 반반하게 쓴 우에 락화처럼 날리는 눈송이들이 가라앉아 엷게 깔려있었다. 유철은 희미한 발자국을 남기며 언덕길쪽으로 나갔다. 집둘레와 언덕밑까지는 눈이 다 쓸려있었다. 유철은 누가 쓸었을가 생각하며 비자루를 언덕받이쪽으로 대고 발자국을 더듬어보았다. 그러나 가까이에는 사람이 지나간 흔적을 찾아볼수 없었다. 유철은 고개를 한번 기웃해보고 눈을 쓸어나갔다. 단단하게 결은 비자루끝에 탐스럽게 뭉친 눈이 묵중하게 실리면서 번져졌다. 그렇게 뒤집혀졌어도 먼지 한점 묻지 않는 깨끗한 눈이였다. 두어번 비질을 하는데 집 뒤쪽 산비탈에서 웅글은 목소리가 울려왔다.

《그 누구요？ 언덕까지는 자리를 안내는게 좋겠소！》

김일성동지의 목소리였다.

유철은 얼른 고개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려염집이 아니라 비밀아지트라는것을 퍼뜩 상기하였다. 유철은 그이의 목소리가 울리던 산비탈쪽을 향해 집뒤를 돌아갔다. 새하얀 눈우에 널직널직하게 발자국이 찍혀있었다. 그 발자국을 어지럽히는것이 어쩐지 저어되여 새 길을 잡아 달려갔다. 그이께서는 비자루 한자루를 비껴드시고 커다란 떡갈나무아래에 서계시였다. 하얗게 눈을 뒤집어쓴 수백년묵은 아름드리 거목은 마치 신선처럼 서있는데 **김일성**동지의 모습은 정화된 눈벌과 맑은 공기와 그리고 거창하게 아지를 뻗친 아름드리 떡

갈나무가 서있는 그 정경에 너무나 잘 조화되였다.
《유철동무요? 이리 오시오. 여기 재미있는것이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뜻밖이리만큼 일상적인 그 부드럽고 서글서글한 목소리로 부르시였다.
《밤사이 편안하셨습니까? 간밤에도 늦게 주무셨는데 벌써 이렇게…》
유철은 송구한것을 느끼며 멀찍이서 아침인사를 여쭈고 다가갔다.
《난 본시 새벽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여기에 다람쥐굴이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비자루로 구새먹은 떡갈나무의 밑둥을 조심스레 가리키시였다.
유철은 가볍게 미소를 짓다가 인차 긴장되였다. 기척을 내면 그놈이 달아날것이였다.
《어딥니까?》
유철은 소리 안나게 발걸음을 옮기며 저도모르게 둘레를 살펴보았다. 그놈이 비탈쪽으로 뛰면 손쓸 방법이 없다. 그래 그쪽으로 몸을 돌리며 나무뿌리쪽으로 목을 뽑았다. 아닌게아니라 널직이 패여진 구새통 밑창 컴컴한 구석쪽에 빵하니 엽전잎만한 구멍이 뚫어져있다.
《이놈이 눈이 왔다고 강산구경을 나왔는지 저 언덕밑에서 아물거리다가 내가 가니까 집뒤로 해서 냅다 달아나는데 지하공작경험이 없다나니 제 아지트로 곧장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매복에 걸린 셈인데 짐작에 이 굴을 털면 밤이 몇말은 있을것 같습니다. 허허허,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털어볼가요?》
《털어봅시다. 그런데 이게 떡갈나무밑이 돼서 도토리만 물어다놓을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철은 금시 소년과 같은 기분이 되여 그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도토리만 있다면 그건 전혀 재미없습니다. 그러지말고 여기다 물을 길어다 부어서 다람쥐를 잡는것이 어떻습니까?》
《참, 그게 좋겠습니다. 잡아다가 아이들을 주면 좋아하겠습니다.》
문득 유철의 머리속에는 사과를 가지고 좋아하던 현아의 얼굴이 그려졌다.
《아이들?》
그이께서는 유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한결 더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허허허, 채바퀴를 만들어 집어넣으면 어른들도 재미있지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 좀 심중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곧 떠나야 하겠는데 지금 잡아봐야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놈이 지금 굴을 폭로시켰다고 단단히 비판을 받겠는데… 허허허, 우리 그만두고 내려갑시다.》

유철은 고개를 숙였다. 공연히 아이이야기를 꺼내여 그이께 걱정을 끼쳤다고 생각하니 머리를 들수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비자루로 발자국을 고르롭게 메꾸시며 말씀하시였다.

《이 발자국을 깨끗이 없애버려야겠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이 굴을 발견하면 제꺽 털어내자고 할수 있습니다. 허허허…》

유철은 눈굽이 뜨끈해왔다. 자기가 아이생각을 할가봐 아무런 자극도 주지 말자고 그처럼 세심히 관심하시는 그이의 심중을 생각하니 초연히 고개를 떨구고있는것이 도리가 아닐것 같았다.

《제가 하겠습니다.》

유철은 비자루로 벅벅 눈을 쓸어나갔다.

《아닙니다. 발자국만 없애는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로 쓴 흔적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동무들이 이런데는 눈이 밝습니다. 발자국은 없는데 메꾼 자리만 있다면 더 수상하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하기는 이렇게 감쪽같이 해놓아도 속여내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들킨다면 그건 다람쥐의 신수가 정 궁해서 그런것이니 우리가 책임질수 없지요, 허허허.》

유철은 손을 멈추고 그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새벽공기를 맞으시여 안색은 한결 붉게 번지시고 어글어글한 눈에서는 정화된 산천정기가 어리여있었다. 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이께서는 크게 숨을 들이쉬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동무들이 일어나자면 아직 시간이 있는데 그사이 이 좋은 공기를 마시며 좀 거닐어보지 않겠습니까?》

유철은 묵묵히 그이의 뒤를 따랐다.

자기 생각을 딴데로 이끌어가시자는 그이의 의도가 뚜렷이 느껴졌다. 그와 함께 안골문제가 중요하며 그것때문에 그이께서도 걱정하신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는 유철은 너무 어색한 생각에만 사로잡혀있는 스스로가 민망스러웠다. 그는 밤사이 생각한바를 여쭈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저 안골문제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박두성동무를 들여보낼밖에 딴 도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 동무는 안골에 들어가기만 하면 4촌네 집이든 아무 집이든 쉽게 박힐수 있을것 같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백양나무의 정수리를 올려다보시였다. 까치둥지가 하얗게 눈을 쓰고있었다.

《박두성동무라―》

그이께서는 가볍게 나무밑둥을 발로 건드려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그 동무는 거기 들어가서 마음대로 활동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아마 드러내놓고는 다니지 못한다는것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깊이 숨어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공작에 영향이 많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자주 접촉해야 하겠는데 숨어서 만난다는것이 실제상 어려울것입니다. 물론 박두성동무는 수완도 있고 또 발붙이는데 유리한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김기창이라는 동무말입니다. 그 동무에게는 무슨 일을 시키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말끝을 흐리시더니 갑자기 활기있게 물으시였다.

《저 그 동무는 채벌로동자출신이고 또 이제 스물한살에 났습니다. 그러니 청년사업을 시키면서 목재판로동자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정확합니다. 모든 사업을 그렇게 조직해야 합니다. 사업대상과 사람의 성격, 년령, 준비정도를 잘 고려해서 꼭 들어맞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철의 대답이 매우 흡족하신듯 기쁜 어조로 말씀하시며 나무밑둥을 툭 치시였다. 때마침 비껴오르는 아침노을을 받아 연분홍빛으로 물든 눈보라가 하르르하고 날렸다. 그이께서는 옷깃으로 스며드는 눈가루를 터실 생각도 안하시고 이번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안골문제라― 사실 주민구성이 복잡한 농촌을 혁명화한다는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도 그런 골치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발걸음을 옮겨놓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여기서 멀지 않은곳에 크지 않은 한 농촌이 있는데 그게 우리 조

직의 련계와 활동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저번 명월구에서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결정짓고보니 그 준비를 위해서 빈번하게 드나드는 공작원들의 련계를 짓자면 반드시 우리가 장악해야 할곳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주민구성이 까다롭고 또 우리 동무들이 일하는데 능숙하지 못한 점도 있어서 좀체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장투쟁을 벌리자고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하고보니 이게 아무래도 걸린단말입니다. 물론 여태 아무도 해보지 못한 그러한 성격의 유격전쟁을 시작하자니 할일이 태산같았습니다. 그러나 군중토대를 닦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사업상련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여 우선 그 동네의 혁명화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들을 포치하고 밀고나가면서 한 책임적인 일군이 직접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무장투쟁과 같은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조그마한 동네에 책임적인 일군이 들어간다는것이 잘 리해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아닌게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의견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범한 군중의 혁명화문제가 우리 혁명에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질뿐만아니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그 일을 해야겠는데 혁명적인 군중공작방법의 전형을 만들어내는데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무가 거기에 꼭 한사람 있는 조직원의 집에 머슴으로 가장해들어갔습니다.》

《책임일군이 머슴으로 가장했단말입니까?》

엷게 깔린 눈길우에 가볍게 옮겨놓이는 그이의 발걸음처럼 담담하게 이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유철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그이께서는 시종 웃음기 어린 얼굴로 그냥 걸어가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그렇습니다. 머슴군노릇을 하자니 힘들 때도 있고 또 그걸 자연스레 하자니 사람들의 수모도 받고 별의별 곡경을 다 겪게 되지요. 그 과정에는 배를 그러쥐고 웃지 않을수 없는 이야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런 공작을 하는데는 매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머슴이다보니 아무때나 기본군중과 만나고 섭쓸릴수 있으며 산이나 들판으로 마음놓고 다닐수 있기때문에 비밀공작을 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심을 받을 일은 적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 동네 문제를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해결했습니다. 혁명화문제라는것이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번 몸을 들이대고 해결

하자고 나서면 그렇게 신비한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지을수 있었습니다.》
유철은 그이의 말씀이 끝나자 다시 걸음을 멈추고 간청하였다.
《저, 그 공작과정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수는 없겠습니까?》
《허허허, 공작과정에 대한것은 이따 시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것은 원칙문제이지요.》
그이께서 무엇때문인지 이야기를 더 하시고싶어하시지 않는다는 눈치를 채자 유철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 공작의 경험가운데 안끌문제를 풀 실머리가 있다는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며 분주히 이야기의 앞뒤줄거리를 더듬었다.
그이께서는 벌써 그 이야기는 끝이 났다는듯이 아침노을이 더 넓게 번져가는 동쪽하늘을 바라보시며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놓으시였다. 다시 백양나무밑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이번에는 주먹을 쥐시고 밑둥을 크게 한번 울리신 다음 제꺽 몸을 피하시였다. 노을빛을 담아 아롱거리는 눈가루가 우수수 쏟아져내렸다.
《허허허, 아주 훌륭한 아침입니다. 자, 이젠 들어가서 우리 잠꾸러기들을 좀 놀려줍시다. 공작에 나갔다 돌아오면 잠이 몰려서 꼼짝들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잠이 없다보니 모두 거북해들하지요. 그래서 좀 재우자고 때로는 일부러 자리에서 배겨봅니다마는 도무지 견딜수가 없습니다. 허허허.》
그이의 웃음소리는 마당가에 서있는 유철의 귀전에 오래도록 여운을 끌며 사라질줄 몰랐다. 저와 같은 친어버이사랑을 받으며 억세게 자라나고있는 동무들이 한없이 부러웠다. 그러면서 머슴군으로 가장하여 한 농촌을 혁명화했다는 책임적인 일군이 누구일가 하고 이 얼굴, 저 얼굴을 그려보았다.
다양한 겨울의 아침이였다. 그이께서는 조반을 드신후 기다리고있던 몇몇 지방조직의 일군들을 접견하시고나서 오래간만에 농민들의 생활을 좀 알아봐야겠다고 하시면서 집을 나서시였다. 유철이가 자기도 같이 모시게 해달라고 청했으나 그이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앞으로의 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 젊은 혁명군대원들만을 데리시고 떠나시였다. 유철은 조용한 집안에 홀로 떨어졌다.
앞으로의 공작과 관련하여 일부러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신것이라고 생각하니 굳이 따라나서겠다고 할 일도 못되여 혼자 남기는 하였으

나 어쩐지 지금부터 마음속이 허전하였다. 아지트책임자내외가 무엇을 하는지 부엌안팎을 부산스레 드나들었으나 유철은 방심한것모양 생각에 잠겨있었다. 어느때부턴가 정지에서는 훈훈한 김이 서려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피여올랐다. 유철은 벽에다 등을 기대고 앉아 방안에 하나가득 서리는 김속에 눈을 쪼프리고 새벽에 들은 이야기를 다시 더듬었다. 그이의 말씀을 듣고보니 박두성이를 안골에 들여보낸다는것이 적당치 않다는것은 명백하다. 그 사람이 들어갔댔자 고작 제몸이나 숨기고 다녔지 누구와 만나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이께서는 책임적인 일군이 직접 그 일을 맡아가지고 들어갔다고 하시였다. 전반적인 사업을 보면서도 그 일이 전반적인 사업에 크게 영향을 줄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면 응당 그 일을 책임적인 일군이 직접 보아야 한다는 그이의 뜻이 느껴진다. 그리고 하강지구 역시 앞으로 그이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혁명적군중공작방법을 하루빨리 일반화하자면 안골문제해결에서 그러한 경험을 찾는것이 절실히 필요할것이다. 그렇다면 이 일은 응당 내가 직접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한다고 특별히 잘할것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직접 그이로부터 모든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만큼 든든한 사람은 그곳에 없다. 그런데 대체 혁명의 요구에 대답하여 그처럼 발벗고 나서서 능숙하고 대담하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누구일가? 혹시…

유철이가 이런 생각을 더듬으며 여적 마음을 질정하지 못하고있는데 아지트책임자가 털외투 한벌을 안고 조심스레 들어왔다.

《저 유철동지, **김일성**동지께서 이것을 입어보시랍니다.》

50가까이 나보이는 소박한 농민투를 한 아지트책임자는 이미 유철이가 하강지구로 나가게 된다는 말을 들어선지 매우 동정어린 투로 이렇게 말하며 조심스레 털외투를 유철의 앞으로 내밀었다. 아마 공작원들이 변장용으로 쓰던것인 모양으로 거의 새것이나 다름없는 새하얀 애기양털외투였다. 유철은 잠시 말뜻을 새기듯 아지트책임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한 손길로 양털외투를 그러당겼다. 포근한 털을 매만지며 그는 물었다.

《이것을 그이께서 나더러 입어보라고 하십디까?》

《네, 저 유철동지께서 멀리 가신다고 하시면서… 이 외투가 원래 그이께서 공작하실 때 입으시던것인데… 아주 좋은것이오다. 삼동에 한지에서 나도 추운줄 모른다고들 합데다만…》

유철은 말없이 양털외투에 턱을 고이다싶이 고개를 숙이고 포근한 털을 매만지며 그 부드럽고 따스한 촉감을 즐겼다. 가슴에 무엇인가 하나가득 차올랐다. 그는 털외투를 그러안고 벌떡 일어나다가 그이께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으셨다는것을 상기하고 안타깝게 물었다.

《그이께서는 언제 돌아오십니까?》

《아마 오늘은 늦으실거오다. 오래간만에 나가셨으니 농민들이 그이를 인차 놓아드릴것 같지 않소다. 사람마다 어렵게 살아나가니 모든 걱정을 다 그이께 하소연한단말이오다. 그이께서도 그럴줄 짐작하시고 점심은 유철동지 혼자 들라고 하십데다.》

아지트책임자는 한편으로 방안을 치우며 심상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농민들 집에서 점심을 하시게 됩니까?》

《그럴거오다. 뭐 걱정할건 없소다. 자,그럼 점심을 하지오다. 여보,거 이리 들여오우.》

안늙은이가 륙모소반을 들고 들어왔다. 상우에 큼직한 놋쟁반이 놓여있다. 조그마한 소금접시,양념종발,김치보시기. 매우 낯익은,머리속에 뜨겁도록 인찍혀진 상차림이다. 언젠가 저러한 상을 들고 안해가 총소리 어지러운 토방우에 섰었다. 그날 한여름의 저녁달이 내려다보는 그 그리운 추녀끝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김과 구수한 냄새가 풍겼었다. 그리고 저렇게 묘하게 까부러진 상다리 하나를 불탄 집 재무지속에서 찾아냈었다.

유철은 머리속이 아찔해지는것을 느끼며 비로소 아까부터 집안에 풍기던 냄새가 닭 고는 냄새였다는것을 깨달았다.

《어려워할게 없소다. 어서 드시오다. 혁명사업을 하자면 뭐니뭐니해도 몸이 든든해야 한다오다.》

안늙은이가 상을 갖다놓더니 유철의 허둥거리는 모습을 다 알만하다는듯이 인정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식기전에 드시오다.》

아지트책임자도 부드럽게 권하였다.

유철은 말 한마디 못하고 상앞에 깊이 고개를 떨구었다. 구수한 김이 피여올라 그의 얼굴에는 이슬방울이 아롱졌다. 가슴속에 그 김이 그대로 서리는듯 숨이 가빴다.

《그이께서 그래서 저를 떨구어두고 모두 데리고 떠나셨군요?》

유철은 김이 피여오르는 닭곰쟁반을 멍하니 바라보며 혼자소리처

럼 중얼거렸다.

《허허,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건 없습네다. 어서 식기전에 드시우. 우린 그저 그분께서 바라시는대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네다. 그것이 그분의 뜻을 받드는 길이란말이오다.》

《그이께서 그 일을, 내가 집을 떠날 때 일을 다 아시고계셨습니다.》

유철은 처음 만나뵈왔을 때 안해와 헤여지던 그날밤의 사실을 그이께서 상기시키시던것을 얼없이 더듬었다. 안해의 최후와 관련하여 리용수가 그분께 그런 일까지도 보고를 드렸는지 모른다. 그분께서는 그처럼 혁명사업이 번거롭고 다사한가운데서도 한 안해의 가슴에 맺혔던 한을 풀어주시고 아울러 저와 같이 이름없는 한 전사의 몸과 마음을 아끼시여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할 그런 구석에까지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뻗쳐 어루만져주시는것이다.

유철은 소반우에 그냥 머리를 숙이고 걸핏하면 눈물이 용솟음쳐올것만 같은 격정에 사로잡혀 몸을 움직이지 못하였다. 사람의 언어가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너무나 무력하다는것을 사무치게 깨달았다. 아지트책임자내외가 번갈아 권하였으나 그는 지어 사양의 말조차 할수가 없었다. 그는 오직 깎아세운것모양 움직이지 않고 앉아 솟구치는 눈물을 이를 악물고 참고있을뿐이였다.

《허허— 다 식겠소. 그분께서 혹 들어오시더라도 유철동지가 이러고있는것을 보면 섭섭해하실거오다. 어서 드시우.》

《들겠습니다.》 유철은 마른침을 꿀꺽 삼키며 웃고있는 아지트책임자의 얼굴을 간절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바이, 내 안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철은 딱히 무슨 말을 하고싶다는 생각도 없이 중얼거렸다.

《내 다 압니다. 그분께서 주삼녀동무의 최후에 대해서는 한두번만 말씀하신게 아니오다. 그렇게 마음을 썩일 필요가 없다는데 그러오다. 그저 유철동지가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왔으니 보신이나 하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신것쯤으로 생각하고 드시우. 그래야 그분께서도 마음이 좋을것 아니겠소다？》

《들겠습니다.》

유철은 다시 고개를 깊이 수그리였다. 아지트책임자는 허구픈 목소리로 껄껄 웃더니 내외간이 다 소리없이 물러났다.

오후에 유철은 아지트책임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

었다. 그것은 푸르허 가까운 한 농촌의 혁명화를 위하여 몸을 숨기고 들어가신분이 바로 **김일성**동지이시라는 사실이였다.

유철은 오래도록 고개를 떨구고있었다.

그날 저녁 유철이 털외투를 안고 방안으로 들어가니 **김일성**동지께서는 권총손질을 하고계시였다. 감격에 넘쳐 가볍게 입술을 떠는 유철을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전처럼 정중하게 자리를 권하시였다.

《어떻게 몸에 맞습디까?》

그제야 유철은 아직 자기가 외투를 입어보지 못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입어볼 필요가 있는가?

《**김일성**동지, 전 뜻을 받들고 하강지구와 상강지구에 나가 사업하겠습니다. 이제 저한테 무서울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골문제도 능히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보여주신 모범이 있는데 제가 다시 갈팡질팡할 까닭이 없습니다. 제가 안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외투는 거두어주십시오.》

《허허허, 내가 그랬다는것은 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 유철동무가 직접 들어간다면 어디 발붙일만한데는 있습니까?》

그이께서는 서글서글 웃으시면서도 신중하신 눈매로 바라보시였다.

《아직은 똑똑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지주집이 있고 또 목재판에 다니는 말파리들도 그 동네에 있으니 그런데 가서 박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사실 결심이 선 다음에는 들어가는 방법이 그리 힘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유철동무가 말을 많이 다루어봤으니 안골에 목재판 말파리군들이 있는 조건에서 그런것을 리용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끊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심중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셨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물론 말파리군들과도 공작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심은 안골에 두어야 합니다. 목재판로동자들속에서 공작하는것은 주로 김기창동무가 하게 하십시오. 아무래도 농민들을 혁명화하는것이 로동자들보다는 힘이 듭니다. 그러니 유철동무가 직접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안골문제에 대해 말씀을 끝내시고는 일어서시였다.

《그럼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혁명을 위하여 애를 써주십시오.

그래 외투는 입어보지도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입어보십시오.

몸을 아껴야 합니다. 과거에 일부 혁명가들가운데는 일이 뜻대로 안되다보니 자포자기가 돼서 제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우리는 혁명을 하기 위해서 제몸도 돌볼줄 알고 절도있게 생활할줄도 알아야 합니다. 혁명을 위해서는 단두대도 두려워 않고 적진속에 육탄으로 뛰여들기도 해야 하지만 쓸데없는 정력과 체력을 랑비해서 결정적인 대목에 동원될수 없게 하는것은 오히려 혁명에 해를 주는것입니다. 자, 입어보십시오.》

유철은 그냥 **김일성**동지의 환한 웃음이 피여오르는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채 그이께서 입혀주시는대로 기계적으로 소매에 팔을 꿰였다. 문득 어릴 때 지금은 이미 없는 어머니가 저고리를 입혀주군하던 아득한 옛일이 떠올랐다.

《허— 신통히도 맞는군. 됐습니다. 됐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걸음 물러서서 이모저모 뜯어보시며 기뻐하시였다. 《자, 이걸 척 입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슨 기름가게나 싸전주인이다, 이러면 아무 의심도 안받겠습니다. 허허허, 대소한에 무인지경에 나서도 아무 걱정 없겠습니다. 그런데 권총은 더러 쏴봤습니까?》

《전에 지하공작할 때 가지고 다닌적이 있긴 합니다만…》

유철은 코허리가 찡해와서 다른 생각할 겨를없이 무심코 대답하였다.

《자, 그럼 이리 와 앉으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철을 털외투 입힌채로 책상머리로 끌어앉히시더니 분해해놓은 권총의 부속들을 죽 더듬어보시였다.

《이거면 탄알이 모두 14발, 이걸 따로 더 가져가십시오. 할미령을 넘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놈들과 주구들이 길목에서 못된짓을 할수 있습니다. 토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총소리를 안내는것이 좋습니다. 공작지에 가서도 완전히 무장대오를 조직할 때까지는 은밀히 보관하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깨끗이 닦은 권총을 붉은 보자기에 정성스레 싸서 유철이앞으로 내미시였다.

《아니, 이것도 저에게 주시는것입니까? 저에게 이것을 주신단 말씀입니까?》

유철은 한걸음 물러나앉으며 두팔을 내밀고 총을 받기보다 오히려 그이앞으로 돌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침내 떨려서 울먹울먹해졌다.

《가져가십시오. 외진곳에 홀로 가는것만큼 필요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것을 생각하더라도 그 밑천이 될 총 한자루는 필요한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총이 있습니다. 자, 사양말고 받으십시오. 우리 혁명을 위해 청춘의 한목숨을 바쳐 싸워봅시다.》

유철은 조선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로부터 총을 받았다. 그리고 그이께서 내미신 손을 굳게 틀어잡았다.

《**김일성**동지의 로선을 관철하는데 저의 목숨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좋습니다. 혁명은 간고한 길입니다. 그러나 보람찬 길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의 부모형제들의 원한을 풀기 위하여,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 조선의 아이들을 위하여, 무산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원쑤일제를 치고 조국을 광복합시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훌륭한 사회주의조국을 물려줍시다. 그래 언제 떠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라도 떠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갈길이 환하니 한시라도 빨리 일하고싶은 생각입니다.》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밤길을 가겠습니까? 하루밤 더 같이 자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래일아침 나하고 같이 떠납시다. 마침 아까 지방조직을 통해 일전에 홍창성동무를 만나러 갔던 동무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홍창성동무는 탈옥에 성공해서 공작지로 갔답니다. 이제 나는 포치한 사업들을 보러 떠나야겠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모시고 가게 됩니까?》

유철은 번쩍 귀가 띄여 기쁨에 가슴을 들먹거리면서 되물었다.

《허허허, 같이 간대야 불과 하루길입니다.》

유철은 비록 하루길이지만 그이를 동행하게 된다는것이 기뻐서 멀지 않은 리별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렸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그이곁을 떠나지 않고 그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였다.

×

이튿날, 연한 눈보라를 실은 거센 바람이 산줄기를 휩쓸어왔다. 벌판은 무섭게 서슬을 돋친 광풍에 기가 질려 떨고 숲은 히유—히유 아츠러운 비명을 질렀다. 저 멀리 지평선우에서는 재빛구름이 침울한 표정으로 이를 갈듯이 몰켜있었다. 헐벗은 대지는 다시 살을 찢기듯

락엽과 검부레기를 굴리며 구슬프게 울부짖고 어느 골짜기에서 튕겨난 재빛토끼 한마리가 황량한 수수밭고랑사이를 달려갔다.

《자, 여기서 헤여집시다.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높은 산마루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철의 손을 힘차게 잡아주시며 웅글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부디 몸을 삼가주십시오.》

《허허허, 우리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싸워봅시다. 앞으로 자주 련계를 가지도록 합시다.》

유철은 묵묵히 수령님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이의 억센 손을 쥔채 놓을줄 몰랐다. 간밤에도 밤을 밝혀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앞으로 몇밤, 몇십, 몇백 밤을 밝혀도 더 듣고싶은 마음의 갈증은 덜어질것 같지 않았다. 이제는 어차피 그이곁을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 벌판처럼 황량하게도 느껴졌다. 그러나 자연엔 저렇듯 엄혹한 철이 왔어도 이미 조선혁명에는 그 어떤 광풍도 암운도 다시는 덮을수 없는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가 계신다고 생각하니 다시금 마음은 든든해졌다. 그렇다. 조선혁명에는 태양이 있다. 그리고 그 태양이 비치는 혁명의 대로가 있다. 이 길은 눈보라도 가시덤불도 모조리 짓부시고 멀리 아득히 공산주의래일에로 뻗어있다. 이 길을 가는 이상 어떤 시련과 난관이 조선인민의 앞을 막을것인가?

유철은 그이의 손을 다시한번 힘있게 틀어쥐고 맹세를 다졌다.

《혁명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 길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에서, 혁명에서 승리하는것만이 우리의 부모형제들과 처자들을 영원히 살리며 참되게 사랑하는 길이라는것을 잊지 맙시다. 혁명가의 불타는 사랑은 혁명을 하는데서 표현됩니다.》

유철은 품에 간직한 공책을 마음속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그이의 말씀을 그 마음속의 책갈피에 또박또박 적었다. 《혁명가의 불타는 사랑은 혁명을 하는데서 표현됩니다.》

사나운 눈바람 휘몰아치는 겨울날 높은 산마루에서 유철은 수령의 곁을 하직하였다. 그리고 그이께서 손을 높이 쳐드시여 바래주시는 길을 따라 그이께서 입혀주신 새하얀 애기양털외투를 입고 그이께서 넘겨주신 총 한자루를 허리에 차고 그리고 그이께서 일깨워주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을 가슴에 품고 첩첩한 산과 거치른 벌판과 우중충한 원시림너머 먼 하강지구로 떠났다.

제 2 편

1

중동선을 통해 수송된 한개 중대의 일제수비대가 밤낮 사흘간의 강행군끝에 마침내 백리허숲앞에 다달았다.

하강지구에 주둔할 관동군무력의 선발대로 파견된 이 중대는 당분간 현성에 머무르게 되여있었다. 백리허초입에서 안내자로부터 현성까지 아직 하루이상의 길이 남아있다는 말을 들은 애숭이중위놈은 와락 신경질을 내며 전투가방에서 지도를 꺼냈다. 지도에는 오솔길로 숲을 궤질러 가면 현성까지 불과 50리길이 되나마나한 거리가 표시되여있었다. 사관학교를 나온지 얼마 안되는데다 본토사단근무중에 파쑈교육의 독소에 지독하게 중독돼버린 이 애숭이중위놈은 화가 꼭뒤까지 치밀어 소리쳤다.

《내가 허수아빈줄 아느냐? 이 어리석은놈아, 제국장교를 속이려고들다니. 네놈이 모가지가 몇개나 있어서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네놈이 벌써 사흘째 일부러 먼길로 우리를 끌고온것도 다 불온한 사상때문이라는것을 이제야 알겠다. 무엇때문에 몇시간이면 갈수 있는 길을 하루가 더 걸린다고 거짓말을 했느냐?》

늙다리주구는 두손을 모두어잡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거듭 절을 하며 우들우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으리, 숲을 질러가면 반나절이면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숲은 괴물입지요. 이 숲에 잘못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어떤 횡액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렇기때문에 한낮이라도 이 숲속에 들어서기를 꺼리는 형편입네다. 황차 지금은 벌써 날이 저물어오는데 한밤중에 숲을 지나다가 짐승을 만날수도 있고 토비들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또 길을 헛드는 날이면 숲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큰길을 따라 숲을 에돌아가는것이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나으리, 제발 진정하시고 이 늙은놈의 말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늙다리가 그래도 정신을 못차리고 짖어대는가? 네놈은 현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제국륙군을 모욕한 죄로 영창에 쓸어넣어버리겠다. 세계에 무서울것이 없는 우리 제국륙군을 감히 짐승이나 토비가 겁나서 길을 에돌아가게끔 하자는 네놈을 한칼에 베여던져도 오히려 죄가 남는다.》

중위놈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눈덮인 숲언저리를 오락가락하며 한참 기염을 토하다가 소대장들에게 휴식을 선포하면서 당장 저녁식사를 하고 즉시 출발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윽고 완전무장한 일제침략군 중대는 경기를 앞장세우고 우렁차게 군가를 부르며 숲속을 행진해 들어갔다. 졸병들가운데 더러 불평을 말하는자들도 있었으나 감히 지휘관놈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말할만한 용기를 가진자는 하나도 없었다. 지휘관들가운데도 그것이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자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애숭이중위는 노무라참모의 처남일뿐아니라 귀족가문의 출신이였다.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는 일생을 망친다는것을 생각할 때 혀가 얼어붙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섬에서 나서 섬에서 자라 대륙의 밀림이라는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애숭이중위가 인솔하는 이 중대는 인간으로서는 거역할수 없는 어떤 거대한 운명의 손아귀에 틀어잡힌것모양 무시무시한 어둠이 함정을 늘여놓은 숲속으로 빨려들어갔다.

날은 완전히 저물고 이끼와 잡초에 묻힌 오솔길은 몇자루의 홰불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늙은 안내자는 벌써 얼혼이 나가 홰불을 쳐들고 정신없이 오락가락 앞뒤로 뛰지만 가도가도 끝이 없는 나무의 바다속에서 어느것이 길인지 어느것이 진펄인지 가려내지 못했다. 그가 주춤거리면 제 겁에 질린 애숭이중위놈은 사정없이 멱살을 쥐여흔들고 따귀를 박았으며 마감에는 시퍼런 군도를 뽑아들기까지 하였다. 한번 칼자루에서 뽑혀나온 칼은 다시는 칼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지 않아도 정신이 떨떨해진 주구놈의 눈앞에서 번쩍거렸다. 마침내 안내자는 길을 똑똑히 가려볼 겨를도 없이 마구 걸었다.

행군을 시작하여 좋이 다섯시간이나 지났건만 숲의 끝은커녕 도중에 길을 물을만한 산막 하나 나타나지 않았다. 희미하게 숲정수리를 비치던 달도 사라지고 숲속에서는 온갖 맹수의 울부짖음이 울려오기 시작했다. 토비라도 나타났으면 하고 기다려질만큼 인적기가 그리워졌다. 어둠에 잠긴 숲의 공포에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민감해진 애숭

이중위놈은 목이 쉬여 웨쳐댔다.

《이놈아, 죽고싶으냐? 우리를 어디로 끌고왔느냐? 반나절이면 현성에 간다는것이 벌써 다섯시간이나 행군을 했는데 아직 숲도 벗어나지 못한단말이냐?》

《황송하옵니다. 나으리, 이젠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젠 끝입니다.》

그러나 몇번째 속아온 중위놈은 더는 안내자를 믿지 않았다. 그렇다고 달리 길을 찾을 방도도 없었다.

문득 운명의 사자와 같은 버쩍 마른 이리 한마리가 꼬리를 살에 끼고 부르르 비루먹은 털을 일으켜세우고 행군대오 한옆에 나타났다.

《앗! 저게 뭔가?》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와진 중위놈이 부르짖었다. 이리는 슬그머니 어둠속에 사라졌다. 그러나 한참이 못가서 이번에는 대렬의 반대쪽에 나타나서 혀바닥을 드러내고 입언저리를 한번 훔치더니 구슬픈 목소리로 울었다.

선발된 호전분자들로 구성된 이 침략중대도 모두 오싹 소름이 끼쳐 절로 행군속도가 굼떠졌다. 누구보다도 공포에 질린 중위놈은 밀림의 압력에 목줄띠를 눌린것 모양 혼이 나가서 발광적으로 부르짖었다.

《이 머저리같은 놈들아! 저건 들개다. 개 한마리를 보고 놀라다니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한칼에 베여던지겠다.》

이 애숭이는 홰불을 집어던지더니 이리에게 접어들었다. 사관학교시절에 배운 검도솜씨에다 공포에서 오는 광기마저 겹쳐 중위놈은 어둠속에 비린내를 풍기는 짐승에게 정면으로 뛰여들어 칼을 휘둘렀다. 홰불에 겁이 나서 비실거리면서도 한겨울 숲속 눈구뎅이에서 굶주린 짐승은 사람냄새를 외면할수가 없어 대렬을 감돌다가 불시에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 만만한 고기점을 보자 처음엔 놀라고 다음엔 식욕을 달랠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리는 한번 허공을 뛰였을뿐 일본침략군의 애숭이장교를 혼자힘으로 당할수 없었다. 휘하고 목줄띠 어방을 가로질러가는 이리의 길다랗게 여윈 갈비뼈투성이의 몸뚱이를 날이 선 칼이 내리찍어버렸다. 캥! 하고 땅바닥에 공중 나가떨어진 이리는 운명을 저주하며 흑—흑—하고 섦디섦게 울었다. 그러자 컴컴한 숲 저쪽에서 엉—엉—하는 이리떼의 울부짖음이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홰불을! 홰불을!》 늙은 주구가 당황하여 소리쳤으나 아무도 듣지 못했다. 숲을 누비며 쏜살같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이리떼의 울부짖음에 사기왕성하던 일제침략군의 중대는 몸서리를 치며 선자리에서 술렁댔다.

《이리다, 이리떼다!》

《칙쇼! 이 머저리새끼들아! 적어도 제국군인이라는자가 한마리 개새끼를 보고 놀라서 반편같이 구는가! 앞으로!》

이리의 피가 뚝뚝 흐르는 칼을 휘두르며 중위놈은 소리쳤다. 그러나 그가 발걸음을 옮겨놓으려는 바로 눈앞에 시꺼먼 그림자가 얼씬거리며 《으르릉》하고 울자 그자신도 혼이 쑥 빠져 저도모르게 뒤걸음쳤다.

《전투준비! 전투준비!》

애숭이중위는 겁에 질려 입안에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꺼져들어갈만큼 낮았으나 명령은 전류처럼 빨리 졸병들에게 전달되였다. 《절커덕》 《절커덕》하고 보총들을 내댔다. 경기수놈들은 향방도 모르고 나무줄기에 기대여서서 사격태세를 갖추었다.

《홰불을! 홰불을!》 안내자는 그냥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으나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전투준비를 하느라고 몇자루 안되던 홰불마저 오히려 땅바닥에 떨어져서 사위는 암흑에 묻혀버렸다. 그러자 벌써 대렬 후미에서 《악—》하고 외마디 비명과 함께 탕! 탕! 탕! 하고 총소리가 울렸다. 총소리는 무시무시한 메아리를 일으키며 숲을 뒤흔들었다. 숲이 부르르 몸을 떨었다. 으르릉으르릉하고 이리떼가 자꾸만 모여들었다. 뒤꽁무니쪽에서 나는 총소리에 정신을 팔고있는 사이 휙하고 바람을 일으키며 시커먼것이 대렬앞쪽에서 달려들었다.

《악— 쏘앗! 쏘앗!》

애숭이중위는 기겁을 해서 나가넘어지며 부르짖었다. 그 소리가 끝나기도전에 총구에서 불을 토했다.

대렬중간으로도 이리떼가 모여들었다. 먼 숲속에서는 으으으응—으으응—하고 누구를 부르는듯 원망하는듯 이리의 소름끼치는 울부짖음이 길게 메아리쳤다. 백리허밀림의 이리가 다 모여드는듯 수백수천마리의 맹수가 사납게 혀를 빼물고 사람의 고기점을 향해 접어들었다.

한자루의 소총 가진 졸병을 둘러싸고 수십마리의 이리가 사방에서 삥 둘러싸고 이를 갈며 으르릉댔다.

겁에 질려 제풀에 넘어지는 놈도 있었다. 그러면 이리는 한쪽에서 자기 패거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것도 아랑곳않고 두툼한 라사군

복채로 마구 살을 뜯어먹으려고 발악하였다.

컴컴한 어둠속, 깊이를 모르는 대밀림속에서는 이렇듯 참혹처절한 싸움이 벌어지고있었으나 끝없는 숲은 이 무시무시한 비밀을 깊숙이 간직한채 조용히 설레이고있을뿐이였다.

넉대의 썰매가 엷게 눈이 깔린 반반한 얼음우를 쏜살같이 달렸다. 각각 열두마리의 개가 끄는 이 썰매는 《흑룡강동지회》의 군견수 하나부사란 놈의 창안품이였다. 련연 수백키로에 걸치는 노무라다이사꾸의 이번 상, 하강지구 시찰려행을 위하여 하나부사는 개썰매를 리용할것을 제안하였다. 백리허에 주둔할 련대의 군량과 마초 조달을 위하여 백리허까지 동행하게 된 정희겸은 역시 노곶이민부락의 자기 집에 기르고있는 수십마리 개중에서 그중 드세고 날랜놈들을 골라서 썰매를 메웠다. 지치는 놈을 갈아채우기 위하여 또 수십마리의 개가 썰매뒤를 따른다. 썰매는 기껏 좁아져도 한키로나 되는 강폭을 가진 장강을 아무 거침새없이 뽀얀 눈가루를 날리며 냅다 달렸다. 강좌우에 펼쳐지는 눈덮인 초원이며 밀림이며 끝없는 광야가 자못 장쾌한 감회를 불러일으키는것이였다. 다이사꾸는 두툼하게 솜을 두고 누빈 비옷고깔 같은 두건을 쓰고 솜이불 같은 겨울왜옷을 걸치고있었는데 그런 솜부대속에 든것 같은 몸을 또 겹겹이 쌓아올린 노루가죽속에 깊숙이 파묻고 앉아서 가끔 려행용 위스끼병을 입에 갖다대고 꿀꺽꿀꺽 마셨다. 넓고 아득한 자연을 보니 그의 몸에서는 피가 끓어번졌다. 이 땅이 모두 이제는 일본제국의것이다 하고 생각하니 벌떡 일어나서 《천황 만세》라도 부르고싶었다. 그리고 제국의 륭성을 위하여 일찌기 조선과 대륙에서 피를 흘린 《선배》들의 명복을 빌고싶은 생각이 새삼 간절해지는것이였다. 이 강을 중심으로 기슭에 펼쳐진 끝없는 처녀지와 원시림은 곧 다이사꾸의 활무대였다. 여기서 그는 단순한 군국주의사상단체일뿐만아니라 침략의 앞잡이를 길러내는 간첩특무단체인 《흑룡강동지회》의 총재로서 자기의 수하들을 양성하여 원주민들을 《교화》하고 《황국신민화》하며 나아가서 전 아시아를 경영하기 위한 정치, 경제, 군사적 발판을 튼튼히 닦아야 하는것이다. 또한 이민회사인 《간민사》의 취체역으로서 관동군을 위한 믿음직한 병참기지를 꾸려야 한다. 특히 관동군과 외무성, 륙군성의 실력자들로부터 현시기 일본의 정책에 그중 큰 난관과 위험을 조성하고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과업과 부탁을 받고있고 또 공산주의와의 대

결을 일생일대의 사업으로 알고있는 다이사꾸는 자기의 수완을 마음껏 시위해볼수 있는 이 광활한 무대를 우선 한번 보고 필요한 기둥들을 요소요소에 박아둘 목적으로 그중 믿을수 있는 아끼시마 이하 몇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생나무 얼어터지는 소리가 쩡쩡 메아리치는 이 혹한속에 길을 떠난것이다.

《오— 저 지평선을 보게, 장부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지 않는가? 오— 광활한 대지로군!》

다이사꾸는 옆에 놓인 칼자루지팽이를 들어 남쪽초원을 가리켰다. 뿌연 하늘아래 뿌연 땅이 맞닿아있을뿐 나무 한그루, 집 한채 보이지 않는 텅빈 공간이 무시무시할만큼 무표정하게 침묵하고있었다. 만일 그 어슴푸레한 지평선우에 까마귀나마 한마리 날아가지 않았던들 그 공허한 공간이 주는 야릇한 위협에 모두 머리끝이 쭈뼛해졌을것이다.

며칠을 달려왔건만 강우에나 강기슭에나 인적 하나 볼수 없었다. 나루는 얼어붙고 인가라고 짐작되는 하얀 무덤같은 둥그러미에서는 한점 연기도 피여오르지 않았다. 대체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먹고 사는지 짐작조차 할수 없었다. 왼쪽기슭은 낭떠러지가 져서 위압하는듯 우중충한 원시림과 큰산줄기가 내려다보고있었다. 다이사꾸조차 이따금 이 황량한 자연의 표정에 그만 질리여 눈물날만큼 짜릿한 애수와 고독감을 느끼는것이였다. 그럴 때면 다이사꾸는 위스끼병을 꺼내여 꿀꺽꿀꺽 들이키고 칼자루지팽이를 들어 한마디 하는것이였다.

《어— 장엄하군. 범굴에 가지 않고 어찌 범새끼를 잡으리오. 과시 장부가 한바탕 일해볼 생각이 용솟음치는 땅이야.》

백리허에서 일단 려장을 푼 노무라일행은 이미 도착해있어야 할 수비대의 선발대가 아직 소식이 없다는것을 알고 놀랐다.

다이사꾸는 심양과 중동선 연선역들에 련락하는 한편 아끼시마를 띄워 사태를 조사하게 하고 제자신도 조카의 처남아이가 자기 중대를 인솔해가지고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안골 자기 집으로 떠나기 위해 정희겸이 인사하러 왔을 때 다이사꾸는 칼자루지팽이를 짚고 백리허숲을 바라보며 울부짖듯 말했다.

《들으니 여기에도 조선인들이 많다는것이요. 조선인들이 있는곳에 상서로운 일은 하나도 없소. 제국의 대륙경영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과의 대결여하에 달려있소. 조선인으로서의 당신의 책임이 무겁다는것을 자각해야 할것이요. 최근 관동군에 종

합된 자료에 의하면 조선공산주의의 수령 **김일성**이 간도일대에서의 조선인의 폭동을 지도하고있다는것이 명백해졌소. 그래서 조선에서 공산당취급에서 경험있는 경찰과 군부의 유능한자들을 데려오기로 하였소. 당신도 돈벌이에만 눈이 뒤집혀 돌아가지 말고 이러한 점에 류의하는것이 좋겠소. 이번에 이 지방으로 선발대를 데리고 온 청년으로 말하면 스가남작의 막냉이인데 내 조카의 처남되는 아이요. 전도유망한 청년인데 아직 도착되지 않았다는것은 필시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는게 틀림없소. 그러나 그애가 설혹 자기의 중대와 더불어 대륙의 돌을 베개삼아 묻혔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의 투지를 부채질할뿐 아녀자처럼 눈물을 짤 필요는 없소.》

이튿날 아끼시마가 100리나 떨어진 숲속에서 헤매고있는 중대를 찾아내였다. 이리와의 싸움에서 한놈은 얼혼이 나가 제풀에 죽어버리고 그밖에 적지 않은 놈들이 옷이 찢기고 상처를 입은데다 안내자도 길을 모르는 왕청같은 곳으로 나가서 헤매다나니 모두 거지잔치에 찾아가는것 같은 몰골이 되였다.

워낙 현성에 입성할 때는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틀을 차리고 위엄있게 들어가게 되여있었으나 그럴 계제가 못되였다.

참담한 몰골이 된 중대를 보자 다이사꾸의 기분은 잡치고말았다.

그는 장엄한 자기의 시찰려행도 중단하고 한동안 현장의 집에 머물러있으면서 술을 퍼먹었다.

하강지구일대를 다 덮고있는 백리허의 대밀림 한끝에서 일제침략군의 한개 중대가 주린 이리떼를 만나 얼을 잃고 갈팡질팡하고있던 그 밤 이 밀림의 다른 한끝에 있는 숯막속에서는 여섯명의 동지들이 모여앉아 회의를 하고있었다.

《우리는 주민구성이 극히 불리한 조건에서 사업하고있소. 동만과 같은 혁명적인민들은 없고 정치엔 하등의 관심도 없는 무지몽매한 군중들속에서 혁명을 하자니 때로 맥도 난단말이요. 하지만 우리는 혁명에서 물러설수 없소. 동만의 폭동기세를 보시오. 일제가 들어오자마자 용감하게 한대 먹여주었거던. 뿐만아니라 최근에 할미령을 넘어온 사람의 말을 들으니 지금 또 폭동기세가 농후하게 돼간다오. 그런데 이놈의데는 어떻게 돼먹은 판인지 혁명하던 사람들도 들어오면 그만 나가넘어지고만다니까…》

김익보는 개탄조로 자기 말을 맺았다. 자욱하게 담배연기가 떠도는 키낮은 천장에서는 얼기설기 고드름이 드리워 눈물짓고 성에가 새하얗게 내불린 출입구의 거적때기는 이따금 광풍에 흔들흔들하며 눈가루를 뿌려놓았다. 숯막쪽으로 난 아궁에서는 통장작이 탁탁 튀면서 이글이글 타번지고있었다. 구들바닥은 깔개로 편 노루가죽이 노린내를 풍기며 눋도록 뜨거운 대신 외풍이 심하여 사람들은 앉은 자리를 뭉기적거리면서도 솜옷을 들쓰고 털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단단히 처매고 입에서는 구름같은 김을 내뿜었다.

《왜놈수비대가 들어와도 따귀 한대 갈겨줄 사람이 없으니 답답하단 말이요.》

큰개의 농민협회책임자 강성재가 곰방대를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역시 개탄조로 말했다.

《대체 수비대가 지나갔다는게 사실은 사실이요? 그거 또 뭘 잘못 보고 놀라서 하는 말이 아니요?》

박두성이 연방 엉뎅이를 옮겨앉으며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머리에 무엇을 두르지 않은것은 이 방안에서 그 한사람뿐이였다. 그는 장대한 체구에다 속에서는 울화가 끓어번지고 밑에서는 구들이 지지고 해서 도무지 몸을 가누지 못해 숨을 씩씩거렸다.

《그야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 일인데 뭘 그러세요? 박두성동무는 왜놈들이 여기엔 안들어오려니 하고 생각하는거예요?》

로채숙이가 푹 숙이고있던 고개를 들고 두성을 바라보며 물었다.

《안들어온다는것이 아니라 누구말마따나 따귀라도 한대 갈겨주자면 왔는지 안왔는지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 아니요?》

《정말 우리 일은 너무나 한심해요. 따귀나 한대 갈기면 뭘해요? 또 어디 있다는것을 알면 따귄들 갈길만한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있어요?》

《로채숙동무 말이 옳습니다.》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귀틀짬에 불리는 성에를 손가락으로 후비고있던 김기창이가 말했다. 《사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작년 폭동때문에 조직은 거의다 파괴된데다가 나머지 조직들도 계속 파괴되고있습니다. 왜놈수비대가 백리허로 떠났다는것도 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가네 목재판로동자들의 뜬소문을 듣고 알고있을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난 겨울동안 내내 회의나 했지 실제적인 사업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난 우리

지방에서 주민구성이 특별히 나빠서 이렇다고만 말할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을 잘못한데 있는것입니다.》

《글쎄 동무들도 참 답답하오. 내가 몇번이나 말했소? 혁명이란 고조기와 퇴조기가 있는것이요. 우리가 혁명이 앙양될 때 한걸음 앞으로 나갔다면 혁명이 퇴조할 때 두걸음 물러날수도 있단말이요.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때문에 우울해지거나 혹은 도취할 필요는 없소. 그러니 우리는 혁명의 일시적후퇴에 락심할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려야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단말이요.》

김익보는 수달피모자를 귀밑까지 내려쓰고 털목도리를 턱이 묻히도록 칭칭 감고 앉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의 불안과 동요만해도 견디기 어려웠다. 정세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일은 나날이 꾀여갔다. 여기서 출로를 찾지 못할뿐아니라 줄곧 피동에 빠져 이리저리 몸을 피해다니다가 사처에서 왜적들의 피비린 탄압과 동지들의 희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그는 때로 그자신도 한탄조의 말을 하게 되고 불안도 하소연하였지만 남이 말하는 불안이나 걱정에 대해서는 언제나 원칙적인 립장을 취하였다. 익보의 이와 같은 모순을 누구나다 느끼고있었지만 어쨌지 익보의 불안과 동요는 그자신의 약한 측면의 발로이고 다른 사람의 그러한 불안과 동요에 대한 비판은 익보의 강한 측면의 발로인 동시에 또 지금의 형편에서는 그러한 모순된 말이나마 이 지구에서 다 찢기다 남은 혁명력량을 보존해나가는 하나의 힘이라고 무의식중에 생각하기때문에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인 리성이 매번 발동되는것은 아니였다. 감옥에서 돌아와 한동안 누워있던 김기창이가 회의에 나타나고 멀리 피신했던 박두성이가 돌아오자 때때로 의견대립도 없지 않았다. 례컨대 안개에서 보위단성원이 한사람 더 늘었다든가 현성에 왜놈관리가 인력거를 타고 네거리를 지나갔다든가 하는따위 사소한 문제를 평가하는데서도 옥신각신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따지고보면 그 문제자체가 중하거나 특별히 까다로와서 그런것이 아니라 단지 캄캄한 혁명의 전도때문에 피차의 가슴에 서리는 울분을 터놓는데 지나지 않았다.

《김익보동지의 말씀은 제 생각에는 모순이 있는것 같애요.》하고 로채숙이 고개를 들었다. 《혁명이 퇴조기가 있다는것은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다시금 절로 고조기가 올것을 기다리고있을수는 없지 않아요. 혁명이 퇴조할 때 혁명가들은 깊이 인민들속에 들어가 조직을 꾸리고 다시 대렬을 정비하여 새로운 혁명의 시뚜아찌야를 조성해야

하는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같은 사태에서 그 어떤 폭동기세가 조성된다 한들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고작 구호나 부르고 선동연설이나 하겠지요. 그리고는 또다시 적들의 탄압이 있고 우리는 또 지하길이로 쫓겨갈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저에게는 진저리가 나요. 이런 고비가 한번씩 지나갈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동지들을 단두대와 철창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로채숙의 울먹울먹한 목소리는 살을 저밀만큼 통절하게 울렸다.

《채숙동무, 그건 무슨 소리요?》 박두성이 말했다. 《물론 나는 김익보동무의 리론을 지지할수 없소. 우리의 군중은 특별히 좋은것도 없지만 특별히 나쁠것도 없소.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혁명의 고조를 기다린다는것도 있을수 없다고 보오. 그렇다면 혁명가가 무엇에 필요하단말이요? 그렇지만 로채숙동무처럼 말한다는것은 옳지 않소.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소. 어떻게 희생이 없이 혁명의 승리를 바랄수 있겠소? 이것은 혁명을 위하여 목숨바친 동지들을 모욕하는 말이요.》

로채숙은 눈물이 가랑가랑해서 벌겋게 피가 오른 박두성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수북한 눈섭이 푸들푸들 떨리였다. 그역시 피로와하고있는것이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듣던 채숙은 박두성을 조심스레 살피며 말했다.

《박두성동무의 비판을 부분적으로 접수합니다. 나는 오늘의 간고한 시련을 견디는것이 힘에 겹고 또 동지들의 희생이 너무나 가슴아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이것은 저의 소부르죠아적나약성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동지들, 과연 우리 사업이 잘되여가는가요? 매일밤 이렇게 모여서 아무런 결정 하나 짓지 못하는 회의나 되풀이하고있는것이 과연 옳은 일일가요? 혁명정세는 점점 엄중해지고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조국과 우리 혁명은 갈수록 준엄한 단계에 처하고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결정적인 행동에로 나가도록 부르는 신호가 아닐가요?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는것이 과연 무엇이란말이예요? 만일 김익보동지가 단정하는것처럼 우리의 군중이 무지몽매하다면 우리는 그들이 깨여나서 혁명해줄 그때를 기다리고있는거예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채숙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때렸다. 아무도 채숙이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고 대답할 용기가 없었다.

몇십길 심연속에 가라앉은듯 답답한 가슴속에 밀림을 울리는 바람소리와 주린 창자를 짜내는듯한 맹수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문제는 안골에 있습니다.》 말 안하기 경쟁이라도 하다가 마침내 견디지 못한것 모양 김익보가 불쑥 입을 열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점이 안골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늘 강조하는바이지만 백리허와 나아가서 전체 하강지구혁명의 기본문제는 안골문제입니다. 안골의 토호들과 반동적인 부르죠아민족주의분자들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방법으로라도 이자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동분자들을 처단하는것은 나쁘지 않소. 난 우리 아재비 박병섭이를 내 손으로 처단하겠소. 그까짓것이나 처단하는게야 식은죽먹기지. 하지만 그 뒤에 오는것은 무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거요?》

《동무들, 흥분하지 맙시다.》 김기창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렬사 안중근은 이등박문을 죽이고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안골의 한개 지주나 죽였다고 해서 우리 혁명이 조금이라도 헐하게 될수 없습니다.》

《그럼 대체 어찌자는거요? 혁명은 말공부가 아니란말이요.》

김익보가 마침내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칭칭 감았던 목도리를 잡아뜯다실이 끌러놓았다.

이때 조심스레 일각문이 열리더니 숯가마의 불을 살피는겸 망을 보고있던 숯막주인령감이 거적을 들치고 얼굴만 디밀었다.

《조심들 하시오. 가막골쪽에서 불빛이 넘어옵네다.》

방안은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김기창이 광솔불을 낮추고 조막만큼 뚫린 바라지에 헌 누데기쪼박을 뚤뚤 뭉쳐 틀어막았다.

《거적을 잘 내려요. 숯가마의 불은 비치지 않아요?》 로채숙이 속삭였다.

《뭐 덤빌것은 없쇠다. 보아하니 한사람인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지나갈것도 갈수다.》

《어느쪽으로 갑니까?》

《술기막골로 가나부웨다. 한데 이 밤중에 길을 똑바로 찾아가겠는지 모르겠수다.》

《가만, 내가 나가보지.》 박두성이 방바닥에서 개털모자를 찾아들고 움켜쥔채 슬그머니 거적을 들치고 바깥으로 나갔다.

쩡쩡 통나무 얼어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우—우— 바람소리가 숲을 울렸다. 박두성은 숯가마옆에 가려놓은 나무가리옆에 착 붙어서고 솜뭉치같이 솜옷으로 뚤뚤 몸을 감은 숯막주인은 숯가마아궁앞에 웅

송그리고 앉았다.

멀리 통나무사이로 불빛이 흔들흔들 흔들리며 다가오고있었다. 바람결에 너울너울 타는 불줄기로 보아 홰불이였다. 홰불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있었다.

한참 한자리에 서서 이리저리 비쳐보기도 하다가 또다시 걸어온다.

(틀림없이 한사람이군. 길을 잘못 들었나…)

박두성은 맞춤한 장작개비 하나를 틀어쥐고 어둠속을 그냥 쏘아본다. 마침내 불빛아래 으슴푸레 사람의 륜곽이 나타났다. 그러자 또다시 멈추어서서 홰불을 높이 들고 사위를 살핀다. 먼데서 숯막의 불을 본것이 틀림없다. 숯막의 불을 보고 찾아오다가 갑자기 사라졌으니 저렇게 자꾸 두리번거리는것이다. 홰불은 또다시 다가왔다. 문득 한자리에 서서 한점을 지켜본다. 그 시선을 어방짐작으로 따르니 숯가마의 숨구멍에 갑자기 덮은 거적때기가 바람에 날려 가는 불찌가 이따금 날리고있다.

(빌어먹을!) 박두성은 속으로 혀를 차며 장작개비를 바싹 틀어쥐였다.

홰불을 든 장대한 사나이가 조심조심 숯가마쪽으로 다가온다. 이젠 얼굴의 륜곽이 보인다. 높이 쳐들린 홰불밑에서 훤칠한 이마가 빛난다. 털외투의 깃을 일으켜세우고 한손은 주머니속에 찔렀는데 필시 그 손에는 무기가 잡혀져있을것이다. 이것이 숯가마라는것을 확인한 모양 홰불 든 사나이는 불을 발아래 내던졌다. 불을 끄자는 것이다. 그 순간 박두성은 벌떡 일어났다.

《아니, 이게 누구요? 유철동지가 아니요?》

《누구요?》 유철은 발로 밟으려던 홰불을 도로 쳐들고 어둠속을 쏘아보았다.

《나요, 나. 박두성이요.》 두성은 와락 달려가서 유철의 어깨를 힘껏 그러안았다. 그러자 지게문을 박차고 숯막안에서 우르르 사람들이 튀여나왔다.

《유철동지.》 김기창이 맨발로 달려나와 유철의 어깨에 매달렸다. 로채숙은 사람들뒤에 서서 손만 내밀고 가만히 속삭였다. 《우린 유철동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유철은 일일이 그들의 손을 뜨겁게 틀어쥐며 말했다.

《참, 동무들을 찾아오면서도 이렇게 만날줄은 몰랐습니다. 모두 잘 있었습니까? 익보동무, 그래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김익보는 그의 손을 틀어쥐고 놓지 않았다.

《자, 어서 들어갑시다. 온통 사람이 아니라 눈투성이가 됐군. 동

무가 또다시 우리에게로 찾아오다니. 참,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소. 정말 혁명전우란 이래야 하거든. 자, 어서 들어갑시다.》

먼동이 트자마자 숲은 벌써 새날을 맞이하기 위한 뭇생명들의 활기찬 움직임으로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해살도 비쳐들기전부터 새들이 우짖었다. 나무가지들은 가벼운 바람에 서로 부딪치며 속삭였고 우듬지에서는 사르락사르락 눈이 녹아내렸다. 숯막언저리의 좁다란 공지우에 밝은 아침해살이 비쳐들었다. 깊은 숲속은 륜곽조차 희미하지만 어쨌든 오래간만에 보는 해빛이 반가왔다. 밝게 트인 세계를 본다는것이 우선 답답하던 가슴들을 후련하게 열어주었다.

숯막에서는 밤새도록 회의가 진행되였었다. 유철은 품속에 깊숙이 간직하여온 공책을 꺼내들고 **김일성**동지께서 국제국내정세를 분석하시고 선행한 공산주의운동과 반일운동을 총화하신 말씀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조선혁명을 한계단 높이 끌어올리기 위하여 제시하신 새로선과 그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전술을 침투하였다.

그이를 하직하고 떠나와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석달 가까운 시일이 흘러갔다. 유철의 급한 마음과 날랜 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시일이 걸리게 된것은 오는족족 이곳 백리허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정세와 정황에서 갈길을 못찾아 헤매고있는 수많은 혁명조직과 혁명가들을 만나게 되였고 그리하여 유철은 그 모든 조직, 그 모든 사람들에게 **김일성**동지의 새 로선을 침투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는 과정에 공책은 닳았다. 유철은 중간에서 두툼한 기름종이를 얻어 뚜껑을 부하고 해여진 책장들을 풀로 바르며 공책을 언제나 가슴속 깊이에 간직하고 다녔다. 생기없이 잠자거나 몸부림치고있던 모든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이 그이의 말씀에 접하자 모두 활기를 띠고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혁명은 그가 머물러있는 며칠 안되는 동안에도 벌써 몰라보게 앙양의 기세들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유철은 자기의 공책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고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생명이 오직 그 한권의 공책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였다.

백리허의 깊은 숲속, 이리떼 울부짖던 밤은 지나갔다. 광솔불에 그슬린 어수선한 숯막천장에 하염없이 날려보내던 한숨은 밤이 지새고 밝아오는 새 아침과 함께 사라졌다.

사람들은 하얗게 성에가 덮인 거적을 와락 벗겨던지고 찌그러진 일각문을 열어젖혔다.

선참 공지로 뛰여나온 박두성이 두활개를 쩍 벌리고 신선한 숲속의 아침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며 소리쳤다.

《어—참, 해도 오래간만에 보는군. 이젠 봄이 머지 않았어.》

《정말 봄이 머지 않았어요. 싸움의 새 봄, 혁명의 새 봄이 찾아올거예요.》

로채숙이 소녀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무슨 소리요? 봄이 찾아오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해야 한단말이요. **김일성**동지께서 우리더러 앉아서 봄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말이요?》

《호호호, 말도 못하게 하네. 봄은 오는거지요. 우리가 쟁취해야 할것은 혁명의 승리지요.》

《하하하—》

김기창이가 주먹으로 제 손바닥을 딱 치고 껑충 뛰여오르더니 우르르 내달렸다. 보르르 상고대가 핀 자작나무그루를 안고 아이들처럼 빙그르르 한바퀴 돌더니 소리쳤다.

《동무들,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오.》 그리고는 또 동무들에게로 달려오더니 소곤소곤 속삭였다.

《유철동지 말을 할 때 가만 보니까 그 공책에말이요, 글자들을 깨알같이 박아 써놓았는데말이요, 그렇게 박아쓴 책장이 아직 절반밖에 번져지지 않았단말이요. 남은건 우리에게 이야기 안해줄건 아니겠지요?》

《젊은 사람들이란 이래서 탈이라니까.》 강성재가 뻑뻑 곰방대를 빨며 눈귀를 가느다랗게 쪼프리고 말했다.

《유철동지가 어련히 다 생각이 있지 않을라구. 동무들도 간밤 생각을 해야 하네. 방금까지 숯가마속 같은데 앉아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앞길이 환히 열렸으면 무던하지 그것도 모자라서 벌써 안달이 나서 야단이거던.》

《하하하, 강아바이 말씀이 옳아요.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줄 알아요. 우리 뒤가 이제 얼마나 든든한가 하는것을 알려주자고 했더니 괜히 퉁이란말이야. 내 참, 하하하.》

김기창은 또다시 우르르 자작나무께로 달려갔다.

《고맙소. 동무가 이렇게 다시 와줄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소.》 맨 마감에 유철과 함께 나오면서 김익보는 새삼스럽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사실 내혼자 힘으로 도무지 수습할 방도가 없었는데 동무가 와서

김일성동지의 새 로선을 이렇게 전달해주니 무어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소. 내 김기창동무한테서 그분에 대한 소식은 들었소. 참 위대한분이시오. 우리 그이의 새 로선에 따라 혁명을 한번 본때있게 해봅시다.》

저녁에 더 좀 넓은 범위에서 회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헤여졌다.

그동안에 여러 사람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공이 있었다. 숯막령감이 끓여주는 노루고기를 썰어넣은 강낭죽으로 요기를 하고 유철은 김익보와 박두성을 통해 백리허의 형편을 료해하였다. 작년가을의 무모한 폭동의 후과가 력력히 느껴졌다. 김익보는 그것을 건드리는것이 아픈듯 될수록 이야기를 빙빙 돌리면서도 결국 사실을 다 보고하지 않을수 없었다.

안골반동들과 큰개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군중사이에는 대립이 더욱 격화되였다. 박두성은 체포된 직후에 인민들의 투쟁과 막후교섭으로 그럭저럭 빠져나왔으나 그후 현성에 주둔하는 부대가 갈리고 또 현의 관리들도 교체되는바람에 신변이 위험하게 되여 떠돌아다니는 형편이지만 안골에는 발도 들여놓을수 없다는것이였다.

강성재는 자기가 이왕에 부치던 땅이 안골에 있지만 작년에는 추수도 변변히 못했고 올해도 그냥 묵이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정희겸은 큰개농민들의 소작지를 무자비하게 잡아떼여 안골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안골사람들이 밭을 갈러 나오겠는지 의심스럽다는것이였다. 이밖에도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혁명조직의 형편은 더 한심하였다. 큰개의 야학은 흐지부지되고 학교는 페교되였다. 핵심들이 흩어지는바람에 조직은 있으나마나였다. 명색이나마 몇군데 남아있다는 조직도 실제적인 사업은 아무것도 하는것이 없고 할 사람도 없었다.

《문제는 안골에 있소. 그중에서도 박병섭을 두목으로 하는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는데 문제의 중심이 있소.》

김익보는 자기 말을 이렇게 맺았다.

《문제는…》 하고 유철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심중한 어조로 말했다.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혁명의 지도를 보장하지 못한데 있고 정확한 전략전술을 소유하지 못한데 있는것 같습니다. 현단계에서 조선혁명의 임무는 모든 반일세력을 조직동원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치는데 있습니다. 그런것만큼 우리는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세력과 공동행동을 뭇고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계급, 계층과 통일전선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일제를 반대하는 사람이면 그것이 다소 불철저하더라도 우리편으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모든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혁명에서 계급적립장을 견지하는것과 동시에 혁명의 주되는 적에게 타격을 집중하도록 모든 세력을 묶어세우는 이 전략전술적 원칙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안골문제가 중요한 문제인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안골문제의 중심은 박병섭로인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안골의 군중들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데 있는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기때문에…》 김익보는 유철의 말을 들으면서 몇번이고 그의 말을 끊으려고 기회를 엿보는 사이 담배를 빠는것도 잊고있다가 정작 유철의 말이 끝나고보니 이번에는 골통대의 불이 죽게 되여 부지런히 담배대를 빨면서 한팔을 쳐들고 조급하게 말했다. 《안골문제를 해결하자면 박병섭이를 먼저 쳐야 한단말이요. 결국 둘러치나 메여치나 마찬가지가 아니요.》

《김익보동무.》 유철은 겉은 부드러웠으나 모를 박아서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안골을 혁명화하자고 한다면 우선 그곳 군중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해야 합니다. 그들을 혁명의 편에 전취해야만 그를 발판으로 유격대도 조직할수가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군중을 전취한다는것은 그들의 낡은 사상을 개조하여 혁명적의식을 넣어주는것을 말하지 그들과 문자그대로 싸운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박병섭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물론 그를 김익보동무만큼 잘 모를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적으로 알수 있는것은 그 로인이 우리만 못지않게 일제를 미워하고 그래서 한때 총까지 잡고 싸운 사람이라는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물론 반동이 될수는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와의 사업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그를 미리 반동으로 규정하는것은 지나친 속단입니다. 특히 그가 안골에 많은 군중토대를 가지고있다면 그 로인을 우리 편에 끌어당기는것이 절실히 필요한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는 유철동지 말이 그럴듯하게는 생각되지만.》 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박두성이 역시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실상 형편을 잘 몰라서 하는 말 같소. 우리 아저씨를 내가 잘 압니다. 그가 반

동이라는 김익보동무의 말은 정확하다고봅니다. 설사 반동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를 우리편으로 끌어당길수는 없습니다. 그 령감이 공산주의자와 손을 잡다니… 안됩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 령감은 개조할수 없어요.》

《그것 보시오. 유철동무, 우리는 물론 지난기간 일정하게 좌경적으로 나간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시정한다고 해서 우경으로 나갈수야 없지 않소.》

김익보가 이젠 벌겋게 불이 달린 골통대를 빽빽 빨며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유철은 고개를 푹 숙이고 모대기고있는 박두성의 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조카까지도 외로 돌려놓은 로인을 내가 무엇때문에 옹호하는가? 박두성이가 자기 당숙을 모를수는 없지 않은가? 더구나 그 문제때문에 내내 말썽이 되여왔고 그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정신적고통을 많이 받아온 박두성이다. 사실 앞으로 벌어질 광범한 사업을 놓고볼 때 한 늙은이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동안 옥신각신할 거리가 못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카까지도 외면한 그 늙은이에게 한점이라도 애국심의 쪼각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높이 사서 소중히 품어 키워주어야 할것은 그 조카도 자식도 아닌 바로 혁명의 품이 아닌가? 유철은 마음속의 괴로움을 감추지 못해 시꺼멓게 죽어든 두성의 낯빛을 바라보며 **김일성**동지의 넓으나넓은 사랑의 품을 생각하였다.

《동무들!》 유철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총이 있는 사람은 총을 내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서 조선사람모두가 일제를 반대하는 싸움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병섭로인에게도 일제를 치는데 보탬이 될 그 무엇인가 낼것이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일하기 헐한 대상만 골라잡고 스스로 따라오는 사람만 기다린다면 혁명가라고 할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이렇게 설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몇몇 민족반역자들과 매국적인 지주, 자본가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조선사람모두를 반일전선에 묶어세울수 있고 또 묶어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박병섭로인을 교양개조한다면 안골전체의 혁명화에도 큰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안골을 혁명화할 필요성을 인정하는가 안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김익보는 눈을 디룩거리며 유철을 맞바라보기도 하고 박두성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였으나 두사람 다 그에게 아무런 류다른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유철은 단정히 앉아서 심중한 어조로 또박또박 자기말을 곧바로 끌고나갔고 박두성은 아까보다 더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떨구고있었다.

《사실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소.》 이윽고 박두성이 고개를 번쩍들고 괴로운듯 얼굴을 찌프리며 말했다. 《내가 혁명가로서 한집안령감을 교양하지 못한데도 책임이 있고 또 그 령감이 우리와 엇서나가는데는 내가 그 령감에게 좀 심하게 군데도 원인이 있소. 그러나 유철동지,이제 그를 개조하기는 힘이 듭니다. 대체 누가 그 령감과 접촉을 하겠소？그 령감은 공산주의자라면 만나지도 않을것이요. 억지로 만나면 어디다 잡아가두자고 들거우다. 그러니 그 령감은 제껴놓아야 한단말입니다.》

《누가 박병섭로인을 교양하겠는가？ 그것은 딴 문제입니다. 갈 사람을 정하기전에 우리는 우선 이 로인과 안골동네를 우리 힘으로 혁명화해야 한다는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김익보가 골통대를 입에서 뽑고 멍하니 유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박두성 역시 한동안 유철의 엄숙한 얼굴을 지켜보다가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잠시후 유철은 말을 이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당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핵심을 찾아서 길러내야 하고 무장투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하고 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근거지를 꾸리는 한편 군중토대를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일하는 우리자신들이 사상적으로나 리론적으로 튼튼히 준비해야 하고 또 능숙한 조직수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점에서 우리에게는 부족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말씀에 충실합시다. 그이께서 가르치신 로선과 전략전술의 원칙에 튼튼히 발붙여서 모든 문제해명의 고리를 거기서 찾도록 합시다.…》

저녁에 백리허일판에 남아있던 전체 당원들이 숲속으로 모여들었다. 회의에서 유철은 다시금 **김일성**동지의 항일무장투쟁로선과 전략전술상 원칙을 전달하고 백리허혁명조직앞에 제기되는 과업에 대하여 말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지난해의 폭동을 비롯한 일련의 좌우경적편향이 신랄히 비판되고 들끓는 분위기속에서 **김일성**동지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기되였다.

이틀간에 걸치는 회의끝에 참가자들은 각기 구체적인 분공과 과업을 맡고 용기백배해서 공작지로 떠나갔다.

2

안골전체가 떨쳐나다싶이해서 정희겸이네 낟가리를 헐고 고간에서 해묵은 벼섬들을 현성으로 실어냈다. 강냉이와 수수는 언제 섬에 가릴새도 없어서 마구 낟가리를 지었던것이라 거리에서 마대들을 가져와서 새로 무게를 뜨고 포장을 하였다. 포장이 되는족족 짐마차를 들이대고 현성으로 실어갔다. 벼섬들은 정미소에 일단 부렸다가 찧은 다음에 다시 마대에 담아서 병영으로 실어들여야 하기때문에 여간 일손이 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있던 안골사람들도 백리허에 왜놈군대가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자 이것이 군량조달이라는것을 알았다.

정희겸은 전에없이 아직 얼음도 풀리기전부터 동네에 나타나서 소작인들은 물론 온 동네사람을 다몰아쳤다.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보위단을 풀어 강제로 끌고 왔다.

얼음이 풀리고 강으로 륜선이 들어왔다. 소문만 떠돌던 왜놈군대가 일본기발을 단 륜선을 타고 현성으로 들어왔다. 정미소에 일제수비대의 경리장교놈이 나타나서 정미소주인과 정희겸을 불러놓고 일이 굼뜨게 진행된다고 으르딱딱거리는것을 본 사람도 있었다.

왜놈들이 백리허에 나타났다는것이 확실해지자 동네의 분위기는 긴장되였다.

박병섭로인은 베감투를 단정히 쓰고 흰 채수염을 날리며 무서운 기상으로 마을을 돌아다녔다. 서리가 앉기 시작한 눈섭에 장미가 수북한데 그밑에서 어찌나 맑은지 푸른기가 도는 눈동자가 사뭇 찌를듯이 빛나고있었다.

《네 이놈, 어디로 가느냐?》

빈 달구지를 끌고 골목을 지나가던 젊은 농민이 박병섭의 호령소리를 듣고 흠칠 고개를 돌렸다. 그는 곰방대를 달구지채에 털어서 괴춤에 찌르고 허리를 굽혔다.

《어르신네 나오십니까?》

《네 이 바쁜 때에 들에는 나가지 않고 어디로 수레를 끌고 가느냐?》

박병섭은 뒤짐을 딱 짚고 서서 재차 따져물었다. 나이 이미 50을 지

나 60고개를 바라보건만 허리는 꼿꼿하고 부한 편은 아니나 뼈마디가 실한 몸에서는 아직 청년같은 탄력이 느껴지는데 그 목소리는 찌렁하게 호령기가 있었다.

《와—와— 이놈의 말새끼가—》 젊은이는 질질 끌려가는 말고삐를 잡아채며 아까보다 더 깊이 허리를 굽히고 말했다. 《네— 저,정주사나으리댁에서 일이 있다고 달구지를 끌고 오라고 해서…》

《에끼 이 쓸개빠진놈,네놈은 귀구멍이 망짝만해가지고도 소문을 못듣느냐? 나라를 빼앗긴것만도 천하가 용납 못할 죄인인데 하물며 원쑤의 아가리에 진상하겠다고 제 농사를 페농하고 군량을 져다날라! 이런 때려죽일놈이 어데 있나? 네 이놈,냉큼 수레를 돌려세우지 못할가?》

《네— 분부대로 합지요. 저야 하고싶어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놈의 보위단놈들이 하도 못살게 구니 하는수없이 끌려나가는겝지요.》

젊은이는 연신 로인의 댕댕한 표정을 살피며 좁은 골목에서 달구지를 돌려세우느라고 채를 잡고 낑낑 돌아갔다.

《일후에 다시 이런 짓을 하다가는 네놈은 말할것 없고 네 부모처자 일가권속이 이 안골동네에서 부접을 못할줄 알아라. 자고로 우리 사람들은 원쑤를 돕는 국적과는 불구대천지수를 삼느니라.》

《네,알았어요. 선다님 분부가 한번 있었으면 그만이지 다시 또 무슨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요. 편안히 다녀가십시오.》

젊은이는 목에 동인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얼른 골목쪽으로 달구지를 끌고 황황히 사라져버렸다.

로인은 이렇게 푸른 눈에 서슬을 돋쳐가지고 안골동네를 이 골목 저 골목 돌아다녔다. 그가 하도 무섭게 호령을 하니 박씨일가는 말할것 없고 동네사람들도 가뜩이나 뜨직한 부역에 아무도 나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보위단이 나서서 행패를 해가며 사람들을 끌고 갔고 나중에는 정희겸이까지 단장을 짚고 나서서 땅을 당장 잡아떼겠다고 으르대였다. 두 중간에 끼인 사람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는데 그래도 박병섭로인의 말은 량심과 의리의 호소이지만 정희겸의 말은 목구멍을 조이는 현실적압력인데다 당장 사람의 멱살을 끌고가는 폭력의 우격이였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박병섭로인을 피해서 뒤골목으로 돌아 정희겸의 마당으로 나타나군 하였다. 이렇게 모여들기는 하였으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성수가 날리 없었다. 철은 봄갈이를 앞두고 한창 바쁜 때이건만 일군들은 흔들흔들하다가

펑게만 있으면 주저앉아 잡담으로 시간을 보냈다.
화월이가 집안에서 일군들의 끼니를 해대면서 일을 신칙하느라고 이악을 떨었다. 마당에 나가면 쌍가매서껀 집안것들이 꾀를 피우고 집안에 들어오면 마당에서 건달을 부리는바람에 화월은 잠시도 한곳에 배겨있지를 못하고 치마자락을 한손으로 쳐들고 벌겋게 피가 올라서 분주히 마당으로 집안으로 드나들었다.
《아이구—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밥 타는 냄새가 아니냐? 쌍가매야— 네 이년! 이 정신이 쑥 빠진 년, 어디 가 자빠져서 낮잠을 자느라고 이렇게 밥이 다 탈 때까지 모르고있단말이냐?》
화월은 일부러 코를 싸쥐고 겅둥겅둥 마당을 뛰여 부엌으로 달려들며 소리쳤다.
《아따 꽤는 보채네. 방금 불을 지폈는데 어느새 밥이 탄단말이예요?》
쌍가매가 새초가리에서 마른 새 한단을 안아들이며 말했다. 언제 봐야 푸둥푸둥 살이 지고 아무리 매질을 해도 무섬을 안탈뿐아니라 아무하고나 숫기좋게 웃으며 돌아가는 쌍가매가 화월에게는 저으기 밉상이다. 더구나 쌍가매가 아무리 누데기를 입고 험한 일에 손발이 다 트고 지금처럼 북데기를 머리에 허옇게 쓰고있어도 살결이 눈결처럼 희고 억실억실한 눈이 아름답게 변해가는것이 참을수 없이 밉다.
《이년, 네년은 코도 없느냐. 이 냄새를 맡아보아라.》
《아, 저리 좀 비켜요. 함지박같은 엉치를 이렇게 문에 지질거놓으면 어떻게 나무단을 안고 들어가나요?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건 감자알 묻은게 타는거예요.》
《아니, 이년이, 이 주둥아리를 그냥 둬? 그래 감자는 왜 태우느냐? 감자는 누가 묻으라고 했어?》
화월은 저를 밀치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쌍가매의 등을 힘껏 주먹으로 다듬이질하듯 조졌다.
《아야야.》
쌍가매는 새단을 부엌바닥에 내던지고는 소리치더니 그러다말고 부지깽이를 들어 불이 번져나가는 아궁에서 새까맣게 탄 감자 몇알을 끌어냈다.
《이년, 누가 감자를 훔쳐먹으라고 했어? 응, 누가 그랬어?》
화월은 제풀에 화가 나서 부지깽이를 빼뜰어들고 독사같이 상이 파래가지고 달려들었다.

《감자 몇알을 누구한테 묻는단말이예요. 내가 아침은 먹은줄 아세요. 꼭두새벽부터 볶아쳐대니 집안사람들은 밥 먹을 짬도 없었어요. 또 밥이 있기나 했어요? 일을 하자니 배가 고파서 감자라도 구워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아이구, 이년이 사람잡겠네. 네 이년! 네년이 그래 나한테서 배를 곯았다는 송사냐? 이년! 배은망덕도 분수가 있지, 네년이 우리집 아니더면 얼어죽은지가 오랬다. 네년을 네 에미, 애비도 귀찮아서 내던진걸 우리 내외가 길렀다. 어따대고 아가리질이냐, 아가리질이!》

부엌에서 이렇게 왁작 떠들고있을 때 바깥마당쪽에서 와— 하고 사람들이 들레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또 무슨 소린고—》

화월은 귀가 번쩍하여 부지깽이를 쌍가매 등에 집어던지더니 다시 치마자락을 추켜들고 부리나케 마당으로 달려갔다.

《헹! 개떡같다!》

쌍가매는 아궁앞에 앉아 불을 지피며 감자껍데기를 천천히 벗겼다.

새로 헤치는 낟가리앞에서는 장정들이 와—와— 하고 몰이소리를 지르며 떠들고있었다. 한패가 와르르 달려가느라면 《잡아라, 잡아라!》 하고 뒤에서 소리치고 한곳에서는 1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무엇인가 들여다보며 떠들고있다.

《통채로 삼키면 약이라네, 자네 냉큼 삼키게.》

《자, 그럴것 없이 임자가 먹게. 몸보신을 좀 해야 아주머니한테 매를 덜 맞지.》

낟가리에서 쥐둥지가 나진것이다. 쥐도 한두마리가 아니라 몇대가 아주 판을 차리고 살던 큰 살림이 드러난것이다. 엄지들은 낟가리사이로 말달구지밑으로 벼짚더미로 들판으로 산지사방으로 달아났다. 아직 털도 안난것들이 둥지에 오구구 모여있는것도 있고 가까스로 솜털이 보르르한것들이 앙증스럽게 발발 기여나오는것도 있어서 커다란 장정들이 무슨 큰일이나 난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야단인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일들인가? 원 사람들도 철이 없지. 쥐가 나왔으면 잡아치우고 넹큼넹큼 일을 치워야지 이 바쁜 때에 이러고 떠들기만 하면 어찔텐가.》

화월은 바로 점잖게 한마디 호령을 했지만 속으로는 호기심도 생기고 또 털 안난 쥐새끼가 보약이라는 말에 은근히 귀가 솔깃해지기도

했다. 해소병에 결려 골골하는 아들 창도 생각이 난것이다. 그래 일군들을 헤치는 한편으로 쥐둥지가 나진 낟가리쪽으로 바삐 걸어갔다. 사람들은 벅적 떠들어대면서도 마지못해 흩어져갔다.

《사람도 못먹는 낟알을 쥐새끼에게 다 먹이다니. 세상이 더럽겐 돼먹었다.》

화월이에게 찔— 눈을 흘기며 이렇게 두덜거리고 나서는 사람도 있다.

《어디 쥐새끼뿐인가? 이렇게 몇해씩 처쌓아놓으니 보라구. 썩긴들 얼마나 했는가? 그래도 더 처쌓지 못해 작인들의 빈 쌀독을 박박 긁어내니…》

한사람이 이렇게 은근히 응수를 하면서 일부러 들으라고 이번에는 번쩍 벼섬을 쳐들며 큰소리로 말했다.

《자, 바싹 어깨를 들이밀게. 안주인이 나왔는데 부쩍 일손을 다그쳐야 막걸리잔이라도 생길것 아닌가?》

커다란 엄지쥐 한마리가 벼섬사이에서 푸들쩍 뛰여오르더니 사람들이 웨치는데 넋이 나가서 곧바로 화월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어지간한 강아지새끼만큼이나 한 쥐는 부르르 털을 거슬리고 화월이 발밑에서 홱 모를 꺾더니 도로 사람들쪽으로 쏜살같이 되돌아섰다.

《에그머니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도 기광스럽던 화월이지만 쥐새끼한테는 혼이 다 빠져 치마자락을 쳐들고 한바퀴 맴을 돌다가 스르르 눈을 감으며 벼가마니우에 펄썩 주저앉았다. 그바람에 다른 사람들도 놀랐지만 또 화월의 꼴이 우스워 와— 한쪽으로 밀리며 한바탕 웃어제꼈다.

성깔이 몹시 사납게 생긴 새까만 암말이 아까부터 사람들 떠드는데 비위가 거슬렸던지 갈기를 흔들며 코를 불고있었는데 쥐새끼 한마리가 자기 다리밑으로 빠져달아나고 사람들이 와— 들레며 자기에게로 쏠리자 그만 신경이 곤두서서 반짐이 채 못되게 실린 수레를 끈채로 닁큼 모둠발로 한번 뛰여오르더니 그대로 냅다달아났다. 새로운 소동이 벌어졌다. 말도 수레도 정희겸이네것으로 요즘 마부가 없어 큰머슴 조령감이 림시로 몰던것이다.

《말 잡아라! 말!》

조령감은 길다란 채찍을 찾아들고 공연히 휘둘러대며 따라갔으나 그의 걸음으로 따라잡을수는 없었다. 동네의 날파람있다는 청년들 역시 소리소리 지르며 따르기는 했지만 기가 성할대로 성한 말을 따라잡

을수는 없었다. 말은 멍에를 벗어던지려고 연방 목을 휘저어대며 꼿꼿이 모둠발로 달렸다. 수레에서 벼가마니들이 겅둥겅둥 뛰며 요동질을 하다가 굴러떨어졌다. 굽인돌이를 돌 때면 한쪽 바퀴가 위태롭게 공중으로 쳐들리였다.

이제 마차는 그만두고 길가에 무엇이 어슬렁거리다가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마구 깔아뭉갤 형편이였다.

《저런 저런—》

한참 따라가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여기가 질려 멍청하니 길가에 서서 중얼거리기만 하였다. 벼가마니우에 주저앉았던 화월은 말만 못지 않게 펄펄 뛰였다.

《아니 저걸 어째, 말도 죽이고 달구지도 다 마사지겠구나. 조령감！조령감！ 아니 모두 보고만 있으면 어쩔테야. 보위단은 다 뭘하고있어. 얼른 얼른！》

무엇을 얼른얼른 하라는지 미친년처럼 뛰기만 했지 그 녀자에게도 까맣게 멀어져가는 말을 붙잡을 방도가 없었다.

《저런 저 사람 보게. 저거 어찌자고 저러는가？…》

누가 웨쳤다. 지난해의 수수그루가 선채로 말라버린 밭머리에 웬 길손이 나서더니 총알처럼 달려오는 미친 말을 보자 주춤하고 멈추어섰다.

《아니 저 사람이 빨리 피하지 않구… 저런 저, 저.》

길손은 피하기는커녕 손에 들고있던 자그마한 보꾸레미를 집어던지더니 길 한복판에 썩 나서서 두팔을 쩍 벌렸다. 말은 그러거나말거나 앞발을 한길이나 되게 쳐들고 달려들었다. 길손은 무섭게 달려드는 말의 갈기가 얼굴을 스치는 순간 재빨리 말고삐를 붙잡더니 어느새 몸을 날려 와당탕거리는 달구지우에 뛰여올랐다. 그는 당장 마사질것처럼 곤두박질을 하는 달구지우에 선채로 고삐를 능숙하게 휘여잡고 천천히 말을 달래였다. 보기만 해도 무섭게 갈개던 가라말이 얼마쯤 가서는 땀이 쭉 내밴 온몸에서 문문 김을 피여올리며 멋어섰다. 푸푸— 코김을 불어대며 천천히 고개를 흔드는 말은 유순하기가 짝이 없다. 본시 이 말은 정희겸이가 현성에서 특별히 사온것인데 하도 성미가 고약해서 몇번 승용마차를 뒤집어엎고 한번은 말안장을 지워서 타보려다가 발길질을 호되게 당하여 그만 달구지에 메워버린 말이였다.

《거 대단한 사람이로군, 말을 많이 다루어본 사람인데…》

《한데 저게 웬 사람인가？》

《어깨에도 보따리를 멘걸 보니 먼길을 온 모양이군. …》
동네사람들이 떠들고있는 사이 길손은 달구지를 멈추어세우더니 서둘지 않고 말의 갈기를 쓸어주고 네굽을 일일이 쳐들어 살펴본 다음 천천히 돌려세워 끌고왔다. 오는 길에 내던진 자기 보따리를 찾아들고는 이제는 제발로 익숙하게 걸어오는 말뒤로 수걱수걱 따라왔다.
가까이 다가오는것을 보니 키가 크고 뼈대가 굵은 장골인데 눈이 시원하게 생긴 스물일여덟이나 났음직한 젊은 사람이였다. 먼길을 걸어온 모양으로 미투리는 날이 여러개 끊어지고 발감개에 먼지가 누렇게 앉아있었다. 목에 질끈 동인 토목수건으로 보나 목재판 막벌이군들이 입는따위 토스레덧저고리가 험하게 절고 해진것으로 보아 막로동에 치여난 뜨내기라는것이 한눈에 알렸다.
조령감이 채찍을 질질 끌며 마주 달려나가
《이거 수고를 했쉐다.》 하고 인사말을 한마디 하기가 바쁘게 채찍을 쳐들고 말에게 화풀이를 하려들자 길손은 성큼 그 손을 붙잡았다.
《령감님, 이러지 마십시오. 말이 지금 잔뜩 기가 돋쳤는데 이러면 버릇을 궂힙니다. 그리고 말이 여위지요. 좀 달랜 다음 추달을 하더라도 하는게 좋습니다.》
《아니 이거야 속이 상해서 어디 부려먹겠소. 이런 미물까지 사람을 업수이 본단말이요.》
조령감이 방금 고맙다는 인사를 한 처지에 막 뿌리칠수도 없어서 이렇게 푸념을 하며 채찍으로 제 무릎을 힘없이 내리쳤다.
《좋은 말인데 그러십니다. 워낙 달구지말론 쓸 말이 아닙니다.》
길손은 새삼스레 말을 한번 훑어보고 빙그레 웃으며 조령감을 얼리였다.
《하긴 주인령감이 제가 타겠다고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물고 사들여가지고는 이렇게 사람 속을 썩이지 않소. 하여간 젊은이가 말을 마침 잡아줬기에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면 이 늙은놈이 또 졸경을 치를번했소.》
두사람이 이렇게 주거니받거니 하는 사이 마당앞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것처럼 길손을 삥 둘러쌌다. 길손은 한가운데 둘러싸여 좀 게면쩍은지 은근히 낯을 붉히며 주위를 한바퀴 돌아보고나서 제먼저 목수건을 풀고 굽석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수고들 하십니다.》
《어디서 오는 사람이요?》

《거 말달구지를 여러해 몬가보오?》

《목재판으로 가는 길이요?》

사람들은 제마끔 제나름으로 물어댔다. 원체 손님이 귀한 고장이다. 낯선 사람이 어디선가 왔다면 10리라도 찾아가보고 서로 제집에서 묵어가라고 승벽내기로 끌어당길만큼 세상소식을 그리워하는 동네사람들이였다.

길손은 잠시 떨떨해 서있더니 괴춤에서 쌈지를 꺼내여 엽초 한잎을 부스러뜨려서는 돌돌 만 종이쪽을 찢어내여 능숙한 솜씨로 말았다. 그가 다 만 담배를 입술에 갖다대고 침을 바르자 옆에 섰던 삼덕이가 불을 붙이라고 자기의 곰방대를 내밀며 다시 물었다.

《이 고장이 처음인가보오?》

《네, 처음입니다.》 길손은 담배연기를 한모금 들이켰다가 후— 내뿜더니 대답하였다. 《간도에서 살길이 막혀 소문만 듣고 떠돌아 왔는데 벌어먹을만한데가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행처도 똑똑치 않단말이요?》

조령감이 귀가 번쩍해서 뒤전에 서있는 화월이쪽을 힐끗 돌아보며 물었다.

《행처가 따로 있나요? 아무데서고 밥술이나 먹여주고 섭섭치 않게 품삯이나 쳐주면 일하는거지요. 북으로 들어오면 인심이 후하다는것도 빈말입디다. 백리허에 가면 큰 목재판도 있고 인심 무던한 부자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백리허 목재판이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백리허 목재판까지 가자면 50리는 실히 되지…》 조령감은 일동의 동의를 구하듯이 사람들을 한바퀴 둘러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기왕지사 그렇게 된걸 서두를거야 있소? 여기서 천천히 하루밤 다리쉼이나 하고 떠나지. 여기서도 목재판에서 벌어먹는 사람들이 많다오. 래일이면 목재판으로 떠나는 말파리가 있을거우다.》

《서둘게 없다는 말이 그럴상하다니. 하필 목재판이래야 맛이겠소. 정 할수 없어 산짐승이 우글거리는 숲속으로 들어가지 빌어먹을데만 있다면 뭣때문에 그 험한 판에 목을 들이밀겠소. 며칠 묵으면서 안골이 여의치 않으면 큰개나 가막골형편도 보고 그래 정 할수 없으면 들어갈폭 잡고라도 숲속으로 먼저 찾아갈 맛이야 있소.》

머리가 희슥희슥한 물방아간집 김득춘이가 심중한 눈매로 길손을 뜯어보며 한마디 하자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지지해나섰다.

《그만한 기골에 홀몸이니 아무데선들 밥빌어먹을데가 없겠다고

숲속에 들어간단말이요.》

《좌우간 여기서 며칠 묵으면서 케를 보는거지.》

《그럼, 그렇지 않구… 우선 저 양지쪽에 앉아서 다리쉼이나 좀 하소. 오늘밤은 우리 집에서 잡시다. 집이야 변변치 않지만 없는놈의 집이 다 그렇지 별수 있소.》

길손은 시종 웃음기어린 얼굴로 동네사람들의 호의적인 충고를 말없이 듣고있다가 천천히 허리를 일으키며 말하였다. 《그럼 여기서 하루밤 자볼가요.》 이렇게 중얼거리듯 말한 길손은 어깨에 둘렀던 보따리를 풀어 담밑에 갖다놓더니 벼섬무지밑으로 되돌아오며 말을 이었다.

《헐바치구는 같이 한바탕 해봅시다. 남들 일하는데 부자놈들처럼 구경하고있을 재미야 있소.》

그리고는 벼섬 한토리를 닁큼 쳐들어 소리도 안나게 수레우에 올려놓았다. 힘도 힘이려니와 일이 몸에 푹 뱄다는것이 첫눈에 알리는 솜씨였다.

《상일군이군. 저런 사람 마부로 들어앉히면 한가할 때 일도 시킬수 있고… 누구든지 팔자 고치겠는걸…》

조령감이 뜻있게 중얼거렸다. 길손이 일에 손을 붙이고나서자 갑자기 바깥마당은 흥성거렸다. 일판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장단소리로 들썩해졌다.

화월은 뒤전에서 아닌보살하고 길손을 세세히 관찰하였다. 미쳐 달아나는 말을 붙들어세운것만 해도 화월에게는 젊은 길손이 여간 대견하지 않았다. 많은 머슴과 날품군과 보위단이 있어도 어쩌지 못하는것을 손쉽게 붙들어세운것이 우선 화월에게는 듬직해보였는데 정작 가까이 다가선것을 보니 인물이 훤칠하고 기골이 장대한것이 비록 옷가지가 람루하고 행장이 초라하나 어딘가 상스럽지 않은 인품이 느껴진다. 그런데 그가 벌이를 찾아다니는 뜨내기라는 말을 듣자 가벼운 실망을 느끼는 한편으로 물욕이 동하였다. 보매 몸집이나 일솜씨가 조령감의 몇갑절은 일을 쳐낼것 같다. 게다가 성미가 서글서글하고 몸을 아끼지 않는것이 부려먹기도 편할것 같다.

사실 정희겸이가 진가네 목재판에 손을 뻗친것은 재작년부터였다. 진가가 도시에 큰 피물점을 차리면서 자본이 딸리여 정희겸이의 돈을 돌려썼는데 그 끄트머리가 이리저리 꾀여돌다가 목재판의 권리의 일부를 내놓게 되고 요즘은 반작을 하게까지 되였다. 지금은 토장을

관리하고 처서군들을 관리하는것은 진가네 십장이 하지만 겨울에는 두 놈이 제마끔 제 발구와 마차를 들이대여 백리허강줄기로 실어냈다. 실어내는만큼 제가 먹기였다. 그러니 봄시위가 시작되고 장마가 닥치여 도처에 널려있는 흔들레판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때는 겨우내 실어낸 통나무를 떼로 엮어 띄워보내다가 다시 겨울이 와서 길이 얼어붙으면 제마끔 승벽내기로 말을 다몰아 한대라도 더많이 실어내자고 서로 으르는것이였다. 마차군 역시 태반은 삼동 한철만 목재판에서 벌어먹다가 봄철과 함께 돌아가는 농사군이였다. 그렇기때문에 봄,여름에는 마차를 주장 세워두게 마련인데 요즘은 목재판에 점점 깊이 손을 뻗치게 되여 마차군이 딸릴 때가 많았다. 게다가 량식 나르는 일까지 겹치고보니 목재판에 놀고있는 마차 생각이 나지 않을수 없었다.

화월은 일자리가 잡혀가는것을 보자 마음을 놓고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조령감을 눈짓하여 곁으로 불렀다.

《령감,저 사람이 아직 일자리를 정하지 못했다니 우리 집 일을 좀 거들게 하우. 요즘 한창 일손이 딸리는데 이 바쁜 고비라도 넘겨야 하잖겠소.》

《그러지 않아 나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넨다. 사람은 착실하우다. 이 백리허일판 어디에서 저런 일군을 얻겠쉐까? 아예 잡아서 목재판 마부로 들이앉힙시다요.》

화월은 저 역시 같은 궁리를 하면서도 짐짓 능치면서 한걸음 물러섰다.

《아니 마부는 웬 마부요? 지금 나무 실을 때도 아닌데 마부로 앉혔다가 빈둥빈둥 놀리겠소? 경우 봐서 장차는 쓴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런 내색 하지 말고 그저 잡아놓고 며칠 일을 시켜봅시다. 마부로 두고 안두는것은 주인나으리가 어련히 알아서 처리하지 않겠소.》

화월이가 속이 빤히 들여다뵈는 소리를 그렇게도 야멸차게 맺고 끊으며 휘 하고 안마당으로 사라지자 조령감은 새삼스럽게 자기의 궁리가 트이지 못함을 깨달은듯 가볍게 이마를 툭 치며 돌아섰다.

3

간도에서 떠돌아왔다는 길손 현칠성은 사흘동안 품을 파는 과정에 일솜씨를 보여 결국 목재판에서 말파리를 끌게 되였다. 그러되 지금

당장은 식량운반이 바쁘기때문에 당분간은 현성으로 량식포대를 나르라는것이였다.

집을 한채 내주면 식솔을 데려와서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였으나 정희겸이 내외가 말을 듣지 않아 하는수없이 동네에 있는 홀아비네 술집에 주인을 정하고 거접하게 되였다.

정희겸이네 집안일군들가운데서는 차라리 머슴을 한두해 살다가 땅을 얻어나가는편이 오히려 낫지 말파리를 끌어가지고는 뜨내기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하면서 여우같은년이 사람등가죽을 벗기려 든다고 욕을 퍼부었다.

그바람에 큰머슴 조령감과 김삼덕이 사이에 가벼운 말싱갱이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안주인이 어련히 잘 알아서 처결하겠다고 그런걸 걱정하나? 남의 일에 공연한 걱정하지 말고 제 일들이나 잘하라구.》

《안주인이 그렇게 잘해줘서 령감은 이 집에서 머슴을 10년나마 살고도 그 모양, 그 꼴이요? 령감이 일을 적게 해서 여태 고향 가볼 로자도 못벌었단말이요?》

삼덕이가 퉁명스레 내쏘니 조령감은 벼섬 다루던 손을 멈추고 찔 한번 흘겨보더니 상어가죽같은 손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웅얼거렸다.

《젊은것들이 일에는 몸을 애끼고 입만 깠다니까. 없는놈의 신세에 아무데 가면 별수 있을상싶은가? 제발 말썽들을 부리지 말라구. 그렇게 손발이 한가하구야 목구멍에 거미줄 안쓰는게 이상허지…》

어느날 칠성은 바깥마당에서 한참 말달구지에 벼섬을 싣다가 목이 말라 랭수를 마시려고 뒤울안으로 해서 부엌으로 갔다. 때마침 부엌문이 안으로부터 열리더니 조령감이 연신 고개를 굽석거리며 꽁무니부터 내밀고 나왔다. 돌아서는걸 보니 푸수수한 입수염에 뿌연 물방울이 맺혀있는데 조령감은 먼지 오른 손으로 수염을 내리쓸다가 인적기를 느끼고 깜짝 놀라 멈추어섰다. 잠시 그렇게 서서 칠성의 눈치를 살피던 그는 민망한 표정을 짓고 헛기침을 깇으며 옆으로 빠져나가는데 지나는 길에 무심히 고개를 돌리니 술냄새가 확 풍겼다. 부엌문에 들어서니 앞문쪽으로 화월이가 치마자락을 끌며 나가는것이 보였다.

칠성이가 큼직한 물드무에서 랭수 한사발을 떠서 누르께한 물을 훌훌 불며 마시고있는데 쌍가매가 점심 안칠 수수쌀을 한함지 씻어 이고 들어왔다.

《아이구. 현서방은 새로 와서 술도 한잔 못얻어먹네.》
쌍가매는 쌀함지를 물이 설설 끓는 부뚜막에 내려놓으면서 큼직한 눈에 웃음을 담뿍 담고 말했다.
《일하는데 술은 웬 술이야?》
칠성은 짐짓 모르는체하고 이렇게 말했다. 사발전너머 건너다보니 누데기를 두른 처녀의 몸에서는 구김살 한점 없는 생기가 풍겨왔다.
《현서방은 아직 몰라요? 이게 바로 술독인데.》
쌍가매는 흘깃 앞마당쪽을 돌아보며 부억 한쪽구석에 절반나마 묻힌 오지독을 가리켰다. 조그만 짚방석을 슬쩍 들치니 아닌게아니라 방금 조령감한테서 맡은것과 같은 약주냄새가 물씬하였다. 쌍가매는 잠시 주저하더니 은근히 칠성을 건너다보며 속삭였다.
《한잔 먹어볼래요?》
《아니, 난 술 좋아하지 않어.》
칠성은 물대접을 입가에 댄채 처녀의 억실억실한 진정이 고인 눈을 마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러자 쌍가매는 팔소매를 둥둥 걷어붙이더니 결싼 솜씨로 두말들이나 되는 큼직한 되말치솥에서 설설 끓는 물을 푹푹 퍼내면서 말했다.
《그럼 주인아씨가 섭섭하겠는데. 우리 주인아씨라는 녀자는 술을 먹이기를 좋아하거든요, 호호호…》
쌍가매는 큼직한 바가지짝에 물을 잔뜩 퍼담아든채 갑자기 허리를 잡고 웃어제꼈다. 무엇이 우스운지 어찌나 배를 그러잡고 돌아가는지 칠성이는 영문도 모르면서 저도 따라 빙그레 웃었다.
《우리 집 아씨가… 아이구 우스워 죽겠네. 글쎄 우리 집 아씨가 본시 술장사하던 녀자래요. 그래서 령감이 돌아오면 술을 해담그는데 령감 혼자 못다 먹고 술이 변해가면 그걸 일군들에게 퍼먹이지 뭐요. 그래도 솜씨가 있어서 술이 꿀맛이라고들 하지 뭐요. 그것도 남한테는 말도 못하고 나한테만 말한다는게 안주인이 술장사를 해서 술을 얼마나 잘 담그는지 모르겠다고 야단들이지. 아이구 우스워. 남자들이란 그저 술만 먹여놓으면 모두 얼빠진 소리들만 한다니까, 호호호…》
칠성이가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서인지 쌍가매는 술에 맥을 못추는 사내들 일이 우스워 죽겠다고 그냥 허리를 잡고 돌아갔다. 칠성이도 덩달아 한바탕 웃고 돌아서는데 쌍가매가 문득 웃음을 뚝 그치더니 은근한 목소리로 불렀다.

《저 현서방, 내 부탁 하나 들어줘요.》
《뭔데?》
《언제 성내에 나가요?》
《이제 또 한축 해야지. 무엇때문에 그래?》
《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어제 설겆이하다가 버치를 하나 깨버렸어요. 이것 보세요. 금이 쭉 간결…》
쌍가매는 밥그릇들을 올려놓은 부뚜막구석에서 일부러 차곡차곡 포개놓은 대접과 사발을 치우고 얌전히 엎어놓은 버치의 한쪽귀를 쳐들어보였다. 쩍 갈라진것을 감쪽같이 그대로 맞붙여놓고 그우에 밥그릇들을 포개놓았다.
《아니, 그건 내다버리지. 그렇게 쌓아두면 어떻게 할 작정이야?》
《그러게 걱정이라지요. 주인아씨가 알면 생야단을 할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때리지 못해 몸살이 나서 돌아가는데 버치 깼다는걸 알면 펄쩍 뛸텐데요. 아마 사람 잡자고 들거예요. 그래 시끄러워서 내 돈으로 하나 사놓자구 해요. 성에 나가거든 꼭 저만한 버치 하나 사다줘요.》
쌍가매는 근심이 가득차서 이렇게 말했다. 현칠성은 눈이 둥그래졌다. 칠성이 마차를 끌고 이 집으로 다니는지 며칠 안되는데 벌써 쌍가매가 화월이한테 매맞는것을 한두번만 보지 않았다. 그때마다 죽는다고 소리를 치며 돌아가다가도 안주인이 사라지면 언제 엄살을 부렸더냐싶게 얼굴이 활짝 개여 깔깔거리며 돌아가는것을 보고 세상에 매집 좋은 계집애도 있구나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버치 하나를 깨여놓고 깊은 근심에 사로잡힌것을 보니 생판 딴 사람 같았다. 역시 다 자란 처녀가 남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란장질을 당하는것이 스스로도 가슴에 맺히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쌍가매는 연기에 그슬린 선반의 짝지발틈새에서 꼬깃꼬깃 구겨박은 지전 몇장을 얼른 꺼냈다.
《그 도섭쟁이한테 매맞느니 차라리 사다놓는게 낫지. 이젠 매도 하도 맞으니 진절머리가 나요.》
현칠성은 물끄러미 쌍가매의 커다란 눈을 들여다보았다. 맹물같이 웃기만 잘하던 그 아름다운 눈에는 흥건히 물기가 어려있다. 길다란 살눈섭이 촉촉히 젖어서 슴뻑거린다. 이런 아름다운 눈을 가진 처녀가 거미줄투성이 부엌구석에서 천대를 받다 못해 매를 피하려고 푼푼치도 못한 제 주머니까지 털어내려는것이다.

《얘 쌍가매야, 그럴 필요가 없다.》
현칠성은 단호한 태도로 물대접을 부뚜막에 올려놓고 말했다.
《일부러 깼대도 모르겠는데 일하다가 깬것을 일일이 제 돈으로 물자면 끝이 없다. 네가 주인을 위해서 뼈빠지게 일해주면서도 고운옷 한번 못입고 남처럼 공부도 못하고 배불리 먹지도 못하는것이 억울하지 않으냐? 세상에 도적놈은 부자놈들이다. 이집 주인만해도 그렇지.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오히려 일하는 사람을 못살게만 굴면서도 곡식이고 돈이고 다 제 주머니속에 긁어넣으니 그것이 도적놈이 아니고 뭐냐? 그래도 넌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제 주머니에서 돈까지 내여 보태주려는구나. 그래서는 점점 버릇을 굳힌다. 말할것은 하고 정 되지 못하게 굴 때는 주인이라도 딱 마주서서 해봐야 한다. 그래야 너를 숙보지 못한다.》
《아이구, 별소리를 다 하네.》
쌍가매는 눈이 휘둥그래져서 칠성의 얼굴을 멀뚱멀뚱 바라보며 말했다.
《현서방, 정말 그런 소리 하다가 보위단한테 매나 맞자구 그래요? 여기 곰보단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모양이야.》
《곰보단장이 아무리 무서우면 바른말 하는데 제놈이 뭐라구 한단말이야. 그깐놈 되지 못하게 굴면 두엄무지에 쓸어박아놓을테니 걱정 말라구.》
《아이 큰소리 치는것 좀 봐. 힘이 있으면 단줄 아나보지. 곰보가 어떤 때는 총을 두자루나 차고 댕기는데 뭘 알기나 해요? 그리구 난 딴 사람들과 처지가 달라요. 주인령감이나 안주인이 그렇게 변덕스럽고 성질이 더러워도 그 사람들이 날 키워줬대요.》
쌍가매는 수다스럽던 모양이 어느덧 진중해져서 두손을 가슴에 모두어잡고 그윽한 눈길로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크고 검은 그 눈은 금가루를 뿌린듯 반짝거리는 살눈섭에 싸여 더없이 아름답고 숭고하게 보이였다. 머리카락에 앉은 흰 재티와 어깨살이 비죽이 내민 해진 무명적삼, 다 자란 처녀가 걸친 무릎까지 드러나도록 닳고 해지고 말려올라간 몽당치마, 이런 람루한 주제꼴에 대조되여 그 복상스런 흰 얼굴과 아름다운 눈 그리고 아무리 생활의 사정없는 진흙발이 짓이기고 짓밟아도 잃지 않는 순진한 가슴과 그 순진한 가슴속 샘에서 솟아나듯 시시로 입가에 어려있는 맑은 웃음이 오히려 보는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것이였다.
《주인댁에서 널 길러주었단말이냐? 그게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냐?》
칠성은 어이가 없어 쌍가매의 눈을 멍하니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열살도 되기전이니까 이젠 10년도 넘은 옛날 이야기지요. …
아이 참, 그건 현서방이 알아서 뭘해요?》
은근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하려던 쌍가매는 불시에 부끄러운 생각이 났는지 헤시시 웃으며 새단을 한아궁 쓸어넣고 부지깽이로 불씨를 헤쳤다.
《난 암만해도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주인댁에서 널 길러줬으면 어쨌다는거냐? 네가 이 집에서 공밥을 먹으며 호강하고 자랐단말이냐?》
《공밥을 먹지 않아도 그렇지요, 내가 이 집이 아니더면 이 북만의 추위에 어떻게 살아났겠어요.》
쌍가매는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잘라 말하고는 불덩어리 하나를 마른 새짬에 놓고 후후—불기 시작했다. 누런 연기가 피여오르자 쌍가매는 고개를 한옆으로 제끼고 열심히 불었다. 아름답던 눈이 빨갛게 짓물리면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칠성은 연기에 쫓기듯 부엌에서 나오려는데 쌍가매가 아궁이앞에 앉은채 손을 내밀었다.
《이거 가지고 가서 꼭 버치 좀 사다줘요, 아무도 몰래…》
《버치를 살 필요가 없어. 설혹 네가 주인집에서 자랐다 해도 너는 매일과 같이 이런 고역을 치르고있지 않느냐? 네가 어린나이에 이렇게 마소처럼 일을 해주고도 아직 그것을 못다 갚았단말이냐? 좌우간 그럴 필요가 없다. 버치때문에 매맞을 일이 걱정이라면 그건 내가 당해주마.》
칠성은 돈을 쥐여주는 쌍가매의 손을 밀어던지고 부뚜막에 조심스럽게 얹어놓은 버치를 쳐들었다.
《아니, 어쩌자고 그래요?》
쌍가매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러나 칠성은 붙잡을 사이도 없이 깨여진 버치를 들고 뒤울안으로 나가서는 수채구멍앞에다 내던져버렸다.
《아니, 이년이 곰을 잡자고 이러느냐, 웬 연기를 이리 피우느냐?》
마침 화월이가 부엌으로 뛰여들다가 뒤울안에서 나는 버치 깨지는 소리를 듣고 우뚝 멈추어섰다.
《애, 쌍가매야!》
화월은 벌써 상이 두꺼비같이 험해가지고 열려진 부엌문을 재벌 와락 열어젖히며 뛰여들었다. 그런데 쌍가매는 아궁이앞에 앉아 열심

히 불을 불고있다.

《이년, 무슨 소리냐?》

쌍가매는 대답하기가 난처해서 그냥 불만 불고있다. 불이 확 당기면서 한부엌 가득찼던 연기가 뭉게뭉게 밀려나간다. 화월은 움쩍 동하지 않는 쌍가매가 미워서 눈을 세모꼴로 만들어가지고 소리쳤다.

《이년, 꿀먹은 벙어리처럼 왜 말이 없느냐?》

《나가보면 알걸 가지고 괜히 소리치며 야단이네.》

쌍가매는 돌아보지도 않고 중얼거렸다.

《이년 어디 보자!》

화월은 치마자락을 쳐들고 부리나케 뒤울안으로 나왔다.

《허허허, 너무 더워서 목마름 좀 하자고 했더니 그만 미끄러져서 버치만 깨먹었습니다.》

칠성이가 버치꽉지만 쥐고서서 시원한 얼굴로 웃고있다.

《현서방이였구만, 난 또 누구라구… 원 사람도, 목마름을 하겠으면 마차를 몰고지나는 길에 강가에 나가서 시원히 할노릇이지 집안에서 무슨 목마름을 하겠다고?》

화월은 당장에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제법 의젓한 태를 짓고 말했다.

《일이 바쁜데 미역까지 감다간 하루에 한축도 하기 힘들지요. 짐부리고 실을 때 목마름이나 좀 하고 참아야지요. 옛다, 빌어먹을것 모르겠다!》

현칠성은 쥐고있던 버치손잡이를 수채구멍에 내던지며 손을 툭툭 털고 돌아섰다.

《저, 현서방.》 화월이가 등뒤에 대고 은근한 목소리로 불렀다. 《이리 좀 오우. 목마름을 하자다가 못했으면 목이라도 좀 추겨야지. 얼른 이리 들어오라니까, 딴사람 안보게…》

화월은 머슴들한테는 칠성이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도 마구 해라를 붙이면서 목재판마부가 아무래도 한발 먼탓인지 아니면 어떤 압력에 눌려선지 칠성이에게만은 마구 부르지 않고 어정쩡한 말투로 대하였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칠성은 짐짓 미심쩍은 표정을 짓고 부엌에 한발을 들여밀며 물었다.

《아따, 일은 무슨 일. 내가 주인령감 드리려고 술을 좀 빚어넣었는데 현서방만 한잔 하라고 해서 그러지. 술이 넉넉하면 일군들마다 다 먹였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렇게 술이 있어야지. 그러니 다른 사람들

눈치 안채게 하우. 또 머슴들이야 술을 먹이면 뭘 하우. 하지만 요즘 마차일이 좀 바쁘오? 그러니 먹기도 잘해야지. 내 이 술은 그저 령감 한사람 대접하자고 누룩도 극상 좋은걸로 쓰고 찹쌀로 골라서 담갔더니 맛이 괜찮을거요. 그런줄이나 알고 마시라니까…》

화월은 원래 배운 솜씨가 있는지라 잔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눈귀에 살살 웃음을 피워가며 속삭였다.

《이거 황송한데요.》 칠성은 덤덤한 표정으로 듣고있다가 화월이가 굽을 훔치며 내미는 약주사발을 바라보고 쓰거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아궁이앞에 쪼크리고 앉아 웃음을 참느라고 어깨를 들먹거리고있는 쌍가매를 피뜩 돌아보고 단숨에 쭉— 들이켰다.

《아이구, 술도 잘하는구만. 내가 현서방을 위해서 따로 술독을 하나 마련하든지 해야겠군.》

화월은 연신 호들갑을 떨다가 말없이 내미는 빈 사발을 받아들고는 또 수선스럽게 사설을 늘어놓았다.

《술이야 잘하지요.》

《그저 일만 잘하라니까. 그러면 다 섭섭치 않게 해줄테니…》

《우리야 세상에 일하자고 태여난 몸인데 몸을 아끼겠습니까.》

칠성은 목에 걸쳤던 수건을 풀어 입언저리를 훔치며 부엌에서 나왔다.

《여우같은년!》 부엌문을 나서는 순간 칠성은 홀로 중얼거리며 뒤를 무섭게 쏘아보았다.

《이년! 헌 버치에다 주지 않고 멀쩡한 새 버치를 내줘서 그렇게 깨게 한단말이냐?》

부엌문짬으로 화월의 이런 악다구니소리가 들려왔다.

×

캄캄한 밤, 짓누르는것 같은 하늘이 무겁게 드리워있다. 질게 깔린 봄안개가 좁다랗게 압축된 하늘과 땅사이에 꽉 들어차있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바람 한점 없어 세상에 움직이는것이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우중충한 본채의 육중한 지붕밑으로 몇몇 방에서 희미한 등불이 비쳐나오나 두터운 검은 벽돌담과 널판지 중문에 가리워진 바깥마당까지는 뚫고나오지 못하고 다만 신음소리같은 숨소리들이 식모간에서 간간이

울려올뿐이다. 보위단숙소에서도 곤한 숨소리들과 잠꼬대소리가 간신히 울려나오는데 다 타들어가는 남포등불이 겨우 비쳐나와 길다랗게 늘여세운 개우리를 비치고있다. 승냥이같이 생긴 세빠드 한마리가 절거럭절거럭 사슬을 끌며 대문과 중문쪽을 한바퀴 돌아보고 길다랗게 네다리를 뻗쳐 한번 기지개를 켜고는 도로 제우리속에 들어가 누웠다.

어둡고 침침한 밤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두억시니같은 목조포대가 내려다보고있었다. 이 정문포대는 반대쪽 벌판으로 난 북쪽포대와 함께 어둠에 잠긴 정희겸이네 드넓은 집안과 동네를 위압적으로 내려다보고있다. 어찌보면 휑뎅그렁한듯도 하고 어찌보면 지지눌려 이지러진 물건짝들의 숨막힌 집결체같기도 한 이 동네에 이 두 포대가 선것은 벌써 8년전 일이였다. 정희겸이 처음에 이 집을 짓고 살다가 독립군들이 북으로 올라오고 나중에는 가까이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일어나는바람에 질겁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백리허의 원목들을 찍어서 만들었던것이다. 이 포대를 세우는것과 함께 보위단을 두게 되고 길림에서 화월의 오래비 윤철목을 끌어왔다. 지금 보위단은 20여명으로 늘어나서 낮이면 가끔 일손도 거들지만 밤이면 한놈씩 정문에서 보초를 섰다. 그밖에는 컴컴한 구들바닥에 들어엎디여 투전을 하고 술추렴을 하는것이 보위단의 일이였다. 이지막에 왜놈군대가 백리허에 나타나고 그에 따라 큰개와 가막골같은데 일제를 반대하는 삐라가 나붙고 지어 현성거리의 요소에까지 삐라가 뿌려지는바람에 보위단에서도 일이 많아졌다. 안골에서 정희겸이 군량조달을 맡아나서면서부터 부역이 날마다 그치지 않게 되여 보위단은 어깨에 총을 걸치고 안골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잡아서 패고 끌어오고 나중에는 보위단사무실에 가두어놓고 고문추달까지 하였다.

인민들이 자기들을 곱지 않게 본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는 그들은 그럴수록 더 기를 써서 사람들을 못살게 행패를 하였다. 포대의 경비도 강화되였다. 정희겸은 보위단원들에게 술을 퍼먹이는 한편 지팽이를 휘둘러 삿대질을 하면서 그들이 동네놈들을 문문하게 다루기때문에 버릇을 궂힌다고 호령호령하였다.

한편 윤철목은 곰보상의 구멍마다에 주독이 새빨갛게 올라가지고 인민들뿐만아니라 제 부하들까지도 기를 못쓰게 달달 볶아서 그들이 어쩔수없이 미친개처럼 갈개게 만들어놓았다.

밤이 깊어서 큰길쪽으로부터 말달구지소리가 들려왔다. 빈달구지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점차 높아지더니 골목길로 접어들다가 멎어섰다.
이윽고 검은 그림자가 말채찍을 옆에 끼고 꺼덕꺼덕 졸고있는 보초앞으로 다가왔다.
《한잠이 들었군. 정희겸이가 저걸 믿고 그렇게 미련하게 놀아나니…》
검은 그림자는 이렇게 홀로 중얼거리고나서 보위단원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여보게, 효범이.》
《섯, 누구야!》
보초는 화닥닥 놀라 소리쳤다.
《서긴 누굴 보고 서라고 이래? 자네 곰보한테 들키면 어찌자고 이렇게 코를 골며 자나? 내 가서 곰보 데려올가?》
《응— 칠성인가? 난 또 누구라구, 아— 놀랐네. 가만 좀 있게, 가슴이 활랑거려서 못견디겠네.》
《허허허, 사람두. 그래가지고 자네가 꽤 총이랑 쏘고 싸움을 해내겠나?》
칠성은 땅바닥에 쭈크리고앉아 담배를 말면서 웃었다.
《말 말게. 싸움을 하게 되면 하는거고 못하게 되면 마는거지. 내가 뭐 잘못한게 있다고 남 다 자는 재밤중에 이렇게 서있어야 하나? 내가 하고싶다고 해서 이 노릇을 시켰나?》
효범은 역증을 내며 칠성의 담배쌈지에서 담배를 한줌 집더니 주머니에서 종이를 뒤졌다.
《옳다. 점점 잘한다. 자네 담배까지 피울 작정인가?》
《피우면 어때?》
《어떻긴 어때? 들키면 졸경을 치르지. 종이는 여기 있네. 자네 그렇게 엇서지만 말고 조심해서 행동하는게 좋네.》 칠성은 불빛이 새여나가지 않게 담배를 손등으로 가리고 성냥을 그어댄 다음 후— 하고 안개 떠도는 밤공기속으로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자네도 처자를 간도에 두고 떠돌아왔다니 나하고 처지가 비슷해서 하는 말이네만 자네가 머슴살이를 하겠으면 하는것이지 이렇게 보위단노릇까지 하고있으니 결심이 조련해서는 안된단말일세. 자네가 부탁하던것은 팔아왔네만…》 칠성은 주머니에서 지전 한뭉치를 꺼내서 건네여주며 말을 이었다. 《그런 비단이 어데서 났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팔아써서 욕을 먹지 않겠는지도 모르겠네. 좌우간 자네가 몇푼 안되는 월급을 받고 이 노릇을 하면서 그만한 비단천이 어디서 났겠나? 그리고 이 돈은 또 무엇에 쓰겠나? 고작해야 투전밑천이나 삼겠지. 그래서는 못쓰네. 들으니 자네가 투전을 해서 땅마지기나 있던것을 다 팔아먹었다면서? 지나간 일은 하는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자네네 처자와 똑같은 처자들을 먹여살리려고 아글타글하는 농군들을 자네네가 행패를 하며 다니지 않나? 이래서야 사람의 도리가 됐나? 또 자네는 나라를 생각해야 돼. 지금 떠도는 소문도 못들었나? 내 오늘도 마차를 끌고 장거리에 나가보니 정말 왜놈의 군대가 득실거리고 돌아가는데 우린 그놈들에게 쌀을 져다 바쳤어. 모두 분해 죽겠다고들 하더군. 그런데 자네들은 총칼을 들고 왜놈들을 돕지 않는다고 백성들을 억지로 내몰고있거던…》

효범은 칠성의 말이 점점 번져가자 귀가 벌쭉해서 듣고있다가 나중에는 담배 피우는것도 잊어버리고 멍하니 바라보고있었다. 효범이는 본시 중농의 자식인데 투전으로 가산을 다 불어먹고 처음 한동안 정희겸이네에게서 머슴을 살다가 새로 보위단을 꾸릴 때 억지절반으로 끌려나왔는데 칠성이가 사람이 시원시원하고 덥적덥적 남의 일 봐주기를 잘하는데다 하루에 두세행보씩 마차를 끌고 현성출입을 하는 관계로 그간 사사로운 부탁도 하고 담배도 나누어 피우게끔 되였지만 사람의 진속을 속속들이 안것은 아니였다. 일전에 그가 말파리를 몰고 현성에 나가는 길에 어찌다 손에 들어온 비단필 한끝을 돈으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했더니 이렇게 야경 서는데까지 따라왔는데 말하는걸 들어보니 이게 보통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오싹 소름이 끼치기까지 하였다. 약점은 잔뜩 잡혀놓은데다가 그저 말몰이군쯤으로 알고 할소리 못할소리 마구 해놓아서 책을 잡힐만한 소리를 도대체 얼마나 했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그런데 따지고보면 칠성이가 하는 말은 얼마나 진실하고 뜨거운가?

칠성은 뻐끔뻐끔 담배를 빨더니 잠시후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돈을 허투루 쓰지 말고 편이 있으면 집에 보내도록 하게. 그리고 자네가 이왕 보위단옷을 입었으니 이제 당장 벗어던지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날뛰지는 말게. 지금 세상이 험하게 돌아간다고들 하더군. 왜놈들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가만있자고 하겠나? 자네도

세상리치를 깨치고 사람구실을 해야 하네.》
그러더니 움쭉 일어났다.
《난 가보겠네. 매사에 눈치있게 행동하게.》
칠성은 례사롭게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다.
《틀림없이 보통사람이 아니군…》
효범은 힘없이 이렇게 중얼거리며 어둠속을 더듬어보았다. 캄캄한 그믐밤, 짙은 안개속에서 말발굽소리만이 단조롭게 울려왔다.
한편 칠성은 그길로 마차를 몰고 백리허숲속으로 들어갔다. 안개는 눈앞에, 목덜미에 칭칭 휘감겼다. 숲속에 들어서니 축축한 밤공기가 숨가쁠만큼 들어차서 까딱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따금 부엉이가 울었다. 그러나 가슴을 허비는 그 처량한 소리도 결코 질식할것만 같은 숲의 정적을 깨치지 못하였다. 축축한 락엽을 밟는 발자국소리만이 야릇하게 불안한 여운을 끌며 턱없이 높게 울렸다. 자작나무숲을 벗어나자 좁다란 공지가 나졌다. 다음은 아름드리이깔나무와 분비나무가 꽉 들어찬 원시림이다. 여기서부터는 어찌나 관목덩굴이 뒤엉켰는지 낮에도 발 들여놓을 틈바구니를 찾아내기 힘들다. 다행히 공지에는 정희겹이네가 가려놓은 화목더미가 있고 바로 그 옆에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늪이 있어서 목재판으로 통한 달구지길을 찾는데 좋은 표적이 되였다. 부채소라는 그 늪에는 이 고장사람들의 천대와 무권리의 산물인 랑랑과 아가라는 두 청춘남녀에 대한 구슬픈 전설이 깃들어있었다. 공지를 벗어나서 마차를 세우고 말고삐를 나무등걸에 잡아맨 칠성은 관목덤불을 헤치고 얼마간 들어가다가 문득 한곳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밤눈에도 유난히 큰 분비나무 한그루가 우뚝 솟아있었다. 세아름은 실히 될 그 밑둥은 이미 구새가 먹었는데 그래도 우듬지는 안개 휘감긴 캄캄한 밤하늘높이 사라져서 형체가 보이지 않았다. 구새통은 사람 뒷은 능히 들어가 올방자라도 틀고앉을만큼 널찍했다.
칠성은 그 속을 더듬어 나무막대기 하나를 끄집어냈다. 어둠에 싸인 사위를 한번 휘둘러 본 그는 천천히 막대기를 쳐들어 세번 분비나무밑둥을 울린 다음 잠시 귀를 강구어보다가 절반쯤 몸이 가리우게 구새통어구에 쭈그리고앉았다.
《유철동지.》
불쑥 나무뒤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안기다싶이 덥석 손을 잡았다.

《오, 기창동무요. 오래 기다렸겠구만?》

유철도 따라일어서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동지의 손을 힘있게 틀어쥐였다.

《초저녁부터 기다렸습니다. 못오는줄 알았습니다.》

김기창은 어린애처럼 두손을 잡은채로 흔들며 완전히 마차부차림을 한 유철의 얼굴을 어둠속에 찬찬히 더듬어보았다.

《처음부터 약속을 좀 떨떨하게 한것 같소. 다시는 이런 막연한 약속을 정하지 말아야겠소. 쓸데없는 모험을 하게 된단말이요. 그래 다들 잘 있소?》

유철은 안골에 침투하여 10여일간의 자기 생활을 돌이켜보고 오늘 조직과 련계를 짓기 위해 남보기에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된 사정을 쓰겁게 되새겨보았다. 마부가 만판 나다닐수 있는 낮으로 련락시간을 정하지 않고 사람눈을 피하느라 한밤중으로 정한것이 오히려 일을 거치장스럽게 만들어놓은것이다. 하기는 처음부터 마차부자리가 꼭 나지겠는지 몰라 처음 련계를 짓는것은 안전하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작정한것인데 면바로 마부로 들어가게 되였다. 그러다보니 지나치게 신중하게 짜놓은 련락계획들이 오히려 실정과 잘 맞지 않게 돼버린것이다.

김기창은 유철의 너무나 변한 외모가 아무래도 익숙치 않아서 자꾸만 살펴보며 좀 떨떨해하는 어조로 질문에 대답했다.

《강성재동무가 가막골에 공작나갔다가 봄시위물에 빠져 감기가 들려서 며칠 앓아누웠지요. 그리고는 모두 펄펄합니다. 저, 유철동지 걱정을 모두 합니다. 처음 목재판 마차부로 무사히 들어간것은 인차 알았는데 그후 어떻게 되였는가 해서 얼마나 궁금해들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일은 우리 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의 일인데 생소한 동지에게 내맡겼다고 다 자기비판을 합니다.》

《형편이 그렇게 된걸 어찌겠소. 내가 들어와서 잘된 점도 한두가지가 아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없소. 우선 안골에서 공작정형을 이야기하겠소. 첫째로 침투는 무사히 했고 앞으로 공작을 계속할수 있는 조건은 이미 만들어졌소. 정희겸이네 머슴가운데 김삼덕이를 첫째 공작대상으로 잡아서 교양중인데 이 사람은 계급적바탕이 좋고 혁명적기분도 많이 가지고있소. 이밖에 큰머슴인 조령감, 식모 쌍가매 같은 사람들도 접촉을 하고있소. 그리고 보위단에는 리효범이라는 중농

출신의 청년을 교양하고있는데 이 사람은 불평을 가지고있으면서도 행동을 하는데 보수적인 면이 있소. 그렇기때문에 우리편에 쟁취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수 있으나 리용하는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을것 같소. 이미 인간적으로 상당히 가까와졌기때문에 보위단의 행동에 대한 정보같은것은 수시로 알아낼수 있소. 마을사람들과는 아직 접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소. 초보적으로 알수 있는것은 역시 안골을 혁명화하자면 박병섭로인을 장악해야 한다는거요. 박병섭로인의 립장도 여론에 의하면 민족적인 감정이 풍부하오. 영향력도 크오. 그러니 박병섭로인에 대해 좌경적인 태도를 취한데 대해서는 철저히 비판돼야 하겠소. 그런 경향이 다시는 머리를 쳐들지 않도록 수시로 교양할 필요가 있소. 내 떠나올 때도 강조했지만 통일전선로선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항상 주목을 돌려야 하겠다는말이요. 내가 조직에 우선 보고할것은 이상과 같소. 알겠소? 그대로 외워내겠소?》

유철은 이미 머리속에 새겨두었던 말들이라 숨도 돌릴 틈이 없이 선명하게 말하였다. 기창에게는 따로 어디에 적지 않아도 제 손바닥에 그대로 틀어쥘수 있을만큼 사실이 명백하게 알려졌다.

《알수 있습니다. 불편하신것은 없습니까?》

기창은 유철의 빈틈없는 말투와 다소 초조해하는듯한 태도에서 자꾸만 미안하고 송구한 생각이 들어 필요없는 말까지 덧붙여 물었다.

《불편한것은 없소. 앞으로 박병섭로인과의 공작을 진행하는데 내 생각에는 우선 그의 아들에게 접근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있소. 최근에 조선에서 공부하던 그 령감의 아들이 돌아왔다는데 빈둥빈둥 놀고있다는거요. 그런데 그 로인이 아들을 몹시 사랑한다는거요. 전문학교를 다니다 온 청년이라니까 일정하게 민족적의식이 있을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나쁜 사상의 영향을 입었을수도 있소. 박두성동무를 통해 이 동무에 대해 잘 알아보고 나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소. 그리고 다음번 련락은 이 구새통속에 쪽지를 넣는 방법으로 수시로 하도록 합시다. 나는 동무들을 수시로 호출하겠지만 동무들은 특별한 경우외에는 나를 직접 부르지 말아야겠소. 당분간은 내가 깊이 묻혀있어야 하겠기때문에 말파리를 끌고 일부러 련락장소에 드나든다는것이 불편하고 매번 모험을 해야 하오. 자, 그럼 거기 활동정형을 들읍시다.》

기창은 이미 그럴줄 알고 자료를 다 준비해온터이였으나 정작 대답하자니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

을 벌렸다.

《다 잘돼갑니다. 술기막골의 대장간도 지시하신대로 진펄가운데로 옮기구요.… 회의도 제대로 다 했어요.》

《가만, 그러지 말고 내가 묻는대로 대답하시오. 우선 큰개와 가막골의 반제동맹사업들은 어떻게 돼가오? 모두 조직을 수습하고 반일회로 개편이 됐소?》

《네. 참—》

기창은 비로소 이야기를 할 실머리가 잡힌듯이 약간 덤비며 보고를 하였다.

《큰개는 인차 수습이 돼서 곧 반일회로 개편이 되고 가막골도 강성재동무가 나가서 성과적으로 일을 끝냈습니다. 반제동맹을 반일회로 고쳐놓은것이 참 잘되였습니다. 군중들의 여론이 좋고 투쟁기세가 대단히 좋습니다. 산재부락에 있는 이미 혁명조직에 망라됐던 사람들도 이젠 거지반 다 흡수되고 새로 조직들을 뻗치고있습니다. 가재울과 대마치에는 아직 지부가 조직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핵심들이 박혔습니다.》

《좋소. 반일회조직을 계속 확대하고 그가운데서 핵심들을 장악해서 따로 교양대책을 세워야겠소. 다음 박두성동무네 사업은 어떻소?》

《무장대는 진펄 꼬지개섬에 귀틀집을 짓고 낮에는 거기서 훈련을 받고 밤에만 동네에 와서 잡니다.》

《무엇때문에 동네에서 잔단말이요? 즉시 섬으로 모두 옮기도록 해야겠소. 그래 무장은 어떻게 됐소?》

《대장간에서 그저께 처음으로 창 두틀을 벼렸는데 물푸레막대기 끝에 해박았습니다. 꽤 쓸만해요.》

《그건 좋소. 원시적인 무기지만 처음엔 그런 무기로라도 적을 쳐야하오. 한데 언제까지나 그렇게만 하고있을수는 없소. 지금 장악된 무기는 얼마나 되오?》

《원래 자위대에서 가지고있던 렵총이 두자루 있고 마사진 토퉁이 한자루 있지요. 지금 알고있는것은 가막골지주 천가네 집에 쌍대배기가 한자루 있고 그놈의 호신용 권총이 있을거라는 소문이 있어요.》

《무기를 해결하는 기본은 적의 무기를 빼앗는거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많은 무기원천이 있는셈이요. 왜놈들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무기를 만들어낼거요. 이제 초보적으로 무장대성원을 꾸려놓았으니 그렇게 늑장을 부릴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해야겠소. 마을

에서 자는것은 그만두어야겠소. 비밀무장대성원들은 꼬지개섬에 들어박혀서 훈련도 하고 학습도 하면서 면밀한 정찰을 한후에 한두놈씩이라도 적을 쳐잡아서 무기를 해결해야겠소. 지금 백리허숲속에 산림경찰대가 매일같이 들락날락하고 왜놈들이 현성주변을 쏘다니고있소. 아직 집단적인 습격은 못한다 하더라도 한두놈씩 다니는것은 능히 습격할수 있을거요. 무장로선으로 준비를 철저히 할데 대한 격문을 혁명조직들에 내려보내야겠소. 이것은―》 하고 유철은 항상 품에 품고다니던 공책을 꺼내여 그가운데 접어놓은 격문을 펴보이며 말을 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지도하시는 혁명조직의 격문이요. 보는 사람이 저절로 피가 끓고 살이 떨만큼 격동적으로 씌여있소. 이런 격문을 써서 백리허의 모든 인민들이 원쑤의 무장을 빼앗아들고 일제를 격멸하는 무장로선을 받들고 떨쳐나서도록 해야겠소. 그리고 큰개나가막골같이 혁명력량이 강한곳에서는 군중적인 집회를 소집하고 정치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야겠소. 안골과 같이 비합법투쟁을 하는곳에서는 앞으로 비밀혁명조직을 꾸리는 한편 비합법적인 직관물공작을 하겠지만 이미 합법적인 군중단체들을 우리가 장악한곳에서는 보다 진공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거요. 그 다음 로채숙동무는 어떻게 하고있소?》
《부녀들도 활발히 움직이고있습니다. 조직은 초보적으로 다 꾸려졌어요. 지금 무장대 원호물자를 준비하고있습니다. 학교는 이제 겨우 학생들을 모아두었는데 교원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좀 끌고있습니다.》
《아직 야학도 못하겠구만? 로채숙동무는 처음부터 완성된 혁명가를 찾아내려고 하는것 같소. 그래서는 안되오. 지금 반일기분을 가진 청년들가운데 소학교과정을 가르칠만한 청년은 한두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아동단이나 소년선봉대만해도 우선 토대가 좋은 청년을 선발해서 그 사람을 뒤에서 가르치고 받쳐주면서 일을 시켜야 하오. 일을 하는 과정에 점차 단련되고 세련시키면서 혁명가로 키워야 하는거요. 우리가 맨주먹으로 적의 무장을 빼앗아서 유격전쟁을 하자는 판인데 그래 기본적으로 혁명화된 지역에서 학교를 하나 운영 못하고 청소년조직을 맡길만한 청년이 없단말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직 좌경적인 기분이 남아있기때문이요. 앞으로 소년선봉대사업은 김기창동무가 맡아서 하도록 하오. 로채숙동무에게 분공이 너무 아름차게 간것 같기도 하오. 그러되 동무는 공청사업을 하면서도 무장대의 활동에 대해 계속 큰 관심을 돌려야겠소. 거기 사업이 좀 자리잡히면 기창동

무는 목재판로동자들과의 사업을 본격화해야겠소. 진가네 목재판에도 좋은 동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동무들과 딴 관계를 짓지 않도록 할터이니 기창동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야겠소.》

불과 10여일간의 일이지만 생활은 들끓고있고 혁명은 앞으로 나아가고있다는것이 확실하였다. 그러나 유철에게는 모든것이 성차지 않았다. **김일성**동지를 만나뵙고 그이의 과업을 접수한지가 그럭저럭 반년이 가까와온다. 그런데 아직 대오를 정비하여 그이께 보고를 올릴 유격대는 없으며 혁명조직도 아직 일제의 야수적인 폭압을 박차고 맞받아싸울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꾸려지지 못했다. 인민들에게 그이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침투시키는 일도 초조할만큼 굼뜨게 진행되고있다. 이것은 모두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적어서 일을 세심하게 조직 못한데 그 원인이 있는것이다. 부족점들을 들어보면 얼마든지 미리 예견할수 있는 일들이고 제때에 방향만 바로세워주었더면 훨씬 일이 더 잘됐을것이였다. 이래저래 자기에 대한 불만을 느끼면서 유철은 나머지 다른 문제들도 세세하게 캐물은 다음 말했다.

《내 의견은 이렇소. 첫째로 **김일성**동지의 로선을 침투시키는 사업을 아직 소극적으로 하고있소. 김익보동무의 사업을 잘 료해하고 제때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겠소. 둘째로 무장대는 틀을 많이 차리고 실속있는 일은 적게 하는것 같소. 공청조직은 청년들을 무장투쟁에로 궐기시키고 자기 무기를 자기가 해결해서 투쟁대오에 들어오는 방향으로 강력한 교양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소. 안골보위단에 말레샨이 7자루, 토퉁이 4자루 있고 칠성자가 하나, 정희겸의 호신용 브라우닝륙혈포와 렵총이 한자루 있소. 보위단들이 개별적으로 순찰하는 경우에 매복했다가 습격하는것도 생각할수 있소. 그러나 안골보위단을 집단적으로 습격하는것은 반드시 나와 련계하에서만 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정희겸이네 집에 있는 무기는 모두 우리것으로 만들어야 할것이요. 마지막으로 학교를 빨리 시작하고 야학을 운영하도록 해야겠소. 그런데 〈농민독본〉인쇄를 그렇게 굼뜨게 해서는 안되겠소. 〈농민독본〉은 학교에서도 쓰겠지만 개별적으로도 읽히고 몇몇사람이 모여서 읽게도 하게 많이 찍어내야겠소. 그런데 김익보동무는 이런 통속적인 글을 많이 쓰고 찍을 생각은 덜 하고 까다로운 론문같은것을 많이 쓰는데 시간을 더 보내니 이런것을 잘 일깨워주도록 하시오. 다른것은 생각나는대로 쪽지로 해서 여기 돌밑에 끼울테니 매일 와

서 찾아가고 또 그쪽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이런 방법으로 련계를 취하도록 합시다. 무장대에 받겠다는 동무들의 명단은 나를 주시오. 이것은 내가 보고 태워버릴텐데 동무네는 또 딴것을 가지고있소?》

《가지고있습니다. 저 안골공작은 어느때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까?》

기창은 유철이가 이야기를 끝내려는 눈치를 보이자 아수한 생각이 들어 무엇인가 이야기를 끌어보려고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였다.

《그건 알수 없소. 여기에 독자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핵심들이 생겨나면 별문제지만 당분간은 내 손으로 조직을 꾸려놓고 기본적으로 혁명화를 끝낸 다음에야 자리를 뜰수 있을것 같소. 내가 여기에 와있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지휘부에 있는 성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오. 그리고 나와 련계를 취하는것은 김기창동무 혼자서 하도록 하고 이 련락장소는 동무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오. 더 할 이야기가 없소?》

《없습니다.》

《그럼 헤여집시다.》

유철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뒤따라 일어서는 김기창을 새삼스럽게 이윽히 들여다보았다. 안개는 여전히 숲속에 휘감겨돌아가고 하늘도 땅도 캄캄한 어둠에 묻혀있었다. 멀지 않은곳에서 승냥이가 울었다. 바람 한점 없는 밀림속엔 밤이 지새는 미묘한 가락으로 가득 차있었지만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현실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느껴지지 않았다. 두사람은 캄캄한 어둠속에 우뚝 서서 잠시 말없이 서로 바라보았다. 이 깊은 밤중 어두운 숲속에 다만 그들 두사람만이 그렇게 서있는듯하여 새삼스럽게 정이 흐르고 마음이 통하였다.

《집에 오래 못가봤겠구만? 어머니가 걱정하시지 않소?》

유철은 기창의 어깨에 두손을 짚고 가볍게 흔들며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소식은 듣습니다. 강성재동무편에 덧저고리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있어요. 이젠 나는 나라에 바쳤다고 아들셈에 넣지도 않는다니까요.》

《훌륭한 어머니요. 참, 상처는 도지지 않소?》

《가끔 띠끔띠끔하지만 낫는중이니까 일없어요. 지난달하고도 퍽 달라졌는데요.》

《다행이요. 이제 어려운 투쟁이 앞에 있는데 몸이 성해야지 되겠소. 숲에서는 몸을 조심해야 할거요. 내가 아까 잊어버렸는데 모두 몸에 각별히 조심하도록 해야겠소. 생활을 혁명가답게 꾸리고 장구한 기간 원쑤와 싸울 각오를 해야겠소. 왜놈을 꺼꾸러뜨릴 때까지 한시도 멈추지 않고 싸우자면 첫째 건강이 좋아야 하오. 그러니 꼬지개섬도 잘 꾸리고 몸을 돌보도록 해야겠소.》

《알았습니다. 우린 오히려 유철동지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수고하시니 몸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난 일없소. 내 몸은 아예 그런데 버릇이 붙어버렸소, 허허허. 자, 그럼 이젠 헤여집시다. 짐승들을 조심해서 가시오.》

유철은 기창의 손을 더듬어 굳게 틀어잡고 흔들었다.

《유철동지…》

이미 유철은 어둠에 묻힌 오솔길을 익숙하게 찾아 걸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다가 공지에 나서자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섰다.

《어서 돌아가오！》

낮게 하는 말이였으나 거기에는 엄한 요구성이 깃들어있었다. 기창은 하는수없이 돌아서서 진펄속에 있는 꼬지개섬을 향해 걸었다.

4

일제침략군의 진주와 함께 날카로와졌던 하강지구의 민심이 서서히 하나의 기운으로 뭉쳐갔다. 눈에 뜨이지는 않으나 불안하고 첨예한 공기가 가득히 괴여 생활속 깊이에서 뒤설레여오다가 일제에 의한 괴뢰만주국의 조작과 함께 마침내 어떤 융점에 다닫기나 한것처럼 폭발의 흔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농민들의 집회가 여러가지 형식으로 각곳에서 진행되였다. 이런저런 명목을 단 단체들이 생겨났다. 거리에 일제를 타도하라는 삐라가 나붙었다. 중심거리의 담벽에 왜놈을 내몰라는 큼직한 락서가 자주 나타났다. 무엇인가 아귀찬 힘이 컴컴하고 음침해보이는 생활의 밑바탕에서 억세게 자라나고있고 맹렬히 달음질치고있다는것이 누구에게나 느껴졌다. 사람들은 거리에

서, 들판에서, 사랑방에서, 골목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소식을 기다렸다.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서로 입을 쳐다보며 남이 들을가봐 저어하듯 귀속말로 속삭였다. 《무슨 새 소식이 없습니까?》

혁명은 태동하고있으며 새로운 분출을 준비하고있었다.

분출구를 찾고있는 이 뒤설레는 기운으로 하여금 드디여 폭발에로 내닫게 한 거대한 충격이 주어졌다. **김일성**동지에 의해 항일유격대가 조직되여 일제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고있다는 새 소식이 할미령을 넘어 이곳 하강지구에 선풍과 같이 휩쓸어왔다.

그것은 조직적인 통보도 정확한 보도도 아니기때문에 두서없는 점도 없지 않았다. **김일성**장군은 전설적으로 묘사되였고 전투의 규모나 회수, 그리고 유격대의 력량도 정확한 수자를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명백한것은 그렇게 오만무례하고 횡포무도하게 날뛰던 조국과 민족의 철천지 원쑤 일본제국주의에게 호된 타격을 안김으로써 그 야수같은 놈들이 기절초풍을 해서 부들부들 떤다는것이며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온 겨레가 원쑤를 치고 나라를 광복하기 위한 성전에 떨쳐나섰고 뜻있고 용맹있는 젊은이들은 저마다 총을 잡고 그이를 찾아 싸움의 길로 떠나간다는 사실이였다.

폭발이 일어났다. 현성주변을 순회하던 왜놈순찰병이 개울창에 거꾸로 박히고 무기를 탈취당하였다. 큰개, 가막골 등에 붉은 기발을 든 아이들이 혁명가요를 부르며 행진해다니고 농민들의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선동연설이 진행되였다. 장거리에 한꺼번에 수백장의 삐라가 뿌려지는가 하면 목재판로동자들앞에서 인부차림을 한 한 사나이가 《무장로선으로 준비하자!》는 선동연설을 하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해 항일유격대가 조직되여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새 소식은 특히 유철에게 커다란 충동을 주었다. 그때 그이께서는 혁명의 모든 국면을 한가슴에 품으시고 수많은 공작원들과 지방조직 책임자들을 접견하시여 일일이 세심한 과업과 지시를 주시고 유철이 자기에게도 그 바쁜 시간을 내시여 이곳에서 사업할 방향과 방법을 날날이 가르쳐주시고는 몸소 유격대의 조직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떠나가시였다. 그런데 어느새 그분께서는 벌써 무장대오를 꾸리시여 적들을 족치고계시는것이다.

유철은 전설적으로 전해져오는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의 눈부신 활약과 놀랄만한 혁명적전개력에 다시한번 탄복하였으며 그분의 전사된 영예를 가슴뿌듯하게 느꼈다. 내가 바로 그분의 전사이며 직

접 그분을 만나뵙고 그분으로부터 영예로운 과업을 받고 왔다고 자랑하고싶은 천진한 욕망이 솟아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소식은 비단 기쁨을 주었을뿐만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과 초조감도 부채질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머리를 치는것은 그분의 전사로서 그분의 신변을 보위하며 그분의 활동을 보위해야 한다는 생각이였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자로서 조국과 인민 앞에 지고있는 엄숙한 책임이였다. 조선혁명의 승리,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김일성**동지를 보위해야 하며 그이의 사상을 옹호관철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몸소 손에 총을 잡으시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대오의 앞장에 서계시는이상 적들은 공격의 화살을 그이에게로, 그이께서 이끄시는 무장대오에로 집중시킬것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이의 천재적인 전략전술을 그놈들이 당해내지 못할것은 뻔한 일이지만 그러나 오직 조국과 인민의 미래가 그이의 한몸에 달려있다는것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지 않을수 없었다. 더우기 그이께서 유격근거지문제를 제기하시고 조선혁명의 근거지로서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의 연안일대를 지적하시면서 적을 그 기본전선에서 칠뿐만아니라 기타의 적이 발붙일수 있고 적의 병참기지로 될수 있으며 또한 우리 동포들이 많이 집중되여있는 다른 여러곳에서도 보조적인 타격을 가해야만 적의 력량을 분산약화시킬수 있으며 기본전선에서의 투쟁을 뒤받침할수 있다고 하시던 말씀을 생각할 때 속이 탔다. 그이께서는 이미 적들과의 공개적인 무장투쟁을 벌리셨는데 그이에게로 쏠릴 적의 공격을 얼마만이라도 이쪽으로 끌어당겨 다소나마 그이의 싸움을 헐하게 해드려야 할 이 마당에 그이께서 그처럼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아울러 분에 넘치는 기대까지 걸어주시면서 자기를 파견해주신 이 하강지구에는 아직 그이를 받들고 멀리서나마 그이를 보위해드릴 무력이 미처 준비되여있지 못하다.

유철은 기쁨뒤끝에 찾아드는 이와 같은 자책감에 시달리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물론 그이께서는 빈틈없는 준비와 보통사람은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물샐틈없는 구상을 하신 연후에 혁명을 앞으로 밀고나가시며 크고작은 전투를 조직하실터이니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있을리 없겠지만 그러나 이른바 《무적황군》이라고 뽐내는 일제침략군과의 정면대결이라고 생각할 때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길가보아 소스라치고 그러다가는 스스로의 방정맞은 생각을 스스로 꾸짖군하였다. 목재판에서 일할 때나 마차를 끌고 현성으로 오르내릴 때나 무시로 멀리 계시는

그이의 신변에 대한 걱정이 앞섰고 그럴수록 그이를 만나뵈온것이 아득한 옛일처럼 생각되여 그리움이 가슴에 찼다. 그러면 의례 자기가 변변치 못하여 아직도 하강지구에서 아무것도 해놓은것이 없다는 자책이 머리를 무겁게 했고 초조감이 가슴을 볶았다. 꼬지개섬에서 이제 겨우 도창무기를 벼려내고있으니 그것으로 언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할것인가? 무장은 기본적으로 적을 치고 적의 무기를 빼앗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있다.

우선 자기부터 하나하나 착실히 그러한 준비를 할데 대한 관심이 적어서 그 중요한 사업을 훌 남에게 밀어놓고 독촉이나 했지 실속있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생각을 더듬을 때 마차우에서도 방안에서도 언제나 바늘방석에 앉은듯하여 안절부절 못하였다.

찌뿌듯하게 흐린 어느날 저녁무렵이였다. 유철은 말파리를 끌고 두행보째 현성정미소에서 돌아오고있었다. 봄이라 하지만 늦추위가 계속되는데다 날씨까지 흐리고보니 을씨년스럽기가 그지없었다. 먼 산발쪽은 자욱히 흐린것이 눈이 쏟아지고있는 모양이였다. 유철은 채찍을 손에 쥔채 팔짱을 지르고 마초구럭에 비스듬히 기대여 흔들리면서 어떻게 하면 한시 빨리 이곳에서 혁명력량을 묶어세우고 유격대를 조직하여 멀리서나마 **김일성**동지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위하며 그이의 로선과 전략전술을 정확하게 관철할것인가 하고 끝없는 생각을 더듬었다. 초조감뒤끝에 오는 생각은 언제나 구체성은 적고 이렇게 두루 포괄적인것이여서 그때마다 머리가 아플만큼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도 분명한 해답은 얻어지지 않았다. 때때로 덧없는 생각에 잠겨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스스로 꾸짖으며 무엇인가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자고 하였다. 그러나 안골에서 어떻게 하면 야학을 차릴것인가, 혹은 박병섭이나 강필재같은 완고한 층들을 어떻게 교양할것인가 하는것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해놓았다가도 문득 제정신이 들어보면 어느새 생각은 또다시 한시빨리 대부대를 만들어 그이에게로 쏠리는 적들의 뒤통수를 족쳐야 하겠는데 하는 추상적인 생각에로 되돌아가고있었다.

유철은 이따금 습관적으로 가죽채찍을 가볍게 휘둘러 말잔등우에서 딱하고 소리를 내면서 혼자속으로 웃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방도는 없이 그저 그이를 그리워하고 그이를 위하고싶은 념원만 앞서는것은 자기의

혁명가로서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오래동안 수령을 찾아헤매이던 그때의 절박하던 심정의 타성일는지 모른다고 스스로 위안하기도 하였다. 이제 하나하나 그이의 가르침을 실천해나가면서 그 힘의 물질적인 발현을 보게 될 때 자기도 공상가로부터 실천가로 자라날지 모른다. 그분의 아지트에서 본 공작원들과 조선혁명군대원들의 어엿하고 자신만만한 몸가짐 역시 그분곁에서 직접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의 하나로서 그것은 마치 기름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쨍쨍한 해볕아래 자라난 초목들이 싱싱하게 가지를 쭉쭉 뻗어나가는것과 같이 거침새가 없다. 그에 비하면 자기는 비탈진 바위짬그늘에서 배배 탈리다가 풍요하고 해빛밝은 새 땅에 옮겨진지 겨우 반년남짓한 어린 묘목이나 다름없다. 착심해서 일하면 나도 자랄것이다.—

《야 이자식아, 세우라는데 듣지 못해!》

빽 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마차는 백리허숲속으로 들어섰는데 시꺼먼 옷을 입은 경관 두놈이 마차뒤채를 잡고 종종걸음을 치며 따라오고있다. 아마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 그놈들의 서라는 소리를 못듣고 그냥 지나친 모양이였다. 보매 한놈은 장총을 쥐고 다른 한손에 각반끝을 잡고 절뚝거리며 숨차게 따라오는 꼴이 이미 먼길을 걸어 지쳐빠진 우에 각반을 고쳐매다가 마침 지나치는 마차를 보고 불러세웠는데 말을 안들으니까 약이 오른것 같았다.

《와— 와—》

유철은 말고삐를 잡아채며 뒤돌아보고 굽석 인사를 하였다. 《나리님들! 수고하십니다.》

《이자식아, 귀가 먹었어!》

칼자루를 한손으로 움켜잡고 또 한손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상관인듯한자가 먼저 다가오더니 딱 차렷자세를 하고 잔뜩 볼을 불구어가지고 호령하였다.

《네, 잠간 졸았습니다. 매일 밤잠을 못자다보니…》

《뭘 하느라고 못자는가?》

뒤늦게 따라온놈이 제잡담 장총을 마초구럭우에 비스듬히 기대여놓고 풀어진 각반을 매면서 약오른 소리로 야무지게 내쏘았다.

《와— 와—》

푸—푸— 코김을 불며 갈개려드는 말을 달래며 유철은 온순한 태도로 발명했다.

《요즘 일이 바쁩니다. 안골에서 매일 세행보, 네행보씩 현성을 드나들어야 하니까요.》

유철은 사실 하루 두축, 많아야 세축 하는것을 일부러 부풂하게 불어놓았다.

《무슨 일로 드나드는가?》

칼찬자가 다시 소리쳤다.

《〈황군〉의 식량조달이지요. 안골에서 현성까지 70리나 되지 않습니까? 밤에까지 마차를 몰아야 하니 이렇게 졸게 된답니다. 용서하십시오.》

《흠— 〈황군〉식량조달인가? 그럼 저 안골 데이상네 마찬가?》

《네, 진대감네 목재판 말파린데 요즘 정주사댁의 일을 봅니다.》

《그렇다면 한번만 용서해준다. 일후엔 경관이 부르는데 졸아서 못듣는것과 같은 괘씸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것이 좋겠다.》

《조심하겠습니다.》

《좋다, 그럼 우릴 저 백리허목재판까지 좀 태워다구.》

《백리허목재판이요?》

유철은 장총 멘놈이 마차뒤쪽에 다리를 늘어뜨리고앉고 상관같은 놈이 자기 옆자리에 역시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자 채찍을 휘둘러 말을 내몰면서도 놀란듯이 소리쳤다.

《목재판까지 가자면 30리나 도는데 야단났군요. 난 아직 한행보 더 실어야 하는데요.》

《무슨 잔소리가 많은가? 우리는 지금 목재판에 공산당이 나타나서 잡으러 간다. 잔소리 말고 어서 몰아!》

《목재판에 공산당이요?》

유철은 짐짓 놀란척하고 물었다. 목재판에 공산당이 나타났다는것은 며칠전 채벌로동을 하던 김기창이 목재판에 들어가서 자기의 옛 동료들을 향하여 선동연설을 한것을 가지고 떠드는것이 분명하다. 그가 거기서 공작을 끝마치고 그곳에서 계속 사업하게 될 동무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일부러 자기를 드러내놓고 돌아온 지금에야 무엇인가 잡으러 간다는 그자들의 얼빠진 수작이 우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자들이 알고있는것이 어느정도인지 떠보고싶기도 했다. 그러나 으름장을 놓느라고 불쑥 한마디 해놓고보니 낯선 마차부에게 함부로 기밀에 속하는 말을 한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지 그놈은 다

시는 입을 벌리지 않고 오히려 유철을 아래우로 까근까근 뜯어보았다. 그럴수록 유철은 주근주근 걸고들었다.

《저— 다리목에서 갈라져들어가면 한 10리 되나마나하게 질러갈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까지 모셔다드리면 안되겠나요? 이거 〈황군〉 식량조달이 바빠서 야단났습니다.》

《이자식 그래도 아가리를 다물지 못하겠는가?》

경관놈은 빽 하고 소리쳤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의논삼아 물어본건데요.》

《잔소리 말고 시키는대로 하란말이다. 빨갱이수색에 협조하지 않는것은 다 불온한 행동이야.》

마차는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길은 호젓해지고 숲속에서는 흐린 날씨에 떠는듯 흐느낌소리같은 접동새소리가 들려왔다. 얼마후에는 마침내 진눈까비가 희뜩희뜩 날리기 시작했다.

《망할것! 눈까지 온단말이야, 오이 마부! 빨리 몰지 못하겠나?》

《네—네— 분부만 하십시오.》

유철은 선뜻 허리를 솟구고 채찍을 휘둘렀다. 돌아보니 뒤놈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잔뜩 옹송그리고 앉아있다. 조는것이 분명하다. 그래도 조심을 하느라고 부혁을 쥐고 어깨에 둘러멘 장총이 꺼꺼부정한 등에 모로 걸려 흔들거리고있다.

유철은 팔짱을 낀채 바른손의 채찍을 왼손으로 넘겨쥐고 바른손끝을 저고리섶으로 들이밀어 품을 더듬었다. 마차가 흔들릴 때마다 일부러 팔짱낀 팔을 아래우로 까불어 앞을 가리우고 슬쩍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옆놈을 제끼기는 간단하다. 그러나 이놈들도 록록찮은 놈들이라 앞뒤로 갈라져있기때문에 한놈을 제끼는 사이 다른놈이 손을 쓸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뒤놈이 미처 총을 빼들 사이 없이 갈겨야 한다. 그러나 아직 대낮인데 아무리 호젓한 숲속이라 하더라도 총소리를 낸다는것은 재미없다. 뿐만아니라 이놈들이 이맘때 이 길우에서 잘못된것이 드러나게 해서도 안될것이다. 길은 넓지만 마차의 래왕은 많지 못하고 목재판의 마차는 어디서나 유표하다. 만일 사고가 난 장소와 시간이 알려지면 직접 의심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첫째 식량 나르던 말파리가 첫조사대상으로 될것은 뻔하다. 소리도 안나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리고 두놈중 한놈도 찍소리 한마디 못지르게 해치워야 한다.

《나리님, 공산당하고 빨갱이하고 어느쪽이 더 무서운가요?》

유철은 마차에 흔들리는척하고 팔꿈치로 슬쩍 옆놈의 허리어방을 건드려보며 능청을 떨었다.

《이자식아,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 빨갱이라는것은 말하자면 공산당의 별명이야.》

《아니, 그럼 빨갱이나 공산당이나 같게요? 그럼 백리허목재판에 빨갱이가 나타났단말입니까?》

《그렇다! 너 빨갱이 본적이 있는가?》

《난 본적이 없는데요. 그 사람들이 무서운가요?》

《무섭다, 사람들을 마구 죽인다.》

《뭘로 죽이나요?》

《아니, 이자식이 정말 반편 아닌가? 사람을 무엇으로 죽이는지 몰라? 총으로 죽인단말이다.》

《네? 공산당이 총까지 가지고있어요?》

유철은 깜짝 놀란척하고 옆과 뒤를 돌아보았다. 뒤놈은 여전히 목대를 건들건들하며 턱방아를 찧고있고 옆놈은 속이 클클한지 딱부리눈을 디룩거리며 이따금 배허벅으로 손을 가져가군한다.

다리목이 멀지 않다. 제끼자면 다리우가 제일 좋다. 깊은 물속에 처박아넣어버리면 아무런 흔적도 안남길수 있다. 뿐만아니라 다리목에서는 길이 여러가닥으로 갈라져서 조사를 하더라도 혼란을 줄수 있다. 그러나 불리한 점도 없지 않다. 길이 여러 가닥인만큼 불쑥 행인이 나타날수도 있는것이다. 그러나 총을 빼앗는 일이 어찌 아무런 위험도 없이야 이루어지겠는가? 그이의 말씀대로 지혜를 짜내고 장소를 택하여 죽음을 두려워 안하고 나서면 이까짓놈들 총쯤 빼앗는것은 여반장이다. 더구나 나에게는 그이께서 주신 권총이 있다. 이 총이 새끼를 쳐서 장차 탄생할 하강유격대의 무장을 해결해야 한다. 유철은 이런 생각을 하며 계속 말을 걸었다.

《공산당이 총까지 가지고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맨손으로 잡는가요? 저 뒤의 나리는 총이 있는데 나리는 총도 없군요?》

《왜 내가 총이 없어? 이자식아, 이건 총이 아니야?》

그놈은 저를 얕잡아보는데 약이 올랐던지 바른편 꿍무니에 차고있는 권총집을 툭툭 두들겨보였다. 다리목이다. 봄시위로 불어난 강물이 웅숭깊게 설레이고있다.

《단포가 있었구만요. 그러니까 나리님이 더 높은 상관인 모양인데요.》

유철은 싱긋 웃고 개털모자를 벗어 이마전을 쓱 문지르며 몸을 기우뚱하고 옆으로 기울였다.

경관놈은 자기를 바로 알아본것이 흡족했던지 푸르죽죽한 입술을 일자로 다물고 점잔을 빼며 앞을 바라보았다. 얼마든지 권총을 바라보라는것이다.

유철은 얼른 가슴에서 권총을 뽑아 개털모자에 휘감아쥐고 놈을 길바닥으로 걷어차며 방아쇠를 당겼다. 총소리는 매우 둔하였으나 제 상관이 소리 한마디 못지르고 행길우에 나딩굴자 뒤놈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동시에 말이 화닥닥 놀라 달아났다. 유철은 말이 달아날것은 예견 못했던지라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미 어찔 방법이 없었다. 그는 마차는 달리는대로 내버려두고 몸을 날려 막 길바닥에 뛰여내리는놈의 목을 뒤로 그러안았다. 어깨에 둘러멘 총을 벗기며 마차에서 굴러떨어지려던 놈은 아슬아슬한 대목에 목을 그러잡히여 두다리로 길바닥을 쓸며 냅다달아나는 마차에 질질 끌리여왔다.

《와— 와—》

가까스로 말을 멈추어세우고보니 목을 졸린채 300여메터나 끌리여온 놈은 이미 숨이 져있었다. 그놈을 얼른 마차에 처싣고 말을 돌려세워 다리목에 가니 먼저놈은 아까 쓰러진대로 엎어져있었다. 깨진 골에서 랑자하게 피가 쏟아져나왔다. 흔적없이 시체를 처리하자면 시간이 필요하다. 유철은 얼른 졸병놈의 저고리를 벗기여 그것으로 피흐르는 상관놈의 머리를 감싸서 마차에 처실었다. 그리고 축축한 길바닥의 진흙을 떠다가 피흔적을 지워버렸다.

다리목에서 꼬지개섬쪽으로 갈라진 길을 꺾어 한참 강기슭으로 마차를 몰았다. 어지간히 행길에서 멀어졌을 때 비로소 말을 세우고 담배 한대를 붙여 물었다.

천천히 주위를 살피고 앞뒤일을 따져본다. 마차에도 길우에도 피흔적은 없고 총소리도 한방 둔하게 울렸을뿐이니 혹 들은 사람이 있다해도 총소리로 단정할 사람은 없을것이다.

유철은 두놈의 무기와 탄알을 몽땅 뒤져내고 혹시 앞으로 공작에 쓸모가 있을가 해서 증명서며 수첩까지 끄집어낸 다음 시체를 강물에 처넣어버렸다. 발견되면 반동들에게 공포를 줄것이요, 발견 안돼도 그만이다.

유철은 다시한번 마차며 제 옷이며 손이며를 깐깐히 살펴보고 어디에도 피자국이나 류다른 흔적이 없다는것을 확인한 다음 꼬지개섬을

향하여 마차를 몰았다.

며칠후 유철이 탈취한 무기로 무장한 두사람의 무장대원이 백리허숲어구에서 정희겸의 보위단원 1명을 처단하고 구식 토퉁 1정을 탈취하였다.

같은 날 일제주둔군의 병영앞에 《일제를 타도하라!》는 구호가 커다랗게 나붙었다.

이리하여 하강지구는 거리도 마을도 밀림도 앙양되는 혁명의 기세로 하여 나날이 열기 띠여갔다.

×

하강지구 시찰려행과정에 기분을 잡친 나머지 시찰려행을 중단하고 한동안 백리허현성에 눌러있던 노무라 다이사꾸란놈은 상강신개척구의 일이 더는 미룰수 없게 되여 아끼시마를 성경무청의 부과장자리에 적당히 밀어넣고 《간민사》본부에 돌아왔다. 일본과 조선에서 모집해온 이민들을 노곶을 비롯한 농장에 박아넣는 한편 새로 이민부락을 확장하고 한편에서는 노곶에 꾸린 《흑룡강동지회》의 훈련소를 이민부락으로 가장하여 훈련을 시작하는 등 일은 겹쳤다. 《간민사》의 일은 약삭바른 백동성이가 총무직책을 맡아보는만큼 그에게 일임해두어도 그럭저럭 돼나가겠지만 토착민들과 이민들의 사상동향을 장악하는 한편 《왕도락토》와 《5족협화》의 구호속에 박힌 《야마도다마시이》를 사람들의 머리속에 박아넣고 밀려드는 공산주의사조와 대결하는것은 다른 누구에게 내맡길수 없는 일이였다. 그래서 다이사꾸는 노곶에 자주 가있게 됐고 현성 《간민사》에는 손님격으로 나타나기가 쉬웠다. 백동성은 그것을 기회로 은근히 자기를 《간민사》의 주인쯤으로 치부하고 다이사꾸가 나타나면 그를 대접하느라고 자기 집으로 청해가군 하였다. 백동성은 사실 말이 조선사람이지 그 교양이나 사상이나 감정이 거의 완전히 일본화된 인간으로 생활양식마저 일본식으로 꾸리고 음식까지도 일본료리를 좋아하여 다이사꾸는 노곶의 일본인들 집에서보다 백동성의 집에서 일본정취를 더 강하게 느끼는것이였다.

어느날 다이사꾸가 백동성이네 집 응접실에서 저녁상을 마주하고 무슨 학 이름이 붙은 일주로 반주를 나누고있는데 급한 말발굽소리가 울려왔다. 이윽고 일본식으로 꾸린 정원안으로 마차 한대가 들어오더니 부옇게 먼지를 들쓴 아끼시마란놈이 달려들었다.

《노무라각하, 제가 왔습니다.》
《아니, 자네 아끼시마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불쑥 나타났나?》
《좀 의논할 일도 있고 해서…》
아끼시마는 대모테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알을 닦으며 발을 탁탁 굴러 신에 오른 먼지를 털었다.
《아끼시마상이 오래간만이올시다. 어서 올라오시지요.》
백동성은 얼른 일어나 앞자락이 벌어지는 왜옷을 여미며 한쪽구석에 쌓여있는 방석을 꺼내놓았다.
《그사이 편안하셨소?》 아끼시마는 가볍게 인사를 받고는 인차 다이사꾸에게 눈짓을 하였다.
《저 할말이 있는데 어떻게 할가요?》
《뭘 덤빌것 없네. 오늘 여기서 백동성군의 신세를 좀 지자구, 하강지구이야기겠지?》
《네, 뭐 별일은 아니지만 좀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아서, 그래 제가 왔습니다.》
《알만해. 내 고지로한테서 련락을 받아 대강 그쪽 형편을 짐작은 하네. 올라오게.》
그사이 백동성은 왜나막신을 끌고 마당에 내려섰다.
《영춘군, 거 영춘군 없나?》
뒤울안에서 장작을 패던 최영춘이 도끼자루를 쥔채 수건으로 목덜미의 땀을 훔치며 나타났다.
《날 불렀수다?》
《불렀네. 거 영춘군이 늘 봐야 수고를 하는군. 쉬염쉬염하지 덤빌게 있나. 한데 귀한 손님이 왔구먼. 마차를 풀어서 말을 좀 씻기고 먹이를 줘야겠어.》
《알았수다.》
《거참 영춘군, 부친께서 일전에 학질을 앓는다더니 좀 차도가 있나?》
《네, 주인나리가 쪽지를 써줘서 병원에서 금계랍을 갖다먹었더니 일없다고 합니다.》
《거참, 천만다행이네. 내 병원의사한테 말해둘테니 사양말고 또 약을 지어다 대접하게. 병원이 딴 사람것이라도 모르겠는데 내 병원인이상 영춘군 부친이 앓는다는데 무심할수가 있나. 오늘밤은 말이나 거두고 패던 장작이나 마저 패고는 집에 나가보게. 부모님을 효성스레 모셔야 하네.》

《뭐 이젠 일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 자네는 부자지간이니까 혹 무관하게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내가 동향사람인데다 주인이 된 처지에 그럴수 없네. 기어이 오늘밤은 나가보게.》

백동성은 바로 제 애비가 앓기나 하는것처럼 좁다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말했다. 가느다란 금테안경이 그의 모습을 얼마간 옹색하게 보이게도 했지만 그의 이런 말투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만큼 인정미가 풍기는것이였다. 순진한 최영춘은 백동성이가 자기 일가를 특별히 생각해주는것이 여간 고맙지 않았다. 하나 실상 상강신개척구에서 백동성의 이러한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란 없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그때문에 생활이 펴지지 않았고 일이 헐해지지도 않았다. 당장 영춘에게 한말만 해도 지금 패던 한평 실히 되는 장작을 마저 패자면 기나긴 여름해가 다 저물 때까지 패고도 모자랄것이다. 그런데 10전짜리 금계랍과 입에 발린 몇마디 말로 영춘의 로력을 악착스레 짜내고도 오히려 영춘이나 그 일가로부터는 인정있고 무던한 주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것이다. 이렇게 백동성은 상강지구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롱락하면서 이민들의 고혈을 그 어느 지주나 자본가보다 더 악랄하게 짜냈다. 정희겸이 하강이나 노곶에서 사람들의 등가죽을 벗겨낸다면 백동성은 신개척구의 현성에 틀고앉아 간사한 웃음을 살살 피우고 등을 어루만지면서 사람들의 심장속에 침대를 꽂고 생피를 통채로 빨아내고있는 셈이였다.

영춘네 일가가 백동성의 꼬임을 받고 이곳 상강신개척구로 건너온지도 그럭저럭 이태가 지났다. 그러나 여적 농막살이를 벗지 못했을뿐아니라 영춘이가 백동성이네 집에서 머슴을 사는지도 1년이 넘었지만 집에 쌀 한말을 들여가지 못했다. 살림이 어렵고 절박한것을 느낄 때마다 이리로 오는 도중 차간에서 만났던 박진규의 말을 되새기며 꿋꿋이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였다. 백동성이도 딴눈으로 보자고 애썼다. 그러나 백동성이 한번 나타나서 은근한 투로 수작을 걸면 그의 마음은 선자리에서 풀어지고마는것이였다.

영춘을 말시중을 들라고 내보낸 동성은 안방으로 들어가 먼길을 온 아끼시마를 위해 목욕물을 끓이게 하고 인차 술상을 봐들이게 하였다.

동성의 안해는 워낙 시골토반의 집에 태여나서 이런 물계에 어둡던 촌뜨기였으나 동성이가 일본으로, 만주로 끌고다니는 과정에 저으기 개화가 되여 이제는 서투른 일본말도 하고 남편이 현성에 병원을 차리

자 선참 가서 생이를 두대나 뽑고 금이를 해박았으며 멀쩡한 눈에 칼자리를 내여 쌍꺼풀을 만든 녀자였다. 그는 집에 손님이라도 없으면 회계를 감독한다는 구실밑에 줄곧 병원에 나가 의사와 이야기를 하였다. 의사라는것은 또 의전의 졸업장을 두장이나 가지고있지만 실상 학교는 반년도 다니나마나한 건달군인데 동성의 안해가 그런 협잡군인줄 번연히 알면서도 찾아다니는것은 이 의사가 중년녀성들의 미용법에 통달하여 그것을 아낌없이 가르쳐주기때문이였다.

엉터리의사는 병을 고치는데는 무능하였으나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법은 잘 알았다. 동성의 안해는 병원에서 사내들의 환심을 사는법도 많이 배웠다. 백동성은 사업을 위해 노무라나 아끼시마를 극상 대접하고싶었다. 그런데 안해는 그런 눈치를 채고 병원의사에게서 배운대로 술집 갈보이상으로 손님환대를 잘해주었다. 이랬건저랬건 적잖은 농장주이며 기업가인 백동성의 안해가 손수 나와 목욕탕 시중을 들어주고 술시중을 들고 하는데 노무라나 아끼시마도 저으기 감격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날밤 송화강 농어회에 일주를 다섯병이나 기울인 세 사나이는 밤이 깊어서야 헤여졌다. 아끼시마는 술이 억병으로 취하여 상전과 동성이 앉아있는 앞에서 동성의 안해에게 시시한 롱담을 걸고 야단을 치던것이 려관으로 돌아오는 마차우에서는 언제 취했더냐싶게 또박또박 하강 백리허일대에서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해 낱낱이 보고하였다.

노무라는 칼자루지팡이를 짚고 취기가 도는 몸을 등받이에 기대고 앉았다가 백리허숲속에 무장대가 출몰한다는 말을 듣자 눈을 번쩍 떴다.

《좋다, 알만하다. 그러지 않아도 내가 수일후에 사령부로 올라갈 계획이였다. 이번에 가서 고지로와 토의하여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겠다. 백리허는 공산쏘베트와 접경이 되여있는만큼 특히 그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을수 있다. 틀림없이 코민테른의 지시에 의해 그런자들이 나타났을것이다. 흠! 그러나 어림없다. 이 상하강지구를 노무라 다이사꾸가 틀고있다는걸 알아야 해. 어딜, 어림없지!》

며칠후 노무라 다이사꾸는 이미 관동군사령부의 복도에 서있었다. 그가 당직장교놈의 안내를 받아 조카의 사무실로 가는데 대기실에서 기다리고있던 장령 한놈이 벌떡 일어났다.

《노무라각하!》

돌아보니 회령련대에서 련대장노릇을 하던 가와사끼이다.

《아니, 자네가 웬일인가? 장군이 됐군, 출세했네그려.》

노무라는 칼자루지팽이를 짚고 서서 팔자수염에 장령복을 떨쳐입은 전날의 심복부하를 바라보았다.

《황송합니다. 모두가 각하의 념려지덕분입니다. 이번에 새로 편성된 혼성려단장으로 임명되여왔습니다.》

《반가운 일일세. 아무쪼록 폐하를 위하여 용전분투하기 바라네. 한데 누구를 기다리나?》

《실은 노무라주임참모님을 뵙자고 왔는데 어제도 바쁘셔서 못뵙고 오늘 또다시 왔습니다만 만나게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와사끼소장놈은 애원조로 말하며 눈치를 살폈다.

《우리 고지로를 만나러 왔단말이지! 그 사람이 무척 바쁜 모양이군.》

이러고있는데 마침 사령관실의 문이 열리더니 바로 노무라대좌란놈이 단정한 군복차림으로 서류철을 겨드랑에 끼고 나왔다. 그가 복도에 나서자 대기실에 기다리고있던 두놈의 장령과 대좌 네놈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고지로는 그들을 본체도 않고 곧장 다이사꾸에게로 다가왔다.

《아저씨, 오시기 수고했습니다. 내 방으로 가십시다.》

가와사끼소장이하 면회청원자들이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참모님, 저 언제면 시간을 낼수 있겠습니까?》

《좀 기다려야겠소. 오늘은 만주국 집정폐하를 만나야 하기때문에 시간이 없소. 다음기회에 봅시다.》

면회청원자들의 얼굴엔 실망의 표정이 감출수 없이 드러났다.

《이거 난 벌써 사흘째인데 어떻게 사정을 봐줄수 없겠습니까?》

장대한 몸집을 한 소장 한놈이 로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노무라참모는 차거운 눈길로 그를 한번 훑어보았을뿐 이야기는 들은둥만둥 복도 한끝의 자기 방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여보게 이사람, 가와사끼를 좀 만나주면 어떤가? 난 사실 그리 바쁘지도 않은데…》

다이사꾸는 은근히 옛부하에게 동정이 가서 한마디 곁들어주었다. 그러나 고지로는 눈섭 한번 까딱않고 당직장교놈에게 지시했다.

《저자들을 다 쫓아버리게, 시끄러워서 일을 할수가 없네.》 그리고는 다이사꾸에게 말을 이었다.

《촌놈들에게 별을 달아주면 인차 거들먹거립니다. 버릇을 가르쳐야 제 분수를 안단말입니다.》

당직장교놈은 어깨에 걸린 수띠를 바로잡더니 대기실에 들어가 똑바

로 서서 쨍쨍하게 웨쳤다.

《오늘은 일체 면회를 할수 없습니다. 모두 지정된 숙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령관각하께서 나오시면 꾸중이 있을것입니다. 한시바삐 돌아들 가십시오.》

장령들과 대좌놈들은 투덜투덜 불평을 말하면서 하는수없이 흩어져갔다.

노무라주임참모란놈의 널다란 사무실 응접탁자앞에 나란히 앉은 아재비와 조카는 려송연을 피워물고 은근히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면서 서로 먼저 입을 벌리기를 기다렸다. 탁자우에서는 방금 따라놓은 차잔에서 향긋한 차냄새가 풍겼다. 특별한 장식품이란 없는 방이였다. 벽에 걸린 얇은 모스린카텐으로 가리워놓은 만주전도가 벽화처럼 방안을 치장하고있을뿐이였다. 그 서남 한끝 열하일대에 무수한 전술부호가 그려져있었다.

다이사꾸는 칼자루지팽이로 쪽마루를 다둑다둑하면서 어슴푸레하게 드러나는 전술부호들의 뜻을 새기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한마디 물었다.

《어찌하여 이렇게 끌고있느냐?》

고지로는 차잔을 두손으로 받쳐들고 후— 후— 불다가 한모금 들이키고는 소리도 안나게 도로 놓고 조용히 말하였다.

《우리 장교 한사람을 열하 북표근방에서 죽였습니다. 이젠 구실이 생겼습니다. 아마 작전은 곧 시작될것입니다.》

《아무튼 빨리 하게, 죽일바에는 몇사람 내다 죽이지 한두사람이나 죽여서 구실이 되나? 만주와 중국대륙을 경영하는데 장교 한두사람이 문젠가? 그 사람들도 제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면 결코 서러워하진 않을것이네. 그대신 가족들을 잘 돌봐주면 되네.》

고지로는 다이사꾸의 그런 간참이 마음에 싸지 않는듯 잠자코 있더니 불쑥 말머리를 돌렸다.

《아저씨, 하강지구는 왜 그 모양입니까? 난 아저씨를 믿고 장담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민심이 시끄러우니 우리가 어떻게 열하를 마음놓고 칠수 있습니까?》

《하기는 일이 그렇게 됐네. 내가 〈흑룡강동지회〉와 〈간민사〉일때문에 상강에 나와있었더니 수일전에 아끼시마가 올라와서 하는 말이 심상찮은 소식을 전하데. 그래 내가 아끼시마를 시켜 일반주민을 공산주의자들과 분리시켜 엄중단속하고 불온분자들의 행동을 제압하여 그 뿌리를 뽑는 치본(治本)의 방침을 주어 조선인들속으로 들어가도록

일렀네마는 내 생각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일이 안될것 같애. 무력에 의한 치표(治漂)공작을 배합하여 철저히 빨갱이소굴을 소탕하는 한편으로 공산로씨야와의 길을 막아야 할것으로 생각하네.》

고지로는 다이사꾸의 말이 쓰거운듯 창밖을 내다보고있다가 조용히 타이르듯이 말했다.

《아저씨,정신을 차리십시오. 제국은 지금 대륙과 세계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투전장을 조이려 하고있습니다. 가와사끼에게 별을 달아서 혼성려단장으로 임명한것도 그때문입니다. 제국의 대륙경영과 조선의 영원한 식민지화에 있어서 근본문제는 간도의 조선인들을 어떻게 진압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내 전날 이미 말씀드렸지만 길림에 있던 **김일성**이라는 지도자가 간도에 나타나서 무장유격대를 조직하고 제국을 향하여 정면으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사령부는 그의 영향하에 료원의 불길처럼 번져가는 조선인들의 이 반항을 진압하는데 최선의 힘을 다 기울여도 부족해서 내지에서 이미 2개 보병사단과 2개 기병려단,1개 혼성려단을 더 불러들였지만 아직도 열하작전의 규모까지 생각할 때 **김일성**유격대를 진압하는데 넉넉한 힘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강지구에서 또 새로운 불집을 만든다면 이미 앞으로 태산을 대하고있는 제국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이사람 고지로—》 다이사꾸는 얼굴이 시뻘겋게 되여 초조한 어조로 말했다. 《난 자네네 젊은 사람들과 말할 때마다 속이 답답해서 못견디겠네. 대체 자네들은 무엇때문에 그리 잔걱정들이 많은가? 나도 방금 치본공작을 잘해서 공산주의의 뿌리를 뽑아던져야 한다고 말은 했네만 그것도 자네가 하도 시끄럽게 구니 해본 소리지 내 본심은 아니야. 내가 이번 하강지구에서 느낀바도 그것이네. 치본이란 무엇인가? 그 근본을 뽑고 근원을 없앤다는것이네. 한데 그 근본이란 무엇인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반대해 들고일어나는것은 제국의 세계경륜에 대한 웅대한 구상이고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패기네. 그런즉 간도나 하강지구의 조선인들의 반항을 없애자면 우리의 리념을 단념하는것밖에 길이 없지 않은가? 이것은 다 한갖 아녀자들의 궁냥일뿐이네. 문제는 힘이야. 그런 세세한것에 아랑곳하지 말고 내밀어야 하네,내밀어야 해.》

《아저씨,어리석은 말을 그만하십시오.》 고지로는 입가에 랭소를 띠우며 말했다. 《큰 방뚝도 개미굴때문에 무너집니다. 항차 이것은 5,000만을 헤아리는 조선과 만주의 민중이 제국을 반대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태까지도 그들은 일본을 반대해서 일어났지만 뿔뿔이 흩어져서 제마끔 제가닥으로 놀아났기때문에 마치 게와 황새와 나귀가 한수레를 끄는 격으로 되였지만 이젠 이 수레를 곧은 길로 끌고 가는 기수가 나졌습니다. 그러니 이 거창한 수레는 폭탄을 싣고 제국의 심장을 향하여 곧바로 돌진해온단말입니다.》

《그 기수가 바로 **김일성**이란 말이겠지?》

《그렇습니다.》 고지로는 침착하게 대답하고는 입을 꾹 다물었다. 새빨간 입술이 어찌나 앙다물렸던지 금시 선지피가 쏟아질것만 같았다. 한동안 그렇게 앉아있던 고지로는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벌떡 일어나서 넓은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번쩍거리는 장화에서 삐걱삐걱 신음소리가 울려왔다. 지도앞에서 우뚝 멈추어선 고지로는 잠시 열하일대의 전술부호들을 들여다보다가 홱 돌아섰다.

《그러나 제국은 이미 손아귀에 들어온 보물을 할일 없이 내놓지는 않을것입니다. 비록 제국 륙군을 이 거치른 땅에다 모두 내다묻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제국의 생명선인 이 땅에서 물러서지 않을것입니다. 아저씨, 분발합시다. 다나까대장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한목숨을 바칩시다.》

《나는 이미 뜻과 기개를 중히 여기고 실리를 가볍게 치는 인간이다. 너희들이 그러한 심정으로 일한다면 나 역시 제국의 번영을 위하여 뼈를 깎고 살을 어이기를 서슴지 않는바다. 한데 당장 나는 하강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방침을 알고싶다.》

《아저씨, 일은 다 꾸며져있습니다. 래일 가와사끼를 불러서 지시를 줄테니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 사람의 려단이 하강지구에서 간도지방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총칼로써 막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숙청할것입니다. 그에게 수시로 충고를 주고 우리의 의도하는바를 일깨워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치본공작과 사상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선인내부에서 알륵을 조성하고 단결되지 못하게 하며 특히 동만의 영향이 하강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백방으로 방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면한 하강에서의 소요를 공산로씨야의 영향으로 보는 아저씨의 견해는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은 역시 동만과의 련계문제입니다. 아직은 하강지구가 동만과 련계되여있다고 보는것이 좀 이르기는 하지만 미리 방비하는것만 같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가볍게 생각지 말고 온갖 가능성을 다 리용하도록 하십시오. 표면상 제국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힘은 적극 리용해야 합니다. 례컨대 구국군이나 조선민족주의자들의 독립군들 같은것은 그들이 비록 말로는 일본을 반대한다고 하나 그자체는 제국에 하등의 위협도 주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 완고한 보수적인 립장으로 하여 우리의 공산세력숙청에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그러니 목전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장구한 계책을 써서 그런 세력까지도 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노무라대좌란놈은 특무기관 전문가들이 작성한 방침에 따라 세세한 주의를 다이사꾸에게 주고 그곳 수비대 첩보기관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전했다. 그가운데는 다이사꾸가 이미 알고있는 자료도 적지 않았으나 그 모든 자료들이 여기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분석되고있었다. 한 수비대원놈이 개울창에 거꾸로 박힌 사실을 대단히 중시하고 또 장거리에 나붙은 몇장의 삐라는 그 누덕누덕 찢어진 종이장 실물을 갖다놓고 필적까지 감정하느라고 야단이였다. 등사한 삐라가 나붙은데 대해서는 거의 공포에 질려 적어도 600통은 찍었을것이라고 떠들어올리고있었다.

다이사꾸는 자기가 무심히 듣고 넘긴 그 모든 자그마한 사실들을 한개 대륙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쥐락펴락하는 조카가 그처럼 크게 취급하는것이 마음속으로 마땅치는 않았으나 그것이 또한 공산주의세력의 이러저러한 발현임에는 틀림없는만큼 묵묵히 듣고있을밖에 다른 수가 없었다.

마감에 고지로는 말하였다.

《아저씨, 아끼시마를 통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사람들을 적색부락이나 중간지대에 박아넣으십시오. 그리고 가와사끼의 려단을 국경연선에 쭉 늘여세울테니 안에서 씨를 말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김일성**과의 대결에서 성과를 거둘수가 있습니다. 려관에 나가 가와사끼를 만나보고 그에게 술이나 한잔 먹이십시오. 래일은 내가 그를 만나보겠습니다. 하강지구에 큰 빨갱이가 있는듯합니다. 그것을 뽑아내여 처단하도록 하십시오. 혹시는 아저씨 말대로 코민테른의 지도자급 인물이 하강지구에 둥지를 틀고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살피십시오.》

이런 일이 있은지 열흘이 채 못되여 안골 정희겸의 집에는 당꼬바지에 넥타이를 매고 짜개신발을 신은 안경쟁이 왜놈 목재상이 나타났다. 백리허목재판에 크게 투자하기 위하여 왔는데 인부를 모집한다는것이였다. 이자는 나까무라구미라는 상호가 박힌 시꺼먼 덧저고리같은것을 걸치고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녔다.

《미친놈도 다 있지. 한창 농사철에 농촌사람들을 뽑아가자는놈이 어

데 있나?》

동네사람들은 저마다 외면을 하고 정희겸이네 머슴사랑에서도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유철은 이놈의 거동이 단순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튿날 말파리를 끌고 현성에 갔다오는 길에 련락장소에 가보니 아니나다를가 현성에 노무라 다이사꾸가 나타났다는것, 그자의 심복 아끼시마란놈이 안골동네로 잠복해들어갔다는것 등의 통보가 적혀있었다.

5

주태화의 책방은 필경 망하고말았다. 본시 자기의 넉넉치 못한 장서를 밑천으로 시작한 이 헌책방은 태반이 사회과학책이여서 가난한 학생들이 뒤적거리다가 한숨과 함께 도로 제자리에 꽂아놓군하는 과정에 닳아지고 때로 없어지기도 하다가 마침내는 령사관경찰에 송두리채 몰수당하고말았다. 나머지는 빈 선반을 채우기 위하여 꽂아놓은 번쩍번쩍 금박칠을 한 법규집이나 그 무슨 명사들의 서한집같은것이 아니면 서푼짜리 통속소설책이 한다락 남아있을뿐이였다. 그것마저 주태화의 헌책방이 망했다는 소문이 떠돌아 빚쟁이들이 두억시니떼처럼 몰려들어 값도 따지지 않고 제마끔 한보따리씩 가지고 가버렸다. 가게는 세집이라 결국 주태화는 알몸으로 집을 내주고 나왔다. 그래도 천장구석에 깊숙이 감추어두었던 몇십권의 사랑하는 책들이 있었다. 그것을 꺼내여 헌 홑이불에 싸들고 장마당으로 갔다. 이제 책에 대한 미련은 없었다. 그 책들을 팔아서 푼전이라도 건지면 그것으로 두부장사든 구멍가게든 벌릴 작정이였다.

주태화는 다리를 휘청거리며 장거리를 누벼다녔으나 아무도 그의 책보따리에 눈길을 돌리는 사람은 없었다. 헌누데기나 송장에게서 벗겨낸것이 분명한 신들, 옷가지들이 날개돋친것모양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읽고 또 읽어서 책가위가 닳고 좀이 쓸고 곰팡이가 낀 주태화의 책이 어느 누구의 허기진 밥주머니를 채워주며 추위에 떠는 살을 가려줄것인가?

해가 설핏해질무렵 주태화는 어떤 물감장사에게 책보따리를 통채

로 넘겨주고 굽도리가 톱날처럼 까칠한 은전 세잎을 받았다.

함경도식으로 머리수건을 쓴 중년아낙네는 추저울눈금을 통통한 새끼손가락으로 연신 안으로만 재이면서 종알거리는것이였다.

《에그— 다 헐어빠진 수지장을 어데다 쓰겠슴메? 내사 괜히 인심을 쓴당이.》

호머도 김부식이도 쉑스피어도 사마천이도 고전이든 진서든 모두 한근에 5전이였다. 그가운데는 한달치 하숙비를 몽땅 밀어넣고 가까스로 구한 책들도 있었다. 그 봉창을 대노라고 로동판에 나가 해종일 자갈을 추고 돌아와서는 물집이 다 잡힌 손바닥으로 그 책가위를 보물처럼 쓸어보던 학생시절의 꿈도 이젠 저울추에 달리여 물감장사에게 넘어가고말았다.

그는 선술집 목노판앞에 서서 한참 망설였다. 손은 방금 물감장사가 크게 선심써준 그 세잎의 은전 굽도리를 만지작거리고있었다. 마음이 컬컬하였다. 재산도 권세도 지위도 상속받지 못한 그에게 있어 그 책들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의 생활을 지탱하고있는 재산의 총목록이였다.

그 모든것을 떼우고 빼앗기고 마감엔 한근에 5전씩 팔아치웠다. 꽉 죄여드는 답답한 가슴을 독한 술로 지지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물끄러미 술어미의 손에서 철철 넘쳐나는 술잔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발길을 돌렸다.

아이들이 기다린다. 에미도 애비도 다 잃은 불쌍한 조카와 어린 자식들이 기다린다.

그는 장거리끝에서 아가위 한꼬치를 사서 조심조심 종이에 싸들었다. 아이들이 좋아서 깡충거릴 모양이 눈에 밟혔다. 벌써부터 걸음이 빨라진다. 외삼촌이 이 사회로부터 마지막 버림받는 이 뜻깊은 날에 어찌 주태화의 조카가 아가위 한꼬치를 맛보지 못한단말인가? 그의 마음은 어느덧 술보다도 독한 애수에 취해버렸다.

《인간도처에 유청산이라.》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무렴, 이 더러운놈의 세상에 대고 체면을 차릴 의무는 꼬물만큼도 없단말이다. 두부장사는 이젠 밑천이 모자라니 틀렸지, 녀편네더러 콩나물장사나 하라고 하지. 난 신기료쟁이라도 할밖에 그럼 우리 현아를 배곯지 않게 먹일수가 있단말이다. 이 더러운놈들아, 주태화는 신기료쟁이를 하면서라도 너희들보다는 깨끗하게 살테다. 나는 용감하지는 못해도 성실한 인간이 돼보련다.》

정거장앞은 방금 차에서 내린 사람들로 붐비였다. 북행렬차가 도

착한 모양이다. 주태화는 분주한 정거장광경을 한번 훑겨보고나서 새 골목으로 빠져들어갔다.

《아니 이사람, 여보게 거 주태화가 아닌가?》

쉭쉭 갈린 목소리가 울리여 돌아다보니 산발한것처럼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린 사나이가 기운차게 손을 흔들었다. 침침한 불광속을 자세히 바라보니 배윤종이였다.

주태화는 조카에게 아가위를 안길 때의 그 즐거운 공상이 깨뜨러져서 기분이 상했다. 그러나 정 모르는척할수도 없는 상대였다.

《자네 배군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나?》

《가만, 내 지게군을 돌려보내고…》 하고 윤종은 옆에 따라선 지게군에게서 새까만 려행가방을 집어들더니 말했다.

《안됐네, 내 잠간 이야기하고 가야겠어.》

젊은 지게군은 당황하여 윤종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다.

《나으리,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허— 이사람아, 내가 10년지기를 여기서 만났는데 어떻게 간단히 헤여지는가말일세, 어서 가라구.》

《아니올시다. 기다리겠습니다.》

《가게 가, 시끄럽게 굴지 말고.》 배윤종은 거칠게 손을 내흔들더니 새삼스레 주태화의 손을 덥석 그러쥐였다.

《참 여기서 자네를 만나다니, 내 그렇지 않아도 이 낯설은 땅에서 그 어떤 랑만적인 상봉이나 있지 않을가 하고 은근히 두리번거리던 참일세.》

《자네, 저 〈매일신보〉로 옮겼다는게 사실인가?》

주태화는 저로서도 뜻밖이리만큼 갑작스레 각박한 질문을 하였다.

《아, 나말인가? 나야 옮기고 말고 할게 있나? 가고싶으면 가는거고 싫으면 그만인거지. 자, 이러지 말고 좀 안내해보게. 그럴듯한데가 있겠지?》

《박석윤이를 만나러 왔나?》

주태화는 《민생단》을 꾸리느라고 미쳐날뛰던 풋낯이나 아는 《매일신보》 부사장이란자를 머리속에 그리며 물었다.

《박석윤이를 내가 뭣하러 만나? 그까짓게 〈민족자치〉니 뭐니 하고 유지연해서 돌아가는게 나로서는 가소롭기 짝이 없네. 그자가 언제 민족자결에 대한 리념을 리해한적이 있다고 그따위 소리하는지 난 모르겠거던. 이사람아, 민족자결이란 력사적인 개념이네.》

주태화는 병적인 배윤종의 장광설이 시작되려는것을 보자 길우에 서 있는것이 창피하여 골목으로 걸어들어갔다. 그러면서도 배윤종이 《매일신보》로 옮겨앉았다는 소문이라든가 또 배윤종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한동화가 최근에 이 거리에 나타나서 박석윤이와 섭쓸려다니는 사실이 심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박석윤이를 배윤종이 평소부터 깔보고있다는것은 주태화도 잘 안다. 그러나 배윤종이가 깔보지 않는 사람이란 이 세상에 없는것이다. 한동화와의 관계를 봐도 뚱뚱한 몸집에 두꺼운 도수경을 끼고 계집같이 간사한 목소리로 야밀야밀 사람의 비위를 긁는 그 잡지사 경영주를 배윤종이는 만나기만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싸웠다. 하지만 결국 배윤종은 한동화의 돈주머니에 매인 노예에 지나지 않았고 한동화를 이른바 가난한 지성세계에 내세우는 배경노릇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 한동화에게 유치한 론쟁을 걸어 남들이 한동화를 무슨 지식이나 있는 인간같은 인상을 조성시켜주는 값으로 한동화로부터 푼전을 얻어먹고 산다는것은 언론출판계의 공개된 비밀이였다.

생리적으로 배윤종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 주태화는 몇년만에 처음 만난 이 친구와 마주앉는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배윤종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전에없이 《변하지 않는 우정》을 내휘두르면서 기어코 길가의 으슥한 내주점으로 끌고갔다.

《자, 우리들의 변하지 않는 우정을 위하여 한잔 들자구. 참, 자네 술솜씨를 오늘 좀 봐야겠군. 변함이 없겠지?》

배윤종은 호기롭게 술잔을 들어 권했다.

《아니네, 요즘은 몸이 나빠져서 통히 마시지 못하네. 오늘은 딱 속이 좋지 않군. 자네나 들게. 꼭 술을 들어야 맛이겠나. 이렇게 앉아있어도 좋네.》

배윤종은 검질기게 권했으나 주태화는 술잔을 받아서는 소리없이 상우에 놓군하였다. 장거리 한끝에서 본 목노판의 철철 넘치던 술잔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으나 그는 배윤종이 권한 술잔에는 강심을 먹고 손을 대지 않았다.

《며칠이나 있겠나?》

주태화는 고래처럼 술을 들이켜도 취하지 않는가 하면 오히려 술 한방울 입에 대지 않아도 주정뱅이 태를 벗지 못하는 배윤종의 특수체질을 주의깊이 바라보며 물었다.

《응, 나말이야? 한동안 있을지 모르지. 여보 태화형, 사실 난 신문사를 그만두었다네.》

《그래서?》

배윤종이가 어디를 그만두었다든가 또 무슨 일을 시작한다든가 하는것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기때문에 주태화는 조용히 되물었다.

《이번에 아마, 히히히—》 배윤종은 갑자기 괴상한 웃음소리를 내더니 불시에 정색하여 바싹 태화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형만 알아두게. 이번에 총독부와 관동군 수뇌급들사이에 중요한 회담이 있었다네. 그 박석윤이 떠들던 〈민생단〉도 해산이야, 해산— 그리고말일세,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거지. 하지만 그게 나같은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겠다고 무던히도 애를 쓰데만 그런 무식한것들이 어림이 있나? 안되지. 국경일대에선 공산당의 정권이 이젠 사실상의 통치자가 돼버렸거던.》

《그래 배윤종선생이 드디여 출마하게 된셈인가?》

주태화는 긴장되여 슬쩍 롱기를 섞어 한마디 던졌다.

《내가? 하하하. 웃기지 말게, 웃기지 말라니깐. 사실 한동화도 여기 와있어서 그자들이 나더러 자꾸 충동질하기야 하지. 그자들도 인젠 자기들의 그 빈약한 지식으로는 공산주의와 대결하기 힘들다는것을 깨달았다는 말일세. 듣자니 거 **김일성**이라는분이 사상에서 뛰여날뿐아니라 군사에서도 당할 사람이 없는 장군이라더군. 모르지, 내 이제 사령부의 노무라란자를 만나봐야겠네. 그자가 여기서는 모든것을 쥐락펴락한다더군. 한바탕 론쟁을 해보는것도 재미가 있지.》

주태화는 배윤종이 이미 일제의 주구로 전락되였다는것을 눈치챘다. 이자가 별로 친한척 추근추근 접어드는것이 어쩐지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어떻게 구실을 붙여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배윤종이 술잔을 권했다.

《아무리 그런들 주대호가 이렇게 맹숭맹숭할수야 있나? 한잔 들게, 술친구의 우정이 눈물짓지 않게 한잔 시원히 따게.》

《아니 난 그만두겠네, 요즘 약을 먹는중이여서, 거 여간 계률이 많은게 아닐세.》

《허 주도가 타락했네그려. 자네 매부는 잘 있나?》

《매부라니?》

《거 박진규라는 사람 있지 않아? 서천호령감이 문안하더군.》

주태화는 배윤종이 주정기에 섞어 매부의 말을 꺼냈다는것을 느끼자 속이 떠끔하였으나 아닌보살하고 되물었다. 《참 서천호선생은 편안하신가?》

《그저 그렇지. 법정에 나가서는 사자처럼 울부짖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용렬한 늙은이로 변해버렸지. 매번 그렇게 수입도 없는 변호사노릇을 하기에 가산도 어지간히 불어먹은 모양이더군. 그래 박진규씨도 여기에 있나?》

《그 사람은 애초에 여기로 오지부터 않았네.》

《그래?》 배윤종은 일순 눈을 번쩍 뜨더니 내리깔고 껄껄 웃었다.

《그럴수도 있지. 혁명가가 어떻게 집에나 붙어있겠나?》

주태화는 추근추근 달라붙는 배윤종을 가까스로 떼여버리고 일어섰다. 술집 대문밖을 나서니 누런 외등아래 옹크리고있던 그림자가 불쑥 일어났다.

《나으리, 이제 나오십니까?》

지게군이였다. 주태화는 길을 비켜주었다. 배윤종은 무엇때문인지 화를 벌컥 내였다.

《돌아가라는데 왜 줄줄 따라다니며 성화야? 내 네놈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내절로 짐을 들고 가야겠다.》

《나으리, 적선하십시오. 집에는 아이들이 사흘째 굶고있고 어머니가 병들어 누워있습니다.》

《흥, 판에 박은 대사로군. 이젠 속지 않아. 이젠 너희들 그 치사스런 넉두리에 쓸 인정의 푼돈을 다 써버렸단말이야.》

주태화는 걸음을 옮기여놓으려다가 배윤종의 이러한 목소리를 듣고 다시금 멈추어섰다.

《제발 모시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거리에 인적이 드뭅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들어가면 우리 집 식구들의 목숨은 끊어집니다.》

《난 인도주의자야. 애초에 갑삭한 가방을 져달라고 한것도 길을 몰라서 하는수없이 그랬지 내 본심은 아니거던. 가라구, 이따위 너절한 직업은 집어치우고 어디 가서 로동이라도 해먹으라구.》

《일자리가 없습니다, 나으리. 누가 하고싶어서 이 노릇을 하겠습니까?》 지게군은 연신 허리를 조아리며 애원하였다.

주태화는 주머니에 찌른 손끝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넘겨주고 받은 세잎의 까칠까칠한 은전굽도리를 매만지고있었다. 그 책들을 구

해들이려고 공사판에 나가 자갈을 추던 생각이 떠올랐다.
(콩나물장사도 틀렸나보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 그는 앞으로 나섰다.
《여보, 젊은이.》 주태화는 주머니에서 은전 한잎을 꺼내여 지게군에게 쥐여주며 취한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게군이란 너절한 직업이야, 앞으로는 이따위 고생하지 말고 어디 가서 신선놀음이나 하게.》
지게군도 배윤종이도 눈이 둥그래서 멀어져가는 주태화의 구부정한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달밤이였다.
혜민이는 이웃집아이와 싸움을 하고있었다. 여섯살난 그에게는 적수가 지나치게 컸다. 그러나 고종사촌누나를 놀려주는 그를 그대로 참고 견딜수가 없었다.
혜민이는 조그마한 주먹을 움켜쥐고 접어들었다.
《이새끼 봐라, 거지새끼가…》
구장의 아들은 키가 꺽두룩한것이 여덟살이나 먹었지만 좀 헤펐다.
《애 혜민아, 그까짓 새끼 내버려두고 가자.》
현아는 영민이를 업고 어른처럼 동생을 얼렸다. 아버지가 징역군이라고 놀림받은걸 생각하면 현아도 분하였다. 구장의 아들은 현아를 보기만 하면 《징역군의 계집애》 하고 놀려주었다. 오늘도 저녁먹고 외숙모가 저녁설겆이를 하는 동안 영민이를 업고나왔는데 새꽁지같은 머리끄뎅이를 잡아채며
《야— 징역군의 계집애— 너 아버지 도적질했지?》하고 놀려주었다.
현아는 발끈해서 대들었다.
《요새끼, 너 아버지는 돼지지? 뭘 처먹고 뚱뚱돼지가 됐니? 돼지새끼야, 여기 오기만 해봐라.》
《요 계집애, 혼나볼테야.》
구장의 아들은 휭하니 달아나다가 어깨를 솟구며 되돌아왔다.
바지춤을 추켜올리며 다가오는 그를 향해 현아는 야무지게 쏘아붙였다.
《혼내볼테면 혼내봐, 누가 무섭대? 네까짓게 뭐냐? 혼내봐, 혼내봐.》
《요게!》
구장의 아들은 길다란 팔을 뻗쳐 현아의 머리를 또 잡아쥐려 하였

다. 그러다가 《아아야…》 하고 울상이 되여 돌아섰다. 혜민이가 벼락같이 달려들어 그의 뒤다리를 단단히 까놓았던것이다.

《혜민이새끼로구나, 요새끼 네가 깠지? 죽여버리겠다.》

구장의 아들은 무섭게 으르릉거리며 접어들었다. 그러나 혜민이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새까만 눈을 딱 부릅뜨고 다가오는 적수를 노렸다. 마치 닭싸움하듯 화닥닥 달라붙었다가 화닥닥 떨어졌다. 그러다가 《아이구—》 하고 구장의 아들이 비명을 질렀다.

《이새끼, 너 돌멩이로 깠지?》

그래도 혜민이는 말이 없었다. 그의 조그마한 주먹에는 돌멩이가 단단히 쥐여져있었다. 구장의 아들은 겁을 먹고 비실비실했다. 혜민이는 와락 달려들어 상통을 쥐여박아주었다.

《잘한다, 잘한다.》 뜻밖에 어둠속에서 외삼촌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저씨—》 하고 현아가 달려갔다.

《오냐, 혜민이도 이리 오너라. 그깐놈 그만하면 됐다.》

혜민이는 씩씩거리며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씨무룩해서 쥐고있던 돌멩이를 던졌다.

《돌로 깠느냐?》 주태화는 다가가서 아들의 까까머리를 쓸어주며 물었다.

《그 새끼 나보다 큰걸 뭘.》

《그래 잘했다. 그런놈은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깔고앉아야 해. 자, 이거 너한테 상으로 준다. 누나랑 영민이랑 노나먹어라.》

《야— 아가위—》

《아빠, 나 줘—》

현아의 등에서 영민이가 손을 내밀었다.

《그래 영민이도 먹어야지, 자 들어가자. 아주머니는 뭘하니?》

《아주머니는 성났어요.》

현아가 아가위 하나를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고해바쳤다.

《왜?》

《또 술 다 먹고 들어온다고 야단했어요.》

《그래? 하하하. 아닌게아니라 내가 술을 다 먹어버렸다. 하하하, 아저씨가 또 혼나게 됐구나.》

그날밤 안해 순옥이는 남편이 내놓은 돈 90전을 원두쟁이 쓴외보듯 돌아보지도 않고 바느질만 하였다. 책방을 총결산한 나머지가 90전

이라고는 아무래도 믿을수가 없었다. 지게군에게 은전 한잎을 줘버렸기때문에 물감장사가 한근에 3전씩밖에 주지 않더라고 꾸며대는 남편의 지지한 발명에 대해 순옥은 단마디로 잘라버렸다.

《모르겠어요. 콩 한말에 1원30전이예요. 당장 쌀이 떨어졌는데 현아의 옷주제를 좀 보세요. 아이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해질새도 없이 옷이 작아져요. 작은것은 영민이를 해입힌다 해도 다 자란 현아를 학교에 보내야지요.》

주태화는 묵묵히 멀건 밀기울죽을 퍼먹다가 시름없이 아이들의 누데기같은 옷을 바라보며 흐느낌처럼 껄껄 웃었다.

《인간도처에 유청산이라— 허허허.》

이미 눈귀며 입모서리에 가시주름이 박히기 시작한 안해는 아이들의 해진 옷을 널어놓고 가위질을 하다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유순하기 짝이 없는 그 녀자의 커다란 눈에는 무능한 남편에 대한 한량없는 동정과 원망이 함께 어려 가랑가랑 물기가 맺혔다.

6

준엄하던 자연의 표정도 마침내 부드러워졌다.

청명,곡우에 얼음도 미처 풀어지지 않던 사나운 절기가 립하 소만을 지나자 갑자기 달아올랐다. 불같이 거치른 해별이 내리지졌다. 추위에 찢기고 얼어터졌던 대지는 이번에는 드센 더위에 물크러졌다. 메마른 바람이 먼곳에서 먼지와 더위를 싣고 왔다. 그러면서도 새벽과 밤이면 겨울이 되돌아오나싶게 기온이 내려간다. 바쁜 농사철이다. 한창 씨뿌릴 준비를 다그쳐야 할 때 왕청같은 왜군의 식량조달바람에 일이 밀려난 안골사람들은 기가 곤두서서 달릴만큼 바삐 돌아쳤다.

수백정보의 황무지를 일구어놓은데다 10여명의 머슴을 두고 직접 논농사를 하고있는 정희겸이네 논판에서도 철을 따라잡으려고 일손을 다몰아쳤다. 하기는 이 고장 농사란 대범하기 짝이 없어서 고작 물대기전에 풀을 베여버리고 물을 댔다가 벼씨를 뿌리고 첫아지를 칠만할 때 다시 물을 대주면 되는것으로 모내기도 김매기도 없는 농사다. 이렇게 거저 먹다싶이 하는 농사이긴 하지만 워낙 땅이 넓다보니 일손

을 붙이기전에 들판을 바라보면 너무나 엄청난 일감에 어처구니가 없어 하품이 나가는 농사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정희겸은 작년부터 물대기전에 논을 갈아엎게 하였다. 래년부터는 모내기도 하겠다고 벌써부터 떠든다. 이놈의 변덕에 따라 머슴들은 작년부터 빠근한 일감을 걸어안고 10여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손포가 모자라서 바삐 돌아쳤다.

동네 소작농들은 또 제 농사는 밀어놓고 정희겸이네 농사부터 거들어야 하였다.

요즘 목재판은 봄시위에 수렁판이 넘쳐나서 원목을 나를 형편이 못되였다.

며칠 건너 한번씩 량식이나 나르고 이것저것 처소의 뒤치닥거리나 하면 되는 유철에게는 한가한 때가 많았다. 안골에 드나들 구실은 얼마든지 있었다. 유철은 이런 틈을 타서 안골에서의 공작을 더욱 적극화하였다. 일손이 모자라서 애를 태우는 집일을 도와주고 가끔 들일도 거들었다. 그러는 과정에 동네사람들과 차츰 가까와졌다.

오늘은 주인을 정한 홀아비령감이 허리를 다쳐서 정희겸이네 부역공수를 못채운다고 끙끙 앓는바람에 그 일을 맡아나섰다. 그는 정희겸이네 머슴군들 틈에 끼여 하루종일 가대기를 잡고 끝이 없는 논판을 갈았다. 보습날아래 척척 번져지는 굴죽같이 걸직한 흙을 밟으면 어느덧 장딴지가 뻣뻣해지는것도 어깨가 결리는것도 잊어버리고 이런 부드러운 흙의 촉감을 맨발에 느끼며 언젠가 제 땅을 갈아엎을 날의 즐거움을 머리속에 그려보군하였다. 안해는 이미 없다. 안해에게 이러한 땅이 차례져서 아이는 밭머리의 뽕나무그늘에 잠재워놓고 내외가 나란히 씨를 뿌려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것인가? 대대로 농민의 가정에서 태여났건만 아버지도 자기도 이러한 땅을 마음껏 갈고 씨뿌릴 기회는 없었다. 조선사람모두에게 지금은 자유롭게 갈아엎을 한치의 땅도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탑을 잡기에 앞서 무장을 먼저 잡기로 한것이다.…

그러나 몸에 배인 평화적로동에의 갈망으로 하여 그것이 아무리 남의 땅이고 그것이 아무리 공작상의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방편이라 하더라도 유철은 언제나 일 그자체에 저도 모르는 사이 빠져들어가는것이였다.

《와—와— 돌자— 이놈의 말새끼가!》

유철은 어릴 때 머슴을 살면서 말을 수태 먹여는 보았으나 말을 가대기에 메워보기는 처음이라 언제나 말을 몰 때도 소다루듯 얼리였지만 비루먹은데다 채찍에 얻어맞아 눈이 터지고 가죽이 벗겨진 말들은 역을대로

역고 성미가 비뚤어져서 말을 잘 듣지 않았다. 하기는 말새끼도 급할것만 사실이였다. 원간말이라는것은 이가 몇대 안남은 늙다리 조랑말이고 결말은 노새새끼인데 이놈은 일이 몸에 배기전에 쾨부터 늘어나서 원간말이 끌면 따라가고 걸음을 늦추면 제먼저 멎어서는 놈이라 이런것들에게 가대기를 메워 끝없는 들을 다 갈아엎자니 사람은 팔다리보다 목이 먼저 지쳐버리고 말새끼들은 논 한중간에서 자갈을 씹으며 주저앉자고만 들었다.

《여보게 칠성이, 이리 와 땀 좀 들이게. 넨장 말새끼도 급해서 숨을 헐떡거리는군.》

너머편 배미를 갈아나가던 김삼덕이가 어느새 저쪽 두렁에 퍼더앉아 담배를 말며 소리쳤다.

《또 쉬나? 거 그러다가 언제 다 갈겠나?》

옆배미에서 조령감이 버릇처럼 지청구는 대면서도 저 역시 지쳐빠져서 논 한중간에 가대기날을 콱 박아놓고 고동색으로 탄 조글조글한 이마의 땀방울을 훔쳤다.

《세상에 일 다하고 죽는놈 없답데다. 철이 가면 일이 제절로 끝나게 마련이지요.》

삼덕은 늘 듣는 조령감의 청승에 언제나 곱지 않게 대했다. 조령감도 머슴들이 자기를 다소 아니꼬와들 한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조령감으로서는 어떻든 주인댁이 자기에게 특별히 술잔을 따로 권하면서 일을 잘 신칙해달라고 부탁하는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으로서 신의를 저버릴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머슴들에게 자주 잔소리를 하게 되였다. 그러면서도 그자신 비지땀을 함께 흘리며 말새끼들보다 사람이 더 녹는 일판에 섞여있는것만큼 더 보탤 말도 없었고 그저 주인댁과 일군들 사이에 끼여서 이쪽에 가면 이쪽 경우가 딱하고 저쪽에 가면 저쪽 경우에 또 한숨이 지어지는 난처한 립장을 스스로 만들어내군하였다.

조령감이 다른 일군들이 일하는것을 보려고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가는것을 보자 유철은 잠시나마 말을 편안히 쉬우자고 멍에를 벗겨놓고 사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이들 잠재울 뽕나무그늘은 말할것 없고 말을 맬만한 말뚝 하나 없었다.

유철은 말고삐를 끌고 물도랑께로 갔다. 도랑가에도 고삐를 맬만한데라군 없었다. 잠시 둘러보다가 물을 먹으라고 내쳐두고 자기도 발을 잠갔다.

하강일대에 무수히 뻗어내린 지류의 한가닥이 백리허숲 중간을 꿰고 나와 가막골에서부터 숲굽이를 돌아서 벌판으로 흘러들었다. 정희겸은

여기서 10리 가까이나 물도랑을 째서 논을 풀었던것이다.

벌써 한달 가까이 날씨가 가물었는데도 물은 도랑에 찰찰 넘치는데 방금 큰물진 뒤처럼 거품이 부걱부걱하는 황토물이였다. 그러나 발을 잠그니 찌르르하고 서늘한 맛이 뼈속까지 스며든다.

《여보게 삼덕이, 이리 오게, 여기가 시원하네.》

유철은 두손으로 물을 움켜 먼지오른 얼굴에 끼얹어보이며 소리쳤다. 삼덕이가 무겁게 허리를 일으키는것을 보고나서 유철은 푸— 푸— 하고 세면을 한 다음 땀이 번지르르한 말잔등에도 끼얹어주었다. 깜찍하게 꾀만 피우던 노새새끼가 물을 끼얹어주니 시원한지 애꾸가 된 눈을 슴벅거리며 참하게 목덜미를 숙였다.

새까만 얼굴에 뽀얗게 먼지를 들쓴 삼덕은 도랑가에 이르러 말을 씻어주는 유철을 잠시 바라보고 섰더니 무엇이 못마땅한지 침을 탁 뱉고 털썩 주저앉았다.

《세면을 하게, 시원하네.》

유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권하며 목에 걸친 수건으로 물기 번지르르한 얼굴을 닦았다.

《세면하면 시원한줄 뉘 모르리…》

삼덕은 먼산을 바라보며 담배만 뻐끔뻐끔 빨았다. 그러더니 불쑥 입을 열었다.

《흥, 저 꼴을 보게, 먹고 살겠다고…》

정희겸이네 논판이 끝나는 저쪽에 안골농민들이 밭김을 매고있었다. 정갱이만큼씩 치는 강냉이밭에 들어서서 길다란 자루가 달린 호미들을 쥐고 한줄로 늘어서서 김을 매는데 누런 먼지가 뽀얗게 피여올랐다. 뻔뻔한 벌판이기때문에 빤히 바라보이지만 실상 한마장 가까이나 되는 거리라 사람들의 형용은 가려볼수 없었다. 그러나 그 먼지들을 삼키며 악착같이 땅을 뚜지고있는 남녀로소들의 가긍한 정상은 손에 잡힐듯이 똑똑히 느껴졌다.

《자네네 식구도 저기 있겠군.》

유철은 삼덕이가 마음이 편안치 못해하는 까닭을 어렴풋이 짐작하기때문에 은근히 감싸주는 심정으로 말했다.

《있겠지, 70로모도 있고 만삭이 된 녀편네도 있고… 애새끼들도 올망졸망 따라나왔을테지… 그저 몸져누운 아버지만 내놓고 온식구가 저기 나와서 저렇게 전쟁이나 하듯 땅을 뚜지지. 빌어먹을, 삼신할미라는건 정신이 쑥 빠진 할망구지. 이 김삼덕이에게 어찌라고 저렇게

식구들을 덜썩 많이 점지해주었노. …》

삼덕은 울화에 못견디여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을 한바탕 늘어놓더니 갑자기 《아—아—》하고 울음소리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놓고 벌렁 뒤로 나가넘어졌다.

《삼신할미를 탓할게야 있나? 자네가 못사는 까닭이 식구가 많기때문도 아닌데…》

유철은 담배를 말며 조용히 말했다. 삼덕에게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해온 유철은 말머리가 자연스레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했다. 삼덕은 앞으로도 얼마나 가물겠는지 불기우리하게 개여오른 보기만해도 인정머리없어보이는 하늘을 쏘아볼뿐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삼덕이, 신세타령만 해서는 소용이 없네. 내 어제도 말했지만 아무리 식구가 많아도 일만 하면 근심걱정 없이 먹고 입고 자식들 공부도 마음대로 시키고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도 있네.》

유철은 여전히 조용한 투로 말했다. 이제는 삼덕이에게 똑똑히 갈길을 가르쳐줄 때가 되였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참 여보게.》 삼덕은 벌떡 일어났다. 《내 며칠전부터 한번 물어보자던 판인데 거 아라사에 우리도 한번 가보지 않겠나? 가보고 살만하면 아예 눌러앉고 시원치 않다 하더라도 한밑천 잡아서 돌아오면 될것 아닌가? 아무데 가면 이놈의 신세보다 못하기야 하겠나말일세…》

《자네 무슨 그런 쓸개빠진 소리 하는가? 우리가 무엇때문에 남의 나라에 찾아가서 남이 피흘리며 만들어놓은 좋은 제도의 덕을 본단말인가?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눈이 모자라나, 손이 모자라나? 사실은 우리 조선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못사는것은 모두 남과 같이 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고 혁명을 해보겠다는 결심이 적어서 그런거야. 애매한 삼신할미를 건드리지 말고 우리를 못살게 하는 장본인인 왜놈들과 정희겸이 같은 악독한 지주들을 쳐엎을 생각을 해야 하네.》

《허참, 자네 보자보자하니까 이제는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삼덕은 겁이 났는지 아무도 없는 벌판을 휘— 살펴보고나서 말했다.

《사람이 제 밸대로 할수 있는 세상인가? 밸이 난다고 바위를 차다간 제발톱만 빠지지.》

《무엇이 무서워서 자기 밸대로 못한단말인가? 보위단이 무서워서? 그깐놈들 머슴과 소작농들, 부엌데기들이 일시에 들고일어나서 몽둥이고

괭이자루고 손에 손에 쳐들고 들이친다면 그놈들을 단숨에 요정내지 못한단말인가? 현성에 우글거리는 왜놈들도 그렇지. 우리가 안골이요,큰개요,가막골이요 할것없이 모든 농민이 다 들고일어나고 현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열사람이나 백사람이 왜놈 한놈씩만 잡아도 하루나 이틀이면 다 잡아죽일텐데 무엇이 무섭단말인가? 우리 조선으로 말해도 그렇단말일세. 2,000만 동포가 다 들고일어나기만 하면 그까짓 섬오랑캐들이 하상 무엇이겠나? 문제는 그놈들이 무서운데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그놈들의 으름장에 지레 겁을 먹어서 제힘은 못보고 저놈의 힘만 대단한것 같이 알고 싸우려 하지 않는데 있단말일세.》

《허— 참, 말이사 여북 좋은가? 자네 말을 들으면 당장 무슨 수가 날것도 같네만 어디 세상일이 그렇게 밥먹듯 쉽게 되나?》

《못난소리 그만두게. 이미 싸움은 시작되였네. 자네 동만소식 못들었나? **김일성**장군님께서 유격대를 조직하시여 왜놈들을 들고치신다는 이야기도 못들었어?》

유철은 삼덕의 뜨뜨미지근한 태도가 안타깝기도 했지만 제말에 스스로 흥분이 되여와서 열기띤 목소리로 말했다.

《참 그건 어떻게 된 이야긴가? **김일성**장군이란분이 백두산 산천정기가 뭉쳐 태여나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건 나도 모르는 소리네만 사실은 백두산정기도 정기지만 그분께서 우리 조선사람들을 건지시자고 나서신분인것은 사실이지. 내 들으니 그분께서 조선사람들의 살길은 오직 혁명하는 한길밖에 없다고 하셨다네. 말하자면 조선사람모두가 손에 무장을 잡고 왜놈들을 치는 싸움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네.》

유철은 불쑥 말을 끊고 몸을 돌려 삼덕의 손을 덥석 그러잡았다.

《여보게 삼덕이,우리도 이렇게 가만 앉아있을수야 없지 않는가? 보게,여기서도 벌써 용맹한 사람들은 왜놈들을 족치고있네. 현성에서는 왜놈들을 치고 총을 빼앗아냈다네. 또 여기 안골보위단의 장가가 감쪽같이 없어진것도 다 그런 사람들이 한 일일거야. 들으니까 큰개나 가막골에서는 모두 혁명하겠다고 떨쳐나섰다는데 우리 안골에서만 조용하단말일세. 이러다간 우린 천생 못난놈 소리 듣고 한뉘 신수가 궁해서 끝장을 볼거란말일세.》

《그러니 글쎄 그게 아무나 하는노릇인가? 우리같이 무식한 가난뱅이가 하면 무엇을 하겠나?》

삼덕은 안타까운듯이 유철의 손을 밀어내며 서글픈 웃음을 입가에 띠웠다.

《아니야, 그런게 아닐세. 유식한 사람이 따로 없고 또 나라를 찾는 일은 옛날부터 가난한 백성들이 해왔네. 세상에 큰일은 우리같은 가난뱅이가 하기 마련이네. 생각해보게, 부자놈들이란 하나같이 개같은놈들인데 그자들이 뭘 하자니 도대체 한줌도 못되는게 무엇을 하겠나? 그렇지만 가난뱅이들은 많고 또 마음이 깨끗하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난뱅이들에게만 있네. 사람같은것은 가난뱅이뿐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자는 혁명은 가난뱅이들을 위한것이네. 그러니 이것을 누가 해주려니 하고 기다릴수야 없지 않는가?》

유철의 말이 불을 뿜듯이 확확 뿜어져나오자 삼덕은 황홀해서 그의 소박하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인품과 무게가 느껴지는 훤칠한 이마며 빛나는 눈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제쪽에서 유철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여보게 칠성이, 내 진작 물어보고싶었네만 자네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응, 그것만 좀 속시원히 대주게.》

삼덕의 목소리는 간절하였다. 그의 눈매에는 무슨 까닭인지 진정과 함께 정열이 불타고있었다. 유철은 좀 당황하였다. 그러나 인차 진정하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나야 자네와 꼭같은 가난뱅이고 이렇게 이 세상을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난 삼덕이나 조령감이나 쌍가매나 꼭같은 사람이야. 우리는 한편이야, 굳이 말한다면 난 이제는 억울하게 짓밟혀 사는데 견딜수가 없어 싸우러 나선 사람이네. 알겠나? 난 가난뱅이의 자식이고 머슴을 살았고 매를 맞으며 나이를 먹었네. 그리고 지금은 목재판의 말파리를 끄는 마차군이지.》

《그건 나도 짐작하네. 자네가 상일군이라는것을 나도 알아. 그러니 자네가 우리편이라는것도 알고… 그런데 한마디만 하게, 자네 혁명가지?》

유철은 삼덕의 눈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시뿌연 먼지가 앉은 눈섭이 젖어서 움직이지 않고있다. 그속에서 자그마한 강기가 느껴지는 눈이 똑바로 쳐다본다. 두툼한 입술, 바투 붙은 이마, 넙죽하고 뭉툭한 코— 이 모든 평범한 모상이 까맣게 타고 상어가죽처럼 거칠어진 얼굴을 한없이 정답게 해준다. 땅에서 태여나서 땅에서 자라난, 일밖에 모르던 한 농민의 혁명하겠다는 뜨거운 결의가 그 아무런 치장도 없는

얼굴과 몸매를 빛나게 해주었다.

《그렇네, 난 혁명하러 나선 사람이네. 우리 함께 싸워보자구. …》

두사람은 굳게 손을 틀어쥐였다. 조령감이 다시 말채찍 두르는 소리가 날 때까지 두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 사업의 일반적인 방향으로부터 구체적인 공작과업이 주어졌고 반일회를 꾸리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

점심참에 칠성이는 삼덕이와 함께 땀을 들이기 위하여 숲가의 그늘로 갔다. 흰 구름이 둥둥 떠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락엽무지에 등을 대고 누웠다. 서늘한 대지의 부드러운 느낌과 가벼운 피곤으로 해서 눈등이 감겨왔다. 그러나 오늘 또 새로운 동지를 얻게 됐다는 흥분으로 해서 종시 잠은 오지 않았다.

삼덕이 역시 흥분해있었다.

둘이 나란히 누워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무뚝뚝하고 강마른 삼덕이도 이런 때이면 어린애나 다름이 없었다.

《넨장, 그렇게 되면 농사라는것도 해볼만하겠군. 그래도 모두 그렇게 기계로 해버리면 낟알 가꾸는 재미가 없지 않겠나?》

《정 그러면 꽃밭같은것이라도 가꾸어보게나.》

《하긴 그래, 뭐 꽃밭을 못가꾸어도 참을수 있지. 허허허, 참 세상치고는 기막히는 세상이군. 이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된단 말이겠다?…》

두사람이 끝없이 공상을 즐기고있는데 발아래 얄팍한 골짜기에 있는 옹달샘에서 말소리가 울려왔다. 몸을 일으킬것도 없이 고개를 기울여 내려다보니 머리를 치렁치렁 땋아늘인 처녀가 조그마한 항아리에 물을 긷고있다.

《저게 누군가?》

유철은 무심중 놀란 목소리로 물으며 상반신을 일으켰다. 쪽박을 한손에 들고 한손으로는 항아리굽을 훔치며 마치 흘러넘칠가봐 저어하듯 가락맞게 물을 긷고있는 얌전하게 쪼그리고앉은 처녀의 모습이 너무나 낯이 익었다. 물론 낯이 익은것은 그 처녀자체가 아니였다. 처녀는 이 마을에 와서도 처음 보는 얼굴이였다. 갸름하고 흰 얼굴의 옆모습이 드러나보일뿐이였지만 그 날씬한 몸매나 앉음새며 물푸는 청신한 모

습이 낯이 익었다. 그것은 갓 시집 왔을 때의 안해의 모습 그대로였다.
《봉이로군, 저 애가 요즘 우리 령감네와 혼담이 난 강필재령감의 딸이네. 아마 들에 점심을 내온 모양이군.》
삼덕이는 퍼뜩 고개를 돌려보더니 심상하게 대답했다.
한동안 마음속의 충격때문에 멸멸해있던 유철은 강필재로인의 딸이라는 말에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 소리를 듣고 자세히 보니 처녀는 겨우 열일여덟에나 났겠는데 그 행동거지가 하도 얌전하고 품위가 있어서 여간 숙성해보이는게 아니였다. 삼덕이의 말을 들어서 그런지 하얀 목덜미를 절반쯤 가리우고 앞가슴으로 넘긴 머리태며 가냘프게 보일만큼 날씬한 몸매가 어딘가 애틋한 정을 풍기고있었다.
말소리는 옹달샘뒤의 커다란 잣나무그늘에서 울려왔다. 새 밀짚모자를 쓰고 새하얀 바지저고리의 소매며 가랭이를 걷어올린 청년이 한옆에 괭이를 놓고 한손에는 얄팍한 책을 들고 비스듬히 기대앉아있었다.
《너 왜 요즘은 집에 오지 않니?》
청년은 우렁우렁 잘 울리는 시원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동기간사이에 하는 말처럼 허물이 없었다.
봉이는 고개를 외로 꼬고 숙인채 잠자코 물만 긷고있었다.
《네가 나이들더니 이젠 동무의 오래비도 몰라보는구나?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도 너 한번도 우리 집에 안왔지?》
그래도 처녀는 말이 없었다. 물은 이미 항아리에 다 찬 모양 쪽박을 엎어놓고 항아리굽만 연신 훔쳤다.
《죽심이도 네 말을 하는데 네가 시집간다고 해서 그러는 모양이라고 하더라.》
처녀는 퍼뜩 청년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인차 외면하였다. 때마침 내리비치는 해빛에 반사되여 처녀의 시원하게 열린 눈귀에 무엇인가 눈물같은것이 반짝 빛나는듯하였다.
《죽심이 오빠는—》
봉이는 한마디 이렇게 하고는 한참 입술을 감빨더니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죽심이 오빠는 제발 그런 소리 마세요.》
그리고는 항아리를 가볍게 머리우에 올려놓고 발머리로 걸어갔다.
《애 봉이야, 봉이야.》
청년은 책을 쥔 손을 쳐들고 불렀으나 처녀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저게 누구요?》

《응?》

삼덕이는 혼자 드러누워 생각에 잠겨있다가 새삼스럽게 고개를 들어 청년을 바라보았다.

《박병섭로인의 아들이야. 서울서 전문학교 다니다가 달포전에 돌아왔는데 병이 들었다는 말도 있고 바람이 났다는 말도 있네. 하지만 그건 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허튼 소문이고 시체 청년으로서는 여간 착실한 사람이 아니지. 보게, 동네에 오자마자 세루학생복을 벗어던지고 저렇게 농사군행세를 하지 않나? 그래도 언제 봐야 책은 손에서 놓지 않네, 그런 사람이 어디 쉬운가? 한데 요즘 강필재령감네 집에 봉이때문에 걱정거리가 생겼으니 저 박씨네 집안에서도 공론이 많을걸세. 워낙 박병섭령감이 독립군소대장질을 할 때 강필재령감이 그 밑에 있은데다 박병섭로인이 마감까지 총을 놓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동안 저 두현이라는 사람과 딸이 한때 그집에서 자랐다네. 아까 그 봉이라는 애하고 동갑또래 죽심이라는 딸이 그 령감한테 있네. 한데 그집 오누이가 강필재령감네 집에서 얹혀살면서 내내 세아이가 친동기간처럼 자랐거던. 듣자니까 딱히 말은 없었어도 두 집안사이에 두현이와 봉이를 정혼시키자는 생각이 있었다고들 하지만 모를 일이야. 어릴 때는 몰라도 지금이야 두현이가 저렇게 전문학교 학생까지 됐는데 집이 너무 기울어서 성립되기 어려운 터에 덜컥 정희겸이까지 끼여들었으니 그게 성사가 되겠나? 뭐 공연한 소문이겠지.》

칠성은 삼덕의 중얼중얼하는 말소리를 들으며 두현의 거동을 눈여겨보았다.

청년은 봉이가 발머리를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더니 화가 나는듯 책권으로 허공을 내리쳤다. 그리고 벌컥벌컥 책장을 뒤져 읽던 대목을 찾아내여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잠시가 되지 못하여 이번에는 책을 풀밭에 집어던지더니 두팔을 목뒤로 둘러 마주끼고 그대로 쾅하니 땅바닥에 쓰러져누웠다.

《동네에서는 저 사람에 대해 뭐라고 하나?》

《누구? 두현이 말인가? 오이넝쿨에 가지가 열리지 않는다고들 하지. 박병섭령감이 사람이 출중하더니 그 아들도 잘났다는 말이지. 저 사람도 겉보기는 얌전해보이지만 자기 부친을 닮아서 결패가 사납대. 한번 보위단장 윤철목을 닦아세우는것을 보니 보통이 아니야. 그때 무엇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부역에 안나온다고 누구한테 호령

하는것을 저 사람이 본 모양이야. 난 외울수도 없네만 거 무슨 법률이라는것을 풀어대는데 오성대감이 왔다가 울고 가겠더군.》

유철은 묵묵히 담배를 붙여물었다. 어떻게 박두현이와 만날 기회를 만들가 하는 궁리속에 봉이의 애련한 모습이 자꾸 파고들어 생각이 헛갈렸다. 처녀의 순결하고 아련한 모습이 귀결에 얻어들은 흉한 혼담과 관련되여 어쩐지 비극적으로만 그려졌다. 이런 황량한 땅우에 그렇게도 아름다운 자태를 타고난것이 무엇때문엔지 숙명적으로 어떤 기구한 곡절을 빚어낼것만 같았다.

무심히 내려다보니 처녀가 앉아서 물긷던 그 옹달샘주변에는 연보라빛 수선화가 여기저기 피여있었다. 거치른 이 자연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깨끗하고 연약하고 아름다운 그 꽃은 그 역시 이 거치른 세상에 뿌리박고 자라나는 수난의 처녀 봉이를 너무나 방불하게 련상시켰다.

하기는 이 벌판에 수선화는 함부로 발에 밟힐만큼 아무데나 풍성히 피여있었다. 사나운 절기와 거치른 땅에 태여나 억세인 나무들이며 검질긴 잡초와 함께 생명을 다투고있는 그 가냘픈 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봉이와 같은, 삼녀와 같은 녀인들도 얼마든지 많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나갈것 같지 못한 그 꽃도 그 녀인들도 놀랄만큼 억센 생명력을 가지고 무심히 지나쳐버린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만큼 아름답게, 줄기차게 살며 꽃피여있다.

유철은 조용히 일어나 옹달샘가에 내려갔다. 손바닥으로 움켜 맑은 물을 한모금 마신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샘가에 피여난 수선화를 이윽히 들여다보았다.

7

한창 볶아치던 봄절기도 눈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 하지추위까지 지나야 솜옷을 벗는다는 이고장에서는 워낙 사람이 느낄만한 봄과 가을이란 없고 겨울과 여름이 맞닿아있었다. 철은 다만 일에 의해서만 구분되였다. 봄갈이와 씨붙임이 끝나면 여름이였다.

약담배밭에 애벌김을 매고나니 대범하기 짝이 없는 북국농사에 한가한 며칠이 계속되였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일감이 산더미같았다.

칠성은 숲가의 초원으로 마초를 베러 갔다. 요즘 일제군대가 병영을 새로 짓는바람에 현성으로 목재를 날라야 하였다. 그런데 한창 풀이 좋은 이즈막에 또 겨울날 마초를 베지 않으면 안되였다. 현성으로 오르내리는 틈을 타서 쨍쨍한 해별을 맞바로 받으며 나무 한그루 없는 풀밭에 한참 서서 길다란 낫자루를 휘두르고나면 얼굴은 남양토인들처럼 타고 뼈마디는 금시 무너져내릴것처럼 제가닥으로 놀아났다.

그렇게 산더미같이 베여놓은 풀들을 틈틈이 실어들이고 나머지는 가을에 가서 한꺼번에 실어들여야만 하였다.

어느날 칠성이는 강가에서 박두현을 만났다. 두현은 전처럼 밀짚모자를 쓰고 소매와 가랭이를 걷어올린 조선바지저고리차림으로 낚시대를 들고 강가로 걸어갔다.

칠성은 얼른 마차를 목재판에 갖다세우고 낫을 들고 강가로 나왔다. 풀을 베면서 강을 따라 한참 올라가니 아니나다를가 으슥한 수양버들그늘아래 두현이가 홀로 앉아 낚시대를 드리우고있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보니 종대가 연방 곤두박질을 치는데도 그는 본체도 않고 앉아있었다. 무릎우에 책을 놓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있는것이였다.

마침 주변에는 사람그림자도 없었다.

《거,미끼 다 떼우겠습니다. 고기가 달리지 않았습니까?》

칠성이는 낫을 한옆에 놓고 기웃이 물속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두현은 종대를 보기전에 칠성이를 먼저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귀찮다는 표정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며 책을 한옆에 놓고 낚시대를 천천히 쳐들었다.

미끼는 말끔히 따먹고 알낚시만 해별에 반짝하였다. 두현은 씁쓸한 표정으로 낚시대를 쳐들어 옆구리에 놓인 녹쓸고 쭈그러진 깡통에서 지렁이 한마리를 꺼내여 기계적으로 꿰여서는 적당히 물속에 집어던졌다.

풀밭에 놓인 책뚜껑을 얼핏 보니 《국가와 혁명》이였다.

칠성이는 못본체하고 말하였다.

《거 여기 고기는 그런 말지렁이보다는 밥알이 오히려 나은데요.》

《시끄럽게 굴지 마시오. 당신은 누구요?》

두현은 아버지를 닮은 시꺼멓고 수북한 눈섭을 모으고 약간 신경질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난 저 진가네 목재판 마부인 칠성이올시다. 풀베러 나왔지요.》

《그럼 어서 가서 풀이나 베시오.》
《뭐, 이젠 벨만큼 벴어요. 그런데 보아하니 선생님 낚시솜씨가 서툴군요.》
《풀을 다 벴으면 어디 가서 낮잠이나 자시오. 남 고기 잡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야 어디 고기를 잡겠습니까? 보십시오, 또 종대가 저렇게 흔들리는데 채지 않으니…》
《당신 가지 않겠소? 남이 고기 잡든 안잡든 무슨 상관이요?》
《글쎄 선생님, 답답하지 않습니까? 고기는 잡는다고 하면서 책만 보구있으니말입니다.》
칠성이는 일부러 추근추근하게 말을 걸었다. 얼핏 보기에 희고 리지적이면서도 어딘가 신경질적으로 느껴지는 두현이지만 찬찬히 뜯어보니 실상 퍽 부드럽고 순진한데가 느껴졌다. 그러고보면 천성으로 너그럽고 부드러운 성품을 물려받은것이 사나운 세상풍파를 겪으면서 점점 저렇게 얼굴에도 모가 지고 성미도 급해진것이라고 짐작되였다.
《당신 누구요?》
두현은 방금 물은 말을 다시 물었다. 생각에 열중해있다가 얼결에 물어서 금시 대답을 잊어버린 모양이다. 인테리에게 특유한 그 건망증에 칠성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난 칠성이라고 진가네 목재판에서 마부노릇을 하는 사람이지요.》
《진가네 목재판? 흥.》
두현은 새삼스럽게 칠성의 아래우를 훑어보더니 무슨 뜻인지 코방귀를 한번 불고는 책장을 펼쳐들었다.
《내 똑똑히 다시한번 말하겠는데 당신은 어딘가 딴데로 가시오. 만일 당신이 낚시에 미친 사람이라면 이 낚시대를 빌려가도 좋소.》
《그러니 선생님은…》하고 칠성이는 웃으며 말했다.
《낚시대를 드리우고 고기를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어떤 어리석은 옛늙은이처럼 때를 기다리고있는 셈이군요?》
《뭐요?》
두현의 표정은 달라졌다. 그는 칠성이의 웃고있는 얼굴을 찬찬히 쏘아보았다. 칠성이는 말을 이었다.
《선생님, 듣자니 그런 책은 무슨 련애소설같은 책뚜껑을 찢어서

걸을 씌우는게 좋다고들 하더군요. 그러면 순사들은 무식해서 속을 못 알아본다는거지요. 하지만 그대로 들고다니면 요즘은 세월이 얼마간 개명이 돼서 우리같은 무식한 사람들도 레닌이란 이름은 알고있으니 세월을 낚자는 선생님의 낚시질에 훼방을 놓을수도 있단말입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두현은 긴장되여 물었다.

《또 물으십니까? 나는 진가네 목재판에서 마부노릇을 하는 현칠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똑똑히 말하시오. 마부가 무엇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거요? 당신 정체를 밝히시오.》

《정체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예나 이제나 말몰이지요. 한데 선생, 선생의 낚시질은 좀 서툴군요. 낚시란 고기가 미끼를 입에 물고 삼킬것인가 말것인가 망설일 때 제꺽 채야 하는겁니다. 다 삼켜주기를 기다리다가는 억년 떼우고 말지요. 세월을 낚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레닌도 아마 그 책에서 혁명의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데 대해 말한듯한데요.》

두현은 새삼스럽게 사위를 한번 살펴보고 자세를 바로세우며 날카롭게 칠성이를 쏘아보았다.

여차직하면 걷어차서 물속에 처넣자는 잡도리다.

《당신이 누구를 조롱하는거요? 당신이 형사면 형사라고 말하고 정정당당하게 신분을 밝히시오.》

《그러면 선생은 나를 저 물속에 차넣고 뛰자는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렇게는 안될걸요. 이 물은 흐름이 순해서 정 망짝같은 인간이 아니면 헤여나올수 있습니다. 또 형사가 이런 호젓한 초원에서 〈국가와 혁명〉을 읽고있는 건장한 청년과 만나자면 어딘가 매복을 시켜놓고 오는것이고 하다못해 권총 한자루라도 차고오는것이지요.》

두현은 점점 낯빛이 질리면서 무심결에 칠성의 옆구리를 훑어보았다.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나를 체포하기 위해 목재판에 마부로 잠복했단말이요? 난 사실 당신이 말파리를 몰고 다니는것을 몇번 본듯한데… 아니 그런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본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난 믿을수 없소.》

《선생같이 드러내놓고 다니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무엇때문에 군색스레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나는 문자 그대로 마부이니 안심하십시오.》

《그렇다면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서 이렇게 추근추근 달라붙는거요?》

두현의 목소리는 비로소 그 잘 울리는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돌아갔다.

《선생의 낚시질을 좀 훈수해볼가해서지요. 두현동무, 나하고 좀 이야기합시다. 레닌은 그 저서에서 프로레타리아혁명의 기본임무와 프로레타리아정권의 성격을 밝혔습니다. 동무는 그 정권을 낚시로 낚아낼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해방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로력대중의 한사람으로서 동무의 처신에 대해 간참하지 않을수가 없는것입니다.》

두현의 눈은 다시 둥그래졌다. 그는 말을 못하고 정색한 칠성의 얼굴을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칠성이는 잠시 말을 끊고 빙그레 웃었다. 실은 며칠전에 끄지개섬에 탈취한 무기를 가지고 들렸을 때 박두성을 만나 두현에 대한 자료와 그의 기분상태며 희망에 대해서까지 세세히 알고왔던것이다. 칠성이는 말을 이었다.

《동무가 혁명을 찾아 학창을 뛰여나온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동무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큰개나 현성으로 가겠다는 의향도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그닥 좋은 생각이 못됩니다.》

《저 혹시 동지가 유철동지가 아니십니까?》

《그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난 유철일수도 있고 또 현칠성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어떤 립장에서 대해야 하는가 하는것입니다.》

《난 사실 형님에게도 말했지만 여기 와서 한달동안이나 조직을 찾았습니다.》

두현은 흥분되여 바싹 다가앉았다.

《조직을 그런 방법으로 찾기때문에 조직자체가 동무에게 접근하기 곤난한것입니다. 생활의 실천속에서, 혁명의 실천속에서 우리는 서로 검증하고 믿고 련결되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조급하다보니 그렇게 되였습니다.》

두현은 뜻밖이리만큼 솔직하고 담박하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 그리고는 불시에 격해서 말했다.

《그러나 사실 난 안타까왔습니다. 여기와 보니 동네는 거의 반동화되다싶이 했는데다 혁명적기분이란 조금도 없습니다. 정희겸이가 제 세상처럼 미쳐돌아가도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불행이— 불행이 말입니다. 청년들의 앞길을 걸음마다 가로막고있단말입니다. 난 여기서 누구와 이 답답한 가슴을 터놓을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있는데나 하다못해 현성으로라도 가서 한바탕 해보고싶었습니다.》

《왜 여기서는 그것을 못합니까?》

칠성이는 눈을 가늘게 조프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기 말입니까?》하고 두현은 되묻고나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엔 우리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락후한 봉건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륙촌형을 죽일놈이라고 벼르고있습니다. 그런데 나까지 그러고 나서면 우리 집안에 큰 란리가 납니다. 그러면 혁명이고 뭐고 없지요.》

《동무는 우선 동무네 집안, 무엇보다도 먼저 동무의 부친을 교양해야 합니다. 동무의 아버지는 바탕은 좋은데 비뚜루 나가고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혁명의 편으로 끌어당기는것은 동무에게는 2중의 책임이 있습니다.》

칠성의 엄격한 말앞에 두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너무나 당연한 사리와 현실의 난관사이에 끼워 방황하고있는것이였다.

《혁명은…》하고 칠성은 말을 이었다.

《빛나는 결과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과정도 거쳐야 하는것입니다. 지금 숲에서는 한자루 총을 위해서 몇명의 동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동지들의 희생앞에서 동무는 자기 부친을 교양하는것이 힘들고 난처해서 못하겠다는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때문에 나는 더 괴로운것입니다.》

《두현동무.》 하고 칠성은 머리를 숙이고있는 두현의 손을 잡아끌어 억세게 틀어쥐였다.

《해봅시다. 부지런히 낚시대를 쳐드노라면 언젠가는 장강의 숭어도 낚는 때가 있을것입니다. 하나하나 기초적인 일을 해나갑시다. 내 동무의 심경과 고충을 대충 리해합니다. 우리 허심히 터놓고 의견을 나누어봅시다. 그래서 동무의 부친도 저 가련한 봉이도 구원합시다. 두현동무, 한 위대하신분께서 혁명을 하는것이야말로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혁명을 하는것이 사랑이란 말이지요?》

두현은 얼굴에 벌겋게 피가 번져왔다.

그는 잠시후 쭈밋쭈밋하더니 어줍게 말했다.

《저 봉이는 말입니다. 그 애는 내 누이동생이나 같은 앱니다.》

《다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동무가 그 처녀를 정희겸이네 며느리로 들

여보내는데 대해 반대한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응당한것입니다. 그러나 동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만 해서는 봉이는 결국 정희겸이에 의해 짓밟히고 말것입니다. 봉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혁명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것입니다.》

두현은 자기 손을 감싸쥐고 힘을 주는 크고 아귀찬 칠성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꽛꽛하게 못이 박힌 로동속에서 굳어진 그 손 그리고 넓고 시원한 이마와 서늘하게 빛나는 눈, 노닥노닥 기운 토스레를 걸친 이 마차군에게서 오는 뜨거운 인간의 정과 품위 그리고 섬세한 정서와 활달한 식견은 어쩌면 그렇게도 잘 조화되는것일가? 두현은 혁명의 진정한 주인이 로력자대중이라는 말의 참뜻을 비로소 리해한듯 하였다. 자기와 같은 창백한 인테리가 어떤 풍파속에서도 닻을 내리고 정박할수 있는 그러한 계급의 품을 보는듯하였다.

두현은 칠성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세세히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저 이것은 그리 중요한것은 아닙니다만 혹시 동지께서 서울에 계신적이 있지 않습니까? 난 어쩐지 그전에 꼭 만나본듯한 생각이 드는군요.》

《서울에도 가본적이 있지요. 하지만 나를 어디서 봤겠소? 아마 마차 끌고다니는걸 봤을테지요.》

칠성이는 그럴사해서 그런지 자기에게도 두현이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과거를 캐는것이 재미가 없을듯하여 말머리를 돌리고 말았다.

8

자욱한 안개속에 달빛이 무르녹아 안갠지 달빛인지 모를 부드럽고 은은한 젖빛 대기가 천천히 흐르고있었다. 락엽무지우에도 오솔길우에도 그리고 소리없이 가라앉아있는 호수우에도 뿌연 안개와 같은 달빛이 어려있었다. 아득한 밤하늘높이 뻗어올라간 침엽수림은 달빛과 안개에 휘감겨 연록색의 정수리는 무르녹는것 같기도 하고 한창 새 움이 돋는것 같기도 하였다. 밤이슬에 젖은 안개가 무거운듯 봉이는 몸을 옹송그리고 힘

없이 따라왔다. 처녀는 말이 없다. 시름없이 사립문에 기대선것을 눈짓해서 데리고 나와 부채소 늪가에서 한식경이나 앉아있었건만 갈때나 올 때나 두현이의 열정적인 말을 그저 들을만해있었다. 마지못해 질문에 응하는 경우에도 겨우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짧게 한두마디 대답할뿐이였다.

그러한 봉이를 보는것이 두현에게는 안타까왔다. 그럴수록 그는 봉이의 비극을 전혀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묘사하지만 그것이 봉이에게는 오히려 섭섭한지 더 굳게 입을 다무는것이였다.

《이봐 봉이.》 두현은 오솔길옆에 수북이 자란 잡초를 걷어차며 말했다.

《너희들 눈에는 정희겸이가 대단해보이는 모양이지만 그까짓게 무엇이란말인가? 그까짓 지주놈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치울수 있단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딱 잘라 대답하면 돼. 오늘밤이라도 그렇게 말하란말이야.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없이 가만 있으면 그저 부끄러워서 그러는줄 알게 아니야?》

봉이는 피뜩 고개를 들어 반걸음쯤 앞서가는 두현의 옆모습을 곁눈질해보았다. 달빛이 어린 갸름한 봉이의 얼굴엔 희다못해 푸른기가 돌았다. 바르르 입술이 떨리고 눈에 핑하니 눈물이 맺히여 달빛이 반짝 어리였다가 사라졌다.

《글쎄, 말을 좀 해보란말이야. 여기에 울 일이 무엇이 있어? 정희겸이가 말을 안들으면 땅을 떼고 내쫓을가봐 걱정이라면 그건 아무 문제도 없다지 않어? 참 넌 우리 안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통 모른단말이야.》

두현은 봉이의 소리없는 흐느낌을 느끼자 안타까운 나머지 어성을 높였다. 무엇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불행과 맞서 싸울줄 모르는가? 사람이란 이렇게도 약한 존재란말인가?

하기는 두현이자신이 며칠전까지만 해도 안타까이 모대기고 혼자 속으로 눈물짓기도 했으며 마음속 고통에 못이겨 무엇인가 짓마스고 어디로 훌 달아나고싶은 충동에 시달렸었다.

책장속의 진리는 책장속에 남아있고 몽매한 현실은 현실대로 썩어갔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놓은 온갖 죄악과 형구와 구속에 목숨을 갈리우면서도 그것을 절대시하고 거기에 순응하는데 바빠서 그 모든것을 깨끗이 청산해버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소위 선각자란 무리들을

찾아보았지만 그들이 바라는것은 부패한 현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자는것이기보다 현실에 대한 무의미한 욕설과 악다구니와 영탄을 일삼음으로써 선각자연해보자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것 역시 뒤집어 엎어야 할 현실의 한쪼각임을 깨달았을 때 새로운 혁명의 앙양이 시작되였다. 두현은 학교도 선각자들과의 접촉도 다 쥐여뿌리고 하강지구로 찾아왔다. 그러나 여기서 기다리고있는것은 더 한심한, 무저항적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현실이요, 죄악의 란무였다. 울화는 가슴을 태우고 정의감은 심장을 끓어번지게 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두현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기 파멸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듯하였다.

봉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름답게 성숙한 그가 뜻밖이였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 느낀 첫 감정은 안타까움이였다. 무엇때문에 봉이가 정희겸의 병신자식에게 짓밟혀야 하는가？ 그보다 봉이는 무엇때문에 그런 현실의 강요에 대해 눈물을 흘리는 이외에 다른 의사의 표시를 모르는가？ 무엇때문에 주먹을 틀어쥐고 싸우지 못한단말인가？

그러나 싸움이란 간단하지 않다는것을 그자신도 안다. 수많은 혁명가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철창에 청춘을 썩였지만 조선혁명은 암흑의 바다를 건느듯 수많은 위기와 시련을 겪어왔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여 국경일대에서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고계신다는 소문이 전해져오는 지금에 와서도 이 하강의 벽지, 그중에서도 구석진 안골에는 아무런 혁명의 태동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가슴을 치며 모대기였다. 사람을 대하는것을 피하게 됐고 책장을 번지며 그속에서 출로를 열어보자고 애를 썼다.

그런데 뜻밖에도 유철이를 만났다. 일시에 그의 가슴은 환히 열리였다. 더구나 두현을 기쁘게 한것은 유철이가 다름아닌 이태전에 그가 이른바 선각자들을 찾아헤매던 그무렵에 서천호의 집에 나타났던 박진규라는 점이였다. 처음 만났을 때는 당황하고 얼떨떨해서 어디선가 만난듯하다는 막연한 인상밖에 못느끼였으나 그후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때 서천호네 응접실에 나타났을 때부터 벌써 말시비나 일삼던 다른 사회운동자들의 무리들과는 체질적으로 다른것을 느끼게 하던 무산계급출신의 혁명가 박진규에 대한 기억이 선명히 되살아났다. 그것은 유철의 힘찬 말과 륙촌형에게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듬직해보이는 인상과 겹쳐 두현에게 어떤 새로운 출로를 암시해주는듯하였다. 봉이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도 이젠 풀

어볼수 있다. 안골에 혁명이 일어난다면 봉이도 구원될것이다. 그래서 봉이와 만날 용기를 내여 이렇게 밤늦도록 이야기를 하게 된것이였다.

그러나 불행에 옹송그린 처녀의 가슴은 좀체로 열려지지 않았다. 두현은 무엇인가 봉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싶었다. 그러나 정작 만나서 이야기를 꺼내놓고보니 그를 납득시키고 믿게 할만한것이 너무나 적었다. 자기가 느끼는 흥분, 자기가 느끼는 예감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미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것이지 봉이의것은 아니였다. 그리고 봉이에게 다 터놓지 못할 이야기도 있는것이다. 유철이가 어떤 사람이라는것을 봉이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느정도 믿게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말할수는 없었다.

두현은 다시 안타깝게 옥죄여드는 가슴 한쪽에서 불같은 결의를 다졌다.

(이제 두고봐라. 내가 이 안골을 휘딱 뒤집어놓을테다. 혁명이 일어나면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도 눈을 뜨겠지. 봉이도 그때면 구원될것이다.)

문득 봉이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소쩍새가 울었다. 그 처량한 울음소리가 처녀의 슬픈 운명을 예언하는듯하였다.

《죽심이 오빠.》 봉이는 처음으로 먼저 입을 벌렸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꺼져들어가는듯 낮았으나 두현에게는 가슴이 띠끔하도록 피맺히게 울려왔다.

《왜 그래?》

《죽심이 오빠, 난 시집을 가야 해요. 우리 집 형편을 죽심이 오빠도 아시지 않아요. 그러니 날…》

봉이는 고개를 푹 떨구고 한참 어깨를 떨더니 가까스로 이었다.

《날 용서해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거야? 내가 얼마나 말했어? 그건 봉이만 망치는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친다는것을 왜 모르나말야.》

두현은 어망결에 다시 높아지려는 목소리를 가까스로 누르고 숨을 씩씩거렸다. 불행을 앞두고 극도로 민감해진 처녀의 심장은 두현의 뜨거운 마음속을 너무나 잘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랴. 현실은 준엄한것이다. 안개 떠도는 달밤, 오솔길우에 무수히 쏟아놓은 그 뜨거운 호소와 눈물, 다감한 속삭임과 한숨을 노랑돈 한푼보다도 결코 비싸게 쳐주지 않는 너무나 타산적인 현실인것이다.

두현은 억이 막혀 부르짖었다.

《봉이야, 우리는 혁명을 해야 한다. 한시바삐 저 더러운놈들을 쳐엎어야 우리의 살길이 열린다.》

그러나 처녀는 다시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묵묵히 오솔길을 걸었다.

휘영청 푸른 달빛이 안개에 무르녹아 숲은 갈수록 아름다왔다. 동네에서 개짖는 소리가 들리여왔다. 두사람은 더는 할말을 잊어버리고 어떤 무서운 심연속을 건듯이 아름다운 밤을 말없이 걸어갔다.

9

김삼덕은 국문이나 겨우 깨친 사람이였다. 이와는 달리 박두현은 식자는 넉넉하고 리론은 많이 알지만 실제투쟁에 대해서는 아는것이 없었다. 유철은 하루밤 종이 한장을 가지고 나가 두현을 만나서 삐라를 여라문장 쓰라는 과업을 주었다. 삐라내용은 이미 큰개조직에서 토의된것이였다. 첫상봉때부터 무척 흥분하여 큰 과업을 기다리고있던 두현은 처음 그다닥 달가와하지 않는 눈치면서도 정성들여 시킨대로 써왔다. 김삼덕에게 그것을 붙일 과업을 주었다. 붙일곳과 붙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몰래 따라다니며 뒤를 봐주었다. 삐라는 안골동네의 세 지주네 집 대문과 담벽을 비롯하여 눈에 잘 뜨이는 골목굽이, 우물가에 나붙었다. 동네는 술렁거렸다.

《이거 우리 동네에도 혁명가가 있는 모양이군.》

《무슨 일이 나기는 날 모양이다.》

《아무렴, 왜놈들과 싸워야지. 그냥 가만있을수야 있나. …》

《한데 이게 대체 누가 한 일일가?》

한편 정희겸은 우들우들 떨더니 두번째 삐라가 또 나붙자 일체 바깥출입을 끊어버리고말았다. 보위단들은 순찰을 돌기를 꺼려하였다.

삼덕은 신이 나서 삐라를 더 요구하였다. 두현이도 조직적인 투쟁이 가지는 큰 힘과 의의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고 솔직하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더 큰 일, 더 큰 싸움을 벌리자고 졸랐다.

하현달이 기울어져가는 어느 달밤이였다.

백리허의 자작나무숲속에서 안골의 반일회지부가 결성되였다. 이날 큰개에서 강성재와 박두성이 나와서 김삼덕과 박두현을 정식으로

반일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이어 안골의 반일회지부를 조직하였다. 지부장으로는 김삼덕이가 선거되였다. 일반적인 정세보고가 있었고 하강일대의 혁명정세가 이야기되였다. 그리고 앞으로 반일회지부가 주동이 되여 안골에서 혁명을 전진시킬데 대한 대책이 토의되였다. 박두현은 안골의 첨예한 상태를 격분에 차서 말하면서 여기서 여태 뭣들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지금 동만에서는 벌써 근거지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데 이건 굼벵이들처럼 뭘 꾸물꾸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어제도 유철동지로부터 신중한 행동을 하라는 충고를 받았는데 사실 랭정하게 생각해봅시다. 〈신중하게 행동하라〉 이 말을 과연 누가 좋아했는가? 그것은 바로 비겁한자들이 좋아했단말입니다. 야학을 내오자는 의견들은 물론 좋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학을 차려가지고 가나다라를 가르쳐서 혁명을 하자고 든다면 이것이 과연 혁명적인 방법이겠는가? 그렇다면 어찌하여 수많은 교육받은 사람들을 버리고 교육 못받은 무산자들속에서 굳이 혁명하자고 들 필요가 있는가?》

《두현아?》

박두성이 소리쳤다.

《넌 뭘 안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말이 많으냐? 잠자코 시키는 일이나 똑똑히 해. 너도 지식분자 흉내냈다간 다리갱이를 분질러놓을테다!》

《회의에서 발언하는것은 자유롭습니다.》 유철은 침착하게 말했다.

《박두성동무도 앞으로 회의나 사업토의에서는 비록 형제간이라 하더라도 동지적립장에서 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현동무는 아직 젊은 혈기에 너무 조급해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오늘 군중을 선동해서 래일 쏘베트를 선포할것처럼 생각한다면 아주 큰 잘못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자기의 한목숨을 내댄 싸움일뿐아니라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고 일제 강도배들과 판가리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만큼 감옥도 교수대도 총칼도 뚫고 기어이 혁명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혁명에서 승리하자면 어떤 시련앞에서도 굽히지 않을 혁명의 핵심이 있어야 하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진 투사들의 무장대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것들을 기분주의적으로 하루이틀에 만들어내려니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우리 혁명이 아무리 간고하고 장기적이라 할지라도 기어코 우리 힘으로 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래일 동네한복판에 군중을 모아놓고 선동연설을 해서 군중이 〈혁명 만세〉를 부른다면 반동들은 박수를 치고있지는 않을것입니다. 박두현동무, 책임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두현은 간단히 굽히려들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기어코 뻗댈만한 명확한 주장이 있는것도 아니였다. 그는 모든것이 질풍처럼 내달리기를 바랐다. 원쑤들이 벌벌 떨게 무엇인가 왁—왁 끓는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유철은 부드럽게 타이르면서도 장차 그가 사업에서 무슨 일인가 꼭 저지를것만 같은 예감이 들어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두현에게 선전사업 특히 청소년과의 사업을 분공하고나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그는 회의를 끝낸 다음에 따로 두현을 불러 장시간 주의를 주었다.

삼덕이와 두현이를 먼저 돌려보내고 박두성과 강성재를 통해 그간 큰개에서의 사업정형을 알아보았다. 김익보도 로채숙이도 열성적으로 사업하고있으며 무장대사업도 기본적으로 순조롭게 돼가나 장차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막연하다는 말들을 하였다.

《준비를 빨리 다그쳐야겠소. **김일성**동지께서 이미 무장투쟁을 전개하셨으니 우리는 한시바삐 그이를 보위해야겠소. 한시바삐 근거지를 꾸리고 한편으로는 무장을 준비해야겠소. 이 사업이 아직도 소극적으로 진행되고있소. 보위단의 장가를 처단한것은 잘했소. 그러나 이제 생각해보니 그저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치운것은 교양적가치가 적은것 같소. 그놈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러한 반인민적인 행동을 하는자는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된다는것을 밝혀야 할것 같소. 그래야 반동들이 보고 약간이나마 교훈을 찾을수도 있을것이요. 무장탈취공작을 활발히 합시다. 소년선봉대원들도 이런 일에 나설수 있을거요. 그리고 반일회에서는 호제회사업을 강하게 틀어쥐고 혁명가들의 가정을 잘 돌봐줘서 그들이 가족에 대한 근심걱정을 안하고 혁명에 전념할수 있도록 해야겠소. …》

헤여질 때 박두성은 유철에게 자기 동생이 암만해도 성미가 순하지 않아서 군중공작을 할것 같지 못한데 차라리 숲속으로 데리고 가는것이 어떻겠느냐고 은근히 의견을 물었다. 유철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박두성동무가 오늘 륙촌동생의 급한 성미를 걱정하게 됐는데 그 동무라고 그러한 때가 없겠소? 일없소. 두현동무도 실천활동을 하는 가운데 점점 조직적으로 단련되면 침착해질거요, 허허허.》

《고맙수다, 유철동지. 잘 돌봐주십시오. 실은 그애 출신이 나쁘다

고 꺼림직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속으로 은근히 걱정이우다.》
박두성은 웃지도 않고 심중한 어조로 말했다.
《그 동무 출신이 어쨌단말이요? 말이 자작농이지 중농도 못되는 가난뱅이인데다 아버지는 반일적인 기분을 농후하게 가진 량심적인 민족주의자가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싸워나갈 충분한 계급적토대를 가지고있습니다. 알아보니 선달에 뽑힌것도 할아버지라면서요?》
《난 말이 륙촌이지 그 집 래력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어쨌든 그애가 전문학교에 다니면서 얼떨떨한 책에서 맑스주의를 배운 모양이고 행세식맑스주의 영향도 적잖이 입었을거우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기도 한 눈치고… 그러니 이놈이 잡색물이 들었을거란말입니다. 내 언젠가는 5촌아재비때문에 속이 썩더니 오늘은 륙촌동생놈때문에 또 머리가 복잡하단말입니다.》
《허허허,박두성동무도 체통은 큼직한데 속은 좁구만. 다 일없소. 혁명이란 위대한 학교요. 만일 그가 진정으로 인민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훌륭한 혁명가로 될수가 있소. 그러나 반대로 그가 아무리 열성을 가장해도 바탕에 이것이 없다면 그런자는 종내 비뚜로 달아나고말거요. 그러니 공연한 걱정 말고 무장대준비나 빨리 다그치시오. 내가 앞으로 목재판과 안골에서도 우수한 사람들을 골라서 보내겠소.》

10

야학문제가 쉽게 풀린것은 유철이 자신에게도 뜻밖이였다.
처음에 그는 동네 사랑방으로 되다싶이한 박병섭의 집에 다녔다. 박병섭은 큰개에서 건너올 때 특별히 이렇다할 목적은 없었지만 어디에 가나 사람들이 꾀는 집안이라 식솔과는 관계없이 들썩 크게 집을 지었다. 대청도 두간이나 되게 놓고 두간짜리 사랑도 꾸렸다. 식구는 원래 단출한 집안이였다. 독립군으로 떠돌아다니는 사이 안해는 단산을 해버려서 두현이를 맏이로 그 밑에 딸 죽심이가 있을뿐이였다. 두현이가 돌아오기전까지는 집안이 너무 적적해서 동생네 식구들을 불러들여 살림을 시키고 로인자신은 오히려 손님처럼 사랑방을 차지하고

집안일은 돌보지도 않았다.

안골사람들은 자연 박병섭의 사랑방을 동네 도회청쯤으로 알게 되였다.

유철은 처음에 마을사람들과 낯도 익힐겸 박병섭이네 사랑방에 짚단을 추켜들고 찾아가서는 마차에 쓸 바를 드리며 밤늦도록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따금 말참네도 하였다.

병섭로인은 매일밤같이 찾아와서 공손히 인사를 하고 동네사람들의 걱정에 대해 그럴듯한 훈수도 들군하는 유철을 유심히 살피는 눈치였으나 따로 말을 걸지는 않았다.

하루는 사랑방에 갔더니 방 한쪽구석에 책가위가 다 떨어진 전책 한권이 나딩굴어있었다.

앞뒤를 뒤적거려보니 《임진록》이였다.

유철은 짚단을 한옆으로 밀어놓고 바싹 등잔불결에 앉아 책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저 저같은 까막눈이가 호기심에 끌려 그러려니 생각하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유철이가 목을 가다듬고 은근한 청으로 소리를 내여 읽기 시작하자 모두 눈이 둥그래졌다.

《…왼쑤들은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베이니 무고한 백성들의 주검이 산같이 쌓이고 선혈이 내물을 이루었다. 홍윤관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왜적과 마주 싸우다가 먼저 총칼에 맞아죽고 나머지 군사들도 원체 많은 적병을 당할수 없어 모두 쓰러지니 송상현이 피치 못할것을 각오하고 갑옷우에 조복을 덮어입고 하늘을 우러러 〈저희들이 나라에 불충하와 란시에 변방을 지켰다가 도적을 막지 못하고 오늘날 도적의 손에 죽사오니 청천백일은 굽어살피소서.〉하고 통곡하였다.》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일손을 멈추고 서로 주고받던 말소리도 뚝 그치고 오직 놀라운 눈길로 유철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한대목을 마저 읽고 숨을 돌리려 하자 저마끔 떠들어댔다.

《아니,저 사람 칠성이가 책을 읽는군. 허,거참!》

치복이 아버지가 물방아에 끼여 잘렸다는 몽탁한 엄지손가락끝으로 잎담배를 바스러뜨리며 어처구니없는듯이 말했다.

《거 전년에 큰개 강성재가 읽던 책이 아닌가배? 읽을 사람이 없어 놀던 책인데 주인을 만났군.》

박병섭로인의 동생 박윤섭이 한마디 했다. 그는 형과는 판판 달리 몸집도 좀상스러운데다 위인이 다소 모자란다는 소리를 듣지만 일에서

는 실농군이였다. 평생에 일밖에 락이라고 모르는 윤섭은 옛이야기라면 빡하고 접어들었다.

《칠성이 이 사람아, 자네가 글을 어떻게 아나? 넙적글도 좀 읽나?》

강필재가 은근히 물었다.

《허허허, 저같은게 넙적글을 어떻게 아나요? 제가 저 간도에 있을 때 동네마다 야학이 있었지요. 동무들이 가자고 졸라서 멋도 모르고 몇달 따라다녔을뿐인데요. 한데 공부한다는게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꼭 높은 산을 올라가는것 같아요.》

《여북하면 옛날 농사군이 하도 글읽는데 혼이 나서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이놈의 소 정 말듣지 않으면 망건 씌우고 행전 치고 꿇어앉혀 천자를 읽힐라!〉 했다지 않아. 거 사람마다 하는 놀음이 못돼.》

박윤섭이 말했다.

《하지만 힘드는 산이라도 올라가놓으면 가슴이 후련하고 눈앞이 트이지요. 글이라는것도 그런 재미로 읽는가봅니다.》

《어험 어험, 거 쓸데없는 소리들 말구 책읽는 소리나 좀 듣게. 거 첫대목을 들으니 그게 동래부사 송상현의 이야기렸다— 나라를 짓밟힌 백성의 마음이 고금이 따로 없군. 이 사람, 마저 읽게.》

박병섭로인이 목소리를 가볍게 떨며 재촉을 했다.

《네, 읽는거야 뭐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 송상현이 통곡하는데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그 송상현인가 하는 사람이 대체 무슨 사람인지 알아야 우리도 말귀를 새겨들을게 아닌가배?》

김치복이 아버지 김득춘이가 몽당엄지손가락으로 담배대를 꾹꾹 누르며 또 말참견을 하였다.

유철은 일부러 난색을 지으며 말했다.

《이거 책이 다 떨어져서 앞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거, 선다님께서 좀 말씀해주시지요.》

《사람들이 무식하다구야, 아, 제 나라 충신들의 이름도 모르고야 어떻게 사람구실을 한단말인가? 그게 보아하니 〈임진록〉이란 책일세그려. 그게 저 임진년에 처음 오랑캐들이 우리 나라를 쳐들어왔을때 겪던 이야기라, 그가운데 홍의장군 곽재우 이야기도 나오고 저 유명한 사명당 이야기도 나오지. 그건 이따 들으면 알것 아닌가?》

《아니, 사명당 이야기가 여기에 나온단말이요?》

김득춘은 사뭇 놀라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럼, 어서 좀 들읍시다. 나도 사명당 이야기는 좀 알지요. 그 사람이 중인데 금강산에서 도를 닦다가…》

《허… 이것 보게.》

강필재가 득춘의 무릎을 신날을 꿴 발끝으로 건드리며 핀잔을 주었다.

《자네가 가만 보니 큰 훼방군이군. 정 이러겠으면 집으로 돌아가게. 자네바람에 이야기판이 다 깨지겠어.》

《형님은 왜 또 날 가지구 야단이시오. 나 참, 나만 보면 괜히 쌍지팽이를 들고 나선다니까.》

《어험 어험.》

박병섭로인이 큰기침을 깇어서야 장내가 겨우 진정되였다.

그러나 유철이가 다음 대목을 겨우 한줄 읽자마자 김득춘이 또 무릎을 비집고 앞으로 나왔다.

《가만,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 했지? 그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였다는 그 사람말이여. 그 사람이 약손가락을 깨물었다나 엄지가락을 깨물었다나?》

《득춘이 이 사람, 래일부터 다시는 내 집에 출입을 말게. 사람이 주책이 없어도 분수가 있지. 나라가 란을 당해 충의지사들이 목숨을 바치는 대목에 언감 그따위 희롱의 말을 일삼는단말인가?》

박병섭이 노해서 추상같이 소리쳤다.

《원, 나 참. 말도 못하겠군.》

김득춘은 찔끔해서 비로소 뒤전으로 물러났다.

《〈다시 무명지를 깨물어서 피를 내여 쥐였던 부채에다〉…》하고 유철은 다음 대목을 읽었다.

《…〈불효자 상현은 나라를 위하여 변방을 지켰다가 왜적을 만나 부모를 다시 보지 못하옵고 오늘날 영결하오니 천지가 아득하여이다. 바라옵건대 부모님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임진 4월… 불효자 상현은 영결하나이다.〉라고 쓰기를 마친후에 부채를 봉하여…》

박선달네 사랑방에서 칠성이가 전책을 읽는다는 소문이 쫙 퍼져 며칠후부터는 두간 사랑방이 좁게 되였다.

유철이 책을 읽다가 두간두간 쉬는참을 만들어놓으면 박병섭이 강개한 목소리로 책속에 나오는 의병장들이며 장군들의 이야기를 빌어

오늘도 왜놈을 나라에 들여놓고 이렇게 앉아있으니 어찌 푸른 하늘과 밝은 해를 바라볼수 있느냐고 개탄하고는 스스로 꾸짖기를 마지않았다. 그런 때를 타서 유철은 맞장구를 치면서 일제를 쳐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자면 조선사람이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뭉쳐야 하리라고 말했다.

한편 박두현은 가끔 사랑방에 나타나서 야학을 내오자고 말을 비쳤다. 동네사람들은 우선 박선달네 사랑방이 비좁아서 이야기를 다 들을수 없다는것때문에 흥미를 느꼈고 또 칠성이가 야학을 몇달 다녀서 저렇게 책을 줄줄 내려읽는다는데 대해 흥미를 느꼈다.

박병섭로인도 아들의 말을 그럴상하게 들었다.

아들이 공부를 중단하고 온것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라는것이 통털어 왜놈들의 교육이라는바람에 속으로 미타하게 생각하던차에 마침 제먼저 차던지고 온것이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높은 교육까지 받은 자식이 손발이 멀쩡해가지고 빈둥빈둥 노는것은 저으기 속을 언짢게 했다. 그래도 자식을 공부시켜놓으면 무엇인가 큰 일을 해주려니 하고 기대해왔던만큼 시절이 점점 수상해지니 어디 가서 벼슬을 살랄수도 없고 그렇다고 큰개의 젊은것들 모양으로 밀려다니는것이 마땅치도 않아 은근히 걱정스럽던차라 아들이 야학이나마 벌려서 세상일을 보겠다는데는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문제는 야학방을 꾸리는것이요, 다음은 보위단이나 당국에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지금은 한창 농사철이라 새로 집을 지을수는 없었다. 그래 공론에 오른것이 동네 한끝에 빈채로 쓰러져가는 정희겸이네 농막이였다. 벽을 터쳐 통간으로 만들고 부엌쪽을 넓히면 네간은 되니 그것을 손질해서 쓰면 될법한데 그것 역시 정희겸의 승인을 얻어야 하였다. 이래저래 정희겸이와의 담판문제가 제기되여 모든 사람이 박병섭로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병섭은 이 문제만은 딱 잘라 거절했다. 내가 바로 현장이나 성장을 만나러 간다면 모르거니와 그까짓 쥐새끼같은놈한테 크고작고간에 청원을 하러 갈수는 없다는것이였다. 이번에는 강필재에게 지목이 되였으나 그 역시 딸 봉이의 혼사말때문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결이 난 박두현이 스스로 일을 말아나섰다. 그러나 그가 단단히 결심을 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정희겸이와의 첫대면은 싱겁게 끝이 나고말았다.

정희겸이 대뜸 전번 소작인들을 부역에 끌어냈을 때 윤철목이와의 사이에 있었던 말썽을 끄집어내여 욕설을 퍼붓는바람에 야학문제는 꺼내

듯마듯 뒤전으로 밀려나고 한바탕 말싸움을 하고말았던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이튿날 정희겸이 스스로 삼덕이를 보내여 두현을 청해들여서는 야학방으로 자기 농막을 쓰는것을 승인했을뿐만아니라 집을 손질하는데 필요한 재목을 자기가 얼마간 대줄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

유철은 두현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하루밤사이에 정희겸의 마음이 이렇게 뒤집힌 까닭이 어데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야 모를 일이였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간밤에 그놈의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으리라는 사실이였다.

생각에 지친 유철은 혼자 속으로 다졌다. 정희겸이가 무슨 꿍꿍이속으로 야학을 승인했든지간에 좋다. 혹시 저놈이 제 목적이 따로 있어서 그런 변덕을 부렸다 하더라도 그때문에 이쪽에서 소극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 좌우간 부딪쳐볼판이다.

그날밤 박병섭로인의 사랑방에서는 북평사 정문부가 의병을 일으켜 회령을 회복하고 적장 경감노를 쏘아죽이는 대목까지 《임진록》을 읽고나서 야학방을 꾸릴데 대한 의논을 벌렸다.

×

그전날 정희겸은 아끼시마란놈이 나타나자 저승에서 제 조상이나 만난것만치 기뻐서 그지간에 동네에서 벌어진 일들을 세세히 이야기했다. 대문간에 나붙었던 삐라도 내다바치고 요즘 또 젊은놈들이 야학을 하겠다고 떠든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겸하여 군량조달때문에 부역을 좀 시키재도 여간 말째게 구는것이 아니라고 하소연도 하였다.

아끼시마는 정희겸이 내미는 아편을 빨면서 가슴츠레 눈을 까부리고 듣고있더니 랭소를 띠웠다.

《령감, 래일이나 모레 현으로 한번 나오시오. 령감이 암만해도 공산당이 뭔지 잘 모르는 모양이요. 쪼그만 아이새끼도 공산주의물이 들기만 하면 하루에 고추가루물을 여섯초롱씩 먹여도 항복을 안한단말이요. 그까짓 박병섭따위 독립군 같은줄 아오?》

정희겸은 연방 부들부채로 아끼시마를 부쳐주며 돼지털같은 수염이 시꺼멓게 덮인 미련한 상통을 이지러뜨렸다.

《거 내가 왜 빨갱이를 모르겠소? 그놈들때문에 내가 좀 성화를 받는지 아시오?》

정희겸이 어설프게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자 아끼시마는 로골적으로 코웃음을 치고는 말했다.

《령감, 잔소리 말고 박병섭령감의 하는 일을 도와주시오.》

《아니, 박병섭이가 누군줄 알고 그런 소리 하오? 그 늙다리가 일본을 반대해서 독립군노릇을 하던 령감이란말이요. 지금도 그놈의 늙다리가 일본에 대해서 좀 험구를 하는줄 아시오?》

《내가 그걸 모를줄 아는가? 정말 령감은 미련하군. 내 말을 좀 듣소. 지금 령감이나 우리의 원쑤는 공산당이요. 그런데 공산당이 왜 안골에만은 부접을 못하는줄 아오? 그것은 이 동네에 박병섭이가 있기때문이요. 박병섭령감은 우리만 못지않게 빨갱이를 미워하오. 우리가 빨갱이 손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데는 이런 힘을 길러야 하오. 박병섭의 세력이 백리허에 크게 내뻗치면 공산당은 제 발판을 잃는단 말이요. 지금 우에서도 이런 조선사람들의 세력으로 공산주의세력을 누를데 대한 계획이 추진되고있소. 사실 박병섭이같은것이 대일본제국을 반대한다고 떠들어봤자 그게 무슨 맥을 추겠소. 하지만 공산주의는 그런 류가 아니요. 그러니 차라리 그 령감의 등을 밀어 공산주의를 막는게 훨씬 유리하단말이요. 안골에서 공산주의를 막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소. 노무라각하께서도 나에게 이러한 구상을 말했소. 그러니 령감은 잔말 말고 박병섭의 세력을 키워주란말이요. 박병섭이네 패가 야학을 하겠다면 그것도 좋소. 안골의 힘이 커야 큰개나 가막골하고 대결을 할수가 있소. 다만 문제는 여기에 색다른놈들이 끼여들지 못하게 하는것이요. 내가 보건대 여기서 나붙었다는 삐라라는것은 현성이나 큰개에 나붙는 삐라와 내용이 꼭같소. 그러니 이것은 안골에서 누가 한것이기보다는 역시 큰개의 빨갱이들이 한것이기 쉽소. 내 윤철목이한테도 이야기하였지만 경비를 잘 보고 순찰을 잘 돌아야 하겠소. 윤철목이는 박병섭의 아들과 진가네 목재판 마부가 의심스럽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알아보겠소. 필요하다면 그까짓놈을 한둘 없애치우는것은 간단하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안골의 힘을 부쩍 키우는거요. 이것이 큰개 빨갱이를 누르는 제일 첩경이요.》

그러면서 아끼시마는 정희겸의 귀를 바싹 잡아당기고 속삭였다.

《그런데 령감, 야학을 그냥 내맡겨서는 안되오. 박병섭이 세력을 키우면서도 거기에 공산주의물이 들지 않게 미리 손을 써야 하오. 그 야학에 누구 믿을만한 사람을 들여보냅시다. 어수룩한 사람 하나 없소?

그속에 빨갱이가 끼여있다면 제꺽 알아내서 뽑아던져야 한단말이요. 그러니 제때에 냄새를 맡을수 있는 사냥개를 내다세워야 하오.》

정희겸은 비로소 고개를 끄떡거렸다. 역시 일본사람의 수가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입가에 히죽이 웃음이 떠올랐다.

《범새끼를 잡자면 범의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오그려?》

《허허허, 령감이 이럴 때는 꽤 문자를 쓸줄 알거던. 내가 야학을 시키라는 뜻을 이제사 알았군. 그래 누구를 들여보내는것이 좋겠소?》

《가만, 우리 집에 좋은 령감이 하나 있소. 이 령감이 멋도 모르고 남들이 이야기를 들으러 간다니까 저도 이야기책에 팔려서 쫓아다니는데 내가 잘 구슬려보겠소.》

그날밤, 정희겸은 조령감을 불러 전에없이 술상을 마주하고 손수 술을 쳐가면서 은근히 야학에 가서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듣던지 류다른 공론을 듣게 되면 자기도 심심풀이를 좀 하게 전해주되 이것은 남이 알면 체면이 꺾이니 각별히 주의해서 비밀히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였다.

11

새벽같이 백리허숲 기슭에서 나팔소리가 울려퍼진다. 나팔소리가 채 그치기전에 동네아이들은 새벽어둠속을 달려나간다. 바지춤을 움켜쥐고 날이 끊어진 짚신을 질질 끌며 달려가는놈이 있는가 하면 이웃집 아이의 이름을 연방 불러대며 종주먹을 부르쥐고 달리는놈도 있다. 동생의 손목을 끌고 가는 계집애도 있다.

아동단원들은 숲가에서 두현의 지도하에 체조도 하고 모임도 가진다. 이렇게 안골동네의 하루가 시작된다.

숲기슭에서 부는 두현의 나팔소리는 아이들뿐아니라 어른들도 다 깨워놓는다. 지주네 집 머슴이나 부엌데기들도 이 나팔소리에 깨여났고 지어 보위단까지도 그것을 기상신호로 삼았다. 곰보는 처음에 나팔을 못불게 까박을 붙였지만 아무리 을러도 박두현이 수그러들지 않는데다 삐라는 계속 나붙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어디서 일제군대가 또 습격을 당했다는둥, 산림경찰이 한꺼번에 세놈이나 총을 빼앗겼다는둥, 그런가 하면 어떤 순경놈은 강가에서 처단당했다는데

이 가슴에 큼직하게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라고 쓴 종이쪽지가 붙어있더라는둥 듣기만 해도 어깨가 으시시해지는것들이다. 함부로 웩웩거리기가 저으기 삼가졌다.

할미령너머 간도쪽에서 작년봄에 유격대가 일어나더니 그 기세가 어느새 불갈이 무섭게 번져 동만천지를 휩쓸고있다는 소식을 윤철목이도 들었다. 그런데 올봄에 백리허목재판으로 가던 두 경관이 무기와 함께 감쪽같이 행방불명이 된 사건을 시초로 이 하강일대에도 심상치 못한 조짐이 련달아 나타났다. 행방불명이 된 경관들은 그후 근 달반이나 끈 대대적인 수색끝에 겨우 강속에서 물고기가 다 파먹다 남긴 시체를 건져냈는데 그 사건을 미처 결속짓기도전에 또 보위단의 장가실종사건을 비롯하여 미처 눈도 뜰새 없이 새라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끼시마는 말할것 없고 현이며 성 그리고 군과 헌병의 한다하는 수완가들이 떨쳐나서서 눈을 밝히고 돌아가지만 이렇다할 결과는 없었다.

윤철목은 기분이 나빴다. **김일성**장군의 유격대가 여기까지 쳐들어온것이나 아닌가 하는 무섭증이 무시로 머리를 무겁게 눌렀다. 그는 때때로 제 목덜미를 쓸어보는 버릇이 생겼고 호젓한곳을 지날 때면 얼결에 뒤를 돌아보군하였다.

그럴수록 그는 술을 더 자주 들이켰다. 그리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공포의 그림자를 쫓으려고 애썼다. 나팔소리도 그렇고 요즘 동네에서 술렁거리는것이 장히 상서롭지 못하다는것을 못느끼는것도 아니지만 윤철목은 억지로 그런것들이 특별히 위험한것은 아니고 그저 젊은것들이 모여서 심심풀이로 아무데서나 흔히 하는 미친 지랄들이라고 억지로 자기를 납득시키려 하였다. 아끼시마의 말도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좋은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귀도 나팔소리에 그만 습관이 되여버렸다.

저녁이면 새로 동네 한끝에 지은 야학방에서 종을 친다. 그러면 하루일을 끝마친 젊은이들이 피곤도 잊고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모여든다. 동네는 전에없이 활기를 띠여갔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들썩하게 몰켜다니면 일이 밀릴것 같은데 실상 야학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품앗이가 더 잘되고 모두 신이 나서 일자리를 더 많이 냈다. 늙은이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못했다. 다만 과년한 처녀들과 젊은 녀인들이 남정들과 함께 섭쓸려서 공부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모두 난색을 지었다. 동네가 망할 징조라고 혀를 차는 늙은이들도 있었다. 강필

재로인은 한사코 자기 딸을 내놓지 않았을뿐아니라 집안의 젊은것들이 나가는것조차 찾아다니며 못하게 말렸다.

그러나 박병섭로인은 이 점에 있어서는 매우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였다. 그는 독립군시절에 용감한 녀자들을 많이 보아온 탓도 있지만 지금 동네에서 일을 주관하는것이 자기 아들 두현이라는것때문에 피줄이 켕겨서도 그런 흠을 캐낼 립장이 못되였다. 반만년겨레의 력사에 다시 없는 치욕의 자국을 남겨놓은 그 한많은 경술년으로부터 민족의 원한을 풀고 국운을 회복해보자고 의병으로 나서서 근 10년을 총을 잡고 싸워온 그였다. 뜻은 이루지 못하고 나라의 치욕은 더욱 깊어지는데 기개만 안타까이 남아 이 백리허에서 그래도 나라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모대기던것도 이제는 옛일로 되였다. 뜻은 여전히 가슴속에 살아서 요동치지만 어언간 몸은 늙었고 세월은 빨리도 흘러갔다. 알수 없는 공산리론이 장차 국운을 떠메고 나서야 할 젊은이들을 휩쓸더니 마침내 늙은이들은 성쌓다 남은 돌처럼 길가에 내다버리고 큰일을 이룩하겠다고 마련한 터전마저 깡그리 허물어버렸다. 가슴에 원한은 서리고 분노는 골수에 맺혔다. 젊은것들한테서 들려오는 소리란 나라를 되찾겠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고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를 해괴한 말로 변론을 일삼았고 밤낮 계급이요 타도요 하는따위 괘씸한 말만 지껄였다.

백리허에서 밀려난 울분에다 장차 국운의 회복을 젊은이들에게서 기대해오던 믿음을 배신당한 로인은 분이 나서 큰개의 더벅머리 사회주의자들을 욕하였다.

그런차에 아들이 돌아왔다. 그는 계속 학교뒤바라지를 할 여유도 없었지만 이제는 온통 왜놈의 판이 됐다는 그속에서 왜놈의 교육을 계속받는것이 달갑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쪽에서 아무말 하기도전에 애비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제 료량으로 불쑥 학교에서 뛰여나온 아들이 어쩐지 미타하기도 하였다. 이놈이 또 무슨 물이 들어 오지 않았나싶었다. 원체 작은집 두성이와 단짝이던 아이라 두성이가 지금 큰개에서 우두머리노릇을 하고있는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가싶어 자식의 거동이 여간 살펴지는것이 아니였다.

두현은 며칠 말이 없었다. 그런데 동네에는 말벗을 삼을만한 동무가 없다. 젊은것들가운데 좀 똑똑한것은 모조리 두성이가 데려가버리고 나머지는 쭉정이같은것들이 많은데다 자기가 단단히 신칙을 해서

집안것들은 말할것 없고 동네 젊은것들도 움쭉을 못하게 눌러놓았다.
두현은 할일없이 마을로,들로 돌아다니더니 마침내 역증을 터뜨렸다. 애비인 자기에게도 봉건이라고 대들었다. 그럴 때면 노기가 촉발해서 다 장성한 아들을 무섭게 다몰아치군하지만 실상 젊은 혈기에 높은 학교교육까지 받은 아들이 이런 촌구석에서 할일없이 빈둥거리는것을 볼 때는 그자신도 속이 언짢았다. 그럴수록 큰개의 사회주의자라는것들이 미웠다. 그것들이 자기 아들의 날개마저 미리 꺾어버린것 같이 생각되였다. 아들의 그 기개와 식자를 가지고 똑똑한 젊은이들속에서 활동을 한다면 큰일을 칠상싶었다. 이래저래 속이 상한 끝에 부자간에 공연히 티각태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던것이 아들이 갑자기 달라졌다. 잔뜩 찌프리고있던 이마살을 펴고 열심히 책장을 번지기도 하고 무엇인가 쓰기도 한다. 동네 아이들을 불러내여 아동단이라는것을 만들더니 뒤미처 야학을 차리겠다고 나섰다.
박병섭로인은 아들의 뜻을 흔연히 받아들였다. 김형직선생과 같은 애국지사들도 나라를 구원하는데서 교육이 노는 힘을 그처럼 높이 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로인은 솔선 야학당터도 잡아주고 동네사람들을 설복도 하였다. 온 동네가 떨쳐나서고 정희겸이네 머슴들까지 나서서 야학당을 세웠다. 그리고는 아침이면 나팔소리가 울리고 저녁이면 종소리가 울리여 골목에는 아이들의 창가소리가 나고 젊은이들의 활발한 변론이 오고갔으며 저녁이면 글읽는 소리가 랑랑하다.
동네는 몰라보게 변하였다. 과연 인물의 힘이 다르다. 출중한 젊은이 한사람이 무맥했던 동네를 이렇게 변모시켰다고 생각하니 조선의 앞날도 어쩐지 개여오르는듯하였다. 게다가 그 젊은이인즉 바로 자기 아들인것이다.
박병섭로인은 아들의 뒤를 받쳐주자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동네 늙은이들속에서 녀인네들이 야학에 다니는것을 반대한다는 소문을 듣자 그는 분연 노하였다.
《아니,이것들이 나라를 망쳐먹고도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그런 어리석은 수작들을 한단말이냐? 공자,맹자를 찾다가 국운이 쇠했다는것을 여적 모르고 남녀칠세부동석을 아직도 떠들다니 이런 천치같은것들이 어디 있단말이냐!》
로인은 채수염을 후들후들 떨며 토방을 내려섰다. 그는 곧장 강필재

의 집으로 찾아갔다.

《으흠 으흠.》

로인이 큰기침을 깇으며 마당안에 들어서자 가시물을 버리러 나왔던 봉이가 얼른 버치를 내려놓고 다소곳이 머리를 숙였다.

《큰아버님 나오십니까?》

《오냐, 거 너 아범 있느냐?》

웃방 미닫이가 드르륵 열리더니 강필재로인이 신뒤축을 꺾어신으며 마당으로 나섰다.

《형님, 밤중에 어떻게 내 집에 다 나오셨소?》

《내 적은이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왔네.》

박병섭로인은 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퇴마루끝에 털썩 걸터앉았다.

《좀 올라오시지요.》

강필재는 어쩐지 편안치 않은것 같은 병섭의 눈치를 살피며 얼른 방안에 널어놓은 짚단이며 새끼퉁구리를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들어갈 생각 없네.》

박병섭로인은 퉁명스레 자르더니 삑 돌아앉았다. 강필재는 큼직한 나무재털이를 집어들고 일어서다가 박병섭로인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엉거주춤 되앉았다.

《임자가 그래도 나라를 찾겠다고 언젠가는 그 어깨에 총도 멨던 사람이야.》

병섭은 이렇게 허두만 떼놓고는 다시 몸을 돌려 바깥쪽을 묵묵히 내다보았다.

잠시 뒤를 기다리던 강필재는 로인이 다시는 말을 잇지 않자 궁금해서 재털이를 움켜쥐고 퇴마루로 나앉으며 말했다.

《형님, 무슨 말씀이시오? 거 할 말이 있으면 속시원히 하시오, 궁금하외다.》

《임자가 화승대를 메고 왜놈 치러 다니던 사람이거던.》

병섭로인은 같은 말을 다시한번 되풀이하더니 문득 엄한 표정이 되여 말을 이었다.

《헌데 내가 임자를 거느리던 소대장으로서 요즘 임자 사는 모양을 보니 여러가지 생각되는 점이 많네. 그래 가사 우리가 뜻은 능히 이루지 못했어도 기개는 장하지 않았나? 이제 그 장한 기개는 다 꺾

이고 이렇게 초야에 묻혀있으니 임자나 나나 그 불평스러운 마음을 어찌 버릴수 있겠나? 사나이가 한번 나라를 찾겠다고 장도에 올랐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응당 죽어야 도리가 옳네. 그런데 나나 자네가 이렇게 욕된 생명을 부지하고있거던. 그렇거들랑 마음만이라도 깨끗이 가져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후생들이 나가는 길을 막지 말아야지. 헌데 내 들으니 임자는 우리 동네 청년들이 야학을 하는것을 반대를 한다니 그게 무슨 괘씸한 소행인가? 자네가 막무식한 촌늙은이도 아닌터에 어찌 감히 그런 망녕을 떨수 있단말인가?》

《아니 형님,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내가 젊은이들 일을 방해한것이야 뭣이 있습니까?》

강필재는 담배를 쟁여서 권하려다가 너무나 뜻밖의 말에 그만 어안이 벙벙해져서 멍하니 병섭을 바라보았다. 박병섭은 홱 고개를 돌려 강필재를 쏘아보더니 추상같은 목소리로 호령하였다.

《네 이놈,네 감히 누구를 속여보겠다고… 네놈이 야학을 시비질하고 아녀자들이 야학방에 드나든다고 야료를 부리고 돌아가지 않았단말이냐? 그리고 들으니 네놈은 딸애를 야학에는 얼씬 못하게 해놓고 비루하게도 저 정희겸이 역적놈에게 팔아서 더러운 리속을 탐내고있다는데 네놈이 그러고도 감히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본단말이냐?》

《형님,너무하외다.》

강필재는 그만 고개를 푹 떨구고 후들후들 살을 떨었다. 손에 쥐인 담배대가 신장대처럼 흔들렸다. 그는 이 동네에서 어려운 살림을 살면서 마음속으로 은근히 의지삼고있는것이 옛 소대장 박병섭이였다. 정작 도와달라고 청하거나 한적은 없다해도 언제든지 자기 신상이 어려워질 때면 응당 그가 자기 뒤를 돌봐줄것으로 믿고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피차 총을 놓고 이렇게 할일없이 농사는 짓고있어도 옛 상관앞에 있다는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행동거지를 삼가왔었다. 그런데 이렇게 벼락호령이 떨어진것이 뜻밖이기도 했지만 그 말하는것이 너무나 억울하였다. 야학문제도 문제려니와 딸을 정희겸이에게 팔아먹는다는것은 그의 가슴에 비수를 찔러 생살을 에이는것 같이 아팠다. 한참 고개를 숙이고 살을 떨던 필재는 웅얼거리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살기가 피롭수다. 난 야학에 아낙네들이 드나드는것은 좋지 않게 생각했지만 반대한거야 없지요. 그저 젊은것들이 밀려다니는것이 온당치 않게 보여서 내 아이를 단속했을뿐이외다. 그런데…》

필재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으려는데 박병섭은 변명을 용서치 않던 독립군시절의 버릇대로 사정없이 말허리를 잘랐다.

《제 아이는 왜 단속하는가? 그게 제가 낳았으니 제 자식인가? 그 애들이 계몽이 돼서 비록 치마는 둘렀어도 국운을 회복할 경륜을 세운다면 무엇이 나쁘단말인가? 아직 나이가 새파래가지고 벌써부터 궁상스런 옛늙은이 흉내를 본따려드니 내가 임자를 어떻게 대하면 좋단말인가?》

《형님, 진정하시오. 그래 그것들이 무슨 나라 찾을 궁리를 하는줄 아시오, 한번 가보기나 하셨소? 내 며칠전에 어찌다 그앞을 지나는 길에 들려봤더니 한다는 수작이 꼭 그 큰개의 빨갱이들하고 같습데다. 형님이 속고있어요. 두현이 그놈이 서울서 그런놈들 물이 잔뜩 들어가지고 온걸 형님은 상기 모르고있단말이요.》

《아니 이 사람아, 그건 무슨 소린가?》

이번에는 박병섭이 놀라서 몸을 다시 홱 돌리며 물었다.

《글쎄 잘 알아보시오. 난 그 사람들 하는 짓이 미덥지 못해요. 듣자니까 전에 형님네 집에서 전책을 읽던 그 칠성인가 하는 사람이 지금 모든 일을 꾸민다고들 합데다. 내가 야학에 갔던 날 그 사람이 말하는것을 나도 들어봤는데 마차군이라는것은 멀쩡한 수작이요. 말이 청산류수고 언론이 고명한데 젊은 사람들이 귀가 벙해서 듣고있어요.》

《그래, 그놈이 또 쏘베트를 하자고 든단말인가?》

《뭐 그런 소리는 없습데다. 쏘베트를 하자는것은 두현이가 더해요. 그 사람 말이야 얼핏 들으면 책잡을데가 없지요. 일본놈들을 욕하는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통절하겠소. 한데 그런 사람이 목재판에 마부로 들어왔을 때는 곡절이 있을거란말이외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동네에 나타나자 수상한 일들이 연방 나타나거던요. 보위단이 끌려가 죽지— 그런놈들 죽는것은 아깝지 않지만 인심이 흉흉해진단말입니다. 또 난데없이 사발통문같은것이 돌아가지, 벽에는 방이 밤마다 나붙지… 그런데 동네인심이 확 그 사람한테 쏠렸단말이요.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말마다 경우바른 소리만 하는데다 일이 막히는데가 없으니 감히 정희겸이나 보위단도 그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소문인데 그 사람이 또 동네집 딱한 사정은 다 돌봐준단말이외다. 손포가 모자라서 농사가 밀리면 제 일 밀어제끼고도 거들어주지, 동네방네 다니며 아이들 걷어주지, 집 고쳐주지… 또 살림살이 훈수를 드는데 그게 일일이

그럴듯하다는거웨다. 이게 다 무심히 볼일이 못돼요. 형님이 제 자식이라고 두현이를 믿고있다가 두성이놈한테 발등을 밟히듯이 이번에도 실수하기가 쉬우리다.》

《음—》

박병섭은 신음소리 같은 큰숨을 내쉬며 천천히 담배대를 집어물었다. 필재가 부시를 쳐주는대로 뻐끔뻐끔 담배를 빨며 생각에 잠겨 우중충한 먼산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한데 형님,》 강필재는 다시 고개를 떨구며 한층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우리 봉이를 저 죽일놈이 제 며느리로 달라는지가 벌써 지난해부터외다. 듣자니 그놈의 병신자식이 꼭 내 딸하고 혼사를 지내야 수를 받을수 있다는군요. 저 죽일놈이 나더러 땅을 떼겠다고 위협을 하다못해 생억지를 써서 빚문서를 산더미처럼 가려놓았수다. 그래놓고는 올봄부터 바로 사둔행세를 하려드니 이런 통분할데가 어데 있겠소? 그래도 이 필재는 말 한마디 따끔히 해줄 처지가 못된단말이외다. 그 미련한놈이 정작 땅을 떼고 법에라도 걸어서 빚을 받아내려들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하겠소? 놈이 족히 그러고도 남을 무도한 놈이지요. 그런즉 우리 집은 다 망했지요. 내가 그때 총을 놓은것이 잘못이지요. 이제 나이도 젊지 않은것이 주책없이 어린것은 올망졸망하게 달려놓았겠다, 게다가 집안에서는 사흘돌이로 앓아눕지… 그런데 형님까지 날 이렇게 몰아주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산단말이요. 세상 살기가 힘드웨다.》

《어험, 어험.》 박병섭은 넉두리가 듣기 싫다는듯 담배대를 입에 문채 몸을 더 돌려앉으며 말했다.

《그래도 세상 소문은 그렇지 않더군. 임자가 정희겸이와 정혼을 한 덕분에 올농사는 도조도 가벼워진다고들 하더군.》

《형님이 아다싶이 내가 그놈의 수작이 더러워서 올해는 아예 벼농사를 걷어멨습넨다. 하지만 내가 정희겸이 그놈하고 똑똑히 판을 가르지 않은것은 사실이지요. 내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럴수는 없지요. 하지만 저놈과 갈라지는 날이면 내 집안은 몽땅 줄초상이 날판이 아니외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요사이는 밤마다 담배만 태우다나니 혀바닥만 쩍쩍 갈라져오우다. 형님, 날 욕하지만 말고 좀 도와주시오.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저놈이 내 빚문서를 몇장

이나 가지고있는지 모르오. 내가 사람의 도리를 지키기도 힘들게 됐거니와 또 그렇다고 어찌 사람으로 태여나서 짐승흉내야 내겠소?》

강필재는 무릎걸음으로 다가앉으며 병섭의 한쪽팔을 잡고 흔들었다.

《어험,어험.》 병섭로인은 더욱 저쪽으로 몸을 돌리며 헛기침만 깇었다.

수수깡울바자너머 축축한 안개에 젖은 숲우에 별빛이 떨고있었다. 이따금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밤은 조용히 깊어가고 동네는 잠들어가는데 두 로인은 한숨과 헛기침을 번갈아 깇으며 안타까이 애꿎은 담배만 피워댔다.

부엌문설주에 기대여선 강봉이는 안개속에 떠는 별빛을 바라보며 다떨어진 행주치마의 고름을 눈굽에 가져갔다. 가냘픈 몸매에 감긴 노닥노닥한 토스레가 북극의 밤바람속에서는 여름에도 오히려 추워보였다. 어른들앞이 어려워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마당을 질러 방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심히 귀를 기울이고있지만 박선달도 아버지도 다시는 말이 없었다. 자기 신상에 닥친 슬픈 운명이 온 집안에 검은 그림자를 던지고있다는것을 너무나 잘 아는 봉이는 어른들의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자주 이렇게 홀로 부엌문설주에 기대여서서 시름없이 별빛을 바라보군하였다. 그런데 이 밤은 로인들의 말이 그의 어린 가슴을 쥐여짜서 눈물까지 자아내게 하는것이였다. 박선달인들 내 신세를 어찔것인가? 무슨 까닭인지 사랑하는 랑랑이 횡액을 당하자 그뒤를 따라 아름다운 처녀 아가가 몸을 던졌다는 부채소의 푸른물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처녀의 가슴을 더욱 허비며 부뚜막에서 귀뚜라미만 시름에 겨워 끝없이 끝없이 울어댔다.

12

쌍가매는 병섭의 딸 죽심이가 그 삼촌 박윤섭의 집에 얹혀있을 때부터 함께 자라났다. 그때는 박병섭로인이 아직 독립군으로 돌아다닐 때라 박윤섭은 정희겸이네 땅을 부치고있었다. 두 소녀는 가난과 천대속에서 함께 자라며 우정을 키웠다. 병섭이 돌아오고 어느덧 죽심이도

쌍가매도 처녀꼴이 잡혀갔지만 서로 래왕은 그치지 않았다. 쌍가매가 이따금 집으로 드나드는것을 병섭로인도 말리지 않았다. 그 몇해전부터 강필재가 마을에 이사와서 그들에게는 또 봉이가 새 동무로 끼였다.
요즘 강봉이는 왜 그런지 얼씬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다. 죽심이에게도 딱 발을 끊어버렸다. 쌍가매는 정희겸의 병신자식과 봉이사이에 혼담이 벌어지고있다는것을 아는만큼 봉이가 그때문에 동무들과도 만나기를 꺼려한다고 짐작이 갔다.
그래서 쌍가매는 죽심이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싶었지만 요즘은 도무지 갈 짬이 없었다. 칠성이가 그를 잡고 기어코 국문을 해득시키겠다고 나서는바람에 도무지 몸을 뺄수가 없었다. 처음에 쌍가매는 죽심이네 집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칠성이가 이야기책을 읽는것을 들었다. 그리고 죽심이와 둘이 몰래 사랑방바라지뒤에 숨어서 엿들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기 계월향이며 론개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다가 이야기책모임은 야학방이 서자 그리로 옮겨가고 적적한 나날이 다시 돌아왔다. 처녀나 아낙들은 아무도 야학에 가지 않았다. 칠성이며 죽심이 오빠가 돌아다니며 녀자들을 끌어내려하나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는중 하루저녁은 홀아비령감네 집에 술 받으러 갔다가 칠성이를 만났다. 그는 쌍가매를 마차결으로 부르더니 글공부를 시켜줄테니 배우라는것이였다. 쌍가매는 너무나 우스워 애초에 말같이 듣지를 않았다. 그러나 하도 직심스레 권하는데다 《박씨부인전》이라는 책을 가져와서 읽어주는데 거기에 재미가 들어 그만 빠져버렸다. 이러구러 한달 가까이 몰래 집을 빠져나와 칠성이에게 다니는 사이 한줄두줄 따라읽다가 나중에는 책 한권을 다 떼게 되였다. 아직 받침이요, 자모요 하는것들은 가려낼줄 모르지만 《박씨부인전》만은 뜬금으로 좍좍 내리읽게 되였다. 어찌다 글자도 행도 잊어버려서 한참 무안을 당할 때면 분하고 억울해서 당장 집어던지고싶었지만 제 혼자 자리에 누워 생각하면 저같은 천덕꾸러기가 서툴게나마 책을 읽는다는것이 여간 대견하고 신기하지 않았다.
그런 어느날이였다. 그는 칠성이로부터 참으로 벼락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제 그만하면 꽤 책을 잘 읽게 됐으니 그 책을 가지고 동네아낙네들과 처녀들앞에 가서 읽으라는것이였다.
《아이구, 세상에두, 현서방은 날 죽이자구 그래요?》
쌍가매는 그러지 않아도 커다란 눈을 화경같이 휘둥그렇게 해가지고

소리쳤다.

《왜 그래? 쌍가매는 아직 제가 얼마나 훌륭하다는것을 몰라서 그래. 쌍가매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남의 집에서 아이보개로, 식모로 천대를 받으며 자랐지만 오늘은 제 갈길을 제가 헤치고있거던. 이것을 딴 사람에게도 보여줘야 한단말이야. 쌍가매는 이젠 글도 알고 책도 혼자 좍좍 읽지만 그보다 제힘으로 제앞을 헤쳐나가는 그 기상이 좋은거야. 넌 일전에 봉이이야기를 나한테 했지? 그래 봉이가 불쌍하지 않느냐? 그런 조선의 동무들은 얼마든지 많다. 그러니 네가 나서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도 제 갈길을 제가 걸어갈수 있는가 하는것을 대줘야 한단말이야.》

쌍가매는 아무리 해야 칠성이의 말을 알아들을수 없었다. 그러나 전날 칠성이자신이 박병섭의 사랑방에서 책을 읽던 일, 그러다가 그들을 모두 끌고 야학방으로 가던 일을 생각했다. 아직 말로는 옮길수도 없고 남의 말을 새겨듣게도 안됐지만 어쨌든 자기의 생활이 변하고 있다는것, 정희겸이네 집에서만 봐도 주인인 정희겸이내외나 그 아들과 곰보단장따위들보다는 머슴군 삼덕이가 훨씬 사람됨됨이 의젓하고 굳세여보일뿐만아니라 유식하기까지 하며 자기도 어느덧 비슷해져가고있다는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였다. 그와 함께 화월이나 주인령감의 수모를 받지 않고 더욱 의젓해지기 위해서도 칠성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할것으로 생각되였다. 그러나 이러한것은 밤중에 자기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 은근히 떠오르는 생각이였고 지금 당장은 쑥스럽다는것 그러면서도 사람들앞에서 자기도 책을 읽을줄 안다는것을 한번 뽐내여보고싶다는 생각이였다.

사흘을 주저한 끝에 쌍가매는 책을 들고 죽심이를 찾아갔다. 그러나 찾아가서도 그날밤은 책을 읽을 엄두를 못내고 봉이걱정만 하였다. 이튿날은 죽심이 어머니와 삼촌댁이 우연히 옛이야기를 꺼냈다. 그끝에 쌍가매는 뜬금으로 《화설 조선 인조대왕시절에 한양안국방에 한 명사가 있으니 성은 리요 이름은 득춘이요 자는 문채니…》하고 작은 목소리로 외웠다.

《아니 얘, 그게 무슨 귀신같은 소리냐?》

죽심이가 깜짝 놀라 이렇게 물었다.

《귀신같은 소리는? 이게 다 책에 있는 소리야.》

《책이라니?》

《이게 그 책인데 여간 재미있지 않아.》

쌍가매는 사뭇 속이 긴장되였으나 시치미를 뻑 따고 의젓하게 말했다.

《아니, 네가 책을 읽어? 거참 희한도 하다. 남의 집 부억데기가 책을 읽다니… 어디 한번 읽어보아라.》

죽심이 어머니와 삼촌댁이 신기해서 큰 구경거리가 났다고 떠들었다.

다음날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그바람에 쌍가매는 화월이한테 단단히 욕을 먹었다. 그리고 이제는 바깥출입을 일체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한번 내친 쌍가매의 발걸음을 멈추어세울수는 없었다. 그는 칠성이가 시키는대로 죽심이네 집에 동네아낙네들을 수많이 끌어모았고 그 뒤끝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학으로 갔다.

야학이란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가? 동네의 낯익은 처녀, 총각들이 한자리에 모여 씩씩한 노래들을 불렀다. 그리고 ㄱ, ㄴ, ㄷ, ㄹ 하고 글을 읽었다. 암만 봐야 저와 꼭같은 가난뱅이자식들이요, 글과는 담벽을 쌓고 살던 사람들이다. 그중에는 나이든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한집안처럼 허물이 없었다. 쌍가매는 처음 얼마간은 어리둥절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자체도 잊어버리고 그저 두리에서 벌어지는 신기한 일들, 신기한 이야기, 신기한 분위기를 보고 듣고 느끼며 놀래가지고있었다.

야학의 세계는 철들어서 오늘까지 정희겸이네 부엌밖에 모르던 그에게 넓은 세상에로 열려있는 문이였다. 그 문을 거쳐 저쪽에 얼마나 가보고싶은 밝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가? 쌍가매는 이제는 누구의 권고가 아니라도 야학에로 끌리는 자기 발길을 스스로 억누를수가 없었다.

주인내외는 이상하게도 조령감까지 야학에 보내면서 저만은 한사코 못가게 단속을 하였다. 그래 매밤 주인 몰래 집을 빠져나와야 하고 또 주인 몰래 도로 들어가야 하였다. 일거리가 밀려서 그것때문에 말썽을 일으킬가보아 제살림보다 더 극성스레 일을 제꼈다. 이렇게 며칠을 무사히 다니다가 마침내 들키고말았다. 화월이가 장작개비를 들고 나서서 등에 구렝이가 감기도록 팼다. 며칠동안은 어찌나 감시가 심한지 움쭉할수가 없었다. 그러나 밤에 누워있으면 야학방에서 울리던 랑랑한 글소리와 노래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동무들의 글읽는 모습이 눈앞에 서물서물하였다.

쌍가매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갓 배운 노래구절을 몰래 외워보았다.

새세상 동터온다, 어서 마중가자.

...

그러면 두볼로 소리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리 가보고싶어도 갈수 없는 자기의 처지가 안타까왔다. 이러한 때에 삼덕이를 비롯한 남정들이 정희겸이에게 머슴들이 야학에 가는것을 왜 막느냐고 들이댔다. 집에서 할 일을 다한 이상 야학에 가는것은 머슴들의 자유라고 10여명이나 되는 일군들이 한꺼번에 들고일어나 들이대니 정희겸이는 하는수없이 그것을 승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 쌍가매는 다시 야학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화월은 쌍가매에게만은 그후에도 내내 다른 핑게를 대고라도 못살게 학대하였다.

쌍가매는 매번 밤이 오면 어쩔수 없는 힘에 끌려 몰래 집을 빠져나갔다. 그러다가 야학이 필하고 골목에서 동무들과 헤여져 혼자 돌아오는 적적한 밤길에서 앞으로 겪어야 할 단련을 생각하며 몸서리를 쳤다. 요즘 정희겸이내외의 기상은 대단히 험하다. 동네에 삐라가 나붙고 마을에 야학이 생기고 하면서 사람들이 전과 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데다 집안에서까지 일군들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보니 항상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쩍하면 호통을 치고 저같이 만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질이다. 그런것 저런것 생각하면 말썽스런 야학을 그만둘가 하는 생각도 나지 않는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야학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매력이 있었다. 로력자대중이 힘을 합치면 세상에 그 어떤 왕도 량반도 부자도 다 때려엎을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나도 그 로력자대중의 한사람이다. 세상에 제일 슬기로운것이 제손으로 땀흘리며 일하는 사람이고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는것들은 제일 나쁜 무슨 벌레라고 했다. 또 우리 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보배로운 나라인데 왜놈들에게 빼앗겼다고 말했다. 그것도 우리 로력자대중이 힘을 합치면 왜놈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다시 찾아 모든 조선사람이 골고루 잘사는 세상을 만들수 있다고 하였다. 아니, 기어코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들으면 들을수록 꿈같은 이야기이다. 게다가 노래는 얼마나 재미있는가?

권리를 박탈한 자본사회에
청춘의 붉은 꽃 못피운 원한
아느냐 그대여 녀성동무들

부엌데기도 머슴군도 다 같은 사람, 녀자도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놀랍기만 한 이야기를 들으며 쌍가매는 자기가 여태 생각해오던 자기라는 존재가 갑자기 의심스러워졌다. 내가 안주인 화월이같은 녀자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보니 세상일이 온통 뒤죽박죽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화월이란 술이나 팔던 녀자라는데 그가 무엇이 잘났다고 하루에도 몇차례씩 나를 팬단말인가? 아직은 듣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뜻밖이여서 다 리해할수 없었지만 칠성이나 삼덕이가 토론을 할때나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직접 자기의 처지를 꼭 집어서 실례를 들어 말해주기때문에 머리에 쏙쏙 들어왔다.

야학에서 알게 되는 새로운 지식도 지식이지만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동기간처럼 허물없이 사귀는 그 분위기가 쌍가매에게는 더구나 소중하였다. 모르고 지낼 때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오던 자기의 생활이 더는 그대로 견딜수 없는 역겹고 고통스러운것으로 생각되였다. 그 세계에서 자기를 용납시키려고 야학을 그만둘수는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쌍가매는 매를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저녁이 오면 가슴을 두근거리며 집을 빠져나왔고 야학이 끝나면 가슴을 조이면서 몰래 중문을 벗기고 식모간 자기 자리로 소리도 없이 새여들어가는것이였다.

그런 어느날이였다.

밤은 무사히 지나갔다. 이튿날아침에도 정희겸이내외의 기색을 살폈으나 유난스러운데라고 없었다. 들에 나가는 일군들을 위하여 새벽조반을 짓고 집안사람들의 아침상을 차리고 다음 설겆이를 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가는동안에도 별다른 눈치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아침은 지나가고 집안은 괴괴해졌다. 닭무리가 양지쪽으로 기여나와 모이를 쫓는 한가한 소리가 들렸다. 외양간에서 들에 나가고 남은 말의 워낭소리가 들려왔다. 바깥마당은 머슴들이 다 일을 나간 뒤라 인적기라군 없다.

쌍가매는 점심차비를 하려고 깨끗이 부셔낸 솥에 물을 채웠다.

이때 대청에서 《쌍가매야—》하고 부르는 화월의 목소리가 울렸다. 쌀을 내주려나싶어 얼른 함지를 들고 마루쪽으로 갔다. 무심히 다가가던 쌍가매는 흠칠하고 멈추어섰다. 년놈이 마루우에 좌정하고 앉았는데 먼산을 바라보고있는 정희겸이나 잔뜩 쏘아보고있는 화월이나 벌써 눈치가 다르다.

(옳지, 이것들이 사람 없는 때를 기다리고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번개같이 머리속을 스치자 잇닿아 (이젠 죽었구나!)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네 이년, 이리 좀 나서라!》

아니나다를가 화월의 말은 첫마디부터 독기가 어려있었다. 쌍가매는 전과는 달리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앙다물며 소리없이 다가갔다.

《네 이년! 네 간밤에 어디로 갔댔냐? 바른대로 대라!》

《야학에 갔댔어요!》

쌍가매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제가 다 알고 묻는데 굳이 감출 필요가 뭔가? 내가 못할 짓을 했단말인가? 이런 반발심이 솟구쳤다.

《뭣이 어째, 이년! 뻔뻔스런년! 저년이 이젠 맞대놓고 야학에 갔다고 광고를 하네. 네 이년! 야학에는 왜 갔느냐? 왜 갔어!》

그래도 감추려니 하고 생각했던 화월은 선뜻 야학에 갔다는 대답이 나오자 기가 차서 펄펄 뛰였다.

《공부하러 갔어요!》

《공부하러 갔어? 아이구 저런 뻔뻔한년의 수작 좀 보게. 아니, 네년이 공부를 해? 네 신세에 공부를 하러 갔다는것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공부를 해서는 어쩌자는거냐? 네년이 공부를 하면 진사급제라도 할상부르냐?》

《남 다 하니 하지요. 난 공부해서 안될거 있어요?》

《아이구, 기차라. 네 이년! 네가 남과 같으냐? 분수를 몰라도 류만부동이지. 네가 천하에 의지가지 없는것을 우리 내외가 거두어 줘서 배곯지 않고 그만큼 자랐으면 무던하지 공부를 해서 어디에 문안편지를 쓸테냐, 고을에 소장을 올릴테냐!》

쌍가매는 늘 듣는 소리이기도 했지만 들을수록 수작이 더러워 잠자코 있었다. 쌍가매가 말을 안하니 화월은 더욱 분이 치밀어올랐다.

《이년! 왜 말을 못해! 네년이 요즘 머슴군들이 불공하게 나서는데 섭쓸려서 갑자기 량반행세라도 할 생각이 났느냐? 왜 말이 없어! 응, 왜 말이 없느냐말이야!》

화월은 우르르 달려내려오더니 끄뎅이를 잡고 머리를 마루쪽에 짓쪼았다.

《응! 그런 년은 릉지처참을 해야 해!》

그제야 정희겸이놈도 덩달아 뛰여일어나더니 마루 한옆에 세워둔 개

화장을 집어들고 달려들어 쌍가매의 등을 조기기 시작했다.

쌍가매는 이 년놈들이 자기를 추달하기 위하여 일부러 사람들 일다 나간 틈을 의식적으로 골랐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신하였다. 이것들이 이렇게 악착스럽게 사람을 짓밟으려든다는것을 생각하니 전처럼 엄살을 피울 생각도 나지 않았다. 나를 어릴 때부터 길러줬다고 하지만 칠성이 말마따나 내가 여태 맞은 매가 그만 못지않은가? 내가 일해준것이 아직도 그 값이 되지 못하는가? 쌍가매는 입술을 앙다물고 몸에 느끼는 고통보다도 머리속에 왕왕 울리는 이런 의문이 더욱 괴로왔다. 갑자기 머리밑이 띠끔하더니 고개가 앞으로 팍 숙어졌다. 본능적으로 손을 가져가보니 머리가 한웅큼이나 빠졌다. 한웅큼 머리를 뽑아쥔 화월이란년이 한두걸음 비칠거리더니 제사 숨을 할딱거리며 내쏘았다.

《이년！ 그래도 말을 못해！》

쌍가매는 개화장을 추켜드는 정희겸의 가슴을 떠다밀고 벌떡 일어났다.

《이년！ 이 이년！ 어디를 감히 일어서！》 정희겸이놈은 선채로 개화장을 냅다 후려쳤다. 꿋꿋이 선 쌍가매의 등에 와 떨어진 벗나무작대기는 딱 하고 두동강이 나서 달아나버렸다.

《난 이 집에서 나가겠어요！ 날 때리지 말아요！》

쌍가매는 똑바로 앞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그대로 걸어갔다.

《아니 이년이！ 네년이 가기는 어디로 가！ 가고싶으면 네 마음대로 갈줄 아느냐！ 못간다！》

화월이가 다시 머리끝을 휘여잡았다. 정희겸은 부러진 개화장을 쳐들고 앞으로 돌아와 머리우에 쳐들고 소리쳤다.

《이년！ 죽고싶으냐！》

《네년이 나가고싶으면 마음대로 나갈줄 알고… 어림없다. 네년을 그래도 우리 내외가 친딸과 같이 길렀어. 네가 정 배은망덕해서 나간다면 양육비를 다 쳐놓고 나가야 해！ 가기는 어딜 간단말이냐！》

화월이가 한손을 허리에 딱 짚고 서서 입에 게거품을 물고 소리쳤다.

《좋아요, 나를 길러줬다는 그 값을 치러주겠어요. 그 대신 내가 이 집에서 10년동안 일해준 그 값도 쳐주세요. 난 이 집에서 입밖에 산게 없고 입다 해뜨린 천으로 옷 댓벌 해입은것밖에 없어요. 저녁에 사람들이 오면 회계를 보아요. 그전에는 내 몸에 손가락 하나 못댈줄 알아요！》

쌍가매는 그길로 휘하니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저런 때려죽일년이! 아니, 저년을 잡지 못해!》

두년놈은 펄펄 뛰였다. 그러나 쌍가매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날저녁 쌍가매는 동구밖에서 칠성이를 기다렸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칠성이는 주먹을 틀어쥐였다.

《좋다, 가보자. 만일 그 년놈들이 그냥 그러면 넌 이 집을 뛰쳐나오너라. 그러면 내가 갈곳을 마련해주마. 그러나 사실 나는 쌍가매가 더 좀 그 집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만일 별일 없으면 조금만 더 참아라. 내 말이 있을 때까지 그 집에서 더 좀 참고 견디여보아라.》

칠성이는 그날 삼덕이를 만나서 정희겸이내외에게 따끔하게 침을 놓게 하였다. 쌍가매가 집에 들어오니 눈은 흘겼으나 별말은 없었다.

쌍가매는 늘 밥먹듯 맞던 매가 이번만은 왜 그리 서러운지 몰랐다. 기어코 나가자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칠성이가 좀더 있으라니 어쩌는수가 없었다. 칠성이가 있으라는것이 어쩐지 뿌리칠수 없는 그 어떤 위엄을 가지고있는것 같이만 생각되였다.

13

박병섭로인은 강필재와 이야기가 있은 다음부터 늘 가슴이 부걱부걱 괴는것을 억지로 달래며 담배대를 벗삼아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붐비던 그의 사랑도 한산해졌다. 마실군들은 모두 야학으로 밀려가고 죽심이동무들마저 이제는 찾아오지 않는다. 집안이 조용해지니 생각은 갑절로 번거로와졌다. 그중에서도 강필재에게서 들은 이야기때문에 주야로 머리가 무거웠다. 몇해전만 같아도 강필재든 정희겸이든 그냥 두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이젠즉 어느 하나도 제 임의로 할수 있는것은 없었다. 오직 아들의 일만은 제마음대로 능히 잡도리할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자기를 속이고 큰개의 사회주의자들처럼 놀아난다는것이 괘씸한중에도 더욱 괘씸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외아들이라 하더라도 부자간의 의를 끊고 내쫓아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어느날 밤 로인은 마음을 다지고 사립을 나섰다.

밤은 이슥하여 200여호의 동네가 쥐죽은듯이 조용하다. 그의 외로운

발걸음소리가 좁다란 골목을 단조롭게 울리고 그에 따라 개짖는 소리가 동네복판으로부터 변두리로 천천히 번져갔다.

야학방은 동네 한끝에 외따로 서있던 빈 농막을 가지고 꾸렸다지만 이영을 새로 얹은데다 30~40명씩 한꺼번에 들어앉게 넓혔기때문에 새집이나 다름 없었다. 동네쪽은 괴괴하고 불빛이 새여나오는 집이라군 어쩌다 한두집 있을뿐이다. 그러나 동구를 벗어나자 야학방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오고 문을 열어젖힌 방안에서 남포등의 불빛이 환하게 새여나왔다.

로인은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조심 다가갔다. 가까이 가서 보니 글을 읽는것이 아니라 두줄로 마주 보고 앉아서 무슨 말시비질을 하고있다. 일반야학생들은 이미 흩어져간 눈치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동네에서도 똑똑하다는 축뿐이였다. 벽에 걸린 흑판앞에 학생복을 단정히 입은 두현이가 토필을 쥐고 서서 연방 손짓을 해가며 무슨 이야기인지 하고있다. 구석쪽에는 장정들이 앉은 모양이고 문간쪽으로는 젊은 녀인들과 처녀들이 몰켜앉았는데 끼리끼리 무슨 쑥덕질을 하는것도 있고 무엇인가 공책에 부지런히 쓰는 사람도 있다. 처녀들가운데는 치마폭으로 얼굴을 싸고 키득거리며 웃는것도 있다. 조령감따위 늙은이나 동냥글이라도 얻어 읽겠다고 엉거주춤 따라다니던 축들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어쩐지 방안분위기는 정숙하지 못하다.

사실 지금 방안에서는 야학이 끝난 뒤에 반일회와 공청의 핵심들만 모여앉아서 토론회를 하고있는중이였다.

박병섭은 이것들이 공부를 합네 하고 모여앉아서 무슨 일들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개의 야학이라는것도 이랬다. 처음에는 동흥학교에서 쓰던 교과서를 구해와서 공부를 시켰는데 사회주의자들이 들어와서는 그런것은 다 집어던지고 저희들이 만들어낸 얄팍하게 등사한 책을 가지고 가르치더니 그것도 얼마 안가서 집어치우고 그중에서 알맹이들만 따로 모여앉아 프로레타리아요, 부르죠아요 하고 떠들썩하게 공론들을 하였다. 두현이가 사회주의물이 들어가지고 왔다는 강필재의 말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자 벌써부터 로인의 손은 떨리기 시작하였다. 좌우간 똑똑히 알아보고 당장 요정을 내야겠다고 바싹 문결으로 다가붙어 귀를 강구었다.

《…이러다가는 〈불〉편에서 지겠습니다. 자, 이쪽 줄에서 누가 일어나십시오.》

두현이가 이렇게 자기 말을 맺자 앞줄에서 불쑥 한 더벅머리가 일어섰다. 방아간집 아들 김치복이다. 그는 용맹스레 일어서기는 했으나 정작 일어서서 보니 제 꺽두룩한 키를 주체하기가 난처한듯 잔뜩 주눅이 들어서 어깨를 구부리고 이쪽저쪽 살펴보며 더수기를 썩썩 긁었다.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그럴수록 치복이는 점점 더 주눅이 들어 쩔쩔매더니 불쑥 한마디 하였다.

《에—성덕이가 말하는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올시다.》

와— 웃음이 터졌다. 그러자 치복이는 불끈해서 소리쳤다.

《여러분, 왜들 웃는거요? 그래 성덕이가 물만 가지면 불도 일굴수 있다는것이 그게 멀쩡한 수작이 아니고 뭐란말입니까? 불이 나면 물을 끼얹어서 불 끄는것을 보아도 물을 가지고 불을 피우는것은 난 못봤습니다. 도회지에 가니까 새빨간 불자동차가 있는데 그놈도 물을 냅다 뿜어서 불을 끈단말입니다.》

치복이는 열이 오르자 꺼꺼부정했던 어깨를 어느새 잔뜩 솟구고 온 방안사람이 다 제 적수이기나 한것처럼 밀몰아 휘둘러댔다.

《성덕이 말이 그것만 거짓말인줄 아시오? 물만 가지면 불을 없앨수도 있고 만들수도 있다는데 그래 불은 안그런줄 아시오? 불도 가마에다 물을 한가마 붓고 통장작을 한참만 지피면 당장 죽는 시늉을 하다가 없어진단말이요.》

《그래 불을 가지고 물은 어떻게 만드나?》

저쪽구석에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웃음기 어린 목소리가 울렸다.

《뭐요?》

치복이가 벙해서 그쪽을 바라보더니 당황해서 더수기를 긁적거리며 말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소?》

그리고는 펄썩 주저앉았다. 또다시 와—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러자 치복이가 다시한번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다.

《그야 물도 같지 않소? 서로 못만들기야 피차 일반이지…》

강필재의 사촌동생인 강성재의 처남벌되는 지성덕이가 발끈해서 일어났다.

《야, 너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말아. 저번날 선생님이 전기는 물로 일군다고 안했어? 칠성이가 말하는데 로씨야에서는 혁명을 하고 지금 큰 강들을 막아서 전기를 굉장히 만들어낸다더라. 뭘 알지도 못하면서…》

방안은 다시금 떠들썩해졌다. 웃는 사람도 있고 저희끼리 소곤소곤 쑥덕거리기도 한다. 치복이가 다시 일어나려고 들먹들먹하는것을 뒤에서 누가 잡아당겨서 처녀들은 그것이 우습다고 배를 그러잡고 돌아간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두현이가 한팔을 들어 방안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성덕동무의 말은 옳습니다. 물을 리용해서 전기를 일굽니다. 우리 동네에도 물방아가 있습니다. 바로 치복동무의 아버지가 돌리는 물방아를 보십시오. 물힘을 리용해서 물레바퀴를 돌리고 거기에다 공이를 해달아서 방아를 찧습니다. 만약에 세게 떨어지는 방아공이끝에 쇠붙이를 해달고 방아확도 쇠로 만들어 단꺼번에 딱 부딪치면 부시돌을 치는것과 같이 불이 일어날것입니다. 전기는 이러한 물의 힘을 빌어 지남철의 리치를 리용해서 만든 발전기라는것을 돌리게 하지만 불을 일구는 힘이라는데 대하여서는 같은 리치입니다. 세상이 문명하고 나라가 부강하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여러가지 목적에 리용해서 환한 전기불도 보고 공장도 돌리고 세상에 못하는것이 없습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우선 혁명을 해서 지주, 자본가들을 때려부시고 무산계급의 정권을 세워야 합니다.》

방안은 조용해졌다. 과연 그럴듯하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도 있다. 치복이는 더수기를 긁고 성덕이는 갱핏한 얼굴을 잔뜩 쳐들어 치복이를 바라보고있다. 알만한가 하는 태도다.

병섭로인은 긴장되였다. 혁명을 해서 무산계급의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옳지,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선전이렸다, 한시바삐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말은 없고 언제나 무산계급이요, 유산계급이이지… 게다가 치복동무니, 성덕동무니 했겠다, 이놈이 빨갱이라는것이 틀림없나부다…

두현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말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불〉편이 한점 져있습니다. 어느분이 〈불〉편에서 토론해보십시오.》

또 키가 큰 더벅머리청년이 천천히 일어났다. 바로 현칠성이다. 강필재로부터 그에 대한 심상치 못한 귀뜀을 듣고 봐서 그런지 벌써 등불아래 척 일어선 품이 전에없이 록록찮아보인다. 몸집도 거쿨지지만 이목구비가 준수한것이 우선 출중하다. 이마며 눈매는 어디까지나 부드럽고 거조가 조심스러워 스스로 낮추 굽히려 하지만 어딘가 사람을

그러잡는 힘이 있다. 병섭로인은 젊어서부터 소문난 인물들은 찾아다니며 상종해본만큼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졌다는것이 보통수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것을 잘 아는터였다. 그러나 달리 보면 그 몸매도 옷주제도 어디까지나 남의 집 드난군이나 날품팔이 같은 틀이 짝 잡혀있다. 말파리를 끄는것은 제눈으로 본 일도 있지만 우선 첫눈에 뜨이는 굵직굵직한 손마디며 약간 걷어올려서 드러난 정갱이며가 큰개의 얼굴 노랗고 머리를 산발한 사회주의자들과는 피줄이 다르다는것이 알린다.

병섭로인은 자기 집 사랑방에서 본 칠성이와 눈앞에 있는 현칠성이의 뒤섞이는 인상을 걷어잡자고 더욱 긴장되여 귀를 강구었다. 방안사람들의 시선도 일제히 칠성이에게로 쏠려있다. 이윽고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우리 동네 물레방아를 돌려서 부시돌처럼 불을 일굴수 있다고 했는데 참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보니 우리 동네에서도 물레방아만 큼직한것을 하나 놓으면 도회지처럼 전기불을 볼것 아닙니까?》

와— 하고 방안이 설레였다. 환성도 일어나고 웃음도 터졌다.

병섭로인은 첫마디에 어쩐지 기대가 어그러지는듯하여 낯을 찌프렸다. 현칠성이라는 사람이 정말 마부가 아니고 사회주의자라면 하나도 자기에게 리로울것이 없지만 꼭 그러려니 하고 넘겨짚었던것이 공연한 기우였다고 생각하니 탕개가 풀어지는것이였다.

두현이가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요, 우리도 합심해서 기구를 갖추어 공사를 하면 전기도 능히 일굴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는 지금 그런것을 할 형편이 못됩니다. 밤낮 뼈빠지게 일해도 끼니를 댈 형편이 못되는데 언제 전기를 보자고 그런 큰 공사를 하겠습니까? 또 그런것을 하는데는 높은 기술이 있어야 하고 복잡한 기계들도 필요합니다. 그런것들은 우리가 무산자의 정부를 세운 다음에야 해결할수 있습니다. 자, 계속하십시오.》

《나는 오늘저녁 〈불〉편이기때문에 불이 좋다는것을 말하겠습니다. 왜 불이 좋은가? 아까 우리편 사람들이 다 말했지만 불이 없으면 밥도 못짓고 등도 못켜고 날고기를 먹고 이런 추운 땅에서 얼어죽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고 불을 만들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가

만히 생각해보니 좌우간 불이 없이는 물로 불을 일구는 놀음도 못할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물레방아를 어떻게 놓겠습니까? 물레방아를 놓자면 도끼질도 하고 톱질도 해야 하는데 톱이요 도끼요 하는것들은 쇠를 불속에서 구워내가지고 두들겨서 만듭니다. 물동을 막자고 해도 곡괭이,삽같은것이 있어야 하고 농사를 짓는데도 여러가지 쟁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다 풍구질을 해서 불을 피워가지고 쇠붙이를 달구어야 만듭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전기를 일구자면 우선 혁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혁명을 해서 나라를 찾아야만 우리가 전기도 일굴수 있다는 말씀이 참 그럴듯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를 찾겠습니까? 3.1운동때 내가 고향에서 보니 왜놈들은 독립만세를 부른 사람들은 아이어른 할것없이 총질을 해대면서 마구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사정을 해서 독립을 찾을수 없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같은 큰 나라에 가붙어서 교섭하면 될것입니까? 우리 선생님도 말하고 또 독립운동을 많이 한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니 그놈들도 다 일본놈과 꼭같은 한통속의 도적놈이라고 했습니다.》

박병섭의 귀는 다시 강구어졌다. 방안도 조용하였다. 모두 숨을 죽이고 칠성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있다. 한개 말몰이치고는 얼마나 문제를 크게 보는가? 말투는 별로 놀라운데가 없지만 항용 젊은이들에게서 볼수 있는 격하고 과한것이 없을뿐아니라 온당하게 말하면서도 요진통을 찌르고있다. 만세를 불러서나 큰 나라 힘을 빌어서 독립할수 없다는것은 바로 병섭로인자신의 생각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독립을 찾을것입니까? 우리 고향에도 남대천이란 큰 강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에는 내가 본것만 해도 압록강,두만강,평양에 대동강,서울에 한강,저 남쪽에 가면 락동강 같은 큰 강이 있습니다. 이 큰 강의 물을 막아서 전기를 일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강은 설사 전기를 못일군다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물이 맑고 푸르고 온갖 고기가 뛰놀고… 참 그런 강을 끼고 오막살이나마 제집 하나를 짓고 제 땅을 갈아엎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는 왜놈한테 빼앗겼습니다. 강도 땅도 다 왜놈들이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놈들이 한번 차지한 이상 그 좋은 땅을 왜 거저 내놓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조상의 뼈가 묻힌 제 나라를 왜놈들한테 빼앗기고 팔짱을 끼고 앉아있

겠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없이 외적들과 싸웠답니다. 전날 〈임진록〉에서도 보았지만 평수길이라는 왜놈의 잰내비가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같이 밭갈던 농민들도 모두 병장기를 들고 나가 싸웠습니다. 이 근년에도 나라를 지키려고 의병들이 나섰고 망국후에도 계속 의병이요, 독립군이요 해서 싸웠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박선다님을 비롯해서 총을 잡고 왜적을 치러 나선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싸운분은 많지 못했습니다.》

병섭은 점점 고개를 들었다. 얼마나 도도한 변론인가! 또 그 사연이 얼마나 간절한가! 저 사람이 자기의 이름까지 들어 한만 남긴 그 시절의 뜻을 사주니 저 사람이 대체 마차군으로서 저런 도량이 어디서 생겼단말인가? 오히려 모르는 눈에는 그저 경우바른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물정에 밝은 사람이라면 이게 보통 상스러운 언론이 아니라는것을 누구나 다 짐작할만하다. 그러니 보통마부가 아니라는것은 틀림없다. 그런즉 큰개의 사회주의자나부랭이와 한동아리인가? 하지만 말하는 투가 그들과는 그야말로 물과 불처럼 다르지 않은가? 하기는 저 사람이 제몸을 숨기고있는 처지라면 그것은 가볍게 찍어버릴 일이 못된다. 칠성의 말은 계속되였다.

《사람도 많지 못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속에서 파쟁을 일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놈을 칠 대신 공연히 백성들을 괴롭혀서 군자금이나 걷어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나니 사람만 상하고 흐지부지되고말았습니다. 말만 해서는 독립을 찾을수 없습니다. 지금 왜놈들의 감옥에는 독립을 찾자고 나섰던 사람들이 수없이 갇혀있고 숱한 사람들이 왜놈들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탄만 하고 앉아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한두사람이 아니라 조선사람모두가 들고일어나야 합니다. 맨주먹으로는 왜놈들을 칠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찾고 우리같은 가난한 사람들도 다 전기를 보고 잘살기 위해서는 조선사람모두가 손에 무장을 잡고 왜놈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놈들과 싸우자면 우리는 먼저 불을 피워야 합니다. 불이 있어야 총도 만들고 칼과 창도 벼릴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슴에도 불을 피워야 합니다. 애국의 불을 피우고 혁명의 불을 피워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 있어야만 삼면 푸른 바다에 둘러싸이고 강이 많은 우리 나라를 찾아

물고기도 잡고 전기도 일굴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사람들은 저마다 왜놈을 치는 불이 돼야 합니다. 조선독립을 위한 혁명의 불이 온 누리에 퍼져갈 때 우리는 왜놈을 내쫓고 조상들의 뼈가 묻힌 삼천리금수강산을 되찾을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칠성이는 천천히 장내를 한번 둘러보더니 앉았다.

《옳습니다. 칠성이 말이 옳습니다.》

누군가가 큰 목소리로 웨쳤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말 잘했다고 떠들썩해졌다. 두현이가 자리를 진정시키려 하나 좀체로 잘되지 않았다.

병섭로인은 잠시 술렁술렁 들레는 방안을 엿보며 제 가슴도 이상하게 울렁이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참으로 말치고는 본때있게 했다. 그러고보니 저 사람이 보통마차군이 아니라는것이 사실인듯하다.

그의 말은 한점 나무랄데가 없을뿐아니라 이미 세상을 단념하고 나앉다싶이한 그의 늙은 가슴도 저으기 뒤흔들어놓았다. 만약에 그의 말이 그렇게도 옳을진대 그가 큰개의 사회주의자들과 한동아리가 아니라는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하지만 사람속은 모르는것이다. 입으로는 저렇게 번지르르 말하지만 그 속을 어떻게 안단말인가?

이렇게 병섭로인이 자기 속을 걷잡지 못하고있는데 아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현칠성동무가 참 좋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손에 무장을 잡고 일본제국주의와 부르죠아를 쳐없애야 합니다. 혁명은 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맑스는 프로레타리아가 혁명에서 잃을것은 철쇄뿐이요, 얻을것은 전세계라고 했습니다. 무산청년 여러분! 모두다 무장로선으로 준비합시다. 그럼 〈물〉편에서 더 토론할 사람은 없습니까?》

박병섭로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되돌아 걸었다. 칠성이가 토론한 다음에도 몇사람 더 이야기를 하였으나 들을만한 소리는 없었다. 그중에도 제일 섭섭하고 괘씸한것이 아들의 소행이였다. 한개 말몰이가 그렇게도 분명한 언론으로 나라를 광복할 방책을 말하는데 높은 학교교육까지 받았다는 아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할 힘든 말만 써가면서 덮어놓고 웨쳐대는것이 모두 큰개의 빨갱이들과 같은 수작들이다. 비둘기가 뻐꾹새알을 까놓은것만 같아서 로인의 마음은 노엽고 한편 분하였다. 제 자식이 못난것도 못난것이지만 이건 그저 못난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사회주의물이 들어왔단말인가? 당장 이놈의

목을 비틀어서 내쫓아야겠다는 생각이 울컥울컥 치밀었다. 그런 한편 칠성이라는놈이 겉으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놈도 속으로는 두현이와 서로 배가 맞아서 짝작꿍이를 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다. 그러고보면 이놈들이 야학을 꾸며가지고 종당에는 또 큰개에서와 같이 늙은이들을 괄세하여 내몰자는 꿍꿍이를 꾸미려는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 자리에서 당장 그놈들을 호령해서 내쫓아야 할걸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우뚝 걸음을 멈추어섰다. 그러나 잠시후 로인은 생각을 돌리고 또다시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우선 두현이놈을 족쳐서 잘 알아보고 그런 연후에 잡도리해도 늦지는 않을것이다. 괜히 선불질을 했다가 덧내놓으면 큰개에서와 같이 할일없이 밀려나고말지도 십상 모른다.

이렇게 두루 착잡한 생각의 갈피를 들추며 걸으려니 어쩐지 펄펄하던 기상은 다 죽고 비루한 타산만 앞세우는 자기에게 스스로 역정이 치받쳐 우뚝 걸음을 멈추고 서서 웩 가래를 돋구어 뱉았다.

×

박병섭은 앙앙불락한 심정으로 며칠을 보냈다. 당장 야학방을 허물어던지고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다. 두현이를 불러 따끔하게 닦아세우자는 생각으로 몇번 불러앉히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매번 장성한 자식이 세상일을 하는데 아직 진속을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날뛴다는것이 떳떳하지 못한것만 같아 다른데로 이야기를 돌리군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집안 늙은이 한사람이 일부러 찾아와서 요즘 두현이가 마차군이며 머슴군들과 짝이 되여 돌아간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또 집안 망신시킬 차비가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였다. 병섭은 그 늙은이를 좋게 타일러서 돌려보냈다. 그러나 울분을 더는 달랠 방법이 없었다. 나이 들면서 새벽잠이 주는 대신 초저녁잠이 늘어갔으나 병섭은 억지로 참고 아들을 기다렸다. 혀바닥이 알알해지도록 담배를 피웠다.

아들은 밤이 이슥해서야 돌아왔다.

《애, 두현아—》

로인은 댕댕한 표정으로 앉아 목청을 가다듬고 아들을 불렀다.

두현은 벌써 아버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것을 눈치채고 조심스

럽게 들어와서 멀찍이 떨어져앉았다.

《불렀습니까?》

병섭은 말없이 담배만 뻑뻑 피웠다. 로인의 울적한 가슴속모양 담배대에서 진이 끓었다. 두현은 눈을 치떠 아버지의 기색을 조심스레 살폈다. 무거운 침묵이 깃들었다.

《내 듣자니》 이윽고 로인은 담배대로 재털이를 멀리 밀어놓으며 정색해 앉았다. 《요즘 우리 동네에 공산당의 삐라가 나붙고 불온한 언론이 돌아간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버지,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삐라가 나붙은거야 아버지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왜놈들을 쳐부시고 지주, 자본가를 치자는건데 불온이니 어쩌니 할거야 있습니까?》

두현은 벌써 아버지와 한바탕 격렬한 론쟁을 치러야 할 예감을 느끼며 긴장되여 말하였다.

《그게 종당에는 우리 나라를 망치자는 수작인데 가만 있으란말이냐?》

《누가 망치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또 나쁜놈의 악선전에 넘어간것이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지주, 자본가를 때려엎고 공평한 사회를 건설하자는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나라를 망하게 한단말입니까?》

《음— 네가 공산당이 옳기는 옳구나. 그러니 네가 동네에 야학방을 차려놓고 입만 벌리면 쏘베트요 프로레타리아요 하고 떠드는것이 다 조간이 있어서 하는 수작이렸다!》

《아니, 아버지!》

《에끼, 이 고현놈! 네놈은 이 애비가 그 공산당들때문에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모르느냐! 네가 인두겁을 쓰고 났다면 어찌 애비를 수모한자들과 한동아리가 되여 다시 부모를 배반하는 길에 나서 미쳐 날뛴단말이냐!》

로인의 기상은 무서웠다. 찌렁찌렁한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두현은 흠칠흠칠하였다. 서리발같은 장미가 곤두서고 푸른 눈에서는 황황한 빛이 내뻗쳤다.

《아버지, 고정하십시오. 아버지는 사회주의를 잘 모르고있어요. 악선전을 듣고 괜히 그러신단말입니다.》

두현의 이런 당황한 변명은 로인의 불붙는 가슴에 더욱 기름을 쳐주는 결과밖에 안되였다.

《이놈, 나는 사회주의를 모른다. 허지만 네놈 사회주의자들이 대체 한 일이 무엇이냐? 나라를 도루 찾자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고 그저 두루 공산을 하자는 수작밖에 있느냐? 그 허황한 놀음에 사람들을 충동해서 숱한 사람들만 상하게 만든것이 네놈들 사회주의자들의 놀음이지.》

두현은 처음은 여기가 질려 말을 못하다가 로인이 점차 사회주의에 대해 허무맹랑한 중상을 하려들자 울뚝 속이 치밀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런 케케묵은 말씀은 입밖에 내지도 마십시오. 지금 그래도 왜놈들과 싸워보자고 나선것이 사회주의자들밖에 있습니까? 오늘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놓은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고 사회주의자란말입니까? 다 공자왈맹자왈하던 령감들이지요. 을사5적이 어떤놈들입니까? 다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서 배가 기름진 고관대작이고 부자놈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네 이놈, 입을 다물지 못할가!》

병섭은 턱을 후들후들 떨며 담배대를 움켜쥐고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흥분해버린 두현은 눈도 깜빡 않고 말을 이었다.

《그래 독립군들이 한건 무업니까? 입으로 독립운동을 한다 하고 〈닭의 다리〉나 차고 돌아다니며 의연금이나 긁어가고 행악질이나 하다가 왜놈들이 밀려오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찾자고 말은 하는데 그래 이런 방법으로 나라를 찾을것 같습니까? 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눈을 뜨십시오. 앞으로 세상은 청년들의 세상입니다. 청년들이 하는 일을 뒤에서 받쳐줄 생각은 못할망정 훼방이나 놀고있다가는 재미없을것입니다.》

《뭣이 어째, 이놈! 그게 애비앞에서 하는 말버릇이냐? 이놈, 재미가 없으면 너희놈들이 나를 어찔테냐? 네놈들이 또 큰개에서처럼 나를 몰아내겠단말이냐?》

《누가 몰아낸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 혁명을 하겠다고 무섭게 일어나는 민중의 기세를 꺾으려고 애를 쓰고있다는것을 아셔야 한단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왜놈들과 바로 정희겸이와 같은놈들이지요. 아버지는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한동아리가 됐다고 나무라시지만 아버지는 결국 왜놈들과 한동아리가 되는셈이란말입니다.》

《뭣이 어째! 이놈, 냉큼 나가거라. 냉큼 내앞에서 없어져! 이런

천하에—》
병섭로인은 너무나 기가 올라 말을 못맺고 온몸을 후들후들 떨었다.

14

두현은 아버지앞을 물러나와 자기 방에 돌아온후에도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아버지앞에 못다 터놓은 울분이 그대로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괴여올랐다. 게다가 아버지를 교양하라고 그처럼 당부하던 조직의 과업을 종내 실천 못하고 오히려 덧내버린데 대한 자책과 스스로에 대한 환멸이 머리를 무겁게 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왜 자식까지 못믿는단말인가? 아버지만 돌아서면 안골에서도 많은 인민들이 혁명의 편으로 돌아서겠는데 철없는 처녀총각들도 쉽게 깨치는 단순한 진리를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아버지의 고집불통이 미웠다. 아버지만 돌아서면 조직앞에서 자기 립장도 떳떳해지고 또 그 덕분에 숲으로 보내달라는 청도 쉽게 접수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구나 울분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그러자니 하필이면 그런 과업을 자기에게 준 유철이가 야속스럽기도 하였다.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교양할 의무가 있고 또 아버지가 아들의 말이니까 잘 들을것이라는 전제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피상적이 아닌가? 도대체 아들을 아직 코흘리개쯤으로 알고있는 아버지가 내 말을 말같이 들어주기나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봐야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 자기의 참을성이 적었다고는 꼬물만큼도 생각되지 않았다. 남들이 다 직접 손에 총을 들고 원쑤를 치겠다고 돌아다닐 때 자기는 가슴에 끓는 피를 달래며 따분한 훈장질을 해왔다. 사실 그것도 혁명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수한 사람들은 다 골라서 숲으로 보낸다. 그래 나한테 혁명적열의가 모자라는가? 이런 노엽고 서운한 생각이 머리를 쳐들자 봉이에 대한 까닭없이 애틋한 정이 문득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 봉이를 보았을 때 가슴을 친것은 그 처녀꼴이 다 잡힌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운명의 어두운 그림자앞에 오돌오돌 떨고있는 그 한숨과 눈물이였다. 두현의 정의감은 불타올랐다. 그것이 단순한 이웃집 처녀라도 가만있지 않았을것이다. 황차 그것

은 자기가 한때 한지붕아래서 같이 자라기까지 한 친누이나 다름없는 처녀의 불행이였다. 어떻게 봉이가 정희겸의 병신자식때문에 무참히 짓밟힐수 있단말인가？ 그는 불과 같이 달아올라 강필재도 만나고 봉이도 만났다. 그러나 뜻밖에도 봉이를 불행으로부터 구원하자는 그의 생각은 봉이자신의 저항을 받았다. 그 집에서도 달가와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이 불행이라는것을 그들자신이 왜 모르겠는가？ 그러나 가난은 그들의 의사를 참작해주지 않았다. 그들이 자기 몸이나 자기 딸의 몸을 마음대로 처신할 자유는 없었다. 그러한 자유를 강하게 요구할 때 그들은 굶어야 하였으며 죽어야 하였다. 봉이는—반항할 의지는 너무나 약하고 자기희생심은 너무나 많은 가련한 처녀는 묵묵히, 고집스럽게 자기를 희생시킬 마음을 다지고 그 마음에 동요를 일으킬가보아 스스로 겁내면서 다가올 운명앞에 옹송그리고있었다.

두현은 자기의 무력함을 깨달았다. 동시에 봉이를 위해서도 혁명의 승리를 목마르게 바랐다. 빈말로써는 봉이를 만나도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한다는것을 아는 그는 이제 두고 보자, 모든것을 뒤집어놓을테니—하는 심정으로 봉이와 만날 날을 미루어왔다. 조직에서 제기되는 과업이 많아짐에 따라 시간도 없었다. 낮에는 농사일을 거들어야 하고 밤이면 야학일을 봐야 했다. 처녀나 찾아다니는것이 혁명가로서 떳떳치 못하다는 막연한 잠재의식도 있었다. 또 봉이가 곁을 잘 안주려 하는 눈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백리허숲속 오솔길에서 만났던 그날부터 여적 한번도 단둘이 만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지간에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당황한때문이였다. 야학일이나 집안일때문에 그 집에 몇번 간적이 있고 또 여태까지는 무간하게 드나든 집이였는데 어쩐지 최근에 와서 그 집 문설주가 별로 높아뵈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군하였다. 그리고 봉이앞에 나서면 왜 그런지 전처럼 자유롭게 말이 되지 않았다.

그것이 사랑이라는것을 깨달았을 때 두현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다음엔 당황하여 그것을 부인하였다. 모든 징후로 보아 그것이 이미 움직일수 없는 사실로 느껴졌을 때 두현은 자기를 스스로 맹렬히 꾸짖었다. 봉이는 내 친누이나 다름없는 아이다. 그러니 너는 오직 그 녀자를 한 계급의 자매로서 구원하기 위하여 혁명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강박으로써 될수록 봉이를 만나는것을 피해왔었다.

팔베개를 하고 드러누워 숨을 씩씩거리며 생각하고 또 생각한 두현은 마침내 마음속으로 웨쳤다.

(가버리자, 아버지와 틀어진 이상 유철동지에게 제기하여 어떻게 하든지 숲으로 가버리고말자.)

이렇게 결심하니 봉이의 문제를 기어코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쳤다. 숲으로 가버리면 이젠 만나기도 쉽지 않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의 마음을 돌려세워놓아야 한다. 그를 불행으로부터 구원하는것이 자기의 계급적의무이며 인간적도리이다. 정희겸이가 정 압력을 가하면 조직에 제기해서 딴데로 빼돌리는 방법도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보매 매우 번거로우면서도 론리적인듯한 이런 생각은 기실 그저 머리속을 얼핏 스쳐지나간 생각에 불과하였다. 일단 떠난다고 생각하자마자 머리속을 지질듯이 화끈 달아온것은 덮어놓고 봉이를 그런 불행한 상태에 둔채 내버려둘수 없다는 맹목적인 열정이였다. 그런 열정이 오히려 봉이를 그 어떤 정신적위기에 빠뜨릴수 있다는 고려는 전혀 하지 못했다.

두현은 더는 주저할수 없었다. 그는 괴괴한 골목으로 뛰쳐나왔다. 언젠가의 밤처럼 달이 밝았다. 그러나 숲우에 높이 걸린 그 달은 누군가의 눈물에 아롱진것모양 뿌옇게 무리져있었다.

맹렬한 기세로 걸어가던 두현은 봉이네 집 울바자앞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고 숨을 톺았다.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능히 두들기고 들어갈수 있는 집이건만 벌써부터 아래도리가 후들거리며 주눅이 들었다. 두현은 수수깡울바자우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는 숨을 딱 멈추고 그대로 굳어졌다. 봉이가 온몸에 달빛을 받으며 바람벽에 등을 기대고 서있었다. 두팔은 허리뒤에 감추고 약간 고개를 추켜들었는데 그 희고 갸름한 얼굴에 두줄기 눈물자국이 달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순간 두현의 가슴은 한줌으로 옥죄여들었다. 봉이는 울고있다. 봉이는 남 다 자는 이 밤중에 홀로 서서 자기의 설음을 저 말없는 달에 호소하고있다. 봉이의 그 애절한 모습은 가슴의 불을 키질하였다.

《봉이.》 두현은 저도 알수 없는 어떤 분노를 느끼고 얼마간 거치른 목소리로 불렀다.

봉이는 주춤하더니 인차 눈길을 돌렸다. 어둠속에 눈과 눈이 마주쳤다.

봉이는 얼핏 등뒤의 컴컴한 미닫이를 바라보더니 집안식구들이 잠든 기미를 확인하고 소리없이 사립밖으로 빠져나왔다. 그제야 두현은 으슥한 동구쪽으로 앞서 걸어갔다. 키높이 자란 수수밭머리를 돌자 저만치 외따로 있는 물방아간이 보이고 인적이 괴괴했다.

무심히 뒤돌아보니 여태까지 말없이 따라오던 봉이가 수수밭머리 한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서있다.

《왜 그래? 내 봉이한테 할 말이 있어. 저리 좀 가자구.》

두현은 되돌아와서 봉이의 옆얼굴을 들여다보며 안타깝게 호소했다. 그러나 봉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인가 불안한 예감이 그를 지레 움츠러들게 한것이였다. 두현은 갑자기 할 말을 잃고 숨만 씩씩거렸다.

《내가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두현은 말에 궁해 중얼거리듯 되풀이하였다.

《여기서 말하면 안돼요?》

봉이는 고개를 숙인채 물었다.

《여기서?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래?》

봉이는 잠시 그대로 서있더니 마침내 결심을 다진듯 호— 한숨을 내쉬고 앞서 걸었다. 가느다란 발두렁을 달빛에 젖어 걷는 봉이의 모습은 마치 운명의 호송이나 받고 가는듯 그렇게 얼없어 보였다.

철썩,철썩,물을 받아안은 물레방아의 날개가 허공에서 번쩍거릴때마다 강바닥으로 번져가는 물소리가 까닭없이 두사람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였다. 길다랗게 추녀가 처져내린 물방아간의 형체가 어슴푸레 륜곽을 드러냈다. 마치 어둠속에 괴물이 웅크리고 앉은듯한 그 모양에 겁이 난듯 봉이는 강기슭에 나서자마자 멈추어섰다. 두현이도 한걸음 옆에 떨어져 섰다. 그러나 벌써부터 그의 입안은 타들어왔다. 가슴속에 다지고다진 그 말이 목구멍을 넘어서는 그 순간이면 당장 입안에 불이 달릴것 같았다.

봉이는 까딱도 없이 서있었다. 그것은 어린 처녀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세상풍파를 다 겪은 성숙한 녀인과 같은 모습이였다. 그러한 인상이 더구나 두현을 불안하게 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봉이는 말 한마디 없이 까딱도 움직이지 않고 참을성있게 기다렸다.

《봉이.》 마침내 두현은 이쪽 옆에서부터 저쪽 옆으로 멀찍이 돌아가며 혀바닥으로 입술을 추기고 가까스로 말했다. 그래도 봉이는 가만히 서있었다.

(말해야 한다. 그에게 혁명에 나설 용기를 주자고 하는 말인데 내가 거북할것이 무엇인가?) 두현은 기운을 짜내여 결심을 다졌다. 그는 단숨에 벼르고 벼르던 말을 쏟아부었다.

《봉이, 나는 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찾았다. 나는 이젠 봉이와 다시 만날 시간이 없을것 같다.》
퍼뜩 봉이는 고개를 들어 흥분한 두현의 얼굴을 미심쩍게 바라보았다. 그러거나말거나 두현은 말을 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다투었다. 그래서 나는 이 안골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내가 떠나면서 마음에 걸려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것이 봉이네 일을 해결하지 못한채 떠나는것이다. 나는 사실 봉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좋다. 그러나 나는 기어코 봉이를 건져야 할 나의 계급적의무감을 느끼고있다. 그런데 봉이는 아무리해도 내 말을 믿지 않으니 나는 방법이 없구나.》
《죽심이 오빠, 갑자기 왜 그래요?》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나 평범한 봉이의 반문에 두현은 일순 어리둥절하였다. 그러나 봉이의 그러한 말투가 야릇한 반발심을 자아냈다. 그는 느닷없이 불뿜는것 같은 말마디들을 쏟아부었다.
《봉이,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시간도 없다. 그러니 나하구 같이 가자.
봉이는 여기 있으면 신세를 망치고말거야. 아무도 봉이를 지켜줄 사람은 없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길을 터놓을테니 나하고 함께 이 더러운 동네를 떠나고말자. 봉이, 둘이 함께 가서 정희겸이 같은 놈을 두들겨엎는 혁명을 하자.》
《죽심이 오빠, 갑자기 왜 이래요, 네? 갑자기 떠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기적절하지 못한 우에 마음속에서 불타는 열정으로 하여 두서없이 엮어대는 두현의 호소는 벽지에서 자란 순진한 처녀를 당황하게 했을뿐이였다.
그 불뿜는것 같은 말마디들속에 분명 느껴지는 야릇한 열정은 봉이를 알수 없는 불안에 빠뜨려넣었다. 그것은 전혀 뜻밖에 느끼는 감정이여서가 아니였다. 언젠가 자기에게, 이미 정해진 운명에 대한 무익한 항거를 요구할 때부터 어렴풋이 그런것을 느껴왔고 그후의 두현의 변한 말투며 몸가짐에서도 어색한것을 느껴왔었다. 그러나 자기의 신세를 생각할 때 그것은 가슴을 갈가리 찢어놓는 아픔이였다. 그렇기때문에 봉이는 꿈많은 철에 찾아온 그 짜릿한 예감을 스스로 장사지내야 했다. 봉이는 고개를 돌리며 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죽심이 오빠, 난 무서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두현은 하얗게 질린 봉이의 얼굴에 떠오르는 너무나 뚜렷한 겁먹은 표정을 읽을 때 심장에서 피가 다 새여나가는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는 절망에 사로잡혀 입안에서 중얼거렸다.

《봉이, 왜 봉이는 자기 신세를 망치려고 하는거야, 응? 왜 싸울 생각은 못하고 겁부터 먹으면서 그래?》

《날 괴롭히지 말아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 계집애예요. 내가 어떻게 부모님과 동생들을 버릴수 있겠어요. 그런데 죽심이 오빠는 뻔히 알면서도… 죽심이 오빠까지 이러면 난 어떻게 살아요?》

봉이는 어깨를 떨며 잠시 말없이 서있더니 불시에 쓰러지듯이 몸을 옆으로 기울이고 달아났다. 억지로 참는 흐느낌소리가 물레바퀴에서 철썩철썩 떨어지는 물소리 사이사이로 들려왔다.

《봉이—》

두현은 미친 사람처럼 두렁길을 따라갔으나 봉이는 돌아보지도 않고 수수밭머리를 돌아갔다. 어느새 달은 구름뒤로 사라지고 쏴— 하고 물기 머금은 바람이 불어와 수수밭허리를 치고 멀리 숲쪽으로 사라졌다. 두현의 가슴속처럼 숲도 바람을 맞아 몸부림치듯 휘청거렸다.

×

유철은 요즘 며칠째 몸이 좋지 않았다. 전날 원목을 싣고 현성으로 갔다가 로상에서 비를 만나 거의 반나절이나 비속을 달렸더니 그때문에 고뿔이 왔는가 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봐야 그냥 몸이 달아오르고 팔다리가 쑤시며 골이 지끈지끈하였다.

가뜩이나 일이 잘 안되여 속을 계속 태우는중에 몸까지 이 모양이 되고보니 유철의 마음은 초조하였다.

표면상 일은 잘되여가는듯하였다. 개별적인 절차로 입당시킨 세명의 당원들로써 당조직도 꾸려지고 며칠전에는 공청지부도 내왔다. 청년들의 발전은 빨랐다. 지성덕이와 김치복이는 무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밤마다 강가에 나가 매복하고있다. 동네 전반의 분위기도 달라진것이 사실이다. 이미 큰개와 안골사이에는 가까운 사람끼리 래왕이 되기 시작하였으나 그것때문에 무슨 말썽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따지고볼 때 총을 들고 일제와 싸워야 할 무장투쟁의 발판이

될 그러한 군중토대란 아직 없는것이다. 게다가 혁명이 앙양되고 현내 인민들의 투쟁기세가 높아감에 따라 반동공세도 심해졌다. 왜놈군대들이 가끔 백리허숲변두리를 순찰한다는 통보가 왔다. 정희겸이도 화월이도 점점 눈치가 달라졌다. 보위단원 효범이가 가만히 귀띔해주는데 의하면 곰보 윤철목은 은근히 자기에게 눈초리를 돌리고있다는것이였다. 함부로 나다니기가 조심스럽게 되였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힘들게 되였다. 이 문제때문에 조직에서도 토의가 있어서 이제는 될수록 자신이 표면에 나서지 않고 주로 삼덕이나 두현이가 나서게 되였다.

의심을 받지 않자니 마차군노릇이 육체적으로도 고되였다. 워낙 로동을 사랑하는 유철은 위장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도 일에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공작의 범위가 점차 넓어짐에 따라 하루종일 쉴 시간이라고는 없었다. 줄곧 일에 쫓기면서 늘 사람들과 접촉하고있어야 했으며 사소한 변화에도 날카롭게 주의를 돌리면서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하였다. 뿐만아니라 큰개를 비롯한 하강지구 전반의 통보들을 일일이 분석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어야 했다. 진펄속 꼬지개섬에서도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지금 꼬지개섬에는 그의 지시에 따라 새로 꾸린 당과 공청을 비롯한 군중단체들의 현위기관이 들어가있었고 장차 유격대에서 쓸 병실도 지어놓았는데 거기에 모인 수십명의 후방공급문제며 방위문제가 큰 일이였다. 무장대는 각 지방조직들에서 추천돼올라온 40명 가까운 청년들이 모여 박두성의 지도하에 훈련을 받고있으나 아직 무기는 렵총까지 합하여 11자루밖에 없었다.

꼬지개섬의 무장대사업이나 큰개를 비롯한 하강지구 전반의 사업도 그렇지만 안골의 사업 역시 좋게만 볼수 없었다. 신변의 위험 이외에도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박병섭로인의 교양은 아직도 지질하게 끌고있었다. 당초 로인이 아들을 사랑하고 믿는만큼 우선 아들 박두현을 포섭하고 다음 아들을 통하여 로인을 교양하자고 했으나 두현은 성미가 급하고 팩해서 아버지와 상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할수 없다고 하소연하군했다. 그리고 자기는 이런 일에 전혀 적당하지 못하니 숲으로 보내달라고 자꾸 졸랐다. 아버지교양이나 야학은 두현이 자신의 훈련을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였다. 그래서 유철은 그때마다 좋게 타일렀지만 두현은 내내 달가와하지 않았다. 그러자니 박병섭로인문제는 오늘까지 끌고있었다. 그것은 곧 안골전체의 혁명화가 그만큼 끌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적의 공세는 눈에 알리

게 강화되여 한결음한결음 죄여드는것이 몸으로 느껴지는데 아직도 박병섭영향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협소한 민족주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투쟁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있다.
이 모든것은 더욱 적극적인 활동, 정력적인 투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 유철은 덜컥 몸살에 걸렸다. 반년가까운 이곳에서의 무리한 활동때문에 심신이 다 지친것이다.
골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고 입맛이 딱 떨어져버렸다. 그래도 쉴수가 없었다. 목재판의 일도 일이지마는 더 큰 문제는 사업자체의 요구였다. 상을 찌프리고 사람들을 교양할수는 없다. 초조한 빛을 얼굴에 드러내고 과업을 줄수는 없다. 지도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불안할 때는 말할것도 없지만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도 아직 의식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준다. 불안하게 준 과업을 실천하느라면 그 사람 역시 불안한 잠재의식때문에 일에서 소극적일수 있고 주저하게도 되는것이다.
유철은 앓을수 없는 몸이였다. 다른 사람이 보는데서는 그는 무조건 건강해야 하며 무조건 모든 사업, 모든 생활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립장을 가지고있어야 하였다.
마차를 끌고 들에 나가면 농민들이 가을걷이를 하면서 빚이며 도조때문에 걱정들을 하였다. 많은 문제를 의논해왔다. 그 모든 문제에 대해 그는 웃으며 의견을 주어야 했고 그런 기회를 리용하여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반일사상과 계급의식을 불어넣어야 했다. 수시로 련락장소에 가서 통신을 받아야 했고 또 보내야 했다. 이것 역시 보위단이 에워싸고있는 동네에 숨어있는 몸으로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였다. 열이 바싹 오르는 한낮때이면 눈앞이 어질어질하면서 선자리에서 꼬꾸라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저앉을수 없었다.
그는 오히려 일을 더욱 다그쳐나갔다. **김일성**동지로부터 과업을 맡고 떠난지가 어언 열달이 잡혀오고 안골로 들어온지도 반년이 가깝다. 그런데 아직 이렇다하게 걷어쥘만한 성과가 없고 전진도 뚜렷하지 못하다.
그분께서는 한 농촌의 혁명화를 위하여 몸소 머슴으로까지 가장해들어가시지 않았는가? 게다가 내 몸에는 그분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의 곰국이 퍼져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 그는 잠시도 일을 멈출수 없었다. 그는 손톱눈만치 차례지는 잠잘 시간에도 어떻게 하나 출로를 열어보려고 불심

지를 돋구어놓고 남 다 자는 머리맡에 웅크리고 앉아 불같이 달아오르는 머리를 싸매고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적은 그 공책을 펼쳐들었다. 들을 때는 다 새겨들은것 같던 그 분명한 말씀들이 복잡하게 뒤엉킨 현실에 적용하려들자 당황하게 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렇기때문에 유철은 앓는 몸을 해가지고도 밤마다 공책을 뒤지며 그 강령적인 말씀들을 하강지구에서 어떻게 실천할것인가에 대해 낱낱이 재고따지면서 필요한 주의사항과 주석을 딴 공책에 옮겨적군하였다.

때로는 그이의 그처럼 명백하고 뚜렷한 방침을 실천하지 못해 쩔쩔매는 자신의 무능이 한스러웠다. 그렇게도 믿어주시던 그이의 기대를 저버린것만 같아 죄송스러운 생각이 겹쳐들 때면 그는 머리를 벽에 짓쪼으며 힘없이 나가쓰러지기도 하였다. 그러다가도 날이 밝으면 그는 피로운 몸을 툭툭 털고 일어나 흔연히 웃으며 말을 메우러 마구간으로 가는것이였다.

그날도 유철은 욱신욱신하는 골을 가까스로 쳐들고 말파리를 끌고 현성으로 갔다. 현성에 실어낼 목재를 다 나르자면 앞으로도 열흘이나 걸려야 할것 같았다. 현성에서 재목을 청부업자의 사무실앞에 부리우고 돌아오는데 숲어구에서 정희겸이의 승용마차가 뒤따라왔다.

살찐 두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는 짐마차를 삽시에 뒤떨구고 멀리 달아났다. 옆을 지나는것을 얼핏 보니 정희겸이와 나란히 언젠가 왔던 왜놈목재상이라는놈이 앉아있었다. 데모테안경이며 뱀가죽같이 얼룩덜룩한 십장덧저고리가 유표하였다.

그러거나말거나 유철은 마차채옆으로 발을 늘어뜨리고 앉아 천천히 채찍을 둘렀다.

정희겸이네 집앞을 지날 때 일부러 마차에서 내려 슬렁슬렁 말고삐를 끌며 집안을 기웃해보니 아니나다를가 안사랑에서는 이미 술판이 벌어진 모양으로 저가락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철이가 골목을 돌려는데 뒤에서 급한 발걸음소리가 따라왔다. 돌아보니 보위단원 리효범이 까마귀병 하나를 들고 뒤를 힐끔힐끔 살피며 유철이곁으로 다가왔다.

《이 사람 칠성이, 마침 잘 만났네.》

보니 효범의 안색이 저으기 질려있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머리속을 스쳤다.

《내 술방으로 가는데 같이 가세.》

유철은 말없이 그의 입을 지켜보았다.

동네에 술집이란 따로 없고 유철이가 주인을 정한 홀애비늙은이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소작을 부쳐먹으면서 현성에서 배갈을 스무나문근씩 오지항아리에 받아다 돈이면 돈, 쌀이면 쌀을 받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있었다. 이 집이 정희겸이나 보위단장 윤철목의 단골집으로 보위단원들은 거의 매일이다싶이 동네 한끝에 있는 이 홀애비네 집으로 술심부름을 다녔다.

골목길에 들어서자 효범은 걸음발을 늦추며 사위를 살펴보고나서 은근히 말했다.

《조심하게. 내 칠성이가 보통사람이 아니라는것을 짐작하기때문에 하는 말인데 곰보가 자네를 꼬아바치는것을 내 귀로 들었네.》

《꼬아바치다니. 누구한테 꼬아바친단말인가?》

《자네 그 목재상이라는 일본사람 온것 못봤나? 그 사람이 알고보니 목재상이 아니라 형사라네. 그것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란 말이 있데. 내 그래서 자네를 불렀네.》

《그래 곰보가 그자한테 뭐라고 하던가?》

《자네 이야기를 하더군. 자네가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동네에 새로 온 사람이라군 자네와 박병섭이 아들밖에 없다고 말하데. 눈치를 보니 아마 요즘 동네가 소란한것이 뉘 작간인가 그것을 캐자는것 같아.》

《알겠네. 귀띔해줘서 고맙네. 그러나 그까짓것들이 무슨 수작을 해도 겁날것은 없어. 이미 민심이 돌아섰는데 제놈들이 그런다고 그만둘텐가. 이제 두고보게만 더 큰 일이 벌어질걸세. 효범이, 자네도 잘살게. 옷은 그놈들 옷을 입어도 속까지 뽑혀서는 안돼. 우리가 나라를 찾아야지, 그놈들 개노릇을 언제까지 하겠나?》

《제발 나보구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이젠 그만 헤여지자구.》

효범은 겁이 나서 사위를 다시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유철은 얼른 그의 소매를 앞으로 잡아끌었다.

《자, 걸으면서 말하자구. 효범이, 정말 고맙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효범이같이 그렇게 서로 가난한 사람끼리 위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으니 우리는 힘이 들어도 이 험한 세상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수가 있는걸세. 같이 가자구. 호젓한데 혼자 가기 심심하지 않겠나. 같이 가며 이야기해봅세. 한동네에 있으면서도 마음놓고 이야기 한마디 나눌 짬이 없네그려.》

《난 뭐 특별히 그런 생각까지 한것은 없어도 그저 한동네에 있는 사람이니 귀띔한건데…》

효범은 좀 난색을 지으면서도 같이 따라걸었다.

《그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지.》

《이 사람아, 자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긴 해도 제발 조심하게. 그 사람들이 좀 벼르지 않데.》

《그자들도 벼르기야 하겠지. 왜 안그렇겠나? 우리는 그자들과 목숨을 내놓고 싸울 작정이니까 그놈들도 그런 기미를 챌거란말이야. 효범이, 내 언젠가도 말했지만 정신차리라구. 자네는 근본 우리 편이야. 자네 처지를 잊어서는 안돼. 중간에서 어물거리다가는 누구 손에 죽을지 모른단말일세.》

효범은 피뜩 유철을 돌아보더니 고개를 푹 떨구었다. 한참 그렇게 말없이 걷다가 거의 술방어방에 다 왔을 때야 효범은 새삼스럽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입을 벌렸다.

《칠성이, 나도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은근히 마음에 켕기네. 여보게, 나를 그저 더러운 인간으로만 생각지 말고 이따금이라도 좋으니 좀 세상이야기를 해주게. 난 본시 무식한 사람인데다 궁냥이 트이지 못한 인간일세. 내가 옆에서 보니 자네가 남의 일을 제일처럼 거들어주군하는데 사실 나도 자네와 의논해보고싶은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세. 오늘밤은 이만 헤여지고 이담에 또 만나서 세상물정에 대해 좀 들려주게.》

유철은 효범이의 말이 대견하고 고마왔다. 다른 농민들과도 달라서 그는 어쨌든 보위단원이요 또 어렴풋이나마 자기의 정체를 짐작하고있는 사람이라 그러한 그가 자기를 위해 신변의 위험을 귀띔해주고 이렇게 속을 터놓고 이야기해준다는것은 벌써 그의 마음이 혁명의 편으로 기울어져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사실 효범이와의 접촉에 대해서는 공작상 필요에 의해 몇번 만나기는 했지만 내심 그닥 자신이 없었다. 상대가 보위단원이기도 하지만 원체 곁으로 보기에도 기가 약한 사람이였다. 그가 큰 반동질은 못한다 해도 혁명의 길에 적극적으로 나설만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할수 없었고 그래서 조직에다 보고도 그런 방향으로 했던것이다. 그러면서도 한사람이라도 많은 반일력량을 묶어세우며 지어 적기관에 있는 사람들가운데서도 량심적인 사람들을 교양하여 반일통일전선에 결속시켜야 한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를 깨우쳐보려

고 애썼던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을사5적과 같은 민족반역자의 무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선사람들에게는 애국심이 있고 일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분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가? 유철은 효범이도 머지 않아 혁명의 편에 끌어들일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모든 일이 비틀려만지는것 같은 이러한 때에 자기의 자그마한 노력을 통해 **김일성**동지의 로선과 방침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확신하게 되고 또 그 정당성을 증명하였다는것이 기뻤다.

그는 효범이와 그대로 헤여지는것이 아쉬워 얼른 마차를 마당에 들여세워 말안장을 벗기고는 제먼저 골목에 나와서 기다렸다. 이윽고 술병을 들고 되나온 효범은 유철을 보자 놀라면서도 고마와하는 빛이 완연하였다. 그와 다시 걸으면서 유철은 왜놈목재상이 노무라란놈의 졸개이며 지금 성경무청에 틀고있는놈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

효범이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자그마한 발전은 틀림없이 이 괴로운 밤에 찾아온 기쁨이였지만 그가 귀띔해준 말은 아직도 어수선한 동네형편을 생각할 때 위협이 아닐수 없었다. 공작기간이 이렇게 오래 끌줄 모르고 초기에 사람이나 조직을 너무 로출시킨것이 뉘우쳐졌으나 이미 되돌릴수는 없었다. 앞으로 한시빨리 대오를 결속하는 한편 적들의 공세에 대처하게끔 이것저것 수습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야학문제도 적의 감시아래서 진행되는만큼 내용을 더 교묘하게 짜고들어야 할것이고 공청의 활동도 더 깊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조직성과 전투성을 더욱 높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간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한시바삐 쟁취해야 한다. 그는 어찔어찔해지는 머리를 이따금 저도모르는 사이 움켜쥐며 생각에 잠겨 걸었다.

정희겸이네 담이 나타나자 효범이의 손을 한번 굳게 잡은 다음 집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되돌아섰다.

무리져 뿌옇게 흐려있던 달빛은 사라지고 우수수 비바람이 몰려왔다. 껑충한 수수그루가 몸부림치며 설레였다. 무엇인가 불안한 예감을 자아내는 밤이였다.

홀애비네 집 어방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 마당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얼씬하더니 숨가쁘게 달려왔다.

유철은 긴장되여 수수발속으로 한걸음 들어섰다. 그런데 뜻밖에도 두현이가 씩씩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된 일이요?》

유철이 행길로 나서며 묻자 두현은 우뚝 멈추어섰다.

《유철동지, 급하게 만나고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마침…》

《동네에 왜놈형사가 와있소.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기로 하지 않았소?》

유철은 낮으나 엄하게 말했다.

《그런데 사실은—》

《하여간 좋소. 바깥에서 만난것이 다행이요. 저리로 갑시다.》

다시 야학방이 있는 동구밖으로 걸으며 유철은 두현의 모습을 살폈다. 몹시 흥분했다는것이 밤눈에도 완연하다. 무슨 일일가?

야학방은 캄캄하였다. 이 밤에 불을 켤수도 없고 빈집에서 인적기를 낸다는것이 더 수상해보일수도 있어서 얼마쯤 더 걸어가 늙은 수양버들이 외롭게 서있는 외딴 밭머리로 갔다. 바람은 점점 더 세여져서 수양버들은 산발한것 모양 가지를 헝클어뜨리고 미친듯이 울부짖었다.

《유철동지, 나를 숲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이 이상 더 참을수 없습니다.》

두현은 첫마디부터 제 가슴을 치면서 말했다.

《어떻게 된 일이요? 진정해서 말하시오.》

유철은 오싹오싹해지는 한기에 어깨를 옹송그리면서도 천천히 부드럽게 말했다. 보매 무척 흥분한듯한 두현이를 가라앉히자면 이쪽에서 여유를 보여야 할것이였다.

《난 오늘저녁에 기어코 아버지와 싸웠습니다.》

《뭐, 아버지와? 그건 어떻게 된 일이요?》

유철은 저도모르는 사이 큰 소리로 물었다.

바람결에 후둑후둑 비꽃이 묻어왔다. 목덜미로 새여드는 한둘 비방울이 지겨울 정도로 을씨년스러웠다. 유철은 두현의 말을 들으며 턱을 덜덜 떨었다. 뼈마디가 울릴만큼 몸이 떨렸으나 이미 한기도 몸살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일은 랑패다. 급박한 정세의 움직임속에서 그래도 병섭로인의 개변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있었는데 이젠 덧날대로 덧났을 로인을 어떻게 달랜단말인가? 게다가 그 불쌍한 봉이마저 울려놓았다니 기가 찼다. 병섭로인이나 봉이로 말하면 두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만치 무슨 딴속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나 철없이 굴어놓은 그가 괘씸하였다. 그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조직의 사업에 또하나의 난관을 만들어놓지 않았는가? 생각같아서는 대번에 호령을 해주고싶었다. 그러나 분한 생각가운데서도 자기가 이와

비슷한 결과에 대해 진작 예감하고 걱정은 하면서도 일에 몰리여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자책감이 떠올랐다. 자기가 더 좀 꼼꼼히 일을 짰더면 능히 막아낼수 있는 허물이였다. 그것이 분하였다. 박병섭로인이 결김에 무슨 화단을 일으킬는지 모른다. 그런데 적들은 이미 안골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이르는곳마다에 칼을 묻고있다. 머리가 아프다. 자기 신변도 위험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까짓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직은 어떻게 될것인가? 비를 맞으니 몸은 견딜수 없이 열이 올랐다. 그러나 유철은 조용히 두현의 어깨를 쓸었다.

《두현동무, 그래 봉이를 그렇게 해놓고 훌 떠나면 봉이는 어떻게 하지? 그러지 않아도 피로와하는 봉이가 아니요?》

《별수 없습니다. 그 동무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세를 자기가 망친단말입니다. 난 사실 봉이가 응해만 주면 무슨 짓이라도 해서 빼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봉이는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두현동무, 우리가 혁명하러 나섰을 때 누가 우리더러 혁명을 해달라고 청원을 해서 한것은 아니지 않소? 봉이가 그럴수록 동무는 진심으로 봉이를 도와주어야 하고 불행으로부터 구원해줘야 하오. 그것이 참다운 계급의 우애이며 사랑이요. 동무의 마음이 깊고 참될수록 동무는 자기 감정에 의해 제멋대로 행동할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참으로 좋은 결과가 돌아오도록 책임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거요. 그런데 동무의 오늘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봐서 봉이도 괴롭히고 우리 혁명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빚어냈소. 동무도 정확하게 말한바와 같이 봉이를 구하는 길은 우리가 빨리 안골에서 혁명에 승리하는 길밖에 없소. 그러니 결국 동무는 봉이의 운명에 더 타격을 주었단말이요.》

《유철동지, 나는 내가 잘못했다는것을 잘 압니다. 내가 잘했다고 우기는것이 아닙니다. 난 사실 봉이문제만 해도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지는 않았지만 나로서는 어찌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불쑥 마지막말을 했습니다. 우물우물하고있는 사이 날자는 자꾸 가고 그러면 결국 봉이는 팔려가고말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모든것이 될대로 돼버렸습니다. 난 동네에 남아있을 체면도 없고 또 그런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남아있어봐야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날 보내주십시오. 난 숲에 가면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날 인테리라고 나약한 인간으로 생각지 말아주십시오.》

유철은 묵묵히 생각에 잠겨있었다. 한참 비방울이 듣더니 멎고 바람

만 그냥 휘몰아쳤다. 틀림없이 이 바람끝에 큰비가 올것이다. 길은 또 진흙탕으로 이겨질것이다. 혁명도 그러한 진창길을 걷게 될것이다. 유철은 머리속이 달아올라 일부러 맥락없는 생각을 더듬기도 하였다. 그러나 짜증스러운 생각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지그시 어금이를 깨물고 자기 감정을 누르며 여전히 조용한 투로 말했다.

《두현동무, 그러지 말고 오늘밤은 가서 푹 쉬오. 좀 흥분한것 같은데 하루밤 자고나서 다시 의논해봅시다. 숲이란 갈곳이 없어진 사람들이 모여드는곳이 아니라 원쑤들과 싸우기 위해 마련한 혁명의 터전이요. 사실 내가 두현동무를 잡고 놓지 않는것은 동무가 못미더워서도 아니고 동무를 괴롭히기 위한것도 아니요. 생각해 보오. 우리는 안골인민들을 교양하기 위해서 야학도 운영하고 또 동무의 부친과도 사업해야겠는데 동무는 딴데로 보내고 다른 사람더러 그 일을 하라고 할수는 없지 않소? 뿐만아니라 동무자신도 그런 공작과정에 배우고 단련된단말이요. 동무는 응당 이 사업을 잘해서 동무가 사랑하는 아버지나 봉이의 운명도 구원하고 혁명에도 도움을 주어야 하겠는데 내 보기에 동무는 그 무엇보다도 자기 감정을 중시하는것 같소. 이것은 아직 사랑이 부족한 증거요. 참되게 사랑할줄 모르고서는 우리는 혁명의 간고한 시련을 이겨낼수 없소.》

《그건, 그건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내가 너무 자기 기분에 사로잡힌것은 어느정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랑이 부족하다는것은—》

《알겠소. 그러나 사랑이란 자기 주관만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소. 동무는 실천으로써 그것을 증명해야 하오. 우리는 때로 괴롭더라도 사랑하기때문에 참아야 하는거요. 내가 동무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이 말을 굳이 하는것은 동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참아보라는 의도에서 한 말이요. 봉이를 위해서나 아버지를 위해서나 동무는 혁명을 잘해야 하오. 그런데 지금 혁명은 동무가 훌 숲으로 갈것이 아니라 동무가 버러집어놓은 일들을 깨끗이 수습하고 이미 맡겨진 과업을 어떻게 하든지 완수할것을 요구하고있단말이요. 물론 동무 마음이 괴로울줄 나도 짐작하오. 그렇지만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면 혁명을 누군들 못하겠소? 우리는 괴로움을 극복하고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자신을 강철로 벼려내야 하오.》

두현은 한참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있었다. 그러다가 불시에 벌떡 일어나더니 성이 난 모양 인사도 없이 뚜벅뚜벅 걸어갔다.

《두현동무.》

유철은 뒤따라 일어나며 조용히 불렀다. 두현은 그 자리에 멎어섰다. 그러나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오늘 또 왜놈형사가 나타났소. 그러니 특별히 경비를 강화하고 강의내용에도 조심을 두어야겠소. 그놈들에게 발목을 잡히면 재미가 없소.》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두현은 뚱딴지같은 대답을 하였다.

《래일 사과를 하시오. 아버지까지 말썽을 일으키면 곤난해질지 모르오.》

《사과나 했다고 인차 돌아설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긴 그것이 문제요. 좌우간 오늘밤은 푹 자고 래일 또 의논해봅시다.》

다시 비바람이 쳤다. 두사람은 같은 길을 되돌아오면서도 따로따로 떨어져서 말 한마디 없이 걸었다. 어두운 하늘로 비구름이 몰켜드는것이 똑똑히 느껴졌다.

15

불안한 예감은 어김없이 들어맞았다. 이틀동안이나 억수비가 쏟아졌다. 길은 진창으로 짓이겨졌으며 곡식들은 쓰러졌다.

비바람을 맞은것때문에 유철의 몸살은 덧쳤다. 아끼시마가 다녀가더니 비가 쏟아지는 신작로우에 전에없이 많은 행인들이 안골쪽으로 왔다. 행상이며 나들이군처럼 차린 그 태반이 밀정이라는것이 곧 드러났다. 그들은 비를 긋는다든지 장사를 한다는 핑게로 마을의 이 집 저 집을 기웃기웃하며 돌아다녔다.

어수선한 날씨에 불안한 분위기가 떠돌았다. 이러한 때에 박병섭로인은 당장 야학을 걷어치우라고 떠들고나섰다. 두현이가 이튿날아침에 사과를 하였으나 일언반구 대척이 없더니 그날밤 종내 아들을 야학에 못나가게 붙잡아앉혔다. 마을에 수상한자들이 드나드는데다 로인이 이렇게 외고 다니는바람에 처음부터 좀 떨떨하던 사람들이 야학에서 떨어져나갔다. 그런 눈치를 챈 아끼시마란놈이 박병섭로인을 낚아보려고 정희겸을 그

집으로 보내기까지 하였다. 물론 박병섭로인은 전에없이 나타난 정희겸을 문전에서 내쫓고말았다지만 이 역시 심상한 조짐이 아니였다.

유철은 골이 쏘았다. 반혁명의 공세가 날카로운 이때 그 어느때보다도 빈틈없이 째여져있어야 할 조직은 어수선하고 군중은 동요하고있다. 지어 이미 혁명의 편에 전취한것으로 치부하고있던 몇몇 사람들마저 박병섭로인의 몇마디 말에 흔들리여 외면해버렸다. 이러고보면 과연 이 동네를 혁명화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이다. 이 조그마한 동네를 하나 쟁취하지 못한다면 백리허나 하강의 전반적지역에 걸쳐 혁명의 튼튼한 군중토대를 닦는다는것은 한갖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력한 전선을 형성하여 **김일성**동지의 싸움을 도와드리고 조금이라도 그이를 보위하며 헐하게 해드린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유철은 억수로 쏟아지는 비속으로 재목을 실은 말파리를 끌고 현성으로 오르내리며 줄곧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그런대로 야학은 계속해야 하고 가능한 한 군중을 더 굳게 묶어야 하겠기때문에 삼덕이와 토의하여 두현이가 못나오는 경우에도 야학방을 비우지 않게 하고 이미 예견했던 회합들을 충분한 경계속에서 밀고나가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불안을 금할수가 없었다. 대체 이 거치른 땅우에서 나는 누구를 믿고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펴며 혁명을 해야 하는가?

깊은 밤이였다. 방금까지 유철의 이마를 짚으며 걱정하던 홀애비 령감도 곯아떨어졌다. 좁고 음침한 단간방에는 해종일 고된 일에 시달린 령감과 그의 어린 아들의 곤한 숨소리가 어수선하게 떠돈다. 머리와 다리들이 마구 뒤엉킨 고달픈 삶에 지친 부자의 모습이 어둑시그레한 방등불아래 어렴풋이 드러났다. 탁한 방안공기, 꺽꺽 막히는 피로운 숨소리, 안깐힘을 쓰며 돌아눕는가 하면 부득부득 이를 갈고 끙끙 앓음소리를 치는 가긍한 그 정상을 바라보는 유철의 눈은 저도모르게 스르르 감겼다. 몸살을 앓는것은 비단 나만이 아니다. 모든 조선사람들이 이밤을 몸살로 새운다. 나날과 다달, 평생을 몸살을 앓으며 괴롭게 살다가 지쳐빠져서 저세상으로 가버린다. 이러한 생각이 떠오를 때 방금까지 지끈지끈하던 머리대신에 가슴이 쓰려왔다.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구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그처럼 심려하시는 저들 조선겨레들을 한데 묶어세우고 억센 혁명의 전사로 키워내여 마침내 조선혁명승리의 그날을 함께 맞이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까이 계신다면 자기의 이 답답한 가슴을 그이앞에 열어헤치고 시원히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고싶었다. 하지만 그럴 형편이 못된다. 멀리 그이로부터 떨어져있는 지금 비록 무능하다 하더라도 자기는 여기서 그이의 방침을 자기 힘으로 관철해나가야 하는것이다. 누구를 믿고, 누구의 힘에 의거해서？…막연하였다. 한때 명백한것 같이 생각되던 문제들까지도 일이 잔뜩 꾀여만지는 오늘에 와서 보니 전혀 자신이 없어졌다.

유철은 안타깝게 몸을 뒤챘다. 그러다가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가슴속으로 손을 디밀었다. 항상 품에 간직하고 다니는 그이의 말씀이 적힌 공책이 손끝에 마쳤다. 유철은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다. 몸이 괴롭고 일이 시원치 않은 지금 그 공책을 매만지니 마치 그이의 부드럽고 힘찬 음성이 그대로 몸에 배여드는듯하여 그리움이 가슴을 꽉 채웠다. 그는 그때 자기를 앉히시고 그리도 간곡하게 깨우쳐주시고 타일러주시던 그이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되새기며 저도모르게 마음속으로 외웠다.

(수령님,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다가 유철은 번쩍 눈을 떴다. 그렇다, 나에게는 그이의 말씀이 적힌 공책이 있지 않는가？ 그분께서는 오늘의 내 처지를 미리 예견하시고 반드시 무엇인가 깨우쳐주셨을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유철은 다시 방안을 살폈다. 여전히 고달픈 숨소리들이 엇갈릴뿐 밤은 깊을대로 깊었다.

유철은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벽에 걸린 방등불을 제 머리맡으로 내려다놓았다. 그리고 이불을 머리우에 뒤집어쓰고 조심스레 공책을 펼쳐서 한장한장 번졌다. 가뜩이나 열기떤 눈이 이글이글 불탔다. 유철은 목마른 사람이 샘을 만난것 모양 초조감에 볶이면서 글줄을 더듬었다.

마침내 군중공작과 관련한 그이의 말씀들을 더듬어나가던 그의 눈은 한곳에 와서 딱 멎었다.

《…일본제국주의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무장하고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강대한 적을 맞받아 싸우자고 하며 승리하자고 하는가？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인민뿐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떤 남의 힘을 빌어서가 아니라 조선인민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해야 한다. 그런것만큼 우리는 우리 인민을 믿어야 하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혁명의 편에 전취해야 한다. 을사5적과 같은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선사람들은 일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강하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이 애국심과 민족적량심을 믿어야 한다. …》

유철의 가슴은 쿵덩쿵덩 뛰였다. 바로 이것이다. 그이께서는 벌써 오늘에 와서 자기가 헤매이게 될 그 회의의 수렁길을 미리 예견하시고 이처럼 귀한 말씀을 해주셨던것이다. 의례 이러한 가르치심이 있는줄 알고 일이 막힐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더듬는 공책이기는 하였으나 정작 괴롭고 답답하고 지어 외롭기조차 한 이 어수선한 광야의 깊은 밤에 그이의 이처럼 힘찬 말씀을 다시 접하고보니 고마움과 그리움이 겹쳐 코허리가 찡하니 메여왔다.

유철은 공책을 소중히 품에 간직하고나서 다시 눈을 감고 생각하였다.

인민을 믿으라고 하시였다. 그러니 자기는 박병섭로인을 믿어야 하며 감질이 날 정도로 반응이 적은 이곳 벽지의 순박한 인민들을 믿어야 한다. 자기가 그들을 선뜻 믿지 못하고 곁을 주지 않으니 그들 역시 자기를 덜 믿고 조직을 덜 믿으며 혁명을 덜 믿는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이 강대한 적을 맞받아싸우자고 하며 승리하자고 하는가?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인민뿐이다.…》

그러나 자기는 아직 사소한 현상에 눈이 팔리여 조선혁명이 거기에 발붙이고있는 그 인민을 덜 믿고있다. 이것은 곧 자기의 낡은사상의 발현이며 지난날 수공업적인 이른바 《운동》과정에 몸에 배인 그 깡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표현이다.

그들을 믿고 사업을 더 진공적으로 하자. 사실 형편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내가 의지할데는 인민들밖에 더 있는가? 그러고보면 자기는 아직도 그이의 말씀을 심장으로까지 새기지는 못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유철은 동이 트도록 딴 공책에다 그이의 과업을 실천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자기의 구상과 의견을 적어나갔다.

그런데 이튿날 김기창이가 또 하나의 상서롭지 못한 소식을 전하였다. 무장대의 활동을 두고 김익보와 박두성 사이에 며칠째 론쟁이 계속되고있다는것이였다.

심란한 생각에 잠겨 골목에 나서니 정희겸이네 혼수가 간다고 구경군들이 떠들썩하였다. 아닌게아니라 조령감이 시뻘건 상자를 지게에 지고가는데 그 뒤로 윤철목이가 권총자루를 눌러잡고 거드름을 부리며 따라갔다. 곰보가 그런 꼴로 따라가는것을 본 동네사람들은 강필재가 혼수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기때문에 저놈이 위협삼아 총을 차고 따라간다고 쑥덕거렸다.

유철은 주먹을 부르쥐였다. 입고 다니던 솜옷도 벗어던졌다. 혁명은 위기에 처하고 인민들은 불행에 울고있다. 잠시도 주저할 짬이 없다.

한시바삐 헝클어진 매듭을 풀고 대오를 정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싸움을 벌려야 한다. 사람들을 믿자, 혁명을 하지 않고는 어차피 살아나갈수 없는 그들의 운명이니만큼 비록 어려운 곡절을 거친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혁명의 편에 돌아서고야 말것이다.

유철은 꼭두새벽에 일어나 목재판에 가서 기둥감을 싣고 현성으로 달렸다. 꼬지개섬에 들려 사업할 틈을 타내기 위해서는 길을 서둘러야 하였다. 그는 기껏 말들을 먹인 다음 고삐를 잡고 일어서서 질풍같이 마차를 내몰았다. 그중 힘좋은 놈으로 골라낸 두필의 말은 진창을 휘뿌리며 아직도 비안개 감도는 숲속을 쏜살같이 달아났다.

왕복 140리 진창길을 두행보를 하고나니 그렇게 달렸건만 짧아지기 시작한 가을해가 숲너머로 슬핏하니 기울어졌다. 사람도 말도 지쳤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업은 앞에 있다.

유철은 다리목에서 말들의 워낭을 떼버리고 길을 꺾어 꼬지개섬으로 향하였다. 아름드리 이깔나무가 촘촘히 들어선 원시림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하강의 지류가 여러 가닥으로 흘러드는데다 장마철에 넘쳐난 물이 군데군데 괴여 도처에 크고작은 늪과 수렁판을 만들어놓았다. 어떤데는 커다란 호수가 바다같이 누워있었다. 이러한 습지대로 잘못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깊이를 모르는 진펄속으로 형체없이 빨려들어가고마는것이다. 츠렁츠렁 물이 고인곳은 말할것 없고 얼핏 보매 풀이 무성해있는 반반한곳도 밑은 흔들레판이라 풀뿌리가 엉켜붙은 꼬지개덩어리를 골라디디면서 한걸음한걸음 조심을 두며 건너야 하였다. 백리허숲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호수에는 이러한 꼬지개와 나무뿌리가 뒤엉키여 이루어진 섬이 있는데 언제 생겨났는지도 모르는 이 섬이 곧 무장대오의 준비를 다그치고있는곳이였다. 혁명가들이 여기에 오기전까지는 포수들과 숯구이들밖에 그 누구도 발을 들여놓은적 없는 꼬지개섬이였다. 섬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오직 한가닥밖에 없었다. 련락장소를 꼬지개섬으로 정하자고 제기한것은 김익보였다. 그는 무장투쟁문제가 제기되자 곧 흥분하여 전부터 련계가 있던 숯막령감과 대장쟁이를 데리고 장시간 숲을 돌아다닌끝에 이러한 섬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길로 답사를 하였다. 무장투쟁을 하자면 든든한 발판이 있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아마도 조직에서 아무런 물의 없이 채택된 유일한 제안일는지 모른다.

유철은 안골에 잠입한후에도 이미 여러차례 다녀본 길이라 주저없이 말을 내몰았다. 3면은 물이고 동쪽 한곳으로만 숲과 련결되여있는

습지대는 관목덩굴과 풀이 무성하여 이미 으스러져가는 땅거미속에서 통로를 찾아내기가 수월치 않았다. 가뜩이나 비가 온 뒤끝이라 통로마저 물이 질펀하였다. 유철은 하는수없이 마차를 숲속에 감추어두고 빈몸으로 진펄을 건너갔다.

섬에 들어서자 먼저 보초를 찾아 아무도 호출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대로 귀틀집쪽으로 다가갔다. 비물에 불어난 호수에서 비릿하고 구수한 해감내와 너겁내가 풍겨왔다. 축축하게 젖은 물버들가지들이 마구 뒤엉키여 물우에 드리워있었다. 전부터 훈련장소로 쓰던 공지옆을 빠져나가니 약간 성이 날사한 두성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방아쇠를 그렇게 죽을 기를 써서 잡아당길게 뭐있는가말이요? 숨을 멈추고 가만히 당기라는데 이건 젖먹은 힘까지 다 쓰니 철알이 놀라서 공중으로 달아나지 않고 어찌겠소?》

《거 농사하던 손이 돼서…》

관목덤불사이로 넘겨다보니 스무나문명되는 대원들이 커다란 황철나무아래 웅기중기 모여섰는데 두성이가 한가운데 서서 보총허리를 잡고 흔들어댄다. 그 앞에 바지저고리를 입고 장딴지를 칡넝쿨로 질끈 동인 청년이 서서 더수기를 긁고있다. 두성이도 그렇고 다른 청년들도 그렇고 모두 옷이 함빡 젖었는데 진흙덩어리가 여기저기 게발려있다. 아마 진펄속에서 종일 사격훈련을 한 모양이다.

《저게 누구야?》

한 청년이 유철을 발견하고 어정쩡하게 소리치자 두성이 이쪽을 돌아보더니 그로서는 드물게 보는 성급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훈련을 받던 청년들가운데는 유철이가 추천해보낸 목재판의 로동자들도 있고 큰개의 낯익은 얼굴들도 있어서 저마끔 인사를 하였다.

유철이가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웃자 두성은 비로소 《쉬엿!》하고 구령을 쳤다. 아직 모든것이 어리고 서툴렀으나 씩씩하고 소박한 무장대성원들의 얼굴을 보니 유철의 마음은 한결 가라앉았다.

《어떻게 갑자기 나오십니까?》

두성은 유철이 내민 손을 잡으며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다가 펄쩍 놀라서 소리쳤다.

《아니 손이 왜 이렇게 뜨겁수다? 어디 몸이 편찮은게 아닙니까?》

《뭐 시간이 급해서 좀 달렸더니 그런 모양이요. 훈련을 늦게까지 하는군. 좀 진척이 됐소?》

《틀렸어요. 난 암만해도 사람 가르치는 소질이 없는 모양이우다. 어제 대준건 오늘 까먹고 아침에 대준건 저녁에 까먹는 판이니 도무지 앞으로 나가야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꾸 전투를 하자고 다그치지… 참, 나라고 왜 싸움할 생각이 없겠소.》

두성은 그 커다란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슬금슬금 유철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자기와 김익보 사이의 론쟁을 유철이가 알고 왔는가, 모르고 왔는가 그게 궁금한것이다.

《들으니 두성동무는 상당히 신중론자가 됐다는데 익보동무와 서로 보따리를 바꾸어멘것 아니요?》

유철은 순진한 사람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웃음어린 소리로 자기가 다 알고 왔다는것을 은근히 암시하였다.

《벌써 통보했군요. 사실 큰 문제도 아닌데…》

두성은 갑자기 거북해하며 중얼거렸다.

《왜 큰 문제가 아니란말요? 좌우간 훈련을 끝내고 들어오시오. 저녁에 좀 토의해봅시다.》

두성이와 헤여진 유철은 땅거미 내려앉는 숲속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세채의 귀틀집이 저만큼 나무그루사이로 드러났다. 병실로 지은 그중 큰 귀틀집옆 취사장에서 연기가 뭉게뭉게 피여올랐다. 현위기관들이 들어앉은 집은 병실과 취사장으로 쓰는 귀틀집을 돌아가야 하였다. 처음 고지개섬을 꾸리기 시작할 때는 되는대로 움막같은것을 치고있었는데 유철이 와보고 혁명을 하루이틀 하고 말것이 아니니 사람들의 건강도 유지하면서 장구적인 싸움에 견디여내게끔 발판을 잘 꾸려야 하겠다고 말을 해서 이제는 제법 번듯한 귀틀집을 이렇게 일으켜세운것이였다.

지나는 길에 기웃이 들여다보니 로채숙이가 아궁앞에 쪼크리고 앉아 눈이 새빨갛게 짓물러가지고 연방 불을 불고있다. 집안에 온통 연기가 가득찼는데 아궁앞에는 축축하게 젖은 나무단이 가려져있고 아궁에서는 시꺼먼 연기가 타래져 피여올랐다. 한편 커다란 솥에서는 구수한 밥 끓는 내와 함께 김까지 잔뜩 서려올라서 도무지 눈을 뜰 형편이 못되였다.

《채숙동무가 수고하누만.》

유철의 목소리에 채숙은 화닥닥 놀라 일어나더니 짓물린 눈을 검댕이투성이손등으로 가리웠다.

《어마나, 유철동지 오셨네. 어떻게 이렇게 불쑥 오셨어요?》

《내가 암만해도 채숙동무가 불때문에 고생할것 같아서 지나는 길에 들렸지. 그런데 남자들은 다 어데 가고 동무에게 이 노릇을 시킨단 말이요?》

유철은 성큼 부엌으로 들어서며 진정으로 노여워서 말했다.

《여느때는 남자들이 다 거들어주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없어요. 기창동무가 화약공작때문에 가막골광산으로 열두명이나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또 훈련나갔어요. 오늘은 나무가 젖어서 이러지 여느때는 혼자서도 넉넉히 할수 있어요.》

채숙은 변명투로 말하며 유철의 눈치를 살폈다.

《어디 봅시다. 비가 올 기미가 보이면 미리 마른 장작을 마련해두군해야지 이게 무슨 하루살이살림이요? 그래 훈련나간 동무는 한두동무 떼면 안된다오?》

《요즘 두성동무에게 그런 경향이 있는줄 아세요? 빨리 훈련 끝내서 전투하러 나가겠다고 벼르고있는데… 그래도 두 동무 떼주었는데 시끄러워 마른 나무 구해오라고 보내버렸어요. 아이, 그런데 그건 왜 자꾸 헤치세요? 이젠 피여오를거예요. 건드리지 말고 둬두세요.》

채숙은 유철이가 아궁앞에 쭈그리고 앉아 한 아궁 쓸어넣은 장작을 이리저리 헤집자 당황해서 소리쳤다.

《도끼를 가져오우. 봇나무장작은 좀 젖어도 잘 피는데 이건 장작을 어떻게 쓸어넣었는지 불인들 답답해서 살아나겠소?》

《참, 그저께밤에 내가 큰개에서 천을 가져오느라고 돌아다니다가 고단해서 그냥 자버렸지요. 그사이 비가 와서 몽땅 나무를 적셔놓았어요.》

《제때에 비설겆이를 해서 나무를 건사할 생각은 못해, 젖은 나무로 불피우는 법은 몰라, 그러니 일이 잘될밖에…》

유철은 롱조로 히죽히죽 웃으며 도끼로 봇나무장작을 성냥개비처럼 잘게 쪼개여 익숙한 솜씨로 아궁밑을 헤치고 밀어넣었다. 불길이 번지자 가는놈부터 골라서 까치둥지 짓듯 착착 가려나갔다. 차차로 연기가 엷어지더니 이윽고 장작끝에서 지글지글 거품이 끓어오르며 탁탁하고 세차게 타번졌다.

《나를 업신여기시는군요? 하지만 오늘은 불도 볼래, 반찬도 장만할래, 그러다가 이렇게 됐지 늘 이런줄 아세요?》

채숙은 좀 면구해하면서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자, 불은 내가 봐줄테니 반찬이나 만들어보오.》

유철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다 두손을 펼쳐대고 쪼이며 조용히 말했다. 아늑한 불앞에 앉으니 며칠째 떨리던 몸이 녹는듯도 하였다.

채숙은 세면대야에 불구어놓은 산나물을 아궁이옆에 끌어다놓고 다듬기 시작했다.

《산나물은 어디서 난거요?》

《큰개 부녀회원들이 뜯어다 말린거예요.》

《채숙동무, 고생을 많이 했소. 이제 토의해보겠지만 앞으로 녀성동무들을 몇사람 무장대에 받을 작정이요. 그때면 부녀공작이나 작식공작도 한결 헐해질게요. 한데 어머님은 편안하시오?》

유철은 점점 몰라보게 변해가는 채숙을 대견스레 바라보며 인간으로서 그렇게도 성실했던 그의 오빠 채범이를 문득 상기하였다.

《그냥 펄펄하시지요뭐. 지금 큰개부녀들의 선봉에 서계신답니다.》

《채숙동무가 집을 떠나서 외로워하시지는 않소?》

《말은 안하는데 좀 눈치가 이상해요, 호호호.》

채숙은 장난궂은 선머슴처럼 웃었다. 그러나 그 말끝에 감겨도는 측은한 정은 감출수 없었다.

《어머니 마음을 그렇게 웃는 법이 어디 있소? 우리 근거지를 든든히 꾸리고 유격구가 형성되면 채숙동무가 어머니를 모실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봅시다.》

《아이 그런 생각 그만두세요. 혁명을 위해서 아들딸이 다 전사한 어머니도 많은데 난 아직 이렇게 살아있지 않아요? 어머닌 그러지 않아도 날 이젠 자식치부 안하신답니다. 그까짓 딸자식 어차피 남줄건데 하고 태평이세요.》

유철은 산나물가시를 척척 골라내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채숙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검정물을 들인 구겨진 무명치마에 남자들 덧저고리를 껴입고 머리를 뒤로 빗어넘겨 질끈 동여맨 채숙의 모습은 얼핏 보기에 외모에는 이미 아무런 관심도 없어진 그런 녀자 같이도 생각되였다. 그러나 그 수수한 몸차림가운데 오히려 더욱 세련되고 조화된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만일 채숙이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몇곱절이나 더 돋보이게 하는 그 수수한 옷차림이나 머리단장을 의도적으로 한것이라면 그는 역시 이 시대의 녀성들이 가질수 있는 가장 고상한 취미와 미적감각을 가진 녀자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것이 생활상 요구에 의해 무

의식적으로 한 치장이라면 그 소박한것속에서 내비치는 아름다움은 그녀자의 천성과 생활자체가 빚어내는 화려한 조화라고 해야 할것이다.

《저, 익보동무와 두성동무가 다툰 이야기 듣고 오셨어요?》

채숙은 일부러 산나물 다듬는 일을 끌면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었다.

《대충 들었소. 그건 어떻게 된 일이요?》

유철이 역시 천천히 손을 놀리며 심상한 어조로 물었다.

채숙은 한참동안 주저주저하더니 갑자기 화라도 난것모양 손끝을 재게 놀리며 빠른 어조로 또박또박 끊어서 말했다.

《처음은 별치 않게 시작한 이야기를 가지고 체통이 커다란 사람들이 그렇게 옥신각신하지 않아요. 저 중강지구에 조그마한 무장소조가 나타났대요.》

《그런 소식은 나도 들었소. 아마 그곳 혁명조직에서 지도하는 무장대인 모양이요.》

《그걸 책임진 동무가 정대호라고 한때 하강지구에도 드나든적이 있어요. 나도 한번 먼발치서 본적이 있는데 굉장히 성급하고 거치른데가 많아요. 과격한 동무예요. 본시 갓난애적에 고아가 되여 내내 남의 집에서 머슴을 살다가 지주놈을 두들겨패고 감옥에 갇혔대요. 그래도 끄떡 않는 동무랍니다. 족쇄까지 다 채워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탈옥해나왔대요. 뭐 그 동무의 이야기는 끝이 없이 많아요. 좀 과격한데가 있지만 원쑤들을 속시원하게 패주니까 그 동무 이야기만 들으면 누구든지 호감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인기가 있어요. 그런것이 원인이 됐는지 바탕은 좋은데 영웅주의가 여간 심한게 아니예요. 이름조차 본시는 차돌이라고 불렀다는데 제가 큰 범이노라고 정대호로 고쳤답니다. **김일성**동지의 무장로선이 나오니까 중강에서 이 동무가 선참 들고나섰지요. 여라문사람으로 소조를 무어가지고 말을 타고 벌판을 다니는데 싸움을 어떻게나 잘하는지 닥치는족족 무찔러버린대요. 그 동무들이 가끔 하강지구로도 넘어와서 우리 조직을 통해 통보가 올라오는 모양이예요. 참 싸움을 잘한대요. 왜놈들이 불과 10여명밖에 안되는 그 동무들때문에 쩔쩔맨다니까요. 그래서 인민들속에서 이름이 났어요. 그런데 이 동무가 본시 가지고있던 과격한 경향이 무장투쟁을 하면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모양이예요. 땅마지기나 가지고있으면 덮어놓고 친다니까요. 그러니 자연 좋지 못한 여론도 있을수밖에 없지

않아요. 혁명의 원쑤들은 그걸 가지고 좋은 시비거리가 생겼다고 떠들것 아니예요? 아마 나흘전에 그런 통보가 온걸 보고 두성동무가 성이 나서 그런 군벌주의경향때문에 인민들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든다고 욕을 한 모양이예요. 그런데 익보동무가 듣고있다가—그 동무 본시 좀 이기죽거리지 않아요? 그날도 그렇게 까박을 붙였단말이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싸움을 해야지 동무처럼 한뉘 앉아있으면 왜놈들이 제절로 물러가겠는가 하고말이예요. 그래서 론쟁이 붙었지요뭐. 처음엔 그러다가 말았는데 이튿날 학습시간에 또 익보동무가 은근히 신중론자들이라는것은 비겁쟁이들의 딴 이름이라고 해서 두성동무가 성이 나서 대원들이 있는 앞에서 맞대놓고 대들었어요.》

유철은 묵묵히 듣고있다가 채숙이가 말을 끝내고 한참이나 있어서야 고개를 들었다.

《그래 동무들이 좀 웅성거리겠구만.》

《눈에 띄는것은 아직 없지만 뒤에서 말들이 돌아가요. 누구는 익보동무를 지지하고 누구는 두성동무 말이 옳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뒤숭숭한것 같아요.》

《그래 채숙동무는 누구편이요?》

《누구편이라니요? 난 누구편도 든게 없어요. 그저 그날 학습회때 말이예요 두성동무를 비판해주었어요.》

《그건 잘했소. 동무가 두성동무를 사람들앞에서 지지하는것은 어느모로 보나 재미가 없소.》

《아이, 그건 어떻게 하는 말씀이세요?》

채숙은 갑자기 소녀처럼 얼굴이 빨개져서 소리쳤다.

《좋소, 그건 아무래도 좋소. 그런데 익보동무와 두성동무 문제는 론쟁자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닐뿐더러 조직규률의 측면에서도 매우 엄중하오. 하나의 사상의지로 강철같이 뭉쳐있어야 할 혁명대오안에 두가지 주장이 서로 갈라져서 다툰다는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요.》

채숙은 심중해진 유철의 낯빛을 불안한 눈매로 바라보았다.

유철이가 물묻은 손을 옷자락에 훔치고 툭툭 몸을 털며 일어나는데 급한 발걸음소리가 다가왔다.

《유철동무가 왔다는게 사실이요?》

김익보의 목소리였다. 유철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처서군덧저고리를 걸친 김익보가 여전히 길다란 머리를 너풀거리며 달려들어오더니

잉크가 얼룩덜룩한 손을 창대처럼 불쑥 내밀며 소리질렀다.

《사실이구만. 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오. 기창동무한테 다 들었겠지만 동무도 없는데 말썽이 생겨서 난 면목도 없고 또 하루바삐 결론도 봐야 하겠기때문에 무척 기다렸소. 그러지 않아도 바쁘겠는데 이렇게 오게 해서 참 안됐소.》

《잘 있었소? 말썽이야 일하다가 의견대립이 생길수도 있는건데… 그건 좌우간 이따 토의하기로 하고, 그래 학습과정은 계획대로 나갔소?》

《대충 하느라고 했지. 하지만 정치학습이라는것이 잘하자면 끝이 있소? 이젠 유철동무 차례요. 대원들도 하루빨리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직접 동무한테서 듣고싶어하오. 내가 말하는것은 암만해도 한다리 건느니까 실감이 덜 날거란말요. 자, 현위로 가기요.》

유철은 익보를 따라 현위사무실로 갔다. 익보는 유철이가 방안에 들어서자 석유궤짝을 뜯어맞춘 조잡한 책상우에서 방금 쓰다 나온듯한 선전물의 등사원지며 강판을 방한구석에 놓인 책더미옆으로 밀어놓고 통나무토막을 잘라낸 걸상을 갖다놓았다.

《우선 좀 앉소. 이따가 회의를 하게 되면 내 또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내 의도는 박두성동무를 모욕하자는것도 아니고 나로서는 우리 사업이 이를테면 지나치게 벼르기만 하는데 대한 의견을 말했을뿐이란말이요. 그런데 대원들앞에서 막 역정을 폭발시키니 일이 곤난하단말이요.》

《그건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오. 익보동무가 그렇게 생각하는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소. 나 역시 요즘에 와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소. 내 회의에서 안골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자기비판도 하겠소. 그러니 무장대사업에서도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수 없었을거요.》

《아니 내가 말하는것은 유철동무가 안골에서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안골사업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의견을 가질수가 있겠소? 그런 오해를 하지 마오.》

《그건 같은 소리요. 내가 전반적으로 사업에서 우물쭈물하기때문에 한고리가 우물쭈물하면 곧 다른 고리에서도 우물쭈물할수밖에 없는거요. 그건 그렇고 정대호동무문제에 대해 중강의 조직에 통보는 해주었소?》

《무엇을 말이요?》

《그 동무들의 군벌주의적경향에 대해서 말이요.》

익보는 한참 멀뚱멀뚱해서 유철을 바라보더니 슬그머니 외면하였다.

유철은 천천히 통나무걸상에 가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통보를 해주시오. 무장대가 어떻게 인민들속에서 사업해야 한다는데 대한 우리의 견해를 첨부해도 좋을거요. 난 익보동무 말과 같이 그 동무들처럼 적극적으로 무장투쟁을 진행하되 그런 군벌주의경향을 극복하면 인민들속에서 더욱 큰 신망을 얻을수 있다고 보오. 저녁 먹고 회의를 소집합시다. 각자가 조직앞에서 자기 사업을 심각하게 총화하고 앞으로 무장대를 꾸리는데서나 군중토대를 닦는데서나 더욱 진공적으로 사업하여 한시바삐 무장투쟁을 전개할 대책을 토의해봅시다.》

《알겠소, 사실 난 유철동무에게니 말이지만 두성동무와 내가 다툰것은 서로 비판받고 고치면 그만인데 대원들에게 준 영향이 나쁘단말이요. 이것때문에 난 고민하고있소.》

《그건 옳은 생각이요. 그래서 난 오늘 회의를 광범한 성원들을 망라시켜 하자는것을 제의하오. 군중앞에서 자기 견해를 허심하게 내놓고 군중의 평가를 받자는거요.》

익보는 입을 꾹 다물고 말이 없었다. 40여명이나 되는 성원모두를 모아놓고 그 앞에서 자기를 까밝힌다는것이 익보에게는 아직도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였다.

《익보동무, 내 오다가 두성동무를 만났는데 그 사람도 좀 바빠하는 눈치였소. 나역시 그렇소. 그러나 내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안골사업도 지금 난관에 처해있고 여기 일도 결코 순조롭다고만 볼수 없소.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난관을 헤치고 나가야 하겠는데 지금 형편은 그렇지 못하오. 론쟁은 간단하게 결론을 지을수도 있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채택하는 방법으로도 해결할수 있소. 그러나 난관이 예견되는만큼 우리에게는 신념이 필요하고 일치하고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오. 그리고 동지호상간에 깊은 리해가 요구되오.》

유철은 익보의 등에 가볍게 한손을 올려놓고 말을 이었다.

《익보동무, 그런데 우리는 단지 혁명과 군중 앞에서 자기를 허심히 드러내놓고 의논을 하면 그것을 얻을수 있단말이요. 과연 어떻게 하는것이 **김일성**동지의 로선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빨리 관철하는 길인가를 군중들과 의논해보잔말이요.》

익보는 옆구리에서 골통대를 꺼내더니 엽초를 부스러뜨려서 쟁이

였다. 성냥을 켜대는 여윈 손이 가볍게 떨리였다. 담배진이 노랗게 물든 길다란 손가락끝에는 골필 쥔 자리에 사마귀같은 굳은살이 부풀어오르고 여기저기 등사잉크가 묻어있었다.

《좋소, 해보기요.》

익보는 푸른 담배연기를 가벼운 한숨과 함께 내뿜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때문에 의견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대원들에게 더 큰 동요를 주지 않겠는지 모르겠소.》

《우리 대원들은 혁명자체나 무장로선자체에는 아무런 의문도 없소. 그것은 나나 익보동무나 또 두성동무도 마찬가지요. 다만 **김일성**동지의 로선과 방침을 구현하는 과정에 우리의 수양이 부족한 관계로 우여곡절을 거치고있을뿐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이의 말씀이 있으니만큼 그것을 지침으로 삼고 군중과 의논하면 모든 문제를 풀수 있을거요.》

《내가 왜 그것을 반대하겠소. 다만 나는 모든 회의참가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자기를 검토하겠는지 그것이 의문이요.》

《념려마오. 이제 두성동무도 내가 만나보겠소. 난 그 동무를 믿어도 좋다고 생각하오.》

익보는 흘깃 유철을 곁눈질해보더니 골통대를 입귀에 갖다대며 분명치 않은 어조로 중얼거렸다.

《두고보기요.》

그때 마침 두성이가 한손에 총을 들고 숨을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익보는 팔짱을 끼고 담배대를 입에 문채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덤덤히 통풍구쪽을 바라보았다. 두성은 함빡 젖은 보위색모자를 벗어서 책상우에 집어던지더니 유철이앞에 와서 털썩 걸터앉았다.

유철은 두사람을 번갈아보다가 빙그레 웃었다.

《호상비판이 좋기는 좋은 모양이군. 이렇게 진창을 바르면서 훈련을 맹렬히 들이대는것을 보니… 그래 기창동무는 언제 돌아오오?》

《이젠 올 때도 됐소.》

두성은 퉁명스레 단마디로 대답했다.

《똑똑히 정찰은 하고 떠났소?》

《현성아지트에서 오늘낮경에 가막골광산으로 화약마차가 떠난다는 통보를 해왔소. 매복장소는 나와 기창동무가 어제 나가서 보고 골랐소. 마차가 오기만 하면 틀림없을거외다.》

《참 익보동무, 현성아지트에 채숙동무를 보낸다는것은 어떻게 된

거요?》

《거기 동무들이 그런 요구를 해왔다는거요. 정미소를 운영하는 이상에는 주인이 있어야 하겠는데 남자를 내세우면 손바닥만한 거리에서 그런 졸부가 될만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곤난하니 큰 도시에 있는 부자가 멀리서 자기 안해를 보내서 경영하는 형식을 취하자는거요.》

익보는 책상쪽으로 돌아서며 좀 딱딱한 어조로 대답했다. 유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건 내가 현성에 나가서 직접 그곳 형편을 보고 결정합시다. 그런데 두성동무, 오늘저녁에 회의를 열고 동무를 좀 비판하기로 했소. 동무 생각엔 어떻소?》

두성은 힐끔 익보를 뒤돌아보았다. 익보가 아무 소리도 못들은체 가만히 서있으니 그는 다시 돌아앉으며 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응당 해야지요. 나도 준비하고있소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오?》

《뻔하지요. 내가 사업에서 소극적이였다는것, 다음으로는 대원들앞에서 체면없이 굴어가지고 사람들을 떨떨하게 만들었다는것 그리고 난생처음 총을 잡아본 사람들이 훈련을 좀 서툴게 한다고 해서 웩웩 고아쳐서 더 정신이 없게 만들었다는것, 또 있지요. 남더러는 학습 안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자기는 학습 안하는것을 무슨 자랑거리처럼 생각한다는것, 그밖에 또 있지만 한꺼번에 다 하겠소? 차차로 하면서 고치지요. 그런데 내가 딴 사람 비판할것도 좀 있소.》

《그건 뭐요?》

《저 익보동무 문제요. 다른것은 내가 다 잘못했다 해도 저 동무가 군벌주의를 옹호한다는것은 쳐야겠단말이요. 그러지 않아도 가슴에 울분이 차서 걸핏하면 과격한 언행을 하기가 쉬운 우리 젊은 동무들에게 그따위 소리 해서 좋을게 뭐요? 우리가 **김일성**동지의 로선과 전략전술을 정확하게 실천하지 않고 망탕 싸우면 된단말이요?》

익보가 삑 돌아섰다.

《내가 언제 망탕 싸우자고 했소? 그건 동무의 소극성을 비판하자니까 그 누구의 군벌주의보다도 못하다고 한것이지. 이건 말의 수사학적인 과장을 전혀 리해하지 못하니 답답하지 않소?》

익보는 마감말을 유철이쪽에 돌려대고 애원조로 했다.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수사학이 필요없기도 하지만 언제 배울짬이

있었소? 그러니 이 점에 있어서 김익보동무도 자기를 반성하고 무엇보다도 두 간부동무들의 이런 의견대립으로 해서 대오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는가에 대해 심각히 자기를 검토하는것이 좋겠소.》

《글쎄 그건 내가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다지 않소.》

익보는 두성이에게 질세라 아까보다 훨씬 서글서글하게 접수했다.

×

유철은 회의에서 안골에서의 사업의 경과를 보고하고 아울러 당금 안골조직앞에 가로놓인 불안한 상태를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전적으로 인민을 전폭적으로 믿지 않는 자기의 소극적인 사업태도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유철의 허심하고 겸허한 첫 발언은 회의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모든 토론자들이 자기를 랭철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감동적으로 결의를 다졌다.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회의직전까지만 해도 티각태각하던 익보와 두성이 두사람이 제마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는 방향에서 토론한것이였다.

결정에는 앞으로 무장대준비사업이나 지방공작에서 더욱더 적극성을 발휘하여 하루속히 무장투쟁의 불길을 올림으로써 **김일성**동지의 투쟁을 옹호보위할데 대한것이 지적되였다. 아울러 **김일성**동지의 로선과 전략전술을 정확하게 관철함으로써 린접지대의 무장대오와 혁명조직들에 적극적인 영향을 줄데 대한 문제가 결정되였다.

회의가 끝난것은 밤이 깊어서였다. 유철은 이왕 늦었으니 쉬고가라는 동지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총총히 꼬지개섬을 벗어났다. 마차는 매여둔대로 밤이슬에 푹 젖어있었다. 달밤이였다. 희미하게 드러나는 숲속길로 정신없이 말을 몰았다. 이윽고 목재판과 안골을 련결시키는 마차길이 나지자 유철은 더는 신열을 견딜수 없어 마차우에 벌렁 드러누웠다. 널판에는 낮에 목재판으로 실어갔던 호배추 냄새가 시큼하게 배여있었다. 바퀴에서는 쇠불이 갈리는 소리가 마치 제 뼈마디를 갉아내는것처럼 아츠러운 소리를 냈다. 유철의 머리는 마차가 덜컹거리는데 따라 목에서 금시 떨어져나갈것처럼 심하게 요동쳤다. 머리가 공중에 떴다가 떨어질 때마다 가시투성이 꺼꺼러운 송판이 뒤골을 후려쳤다. 그러나 유철은 이미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였다.

그렇게 벌렁 드러눕자마자 정신을 잃고말았던것이다.
두필의 말은 처음에는 주인의 그런 형편을 전혀 못느낀듯 전과같이 빠른 걸음으로 밤이슬이 축축히 내린 숲속길을 덜컹덜컹 수레를 끌고 갔다. 그러나 한참후에는 가도가도 끝없는 따분한 밤길에 싫증이 났던지 아니면 주인의 심상치 못한 건강상태를 뒤늦게 눈치채고 다소라도 안정을 시킬 갸륵한 생각을 했던지 고개를 푹 숙이고 밤하늘높이 아슬하게 솟은 호젓한 침엽수림속을 천천히 걸어갔다. 온밤 새도록 걸어도 벗어날것 같지 못하던 이깔나무숲도 마침내 끝났다. 어느때에 무슨 원인으로 생겨났는지 모를 관목덩굴로 뒤덮인 공지가 무슨 경계선처럼 갈라놓은 저쪽은 자작나무숲이였다. 그 공지에 부채소가 길다랗게 누워있다. 그리고 늪을 지나 얼마를 못가서 정희겸이네 장작가리가 있다.
말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늪가에 이르자 고개를 들어 슴슴한 물비린내가 풍겨오는 늪쪽을 바라보고 몇번 코를 불더니 문득 서버렸다. 그것은 잔가지들이 서로 뒤엉킬만큼 바투 다가서있는 두그루의 자작나무밑이였다. 이깔나무숲을 벗어나자 한결 훤해졌던 달빛도 그 나무그늘속까지는 새여들지 못했다. 말들은 혼수상태에 빠진 주인을 싣고 자작나무잎사귀로 밤이슬을 막으며 하루밤을 숲속에서 묵어갈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개구리소리를 듣고 문득 부채소에 얽힌 끔찍한 이야기를 상기하고 겁이 나서 저도 모르는사이 걸음을 멈추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달빛아래 검푸른 물이 고요히 가라앉아있는 늪에는 둥실한 달그림자와 함께 길가에 선 나무그림자가 거꾸로 박혀있어 그윽한 아름다움을 빚어내고있었으나 그만큼 더 음산한 랭기를 풍기고있었다.
하강을 따라 련연 수백리에 걸쳐 펼쳐져있는 백리허 대밀림속에 수백이 될지 수천이 될지 그야말로 그 수를 헤아릴수 없는 허다한 늪과 못과 호수가운데서 그닥 크지도 못하면서 이름을 가지고있는 오직 하나의 늪인 이 부채소에는 그 이름을 결코 영예로만 생각할수 없게 하는 구슬픈 전설이 있다.
그 옛날에 표택이라는 토호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랑랑이라는 젊고 용감한 군사가 있었다. 훨씬 후날에 개작한 흔적이 느껴지는 다른 갈래의 이야기에는 표택이 큰 지주이고 랑랑은 머슴이라고도 하였다. 어쨌거나 표택은 포악하고 심보가 고약한 상전이고 랑랑은 그에게 얽매인 젊은이였다. 그 랑랑에게 아가라는 애인이 있었는데 천하의 절

색으로 마음씨가 고왔다. 어느날 표택이는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목이 말라 우물에 갔더니 마침 아가가 물을 긷고있었다. 물한바가지를 청하니 아가는 정성스레 물을 떠서 버들잎을 한줌 훑어 띄워주었다. 어찌 무엄하게 부정한것을 섞어주느냐고 꾸짖으니 아가는 눈을 내리깔고 구갈이 심할 때 갑작스레 물을 마시면 탈을 만나기 쉬우므로 천천히 버들잎을 불어가며 마시사이다 하고 아뢰였다. 표택은 아가가 고개를 숙이고있었으므로 그 얼굴을 볼수 없었는데 그 마음씨가 너무 기특하여 이윽히 바라보니 맑게 고인 박우물에 아가의 아름다운 자태가 환히 비쳐져있는것이였다.

그날부터 표택은 아가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급해졌다. 사람을 띄워 청혼을 하려 하니 아가는 이미 랑랑과 정혼이 되여있다는것이였다. 표택은 미친듯이 노하였다. 어찌 아가와 같은 절대가인을 한개 미천한 졸부가 안해로 삼을수 있단말인가? 당장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에게로 시집올것을 강요하였으나 아가는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표택은 음흉한 계책을 생각해내였다.

하루는 부채소늪가에서 잔치를 차렸다. 수하장수들로 더불어 질탕하게 가무를 잡히고 즐기던 표택은 술에 취한척 비칠거리다가 손에 쥐고있던 깁부채를 늪속으로 던졌다. 그리고는 한탄하여 말하였다.

《아차, 내가 술이 과했군. 저 부채로 말하면 내 평생지기와 신의의 표적으로 나눈 부채인데 실수하여 저렇듯 늪속에 버려졌으니 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벗을 만나리오. 듣거라, 너희들가운데 충의지심이 강하여 내 부채를 집어오는자가 있으면 이 고을의 일등미인으로써 중상하리라.》

당시까지만 해도 그 늪은 명주실꾸리를 다 풀어도 닿지 않는다고들 말했었다. 그렇기때문에 감히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문득 사람들을 헤치고 한 젊은이가 나섰으니 그는 곧 랑랑이였다. 그는 원체 표택수하에서는 그중 헤염이 능하여 하강을 헤염쳐서 건너갔다오기를 여느 사람 안방에서 사랑방 건너갔다오듯 한다고 하였다. 배속 검은 표택은 미리 그런것을 타산하고 그와 같이 간사한 계교를 꾸민것이였다.

사랑하는 아가를 표택이가 탐내고있다는것을 알고 속을 태우던 용감한 젊은이 랑랑은 고을의 일등미인으로 상을 준다는 말에 동하여 서슴없이 웃동을 벗고 그 깊이를 모른다는 늪속으로 첨벙 뛰여들었다. 워낙 헤염을 잘 치는 그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물우에 둥둥 떠있

는 깁부채를 집어가지고 기슭으로 돌아왔다. 그가 부채를 다시 어지럽히지 않을 양으로 한손에 쳐들고 물에서 올라오려는데 표택이가 갑자기 노해서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다.

《네 이놈,어느 앞이라고 함부로 발가벗고 부채로써 나를 겨냥하느냐? 네놈이 반심을 품은것이 분명하다. 저놈을 못올라오게 어지러이 쳐라!》

랑랑은 기가 막히여 발명하려 하나 기슭에 다가서면 칼과 창으로 마구 내지르는바람에 어찌할수 없이 물속으로 되들어갔다. 그가 사람들이 없는 다른쪽기슭으로 가면 표택은 군사를 휘몰아가지고 그리로 쫓아갔다. 랑랑이 아무리 용맹하고 날쌘들 발가벗고 물속에 들었으니 그 창과 칼을 어찌 감당해내리오. 그는 기슭으로 나왔다가는 되들어가고 기슭으로 나왔다가는 되들어가고 하다가 마침내 힘이 진하여 《아가야!》하고 한소리 크게 지르고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늪속에 가라앉아버렸다.

얼마후 표택은 슬픔에 목메여 우는 아가를 강박하여 혼인잔치에 끌어냈다. 초례청에 나선 아가는 전에없이 아름다왔다. 그 녀자의 얼굴에는 이미 한점 슬픔의 흔적도 없었다. 신방에 화촉을 밝혀놓고 단둘이 앉자 아가는 거침없이 술을 쳐서 표택이에게 권했다. 표택은 행복에 눈이 멀어 신부가 주는 술잔을 조금도 사양 않고 거듭 받아마셨다. 마침내 표택이가 취해 넘어졌을 때 아가는 칠보단장을 한채로 신방을 빠져나와 숲으로 달렸다. 그는 늪가에서 랑랑을 부르며 슬피울다가 치마를 뒤집어쓰고 물속에 뛰여들었다.

그해부터 부채소에는 개구리가 성했다. 개구리들은 《아가랑랑표택이》,《아가랑랑표택이》하고 울었다.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표택이가 늪에 가보니 과연 자기의 비행을 욕질하듯 개구리들은 눈을 부릅뜨고 떠들어대는것이였다. 《아가랑랑표택이》,《아가랑랑표택이》

표택은 화가 동해 사람들을 시켜 개구리를 잡아치우게 하였으나 없어지기는커녕 나중에는 그의 집마당의 련못이며 마루밑에서까지 울어댔다. 밤마다 울어대는 개구리소리에 잠을 못이루던 표택은 어느 달밝은 밤 칼을 뽑아들고 부채소에 가서 개구리를 잡았다. 그는 물속으로 뛰여드는 개구리를 따라 자신도 첨벙 늪속으로 뛰여들었다. 세월은 흘러가고 그때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죽었으나 개구리들은 행여나 사람들이 그 피맺힌 이야기를 잊을가봐 오늘도 《아가랑랑표택이》,《아가랑랑표택이》하고 밤마다 운다는것이다.

유철은 이슬에 옷이 함씬 젖도록 정신을 잃고 그냥 누워있었다. 말들의 잔등도 함츠르르하도록 밤이슬에 씻겼다. 그래도 밤이슬은 소리없이 자꾸만 내려 화끈 달아오른 머리며 얼굴을 식혀주었다. 살이 토실토실 찐 모기와 깔따귀들이 살냄새를 맡고 윙—윙—소리를 지르며 모여들었다. 그러나 유철은 가을철 모기들이 아무리 사정없이 그 독오른 침으로 찔러대도 끄떡 움직이지 않았다. 극도로 지쳐빠진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다소 모기에게 생피를 빨리는 한이 있더라도 번거로운 사색을 중단하도록 의식을 아주 잃고있는것이 더욱 유익하다는것을 지쳐빠진 육체자체가 그 어떤 명의보다도 더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유철이가 정신을 차린것은 자정이 훨씬 기운 때였다. 모기가 너무나 성화를 대선지 아니면 숲속의 랭기에다 이슬까지 맞고보니 너무나 살이 떨려와선지 어쨌든 유철은 슬그머니 눈을 떴다.

의식이 돌아와서 맨먼저 그의 시야에 떠오른것은 이상하게 갈가리 찢어지고 구멍이 숭숭한 하늘이였다. 그나마 그 하늘은 두껍게 흐려서 하늘인지 뭔지 도무지 분별할수가 없었다.

(저게 뭘가?)

유철은 까딱않고 누운채 어렴풋한 의식속에 생각하였다. 눈시울이 건질건질하여 몇번 껌벅거렸더니 물방울이 주르르 굴러떨어지고 이어 눈앞이 환해졌다. 눈에 이슬이 맺혀 그렇게 시야가 흐려보였던것이다. 하늘이 갈가리 찢어진것은 바로 얼굴우에 자작나무가지가 드리워있어서 그 짬짬으로만 하늘이 보였기때문이였다. 그나마 구멍이 숭숭 나보이던것은 별이였다. 누덕쪼각같던 그 하늘은 한순간에 얼마나 아름다와졌는가? 자작나무는 달빛을 받아 암청색바탕에 기슭이 연록색으로 피여오르는듯한데 그 가지사이로 별이 보석처럼 총총 박힌 하르르한 선녀의 옷자락이 펼쳐졌다. 그렇다, 그것은 아름다운 하늘이였다. 유철은 자기가 왜 이 축축한 마차우에 이슬에 젖어 누워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고 생각도 해보려 하지 않았다. 달아오르던 몸의 아픔도 한순간 뒤로 물러났다. 두어시간 착실히 누워있어서 그런지 머리속은 거뜬하였다.

그믐달이 수집은듯 나무가지 한귀퉁이에 절반쯤 얼굴을 가리우고 내려다본다. 유철은 황홀한 심정으로 달을 바라보았다. 안해가 고운 옷을 입고 저렇게 나무가지사이에 얼굴을 감추며 바라보는듯하였다. 그뒤로 자그마한 별들이 재롱을 부리듯 깜빡거린다. 깜찍하게 작은것이 현아일가? 혹은 어머니달옆에 바싹 붙어선것이 현아일가? 그

애는 어디에 있을가? 가볍게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나무가지에 가리웠던 하늘이 탁 틔였다. 무수한 별들이 안겨사는 넓으나넓은 자연의 품, 밤하늘이 시원하게 펼쳐졌다.

유철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제야 머리속에 현실적인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모두 저 별들처럼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에 안겨있다. 현아도 나도 그리고 이미 죽은 안해도… 그러나 안해가 죽지 않았으면 더욱 좋았을것이다. 우리는 그이의 넓으나넓은 사랑의 품에 안겨 저 별들처럼 마음껏 아름다운 생을 누릴수 있었을것이다.

가슴 한귀가 찌르르 아파왔다. 삼녀는 왜 죽었는가? 원쑤들은 그 녀자가 그렇게 무서웠을가? 그렇다! 삼녀는 원쑤들에게 무서운 존재였을것이다. 삼녀는 조선의 녀인들이 가지고있는 그 어질고 착하고 또한 슬기롭고 아름다운 품성만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겨레들을 위하는 결곡한 성미를 가지고있었다. 그 녀자는 그렇게도 가냘파보였지만 혁명가였다. 그래서 원쑤들은 안해를 죽였다. 원쑤들은 아이마저 죽일지 모른다. 그 애도 조선의 어린이이다. 그런데 나는 아이를 왜 버리고 왔는가? 무엇때문에 어미마저 잃은 그 어린것을 거치른 벌판에 내던지고 이렇게 나홀로 와서 누워있는가? 나는 아이를 사랑한다. 그렇다! 사랑하기때문에 그 애를 버리고 이렇게 홀로 와있다. 그 애를 위하여 혁명을 하려고 여기에 왔다. 혁명가의 사랑은 혁명을 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고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그것이 사람이 가질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그 애를 사랑하기때문에 그 애를 저 하늘가에 버려두고 이 축축한 숲속에 홀로 누워있다.

그런데 대체 여기는 어딘가? 비로소 고개를 들어 사위를 더듬어 보았다.

습습한 물비린내가 풍겨온다. 개구리들이 소란스레 울고있다. 늪이 있다. 달빛이 그속에 환하게 어려있다. 부채소이다. 어떻게 여기에 왔는가? 마차, 고개를 숙이고 가볍게 코를 부는 두필의 말, 자기는 지금 마차우에 누워있다.

이상하게 당황해지는 마음을 누르며 유철이가 여기저기 어둠에 잠긴 으시시한 숲속을 살피고있는데 갑자기 개구리소리가 딱 멎었다. 다음순간 유철은 자박자박 옮겨놓이는 가벼운 발걸음소리와 야릇한 흐느낌소리를 들었다. 눈을 부릅뜨고 쏘아보니 정희겸이네 장작가리쪽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다가오더니 늪가에 이르러서 잠시 서있다가 그 기슭을 따라 저쪽으로 걸어간다. 억지로 울음을 삼키며 어깨를 떠는것이 밤눈에도 완연하다. 녀자였다. 그렇다는것을 의식하는 순간 유철은 머리끝이 쭈뼛하였다. 한순간에 자기가 쓰러지게 된 앞뒤 전말이며 여기가 무인지경 백리허숲속에서도 후미진 부채소열이라는것 그리고 부채소에 얽힌 평소에 흔히 아무 지방에서나 있는 그러루한 전설이라고만 생각해오던 그 음산한 이야기까지가 한꺼번에 확 떠올랐다. 아름다운 하늘도 달도 별도 다 달아났다. 준엄한 현실과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처지 그리고 이밤, 이 숲이 빚어내는 무시무시한 분위기에 대한 의식이 극도로 신경을 긴장시켰다.

유철은 소리 안나게 한손을 뻗쳐 허리춤의 권총을 틀어쥐며 눈정기를 모았다. 녀자의 그림자는 천천히 기슭을 따라 걷더니 저쪽기슭에서 이쪽을 향해 돌아서서 하염없이 늪속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여전히 흐느낌소리가 들려온다. 가볍게 떨리는 어깨우로 흘러내린 머리태가 한가닥 앞가슴으로 넘어왔다. 처녀이다. 그리고 낯이 익다. 처녀는 그 자리에 폭 꺼꾸러져앉더니 치마폭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물결친다. 그러다가 다시 머리를 들어 물속을 바라본다. 달빛이 어려 하얀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나 얼굴륜곽을 알아볼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철은 그것이 바로 봉이라는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오늘아침에 본 혼수감도 그렇고 부채소에 얽힌 구슬픈 이야기도 그렇고 봉이가 아니고 누가 이 밤중에 이런 호젓한곳으로 홀로 나와 울것인가?

그러자 유철은 어떤 비상한 사건을 예감하였다. 그는 허둥지둥 일어났다.

(봉이가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자 어떻게 하면 봉이를 놀래우지 않고 그를 절박한 정신적위기에서 구할것인가 하고 궁리하였으나 지척같이 보이는 늪의 저쪽 기슭이 이 절박한 순간에는 너무나 멀어보였다.

×

봉이는 자기가 지금 무엇때문에 울고있는지 그 까닭을 몰랐다. 하긴 슬픈 일이란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그 어느것이 지금 당장 그의 마음을 울려주는것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모르는것은 그것만이 아니였다. 이 깊은 밤중에 인적없는 이 숲속으로 무엇때문에 나왔는지 그리고 지

금 구슬픈 이야기가 얽혀있는 이 늪가에 앉아 무엇을 하자는것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애당초 대낮에도 발길 들여놓기가 저어되는 이런 후미진곳으로 한걸음, 두걸음 들어올 때 벌써 봉이는 똑똑한 정신이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무섭다는것도, 자기가 정신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것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아침에 윤철목이가 시뻘건 혼수상자를 머슴에게 지워가지고 왔을 때부터 집안은 란가를 이루었었다. 아버지는 당장 가지고 가라고 소리소리쳤으나 윤철목은 히죽히죽 웃으며 얼리는가 하면 마감에는 땅땅 으름장을 놓았다. 그가 살기등등해서 얌전히 굴지 않으면 당장 안골에서 쫓겨날줄 알라고 위협하고 떠나갔을 때 아버지는 쾅쾅 가슴을 치며 신세를 한탄하더니 훌 집을 나가버렸다. 홀애비령감네 술집으로 가서 억병으로 술에 취해 넉두리를 하고있더라고 이웃집 아낙네가 말하였다. 사시 몸져누워있는 어머니는 그냥 자기 어깨며 머리태를 쓸며 울었다. 동생들은 한쪽구석에 오구구 모여앉아 기를 못펴고있었다. 그때부터 봉이는 어떤 종말에 대한 예감이 머리속을 꽉 채웠다. 그는 너무나 심상한 표정으로 여느날과 똑같이 동자질을 하고 집안을 거두었다. 밤이 왔다. 사위가 어두워지고 동네의 개소리도 그쳤으나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봉이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먹다 남긴 죽사발들을 치우고 몇가지 남아있던 빨래마저 깨끗이 해치우자 갑자기 몸도 마음도 허전해져서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벽을 등에 지고 하늘중천 높이 떠있는 달을 바라보았다. 무리진 달밤, 그날은 바람이 불더니 그 뒤끝에 이틀이나 비가 퍼부었었다. 그것은 현실에 있었던 달밤이였는지 아니면 그저 답답한 제 가슴속에서 홀로 그려본 밤이였는지 알수 없었다. 불과 며칠전 일이건만 봉이에게는 너무나 아득히 생각되였다. 그러면서도 그때의 죽심이 오빠의 흥분한 모습은 지금도 생동한 형상으로 남아있다. 귀전에 우뢰처럼 울리던 그때는 너무나 놀라서 미처 말뜻도 잘 새겨듣지 못한 그 열렬한 호소가 아직도 가슴을 활랑거리게 했다.

(죽심이 오빠.)하고 봉이는 입안으로 가만히 외웠다.

(난 어떻게 해요? 저렇게 혼수까지 가지고왔는데 난 어떻게 해요? 무엇때문에 죽심이 오빠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시집을 가버리면 우리 집 식구들은 그대로 살아가겠는데…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런데 가서 살가요? 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내 신세를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하나요?)

달을 바라보고있느라니 어느새 눈물이 소리도 없이 흘러내려 얼굴을 함빡 적셨다. 봉이는 그런 자기를 의식하자 천천히 골목으로 나왔다. 언젠가 죽심이 오빠와 걷던 그 동뚝길을 따라 강기슭까지 나왔다. 추녀가 축 처져내린 물방아간은 여전히 괴괴한 어둠속에 웅크리고있고 물레바퀴는 철썩철썩 물을 안고 돌아갔다. 그러나 두사람이 나란히 섰던 그 자리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열렬한 호소도 뜨거운 열정도 빈말같이 사라지고 무심한 달빛만 물속에 어려 춤을 추었다. 사람이란 어차피 그렇게 흔적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것이다. 문득 랑랑과 아가의 구슬픈 이야기가 떠올랐다. 마음에 없는 혼사를 강요당할 때 녀자는 죽어야 하는가? 그런데 나처럼 죽을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나라고 못죽을것이 무엇일가? 내가 죽어버리면 설마 정희겸인들 우리 불쌍한 아버지, 엄마와 동생들을 내쫓지야 않겠지… 하지만 내가 죽으면 가뜩이나 속이 상해 병이 덧쳐가는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와하실가?

모두가 허망한 생각이다.

그런데 그의 발길은 어느새 랑랑과 아가가 자기들의 꽃다운 목숨을 던진 그 늪가로 향하고있었다.

봉이는 늪가에 쪼크리고 앉아 지금은 무엇을 생각하는것도 없이 그저 멍하니 물속을 바라보고있었다. 아무 생각도 안하는데 까닭없이 눈물은 자꾸만 볼을 타고 내렸다. 눈굽에 눈물이 고이면 늪속의 달도 우는듯이 바르르 떨며 흐려졌다. 그러다가 눈물방울이 굴러떨어지면 다시 수면은 밝아지고 달은 아가와 같이 고운 얼굴로 웃는것이였다.

정말 아가는 저속에서 행복을 찾았을가? 봉이는 해사하게 웃는 달이 꼭 물속에서 사랑하는 랑랑을 만나 행복에 웃는 아가와 같이 생각되였다. 아가는 자기에게 어서 오라고 손저어 불렀다. 저 물속에는 가난도 천대도 고약한 사람들의 미련하고 더러운 행패도 없을것이다. 그렇지만 저 세상은 쓸쓸할것이다. 거기엔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들도 없고 죽심이 오빠도 없다. 다정한 동무들과 마을사람들도 없다. 아가에게는 랑랑이 있지만 나한테는 아무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자니 자기 신세가 더욱 서러워 새로운 눈물이 솟아났다. 그렇지만 저기는 맑고 깨끗하지, 저기엔 정희겸이와 곰보도 못따라오지. …

그러나 그것은 봉이의 속단이였다. 달그림자옆에 시꺼먼 사나이가 보란듯이 서있다. 서있을뿐만아니라 천천히 한걸음, 두걸음 자기에게

로 다가온다. 봉이의 눈은 화등잔처럼 커졌다. 그처럼 아름답고 구슬프게만 생각되던 랑랑과 아가의 이야기가 한순간에 무시무시한 물귀신이야기로 생각되였다. 봉이는 가슴이 한줌만해져서 엉거주춤 허리를 일으키려는데 바로 그때 저 앞에서 무엇에 놀랐는지 말이 히힝— 하고 코를 불며 화닥닥 뛰여올랐다.

《악—》

봉이는 기겁해서 비명도 미처 못지르고 까무러쳐 늪가에 쓰러지고말았다.

봉이를 놀래우지 않으려고 극도로 조심하던 유철은 말울음소리에 혀를 차며 쏜살같이 달려갔다. 봉이는 한쪽다리를 물속에 잠근채 쓰러져있었다.

×

정신을 잃은 봉이를 마차에 눕히고 말을 몰아나오면서 유철은 비로소 불편한 자기 몸을 깨달았다. 숨이 가쁘고 이마로 식은땀이 송골송골 내돋았다. 그러나 봉이가 실신상태에 있는 지금 한시도 지체할수 없었다. 가까스로 숲을 빠져나오려는데 뒤쪽 아득한곳에서 《봉이야—》하고 목터지게 부르는 소리가 울려왔다. 필경 누가 찾아나온것이라고 생각하며 잠시 기다리는데 이번에는 찾는 소리가 더 깊은 숲속에서 울리더니 점점 멀리 사라져갔다. 워낙 넓고 깊은 숲이라 왕청같은데 가서 찾아헤매고있는것이다. 유철은 그들을 다시 찾아볼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이 밤중에 괴물같은 숲속에서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봉이의 몸은 경각을 다툰다. 또 이 일이 한창나이에 접어든 처녀의 문제인만큼 소문을 널리 내는것이 좋은 일이 되지 못한다.

이런 타산을 한 유철은 그채로 숲을 벗어났다. 동네까지 한마장이나 되는 길을 강심을 먹고 단숨에 말을 몰았다. 강필재네 마당에 들어서니 집안은 텅 비고 골목앞에 아이들만 오구구 모여있다. 아버지가 밤이 깊어서 돌아와서야 누이가 없어진것을 알고 앓는 어머니마저 떨쳐나서 사방으로 찾아다닌다는것이였다. 그들을 데리고 방안에 들어가 봉이를 눕혔다. 처녀는 아직도 정신이 없이 쓰러져있다. 꼭 감긴 눈에 살눈섭이 수놓은듯 착 달라붙었는데 가볍게 벌린 입으로 숨소리가 가까스로 새여나온다. 맥을 짚어보니 약하디약한 맥이 간신히 느껴진다. 어쨌든 한시바삐 구완대책을 세워야겠는데 방법이 없다.

대중없이 벌떡 일어났다. 박병섭로인이 침깨나 놓는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었다. 그가 부리나케 달려 박병섭로인의 집에 이르니 마침 박두현이가 숲쪽에서 맥없이 걸어온다.

《어디에 갔다오는 길이요? 아버지 계시오?》

두현은 유철을 보더니 그의 손을 잡고 자기 집 마당으로 끌어들였다.

《유철동지, 큰일났습니다. 봉이가 죽으러 간 모양입니다. 오늘 혼수가 왔다고 하더니…》

《봉이는 내가 데려다놓았소. 그런데 일이 급하오. 아버지는 어디 계시오?》

《데려다놓다니요? 봉이를 말입니까? 봉이가 살아있습니까?》

두현은 와락 유철의 손목을 틀어쥐더니 숨가쁘게 물었다.

《살아있소. 그런데 정신을 잃었소. 한시가 급하오. 아버지 어디 계시오?》

《아버지는 저기 옵니다. 숲에 나가 찾다가 못찾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세한것은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봉이가 부채소에 나온것을 내가 마침 만났소. 혹시 독한 마음을 먹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우리가 잘못했소. 봉이를 그런 고독한 상태에 내버려둔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그런데 아버지가 침을 놓는다지?》

《아마 그런 침쯤은 놓을겁니다. 아버지—》

두현은 되돌아가서 아버지를 급히 데리고 왔다.

유철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간단히 사연을 이야기했다. 로인은 젊은 사람처럼 급히 필재네 집으로 달려갔다. 두 량주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박병섭은 마당을 들어서면서 벌써 돋보기집에서 침통을 꺼내들었다. 등잔불의 심지를 잔뜩 돋구고 맥을 짚어보던 로인은 《탈증이로군.》 하고 중얼거리더니 자신만만한 태도로 인중, 백회(머리정수리에 있는 침구멍), 중충(가운데 손가락끝)에 침을 놓았다. 아닌게아니라 마지막 침대를 뽑는데 봉이는 응— 하고 기지개를 켜더니 후— 한숨을 내쉬였다. 뒤에서 들여다보던 사람들도 모두 숨을 내쉬였다.

《피여납니다.》

두현이가 말하자 《누나—》, 《언니.》하고 아이들이 불렀다.

《이놈들 조용치 못할가?》

로인은 아이들을 단속하고나서 계속 환자를 들여다보았다. 처녀는

돌아눕는길에 반짝하고 눈을 뜨더니 다시 스르르 감아버렸다. 그러나 의식은 이미 돌아온것이 확연하였다. 그제야 로인은 이불자락을 여며주고 돌아앉았다.

《며칠 조리를 시켜야겠군.》

강필재내외는 어디를 헤매는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병섭은 담배를 붙여물더니 시름없이 중얼거렸다.

《이 사람들이 얼혼이 나가서 또 강으로 나간 모양이군.》

그러다가 잠시 지나서 담배대를 입에서 쭉 뽑고 말했다.

《애 두현아,이러다가 또 에미마저 상하겠다. 네가 나가서 좀 찾아오너라. 동이 터오는데 공연히 다 자란 아이 일을 가지고 소란을 피우는것이 재미없다.》

두현이 나가자 방안의 분위기는 한결 더 무거워졌다. 박병섭로인과 직접 맞대놓고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하나 유철은 자꾸만 어질거리는 신열때문에 도무지 정신을 수습할수 없었다.

더구나 지금 조직앞에 가로놓여있는 난관의 하나가 이 고리에서 풀려나갈수도 있다는것을 생각하자 더욱 긴장되였다. 그래 어떻게 이야기를 뗄가 하고 망설이고있는데 로인이 큰 기침을 몇번 톺더니 먼저 입을 벌렸다.

《임자가 수고를 했네. 이 집을 위해서도 그렇고 동네를 위해서도 그렇고 목숨을 건져준 은혜가 막중하네.》

《딴말씀이올시다. 제가 어찌다 그렇게 됐을뿐입니다.》

유철은 로인이 이렇게 나올줄은 생각 못했던참이라 다소 당황하여 말을 돌렸다.

《아닐세,사람 살리는 일이 아무나 임의로 못하는 일일세. 임자가 내 동네에 와서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다는것은 내 이미 듣고있거니와 범속한 사람이라면 그런 시각에 그 험지에 나갈 일이 있겠나? 임자가 사람을 구하려고 나선 사람이야.》

《과하신 말씀입니다.》

유철은 로인의 말이 너무나 진중하고 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라 응대하기가 난감하였다.

잠시 말이 동강났다. 로인은 뻑뻑 담배를 빨았다. 그러더니 다시 입을 벌렸다.

《보아하니 임자도 몹시 상했군. 내 침 좀 맞아보지 않겠나?》

유철은 진담인지 롱담인지 몰라 잠시 로인을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었다.
《선다님, 제몸에 난 병은 대단치 않습니다. 침을 맞을것도 없이 한숨 푹 자면 낫는 병입니다. 그런데 나라에 든 병은 매우 중합니다.》
《중하지, 중하고말고. 반만년 그치지 않고 내려오던 우리 나라가 우리 대에 와서 그만 탈증이 났네그려.》
박병섭로인은 의례 유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줄 알았던것모양 별로 놀라지도 않고 마주 응대를 하면서 시름없이 내뿜는 담배연기를 따라 지새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라를 구할 의술이 절박하게 요구됩니다.》
유철은 고개를 숙이고 침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라가 구완되여야 백성들의 어린 목숨도 살길이 열립니다. 침을 가지고 일일이 앓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서야 위중한 수많은 목숨을 어찌 다 구하겠습니까?》
《옳은 말일세. 내 가끔 임자 말을 전해 듣네. 헌데 듣자니 임자가 저 공산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제가요?》
유철은 고개를 들고 로인을 바라보았다. 창밖을 내다보고있던 로인의 시선은 어느새 유철을 똑바로 견주고있었다. 유철은 긴장되였다. 여기서 정체를 밝혀야 할것인가? 두시선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그러나 다음순간 로인은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내가 초야에 묻혀있는 촌늙은이로서 주제넘은 말을 물은것 같군.》
《아니올시다. 말씀드리지 못할것이 있습니까.》
《가만 저기 발걸음소리가 들리는걸 보니 이 집 식구들이 오는 모양이군. 이담에 다시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구.》
아닌게아니라 급히 옮겨놓이는 발걸음소리가 어지러이 다가왔다. 유철은 더없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마는구나 하고 속으로 혀를 깨물었다.

16

조령감은 나날이 우울해졌다. 세상 사는것이 힘들고 사람 대하기가 거북해졌다. 고향 떠나 어언 15년, 이제는 일가도 친척도 다 단념해

버리고 그저 수걱수걱 일해서 제 구복이나 채우다 목숨이 진하면 맨주먹으로 온것처럼 또 맨주먹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주인과 머슴들 사이에 끼여 노상 마음걱정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일이란 누가 시켜서 억지로 되는것도 아니다. 잔소리를 까다롭게 안한다해도 일이 사람들을 내몰게 마련이여서 철이 가면 낟알은 여물고 낟알이 여물면 또 자연히 걷어들이게도 되는것이였다. 이제 그의 나이도 환갑이 래일모레인데 기력은 차차로 못해갔지만 애간장을 말리던 세상사와 고향 그리고 피줄이 켕기던 가족들을 단념해버리니 마음이 편하였다. 아무리 애써보아야 갈 길 없는 고향이요, 만날 길 없는 처자권속이였다. 잊혀지지 않는 그 영상을 지워보자고 가난한 주머니속을 목노판에 다 털어내군하던 그 시절에 비하면 이따금 화월이가 떠주는 시큼한 약주잔에 얼근히 취해서 돌아가는 요즘 세월이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랐다.

그러던 마음의 안식은 별안간에 마사졌다. 목재상인지 뭔지 하는 왜놈쪽발이가 몇번 나타나서 주인이며 곰보단장과 쑥덕질을 하더니 조령감을 왕청같이 야학에 가서 들은 이야기를 하라고 조르는것이였다. 대체 이 나이에 또 이 주제에 공부는 해서 뭘하겠는가? 조령감이 애초에 야학에 드나든것은 무슨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책을 듣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정희겸은 전에없이 안사랑으로 청해들여서는 큼직하게 술상을 차려놓고 연방 술을 퍼먹이며 야학에 계속 나가되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빠치지 말고 다 하라고 성화를 댔다.

이 집에서 살아온지가 10여년이 되지만 안사랑에 들어가보기는 처음인 조령감이였다. 정희겸이 마치 머슴군이 아니라 무슨 손님이나 되는것처럼 극진히 대하는데는 너무나 황감하여 땀이 다 내뱄다. 그런데 그 술엔 독이 있었다. 야학에 가서 팔자에 없는 글을 읽는다는것만 해도 이만저만한 일이 아닌데 거기서 박병섭이의 아들이며 칠성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공론들을 하는지 잘 들어두었다가 일일이 고해바치라는것이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렴탐군노릇을 하라는것이다. 조령감이 젊어서 한때 장돌뱅이노릇을 하면서 제 리속을 위해 사람들의 눈을 속인적도 있고 그후 신수가 궁해져서는 수십년을 빌어먹다싶이 하다가 이제 이 거치른 땅에까지 나떨어졌다. 하지만 의리와 인정을 저버릴 사람은 아니였다. 정희겸이나 곰보가 요즘 무엇을 걱정하고있고 박병섭이나 칠성이가 무엇이

의심스러운지 딱히는 모른다 해도 그들이 좋은 사람이고 그들이 정희겸이나 곰보에 비해서는 월등 사람다운 사람이라는것을 못느끼는 사람은 아니였다. 그들이 바로 저보다 사람들 사이에 더 인망이 있고 그때문에 제낯이 깎이기때문에 정희겸이가 무슨 핑계를 대서 그들을 잡자는것이라고 조령감은 짐작이 갔다. 요즘 동네에 삐라가 나붙고 군대나 경찰, 보위단 같은것이 자꾸 죽어넘어지는것도 이 일과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가 짐작이 갔으나 딱히 그 까닭을 밝혀낼 힘은 조령감에게 없었다.

조령감은 하는수없이 야학에 계속 다니지 않을수 없었다. 특별히 렴탐할 생각은 없었지만 워낙 공부라는것이 난생처음인 그에게는 그 세계자체가 신비로왔고 거기서 오고가는 말마디들이 다 신기했다. 그러나 뒤에는 꼭 값을 치러야 했다.

아침에 일을 나가자고 쟁기를 젊구면 의례 화월이나 곰보 혹은 정희겸이자신이 가만히 불렀다.

《간밤에는 무슨 말을 합데까?》

하루는 곰보가 찌글사하니 눈을 가로뜨고 물었다. 조령감은 그놈의 상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벌써 5～6년을 한지붕밑에서 같이 사는데도 왜 그런지 아직 버릇이 붙지 않아 늘 그 눈이 무슨 행패질을 할것만 같은 불안을 느끼는것이였다.

《가갸거겨를 가르칩데다. 난 괜히 젊은애들속에 끼워 죽을지경이외다.》

《또 딴소리들은 없습데까?》

《딴소리도 많지요. 하지만 내 총기로 그것을 다 따로외는 재간이 있소? 뭐 래일은 토론인지 뭔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수 있는가하는것을 생각해가지고 와서 말하라고 합데다만… 허 참, 그것을 알았으면 이 나이에 요모양, 요꼴로 늙어가겠소. 다 허망한 소리들이지.》

《래일 가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꼭 머리속에 새겨두었다가 나한테 말해야 하오. 령감, 정신을 차리시오.》

정희겸이나 곰보한테는 그저 이렇게 해서 슬쩍 굼때고 넘어가기가 일쑤였다. 그들이 그 바르잖게 생긴 얼굴에 로골적으로 신통찮아하는 빛을 띠였지만 조령감자신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라 그때문에 체면이 거북하게 생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화월이라는 년은 쓴 약주 한사발을 먹여놓고 살살 얼려내는데 어느새 저도모르게 속을 뽑히우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어이구, 늙은이가 공부를 하다니 우리 령감도 주책이 없다니까. 쯧쯧, 한잔 쭉 따시우. 그래 졸리지는 않습데까?》
그녀은 의례 이런 투로 말을 걸었다.
《왜 안졸리겠소. 절반은 졸지요. 그러다가 뭘 가지고 벅적 떠들어올리면 눈을 뜨군한답네다.》
《그렇지 않구요. 아 안할 말로 조령감이 이제 글을 배워서 진사급제를 하겠소, 벼슬을 살겠소? 그런데 우리 쌍가매란 년이 책을 좍좍 내리읽는다는게 사실이유?》
《거참 놀랍습데다. 어디 쌍가매뿐이요? 저 득춘이 아들서껀 모두 낫 놓고 기윽자도 모르던게 다 눈을 떴습니다요. 하긴 나도 나이 열살만 젊었어도 한번 해보자고 들것 같쇠다. 그 목재판 칠성이라는 사람은 거 보통사람이 아니더군요. 연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 무슨 연설을 그렇게 잘하는가요?》
조령감은 그제야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순박한 그는 이런 대목에서 적당히 둘러대는 재간이 없었다. 화월은 살살 눈웃음을 치며 또 약주사발을 내밀고 마주 쳐다보았다. 그런 때 화월이의 눈은 마치 제 살이라도 베줄듯이 담뿍 정을 품고있었다. 조령감은 눈길을 떨구었다.
《거 연설이라는게 그저 그렇지요. 조선사람이 잘 살자면 새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럽디다요.》
《그리구 또 뭐라고 해요?》
《그리군 뭐… 난 생각이 잘 안나는군요. 난 원체 총기가 없는데다 그저 귀신같은 소리들이 돼서 무슨 소린지 알아듣겠습디까요.》
이렇게 떠듬떠듬하면서도 조령감은 자기 판단에 칠성이나 기타 사람에게 화가 미칠만한 말은 극력 삼가고 해도 일없음직한 말들만 골라서 하노라고 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 판단은 조령감의 소박하고 생활적인,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생활적인 감정의 판단이였다. 사람들이 골고루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무엇때문에 죄로 될것인가?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을 처단해야 한다는것이야 얼마나 당연한 말인가? 그리고 누구는 뼈빠지게 일해도 굶어죽는데 누구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해도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고 잘사는것이 사주팔자가 그렇게 정해져서가 아니라 세상이 더럽게 돼먹었기때문이라는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조령감은 제가 듣기에 너무나 신기해서 새소식 삼아 말한것도 있고

또 그런 소리는 저같은 무식한 머슴군도 아는 일이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려니 하고 몇마디씩 지껄였다. 그러고도 역시 마음속은 개운치 않았다. 이것들이 자기더러 억지로 야학에 내보내고 갔다오면 꼬치꼬치 캐묻는것이 다 조간이 있어서 그렇다는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니 자기의 말마디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는지 늘 불안스러웠다. 그러던차에 그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우울하게 만들어버린 일이 벌어졌다.

목재상이라고 하는 일본사람이 또 나타났다. 그는 사랑방에서 정희겸이와 곰보를 상대로 화월이 떠주는 술을 마시고있었다. 그자는 갱핏한 얼굴에 대모테안경을 낀것이 꼭 잰내비가 안경을 낀것 같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령감을 부르는것이였다.

왜놈 목재상은 양복우에 걸치고 다니던 뱀가죽같이 얼룩덜룩한 무늬와 뻘겋고 흰 글자를 새겨넣은 십장 덧저고리를 벗어붙였는데 단추를 끌러놓은 양복저고리자락밑으로 권총자루가 비죽이 내밀고있었다.

《령감상, 이것 한잔 받으시오.》

아끼시마라는 그놈은 조선말이 류창했다.

《웬걸요, 난 이제 일나가야겠는데요?》

사양했으나 아끼시마는 철철 넘치는 약주잔을 코앞에 갖다댔다. 달큼한 술향기가 어쩐지 역기를 자아냈다. 조령감은 독을 마시는 심정으로 그것을 마셨다.

《내 령감한테 한가지 묻겠는데 똑바로 대답해야 하오. 난 이런 사람이요.》

아끼시마는 두꺼운 안경알너머로 조령감의 조글조글한 쬐꼬만 얼굴을 쏘아보더니 옆구리의 권총을 가볍게 건드렸다.

《이분은 저 성의 높은 관청어른이야. 그러니 조령감이 묻는 말씀에 잘 대답해드리오.》

정희겸이가 돼지털같은 구레나룻을 점잖게 쓸며 말했다. 조령감은 무릎을 밍그적밍그적하면서 한쪽다리를 거북하게 꺾고 앉았다.

《어제밤에 삼덕이가 우리 일본을 반대해서 총을 들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조령감은 가슴이 띠끔하였다. 삼덕이가 그런 말을 한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곰보나 정희겸이에게는 말할것 없고 화월이에게도 그 말만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순간에 조령감은 자기가 이미 그 말을 어디서 누구에겐가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옛말이 불쑥 떠올랐다. 조령감은 무엇인가 훔치려다 덜미라도 잡힌것처럼 무안하여 고개를 푹 떨구었다. 그러다가 제가 바로 그 말을 하기나 한것모양 겁먹은 눈으로 얼음장같이 랭랭하게 느껴지는 아끼시마의 쏘는듯한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일없어, 령감은 아무 일 없을테니까 사실대로 말해보오.》

조령감은 얼굴이 새까맣게 질렸다. 그자신이 말하는대로 총기는 없었지만 그 말마디들은 너무나 놀라운 말이기때문에 한번 척 들었을뿐인데도 그대로 외울만큼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었다.

조령감은 자기의 배신적인 기억력에 점점 겁을 집어먹으면서 말을 돌려대려고 무진 애를 썼다.

《삼덕이가 무슨, 무슨 말을 하는것 같기는 합데만 딱히 무슨 말인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총이란 말은 난 들은것 같지 않은데…원체 초저녁잠이 많아서… 잘 듣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왜 우물우물하는가? 령감상이나 혼 좀 나봐야 알겠는가? 총말을 했지?》

아끼시마는 숨돌릴 틈도 주지 않고 다그쳤다. 이때 미닫이가 소리없이 열리더니 쌍가매가 생선회를 쳐가지고 들어왔다. 화월이가 화닥닥 놀라 일어나더니 눈을 비수같이 까부려가지고 안주접시를 빼앗는 한편 쌍가매의 등을 한줌 쥐고 꼬집어서 미닫이밖으로 밀쳤다. 그러나 조령감은 땀을 벌벌 흘리며 그런것도 모르고 웅얼웅얼 중얼거렸다.

《총말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글쎄 난 딱히 못들었는데…》

《총을 어데서 구한다고 하던가?》

《저… 그것은 들은 생각이 없는데요. …》

《똑똑히 말해! 로씨야에서 산다고 했지?》

《로씨야가 저 아라사란 말이지요? 아라사가 무척 춥다는 말은 있었지만…》

로인은 그렇게 한식경이나 시달린 뒤끝에 앞으로 그러한 말들을 들으면 즉시로 알려야 한다는 위협절반의 분부를 받고 땀을 쭉 흘리며 마당에 나섰다. 때마침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확 달아오른 머리를 식혀주었다. 잠시 얼없이 마당에 앉아있는데 침울한 여름의 황혼이 밀려왔다. 조령감은 황황한 마음으로 또 야학에 갔다. 그날 오래간만에 나온 박두현이가 주구들의 책동이 심하니 모두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야학의 비밀을 엄수해야겠다고 말했다. 그제야 조령감은

자기가 아끼시마의 계교에 넘어가서 꼬리를 잡히지 않았는가 하는것이 걱정스러웠다. 두현이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그놈이 화월이를 통해 몇마디 얻어들은것을 밑천으로 넘겨짚어본것인데 자기가 너무 어리석어 꼭 그놈의 꾀에 얼리운것만 같다. 더럭 겁이 났다. 칠성이나 삼덕이가 당장 그놈들에게 잡혀 죽을것만 같고 야학방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봉변을 당할것만 같았다. 무엇보다도 한 동기간같은 사람들을 배반한것만 같아 괴로왔다.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귀띔해주고 어서 이 위험한 노릇을 걷어치우자고 말해야만 사람의 도리가 옳을것 같았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하자마자 가슴이 옥죄여들어 숨이 답답해났다. 그들은 나를 용서치 않을것이다. 두현이같이 깔끔하고 결패사나운 젊은이가 그 말을 들으면 당장 자기를 개라고 요정을 내려들것이 아닌가? 야학때문에 제 부친과도 다투고 그때문에 요즘은 야학에도 몰래 빠져나온다는데 나를 용서할텐가? 봉변도 봉변이지만 이제 머리가 허옇게 센것이 사람들앞에서 망신을 당할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하였다.

조령감의 얼굴은 마음고생때문에 시꺼멓게 죽어들고 이제는 아무리 화월이가 간사를 떨어도 입을 벌리지 않을뿐아니라 약주도 피했고 통털어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였다. 그저 어디서 무슨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차라리 무슨 말이 떨어질가봐 무서워서 지레 먼저 일에 극성을 떨었다.

×

유철이는 방아간앞에서 김치복이와 헤여지느라고 몇마디 말을 하는 기회에 일행과 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유철이를 이 밤중으로 호젓이 만날수 있을가 하고 야학방에 앉아서부터 내내 속을 조이고있던 쌍가매는 재빨리 다가섰다.

《저…》 처녀는 주저주저하며 눈치를 살폈다. 그믐가까운 달이 백리허숲우에 솟아올랐다.

삼덕이랑 조령감은 이미 대문간에 가까이 접어든모양 정희겸이네 집 담장안에서 영악한 개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유철은 책보를 끼고 다가오는 쌍가매가 이제는 어엿한 처녀티가 박혔을뿐만아니라 혁명의 길을 걷고있다고 생각하니 그지없이 대견스러웠다.

《왜? 또 안주인한테 욕먹을 일이 걱정스러워?》

유철은 가볍게 롱기를 섞으며 말했다. 쌍가매와 이렇게 너그럽고 부드러운 심정으로 말할수 있는 기분, 그것이 유철이에게는 하나의 즐거움이였다. 실없이 잘 웃고 그런가 하면 설음을 제 가슴속에서 삭이기 위해 어린것이 늙은이같이 구차스런 궁리를 짜내야 하던 그 지질한 생활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저렇게 가난하나마 자기 신념의 길을 걷고있다는것이 어쩐지 이 나라 불쌍한 누이들의 광명한 래일을 보는것만 같아 즐거웠다. 아직 쌍가매가 그 길의 참뜻을 속속들이 모르고있다 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열어주신 싸움의 새길에 어엿하게 나선 쌍가매, 그것은 곧 유철이 그자신의 희망이며 행복이며 자기 삶에 대한 신념이기도 하였다.

《조아바이가 수상해요, 조심해요.》

쌍가매는 말투도 달라졌다. 현서방이 보통 마차군이 아니라는것을 느끼자 처음에는 오히려 대하기가 거북하고 서먹서먹하였다. 그러다가 야학에 다니기 시작하고 안골에 벌어진 새로운 생활분위기의 중심에 서있는것이 다름아닌 현서방이라는것을 알자 이번에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는 과정에 쌍가매는 갓난애가 눈을 뜨듯 이 세상을 바로 보는 새 눈을 뜨게 되였다. 그제야 그의 불행의 진정한 원인과 자기가 까닭없이 짓눌려 사는 불행한 무산자계급의 딸이라는것을 알았다. 그에게 이 눈을 띄워준것이 현서방이였다. 그의 안내로 그는 백리허숲속에서 회의에 참가했다. 그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국을 광복하는것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혁명조직—반일회의 성원이 되였으며 안골동네의 첫 녀성혁명조직원으로서 부녀들속에서 반일선전을 하여 그들을 조직에 묶어세울데 대한 과업을 받았다.

쌍가매는, 부모도 형제도 고향도 친척도 모르는 쌍가매는 유철이가 들려준 **김일성**동지의 이름속에 그 모든것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을 걸었다. 유철은 그에게 그 모든것을 가져다준 사람이였다. 오늘 그는 외롭지 않았다. 그에게는 동지가 있고 조직이 있고 그에게 말하는 법, 사람과 대하는 법, 오늘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것, 지어는 옷을 어떻게 입고 글자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것까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다.

다만 그 사람은 자기자신에게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것까지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쌍가매가 유철을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은 그

런 순결한 마음으로 따르고 받드는것은 조국이 싹틔워준 천연적인 품성이였다. 그는 당시의 어떤 교양있는 녀자보다도 더 은근하고 품위있게 말했고 자기의 생각하는바를 간략하게 표현할줄 알았다. 그러면서도 쌍가매자신은 그것이 놀랍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볼만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있는것이였다.

《무슨 일이 있었소?》

유철은 쌍가매가 조직적인 성격을 띤 말을 한다는것을 느끼자 그 역시 정중한 태도로 되물었다.

《어제 낮에…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해요? 난 싫어요.》

쌍가매는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그 큰 눈을 흘기며 유철을 가로 보았다.

《허허허, 좌우간 그런 말은 이따가 하고 우선 하려던 말이나 마저 하오.》

유철은 가슴속이 후더워지는것을 느끼며 재촉했다. 쌍가매는 시무룩해서 잠시 유철의 옆얼굴을 훔쳐보더니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말했다.

《어제 낮에 아끼시마가 왔댔어요. 세놈이서, 아니 그 안주인까지 합쳐서 술을 먹더니 조령감을 불러들였어요. 무슨 이야긴지 자꾸 캐묻는데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술안주를 가져가는척하고 들어갔더니 그 여우같은 년이 욕을 하지 않아요. 얼른 나오면서 보니까 조아바이가 한절반 꿇어앉아 땀을 철철 흘리고있는데 내가 들어간것도 모르고 말을 했어요. 총에 대해서 말하는것 같애요. 그저께밤에 토론회에서 있었던 말을 하는게 틀림없어요. 문을 닫으며 잠시 들으니까 아끼시마가 로씨야에서 총을 가져온다고 했지 하고 다그치는데 조아바이도 로씨야말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다음은 못들었어요. 그날밤 저—》

쌍가매는 여기서 잠시 망설였다.

《옳소, 그날밤 삼덕동무가 한 말을 한거요. 그놈들도 잠자코 있지는 않소. 조령감을 야학에 보낸것은 결코 그 아바이를 공부시키기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 내막을 캐내자는것이라고 우리도 짐작하고있소. 그렇다고 우리가 할 소리를 안할수는 없소. 문제는 조령감을 건져내는거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아바이는 왜 그럴가?…》

쌍가매는 가볍게 한숨을 지었다. 자기의 불행을 두고는 한번도 한숨을 지을줄 모르던 열일곱살소녀가 오늘은 환갑이 래일모레인 늙은이의 처신을 걱정하고있었다.

《쌍가매도 조아바이를 도와줘야겠어. 그런데 지금 당장 쌍가매가 해야 할 일은 마을아낙들과 처녀들을 어서 깨우치는거야. 내가 죽심이한테 물어보니 봉이는 여전히 그 집에도 통 들리지 않는다더군.》

《그 애는 요즘 이상해졌어요. 혼사말이 나면서 그래요.》

쌍가매는 부채소에서 있었던 일을 아직 모르는만큼 원망스런 어조로 말했다.

《봉이를 도와주오. 그렇게 골방에 갇혀만 있어서는 정말 신세를 망치고말거요. 무엇보다 본인당자가 싸워야 할텐데 우리 아낙들은 그저 눈물만 흘리고 한탄만 하고있다니까… 쌍가매가 봉이에게 힘을 북돋아주어야겠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내요?… 그렇지만 난 봉이를 만나보겠어요.》

담모퉁이에 이르렀다. 굽이를 돌면 정문포대가 나타난다. 유철은 걸음발을 늦추어 쌍가매를 들여보냈다.

위험은 점점 박두해온다. 적의 촉수가 마을에 뻗친것을 알자 인차 조직원들을 로출시키지 않도록 대책은 세웠지만 군중들의 기세를 고려하여 반일선전을 더욱 진공적으로 들이대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 과정에 한두가지 자료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할것이다. 문제는 대오를 더 단단히 짜서 물샐틈없게 만드는것이다. 적들이 야학의 내막을 이미 알아차렸을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것은 그럴만한 구실과 증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최근 박병섭로인의 동향과 관련하여 야학내부에서 일어난 동요의 결과를 바라보고있는지도 모른다.

박병섭로인은 부채소사건이 있은이래 더욱 언행이 무거워져서 생각에 잠겨있다는것이였다. 직접 가서 몇번 만나자고 별렀으나 매번 기회가 좋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어오는데 우선 두현을 시켜 동네에 왜놈밀정들이 자주 나타나는 실정을 말하고 만일에 아버지가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많은 동네사람들이 해를 당하리라고 말하게 했다.

마침 정희겸이가 로인을 찾아오기까지 해서 그 말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으로 그날부터 로인은 바깥출입을 그만두고 두현이가 야학에 빠져나오는데 대해서도 모르는체한다는것이였다.

유철은 긴장된 시간을 보냈다. 그 긴장때문인지 아니면 부채소에서 돌아와서 박병섭의 침 한대를 억지로 맞은것이 효험이 있었던지 그 뒤

로 며칠동안 신열에 시달리고는 그럭저럭 추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머리속의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미 제기된 날카로운 문제들을 미처 풀기도전에 새롭게 조령감문제가 제기되였다. 어차피 원쑤들과의 결정적대결의 시각은 다닥쳐오는데 아직 안골에는 판가리에 내세울만한 조직된 력량이 미약하다는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한편으로 불안이 엄습해왔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불안한 마음속을 드러낼수 없었다.

미타한것을 느낄수록 유철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했고 행동했다. 그는 쌍가매가 보기에도 지나치게 여유작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초조와 불안의 반영이였다. 쌍가매의 위험신호에 대해 미리 다 예견하고있었던것처럼 태연하게 대하고 웃는 얼굴로 달래서 먼저 집으로 들여보낸 지금에도 유철은 마음속으로 적들이 삼덕이에 대해 어떻게 나올것인가, 삼덕이를 미리 빼돌릴것인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탄압의 구실을 주게 되지나 않을가? 이런 생각을 더듬으며 어쨌든 삼덕이와 두현이 같이 많이 드러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언제든지 적의 습격에 대처할수 있도록 준비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

《얘, 아버지 들어오면 또 야단치겠다. 그만들 하고 들어오너라.》

봉이 어머니는 이마에 수건을 질끈 동인 얼굴을 문턱우로 힘겹게 들어올려 신음소리 절반으로 하소연하듯 말하였다. 벌써 이태째 몸져누운 그는 피를 토하는 도수가 점점 잦더니 창백했던 얼굴이 이즈막에 와서는 시신빛으로 변해가고있었다.

《네, 이제 곧 들어가요.》

봉이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앉아 두툼한 강냉이잎사귀를 꼬깃꼬깃 접었다폈다 하고있었다.

《어머니가 더 중해지시지 않았니?》

죽심이가 걱정스러워 이미 어머니의 얼굴이 사라진 검은 동굴같은 미닫이쪽을 바라보았다.

《늘 그렇지뭐, 아마 우리 어머니는 오래 못사실것만 같애.》

《얜 끔찍한 소리도 하는구나.》

쌍가매는 왜 그런지 섬찍한 생각이 들어 낯을 찌프렸다.

세 처녀는 강냉이를 심은 터밭머리에 뚤뚤 말린채로 있는 다 해진 멍석을 깔고 나란히 앉아있었다. 야학에서 돌아오는 길인 죽심이와 쌍가매는 책을 옆에 끼고있었다. 다행히 필재로인은 박병섭로인의 사랑에 가고 없었다.

달빛은 퍼그나 지새여 백리허숲은 변두리만 훤하고 아래쪽은 칠흑같이 어둠에 묻혀있었다. 숲속을 흐르는 물소리가 이따금 피타게 우는 밤새소리에 동강나고 풀숲에서는 벌레가 울었다. 또 장마철이 시작되였다. 이 장마가 지나면 그다음은 황토먼지가 짓쳐 덮이고 그리고는 눈보라를 싣고 칼바람이 불어올것이다. 그러면 거치른 광야에 생은 옹송그리고 만물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는 그 기나긴 겨울이 올것이다.

《그래 너희들은 죽는다는것이 이상하게 생각되니?》

봉이는 흰 얼굴에 쓸쓸한 웃음을 짓고 물었다. 마치 세상풍파를 다 겪은 어른이 순진한 아이들에게 묻는듯한 어투였다.

쌍가매는 또다시 섬찍한것을 느꼈다.

《애 봉이야, 너 왜 그러니? 네가 정 싫으면 싫다고 탁 차버리려무나! 그까짓 시집은 가서 뭘하니. 게다가 그따위 노랑대가리 아이새끼를 새서방으로 삼다니… 너 싫으면 딱 잡아떼면 될텐데 괜히 속을 썩이는구나.》

《난 죽심이보다 네가 더 부럽다. 부모도 동기도 아무도 없이 네 마음대로 할수 있는 네 처지가 부럽다.》

봉이는 쌍가매의 말에 대해서는 이렇다저렇다 말을 하지 않았다.

쌍가매는 자기 심정을 리해할수 없다고 생각하는것이였다. 싫다고 하면 누가 억지로 가라고 하지 않을줄은 봉이도 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제 신세를 두고 한번 반항도 못해보고 통사정도 못해보고 지어 한번 자기의 설음을 두고 실컷 목놓아 울어볼수도 없는 자기 처지를 쌍가매는 모른다. 쌍가매는 내가 왜 부채소에 나갔는지 그 까닭을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것이다.

쌍가매는 봉이의 그런 마음속을 말끔히 들여다보고있었다. 그러려니 해서 오늘밤 여기로 오기전에 미리 유철이에게도 봉이의 처지를 말했고 또 그로부터 여러가지 의견도 받았다. 그러니만큼 쌍가매는 봉이의 아픈 가슴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가 아직 모르고있는 새 세상으로, 그의 운명을 그처럼 걱정하는 한계급의 동지들속으로 끌어들여야만 했다.

《봉이야, 넌 잘못 생각하고있다. 네가 창도란 아이새끼한테 시집

을 가지 않으면 너의 식구가 다 죽을것처럼 생각하지만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단다. 정희겸이가 안골동네를 쥐락펴락하던 때는 이미 지났어. 지금 야학에 한번 나와보아라. 누가 전처럼 그놈의 말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는줄 아니? 땅을 떼겠다고 그놈이 아무리 을러도 소용이 없어. 우리 동네사람들이 몽땅 너의 편을 들어 그놈과 해내면 그놈도 꼼짝 못한단다. 그러니 너도 속만 썩이지 말고 동무들속으로 나와. 그럼 힘도 생긴단다.》

《그래 쌍가매 말이 옳아. 우리 오빠가 그러는데 가만 앉아있으면 부자놈들은 점점 더 못되게 군다더라. 모두 합심해서 그놈한테 들이대면 경찰도 꼼짝 못한대. 넌 야학에 나오너라. 그럼 너는 이런 리치를 다 알게 될거야.》

봉이는 그냥 강냉이잎사귀를 접었다폈다하였다. 아까부터 그냥 같은 잎을 주무르는데도 그 잎은 조금도 상하지 않고 절반이 접힌채 그대로 달려있었다.

《너희들의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난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 정말 난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 너희들이 찾아줘서 참 고맙다. 하지만 난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것이 나뿐은 아니지 않니?》

밤은 깊었다. 달은 숲너머 기울어졌다. 골목길에서 필재로인의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세 동무는 서로 한숨을 짓고 아픈 마음으로 헤여졌다.

17

정희겸은 현성에 불려가서 노무라와 아끼시마를 만났다. 노무라는 막 부임해온 가와사끼소장놈과 함께 하강지구의 《군경합동회의》를 필하고 사뭇 기가 돋아서 일을 떨떨하게 한다고 한참 아끼시마를 다그치고있는 판이였다.

《모든 징조로 보아 그 안골동네에도 이미 공산당조직이 박힌것이 틀림없다. 이것을 아직 리해 못한다는것은 슬픈 일이다. 여보 정주사, 당신은 내가 일부러 노꼿의 일을 담보할테니 동네를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뭘 멍청해있는가? 물론 아끼시마군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그러

나 아끼시마는 일본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속에 들어가서 공작할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것만큼 령감이 응당 배가의 노력을 해야겠는데 이건 무슨 모양인가? 당신은 무슨 배짱으로 빨갱이의 야학을 승인했는가?》

정희겸은 멸멸해있다가 고개를 쳐들었다. 아끼시마는 시치미를 뻑 따고 창밖만 내다보고있다. 정희겸은 어디 달아나는 사람이라도 붙잡는것 모양 걸상에서 엉뎅이를 쳐들고 아끼시마에게 말을 걸려 하였다. 사실 나는 야학을 단연 거절하지 않았는가? 열두살에 나는 아들 창도가 있지만 자기 자식도 학교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해본적이 없는 그였다. 그런만큼 가난한 농사군이나 머슴군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그래서 딱 잘라 거절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도와줘야 한다고 자기를 설복하고 지어 위협까지 한것이 아끼시마가 아닌가? 응당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끼시마가 책임을 지고 대답을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아끼시마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선선한 표정으로 앉아 책상다리옆에 늘어뜨린 길다란 다리를 흔들흔들하며 회파람이라도 불듯이 팔을 뒤로 돌려 손가락으로 걸상등받이를 가락맞게 다독거리고있다.

고개를 돌리니 노무라가 모멸에 찬 눈길로 자기를 내려다보고있다.

정희겸은 찔끔하고 목을 움츠러뜨렸다. 사실 그때만 해도 노무라가 현성에 와있었다. 안골에 농민들의 야학을 내주고 박병섭이 같은 민족주의자들을 부추겨 큰개의 공산주의자들과 대결시키라는것은 어쩌면 노무라자신의 계획일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러한 계획을 노무라가 오늘까지 모르고있었을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고보니 일은 저희들이 저질러놓고 그바람에 혼자 부대끼다싶이 한 자기에게 이제는 모든 책임을 넘겨씌우자는것이다.

정희겸은 밸이 울컥하고 치밀었다. 그러나 그것은 노무라에 대한 화도, 아끼시마에 대한 화도 아니고 이 순간에 자기에게 이런 난처한 립장을 빚어내게끔 한 그 공산당들에 대한 울분이였다. 그는 결연히 목을 쳐들고 말하였다.

《오늘 당장 가서 야학을 없애치우겠습니다요. 노무라상께서 분부가 있기만 하문사 우리 보위단을 풀어 당장에 없애치울수가 있습니다요.》

《아— 아— 령감, 또 우둔한 소리를 하는군.》

노무라는 한손을 들어 가볍게 가로 흔들며 칼자루지팽이로 널마루를 딱딱 울렸다.

《이젠 이미 때가 늦었소. 이제는 안골에 이미 독초가 뿌리를 내

렸단말이야. 그러니 가지만 쳐내서는 소용이 없어. 서뿔리 손을 쓰다가는 줄기만 잘라내고 뿌리를 캐낼 얼터기마저 잃어버린단말이야. 그런것만큼 령감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고 하니 조심조심 그 뿌리를 캐내야 해. 말하자면 주동분자를 알아내란말이요. 안골에 틀림없이 큼직한 빨갱이가 박혀있소. 우리가 큰개나 가막골을 단숨에 쳐버리지 못하는것도 이렇게 밖으로 삐여져나온 뿌리를 찾지 못했기때문이요. 만일에 령감이 그 뿌리를 더듬어내기만 하면 이미 저지른 실수를 때고도 공로가 남을거란말이야.》

노무라는 계속해서 오늘 《군경합동회의》에서 결정됐다는 몇가지 사항을 전했다.

《군경합동회의》에서는 국경일대와 동만에서의 소연한 상태에 비추어 하강지구에서의 《치안》문제에 많은 우려가 표시되였다. 국경지대에서의 **김일성**유격대의 활동은 급기야 동만과 국경일대에서의 강력한 유격근거지의 형성을 보게 되였고 마침내는 조선군사령부와 관동군관하의 정예부대를 투입하고 대대적인 포위 《토벌》작전을 벌리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가볍게 전도를 락관할수 없는 사태에로까지 나아갔다. 따라서 어수선해지기 시작하는 하강지구에서의 《치안》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 할것으로 견해의 일치를 보고 그에 따르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군경합동지휘부》를 내온것이 그 첫째요 모든 힘을 집중하여 빨갱이소굴을 《토벌》하고 공산로씨야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의 근원을 뿌리뽑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무력을 《군경합동지휘부》의 총괄적인 지휘하에 복종시키기로 했다는것이였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무기가 넘어가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들의 총기휴대와 사용을 금지하고 일체 회수하며 무기와 화약의 밀매를 엄중단속한다는것이였다.

정희겸은 자기 보위단이 현경찰서장의 지휘하에 넘어간다는 말에 눈앞이 아찔하였다.

《그,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위단으로 말하면 내가 내 돈으로 만든것인데…》

정희겸은 울상을 해가지고 발버둥을 쳐보았으나 노무라가 딱 하고 칼자루지팽이를 한번 울리자 다시는 입을 벌리지 못하고말았다.

너절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였다. 한참 《군경합동회의》에서 토의된

《치안숙청방침》에 대해 말하던 노무라는 얼마간 침묵을 지켰다가 엄한 표정으로 불쑥 말하는것이였다.

《여러가지 징조로 보아 앞으로 안골에서 폭동같은게 예견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소.》

《네, 폭동이요?》

정희겸은 펄쩍 뛰였다. 게다가 또 폭동까지 일어난단말인가?

노무라는 눈섭 하나 까딱 않고 차겁게 말을 이었다.

《령감은 조용히 돌아가서 폭동을 겪으시오!》

《폭동을 겪다니요? 아 겪다가도 뛰여야겠는데 조용히 가서 겪다니 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령감, 앞으로 나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흥정을 하는 투로 하지 말고 그저 하는 말을 듣기나 하시오!》

《원, 이게 무슨 일이요?》

정희겸은 노무라를 두려워는 하면서도 자기는 그와 대등하게 상종하는 사람쯤으로 생각해왔는데 이렇게 위압적으로 나오는것을 보니 떨떨해졌다. 어쨌든 이자는 재미가 없는자이다. 엇섰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이 세상을 하직할지도 모른다.

정희겸은 눈을 공허하리만큼 크게 뜨고 노무라의 짐짝만한 대추빛얼굴을 바라보았다.

《지하조직이 일단 박힌 이상 뿌리를 뽑아던져야 하겠소. 그러자면 주동분자를 알아내야겠단말이요. 그러니 령감이 앉아서 폭동을 겪으란 그 말이요. 폭동을 겪으면서 꼭 주동분자를 잡아내야 하오. 주동분자만 알아내면 그 다음은 문제가 간단하오. 안골에서 제일 말짼것은 이미 있는 것들은 모두 머저리같은것들이 돼서 빨갱이들이 별짓을 다하도록 눈치도 못채고있는 위인들이니 장차 무슨 일을 시키기가 곤난한데 하도 편벽한데가 돼서 외부에서 사람을 박아넣을 짬도 없다는 점이요. 물론 아끼시마군은 아끼시마군대로 활동을 하고 또 군이나 경찰에서도 활동하겠지만 주동분자를 잡아내는것은 주장 령감이 해야겠소. 내 말을 알아듣겠소? 령감이 그래도 안골에서는 그중 머리가 좋은 사람이란말이요.》

정희겸은 기가 차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자기 머리가 제일 좋다는 것도 추어주는것 같지만 실상 자기의 좀 둔한 편인 머리를 조롱하는것이라고 짐작되였다. 그는 점점 심드렁해져서 어떻게 딱한 립장을 모면해볼가 하고 궁리했으나 모두 허사였다. 노무라는 용서없이 죄여들었다.

《혹시 그자들이 폭행을 하더라도 령감은 꾹 참아야 하오. 보위단은 내가 따로 불러서 지시를 주었으니 령감이 죽을 념려는 없소. 그래 놓고 어떻게 하든지 담판을 하자고 하란말이요. 대표를 만나자고 하오. 그래서 대표가 나서면 그 다음은 우리가 손을 쓰겠소.》

《아니, 뭘 그리 복잡하게 할게 있소? 노무라상답지도 않소. 그까짓 놈의 아이들 경찰이나 헌병을 좀 데리고 와서 돌아가며 잡아가두어 버리면 그만이지 주동분자고 뭐고 할게 있느냐말이요?》

정희겸은 안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마지막으로 한번 중을 떠보았다.

《어리석은 소리를 하지 마시오. 령감은 공산주의가 뭔지 아직 모르오. 우리가 그까짓 동네 하나 없애치우는것이 무서워서 이러는줄 아시오. 동네같은것은 문제도 아니요. 공산주의자를 잡아내야 하오. 알겠소? 령감, 가서 참하게 폭동을 겪고 무슨 눈치든 채거든 인차 윤철목이나 조령감을 통해 보고를 해야겠소. 보고를 할 때는 아무놈의 눈치도 못채게 해야 한단말이요. 아끼시마군도 이 점에 대해 특별히 류의하고 정주사와 련계를 잘 짓도록 하라.》

정희겸은 울며 겨자먹기로 노무라의 과업을 맡지 않을수 없었다. 정급하게 되면 다 살려줄 방도가 있다니 그 말이나마 믿고 한번 배심을 부려볼밖에 없다고 비장한 생각을 하니 왜 그런지 자기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이튿날 저녁때 김치복이가 정희겸이를 찾아왔다. 그는 바깥마당에서 삼덕을 만나자 한쪽눈을 슬쩍 감으며 신호를 하였다. 정희겸이 만나자는 핑게를 대고 사실은 삼덕을 만나러 온것이다. 불시에 나타난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난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것인가? 어제부터 보위단이 갑자기 완전무장을 갖추고 동네 구석구석을 순찰한다. 포대의 경비도 강화되였다. 리효범이가 슬쩍 귀띔하는데 의하면 그저께 윤철목이가 현에 올라가서 아끼시마를 만나고 왔다는것이다. 이놈들이 무슨 일을 치자는것이 틀림없다. 하기는 이미 예견하고 기다리던 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시 긴장되지 않을수 없었다.

삼덕은 김치복이를 기다리기 위하여 통장작을 한짐 안고 와서 바깥마당 한쪽구석에서 패기 시작했다.

이때 김치복이는 물레방아의 공이가 헐거워져서 현성에 가서 새것을 맞추어와야겠기때문에 며칠 일을 못하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뜻밖

에도 정희겸이는 《좋아, 좋아, 며칠 쉬면 뭐라나.》하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자꾸 끌었다. 전같으면 덮어놓고 욕설부터 퍼붓고 보는 정희겸이가 갑자기 갈보웃음을 치는바람에 치복은 저으기 떨떨해졌다. 급히 삼덕에게 알려야 할 일이 생겨서 핑게를 만들려고 정희겸이를 만나러 온것인데 이놈이 이렇게 제 사위나 맞은것처럼 반가와하니 속이 아니꼬왔으나 잘라버릴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놈이 권하는대로 방안에까지 들어가자니 시간도 문제지만 비위가 틀려서 견디여낼것 같지 않다.

《저, 발이 더러워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무슨 말씀이 있으면 하시지요.》

《아 발이 좀 어지러우면 뭐라나? 일하는 사람 발이 그렇지, 별것을 다 걱정하는군. 어서 올라오게. 내가 치복이를 진작부터 남달리 보아온터이지만 늘 내가 바빠서 이야기도 한번 변변히 못해봤네그려. 어서 올라오게.》

치복은 일이 너절하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하는수없이 짚신을 벗고 마루우에 올라섰다. 으리으리하게 방치장을 한 사랑안에 한발을 들여놓으니 아닌게아니라 오금이 저려 저도모르게 발바닥을 저겨디디며 멀찍이 앉았다. 어서 내려앉으라는 정희겸의 말에 마지못해 몇번 앞으로 나앉았는데도 삼간 통방 저 아래목에 앉아있는 정희겸이 가까이까지 가려면 아득히 멀다. 수병풍을 둘러친 앞에 보료를 깔고 안석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장죽을 비껴물고있는 정희겸은 상반신을 일으키고 연방 너스레를 떨더니 옆에 놓인 놋요강뚜껑을 열고 가래를 뱉은 다음 소리쳤다.

《여보, 거 술 한상 차려들이오!》

치복은 점점 눈이 둥그래졌다. 이놈이 환장을 했나,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독이라도 먹이려나… 그러고보면 놋장석, 주석장석이 번쩍번쩍하는 책궤며 수장궤며 반닫이며 벽에 걸린 족자의 호랑이며 정희겸이 머리맡에 놓인 벼루장같은것들이 다 도깨비나 도깨비단지 같다.

쌍가매가 술상을 들고 들어왔다. 김치복은 잔뜩 긴장되였다.

(빌어먹을것, 이럴줄 알았더면 박두현동무에게 알리고 마는건데…)

일이 급하다고 무작정 달려든것을 후회하며 옹송그리고있는데 정희겸은 연방 눈꼬리를 치며

《이리 오게, 어서 이리 다가오게. 약주 한잔 들라니까…》

《난 술 못하는데요.》

《원 별소리 다 하는군. 치복이 같은 대장부가 술을 못하다니 될 말

인가? 이 약주가 맛이 괜찮네. 어서 다가와—》
김치복은 잠시 주저하다가 불쑥 상앞으로 다가갔다. (까짓놈 계급적 원쑤하고 술을 마시게 된것은 더럽지만 지금은 공작중이니까 별수 없지 않느냐? 이놈의 술을 내가 먹어도 무산자의 립장을 든든히 지켰으면 될것 아닌가? 이놈의 눈치가 나를 어떻게 삶아보자는 모양인데 놈의 수작을 들어보는것도 혹시 소용에 닿을지 모르고… 좌우간 속이 출출한 판에 잘됐다. 계급투쟁을 하자마자 지주놈의 술을 마시는것은 재미없지만 뭐 그렇다고 술맛이야 변할텐가.)
놋주발에 남실남실한 술을 받아드니 저으기 생각이 복잡해서 치복은 술잔을 든채 연신 정희겸의 못생긴 얼굴을 치떠보았다.
《이 사람, 어려워 말고 쭉 마시게. 일이 없어. 내가 권하는것인데 어른앞이라고 저어할것이 없네.》
(빌어먹을놈, 어른앞이라고!)
치복은 울컥해서 고개를 약간 돌리고 단숨에 술을 쭉 들이켰다.
《어, 잘하는군. 어서 안주를 집게.》
정희겸은 연방 술을 권하더니 치복이 얼굴에 주기가 벌겋게 피여오르는것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치복이, 이 사람아.》
정희겸은 간지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네네 부자간이 물방아를 잘 봐줘서 내가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네. 그래서 다음 농사부터는 땅을 사나흘갈이쯤 더 떼줄가 하고 진작부터 생각해오는데 일이 그렇게 뜻대로 잘되지 않네그려. 그러나 이번만은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 작인이 수백호 된다지만 내가 이 안골에서 누구를 믿고 살겠나. 그저 자네네 부자밖에 믿을데라구 있나?》
치복은 귀를 바싹 도사렸다. 이놈이 이제 구렝이속을 드러내려는구나 생각하니 저도모르게 긴장되였으나 겉으로는 정희겸이가 푸수하게 본 자기 외양을 그대로 유지하느라고 일부러 분수없이 굴었다.
《그렇구말구요. 사실 주사나으리를 진심으로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나 나나 그저 주사나으리를 위해서 죽자살자 일하지요. 그런데 뭐 쥐뿔이나 돌아오는게 있어요?》
《허허허, 내가 다 생각이 있네. 섭섭해 말라니까. 올해는 몇놈 땅을 잡아뗄 작정이네. 저 강필재놈을 비롯해서 그놈의 집안동아리들을 몽땅 내쫓아야 하겠어. 그걸 다 자네네가 부치도록 하란말이여. 그

렇게 해서 한해만 농사 잘 지으면 떵떵거리고 살수 있지. 자네도 이젠 상투를 올려야지. 이제 그만큼 장성했는데 더벅머리로 있겠나. 어디서 고운 색시 골라서 장가도 들고… 여북 좋은가.》

정희겸이가 하필 강필재를 찍어 편안치 않은 말을 하는데는 까닭이 있었다.

그는 여태 봉이가 부채소에 갔던 일은 꿈에도 모르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그저께 강필재가 잔뜩 취해서 혼수상자를 져다가 토방에 멨다뜨리고 인사말도 없이 돌아가버렸을 때 너무나 어안이 벙벙해서 미처 욕설도 한마디 퍼붓지 못했다. 일단 돌아온 혼수를 동네가 망신스러워 되보낼수도 없고 그저 밸만 꿈틀거려서 어떻게 하면 그놈의 집안을 짓밟아버릴것인가 하고 끙끙 속을 앓고있는중이였다.

《장가를 가재도 가난뱅이라고 아무도 딸을 주지 않는걸 어떻게 해요?》

김치복은 놈의 속을 뻔히 들여다보면서 일부러 더 능청을 떨었다.

《그러게 내가 땅을 준단말일세. 한데 이 사람아.》

정희겸은 바싹 무릎을 끌며 더욱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내가 자네 뒤를 착실히 좀 봐주자고 한즉 매번 일이 여의치 않거던. 그게 왜 그런고 하니 거 공산주의자들이 말썽이란말이야.》

《공산주의자라니요?》

김치복은 펄쩍 뛰는 시늉을 하였다. 이 미련한놈이 흉물스럽게 누구를 삶아보겠다고 같잖게 계교를 꾸미는것이 속으로 우스워졌다.

《거 큰개에 있던 빨갱이들말이야. 그런 빨갱이들이 우리 동네에도 있다네. 자네도 거 삐라랑 내다붙인것 보지 않았나?》

《삐라가 뭡니까?》

《허, 삐라도 모르나? 거 골목이나 대문같은데 글씨를 써서 내다붙인것말이야.》

《거 보위단이 아침마다 돌아다니며 떼는 광고말이지요? 거기에 뭐라고 썼나요?》

《그건 뭐 알만한게 못돼. 그저 못된 수작이지.》

《그래도 뭘 알아야 주사나으리 말씀을 새겨듣지요.》

《거, 그저 일 잘하자는 소리야. 그건 별것 없다니까.》

《빨갱이들이 일 잘하자고 써붙였단말이지요? 거 아주 그럴듯하군요.》

《이 사람아, 거 무슨 소린가? 빨갱이가 일 잘하자고 써붙인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런 종이쪽지를 붙일바엔 그런 글을 써붙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이지. 그놈들이 그렇게 쓴거야 물론 아니지. 그놈들이 그런 소리를 할턱이 있나. 온통 불한당같은 소리만 했단말이야.》

《거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요. 아무러면 광고를 내붙이는데 나쁜 소리야 썼겠어요?》

《아닐세, 그놈들이 글쎄 일본사람 욕을 함부로 하고 또 이 나를 마구 욕을 한다네.》

《그래요? 주사나으리가 무엇때문에 욕을 먹는가요? 욕심이 사납다고 그러는가요?》

《원 이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내가 욕심이 무슨 욕심이 있단말인가? 그것도 그것이려니와 이건 온통 불한당이라니까. …》

정희겸은 치복이가 일부러 자기를 골려준다는것도 모르고 제깐에는 제 체면을 유지하면서 얼리노라고 진땀을 뺐다. 정희겸은 전날 노무라로부터 혁명조직의 주동분자를 알아내야 한다는 과업을 받고나서 저으기 심사가 불안해져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폭동을 앉아서 겪을것이 아니라 미리 주동분자를 알아내는쪽이 낫겠다는 결론을 지었던것이다. 폭동이란 이미 겪은바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조용히 앉아서 겪을만한것이 못된다. 그러니 이렇게 만나는놈마다 중을 떠보고 그놈이 무슨 조직과 련계가 있는가 없는가 알아내는 한편 만약에 자기 손탁에 들어오면 그런 놈을 통해서 마을의 주동분자도 알아낼수 있으려니 생각했다. 이 선코에 맞다들린것이 바로 김치복이다. 치복이네가 보는 물레방아는 동네에서 외따로 떨어져있는데다 그 애비 김득춘이란 고목같이 말이 없고 붙임성이 없어 동네에 가까운 사람이라군 없다는것을 정희겸은 안다. 치복이로 말하면 집에 데려다 몇번 일도 시켜보았지만 그저 덩치만 커다랗지 무식하고 미련한 아이놈이다. 아무리 말세면 이런놈까지 빨갱이노릇이야 하랴싶었으나 그래도 쌍가매의 전례를 생각하면 마음을 놓을수가 없다. 그래 한참 말을 걸어보니 이놈이 아주 맹물단지라는것이 틀림없다.

그러자 얼마간 탕개가 풀리는 심정이기는 하였으나 그럴바엔 이놈을 바싹 자기에게 끌어당겨 동네형편을 렴탐하는데 리용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조령감을 통해 어느 정도의것을 알아냈다 하나 조령감같은것을 믿고 폭동이 당장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판에 태평스레 앉아있을수는 없었다. 하지만 치복이가 원체 미련한척하니 어떻게 말을 꺼낼 방도가 없다.

《그런데 여보게,》 정희겸은 다시 술잔에 술을 따르며 더욱 은근한 투로 속삭였다.

《자네 그 그런 광고 붙이는것 본적이 있나?》

《없는데요.》

《거 자네 생각엔 누가 그런걸 붙였음직한가?》

《글쎄요. 난 그저 주사나으리께서 써붙였나 했지요. 동네에 글 아는 사람이라고 몇사람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써붙였다니 거 무슨 말을 함부로 탕탕 하나. 글을 아는 사람이야 나만은 못하다 해도 저 박병섭이가 알지 않나. 그리고 그 집 아들놈도 알고…》

《그래도 그 령감이야 그런걸 써붙일 지체가 있나요. 야학선생은 온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광고가 그전부터 나붙지 않았어요?》

암만해도 이렇게 해서는 냄새를 맡기가 틀렸다고 생각한 정희겸은 이번에는 딴데로 말머리를 돌렸다.

《거 자네도 야학에 다닌다는데 거기서 무슨 소리를 하나? 자네도 그저께 거기서 연설을 하는것을 들었나?》

《야학에서 별소리가 다 많아요. 난 세상에 나서 그런 소리는 다 처음 듣는걸요.》

《무슨 소리들을 하는지 어디 말 좀 해보게.》

《참 주사나으리, 내가 듣던중 이상하게 생각하는것은말이지요. 거 도깨비불 있지 않아요. 그게 하루살이떼들이 고목에 앉았다가 날아다니는거래요. 그게 참말일가요?》

《그런 소리는 이따가 하고 그저께는 무슨 말들을 하던가?》

그저께밤에 농민들의 집회가 야학마당에서 있었다는것은 이미 조령감을 쥐여짜서 알아냈다. 그러니 이번에는 치복이를 구슬려서 그 내용을 좀 냄새맡아보자는것이다. 제꺽 그 눈치를 챈 치복은 이놈을 되골려주자고 제쪽에서 무릎을 세우고 나앉았다.

《그저께요? 그저껜 더 굉장했지요. 웅변회라는것을 했는데 모두 연설을 했지요.》

《글쎄 누구누구가 연설했나말일세?》

《야학에 다니는 사람은 몽땅 했지요. 그래서 점수를 매겼는데요.》

《자네도 했나?》

《나도 했지요. 난 사실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만 하다가 말았

어요.》
《왜？》
《난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서는 소를 사와야 한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어떤 녀석이 있다가 돈이 있느냐고 묻지 않아요. 빌어먹을것！》
아무리 물어보아야 겨섬에 못질하기로 도무지 맞히는데가 없다. 정희겸은 하는수없이 무슨 수상한 눈치가 보이거든 자기에게 인차 귀띔해달라고 했더니 치복이는 여부가 있느냐고 장담해나섰다. 치복이가 나간 다음 정희겸은 댕그란 천장코를 연신 벌름거리며 발고린내가 난다고 쌍가매더러 당장 방안을 치우라고 소리소리쳐댔다.
치복이는 제법 술에 취한 시늉을 하며 비틀비틀 중문을 나서다가 장작을 패는 삼덕에게로 다가갔다.
《여보게 삼덕이, 거 담배 한대만 주게. 내가 주인나으리한테 술을 한잔 얻어먹었더니 속이 메슥메슥하네.》
삼덕은 담배쌈지를 내주고 주위를 휘 살폈다. 치복이는 엉거주춤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우정 손을 후들후들 떨며 천천히 담배를 말았다.
《이상한놈이 나타났어요.》
치복은 고개를 숙이고 연방 담배가루를 떨구며 긴장된 목소리로 낮게 속삭였다.
《목재판으로 황아 팔러 간다는놈인데 방아간에 들려 동네형편을 캐묻는단말입니다.》
《어디서 왔다오？》
《가재울에서 온다는데 멀쩡한 수작입니다. 현성쪽에서 큰길로 해서 오다가 꺾어지는것을 성덕동무가 봤어요. 게다가 권총까지 가지고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소？》
《숲속에 붙들어매놓았지요.》
《좋소. 유철동지에겐 내가 알리겠소. 그런데 조심하오. 여기서도 감시가 심하오.》
《정희겸이가 냄새를 맡겠다고 나한테 술을 먹이고 여러가지 말을 겁디다. 그저께 집회와 삐라에 대해서 물어요.》
《알겠소, 현에서 무슨 통보를 받은 모양이요. 그렇다고 움츠러들 필요는 없소. 합법성을 보장하면서도 힘차게 싸움을 밀고나갑시다.》
《알겠어요. 그놈은 어떻게 할가요？》

《내가 나가서 잘 처리하겠소. 주구라는것이 확실하면 처단해버려야겠소.》
《저, 그 무기말입니다. 그건 내가 가지고 가도 되지요?》
《숲으로 가는것은 이번 투쟁을 결속짓고 봅시다. 무기는 곧 보내도록 해야겠소.》
《하지만…》
《누가 보겠소. 얼른 가보시오.》
김치복은 심드렁해서 일어났다.
《삼덕이, 거 발등 찍지 말게. 담배 잘 피우겠네. …》
치복이가 사라진 다음 삼덕은 인차 유철을 만났다. 그런 다음 삼덕은 집에 다녀온다는 핑게를 대고 대문을 나서서 곧장 숲속으로 들어갔다.

×

김기창이로부터 통보가 왔다. 노무라 다이사꾸란놈이 현에 나타났다는것과 그가 현 군경장관놈들의 합동회의에 참가하여 악독한 반공연설을 하고 앞으로 적색구역에 대한 《토벌》을 강화할 대책을 토의했다는것이였다. 지주들이 가지고있던 사병들, 보위단들이 모두 경찰에 넘어가고 앞으로 개인의 무기휴대를 금지하며 기왕 가지고있던것은 몽땅 회수한다는 자료도 있었다. 무기가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으로 넘어가는것을 막자는것이였다.
싸움은 촉박하였다. 현내의 적색구역이라면 우선 큰개를 비롯한 백리허숲 변두리에 널려있는 동네들이다. 따라서 적의 주목이 진작부터 백리허일대에 집중돼왔고 앞으로도 적의 공세가 이 방향으로 쏠릴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이 지구에 쐐기처럼 박혀있는 안골문제를 한시바삐 아퀴짓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금 동네의 형편은 다소 나아졌다고 볼수도 있었다. 강봉이가 그날밤 부채소에 나갔던 일은 박병섭로인밖에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지만 어쨌든 정희겸이네의 억지혼사를 거절한것때문에 강필재네 집안이 가을한 뒤끝에 굶게 됐다는것이 가운데서 흔들리던 완고한 층까지도 격동시켜놓았다. 강필재자신은 자기의 비루한 처사때문에 하마트면 딸을 잃을번했다고 통탄한끝에 정희겸이와 정면으로 대결할 용기를 내였고 봉이에 대한 태도도 고쳤다.

유철은 쌍가매와 죽심이가 다녀온 며칠후에 자기가 직접 봉이를 찾아갔었다. 처녀는 막 자리에서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얼굴에 피색이 돌지 않았다. 그런 봉이를 데리고 장시간 이야기를 하였다. 가난때문에 몸이 팔려가는 수많은 조선의 처녀들의 운명을 이야기했고 그러한 운명을 감수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제 목숨을 끊은 이 나라 녀인들의 구슬픈 운명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무엇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죽기를 결심한 이상 이런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맞받아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편이 떳떳하지 않은가? 지금 조선사람들은 모두 일어났다. 이 싸움의 대렬에 봉이도 들어서서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봉이는 놀란 눈으로 유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살기가 괴롭다고 실토했다. 내가 이 모양으로 됐으니 아버지는 나를 시집은 안보내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온 집안이 굶어죽겠는데 그것을 내 눈으로 보느니 차라리 죽는편이 낫다고 하였다. 유철은 정희겸이가 그런 횡포한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죽을것이 아니라 싸워야 한다, 모두 들고일어나면 제놈이 마음대로 동네를 쥐락펴락할수 없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제 마음대로 롱락할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필재에게 봉이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동무들이 모이는 야학으로 보내라고 권했다. 강필재도 청승맞게 앉아있는 딸이 보기가 민망해서인지 선선히 승인하였다.

이튿날부터 동네처녀들과 아낙네들이 밀려가서 봉이를 야학으로 데려내왔다.

풀죽었던 처녀의 얼굴에는 점차 화색이 돌고 치복이며 성덕의 우습강스러운 롱말에 가끔 웃기도 하였다. 처녀는 차츰 눈을 뜰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앞에 열려진 길을 찾게 될것이다.

어느날 유철은 야학이 시작되는것을 보고 나와서 그 길로 박병섭로인을 찾아갔다. 전날 강필재네 집에서 만난후로 길에서 몇번 만났으나 인사나 나누는 정도였지 조용히 말할 기회는 없었다. 만날적마다 로인은 은근히 호의를 보이면서 집에 좀 놀러오라고 청하였다. 그사이 가보자고 여러차례 별렀으나 좋은 기회를 만들수 없었다. 서뿔리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덧낼 위험이 많아서 가볍게 움직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긴장되여가는 정세와 관련하여 대책을 취하느라고 바삐 돌아쳐야 했다.

그러나 박두현의 말을 들어보면 로인이 은근히 자기의 정체를 짐작한듯도 한데다가 일전 강필재네 집에서 《임자가 공산당이라는 말이 있

는데 그게 사실인가?》 하고 맞대놓고 질문을 해온만큼 로인과의 관계를 오래 끌면 끌수록 후과가 있을수 있다. 게다가 촉박한 판가리싸움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빨리 아퀴를 지어야 할 문제가 이 문제이기도 하였다. 유철은 결심을 다졌다. 사실을 빠개놓고 피차 흉금을 털어놓는다면 서로 나라를 구하자는 일념이 있는데야 뜻을 합치지 못할것이 있으랴. 차라리 맞대놓고 들이대볼밖에 없다고 유철은 생각했다.

로인은 마침 마당에 펴놓은 방석에 앉아 새끼를 꼬고있었다.

《선다님, 안녕하십니까?》

유철은 마당에 들어서자 낮추 허리를 굽히고 공손히 인사를 하였다. 새끼를 꼬면서도 생각에 잠겨있던 박병섭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임자 칠성이 아닌가? 어서 오게.》하고 반색을 하였다.

《내 그러지 않아도 임자를 한번 만났으면 하던차이네. 어서 이리와 앉게.》

《밤이슬이 차겠는데 이렇게 밖에 계셔서 상하시지 않겠습니까?》

《허— 내가 이젠 농사군이 다 됐지만 전에는 삼동에도 한지에서 나던 사람이네. 념려할것 없네. 어서 이리 와 앉으라구.》

유철은 로인이 권하는 자리에 가앉아 촉촉히 추긴 짚단 하나를 끄당겼다.

《신날을 꼽니까?》

《무엇에 쓰겠는지… 그저 이렇게 꼬지.》

유철은 로인이 꼬는것을 대중하여 같이 짚을 비비며 말머리를 돌렸다.

《자주 좀 찾아뵙고 말씀을 듣자고 해도 도무지 짬이 나질 않습니다.》

《남의 집 사는 사람이 그럴수밖에 있나… 참, 듣자니 요즘 그 정희겹이네 집에서 쌍가매때문에 또 란리가 났다면서?》

《네, 그놈이 그애한테는 도무지 사정이 없습니다. 그애가 그집에서야 진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다 하지요. 그래도 삯전 한푼 주는법없이 부려먹고는 쩍하면 도리깨질하듯 아이를 패지요.》

《원, 저런 죽일놈이 있나! 원체 그놈이 그런 무도한놈이느니.》

유철은 밑으로 새끼를 슬슬 잡아뽑고는 손바닥에 침을 뱉아 가볍게 비벼나가며 말을 이었다.

《그애가 의지가지 없는 고아가 돼서 그 집에서 자라다싶이했는데 그 년놈이 저희네가 그애를 길러줬답시고 말끝마다 양부모행세를 하면서 아이를 그렇게 모질게 닥달한다는겁니다. 그런데 실상 알고보니 그

애 부모들도 그놈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살이를 하다가 죽었다는군요. 그러니 그애는 제 원쑤를 위해 그렇게 매를 맞으며 죽자살자 일하고있는 셈이 아닙니까?》

《어허— 그것 참 기가 막히는군. 내가 그저 그런 애가 있겠거니 했지 그와 같은 사정은 몰랐네그려. 내가 눈이 멀었군. 한동네에 그러한 불의가 있는줄도 모르고 살았으니… 참으로 천도가 무심하이. 그것들을 벼락을 치지 않는단말인가?》

박병섭은 새끼꼬던 손을 멈추고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하더니 한참후 말을 이었다.

《가긍할세. 부모된 사람들도 불쌍하거니와 남아있는 어린것도 불쌍해. 땅은 넓고 사람들도 많건만 그런 불쌍한 인생을 건져줄 귀인이 없단말인가?》

로인은 그 귀인을 찾듯 오래오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유철은 한참 말없이 새끼를 비볐다. 그러다가 다시 조용히 입을 벌렸다.

《그애를 어떻게 하면 건져주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의 가슴에는 원한이 맺혀있습니다. 전 살림이 어려워 팔도강산을 두루 빌어먹으며 다녔습니다만 세상에 그런 불쌍한 아이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애보다 더 불쌍한 아이들도 헤일수 없이 많지요.》

《그럴테지, 나도 짐작은 하네. 우선 우리 동네 저 강필재네 딸자식만 해도 좀 가긍한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이것이 모두 나라를 왜놈들에게 빼앗겼기때문에 빚어진 참상입니다.》

《음— 임자 말이 천만 옳은 말이네. 그래, 이야기를 좀 해보게. 어떻게 하면 그런 불쌍한 중생들을 건지겠는지. …》

박병섭은 저으기 흥분되여 꼬던 새끼끝을 비벼 맺고는 올방자를 고쳐틀며 담배대를 꺼냈다.

유철은 얼른 괴춤에서 성냥갑을 꺼내여 로인의 대통에 불을 붙여주고 다시 새끼를 비볐다.

《우리가 만일 나라를 왜놈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고향땅에서 산다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첫째 원쑤는 왜놈입니다.》

《그렇지, 임자가 언론이 분명해. 내 일전에도 임자 말을 듣고 생

각하는바가 많았네. 사람을 구하는데는 나라를 구하는것을 첫째로 삼아야 한다는것인데 옛날에는 거꾸로 말했었지. 수신제가후에 치국평천하라고 제몸과 제집안을 다스린후에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했거던.》

《옳습니다.》 유철은 로인의 말을 선뜻 받으며 이었다.

《제몸과 제집안을 옳게 꾸리는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나라가 망했는데 제몸이나 제집안을 꾸린다는것이 나라를 찾는 길이외에 따로 있다면 그것은 매국이요, 반역이지요.》

《참으로 고명한 말일세. 망국노의 주제에 제 한몸이 편하다는것은 곧 매국이요, 제 몸이 귀하기를 바란다는것은 반역이야. 그런즉 이 마당에 제몸과 제집안을 다스리는것도 나라를 찾는것을 그 근본으로 삼아야 옳네. 임자 말이 내 생각과 꼭같네.》

《저야 뭘 압니까? 무식한 소견에도 너무나 원통하고 분해서 여쭙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다 나라를 찾자면 왜놈들만 쳐서는 안될줄로 압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

《우선 첫째가 왜놈들을 쳐야 하지만 그와 함께 나라를 팔아먹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호의호식하는 을사5적의 무리와 같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도 처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그렇고말고. 그 역적놈들을 간을 내여 씹어도 오히려 분이 남겠는데 그것들을 살려둘수야 없지.》

《생각해보면 땅을 칠 일이지요.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반만년력사가 꽃피던 나라인데 우리 겨레가 오손도손 의좋게 서로 뼈마디를 놀려 일해서 먹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재미있게 잘 살겠습니까? 한데 탐욕스런 무리들이 제혼자 잘 살기를 원해서 나라와 민생을 돌보지 않고 마침내는 나라를 왜놈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하였으니 어떻게 참을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이렇게 매국하고 민족반역을 하는 무리들이란 다 잘 살고 권세있는 량반특권계급의 인간들입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정희겸이도 그런 무리들가운데 하나입니다.》

박병섭은 뻑뻑 담배연기를 날리며 유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아직 초가을이지만 북국의 밤바람은 찼다. 로인의 상투끝에 꽂힌 동곳에 이슬이 내려 반짝거렸다.

《어험》 로인은 유철의 목소리가 점점 열기를 띠자 그에 끌려 자연 얼굴에 강개한 빛이 어리더니 마침내는 침통한 빛을 띠우며 큰 기침을 한번 하고 울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큰 방축도 개미굴로 무너진다고 쥐새끼같은 무리들이 마침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통분한 일일세. 땅을 치고 피눈물을 토한들 이 한이 풀리겠나.…》

《선다님, 그렇지만 땅을 치고 한탄만 해서는 안될줄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원쑤를 치고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나라를 찾아야 한다고 말들은 저마다 하지만 한번 기울어진 나라를 다시 바로세우는 일이 임의로 되나? 국운을 회복하자고 나선 뜻있는 사람들도 많았건만…》

로인은 말을 맺지 못하고 다시 하늘을 우러러 긴 한숨을 내쉬였다.

《참으로 애국자들은 많았지요. 안중근 같은 렬사도 있었고 홍범도 같은 명장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분네들이 흘린 피는 헛되이 땅을 적셨을뿐 이렇다할 보람이 없었습니다. 그후에도 열혈청년들이 나라를 찾겠다고 일어나 싸웠지만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철창에서 청춘이 시들기도 하였습니다. 선다님! 분한 일입니다.》

유철도 새끼 꼬던 손을 멈추고 자기 곁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동지들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였다.

《억울하네. 통분하네. 내가 불혹(不惑—마흔살을 말함)에 화승대를 메고 나서서 10여년이나 산을 돌아다녔건만 머리칼만 허옇게 세고 한만 가슴에 남았네. 그사이 내 눈으로 무엇인들 못봤겠나! 의로운 목숨들이 초개같이 바쳐졌네. 하건만 저 하늘은 변함이 없네그려. 파부원한에도 오뉴월에 서리를 내린다는데 나라를 생각하는 장부의 사무친 마음이 그만 못하단말인가? 하늘에 도리가 있다는것은 못믿을 소리야. 참으로 하늘에 도리가 있다는것은 못믿을 소리야!》

박병섭로인의 목소리는 떨리였다.

무섭기가 호랑이같다던 대찬 로인인만큼 가슴에 맺힌 원한을 내뿜는 이런 때는 그 번뇌와 고통이 듣는 사람의 뼈마디가 저릴만큼 가슴을 허비는것이였다.

한동안 침묵이 계속되였다. 이슬이 소리없이 내려 가뜩이나 쌀쌀한 밤공기를 축축하게 적셔놓았다. 그러나 두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입에서 단김만 내뿜고있었다.

《선다님!》 이윽고 유철은 입을 벌렸다.

《우리 애국자들의 피가 그렇게 헛되이 흘려진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물이 없네. 기울어지는 나라를 버틸만한 큰 재목이 없네. 백만대군도 장수가 없고보면 한날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는것인데 하물며 한번 원쑤에게 빼앗긴 나라를 광복하는 이 어려운 일에 천하를 호령할 큰 인물이 없고야 어찌 대사를 이루겠나. 우리 조선에 인물이 없네그려.》

로인은 다시 개탄조로 이렇게 말하며 그 인물을 찾아낼듯 뭇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유철은 로인의 말에서 가슴이 울렁거리는것을 느끼며 사위를 둘러보고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선다님, 혹시 저 **김일성**장군님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김일성**장군!》 로인은 고개를 홱 돌려 똑바로 유철을 바라보더니 무겁게 말했다.

《내 이야기를 들었네. 저 북간도에서 유격대를 무어가지고 왜적을 치신다는 장군님 아니신가? 헌데 대체 그분이 뉘신가?》

《혹시 선다님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을 기억하시는지요?》

《알다마다. 내가 김형직선생님을 직접 뵈옵고 그 지도를 받은것만해도 두차례나 되는데 내가 어찌 김형직선생님을 모르겠나! 그분이 오래 살아계셔야 우리 나라도 바로 설건데 그런분에게는 하늘이 수를 아끼고 나같은 용렬한 인간에게는 이렇게 명줄을 늘여놨으니 참으로 하늘이 하는 일은 모를 일이야. 그분께서 일찌기 평양 만경대에서 큰 뜻을 품으시고 국운회복을 위한 싸움의 길에 나서시여 강동에서는 〈조선국민회〉를 무으시고 널리 사람들을 가르치시여 장차 나라 찾을 힘을 양하시더니 중강에 오셔서는 해외에 널려있는 독립운동자들과 내지의 운동을 한줄로 꿰여 이끌어주셨지. 그분의 댁은 모든 독립운동자들의 발판이요, 보금자리였지.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도 그분의 지도를 받게 됐던걸세. 부인되시는 강씨께서 또한 현숙하시고 강인총명하시여 김형직선생님의 일을 음으로 양으로 도우시더니 선생께서 만 32세의 아까운 나이로 서거하시자 그 뒤를 이으시여 몸소 조국광복을 위한 사업에 나서시였다고들 하더군. 그 집안이 모두 그렇게 훌륭한 애국적인 집안이지. 참 김형직선생 같은분께서 오래 살아계시여 백성들을 이끄신다면 우리 일이 이렇게 암담하지 않을것인데 그 악독한놈들이 선생을 그만 그 한창나이에 돌아가시게 악행을 가했네그려.》

《선다님.》 유철은 병섭결으로 바싹 무릎을 끌고 나지막한 목소

리로 그러나 힘을 주어 말하였다.

《우리 조선을 구원할분이 나서시였습니다.》

《그래！》

로인은 눈을 크게 뜨고 유철을 똑바로 보았다.

《지금 동만에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을 높이 지펴올리시고 몸소 그 앞장에서 일제를 치고계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조선사람들이 나라를 광복할 길을 똑똑히 밝혀주셨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의 이야기는 나도 들었거니와 그분을 임자도 잘 아는가？》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우리 모든 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도하고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대로만 한다면 능히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를 찾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싸움에 일어섰습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유철은 잠시 동안을 두고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던것을 머리속에 새겨보고나서 말했다.

《우리 조선인민들이 일제를 치고 조국을 광복하는데는 왜놈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장투쟁을？》

《그렇습니다. 왜놈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을 하고 조선사람들의 사소한 자유와 권리마저 다 짓밟은 이때 진정이나 하고 시위나 하는 방법으로는 독립을 찾을수 없고 오직 직접 손에 무장을 들고 왜놈들을 침으로써만 독립을 할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되 이 무장투쟁은 과거 독립군들이 하던것처럼 총이나 몇자루 차고 의연금이나 모집하러 다니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해 령도되는 상비적인 유격대를 가지고 유격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 유격전쟁을 말이지？ 그래서 지금 동만에 유격대가 조직됐군.…》

《그렇습니다. 선다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암담하던 우리 민족의 앞길을 이렇게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이의 가르침을 받들고 한마음 한뜻이 되여 싸우면 조국을 능히 찾을수가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면 되고말고… 과거엔 그런 로선도 없었지만 우선 그런 로선을 내놓을만한 인물이 없었지. 듣고보니 과시 위대한분이시군. 우리같이 과거에 총을 들고 돌아다니던 사람들도 이젠 세궁력

진해서 총칼을 다 꺾고 나가앉고 모든 사람들이 그저 숨 죽이고 한숨만 짓고있는 이러한 때 그와 같은 로선을 내놓으셨으니 참으로 놀랍고 반가운 일이네. 대체 그분께서 어떤분이신가? 어디서 오신분이신가?》

《바로 김형직선생님의 자제분이십니다.》

《뭐, 김형직선생님의?》

병섭은 깜짝 놀라 몸을 솟구더니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남쪽으로 돌렸다.

《김형직선생께서 그처럼 나라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절절하고 뜻이 높으시더니 그분의 그 고결한 인품과 높은 뜻이 헛되지 않았군. 어—하늘이 무심치 않다는 말을 이제야 믿겠군. 이는 우리 나라를 하늘이 버리지 않은것일세.》

《선다님, 이제는 우리 앞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김일성**장군님두리에 뭉쳐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지, 싸워야 하고말고… 그런 이야기를 왜 진작 하지 않고 이제사 하나? 싸워야지. 내 비록 몸은 늙었지만 나라 찾는 큰일에 백발이 두렵겠나?》

밤은 깊어갔다. 로인은 흥분하여 남쪽을 향해 거듭 나라를 건져줄 위대한 지도자가 나서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김형직선생의 일을 회고하였다. 그리고 독립군들처럼 해서는 나라를 찾을수 없다는 그분의 말씀이 백번도 더 옳다고 허심하게 자기 생활도 뉘우치는것이였다.

유철은 오늘밤은 이만하고 일단 이야기를 끊자고 하였다. 로인으로 하여금 더 좀 깊이 생각할 말미를 주고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조직에 망라시킬 이야기를 꺼내자고 하였다. 야학이 파할 시간도 가까와진듯하였다. 그래 일어서려는데 로인이 딱 붙잡고 놓지 않았다.

《헌데 내 임자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네.》

《무슨 말씀인지요?》

유철은 흩어진 짚단을 주섬주섬 걷어모으며 침착하게 되물었다.

《내 일전에도 은근히 물어보자고 했었네만 내가 임자를 보통사람이 아니라고 지목해온지는 오랠세. 헌데 오늘밤 이야기를 듣고보니 임자가 김형직선생님의 자제분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라는것이 분명한데 내 짐작이 옳은가?》

《허허허, 그것은 좋도록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찾고싶은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로 되여야 합니다.》

《옳은 말일세. 헌데 내가 하나 모를건 임자가 공산주의자라는 풍문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 실은 내 자식놈이 미거한것이 그래도 세상일을 보겠다고 나서는것을 내 말리지도 못하고 둬두었는데 듣자니 그 아이의 말이 전수이 공산주의자들의 말이라 그래 내 필시 저애와 같이 다니는 임자도 공산주의자겠거니 하고 짐작했었는데 이제 보니 그대는 **김일성**장군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유철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였다. 로인의 준비정도로 보아 지금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한다면 펄쩍 뛸는지 모른다. 그러면 오늘 저녁 모처럼 로인과 상당한 정도로 가까와진 이 관계를 허물어뜨릴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아직 립장이 명확하지 못한 로인앞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것이 앞으로의 공작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유철은 자기를 주의깊이 바라보고있는 로인의 곧바른 시선을 마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로인을 참된 싸움의 길에 들여세운다는것은 곧 그가 협소한 민족주의울타리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혁명리론에 의해 령도되는 투쟁에 함께 어울린다는것을 의미한다. 그가 속으로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반감을 품고있는채 그들이 령도하는 투쟁대오에 들여세운다는것이 사실로 이 대오를 확대강화하는것으로 될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민들을 그처럼 믿고 그 힘에 의거해서 조선혁명의 위업을 이룩하시자는 **김일성**동지의 뜻이겠는가?

그럴수는 없다. 어떠한 길을 밟아서든지 박병섭로인은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를 리해해야만 하며 그럼으로써만 진정한 애국자로 될수 있다는 이 시대의 준엄한 진리를 리해해야 한다.

《선다님, 저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뭐?》

유철의 무겁고 엄숙한 말을 듣자 병섭은 펄쩍 뛰였다.

《아니, 임자같은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니? 그럼 풍문이 틀리지 않았단말이지? 어, 이게 무슨 소린가? 임자같은 사람도 공산주의자라니… 그럼 저 그분께서도?》

《그렇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우리 조선민족의 령도자이실뿐만아니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령도자이십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께서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계시는줄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선다님께서도 보시는바와 같이 과거에 나라를 찾겠다고 나선 여러계층 사람들이 지금은 다 뜻을 꺾고 주저앉거나 혹은 더러운 시정배

로 전락되고 지어는 원쑤의 개노릇까지 하는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전히 조선독립의 기발을 높이 들고 왜놈들과 맞서 싸우고있는것은 공산주의자들뿐입니다. 일제의 탄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조선독립이라는 말만 해도 감옥과 단두대가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팔도와 남북만주 넓은 땅을 자기 피로 적시면서 나라를 찾기 위하여 백절불굴의 기상으로 싸우고있습니다.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을 리해하지 못하시고는 나라를 사랑한다는것은 빈말뿐입니다.》

《어험어험！》

로인은 표정이 긴장되여 유철의 얼굴을 날카롭게 쏘아보고있었다.

《나도 공산주의를 아네. 내 큰개에서만도 공산주의자라는 사람들을 수다히 보아왔고 내 집안에도 그 물이 든 아이들이 있네. 헌데 임자같은 사람까지 공산주의자라니 나로서는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

《선다님, 우리 공산주의운동에도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찾자는 독립운동 전반이 **김일성**장군님께서 길을 밝히시기전까지는 어둠속에 막대질하는것처럼 갈팡질팡했다면 공산주의운동 역시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기전까지는 옳은 로선과 전략전술을 못가지고 또 옳은 목표도 못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수 있는 언행을 할수도 있었을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러한 일이 있을수 없습니다. 설혹 개별적인 사람들이 준비정도가 부족하고 수양이 어려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그것으로 공산주의전반을 나쁘게 생각하고 공산주의자들과 담을 쌓는다면 이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라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에 그런가？》

여태까지 공산주의를 좋지 않게만 생각해오던 박병섭은 로골적으로 얼굴에 당황한 빛을 띠고 물었다.

《조선은 오직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만 구원될것이기때문입니다.》

《음—》

로인은 충격이 심한듯 눈을 크게 부릅뜨더니 다음순간 고개를 떨구고 생각에 잠겼다. 더는 입을 벌리지 않았다. 유철은 너무 로인의 마음을 격동시켜놓은것 같아 여러가지 말로 로인을 달랬으나 로인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혼자소리처럼 낮게 중얼

거렸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공산주의자이시라… 김형직선생의 자제분께서 공산주의자이시라…》

로인은 신음소리처럼 중얼거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유철의 얼굴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이 사람, 나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줄 모르네. 사실을 말해서 나는 공산주의라는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다만 나는 김형직선생님을 아네. 나라와 겨레를 생각하시던 그분의 뜨거운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송구하네. 내 **김일성**장군님께서 그분의 자제분이시라는 점을 믿네.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내가 더 생각해보겠네. 일후에 나를 다시한번 찾아주게. 꼭 나를 버리지 말고 한번 찾아주게.》

심한 충격을 받고 후들거리는 로인의 가슴이 진정되고 생각이 수습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리라는것은 유철이도 미리 타산한터이였다. 그래 눈치를 보아 작별인사를 하였으나 로인은 생각에 잠긴채 건성으로 대답할뿐 고개도 들지 않았다.

18

여러 매듭으로 꾀였던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듯하더니 별안간에 새로운 파국에로 줄달음쳐갔다.

일은 뜻밖에도 조령감때문에 벌어졌다.

그날 조령감은 여느 머슴들보다 한발 늦어 집으로 돌아왔었다.

겨우내 먹여야 할 말먹이를 마련해둬야 하는것이다. 일에 극성스러운 그는 언제나 남먼저 들에 나갔고 남보다 늦도록 풀을 베였다. 그러나 이 며칠사이는 남만큼 일자리를 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들에서 오래 꾸물거렸다.

그는 사람들을 대하기가 무서웠다.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무서워지는가?

광야에는 황토먼지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가을한 벌판에 무덤처럼 시꺼먼 강냉이짚낟가리와 수수그루가 서있다.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었다. 해마다 달마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일하지만 일은 날마다 달마다 새롭게

생겨났다. 그저 모든것을 잊어버리고 일만 하고 살아도 못다할 그 숱한 일들을 두고 어찌하여 사람들은 피차 괴롭기만 한 일들을 새라새롭게 만들어내는것일가?

조령감은 언젠가는 또 자기 손으로 실어들여야 할 산더미같은 강냉이짚단낟가리에 파묻혀 철없는 소년처럼 애수에 잠겨 생각을 더듬었었다.

무엇때문에 아끼시마는 자주 나타나는가? 그가 나타날 때마다 조령감은 괴로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때문에 자기를 야학에 보내여 사람들의 뒤를 캐게 하는가?

조령감은 동네사람들을 샅샅이 다 알고있다. 그들이 가끔 술을 과하게 마시고 내외싸움을 하고 이웃간에도 말썽이 없지 않지만 다 좋은 사람들이다. 다만 요즘에 와서 인심도 변하는지 공연한 야학을 차려가지고는 없어도 될 시비거리를 여러모로 빚어내였다. 모를 일이였다. 정희겸이 같은 부자도 제 자식 공부시킬 궁리를 안하는데 세끼 죽술도 변변히 들지 못하는 농사군들이 공부는 해서 무엇을 하자고 그 놀음을 시작했단말인가? 하기는 이야기책을 읽는것은 재미있다. 연설을 듣는것도 퍽 구미가 동한다. 하루종일 일을 하고 저녁이면 야학방에 가서 그런 세상이야기를 듣는것이 훨씬 사람답게 사는 길일는지 모른다. 그런데 정희겸이나 아끼시마는 거기에 가서도 마음놓고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렴탐군노릇을 하라는것이다. 칠성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령감은 의리있고 속이 넓은 젊은이로 생각하고있다. 지금 동네에서 본다 해도 크건작건 그 사람의 도움이나 훈수를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 사실 마부노릇이나 하기에는 아까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무엇때문에 잡자고 드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였다.

저녁바람이 일어 누런 황토먼지가 흐릿한 하늘을 덮으며 몰려왔다. 숲은 울부짖고 물결소리는 높았다. 조령감은 전신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누운채 그 어수선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세월과 같은 하늘이였다. 거리에 방이 나붙고 통문이 돌아가고— 이런것은 다 란시에 있는 일이라고 들어왔다. 왜놈이나 경관놈이 여기저기서 죽는다. 모두 총멘 인간들이 쥐도새도모르게 숲에서, 개울창에서, 강가에서 누구에 의해선지 죽는다. 그런자들이 죽는데는 반드시 곡절이 있을것이다. 보위단의 장가도 백리허숲속에서 죽었는데 그놈은 어찌나 못되게 굴었던지 같은 보위단원들속에서조차 인심을 잃었었다. 그놈은 자기에게도 담배값을 꿔달라는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상욕까지 퍼부었었다.

하지만 사람이 죽는것을 본다는것은 기분좋은 일이 아니다. 사흘전이였다. 조령감은 정희겸이 노무라 다이사꾸에게 보내는 퇴물말파리를 끌고 현성에 들어갔다 오는길에 나무 한바리를 실어오려고 숲으로 들어갔었다. 나무단을 가려놓은 자작나무숲속을 한참 들어가는데 길가에 수건 하나가 떨어져있었다. 주어보니 때가 괴죄죄한 한자짜리 토목수건인데 흔히 처서판일군들이 쓰는것이였다. 그 어방을 살펴보니 어수선하게 풀대며 락엽무지가 짓밟혀져있었다. 누가 술에 취해 비칠거리다가 떨군것이려니 생각하고 무심히 목에 감았다. 거기서 나무가리까지는 도무지 100보도 되나마나하였다. 조령감은 앞서서 노새고삐를 끌고 나무가리까지 갔다. 그가 막 노새고삐를 길옆의 나무그루에 매려고 할 때 난데없이 야릇한 비명소리같은것이 들려왔다. 부채소어방에서 난것 같았다. 섬찍해서 귀를 강구었으나 그 소리는 한번 나고는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 숲속에는 밤이 일찍 시작된다. 나무밑둥들이 벌써 어둠에 휘감겨있었다. 까마귀떼들이 숲우를 떠돌았다. 낮에도 으슥한 숲속이다. 해가 저무는 때의 숲이 빚어내는 을씨년스러운 적막감속에서, 더구나 물귀신이 해마다 나타난다는 부채소어방에서 사람의 비명소리를 듣는다는것은 기분좋은 일이 못된다. 조령감은 손이 얼어붙어 엉거주춤 서버렸다. 역어빠진 노새새끼도 무슨 기미를 챘는지 귀를 쫑긋하더니 뒤걸음을 쳤다. 눈을 커다랗게 해가지고 앞뒤를 연방 살피며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는 류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노을을 등지고 숲으로 돌아오는 까마귀떼가 까욱까욱 울뿐이였다. 그러나 조령감은 일에 손을 댈 생각이 싹 없어지고말았다. 사실 나무를 꼭 싣고 가야만 할 의무도 없었다. 불쏘시개감이 떨어져서 쌍가매가 애를 먹는것이 보기에 딱해 마른 삭정이 한바리를 실어다주자고 지나가는길에 들린데 불과하였다.

조령감은 돌아가자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웬 일인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가는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뒤로 가는것조차 마음이 솔갔다. 움직이는것, 소리를 내는것이 무서웠다.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조령감은 와들와들 떨었다. 아까 들은 비명이 착각이 아니라는것이 틀림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윽고 조심스레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 발걸음소리도 말소리도 모두 조심조심한다는것이 직감적으로 알렸다. 그럴수록 조령감은 가슴이 얼어들었다. 그러나 몸을 피하자고 해도 못질을 당한듯 움직여지지를 않았다.

무엇으로 내리누르는것모양 입속에서만 웅얼거리던 말소리는 뚝 끊어지고 조심조심 걷는 발소리가 가까와지더니 이번에는 점점 멀어져 갔다. 그들은 달구지길로 오는듯하였으나 저쪽 어둠속을 얼핏 스쳐 지나는것을 보니 그들도 사람을 피하기 위해선지 따로따로 떨어져서 제마끔 숲속을 꿰질러갔다. 세사람이였다. 두사람은 어슴푸레 형체만 보이는데 그중 한사람은 키가 껑두룩한게 방아간집 김치복이 같다. 그리고 그중 자기 앞에서 가까이 가던 사람은 그역시 어둠속이라 똑똑치 않았으나 왜 그런지 그 침착한 걸음걸이가 칠성이 같이만 생각되였다. 딱히 칠성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었다. 틀림없이 칠성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그 숲속에서 그렇게 다리가 얼어붙도록 무서웠는데 왜 소리쳐 그 사람을 부르지 못했겠는가? 조령감은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도 그날 거기서 본것은 칠성이였다는 생각이 무엇때문인지 사라지지 않았다.

이튿날 바로 그 부채소에서 시체가 나타났다. 황아장사차림을 한 궁상스레 생긴 중년사나이였다. 그 가슴에는 《인민들을 탄압학살하는 일제의 주구에게 인민의 이름으로 죽음을 준다!》라고 쓴 글발이 붙어있었다.

들으니 현성에 있는 경찰서 형사라고 하였다.

조령감은 그날 공연히 나무를 실으러 갔다고 신수를 한탄하였다. 그나마 그런 상스럽지 못한 느낌을 받았으면 그냥 돌아왔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발소리도 말소리도 사라지고 인적이 없어지자 그는 또 여기까지 왔다가 공품을 놓고 그냥 돌아간다는것이 스스로도 변변찮게 생각되여 강심을 먹고 삭정이를 한바리 잔뜩 처싣고 왔던것이다. 나무단을 실으면서도 내내 비명소리가 들려오던 늪가로 조심이 쏠렸었다. 무서운중에도 한번 그리로 가보고싶은 충동까지 일어났었다. 그러나 종내 가보지는 못했다.

조령감은 이틀째 그 일때문에 꿈을 꾸었다. 깨여있을 때도 왜 그런지 가슴이 불안하였다. 요즘 남새를 현성으로 실어내는 일이 밀려 칠성이가 며칠째 정희겸이네 집에 드나들었다. 조령감은 그를 유심히 살폈다. 그러나 언제 봐야 서글서글하고 우스개도 잘하고 남의 일을 거들어나서기를 좋아하는 그 생김생김에 조금도 색다른 점이라고는 찾아낼수 없었다. 그런 칠성이를 하필 그때 그곳에서 만났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까닭도 없이 그것은 칠성이였다고만 생각되는것이였다.

이튿날 시체가 발견되였다는 소문을 듣고 조령감은 얼굴이 시꺼멓게 질렸다. 필시 자기에게 무슨 화가 미칠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이제는

더구나 사람 대하기가 싫어졌다. 칠성이 보기도 조심스러웠지만 정희겸이 내외나 곰보단장이 자기에게 무엇을 캐물을가보아 은근히 마음이 켕겼다. 될수록 집에서는 일찌기 나가고 저녁에는 늦게 돌아왔다.

오늘저녁도 맨 늦게 벌써 짧아지기 시작한 해가 숲변두리로 꼴깍 넘어간 다음에 꼴지게를 지고 돌아오니 아니나다를가 다른 머슴들은 이미 저녁상을 다 물린 뒤였고 호배추를 싣고 왜놈들 병영에 갔다왔다는 칠성이 혼자 멍석우에 앉아 반나마 비운 밥그릇을 앞에 놓고있었다. 시장기도 모르고있었는데 정작 밥그릇을 대하니 배가 쓰리다는 것이 알렸다. 불면 날아날것 같은 호좁쌀밥을 되는대로 퍼먹었다. 마음이 황황하여 밥은 밥대로 떠넣고 멀건 된장국은 국대로 마셨다. 오늘은 일진이 좋지 못하다. 풀을 베다가 벌판에 흔치도 않은 돌을 찍어 낫날이 한치나 달아났다. 개구리를 삼킨 뱀 한마리가 발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제발 이날이 무사히 지나가주었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무엇때문엔지 고향산천들의 한많은 정경이 어지러운 륙모소반우에 그려졌다.

안마당이 떠들썩해졌다. 정희겸의 곱지 못한 왜가리청이 들려왔다. 조령감은 될수 있는대로 아무 소리도 듣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짓수굿이 고개를 숙이고 국사발을 들어 훌쩍훌쩍 마시였다.

그러나 쌍가매가 구을듯이 달려나왔을 때 그는 이미 단념한것처럼 밥술을 놓고 운명을 맞이하듯 쌍가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아바이, 얼른 들어오래요.》

《왜 그러나?》

《지금 창도가 앓는대요. 당장 들어오래요.》

《뭐? 거 큰일났군.》 조령감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매우 태연한 태도로 조용히 일어났다. 《그럼 어서 들어가보자. 이 상은 치우지 말아라.》

조령감이 짚신을 질질 끌며 안으로 들어가자 유철은 쌍가매를 눈짓으로 불렀다. 빈 밥상 하나를 들고 급히 들어가려던 쌍가매는 유철의 부르는 눈치를 채자 가볍게 웃으며 그의 곁으로 와서 《왜 그래요?》하고 물었다.

《난 오늘저녁에도 야학에 나갈수 없어. 박두현동무에게 그렇게 말하고 오늘 하자던 회의는 래일 숲에서 하도록 말하오.》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이놈들 눈치가 수상하오. 특무놈 처단할 때 인적기가 났다더니 도무지 심상치 않어.》

《알겠어요.》

이때 《쌍가매야—》하고 화월의 앙칼진 목소리가 쨍 울려왔다.

《네— 들어가요.》

쌍가매는 헤덤비며 상우에 포갠 빈 그릇들이 요동을 하도록 달음박질을 쳤다.

쌍가매와 엇바뀌여 조령감이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밥상앞에 가앉으려던 유철은 다시 엉거주춤해서 그의 거동을 바라보았다.

《웬 일이요?》

《이제 현성에 들어가야겠네. 창도가 다 죽어간다는군. 의사를 불러와야겠어.》

그는 말할사이도 없다는듯 사랑채에 잇달린 창고에서 정희겸이 타고다니는 마차를 끌어내왔다.

《아니 낮에 멀쩡한걸 봤는데 어떻게 됐기에 이 야단이요?》

유철은 밥상에 앉으려다 말고 마차께로 다가가며 물었다.

《뭐 골이 좀 뜨겁다는군. 어느놈을 메울가? 빨리 가야 할텐데…》

《빠르기야 가라말이 좋지요. 그런데 밤중에 70리나 되는 성에 들어가서 의사를 어떻게 불러온단말이요? 성에 들여놓기나 하겠소?》

《사정을 해봐야지. 그럼 가라말을 메울가? 그놈은 성질이 사나와서 다루기가 싫더라…》

《령감은 저녁이나 마저 드시유. 내가 메워드릴테니.》

《아니,저녁 먹을새가 있나. 주사나으리가 지금 펄펄 뛰는데…》

《주사나으리가 아니라 천자나으리라도 그렇지. 종일 일하고 들어온 사람을 저녁도 안먹이고 왕복 140리길을 띄우는 법이야 있소? 어서 드시오. 정 뭣하면 내라도 갔다올테니…》

《그럼 자네가 좀 메워주겠나? 아닌게아니라 시장해서…》

조령감은 미안해하면서도 무엇에 들렌 사람처럼 허둥거리며 밥상께로 다가갔다.

《어서 드시오. 그렇게 급해할게 뭐요? 령감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히 고맙다고 생각할줄 아시오?》

칠성이가 외양간에서 처음 그가 이 동네로 올 때 인연이 붙은 새까만 가라말을 풀어가지고 나오는데 정희겸이의 벼락치듯하는 호령

소리가 울렸다.

《아니 여태 여기서 꾸물거리고있는가? 자네가 내 자식 죽일 차비로군그래 응!》

《지금 마차를 메우는중이올시다. 곧 떠납지요.》

조령감은 목에 걸린 밥을 억지로 삼키고나서 겨우 이렇게 대답하고는 얼른 물대접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키며 한편으로는 신을 신었다.

《자네가 나살이나 건사한 사람이 그 모양이니 집안것들이 모두 밥만 죽이고 일은 안하려든단말이야. 냉큼 떠나지 못할가?!》

유철이가 지나치면서 보니 아직 밥그릇을 절반도 비우지 못했다.

이때 마침 삼덕이가 책을 옆에 끼고 나타났다. 유철이가 슬쩍 곁눈질을 하니 그도 인차 눈치를 알아채고 썩 앞으로 나서서 유철이 쥐고있는 말고삐를 받아쥐였다.

《아바이,저녁이야 마저 먹고 떠나야지 왕복 140리길이나 되는데 그냥 떠나서야 되겠소? 가뜩이나 오늘 일이 좀 곤했다고…》

삼덕이가 정희겸이 들으라고 일부러 퉁명스레 말하니 정희겸이보다 조령감이 더 흠칠해서 밀막았다.

《일없네,일없어. 어서 말고삐를 이리 주게.》

《아바이는 이 말을 다루지 못해요. 내가 메워드릴테니 념려말고 저녁이나 마저 드시오.》

정희겸이가 뒤짐을 딱 짚고 허리를 착 꾸부리더니 찢어지는듯한 악청으로 웨쳤다.

《네 이놈,뭣이 어찌구 어째!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한두끼 굶는것이 하상 뭣이 그리 대단해서 네놈이 발칙한 수작을 하는거냐! 응,당장 때려죽일놈!》

삼덕은 말고삐를 쥐고 한참 서서 마주 바라보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을 좀 조심해 하시오. 내가 이 집 아니면 살데가 없는줄 아시오?》

《뭐 뭐 뭣이 어째? 이놈,네가 나를 감히 위협하는 모양이냐!》

정희겸은 뒤짐졌던 손을 들어 삿대질을 하며 다가들었다.

《그렇게 상스럽게 굴다간 상스러운 대접을 받기가 쉽단말이요. 그래 경우를 따져봅시다. 조령감이 당신 나이나 비슷한데 이놈 저놈해가면서 하루종일 조밥 한덩이를 먹고 일하다 온 사람을 저녁도 안먹이고 밤길을 내모는것이 옳단말이요?》

《아니, 이런 무지한놈이 어디 있나? 에끼, 이 죽일놈!》

정희겸은 손에 잡히는대로 멍석우에 널려있는 밥그릇 하나를 집어들어 냅다 던졌다. 삼덕이 얼른 몸을 피하자 그릇은 마당 한귀에 가 떨어지면서 짱 하고 박산이 나버렸다. 더욱 약이 오른 정희겸은 그릇이 놓인채로 있는 소반 하나를 번쩍 집어들었다. 와르르 그릇들이 무너져내렸다.

정희겸이 이렇게 미친놈처럼 날뛰는데는 그로서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정희겸은 현성에서 노무라와 아끼시마를 만나고 온 이후로 긴긴해를 보료우에 기대여앉아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였다. 대체 어떤놈이 빨갱이주동분자일것인가? 곰보와 상의도 해보고 베개머리에서 화월이의 이야기도 들었다. 조령감을 불러 은근히 야학이야기를 캐기도 하였고 동네의 어수룩해보이는 젊은이와 농사군들을 불러들여 술을 먹이며 떠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렇다하게 손에 잡히는 줄은 없었다. 그러는가운데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다. 이 동네에 공산당의 조직이 있는것만은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였다. 그것은 정희겸이 자신의 생각에도 그럴듯이 생각되였다. 공산당들속에 자기가 앉아있다는것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은밀히 삐라도 내다붙이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처단하고 지어는 폭동까지 꾸미고있다는데 자기는 그들을 하나도 모른다는것이 가슴이 터질 지경으로 안타까왔다. 되는대로 불량스럽다고 생각되는 얼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다. 그때마다 매번 화월이나 윤철목의 입에 오르는것은 칠성이였다. 조령감의 말을 들어봐도 동네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것이 그놈이라고 한다. 제 입으로는 무식한체하던것이 이야기책을 줄줄 내리읽는다는것, 이밖에도 수상하다고 보면 수상한 일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아끼시마도 그런 의견이였다. 다만 그를 잡아가두는데는 더 좀 확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것이였다. 그까짓 마부 한놈쯤 그래서 잘못됐다는데는 무슨 큰일이 있을것인가마는 아끼시마는 그러다가 혹 틀리면 진짜를 놓쳐버린다는것이였다. 처음에는 정희겸이도 그의 말을 그럴상하게 들었다. 그러나 폭동이 촉박했다는 이 마당에는 그런것이 다 배부른 흥정이라고 생각되였다.

그런데 오늘저녁때 뜻밖에도 윤철목이가 희한한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저께 황아장사로 변장한 형사가 암살된 그맘때 순찰을 돌던 보위단원이 홀애비령감네 술집에서 술을 퍼먹고 나오다가 숲에서 나오는 삼덕이와 큰개 강성재의 처남벌되는 지성덕이를 보았다는것이였다. 그는 사건이 있은 그날 번을 잘 돌지 않고 술먹은것때문에 욕을

먹을가봐 아무 말도 못하고있던중 사건이 하도 신기해서 저희 동료끼리 삼덕이와 지성덕이가 수상하다는 말을 무심결에 비쳤는데 그것이 윤철목의 귀에 들어온것이였다. 정희겸은 속으로 짝자꿍을 쳤다. 두놈이 다 신통히도 야학에 극성스레 다니는놈들이요 칠성이란놈과도 그중 잘 섭쓸려다니는것들이다. 그놈들이 형사를 죽였다는것은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서 빨리 아끼시마에게 알려 그놈들을 잡아치우면 이젠 다리를 쭉 펴고 잠들수 있을것이다. 알리고말고 할것도 없이 보위단에서 그놈들을 잡아가두면 어떻겠느냐고 하니 윤철목이는 그래도 보위단장이랍시고 일을 그렇게 꾸며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아직 뒤에 무엇이 붙어있는지 모르니 현에 몰래 알리여 아끼시마상이 와서 처리하게 해야 한다는것이였다. 딴은 그럼직하다고 생각되였으나 한시 급히 알려야겠는데 날이 어두워오는 지금 당장 현성으로 사람을 띄운다는것이 난감하였다. 밤중에 보위단이나 자기가 현으로 올라간다면 그놈들이 눈치를 채고 도망칠것이 틀림없다. 화월이까지 껴들어 셋이 한참이나 코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화월이가 그럴듯한 계교를 꾸며냈다. 창도가 갑자기 앓는다고 하고 그전처럼 조령감을 의원 데리러 보내게 하되 그편에 아끼시마에게 편지를 써보내면 감쪽같지 않느냐 하는것이였다. 그게 좋다고 하여 미리 편지를 써놓고 조령감 돌아오기를 한시가 열흘 맞잡이로 기다리는데 성문이 닫길 시간이 림박하도록 령감이 나타나지 않아 안절부절못하였다. 하긴 정희겸이네 집에서 급한 볼일이 있어 의사를 데리러 온다고 말하든지 정 급하면 아끼시마의 이름을 대고라도 못들어갈것은 없겠지만 그럭저럭 하다가 시간을 놓치면 그놈들도 눈치를 챌수가 있는것이다. 밤중에 성문이 닫긴후에 70리밖에서 사람이 들어간다는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그러니 보위단원이나 윤철목이가 밤중에 현성으로 들어간다면 영낙없이 눈치를 채이고말것이다.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조령감을 보내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의심도 받지 않지만 당자가 까막눈이니 내용이 탄로될수도 없는것이다.

화월이를 시켜 창도의 이마에 수건을 동여놓고 수선을 떨게 하였다. 전에도 밤중에 의사 데리러 보낸 일이 자주 있었던만큼 집안것들은 모두 심상하게 여길것이였다.

이렇게 한창 부산을 떠는데 조령감이 나타났다. 그는 다잡고 조령감을 내몰았다. 의원 데리러 자주 간적이 있는 조령감은 멀쩡한 창도를 보고 좀 의아쩍은 표정이더니 쪽지편지를 내주며 비밀히 아끼시

마상에게 전하라는 말을 하자 눈이 둥그래졌다. 급히 가되 누구한테 루설하면 경을 칠줄 알라고 으름장을 단단히 놓고 내보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정희겸은 혹시 조령감이 꾸물거릴가보아 뒤따라나왔는데 아니나다를가 아직도 밥상앞에 앉아있을뿐아니라 자기 역정을 가로맡아나선것이 바로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삼덕이였다.

정희겸은 증오에 이를 갈며 상다리를 움켜쥐고 소리쳤다.

《쌍가매야, 거 내 단장 집어오너라！ 내 단장！》

삼덕은 어깨에 와 떨어지는 상다리를 가볍게 걷어잡고 하도 같지 않아 차거운 웃음을 입가에 띠웠다. 게거품을 물고 접어드는 정희겸의 꼴을 보니 꼭 비루먹은 만주돼지같다.

《주사나으리, 진정하는게 어떻소？ 당신이 나를 힘으로 다스리려 든다는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정희겸은 비수에 찔린놈처럼 우뚝 멈추어서더니 차겁게 내려다보는 삼덕의 눈길에 부딪치자 으드득 이를 갈았다.

《내 단장！ 단장을 가져오너라！》

그는 발작적으로 소리치며 다시 접어들었다. 쌍가매가 뛰여오다가 엄청난 광경에 놀라 우뚝 멈추어섰다. 바깥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다 앓아 죽어간다는 정희겸의 아들 창도가 수건을 질끈 동인 파리한 몰골로 단장을 들고 쪼르르 따라나왔다.

조령감은 겁이 나서 삼덕이가 어찌하지 못하게 팔목 하나를 잡고 연방 우는 소리를 하였다.

《나으리, 용서하시고 그만 진정하십시오. 이 사람아, 얼른 용서를 빌게. 자네가 어찌자고 그런 무엄한 말을 함부로 탕탕 하나？》

《거 단장 이리 가져오너라！》

정희겸은 다 깨여진 소반을 삼덕의 등에다 집어던지더니 우르르 뛰여가서 창도가 쥐고있는 단장을 후리쳐 잡았다.

《이놈！ 네 이놈！》

정희겸은 단장을 잡고 거듭 을렀으나 손을 후들후들 떨뿐 감히 다시 쳐들지는 못하였다.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요！》

화월이가 두팔을 휘저으며 달려나오더니 넙적다리를 철썩 치며 소리질렀다.

《아이구, 세상에두, 이런 말세가 어디 있나！ 자네들이 불한당질을

하다하다 못해 이젠 이런 어진 령감을 다 노엽혀놨군. 실컷 맞아야 싸다니까.》
이렇게 온 마당이 떠들썩해지자 사랑으로,바깥으로 흩어졌던 머슴들도 몽땅 모여들었다. 야학에 가겠다고 나섰던 사람들도 되돌아오고 안종들까지 중문가에 얼굴을 내밀었다.
삼덕은 사람들이 모여드는것을 보자 조용히 말하였다.
《령감,아들이 앓아죽어간다는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것이 재미없소. 당신이 정 이러면 내가 법에 걸어 고발하겠단말이요. 조령감이 140리길을 떠나는데 저녁을 마저 먹고 가라는것이 무엇이 잘못이요? 령감이 이러면 체모가 깎입니다. 점잖은 사람은 점잖게 굴어야 하는거요. 사람을 나이대접도 할줄 알아야 하고 경우는 경우대로 따라야지,당신 아들 급하다고 해서 내가 마차까지 메워주겠다는데 이렇게 행패질을 하면 주인체모가 어디 됐소? 진정하시오.》
《아니 이놈이 그래도 그냥 입이 살아서,이놈! 네 이놈!》
숱한 사람들앞에서 한개 머슴군의 훈계를 듣게 된 정희겸은 그만 미칠지경으로 펄펄 뛰였다. 그러나 삼덕은 계속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령감,거 어서 마차를 메우시오. 이 령감이 이렇게 타일러도 듣지 않으니 내가 억울해서도 그냥은 못참겠소. 이 주인령감과 함께 현성에 가서 법에 가 좀 물어보아야겠소. 여러분네들,경우가 그렇지 않소?》
삼덕이가 소리치자 머슴들이 설레였다. 머슴들이 빙 둘러싸자 정희겸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놈을 서뿔리 건드려놓았다가 무슨 눈치라도 채고 홀 달아나버리면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간다. 그래서 슬쩍 안해를 돌아보니 화월이도 연방 눈귀를 흘기며 턱질을 한다. 어서 그만두라는것이다.
《거 너무 심하구만. 아무리 급해도 저녁은 먹여보내야 옳지 않아?》
유철이가 은근히 이렇게 말하니 머슴들이 중구난방으로 한마디씩 하였다.
《급하기는 뭘 급해. 다 죽어간다는 아이가 저렇게 멀쩡하게 사람패는 구경만 하고있는걸.》
《조령감이 점심도 변변히 못했어. 그건 내가 잘 알지,그러나저러나 시장하구야 무슨 일이 되나.》
《조령감도 조령감이지만 삼덕이는 주인 일 잘해주는데 무엇때문에 저런 욕을 당해야 하나?》

정희겸은 머슴들이 떠들어대니 일이 더구나 재미없다는것을 깨닫고 웩 가래침을 돋구며 소리쳤다.

《너희놈들이 작당해서 이게 무슨 야료야! 썩 흩어져가지 못해!》

《거 말끝마다 이놈저놈 안하구는 말 못하겠소!》

삼덕은 목청을 돋구어 꾸짖으며 한걸음 나섰다. 《보자보자하니까 너무하거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못살아서 당신네 집에 와 빌어먹기는 해도 모두 처자들이 있는 몸이요. 사람을 등가죽을 벗겨내도 인사는 인사대로 차려야 할게 아니요.》

《이놈 봐라, 이놈 막 행악질이다!》

《아이구, 저놈이 사람을 치려드네. 거 보위단을 좀 불러오너라! 조령감 뭣하고있어!》

화월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말고삐를 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던 조령감은 얼떨떨해서 이쪽저쪽을 살피다가 말했다.

《보위단을 불러서는 어찌겠소? 이 사람이 죄없이 욕을 보았는데 이젠 작파하고 들어들 가시는것이 좋겠쇠다. 내 의사를 불러오면 될것 아니요.》

화월이가 쪼르르 보위단사무실로 달려갔다.

때마침 보위단장 윤철목이 맞받아나왔다. 마당구석에서 화월은 곰보를 잡고 몇마디 수군거렸다.

윤철목은 연방 눈알을 굴리며 화월의 말을 듣더니 사무실로 되돌아가서 도당들을 끌고왔다.

《야, 야— 이게 무슨 지랄들이야! 헤쳐지지 못하겠어!》

윤철목은 어제날만 같이 여기고 사람들의 더수기를 잡아헤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딱 맞섰다.

《왜 이러시오? 마당에 서있지도 못한단말이요?》

《단장, 당신이 좀 말해보시오!》 삼덕이가 썩 나서며 말했다. 《조령감이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저녁도 미처 못먹은걸 현성으로 의사를 데리러 이 밤중에 당장 떠나라고 했소. 그래서 내가 말을 메워줄테니 그사이 저녁을 마저 먹고 가라고 이렇게 말까지 끌고 나왔는데 주인령감이 사람을 마구 패려든단말이요. 그래 이게 경우가 옳소? 보위단은 법을 좀 알겠지요?》

《아니 이 자식들이 바로 무슨 폭동이나 일으킬 차빈가? 주인령감이 욕을 좀 했으면 했지 어쨌단말인가! 되지 못한것들같으니라구, 야들을 싹 두들겨 헤쳐!》

보위단이 달라붙어 사람들을 헤치느라고 법석 떠들어대는데 정희겸이는 화월에게 끌리여 안으로 꽁무니를 빼고말았다.

전같으면 보위단장 윤철목이도 사람들을 고간에 가두어넣고 행악질을 했을것이지만 이놈도 저희들 꿍꿍이가 탄로날가봐 저으기 삼갔다.

한참 볶아친 연후에 겨우 사람들은 흩어지고 마당은 조용해졌으나 이 우중충한 집안에서는 험한 공기가 가시지 않았다. 정희겸은 정희겸이대로 화월이와 함께 통분한 심정을 삭이느라고 꿍꿍 속을 앓으면서 이제 날이 밝고 아끼시마가 사람들을 끌고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면서도 이 밤중으로 무슨 일인가 터질것만 같은 불안에 볶이우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보위단장은 보위단장대로 점점 흉흉해지는 동네분위기에 왜 그런지 압력을 느끼며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일단 머슴사랑으로 흩어졌던 머슴들도 잠시 앉아서들 공론을 하다가 우르르 야학으로 밀려갔다. 식모간에서는 안종들이 한곳에 머리를 모으고 앉아 쑥덕거렸다.

오직 이런 움직임의 테두리밖에 있는것은 조령감이였다. 그는 자기로 해서 크게 버르집어놓은 이 일의 결말에 대해 속으로 우들우들 떨며 생각하였다.

멀쩡한 자식을 두고 왜 앓는다고 소동을 피워 나를 이 밤중에 아끼시마에게로 보내는것인가? 한밤중에 이미 닫긴 성문을 들어서는것이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라는것을 잘 아는 조령감은 그런 멀쩡한 아이때문에 의사를 부르러 간다는것은 꾸민 말에 지나지 않고 실상 용건은 아끼시마에게 가져가는 편지에 있다는것을 짐작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그 아끼시마가 어떤놈인가? 그놈은 경찰서 형사우두머리이고 자기더러 더러운 렴탐군노릇을 하라고 강박한 배암같은놈이다. 이놈들이 누구를 잡자고 이런 꿍꿍이를 꾸며낸것이 틀림없다. 칠성이나 삼덕이를 잡자는것이 아닐가? 그렇다면 인정이 너무나 야박하지 않은가? 세상이란 참으로 야박하고 인정머리없는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를 위해 밥 한끼나마 먹여보내자고 그런 욕까지 보았는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려면 이 편지가 그 사람들을 잡자는것일수야 있는가? 내가 그런 편지를 가지고 간다면 이것은 하늘이 너무 심하게 구는것이 아닌가?

하나 하늘의 심보란 결코 고운것이 아니다. 륙십평생 나를 골탕먹인것이 그 하늘이 아닌가? 그것을 믿고 언젠가 처자권속을 다시 만나

고향땅에서 잘살 날이 있으려니 하고 속아왔었다. 세상에 못믿을것은 하늘에 귀신이 있다는 소리다.

조령감은 갈피를 출수 없는 생각에 쫓기면서 억지로 말아가리에 자갈을 물렸다. 칠성이 끌어다준 가라말을 원간에 세워놓고보니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다. 그래 마구간에 가서 훨씬 순한 황부루를 끌어내여 원간말로 메우고 가라말은 결말로 붙였다. 그가 골목에서 나서막 마차를 내몰려 할 때 으슥한 담모퉁이에서 칠성이가 나타나더니 마부대에 뛰여올랐다. 조령감의 불안한 심정을 너무도 잘 리해하고 또 험한 숲속길 100여리를 홀로 보낸다는것이 안됐기도 했지만 정희겸이 미쳐날뛰는 꼴을 보니 아무래도 심상찮아 삼덕이에게 앞일을 맡겨놓고 자기는 미리 대문밖에 나서서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아바이, 같이 갑시다. 령감 혼자서는 가기가 힘들거우다.》

《아니 칠성이 이 사람아, 자네는 정녕 저녁도 못먹고 어떻게 가겠나? 내 혼자 갔다올테니 자네는 저녁먹고 집으로 돌아가게.》

조령감은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원망을 퍼부은 그 하늘이 이 순간에 틀림없이 눈을 뜨고 자기를 내려다보는것만 같았다.

《갑시다. 거 채찍 이리 주시오.》

유철은 채찍을 빼앗다십이 받아들고 가볍게 휘두르며 고삐를 챘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였다. 그래도 숲변두리로 난 길은 휘연히 떠올랐다. 쌍두마차는 바람을 일으키며 달아났다.

유철은 능숙하게 채찍을 휘두르며 이제는 인적기 하나 없는 캄캄한 숲속으로 말을 내몰았다. 길은 숲속으로 들어섰다가 빠져나왔다가 하면서 줄곧 우중충한 어둠속으로만 구부러져들었다. 이따금 여우나 노루같은것이 길가에 나섰다가 후닥닥 피해 달아나군하였다.

광막한 공간, 태고의 밀림, 첩첩히 내려앉은 어둠속에 외롭게 울리는 말발굽소리와 워낭소리는 까닭없는 초조감을 불러일으켰다.

《…삼천포를 떠난지가 벌써 15년도 넘네. 여기까지 굴러오는 사이 설음도 많이 겪고 죽을 고비도 한두번만 넘기지 않았네. 이젠 달아난 계집생각은 잊은지가 오래네만 그래도 자식새끼들 만나볼 생각은 그냥 사라지지 않네그려. 하지만 삼천포가 여기서 얼만가?— 또 그년이 나를 버리고 달아났으니 어디로 간줄 알고 찾아가겠나? 하긴 계집만 나무랄것

도 못되지. 그것도 살림이라고 시작만 해놓았지 굶는 날이 먹는 날보다 더 많은데다 그렇게 빚성화에 쪼들리는 판에 돈벌러 떠난 사나이가 이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으니 어딘가 빌어먹을데를 찾아가야지 어찌겠나. 모든것이 팔자소관이야. 내가 애초에 장돌뱅이 밑천을 털어먹었으면 곱게 농사라도 지을노릇이지 남의 소문만 듣고 훌쩍 집을 떠난것부터가 잘못이지. 제 밥값도 벌지 못하는 신작로공사판에서 돈을 벌겠다는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노릇이야. 그나마 그렇게 밀차에 깔릴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나? 모든것이 팔자소관이라니까…》

조령감의 기구한 신세이야기는 음침한 밤길을 더욱 음침하게 만들었다. 울산장이요, 김해장이요 하고 황아를 메고 돌아가다가 장사가 시원치 않아 객주집에서 밥값으로 물건을 다 잡힌 이야기, 그 봉창을 대겠다고 집을 나서서 신작로공사판에서 밀차에 깔려 이태동안 앓고 집에 돌아가니 안해가 아들딸을 데리고 빌어먹으러 떠나버렸더라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다 무너져앉은 빈집의 거미줄을 헤치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날의 조령감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안해와 자식들을 찾아보겠다고 팔도를 헤매다가 종당에는 토비와 산짐승만 우글거리던 이 벽지에까지 떠돌아들어온 그의 고달픈 행로가 긴 설명없이도 선명한 화폭으로 눈앞에 떠올랐다. 이제는 더 잘 살기도 바라지 않고 제 가슴에 못을 박아준 고향 삼천포도 잊어버리려고만 한다는 조령감의 심정이 리해될듯도 하였다.

가도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검은 숲을 누비며 쌍두마차는 마치 조령감이 걸어왔다는 인생행로와도 같은 어둡고 외로운 밤길을 그냥 달렸다. 먼데서 우는 여우소리, 부엉이소리가 끝없이 가라앉은 무시무시한 정적을 더욱 깊게 갈앉혀준다. 유철은 말고삐를 가볍게 흔들며 앞만 바라보았다. 조령감 역시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며 마차가 흔들리는대로 몸을 내맡기고 시름없이 자기 이야기를 이어나가는것이였다. 왈랑절랑 워낭소리가 서글픈 이야기에 반주처럼 울리였다.

《자네가 정주사나으리나 안주인을 그렇게 욕하지만 내가 부자를 한두사람만 봤겠나? 그 사람네들만 그런게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돼먹은걸. 세상인심이란 다 그런거지. 그러니 유난히 정주사네들만 인심이 야박하다고 생각할 까닭이 없단말일세. 아무데 가면 빌어먹는 신세에 사람대접을 받을줄 아나? 그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꾹 참고 견디는게 상책이야. 옛사람들이 참을인자가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다네. 자네도 아직 젊어서 세상물정을 몰라 그렇지 이제 나이 들어가면 다 풀이 죽고 기가 꺽이게 되는거야.》

《조아바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두 조아바이처럼 고단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모두 팔자타령을 하고 나앉아서 되는대로 살자고 하기때문에 우리 조선이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에 사주팔자가 없어요. 우리가 왜놈들과 정희겸이 같이 나라를 팔아먹고 사람들 가죽을 벗겨내는 흉악한 도적놈들을 다 때려부신다면 왜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억울하게 죽겠습니까? 세상에 모두 조아바이나 삼덕이나 쌍가매같은 사람만 있다면 모두가 부지런히 일해서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팔자를 잘못 타고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처음 이 동네에 와서 보니 쌍가매는 그렇게 꼭두새벽부터 밤이 깊도록 다리가 땡땡 붓게 일을 하고도 설겆이하다가 깨뜨린 버치를 제돈으로 사다놓겠다는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유철은 조령감의 머리에 꽉 뿌리박힌 굴종근성을 뽑아내는 일이 여간 힘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왔고 안골에서의 전반적공작대상으로 보아 하루이틀에 개조하기가 힘들것으로 치부하고있었다. 그러나 그가 혁명의 길에 들어서서 무슨 큰 힘은 보태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의 불행가운데서도 가장 큰 불행인 그 너절한 굴종의 사상만은 뿌리뽑아주는것이 자기의 계급적우애심이며 계급적의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인간을 보고 그냥 스쳐지나간다면 어찌 가난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동정한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조령감이 아직 혁명을 리해하지 못한다해도 우선 그가 다시는 그렇게 어리석게 이 세상을 끝마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같은 계급의 불행한 사람을 위하고 건져주는 길이다. 혁명이 성공하는 날 비록 그에게 행복한 새 생활이 차례진다하더라도 너절하고 어리석게 산 자기의 과거때문에 뼈아픈 뉘우침에 시달리지 않도록 눈을 띄워주어야 한다. 그래서 유철은 조령감이 알아들을만한 이야기를 고르느라고 애를 쓰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하기는 쌍가매도 불쌍한 아이야.》 조령감은 담배대를 입에 문채 중얼거렸다. 《내가 정주사네 집에 오니 대여섯살 난 그애가 창도를 업고 다니더군. 나보다 먼저 머슴을 살던 갑산늙은이가 하는 말이, 참 그 늙은이도 정주사네 집에서 죽어 거적때기에 싸여나갔는데 저 숲속에 묻혔네. 헌데 그 늙은이 말이 쌍가매네 부모들도 그 몇해 전에 그애를 업고 어쩌자고 삼동에 길을 나서서 북만으로 들어왔다가

저 야학방으로 쓰는 정희겸이네 농막에서 굶다굶다 얼어죽었다는군. 몇번이나 농량을 대달라고 찾아온걸 매정하게 내쫓았다네. 에미애비가 죽으니 쌍가매는 정희겸이네 식모방에서 자랐지. 무던한 식모나인이 불쌍해서 데려다 길렀다네. 그러다가 겨우 걸음발을 옮겨놓을만하게 되자 그 집 아이보개가 됐네그려. 쌍가매는 그런 자세한 사연을 아마 모를걸세. 내가 이런 이야기는 그애 귀에 들어갈가봐 입밖에 내지를 않네. 자라는 아이가 그런것을 알아서는 무엇하겠나? 거저 가슴에 못이나 박아놓지. 그애는 그래서 제고향도 제부모 성명도 모르고 자란다네. 옆에서 보면 때때로 나도 가슴이 아프네. 하지만 어떻거겠나? 세상이 그런걸. 하기는 정희겸이 그 사람이 악착한 사람이지. 인정도 피도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부자가 됐겠나?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너무 무맥하게만 살것은 아닌듯하네만 그러니 또 달리 무슨 수가 있겠나? 요즘 젊은이들이 자꾸 싸우자고 윽벼르는데 그게 내가 보기엔 암만해도 범아재비가 수레바퀴를 굴리려는것과 갈단말일세. 저 큰개에서만도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였네만 무엇 하나 성사한것이 있나? 다 부질없는 짓이야.》

《조아바이, 정말 범아재비는 우리가 아니라 정희겸이나 왜놈들같은 반동입니다. 세상은 움직입니다. 그 옛날 임금을 생각해보십시오. 누가 임금을 내쫓을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임금이 거의다 쫓겨났습니다. 그 옛날에는 량반이라면 그 앞에서 상놈들이 머리도 못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량반이 맥을 춥니까? 돈가진 상놈이 량반을 종처럼 부리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날마다 변하는데 이것을 막을 힘은 없습니다. 이것을 막자는것은 그야말로 범아재비가 굴러가는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지금 이 세상의 6분의 1이나 되는 땅에서 이미 임금도 량반도 부자도 지주도 다 쫓겨나고 로동자와 농민이 주인으로 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가난뱅이들이 들고일어나 싸우고있습니다. 세상에 부자놈은 한줌도 못되지만 우리같이 못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뭉쳐서 싸운다면 그놈들이 무슨 힘으로 당한단말입니까? 문제는 모두 팔자타령만 하고 앉아서 한탄할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싸우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안골동네도 그전과 같지 않습니다. 정희겸이네 집안도 전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바른말을 하며 여차직하면 결판을 짓겠다

고 나서니 그 사나운 정희겸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기는 그래, 정희겸이 그 사람이 전같으면 오늘저녁같이 문문히 주저앉지 않았을거야. 한데 이 사람아, 그 요새 우리 동네에 자꾸 방이 나붙는것이 다 정희겸이를 죽이자는 소린가?》
조령감은 불시에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입에 줄곧 물고있던 담배대를 뽑고 넌지시 물었다.
《그건 꼭 정희겸이를 죽이자는 소리만은 아니지요. 정희겸이같은 지주나 자본가놈들을 때려엎자는 말도 있지만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는것이 더 많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것만 보면 우들우들 떠니 그게 조화속이 아닌가?》
《하하하,》 유철은 안타깝던중에도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조령감에 대한 친근감과 측은함이 갑절도 더해왔다. 《아바이, 그놈이 그렇게 떨밖에 없지요. 정희겸이란놈이 누구를 믿고 저렇게 하늘 높은줄 모르고 우쭐거리느냐 하면 그게 바로 왜놈들을 믿고 그러거던요. 왜놈만 없으면 제놈이 길거리에 나갔다가 따귀를 얻어맞아도 하소연할데가 없단말입니다. 따귀가 문제겠습니까? 저놈을 우리가 몽땅 들어서 내쫓은들 제가 어디 가서 누구와 맞서보겠습니까? 그러니 왜놈을 치라는 소리는 바로 저를 죽이라는 소리보다 더 아프단말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도 정희겸이 같은 지주나 부자놈들을 쳐없애자면 왜놈들을 먼저 쳐야 합니다. 또 왜놈들도 조선과 만주를 마음대로 하는데는 저 정희겸이 같은 민족반역자들을 발판으로 삼고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라를 찾고 모두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면 왜놈도 치고 정희겸도 쳐없애야 한단말입니다.》
쌍두마차는 어둠이 잠긴 호젓한 숲속을 달렸다. 갈수록 어둠은 깊어가고 밤은 끝없는 심연에 가라앉은듯 조용하였다. 그러나 마차우에서는 어둠속에 뒤엉킨 이 세상 만물을 비치는 그러한 사상이 펼쳐졌다. 사람으로서 참답게 살며 짓밟힌 삶과 권리를 되찾기 위한 혁명에로, 싸움의 길로 호소하는 유철의 목소리가 첩첩한 어둠을 헤가르며 불빛과 같이 도란도란 울리였다.
어둠이 불안하던 조령감의 마음을 감싸주었다. 숲속을 누비며 뻗은 한가닥 길이 으슴푸레 떠오르면 령감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조용한 말발굽소리, 말방울소리, 귀전에 스치는 싱그러운 숲속의 밤바람— 밤이 빚어내는 이 다정한 감각이 묵은 상처를 어루만졌다.

칠성이의 말을 한낮에 들었다면 얼마나 놀랐을것인가? 그러나 밤은 모든것의 모를 깎는 반면에 사람들의 마음을 한없이 부풀게 하는것이다. 조령감은 인생에 대해 모든것을 깨친 사람처럼 자기의 견해를 떳떳이 내놓았다. 그리고 칠성이의 견해를 별로 놀라지도 않고 들었다. 조령감의 생각엔 두사람의 견해사이에 그리 큰 차이가 없는것처럼 생각되였다. 다소 다른 점이 있다해도 그건 흔히 있을수 있는 그런 차이에 불과하다. 가령 어제만 해도 삼덕이는 먼 숲가의 풀부터 먼저 베자고 했고 자기는 동네 가까운 풀밭부터 먼저 베자고 했다. 방금전만 해도 칠성이는 성질이 사납지만 그중 날랜 가라말을 마차에 메우자고 했는데 자기는 내심 좀 둔하나 그중 순한 늙은 황부루를 메웠으면 했었다. 사람의 마음이 매번 꼭같을수는 없다. 그렇다고 그런 조그마한 생각의 차이때문에 서로 사이가 틀어질것도 없는것이다.

하긴 사주팔자가 없다는 칠성이의 말이 옳을는지도 모른다. 조령감역시 하늘이라는것을 믿지 않는터이였다.

한데 이 칠성이란 사람은 얼마나 똑똑하고 난사람인가? 감히 정희겸이도 그 앞에서는 기를 펴지 못한다.

밤은 깊어가고 바람은 점차 싸늘해졌다. 말들은 숨가쁘게 입김을 불었다. 멀리 현성의 불빛이 이따금 나무그루들사이로 얼핏 나타났다가 사라지군하였다.

문득 조령감은 가슴에 품고있는 편지생각이 났다. 칠성이는 아직도 조용조용 이야기를 하고있다. 자기의 아이들과 안해가 고향 삼천포의 도래굽이를 헤매며 아직도 자기를 찾고있을지 모른다는것이다. 모두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싸우면 그들을 구할수도 있다는것이다. 하긴 다시 만나 오손도손 살기는 이미 틀렸다 해도 그 불쌍한 인생들을 구할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죽은들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현성의 불빛이 더욱 자주 나타났다. 조령감의 가슴은 옥죄여들었다. 그날밤 거기서 본것은 과연 칠성이였을가? 그렇다면 이 편지는 바로 아끼시마에게 칠성이를 고해바치는것이나 같지 않은가?

그런데 자기를 잡으러 가는지도 모르는 나를 위하여 칠성이는 무엇때문에 이렇게도 애를 쓰는가?

《아바이, 우리의 힘은 큽니다. 지금 저 동만에서는 왜놈들을 치는 싸움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여보게 칠성이.》 조령감은 신음소리처럼 힘들게 입을 벌렸다.

《내 자네한테 긴히 한가지 물어볼 말이 있네.》
《무슨 말입니까?》
뚱딴지같은 조령감의 말에 칠성이는 다소 어리둥절하여 되물었다.
《저,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날밤에 말일세… 저, 그 황아장사라는 사람이 부채소어방에서 죽지 않았나?》
《그런데요?》
《헌데 그날밤에 혹시 자네도 그때 거기 있지 않았는가 해서… 이건 그저 내가 물어보는 말인데… 아니면 좋고…》
유철은 긴장되였다. 이 령감이 야학에 드나든 일을 퍼뜩 상기하였다. 혹시 나를 떠보자는것일가? 그러나 유철은 다음순간 마음속으로 세차게 도리를 흔들었다. 제 육신을 놀려 60평생을 살아온 순박한 로인이 그렇게까지 악착할수는 없다. 그는 서글서글 웃으며 말했다.
《아바이가 그 삭정이 실어오던 날 밤 말이지요? 나하고 같이 삭정이를 부릴 때 보니 아바이 눈치가 좀 수상하다 했더니 그날밤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참, 그날밤 자네가 그 삭정이를 나하고 같이 부려줬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그러십니까?》
《참 모를 일일세. 내가 인젠 로망할 나이가 되긴 된 모양일세. 내가 다 이야기할테니 자네 좀 들어보게.》
조령감은 잠시 말을 끊고 앞을 바라보았다. 숲은 이미 성기여지고 길옆으로 강굽이가 따라온다. 굽이를 돌 때마다 물소리가 들려온다. 현성의 불빛이 저만큼 다가오고있다. 말발굽소리, 말발굽소리— 모르는 운명이 기다리고있는 그곳으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말발굽소리—
유철은 가볍게 채찍을 두르며 조령감의 허둥거리는 모습을 곁눈질해보았다.
《자네 우선 이 편지를 좀 읽어보게. 내가 가지고는 가면서도 암만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네. 자네는 모를지 모르지만 그 왜놈 목재상이라는놈이 실은 아끼시마라는 형사우두머리라네. 헌데 이 편지가 바로 그놈한테 가는걸세. 그러니 이게 수상하지 않은가? 이 밤중에 의사를 데리러 간다고 핑계대고… 내가 안에 들어가보니 앓는다던 창도라는놈은 멀쩡하더란말일세.》
조령감은 여태까지 자기가 아끼시마며 정희겸이에게서 들어온 말

이며 부채소늪가에서 보고 듣고 생각한것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유철은 말을 멈추어세웠다. 그리고 마차의 등불을 켠 다음 다시 봉할 때 흔적이 나지 않게 침을 듬뿍 묻혀 찬찬히 편지의 봉을 뜯었다.

봉투안에는 반지에 붓으로 갈겨쓴 짤막한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한자들로 엮어진 그 사연은 다음과 같았다.

엎드려 사룁니다.

소생은 귀하의 고귀한 사업을 도웁고저 끓는 물과 뜨거운 불속이라도 서슴지 않고 들어갈 심정이온바 오늘 천신만고끝에 귀하께서 찾고저 애쓰시는 부채소경찰관암살사건의 범인을 알아냈나이다. 소인관하의 보위단원 송모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당일 당시에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수상한자 둘을 목격하였는바 이는 다름아닌 소생 가내의 머슴 김삼덕이와 소작인 지홍순의 차남 지성덕으로서 두놈이 다 평소에 불량하고 모두 마차부 현칠성과 한동아리가 돼서 야학에 모여 불온한 사상을 론의하던자들이로소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귀하께서는 한시도 지체 말고 이 적색분자들을 한그물에 사로잡으소서.

유철은 긴장되였다. 그는 헝클어지는 생각을 가다듬으며 그 을씨년스러운 종이장을 다시한번 더듬어보고나서 찬찬히 접었다.

《아바이, 별일은 없겠지만 일이 시끄럽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바이가 걱정할것은 없습니다. 잠자코 편지를 갖다주십시오.》

《대체 거기에 무슨 말이 씌여있나?》

조령감은 궁금하여 침을 삼키며 물었다.

《아바이 짐작이 맞았습니다. 그날밤에 보위단의 송가가 숲에서 나오는 삼덕이와 지홍순령감의 작은아들을 보았다는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형사놈을 죽인것으로 생각한다는거지요. 보십시오. 제 집안사람과 한동네사람을 잡아넣기 위해 그놈이 이렇게 악독하게 굽니다.》

《허— 내 짐작에서 벗어나지 않았군. 저런 천하에 무도한놈이 있나…》

조령감은 새삼스럽게 치를 떨며 중얼거렸다.

《아바이는 딴말 말고 아끼시마에게 이 편지를 갖다주고 돌아오십시오. 난 이 길로 동네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어서 그러게. 우선 몸이라도 피하게 해야지. 한번 붙잡히고보

면 그 무도한것들이 사실여부를 가리나? 그 사람들이 성미가 좀 우뚤우뚤해서 그렇지 마음이야 여북 착한 사람들인가? 원 천하에 무도한놈같으니라구.》

유철은 제꺽 결말로 메운 가라말을 풀었다. 배띠를 끌러서 조령감 발밑에 꿍져놓고 안장도 없는 말등에 훽 올라탔다.

《아바이 수고하십시오.》

《어서 가보게. 임자가 고생하겠네.》

유철은 알몸뚱이말을 질풍처럼 내몰았다. 70리길을 단숨에 달려 동네어구에 접어든 유철은 말을 숲어구에 매여두고 동네로 몰래 새여들어갔다. 이젠 사람의 눈을 피해야 한다. 이미 결전의 시각은 닥쳐왔다.

동네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 유철은 담모퉁이에 붙어 돌아가며 삼덕이네 집에 들려 아이를 시켜서 야학에 가있는 삼덕이를 불러냈다. 사정을 말하고 밤중으로 모든 대책을 취하게끔 구체적인 과업을 준 다음 되짚어 말을 타고 꾀지개섬으로 달렸다. 조직은 서슴없이 더욱 지하깊이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적의 공세를 맞받아 결정적인 투쟁에로 사람들을 조직동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대와 큰개,가막골 등 린접한 동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어차피 싸움속에서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혁명력량을 키워야 하는만큼 이번 사건이 청소한 안골의 조직으로서는 차라리 한계단 높이 자라나는데 있어서 좋은 발판으로 될는지도 모른다.

그가 숲속에서 꾀지개섬으로 갈라지는 길목을 돌 때 멀리 현성쪽에서 어지러운 말발굽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경찰이 안골로 쳐들어오는것이였다.

한편 조령감은 유철이가 탄 말발굽소리가 사라진후에도 어둠속에 홀로 앉아 담배 한대를 늘어지게 피우고 이제는 아끼시마가 제아무리 빨리 손을 써도 일없으려니 생각될무렵에야 천천히 마차를 몰아 성문으로 다가갔다.

성문보초들은 으르딱딱거리더니 아끼시마의 말을 비치자 전화를 걸어보고 투덜투덜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독신으로 동양천지가 좁다고 떠돌아다니는 아끼시마는 아무데서나 그런바와 같이 여기서도 려관에서 거처하고있었다. 양식으로 꾸린 침실에서 잠옷바람으로 응접실에 나온 아끼시마는 조령감이 우뚤우뚤 떨며 내미는 편지를 죽 훑어보면서 입가에 랭소를 띠우고 탁자우에 아무렇게나 집어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은제 담배세트에서 권연 한대를

뽑아물고 입귀로 슬슬 연기를 내뿜으면서 조령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령감상, 수고를 많이 하시오. 요즘도 야학에 나가오?》

《요사이는 일도 바쁘고 몸도 고단해서 통히 못나갑니다.》

《그것 안됐는데… 그럼 숲에는 자주 가겠구만. 어디 숲에서 본 이야기나 좀 하시오.》

《숲에는 뭣하러 가겠습니까? 요즘은 풀베는것이 일이랍니다.》

조령감은 놈이 별로 추근추근 말을 붙이는것이 속에 께름직하여 좀 더듬거리며 말했다.

《자주는 못가는가? 그럼 그날 본 이야기라도 하시오. 그날 부채소에서 누구를 만났소?》

《아니 그건 무슨 말이외까? 내가 부채소에 가길 언제 갔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조령감은 벌써 걷잡을수없이 가슴이 후둑거려왔으나 아까 칠성이한테서 편지내용을 얻어들은만큼 이놈이 그전처럼 괜히 한번 떠보는것이려니 하고 펄쩍 뛰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나 아끼시마는 여전히 조령감의 얼굴을 차겁게 뜯어보더니 바로 조령감이 앉아있는 걸상앞의 책상우에 엉뎅이를 올려놓고 한쪽다리를 옆으로 뻗쳐 덧포개여앉았다. 그리고는 입귀에 문 담배를 질겅질겅 씹으며 전화 송수화기를 들었다.

《령감상, 나한테 거짓말하면 재미없어. 내가 령감상이 사람 죽였다고 말하지는 않으니까 정직하게 말하란말이야.》

《아니, 그건 난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이다. 원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아끼시마는 일본말로 짤막하게 전화질을 하더니 책상우에 걸터린 기다란 다리를 흔들흔들 까불었다.

《령감상.》 그는 다부룩하게 염소수염이 자란 조령감의 턱을 바싹 쳐들었다. 《매 좀 맞아보겠는가?》

조령감은 얼굴이 시꺼멓게 질렸다. 새파란놈이 감히 수염이 새하얀 늙은것의 턱을 쳐들다니… 그는 분노에 살을 떨었다. 그러나 아무리 무도하게 굴어도 법은 그놈에게 있었다.

조령감이 분을 삭이느라고 씩씩거리며 말이 없자 아끼시마는 느닷없이 철썩 조령감의 따귀를 후려갈겼다.

《말 안할테야! 대일본제국의 경찰관 눈이 빈 구멍인줄 아는가?

네놈이 그날밤 부채소에 갔다 왔다는것을 우리는 다 안다. 누구를 만났는가? 똑바로 말해!》
아끼시마는 천장이 무너져앉을만큼 별안간에 큰소리를 쳤다.
《난 모르오.》
조령감은 이미 모든것을 각오한 사람처럼 뜻밖에도 편안하게 말했다.
《모른다?》
아끼시마는 어처구니없는듯이 받아외우더니 입가에 다시 그 기분나쁠만큼 차겁게 느껴지는 랭소를 띠웠다.
《이건 뭐야? 이건 어디서 났어?》
아끼시마는 손마디만큼 길어진 담배재를 잠옷자락에 떨구며 손을 뻗쳐 조령감의 목언저리를 가리켰다. 어망결에 눈을 떨구어본 조령감은 삽시에 새파랗게 낯색이 변했다. 그것은 바로 그날 숲속 오솔길에서 주은 한자짜리 처서군들의 꾀죄죄하게 때묻은 토목수건이였다. 자기 심복을 황아장사로 변장시켜 마을로 들여보내면서 세세히 주의사항을 주었을 아끼시마에게는 자기 눈으로 검열한 변장도구의 하나인 그 토목수건이 너무나 눈에 익었을것이였다. 뿐만아니라 무슨 사고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무슨 흔적이라도 남겨야 한다고 늘 부하들을 가르쳐온 그는 어디선가 그러한 실머리가 나타나려니 하고 기대하고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조령감의 목에 걸려왔다는것은 아끼시마에게도 뜻밖이였다.
조령감의 변한 낯색을 보자 아끼시마는 깔깔 웃으며 침실로 되들어가더니 안골에 올 때마다 일상 입고 나오던 그 목재상차림을 하고 나왔다. 그러자 정복경관 두놈이 뛰여들어오더니 보고를 하였다.
《안골로는 계장님께서 친히 떠났습니다. 저희들은 부과장님께서 부르신다고 하기에 이리로 왔습니다.》
《오, 기다리고있었다. 이 령감을 끌어다가 잘 좀 대접하라. 제국경찰의 고문실이라는것이 어떤것인지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이다. 먼저 데리고 가라. 나도 인차 가겠다. 그런데 이 령감도 안골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알아볼 내용도 있으니 운반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심해서 잘 다루어라.》
《넷, 알겠습니다.》
조령감은 그놈들의 수작을 하나도 알아들을수 없었으나 어인 까닭인지 그 내용이 날날이 짐작되였다.
아무런 물욕도 없이 그저 길바닥에 떨어졌으니 무심히 주어서 목에 걸치고 다녔을뿐 이 며칠사이 번거로운 생각에 시달리다나니 그

러한 물건이 여적 제 목에 걸려있다는것조차 잊어버린 조령감은 그 갈지않은 수건 한끝때문에 이처럼 맹랑한 처지에 빠지게 된것이 너무나 기가 차서 생시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았다.

조령감은 두팔에 오라를 지고 경찰서로 끌려갔다.

19

꼬지개섬의 귀틀집에서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담배연기가 자욱한 방안에서는 흥분한 사람들이 저마다 목청을 돋구어 팔을 부르걷고 책상을 두드리며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하느라고 열변을 토했다. 그러나 동이 훤히 터올무렵에는 무장습격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인민들의 폭동을 승인하는데로 기울어졌다. 그리하여 안골폭동의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 림박에 현성아지트의 책임자로 나가있는 로채숙이가 급한 통보를 보내여왔다. 조령감이 한밤중에 성문을 들어와서 아끼시마의 숙소로 갔으며 그 길로 체포되여 경찰서로 압송되고 그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8명의 정복경찰대가 말을 타고 안골로 출발했다는 소식은 회의에 새로운 파문을 던졌다. 조령감이 아끼시마를 만나러 간것은 이미 알려져있었고 그 결과로 경관들이 안골로 떠나게 됐다는것도 이미 예기하고있은 사실이지만 조령감이 체포되였다는것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였다. 경찰서내부에까지 선을 가지고있는 아지트의 통보인만큼 자료의 정확성여부는 론의할 여지가 없었다.

유철은 이 마당에 그날 부채소에서 자기를 만난것처럼 생각하고있는 조령감의 왕청같은 말을 상기하는것이 괴로왔다. 그가 자진해서 그런 말을 했다면 아끼시마가 구태여 조령감을 체포했을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조령감의 그 말을 상기한다는것은 그가 어떤 계기로 체포됐든지간에 앞으로 반드시 있을 고문때 그 말을 어망결에 해버리지 않을가 하는 념려때문이였다. 이미 지하로 들어가기로 회의의 결론을 본것만큼 조령감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놀라울것은 없지만 그 사실자체는 겨우 세상일에 눈뜨기 시작하려는, 이젠 환갑에 잡혔어도 어린애같이 순진하기만 한 그 로인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시련일것이였다. 그가 그 시련을 참된 사람으로서 용감하게

극복해주기를 바랄지언정 그의 약점이 드러날수 있는 측면을 생각해낸다는것은 어쩐지 모질게 생각되였다. 물론 조령감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때 그놈들에게 리용된것은 사실이니만큼 피투성이 싸움이 예견되는 지금 모든것을 빈틈없이 따지고 재야 하는것이 조직상 원칙이긴 하지만 그것 역시 우선 사람들을 믿는것을 전제로 해야 할것이다.

활발하던 회의분위기는 유철의 무거운 침묵과 함께 갑자기 연덩어리를 삼킨듯 가라앉아버렸다.

이럴즈음 또하나 뜻밖의 소식이 들어왔다. 간밤에 피신하도록 일러둔 삼덕이와 지성덕이가 새벽같이 꼬지개섬으로 달려왔다.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경찰대가 동네에 들이닥친것은 밤 1시경인데 놈들은 도착하자마자 지성덕이와 삼덕이를 붙잡으려들었으나 두사람 다 미리 숲으로 피신하고 없으니까 집을 포위하고있었다. 그런데 새벽녘에 아끼시마가 조령감을 꽁꽁 묶어서 마차에 태워가지고 왔다. 그는 나타나자마자 그 길로 새로운 검거선풍을 벌려놓았는데 박두현을 비롯해서 김치복이, 쌍가매 등 야학에 모이던 핵심들을 돌아가며 붙들어서는 보위단창고와 사무실에 가두어넣고 고문을 시작했다는것이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들은 또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며 저마다 자기 추측을 내놓았다. 방안통로를 무겁게 거닐던 유철은 이윽고 자기 자리로 가서 두팔로 책상을 짚고 섰다. 구들바닥에 앉은 회의참가자들은 갑자기 입들을 다물고 그의 말을 기다렸다. 잠시 그렇게 서서 고개를 떨구고있던 유철은 한손으로 천천히 머리를 쓸어넘기며 얼굴을 들었다.

《동무들.》 그는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이것은 놈들이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놈들은 아무런 죄도 없고 우리와 관련도 없는 조령감을 체포했습니다. 또한 놈들이 합법적으로 승인한 야학선생과 학생들을 체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놈들이 눈에 피발이 져서 찾아헤매는 부채소사건의 관계자를 정확히 모르고있는데다 나날이 앙양되는 안골인민들의 혁명기세에 겁을 집어먹고 닥치는대로 잡아가둠으로써 우리의 기세를 꺾어보자는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여기에 굴복할수 없습니다.》

《옳소, 난 유철동무의 분석이 전적으로 정확하다고 보오.》

박두성이 흥분한 목소리로 웨쳤다.

《난 유철동지의 대책을 듣자는것을 제의합니다.》

김익보가 맞받아 웨쳤다.

《동무들, 조용합시다. 유철동지의 발언을 계속 들읍시다.》

오늘 회의의 사회자인 김기창이 신중한 어조로 술렁거리는 장내를 정돈시켰다. 유철은 일순 준엄한 표정이 되여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절대로 놈들에게 숙어들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우리가 놈들의 이와 같은 야만적인 공세앞에서 움츠러드는 기미를 보이면 놈들은 공세를 약화하는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골의 혁명력량은 조만간에 다 파괴되고말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이것을 기회로 더욱 적극적인 투쟁에로 나감으로써 놈들의 공격에 대해 혁명적인 반공격으로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놈들이 서뿔리 불러일으킨 이번의 검거선풍은 우리 조직앞에 제기된 하나의 시련이기는 하지만 안골인민들을 단결시키고 더욱 적극적인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마련해주었습니다. 억울하게 체포된 동네사람들을 빼앗아내는 투쟁에로 안골인민들을 불러일으킵시다. 그러되 이 투쟁은 시간을 다투어 급히 조직해야 할것입니다. 여유를 주면 저놈들이 체포된 사람들을 호송해가버릴수도 있고 력량을 증강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나는 이미 계획된 폭동을 더욱 앞당겨 래일 아침에 단행하자는것을 제의합니다. 동무들, 하강의 혁명조직앞에는 급박한 정세와 관련하여 자기의 조직력과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최단시일내에 폭동을 일으킬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나는 안골조직의 성원들은 이제 곧장 동네로 은밀히 잠복하여 군중을 조직동원하며 무장대성원들은 현성으로 통하는 대도로를 차단하고있다가 만일에 놈들이 우리 동무들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무력으로 탈취하며 현성에서 증강되는 무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맞받아 쳐야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위의 성원들은 즉시에 큰개, 가막골, 가재울 등 이웃동네의 혁명군중들을 조직동원하여 안골인민들의 투쟁에 호응해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무들, 시간이 촉박한만큼 체포된 동지들을 한시바삐 구원해야 할 우리의 동지적의무를 심각히 자각하고 나의 제의를 즉시에 토론해주기 바랍니다.》

유철의 제의는 전반적으로 그대로 통과되였다. 유철이가 나가있는동안 현위사업을 보고있는 김익보가 폭동이 성공하는 경우에도 그뒤로 반드시 놈들의 복수가 예견되는만큼 안골인민들이 모두 폭동에 궐기되였을 때 그에 잇달아 무장습격을 배합하자는 보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안골보위단의 10여정 무기를 로획할수 있다는것도 이 제안의

중요한 근거로 되였다. 무장대 책임자인 박두성이가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나서고 다른 회의 참가자들도 찬성하였다.

그런데 유철이가 안골에 다시 들어가는 문제때문에 다시금 론의가 분분해졌다. 김기창이가 먼저 신중한 태도로 일어나더니 말하였다.

《나는 유철동지가 안골폭동의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하면서도 하강지구전반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려가 적다고 봅니다. 적들은 이미 유철동지에게 주목을 돌려온지 오랩니다. 다만 놈들에게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체포를 미루어왔을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밤부터 유철동지는 적들앞에 로출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안골에는 삼엄한 경계망이 늘여져있습니다. 이러한데로 유철동지가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는것이 과연 모험이 아니겠는가? 나는 유철동지가 응당 여기에 남아 전반적인 사업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뒤따라 김익보가 일어났다.

《나 역시 김기창동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애초에 유철동무는 안골에 지나치게 오래 머물러있었습니다. 안골에는 이미 핵심이 박혔습니다. 그런 이상 유철동무는 즉시로 물러나서 그들을 뒤에서 지도했어야 할것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위험한곳으로 다시 들어가자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항상 조직의 한부분으로 간주해야 할 혁명가의 태도가 못되며 나아가서는 안골의 동지들을 못믿는 표시로도 된다고 보는것입니다. 나는 물론 유철동무를 비판하자는것이 아니라 유철동무의 금후의 활동이 우리 하강의 혁명조직앞에는 너무나 귀중하기때문에 혁명을 위하여 몸을 삼가달라는것을 말하고싶은것입니다.》

박두성이는 지어 유철에 대해 성을 내면서까지 반대했고 안골에서 온 삼덕이와 지성덕이도 비록 자기들이 변변치는 못하나 계획된대로 일을 밀고나갈터이니 모험을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다싶이하였다.

유철은 자기를 생각해주는 동지들의 말이 뼈에 사무치게 고마왔다. 그들의 뜨거운 마음은 얼마간 비판적인 성격을 띤 기창이나 익보의 말에서도 력력히 느껴졌다. 그러나 유철은 지금 조성된 정황이 아무리 투쟁기세가 높다 하더라도 그렇게 락관할수만은 없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또한 동지들의 마음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거기에 푹 안겨버릴수 없는 자기 처지를 잊어버릴수 없었다.

유철은 천천히 일어났다.

《동무들, 나는 일부 동무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접수하며 앞으로

나의 행동을 삼가겠다는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정황과 과업은 내가 여기에 남아있어야 할 리유는 너무나 적게 주고 안골로 나가야 할 리유는 너무나 많이 제기하고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안골인민들에게 함께 나서서 민족적, 계급적 원쑤들과 싸우자고 호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민족적으로나 계급적으로 자각한 사람들은 아니고 더구나 조직적으로 훈련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싸움을 호소한 내가 정작 어려운 싸움이 벌어졌을 때 꽁무니를 뺐다는것을 알면 그들은 다시는 공산주의자들을 믿지 않을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조직앞에서 안골의 혁명화에 대해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업의 결과를 실지 투쟁을 통해 검열받기전에 단지 위험하다는 한가지 리유로 이 사업을 다른 동지들에게 넘겨줄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의 사업태도가 아닙니다. 셋째로, 안골에서 군중교양과 조직사업은 아직도 중요한 고리가 풀리지 않은채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박병섭로인과 관련되여있는데 이번 폭동에 반드시 이 로인과 그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을 참가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폭동자체의 승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안골에서 가장 완고한 층인 그들의 교양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골에 조성된 형편은 박병섭로인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지어놓았습니다. 박병섭로인과의 사업은 그전부터의 관계가 있는만큼 내가 가야만 인차 성과를 거둘수 있고 그래야만 전반적인 인민들을 폭동에 동원할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내가 안골로 가야 할 리유는 허다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남아있어야 할 리유는 주로 신변이 위험하다는것입니다.

동무들, 우리는 간악한 혁명의 원쑤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혁명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혁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위험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닐것입니다. 혁명가가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위험을 피할것이 아니라 위험을 맞받아나가 그것을 쳐없애는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안골인민들을 믿고 안골폭동의 승리를 믿는다면 안골에서 반혁명적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맞서서 결정적우세를 보장하자는 이 폭동에 참가하는것이 무엇때문에 위험한것으로 되겠습니까? 위험은 우리가 투쟁에서 소극성을 보이여 적들이 사소한 반항이라도 할수 있게끔 여유를 주는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적타격을 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폭동뒤로 인차 무장습격을 들이대자는 김익보동무와 박두성동무의 제안을 나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가 군중적압력으로 들이대고 무력으로써 놈들을 짓마슬 때 내가 그놈들의

면전에 공개적으로 나타난들 무엇이 위험할것입니까? 그런데 나는 동지들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극력 몸을 삼갈것이며 폭동이 성공할 때까지 내 몸을 로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가능성을 다 리용할것입니다. 동무들, 나의 제의를 다시 토론해주기 바랍니다. 사소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정확하게 관철하려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이 문제를 심중히 고려해주기 바랍니다.》

유철의 발언이 끝나자 장내는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있을뿐 입을 벌리지 않았다. 단 입김만 피여올라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했다. 유철의 말은 너무나 론리정연하였다. 너무나 정확하게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고있었다. 그리고 너무나 열렬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는 가지 말아야 한다고 동지들은 생각하였으며 또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는 가고야 말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것이였다.

역시 무거운 표정으로 장내를 살펴보던 회의 사회자 김기창은 발언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다는것을 확인하자 나란히 앉은 익보와 한두마디 의견을 나누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동지들, 그럼 거수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유철동지의 제의에 찬성하는 동지들은 손을 드십시오.》

천천히 한사람, 두사람 약간 구부정하게 접힌 팔을 푹 수그린 머리우로 쳐들어보이였다. 가볍게 턱을 쳐들고 눈으로 천천히 세여나가던 기창은 마감에 자기도 한절반 팔을 꺾고 쳐들었다.

《내리시오, 반대—》

그러나 이미 쳐들릴 손은 남아있지 않았다. 억지로 찬성하는데 손을 든 회의참가자들은 사회자의 물음에 대해 노기 섞인 맹렬한 기침으로써 대답하였다.

유철은 벌떡 일어났다.

《동무들, 고맙습니다. 나는 동무들의 신임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후 실무적인 토의로 넘어갔다. 각 조직의 협동동작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들을 지었다. 그 뒤끝에 유철은 함께 안골로 들어가게 된 삼덕이와 지성덕이를 따로 데리고 앉아 구체적인 분공을 하였다.

그들 세사람은 저녁 으스름이 내리덮이자 인차 안골로 새여들어갔다.

20

불안한 밤이였다. 한군데서 개짖는 소리가 나면 온 동네 개가 맞받아 짖어댔다. 초저녁부터 불을 켠 집은 없었다. 다만 정희겸이네 집에서만 대청끝이며 보위단사무실앞에 남포등을 내다 걸고 마당에는 우등불까지 황황 피워놓았다. 부엌에서는 안사랑으로,보위단사무실로 연방 술상을 차려들이기에 분주하였다. 대낮부터 아끼시마는 웃동을 벗어붙이고 윤철목이 들고 다니던 가죽채찍으로 잡아들인 사람들을 번갈아 팼다. 조령감의 비명과 두현이며 치복이의 욕설소리가 골목밖까지 울려나온다는것이였다. 그러나 효범이가 바깥으로 내보낸 소식에 의하면 치복이나 두현이는 말할것없고 쌍가매도 일체 조직의 비밀을 대지 않았으며 조령감도 입을 다물고있다는것이였다. 그들에게 아무런 증거도 잡히지 않았으니 결정적으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라는 조직의 지시와 고무가 전달되였다.

동네에서도 그중 안전하다고 볼수 있는 강필재네 집 움속에 들어가앉은 유철은 봉이와 필재로인을 통해 동네사람들의 동향을 이미 료해하였다. 사람들은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가두어 그렇게 매질을 하는데 대해 모두 격분하고있었다. 그런데 초저녁이 되자 자연발생적인 이 격분은 차차로 하나의 조직적인 지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삼덕이와 지성덕이가 벌써 반일회며 공청 기타 조직원들을 통하여 활동을 시작한것이다. 아동단원들과 부녀회원들이 마을돌이를 다니는것처럼 가장하고 레포를 가지고 이 집 저 집으로 드나들었다.

유철은 봉이를 불러 은근히 박병섭로인을 청해오라고 일렀다. 봉이는 이미 전날의 가냘프고 애틋하게만 보이던 눈물의 처녀가 아니였다. 그는 야학에서 초벌 눈을 뜬데다가 이번 검거선풍에는 박두현이가 직접 붙들려가서 고문을 당하고있는만큼 내심 이를 악물고있었다. 필재로인 역시 유철이를 자기 딸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있어서 이런 동네형편에서 그를 감추어준다는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그가 집에 와서 한가하게 누워있지 않으리라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선뜻 그를 받아들여 여름내 비워두었던 움속을 총총히 거두고 깨끗

한 거적을 편후에 기름불까지 켜놓고 그리로 안내했던것이다.

봉이는 죽심이를 찾아가서 유철의 말을 귀뜀하고 돌아와서는 인차 동생을 업고 문전에 나가 서성거리며 망을 보았다. 그리고 삼덕이와 지성덕이에게서 오는 통보를 그때그때 유철에게 전하였다.

이윽고 박병섭로인이 움앞에 나타나서 어험어험 기침을 깇었다. 유철은 방등불아래 펼쳐보고있던 동네인민들의 동향에 대한 통보자료를 얼른 덮고 움의 거적을 들추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로인은 시큼한 김치냄새와 곰팡내가 풍겨오는 움속을 기웃하고 들여다보더니 얼핏 주위를 살펴본후 허리를 낮추 굽히고 안으로 들어왔다.

《이 사람아, 이게 웬일인가? 동네가 소란한데 임자가 여태 여기서 우물거리다니 될 말인가?》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루추한대로 좀 앉으십시오.》

《앉기는 앉겠네만…》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로인은 어쩐지 거북하고 불안한 모양 축축한 움의 벽을 여기저기 더듬어보았다.

《제가 찾아가뵈왔어야 할것을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다닐 형편이 못되다보니…》

《그런 소리는 하지 말게. 헌데 이 사람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저 때려죽일놈들이 어찌자고 갑자기 이 발광인가말일세? 우리 두현이란놈도 잡혀갔네.》

《저도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실은 저도 그때문에 좀 여쭐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오셔달라고 했습니다.》

《내 그럴줄 짐작했네. 헌데 두현이는 비록 내 자식놈이지만 〈주의자〉라니까 저놈들이 혹 잡아가둔다치더라도 거 불쌍한 그 집 머슴이요 부엌데기까지 잡아가두고 천하에 어진 저 방아간집 치복이란 아이를 잡아냈다니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알수가 없네.》

박병섭로인은 도무지 기가 차서 어떻게 말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였다.

《선다님, 그것이 놈들의 본성입니다. 제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자를 리해하지 않고는 조선의 애국자로 될수 없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왜놈들은 두현이가 공산주의선전을 했다고 잡아가두고 다른 사람들은 그 선전을 듣고 딴데 옮겼다고 잡아

가두었습니다. 앞으로 잡자고 벼르고있는것도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놈들은 공산주의자라면 용서없이 잡아서 단두대로 보냅니다. 선다님, 이것을 생각해보십시오. 선다님께서는 하루에도 몇번씩 왜놈들욕을 하지만 아직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철없는 치복이나 쌍가매는 겉으로 그렇게 얌전하게 구는데도 공산주의물이 들어간다고 생각되자마자 잡아가두었습니다. 이것은 선다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혹시 그 애들이 선다님보다 오히려 왜놈들에게는 더 밉고 더 무서운 존재라는것을 말해주는것이 아닐가요?》

《어험, 어험》

로인은 고개를 돌리고 헛기침을 깇었다. 꿋꿋한 그 얼굴표정을 찬찬히 살펴보며 유철은 조금도 늦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것은 선다님께는 지나치게 가슴아픈 말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다님께서는 우리 조선사람들의 철천지원쑤인 일본제국주의가 공산주의자들을 무엇때문에 그렇게도 미워하는가를 아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철천지원쑤가 그렇게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과연 해로운 사람들이겠는가?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는지요? 그런데 공산주의자에 대해 선다님께서도 왜놈들과 꼭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면 그 결과가 과연 우리 나라에 리롭겠습니까?》

《어험, 어험.》 로인은 또다시 헛기침을 깇더니 올방자를 튼 무릎을 삑 돌려놓으며 정색해서 마주보았다.

《그래 임자가 이 밤중에 나를 청한것은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였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돌아가겠네. 임자가 나를 찾는다기에 그래도 속으로 저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뽑아낼 의논을 하자고 부르려니 했네.》

로인은 분연 노하여 손을 후들후들 떨며 마고자앞을 헤치고 담배쌈지를 풀어서 장죽에 담배를 담았다.

유철은 섭거적의 날을 뽑아 방등의 불을 로인의 대통에 붙여주고 태연한 어조로 말했다.

《선다님, 우리도 지금 갇힌 사람들을 뽑아내기 위하여 의논들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온 동네가 다 떨쳐나섰는데 오직 선다님을 위시한 박씨문중의 여러 집과 권사인, 엄형택, 엄기택 그리고 송오준 이러한 분들이 전혀 외면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들을 리해하

지 못하기때문에 그들을 구하는데 나서기를 주저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선다님께 그런 의논을 여쭈고싶어도 선다님께서 전처럼 공산주의를 오해하신다면 의논을 드려봐야 시원한 대답을 하실것 같지 않아서 그 이야기는 뒤로 미룬것입니다.》

박병섭로인은 담배대를 빽빽 빨며 서글픈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곤두선 서리발같은 장미, 긴 눈섭, 이글거리던 푸른 눈은 저으기 서슬이 꺾이여 어떻게 보면 몹시 지친듯한 외양이였다.

《선다님, 조선사람이 오늘날 참답게 사는 길은 왜놈들과 싸우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놈들과 싸우고있는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안골에서만 봐도 왜놈들과 싸우고있고 그때문에 왜놈들의 박해를 받고있는것은 유식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식하다고 생각해오던 머슴군과 가난한 농사군들입니다. 그들은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그 어떤 식자들보다도 더 슬기롭게 조선사람의 참된 길을 걷고있습니다. 이것은 선다님께 깊은 반성을 촉구하는 엄연한 현실이 아닐가요?》

박병섭로인은 그래도 말이 없었다. 그는 담배 한대를 다 태우고나서는 재를 털기가 바쁘게 또다시 담배를 쟁였다.

《이사람아.》 유철이가 다시 담배불을 붙여주자 로인은 그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침중한 어조로 말했다.

《나도 체면이 있고 렴치가 있는 사람이네. 일전에 임자 이야기를 듣고 나도 여러가지로 생각하는바가 많았네. 나라고 미물이 아닌 이상 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겠나? 헌데 이마적에 와서 나도 나이들었다는것을 문득 생각하게 되였네. 젊은이들이 저러고 돌아가는것이 한갖 철없는 사람들의 망동으로만 볼것은 못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 참속을 쉽사리 깨칠수가 없네그려. 허니 나더러 급히 다그치지 말아주게. 내가 마음에도 없이 그저 경우에 몰리여 임자들이 하는 말에 춤추고나설 나이는 못되였네. 헌데 지금 동네에 벌어진 일들을 보고는 나도 참을수 없네. 임자 말과 같이 내가 공연한 고집을 부려서 스스로 원쑤를 돕는 길로 나갈수 없다는것을 나도 깊이 느끼네. 내 임자앞이니 말이지만 내가 비록 오늘에 공산주의를 깨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로 말하면 일생을 통하여 저 김형직선생님의 높은 애국심과 고결한 품성을 흠모하여오던 사람일세. 그런 내가 그분의 자제분께서 나라를 광복할 대업을 벌리신 이때 그분의 령도를 받드

는 젊은이들을 반대한다는것은 사람의 신의를 저버리는것이며 백성된 도리를 어기는것임을 나는 아네.》

박병섭로인은 시름없이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었다. 그의 말투는 점점 가라앉으면서 마치 먼 옛날이야기라도 더듬는듯 잔잔한 가운데 깊은 한이 어려있었다.

《내 아까는 임자 말에 다소 노여운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어찌겠나? 임자 말은 낱낱이 옳고 바르네그려. 내가 심중으로는 이 안골동네 인심을 좌지우지할것처럼 생각하고있었지만 정작 오늘의 일을 당하고보니 내 한사람의 힘으로는 억울하게 붙잡혀간 내 자식놈을 위해서도 능히 말 한마디를 할 형편이 못되였네. 사실 내 자식놈의 일만이라면 사나이가 나라를 위해 일하러 나섰다가 옥중고초를 겪는것도 례사롭다고 보겠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어진것밖에 죄가 없는 촌사람들을 저렇게 무도하게 잡아가두고 란장질을 해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방도가 없단말일세. 천하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데 있겠나! 실은 반년전만 같아도 내가 그 일을 보고 가만있지는 않았을것이네. 비록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후환이 있다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 놈들을 찾아가서 내 마음껏 야료라도 부리고 왔을걸세. 그런데 이번에 내가 부걱부걱 끓는 속을 억지로 달래고 참은것은―》

로인은 잠시 말을 끊고 숨을 톺아쉬더니 마주보기가 거북한듯 한옆으로 좀 돌아앉으며 한결 퉁명스런 목소리로 이었다.

《임자를 내가 믿었던것이네. 그래도 동네에 임자가 있는데 설마 이런 일을 보고 가만히 앉아있지야 않겠지 하고 믿었던거네.》

《선다님, 고맙습니다.》

서로 터놓고 말하기 위하여 일부러 로인의 마음을 격동시켜놓고 주의깊게 그 반향을 살피고있던 유철은 로인의 굳고 곧으면서도 부드럽고 뜨거운 그 마음이 돌아서준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고개를 수그렸다. 로인은 그 퉁명스런 어조로 계속하였다.

《고마울것 없네. 내가 나라앞에 떳떳치 못한것이 오히려 임자들 보기 부끄럽네. 그러니 임자가 나한테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하게. 내 거듭 말하지만 난 아직 공산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일수는 없어. 단지 나는 **김일성**장군님을 믿을뿐이야. 그러니 그쯤 알고 임자가 오늘 무슨 일을 꾸민것이 있으면 그가운데서 내가 할 일몫을 쪼개여내게. 내가 우리 집안사람들과 권사인이나 엄가네 형제, 송생원같은 사람들은 능히

휘여낼수 있으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고 일을 꾸미게.》

유철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안골혁명화에서 가장 힘들었던 마지막아성이 천천히 금이 가고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이 명백한 징조를 눈앞에 두고 그는 새삼스럽게 멀리 계시는 **김일성**동지를 생각하였다. 오늘 박병섭로인의 완고한 마음을 움직인것은 다름아닌 김형직선생님께서 지하에 계시면서도 끊임없이 조선의 앞길에 뿌려주시는 그 애국의 빛발이며 모든 조선의 겨레들에게 미치고있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전사로서 그분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조선의 혁명가로서의 긍지를 뿌듯이 느끼였다.

폭동에 대해 로인은 전폭적으로 찬성하였다. 천명가까이나 되는 안골동네 남녀로소들이 한꺼번에 들고일어나면 그까짓놈들 꿇어앉히기는 식은죽 먹기라는것이였다. 게다가 이웃동네들과 여차직하면 무장대들까지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에 로인은 여태까지의 무겁던 태도를 가신듯이 허물고 젊은 사람처럼 흥분하였다. 만일 놈들이 대표와 만나자고 요구하는 경우에 체포된 사람의 부형으로 방아간집 김득춘이와 함께 마을대표로 나서달라는 부탁도 선뜻 받아들였다. 로인은 기가 돋쳐서 서둘러 일어나더니 그길로 권사인을 찾아갔다.

한편 박병섭로인이 떠나간지 얼마후에 죽심이가 통보를 가져왔다. 김득춘의 방아간 헛간에 잠복해있는 삼덕이가 보낸 그 통보에는 아끼시마가 래일 경찰을 더 불러와서 동네를 뒤집어버리겠다고 취중에 말했다는 효범의 전갈과 래일 폭동때 쓸 구호들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적혀있었다. 폭동준비는 밤이 깊어감에 따라 차차 무르익어갔다. 한밤중에 유철은 래일 폭동의 지휘부로 정해진 방아간으로 봉이를 한걸음 먼저 보내고 자기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그리로 옮겼다.

박병섭로인이 새벽에 돌아왔는데 모든 일이 뜻대로 되여 대단히 만족해하면서 벌써부터 폭동에 나설 차비로 의관을 갖추고있다는 죽심이의 보고가 들어왔다.

폭동기간 유철이의 련락원으로 임명된 봉이는 바람과 같이 어둠속을 누비며 싸움의 시각을 앞두고 긴장되여있는 동네를 소리도 없이 돌아갔다.

욕설과 매질, 질탕치는 주흥으로 잠들지 못하던 정희겸이네 집안도 마침내 괴괴해졌다. 그러자 백리허숱우에 불그레하게 아침노을이 퍼져왔다.

×

안골폭동은 체포된 사람들의 가족과 친척친지들이 음식이며 옷가지들을 들여보내겠다고 정희겸이네 문전으로 하나 둘 모여드는데로부터 시작되였다. 그저께밤부터 아무런 보람없는 취조와 수색,고문때문에 지쳐빠진 우에 약이 오를대로 오른 아끼시마란놈은 물론 그들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초와 경관들이 달려나와 아무리 밀쳐내여도 가족들은 돌아가지 않고 무엇때문에 죄없는 생사람을 잡아가두고 란장질을 한 우에 밥까지 못먹이게 하느냐고 들이대였다. 그러는 사이에 동네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아차할 사이도 없이 앞마당은 군중으로 메워져버렸다. 그리고도 골목마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데 그때는 벌써 조용한 동네사람이 아니라 격노한 폭동군중이였다.

아끼시마가 대노해서 당장 내쫓으라고 소리쳤을 때는 군중들은 노호하는 바다와 같이 술렁대면서 구호를 웨쳤다.

《일본침략자들을 타도하라!》

《민족반역자 정희겸을 타도하라!》

《죄없는 인민들을 내놓아라!》

《왜놈들은 조선사람들 일에 간섭하지 말라!》

《악질보위단을 처단하라!》

고도의 조직성이 느껴지는 군중의 아우성소리를 들으며 아끼시마는 자기의 실패를 뼈아프게 느꼈다. 그는 조령감을 체포했을 때 안골문제는 이미 다 먹어놓은 떡쯤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어수룩하기가 짝이 없어보이는 그 령감의 완강한 저항앞에서 그는 벌써 당황하기 시작했었다. 조령감은 자기가 그 수건을 줏게 된 과정만은 낱낱이 이야기했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모르쇠로 뻗쳤다. 그러고보니 조령감이 이 사건에 뛰여든것은 사건취급과정에 자주 부닥치게 되고 그때문에 한두번만 아니게 골탕을 먹군하는 그런 우연한 시간과 장소의 일치일뿐으로 아무런 실머리도 제공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아끼시마는 그런데 쉽사리 실망해버릴 호락호락한놈은 아니였다. 비록 조령감의 진술이 그에게는 조금도 반가울것이 없었지만 그나마 전혀 쓸모없는것이라고는 단정할수 없는것이였다. 게다가 이미 범인이 확정되나 다름없는

자료가 있고 그때문에 현 경찰서의 계장이하 《똑똑한》 8명의 부하를 한발 앞서 안골로 떠나보낸만큼 거기서 뜻밖의 수확이 있을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혹시 현장수사나 심문과정에 무슨 참고라도 될가 하여 조령감을 끌고 부랴부랴 안골로 달려왔던것이다. 그런데 안골은 꿩 구워먹은 자리였다. 삼덕이나 지성덕이는 말할것 없고 칠성이까지 도망치고 없었다. 아끼시마는 약이 오를대로 올랐다. 닭쫓던 개 울 쳐다보듯이 멍청히 앉아있는 부하들을 내몰아 닥치는대로 사람들을 잡아들이였다. 그러나 심문은 물론 신통한 결과가 없었다. 전에는 정희겸이나 화월이한테 매를 맞고도 엄살을 요란스레 피우던 그 맹물단지갈던 쌍가매마저 완강한 침묵으로써 모든 심문과 고문과 위협에 대답했을 때 아끼시마는 비로소 든든히 걸려들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가 약이 오른김에 선불을 질러놓은것을 후회했으나 이미 돌이킬 방법이 없었다.

아무리 수습책을 짜내여봐도 신통한 수가 떠오르지 않자 새로운 약이 오른 아끼시마는 내친김이니 안골을 아예 싹 쓸어버릴 작정을 하였다. 아침에 체포한자들을 현성으로 올려보내고 뒤이어 새로 경관대를 증원하여 전부터 주목해오던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내고 동네를 싹 불질러버리리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아침도 먹기전부터 인민들쪽에서 먼저 반격해나선것이다.

아끼시마는 무력으로 군중을 내쫓으려고 하였으나 폭동군중의 기세가 점점 높아가는바람에 부득불 후퇴하여 이번에는 그런중에도 대체 어떤놈이 주동분자인지 알아낼 겸 계장을 내보내여 대표를 만나자고 하였다. 처음엔 대표가 없다고 뻗대더니 이쪽에서 대표가 없이는 일을 수습할수가 없다고 우기자 나타난것이 박병섭로인과 방아간집 김득춘이였다. 박병섭로인은 의관을 갖추고 어엿하게 나서서 자기는 무슨 대표가 아니라 죄없이 잡힌 사람의 부형으로서 이 무도한 폭행에 대해 항의하러 왔노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는 추상같이 꾸짖으면서 당장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호령하였다. 아끼시마는 문전을 포위하고 웨쳐대는 군중의 드높은 기세와 박병섭의 욕을 꾹 참고 견디며 이 격렬하면서도 정연한 폭동군중속에 반드시 끼여있을 주동분자를 골라내고 어떻게 하면 저 군중속을 빠져나가 현성과 련락을 취하여볼가 하고 궁리하면서 담판을 질질 끌고있었다. 이때 그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준 새로운 폭동대렬이 큰개쪽에서 밀려왔다. 큰개의 폭동대렬은 커다란 프랑카드를 앞세우고 왔는데 거기에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라!》

일제를

고 큼직하게 씌여있었다. 뒤미처 가마골쪽에서도 가재울쪽에서도 대마치쪽에서도 멀고 가까운 모든 이웃동네에서 몽땅 떨쳐나섰다. 이것은 아끼시마이하 대문속에 갇혀있는자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었고 안골인민들에게는 새로운 투쟁의욕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간밤까지도 그렇게 기승스럽던 경찰, 보위단놈들이 벌벌 떠는것을 눈앞에 보고 단결의 힘, 투쟁의 힘의 위대함을 느꼈다. 그리하여 이웃동네 사람들과 한데 휩쓸린 폭동군중들은 무섭게 기세를 돋구었다.

포대에 올라가서 이런 광경을 낱낱이 내려다본 아끼시마놈은 이 부근에서 활동하고있는 공산주의자가 결코 간단한 인물이 아니라는것을 사무치게 깨달았다. 그는 다시한번 선불질을 한 자기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면서 사람들의 석방을 승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정희겸이네 문전에서는 감격적인 상봉이 벌어졌다.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도 폭동대렬은 인차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참 구호를 웨치고 시위를 한후에야 각각 자기 동네쪽으로 질서정연하게 물러갔다.

아끼시마는 이를 갈면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현성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바로 그날밤 잔뜩 공포에 질려있는 정희겸이네 집에 무장습격대가 들이닥쳐 두번째 타격을 가했다. 박두성이 인솔한 10명의 무장대원들은 리효범이 열어준 대문으로 감쪽같이 새여들어 일시에 포대와 보위단사무실을 들이침으로써 저항하는 보위단원 한명을 쏘아죽이고 11명을 사로잡았으며 나머지는 윤철목이가 데리고 정희겸이 내외를 수채구멍으로 밀어내여 현성으로 도망치고말았다.

이 사건은 안골인민들에게 다시한번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조직에서는 무장대를 철수시키면서 반드시 있을수 있는 적들의 복수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은 물론 일반청장년들과 주목받고있는 집안사람들은 몽땅 숲속으로 피난시키자고 하였으나 동네사람들은 이제는 왜놈쯤 무섭지 않다고 하는바람에 그들을 설복하기가 여간 힘에 겹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은 다 숲으로 보내거나 큰개로 옮겨앉혔다. 안골청년들중 투쟁속에서 검열된 김삼덕, 김치복, 지성덕, 쌍가매가 영예롭게도 무장대성원으로 추천되여 숲으로 떠나갔고 박두현, 리효범이도 뒤따라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

정희겸이의 뒤를 따라 나머지 두 지주들도 총총히 이사짐을 꾸리고 도망쳐버렸다. 안골은 폭풍이 지나간 뒤와 같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21

가와사끼소장이란놈은 격검을 좋아하였다. 검도4단으로 륙사시절에 신궁외원(神宮外苑)에서 열리는 《어전시합(御前試合)》에 출전한적도 있었다. 그에게 검도를 가르친것이 다이사꾸였다. 그는 병영안에 큼직하게 꾸린 무덕전(武德殿)이 완성되자 다이사꾸를 청해다가 성대한 락성식을 하고 그 뒤끝에 시합을 조직하였다. 성과 현내의 모모한 인사들이 다 모이고 경찰이나 성공서, 현공서의 일본관리들속에서도 검도나 유도선수들이 나와서 시합을 하였다.

래빈석에 나란히 앉은 다이사꾸란놈은 전이나 다름없이 시합에 열중해버렸다. 한창 백열전이 벌어질 때면 곰처럼 잔뜩 웅크리고 앉아 숨소리를 죽이고있었다. 현경찰서의 검도지남(指南)이라는 경부와 헌병대의 젊은 중위간의 시합이 가장 치렬한 싸움이였다. 두사람 다 3단이라고 하지만 실력은 4단 내지 5단을 쳐도 아깝지 않을만하였다. 검도지남의 몸가짐이나 칼 쓰는 솜씨는 로련한데가 있다면 헌병중위놈에게는 패기가 있었다.

《자고로 검이란 넋을 무겁게 보는거야.》

두 선수가 으르고있는것을 보고 다이사꾸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시합을 곧잘 하다가도 정작 진짜를 잡고보면 맥을 못추는 위인들이 많거던.》

《옳은 말씀이올시다. 륙사시절에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와사끼소장놈은 어떻게 하면 이 령감을 한번 시합장에 끌어내볼가 하고 속궁리를 하면서 다이사꾸가 좋아함직한 말을 고르기에 힘을 썼다.

시합장에서 짝— 짝— 하고 대꼬챙이칼이 맞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시꺼먼 쇠탈바가지를 뒤집어쓴 선수들의 단 입김이 래빈석에까지 풍겨왔다. 솜을 두고 갑옷처럼 누빈 검도복의 목덜미가 축축히 젖어들었다. 빡빡 깎은 중대가리에 치마같은 검도복아래도리만 두른 늙은 장교놈이 심판을 보느라고 땀을 발발 흘리며 연방 게걸음을 치고있다.

헌병중위놈은 맹렬한 기세로 적수를 몰고나가더니 불의에 적수가 《야—》하고 한소리 크게 지르며 목덜미를 역습해오는바람에 위태롭게 뒤로 비칠거렸다.

《하하하.》 다이사꾸는 온 강당이 다 울리게 한바탕 웃고나서 가와

사끼에게 말했다. 《아직 어리군. 저 사람한테서 검도를 배우다가는 백리허의 경찰은 모두 무골충이 되고말겠어… 하하하.》
《아니 저, 누구말인지요?》
가와사끼는 잠시 시합에 정신이 팔려있었기때문에 다이사꾸가 어리다고 말한것은 응당 아직 젊어서 약간 무모하게 덤비다가 역습을 당한 헌병중위를 가리킨것이려니 짐작했는데 왕청같은 경찰이야기가 나오고보니 뗑해서 되물었다.
《좋아 좋아, 검도란 본시 적을 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숭상해온 무술이야. 저렇게 막는것만 위주로 하고 틈을 엿보고도 결정적으로 숨통을 지르지 못하는것은 근본 검도정신이 없거나 어린 탓이거던.》
《하, 과시 고견이올시다. 우리 저 중위는 어떻습니까?》
가와사끼는 려단에서는 유일한 자기 적수라고 볼수 있는 젊은 중위놈에 대해 가벼운 질투를 느끼며 넌지시 물었다.
《저것? 흥.》하고 다이사꾸는 일부러 칼자루지팽이를 들어 헌병중위를 가리켰다. 이때 중위는 《야—》《야—》하고 쨍쨍한 목소리로 웨치며 다시 적수의 면상을 후려치고있었다.
《네, 우리 려단에서는 그중 유망한 청년가운데 한사람이올시다만…》
《하하하, 좋아, 좋아. 자네네 려단에서 저런 아이가 유망한가? 하하하, 제국의 무사도도 이젠 쇠퇴했군. 아무튼 좋아, 하지만 우리 아끼시마의 비수 한자루면 저런 아이는 하루밤에 스무명도 더 요정낼수 있을거야, 하하하.》
다이사꾸는 야유인지 치하인지 아니면 개탄인지 모를 소리를 중얼거리면서 제멋에 겨워 웃어제꼈다.
가와사끼는 기분을 잡쳐버렸다. 내심 그는 당신이 그처럼 추켜세우는 아끼시마가 최근 안골에서 연출한 추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팔자수염을 꼬며 잠자코 앉아있다가 깍듯이 차잔을 다이사꾸에게 권하였다. 그는 그러한 훌륭한 자제력으로써 륙군소장이라는 자리를 벌어낸놈이였다.
《가와사끼군.》 다이사꾸는 상대의 기분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불렀다.
《내가 오늘 군의 부하들 정신상태를 보니 가히 국경수비의 빈틈이 어디에 있는가를 짐작할만하네.》
《하, 황송하올시다.》

가와사끼는 인형처럼 고개를 까딱 조아리며 앉은채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온통 빈구석투성이야. 목줄띠가 위험하다고 보면 다음 순간은 옆구리에 틈이 생기지, 그것을 막는가 하면 면상에 칼이 떨어지네그려. 이것이 곧 군이 지휘하는 부대의 상태야. 엊그제 백리허일판에 공산당이 박혔다는 말이 떠돌더니 벌써 오늘은 거리에, 숲속에 그들이 득실득실하고 지어는 폭동이 일어나고 무장습격을 감행하는 판이거던. 그런데 이 숱한것들이 다 어디서 생겨났겠나? 이것이 모두 군의 부대의 그 빈틈을 타고 저쪽에서 넘어온단말일세.》

《하, 헌데…》 가와사끼는 자기가 부임한지 얼마 오래지 않다는 점과 지금까지 료해한데 의하면 특별히 눈에 뜨일만큼 국경수비에 소홀한 점은 발견할수 없었다는 점을 조심스레 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이사꾸는 틈을 주지 않았다.

《대체로 검이란 잔재간보다는 정신수양을 존중하는것이야. 제국의 〈생명선〉인 이 대륙을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몸바쳐 싸우다가 한목숨 죽어지면 씨베리야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이 광야에 돌을 베개삼아 누워 영원의 대의에 살겠다는 일본남아의 정신을 기르는것이야말로 곧 오늘날의 검도정신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거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틈이 많아, 틈이 많단말이야.》

다이사꾸란놈은 차잔을 들어 가볍게 입술에 갖다대고나서 널다란 소매속에서 겹겹이 접은 새하얀 휴지를 꺼내여 입언저리를 훔쳤다.

가와사끼는 숱한 부하들과 유지, 명사들이 있는 앞에서 다이사꾸의 훈계를 듣는것이 거북하였다. 그는 검도시합에 정신이 팔린듯한 외양을 지어보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화제를 다른데로 돌릴가 하고 궁리하였다.

출입구로 키가 커다란 사나이가 들어왔다. 회색가을외투의 깃을 높이 일으켜세우고 쇠똥벙거지를 푹 눌러쓴 아끼시마란놈이 주머니에 손을 지른채 권연을 입귀에 물고 질겅질겅 씹으면서 대모테안경알너머로 《무덕전》안을 직업적인 날카로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천천히 걸어왔다.

《아, 아끼시마군.》 가와사끼는 아끼시마가 비록 한개 경무청의 부과장나부랭이기는 하지만 관동군사령부와 《흑룡강동지회》의 2중특무라는것을 아는만큼 내심 달갑지 않았으나 그만큼 반가운 태를 지었다.

아끼시마란놈은 뱀과 같이 소리없이 다가오더니 가볍게 인사를 하고 한손은 옆차기에 찌른채 한손으로는 종이장 하나를 다이사꾸의 책상앞

에 내놓았다.

《뭔가？ 이건…》

다이사꾸는 종이쪽지를 집는것과 함께 아끼시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끼시마는 선선히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한창 면상을 맞고 뒤로 비칠거리는 검도선수를 바라보고있었다.

《응？》 종이쪽을 들여다보던 다이사꾸란놈은 불시에 으르렁거렸다. 《유철이란자가 여기에 나타났단말인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 유철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끼시마는 여전히 백열전이 벌어지고있는 강당 한복판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했다.

《안골에서 사라진 칠성이라는 마부도 바로 유철이라는것이 판명되였습니다. 물론 안골폭동도 그자가 조직한것이지요.》 여기서 아끼시마는 으드득 어금이를 한번 갈고나서 계속했다. 《어제 가재울에서 압수한 회의록에 의하면 유철은 **김일성**에 의해 하강지구에 파견되였습니다. 백리허의 모든 혁명조직이 그에 의해 지도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불온문건이 신통히도 조만국경지대의것과 같은것입니다. 여기에 코민테른의 영향을 운운하는것은 서푼짜리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자식！》

다이사꾸는 벌떡 일어났다.

《유철이란자를 놓친것은 전적으로 너의 실책이다.》

아끼시마는 푸들푸들 떨리는 다이사꾸의 아래볼을 슬쩍 곁눈질해보고나서 여전히 쌀쌀한 어조로 대답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전 각하의 지시대로 아이놈들을 내보냈는데 각하나 제가 생각하는것보다 그들이 좀더 령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의 요설을 참을수 없다.》

다이사꾸는 칼자루지팽이로 마루바닥을 한번 쾅 구르고나서 손에 쥐고있던 유철에 관한 자료의 속기를 꼬깃꼬깃 꼬개서 태질을 하였다. 그리고는 소매를 떨치고 앞으로 나가며 명령조로 말했다.

《가와사끼,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야겠다. 함께 가자.》

총총히 뒤문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등뒤에서 《야—》하고 대나무격검채로 적수의 목줄기를 지르는 선수의 웨침소리가 울렸다. 꽝 하고 한 선수가 마루바닥에 나가떨어졌다. 박수소리와 함께 함성이 터져

올랐다.

아끼시마는 다이사꾸가 비벼던진 종이쪽지를 아무도 몰래 슬쩍 집어서 입에 넣고 담배와 함께 질경질경 씹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뒤문으로 사라졌다.

직통경비전화앞에 선 다이사꾸는 조카에게 사태를 보고했다.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지로는 뜻밖에도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다이사꾸는 아끼시마란놈이 벌써 먼저 보고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아끼시마는 창가에 기대서서 노랗게 핀 국화송이에다 담배재를 툭툭 털어넣고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그때문에 내가 방금 간도로 떠나려는 길입니다. 유철이를 잡으십시오. 그대신 크게 소동을 피워 그들이 딴곳으로 내뛰게끔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백두산일대를 평정할 때까지 상하강지구는 평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와사끼의 전력량을 다 투입하더라도 그들을 멀리 포위해서 밖으로 새여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버려두십시오. 그러되 유철이란자는 개별적으로 잡아보십시오. 어쨌든 그자들이 그 포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서 그 영향이 멀리 미치지 않도록만 해놓았다가 국경지대를 평정한 다음에 일거에 소탕해버리면 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사태가 아닙니다. 그들도 지하조직을 꾸리고 근거지를 닦는 등으로 장구책을 쓰는만큼 우리도 장구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코민테른의 영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포위진안에서 그들이 자유롭게 날뛰도록 방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백두산일대와 련계가 지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노무라주임참모란놈은 이미 준비해둔듯이 자기 견해와 사령부의 방침을 류창하게 말하고나서 가와사끼소장과 전화를 바꾸라고 하였다.

노무라 다이사꾸는 사태가 사태인것만큼 조카로부터 거북한 잔소리를 들을것으로 각오했었는데 뜻밖에도 온화한 목소리로 말하기때문에 일단 마음을 놓았다. 역시 공산로씨야로부터의 영향문제를 중시하는 방침을 세운것은 고지로자신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기때문에 남을 추궁하기가 만만치 않을것이라는 락관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가와사끼에게 수화기를 넘겨준 다음 순간 저쪽에서 울리는 추상같은 호령소리를 듣자 노무라 다이사꾸의 거치른 낯가죽은 질렸다.

《가와사끼인가？》
노무라참모는 륙군소장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다.
《하！》
영문도 모르는 가와사끼려단장이란놈은 팔자수염이 꿋꿋해지도록 자세를 바로잡고 섰다.
《뭘하고있는가？》
수화기가 바르르 떨렸다. 무엇인가 연방 웨쳐대는데 틀림없이 상욕으로 짐작되는 그 말마디들은 너무나 급하게 기관총처럼 내뿜는바람에 분간할수 없었다. 가와사끼란놈은 얼굴이 창백하다못해 까맣게 죽어서 입술을 파들파들 떨었다.
《하, 저는 오직…》
《하, 제께 물론…》
《하, 제가 어찌…》
가와사끼는 한마디의 말도 온전하게 맺지 못한채 서서 마침내 다리를 떨기 시작하였다. 밭은 이마에 내천자를 그린 주름살을 타고 식은땀이 굴러떨어졌다. 반백이 다 된 짧게 깎은 머리칼이 눈앞에서 하얗게 세여가는듯하고 그에 따라 가뜩이나 체소한 가와사끼의 몸매는 쬐꼬만 난쟁이가 돼버린듯하였다. 오직 그의 어깨우에서 넓다란 금빛견장이 야유적인 위엄을 돋구고있었다.
아끼시마란놈은 노랗게 핀 국화송이를 담배불로 지지고있었다.
노무라 다이사꾸는 가와사끼의 봉변이 전적으로 자기에 대한 조카의 화풀이라는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러자 밸이 울컥하였다. 제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내가 코민테른의 영향을 걱정했을 때 왜 딱 자르지 못했단말인가？
《야！ 그 못된 장난 좀 그만두지 않겠느냐！》
노무라 다이사꾸는 아끼시마를 보고 승냥이처럼 울부짖었다.
아끼시마는 시뻘겋게 피가 오른 노무라 다이사꾸의 얼굴을 피뜩 바라보더니 드르륵 창문을 열고 담배꽁초를 손가락끝으로 툭 튀겼다. 빨갛게 불달린 담배가 반반하게 쓸어놓은 병영마당에 떨어져서 가물가물 연기를 피워올렸다. 아끼시마는 이제는 네가 안골에서의 나의 실패를 가지고 시비를 캐지는 못하리라 하고 생각하였다.

22

회의가 끝난것은 11시가 지나서였다. 회의참가자들이 하나하나 지하실을 빠져나갈 때마다 바깥에서 우— 우— 거리를 휩쓸고 달리는 눈보라소리가 들려왔다.

《아이, 난 정말 오늘 기뻐요.》

로채숙이는 소녀처럼 얼굴이 빨개가지고 회의장 뒤수습을 대충 하고는 유철의 털외투를 벗겨들고 말하였다.

《채숙동무가 정말 수고를 많이 했소. 이제 현성에까지 부녀조직이 꾸려졌으니 하강의 부녀들이 모두 혁명에 떨쳐나서게 될게요.》

《사실 난 오늘저녁 못오시면 어찌나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의식수준이 낮아서말이예요, 오늘 유철동지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온 사람도 없지 않아요. 사실 그래요.》

《하하하, 내가 무슨 미끼처럼 리용된 셈이군. 좌우간 좋소. 그들을 알뜰히 보살피고 잘 키웁시다. 채숙동무가 여기 아지트일만 봐도 바쁘겠는데 조직일까지 보자니 힘들겠소. 이제 형편 봐가면서 누굴 더 내보내도록 해보겠소.》

유철은 정미소 안주인틀이 푹 잡힌 채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적구의 중심현성의 한복판에 깊이 잠복해있는 지금에 와서 날카로운 정황과는 어울리지 않을만큼 여유가 생기고 일을 실속있게 처리해나가면서도 부드럽고 아련한 외모를 유지하고있는 채숙이가 유철에게는 기적처럼 생각되였다. 이태전 처음 만났을 때의 채숙이, 원칙 하나, 혁명성 하나밖에 모르던 그 강마른 정서의 소유자이던 채숙이를 아무리 상상해내려 해도 허사였다. 눈앞에는 능숙하게 부녀들의 회의를 지도하고 낮에는 벼가마니나 쌀포대속에 들어있는 화약이며 무기같은것을 감쪽같이 비밀장소로 옮겨보내고 모든 조직들로부터 오는 통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발송하는 등 힘겨운 사업을 하고서도 이렇게 생활에 대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차있는듯한 아름다운 현실의 녀인이 떠오를뿐이였다. 그의 갸름한 얼굴에는 지성만이 아니라 혁명의 정열이, 미래에 대한 꿈이 넘쳐흐르고있었다.

널사닥다리를 타고 우로 올라가려던 채숙은 유철이가 앉은채로 담배를 태우고있는것을 보자 한발 올려놓았던 다리를 도로 내려놓으며 웃었다.

《무척 담배가 피우고싶었던거지요? 정말 부녀들의 회의에 참가하시면 불편하시겠어요.》

《불편할게 있소? 하긴 오늘은 조직을 내오는 날이니 할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녀조직은 녀성들이 보는것이 좋을것 같소.》

《그것 보세요. 좀 거북하지요? 그런데 난 언제 숲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건 나도 모르오. 채숙동무가 여기서의 공작보다 숲에서 더 필요하게 될 때…》

《그건 누가 판단하지요?》

《그건 조직에서 판단하오.》

《알겠어요. 나도 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나자신이 여기서보다 숲에서 더 잘 일할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할수 있겠지요?》

《그야 물론.》

《정말 유철동지는 사정이 없군요. 하지만 좋아요. 난 사정을 보아달라고 하지는 않을테예요. 어서 올라가세요.》

채숙은 다시 한발을 사닥다리에 올려놓으며 독촉했다.

《채숙동무, 난 돌아가야 하오.》

《돌아가다니요?》

채숙은 뜻밖이라는듯이 되물었다.

《숲으로 돌아가야 한단말이요.》

채숙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긴장어린 시선으로 유철을 바라보았다. 유철의 넓은 이마우에 둬오리 머리칼이 드리웠다. 가는 피줄이 진 눈에 피로가 력력히 어리여있다. 안골에서 돌아와서 두달나마 되였지만 현성에 나와있는 채숙이도 그가 한낮 한밤도 쉬지 않고 줄곧 사처로 다니며 조직을 꾸리고 꼬지개섬에 돌아가서는 무장대의 학습을 지도하고 손수 무장탈취투쟁에도 참가한다는것을 알고있다. 무엇때문에 이 밤중에 돌아가야 하는가? 무엇때문에 책임자라고 해서 하루밤쯤 편안히 쉴수 없단말인가?

《지금은 돌아갈수 없어요. 거리는 요즘 삼엄해요.》

채숙이는 마치 이태전 큰개에서 만났을 때처럼 싸늘하고 실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알고있소.》

《동지의 몸은 개인의 몸이 아니예요. 지금 상하강지구의 모든 경찰, 헌병, 특무기관들에 동지를 체포할데 대한 지명수배가 돌았어요.》

《나도 알고있소. 하지만 내가 그때문에 여기서 가만히 엎데있다면 그들이 나를 잡자고 그렇게 미쳐날뛸 까닭이 어디 있겠소?》

채숙이는 새하얀 웃이로 아래입술을 가볍게 깨물었다.

《성문은 겨울엔 10시면 닫겨요. 어떻게 성문을 나가겠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소. 그러나 나는 가야 하오.》 채숙이는 고개를 돌렸다. 어쩐지 오빠와 같이 위하고싶은 자기의 성의가 짓밟히는것 같아 서운하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순간이였지만 별로 길게 느껴졌다.

채숙은 홱 몸을 돌려 유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말해보세요. 무엇때문에 이 밤중에 모험을 해서 성문을 빠져나가고 70리나 되는 무인지경을 돌아가야 하는지… 밖에는 무섭게 눈보라가 치고있어요. 길을 잃을수도 있고 얼어죽을수도 있어요. 기어코 돌아가셔야 할 리유를 나에게 설명해주세요.》

《지하공작원은 그런것을 묻는것이 아니요.》

유철은 미소를 띠고 조용히 대답하고나서 팔을 뻗쳐 채숙의 손을 쥐였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채숙동무, 나를 념려해주는 동무의 마음은 알겠소. 그리고 그것이 진심으로 혁명의 승리를 바라는 마음이라는것을 알겠소. 그러나 나는 돌아가야 하오.》

《그 까닭을 말해주세요. 난 아지트의 책임자로서 자기의 상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채숙은 손을 뽑으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까닭은 이렇소.》

유철은 조용히 말했다.

《난 래일아침 무장유격대원들에게 우리가 장차 선포하게 될 항일유격대의 성격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전해야 하오. 이 강의는 여태까지 계속해온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대한 마지막 강의요. 그렇기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강의를 계획한 시간에 보장해야 하오.》

눈빛과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뜨거운 계급적우애의 정이, 혁명적동지애의 불꽃이 어둑시근한 지하실을 채우고 비치는듯하였다.

《알겠어요.》

채숙은 결단성있게 사닥다리를 올라가면서 말했다. 《잠간 기다리세요. 성문은 내가 나가게 해드려요. 이건 내 책임이예요.》

유철은 채숙이가 놓고 간 털외투를 입고 잠시 기다렸다. 이슥고 지하실뚜껑이 다시 열리더니 채숙이가 콩콩 사다리를 구르며 내려왔다.

유철은 저도모르게 눈을 흡떴다.

채숙은 귀부인처럼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왔다. 새까만 돈피외투에 새하얀 털목도리를 두르고 악어가죽손가방을 들었는데 목도리짬으로 양단저고리 앞자락이 드러나보였다.

《눈보라속을 가자면 귀를 얼구겠어요. 이 모자를 쓰세요. 어울릴거예요.》

채숙은 한손에 들고 온 수달피모자를 내주었다.

잠자코 모자를 받아쓴 유철은 채숙의 세심한 보살핌에 저도모르게 찌르르해지는 가슴을 달래며 롱조로 말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정미소주인이 되는거요?》

《그래요, 이제 마차를 메우게 했어요. 우린 하는수없이 서문으로 빠져나가야 해요. 서문으로 나가면 20리이상 돌지만 이 시간에 나갈수 있는 문은 그 문밖에 없어요. 거기 책임자가 우리 조직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이예요. 전화를 걸어놨으니깐 문제가 없어요.》

지척을 분간할수 없게 눈보라가 휘몰아치고있었다. 날씬한 두필의 말은 연신 고개를 휘저으며 눈보라속을 경쾌하게 달려갔다. 풍막을 두드리는 눈보라, 간간이 울리는 다정한 말방울소리, 쌍두마차는 성문을 벗어나 황량한 벌판으로 나갔다.

등받이에 깊숙이 묻힌 두사람은 털외투소매에다 손들을 찌르고 묵묵히 눈보라치는 앞길을 바라보았다.

마부는 한절반 허리를 일으키고 채찍을 휘둘렀다.

《길이 묻히겠습니다. 곧장 내몰랍니까?》

마부는 팔소매로 볼을 쳐갈기는 눈보라를 막으며 얼굴을 돌려대고 웨쳤다.

유철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채숙은 기다란 눈섭을 모으고 유철을 곁눈질해보더니 말했다.

《그냥 가세요.》

쩍— 쩍— 채찍소리가 눈보라를 휘갈렸다.

《저 동무는 여기 길에 퍽 익어요. 그대로 나와 함께 가면 안되겠어요? 래일아침 일찌기 떠나오면 될텐데요.》

채숙은 소심한 눈매로 유철의 낯색을 살피며 물었다.

《채숙동무,그런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난 동무를 이런 밤중에 데려내오는것이 안됐소. 우린 저 앞 첫번째 객주집 못미처서 헤여져야 하오. 동무는 그 길로 아지트로 돌아가야겠소. 래일새벽에 군량마차가 가닿을 때 동무는 현성의 동무들이 피로써 얻어낸 그 총과 화약을 숲으로 보내야 하오.》

《하지만 거기서도 숲까지는 50리가 넘어요.》

《난 저 동무를 좀 아오.》

유철은 여전히 엉거주춤해서 공중에다 대고 채찍을 휘두르는 마부대의 씩씩한 젊은이를 눈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며칠전에 저 안명길동무가 물자를 싣고 왔댔소. 이야기도 해보았소. 지하공작에 능숙한 동무요. 헌데 내가 이곳 지형에 대해 저 동무보다 더 잘 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소. 나도 이 길로 반년이나 목재판의 말파리를 끌고 다녔으니깐… 어떻소? 허허허,이만하면 나를 믿겠소?》

《유철동지.》

채숙은 바싹 붙어앉으며 속삭였다.

《제발 몸을 조심해주세요. 그러다 누우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린 유철동지가 안골에 계실 때 그런 문제를 토의한적이 있어요. 우리 하강의 혁명가들에게는 직접 과업을 받지는 않았지만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주신 동지를 호위할 책임을 그이로부터 받고있는 셈이라구요.》

《내가 어지간히 동무들에게 떨떨하게 보인 모양이요. 사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이 너무나 급해서 조건을 잘 지어주지도 못하고 힘든 과업들을 훌훌 내맡기는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앞선단말이요.》

《별말씀을 다하세요. 지금 조건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혁명을 하자고 나섰지만 앞길이 막막하던 그때의 괴로움에 비기겠어요? 아이, 참 그런데 점점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네.》

사태가 진것처럼 눈더미가 쳐들어왔다. 길가에 늘어선 나무들은 백발이 돼버린 가지들을 산산이 풀어헤치고 울부짖었다. 그 밑그루는 이미 눈더미에 묻혀버려서 별로 깡뚱해보이건만 그래도 사정없이 휘청

거렸다. 엇비듬히 내리덮치는 눈보라가 곧장 마차안으로 쳐들어왔다.
《시원하오, 난 이런 밤이 좋소. 가끔 이런 눈보라속으로 무턱 광야를 내닫고싶은 생각이 솟구치군한단말이요.》
《어린애같군요. 호호호…》
《참 어린애가 돼보고싶소. 이놈의 더러운 세상이 내 가슴에 뿌려놓은 재를 쓸어버리고 새하얀 눈으로 덮어주었으면 좋겠소. 그럼 난 지금보다 좀 더 잘 살아볼 자신이 있소.》
《어떻게요?》
《처음부터 **김일성**동지의 전사로 조선혁명의 한길을 곧장 걸어가겠소.》
《지금은 그렇지 않는가요?》
《그러나 이미 놓쳐버린 시간이 많소. 헛되이 랑비한 정력이 많소. 그리고 잃어버린 생활이 너무나 많소.》
유철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다시 어린애가 되여 잃어버린 그 모든것을 다시한번 가지게 된다면…
《유철동지에게도 무슨 슬픔이 있는것이 아니예요?》
로채숙은 잠시 주저주저하다가 물었다. 유철은 가슴이 저릿하였다.
《나한테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한테라고 슬픔이 없겠소? 하지만 나한테 무슨 특별히 남다른 슬픔이 있는것은 물론 아니지요. 눈보라가 괜히 사람들의 마음을 비장하게 만들뿐이요.》
《정말 그래요. 이런 밤 눈보라속을 달린다는것이 어쩐지 뜻깊게, 아름답게 느껴져요.》
첫번째 객주집은 이미 가까이 있었다. 그러나 우—우— 아우성을 치며 휘몰아치는 눈보라속에서 객주집의 등불도 기발도 눈으로 가려볼수는 없었다. 어림짐작으로 마차를 세우니 희미한 불광이 새여나오는 덧문이 지척에서 덜컹거렸다.
《기어코 가시겠어요?》
《잘 있소. 동무의 희망을 조직에서 토론해보도록 하겠소.》
유철은 몸을 일으키기전에 이렇게 말했다.
《고마와요. 저 아까 성난것을 잊어주세요.》
《아까 성냈던가? 하하하, 난 성낸줄도 몰랐는데 괜히 깨우쳐주는군. 잘 있소. 숲에서 부를 때까지 조심해서 공작을 잘해주오.》

날파람있게 눈구뎅이에 뛰여내린 유철은 안명길의 등을 툭 쳤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웅크린채 마부대에 앉아있던 젊은이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수고했소.》

《나으리, 천만에요. 헌데 저 조심하십시오.》

《허허허, 명길동무, 동무의 희망도 토의해보기요. 잘 있소.》

《유철동지, 고맙습니다. 몸조심하십시오.》

눈보라, 눈보라, 광야에 울부짖는 눈보라.

유철은 눈보라 휘몰아치는 광야를 홀로 걸어갔다. 우—우— 이리떼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드는 눈보라속, 무인지경 광야를 그는 홀로 걸어간다. 길을 아는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길을 아는것이 여기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길자체가 눈보라에 묻혀버렸다. 밝은 대낮에도 아무런 표적이 없는 막막한 천지에 가뜩이나 지금은 자정이 기운 한밤중이다. 길은 고사하고 지어 하늘과 땅사이도 구분 안된다. 제손끝 제발끝조차 보이지 않는다. 오직 천지간에 눈보라만 한가득 들어차있었다.

유철은 무슨 표적을 대고 걷는것이 아니였다. 이제는 너무나 많이 다닌 길이였다. 비단 마차군으로서 다녔을뿐만아니라 안골에서 나온 후에도 큰개에서 가막골로, 가재울로, 삼인가로, 현성으로 한시도 쉬지 않고 쉬임없이 걸은 길이였다.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를 지도하고 련락을 접수하고… 그러한 과정에 나날이 억세여지고 자라나는 혁명의 싹을 기쁨에 차서 느끼며, 바라보며 걷던 길이였다. 때로는 눈구뎅이에서 잠들기도 한 길이였다.

유철에게는 이러한 길이 이날밤에만 있는 유난스러운 길도 아니였고 특별한 걸음도 아니였다.

그는 평범하게 걸어갔다. 가슴은 온화하였다. 눈보라가 목덜미에 새여들면 차거웠다. 그러면 천천히 털외투깃을 더 꽉 여미고 좀더 어깨를 수그리고 걸었다.

두번 눈구뎅이에 묻혔다. 허방을 밟은것이다. 딩굴고 보니 촘촘하던 나무그루가 거기만 유난히 비여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빌어먹을.》

유철은 혼자 중얼거렸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라고 그것도 못가려봤군.》

다시 나무정수리를 겨냥하여 걸었다. 그러나 방금 스스로 화를 낸

그 생각이 또 머리속에 갈마들었다.

끝없이 이렇게 걷노라면 언젠가 아이가 있는데로 가닿을것이다. 내가 가닿을 때쯤 되면 현아도 퍽 컸을테지. 이런 눈사람같은 애비가 불쑥 나타나면 그 애는 손벽을 치며 눈팔매를 치자고 달려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아는 어쩌면 나를 못알아볼지도 모른다. 순간 외삼촌의 무릎에 앉아있던 현아의 겁에 질린 눈동자가 총알처럼 가슴에 박혀왔다.

그 순간 유철은 또다시 눈구뎅이에 파묻혔다. 눈구뎅이에 파묻힌채 싸늘한 눈가루에 볼을 대고 엎드려있었다.

눈보라는 기승을 부리고 몸은 눈구뎅이속에 파묻혀있었다. 그러나 유철은 가슴속이 후더워왔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혁명하는것이다.》

귀전을 두들기며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리여왔다.

그이께서 손수 입혀주시던 양털외투가 그의 온몸을 엄혹한 추위로부터 막고있었다. 그러나 가슴이 후더운것은 애기양털의 폭신하고 따뜻한 촉감 그자체때문만은 아니였다. 그 털외투에 깃들인 그이의 크나큰 사랑이 그의 가슴을 후덥게 감싸주는것이였다. 그이의 열화같은 혁명사상—민족과 계급에 대한 그이의 위대한 사랑이 그의 가슴에 영원히 식을줄 모르는 불을 지펴주는것이였다. 유철은 그날 눈물과 함께 삼킨 닭곰이 언제나 마를줄 모르는 피줄이 되여 자기의 온몸을 세차게 굽이치고있다고 생각하는것이였다.

그는 눈을 툭툭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는 억세게 걸음을 옮겨놓았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았다.

동쪽하늘이 훤히 밝아오자 비로소 바람은 잠들고 눈보라는 멎었다. 숲변두리가 휘붐해질무렵 유철은 낯익은 오솔길에 서있었다.

찬란하고 장엄한 숲이 눈앞에 보였다. 광막하게 개여오는 얼어터질듯 차거운 대기속, 한점 때묻지 않은 눈덮인 원시림이 펼쳐져있었다. 아무런 장식도 아무런 보탬도 허용하지 않는 엄숙한 아름다움의 세계였다. 아름다움이 요구하는 온갖 거대함과 장엄함과 정갈함과 섬세함이 어울어져있고 대자연이 빚어내는 신비의 조화가 천연으로 뭉쳐 이루어진 세계였다.

유철은 그 숭고한 아름다움에 압도되여 그속에 발을 들여놓기가 저어되였다. 그는 밤사이 눈보라와 싸우느라고 지친 몸을 잠시 눈에

덮인 이깔나무줄기에 기대고 서서 황홀한 심정으로 숲을 바라보았다. 만시름이 다 사라졌다. 손등으로 모자굽을 쳐들고 이마의 땀을 훔쳤다. 볼수록 숲은 아름다왔다. 하늘에 노을이 물들어 숲변두리로 연분홍색 후광이 비꼈다. 숲자체가 연하디연한 분홍빛으로 물들어갔다.

유격대의 집—숲,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개조하고저 붉은 한뜻을 품고 온갖 속된 세상의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나선 가장 아름다운 인간들인 혁명가들에게 숲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보금자리였다.

유철은 뚜벅뚜벅 무릎까지 치는 눈을 헤치고 꼬지개섬으로 건너갔다.

《섯! 누구야?》

새하얀 나무그루뒤에서 보초가 소리쳤다. 눈투성이 솜외투를 입고 눈만 빠끔히 내놓은 잠복보초는 얼핏 보매 부르죠아같이 차린 유철에게 총구를 단단히 겨누어댔다.

《김치복동무로군. 나요.》

《아, 유철동지, 어떻게 눈보라속을?…》

《참 시원하고 좋소. 우리의 숲은 아름답구만.》

유철은 모자를 벗어쥐고 서서 잠시 사위를 새삼스러운 눈매로 둘러보았다.

《저 오늘 강의하십니까?》

《아무렴, 해야지.》

《전 이제 1시간이면 교대합니다.》

《그것 좋겠는데. 자, 학습할 때 다시 만납시다. 수고하오.》

섬굽이 박우물을 돌아가니 희슥한 새벽 어둠속에 쌍가매와 봉이가 얼음을 까고 쌀을 씻고있었다. 그들은 첫새벽부터 무엇이 좋은지 깔깔거리며 속삭이고있다. 문득 유철은 자기가 무척 목이 마른듯이 생각되였다.

유철이가 다가가니 쌍가매가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났다.

《어마나, 유철동지. 그 눈보라속을 어떻게 오셨어요?》

《쌍가매가 보고싶어서…》

순간 유철은 쌍가매란 이름이 혁명가인 그에게는 부적당하다는 생각이 났다. 그렇다, 이름을 달아주자. 성은 물론 **김일성**동지의 성을 따야 할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조선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따르는 해바라기라는 뜻을 담아 규화라고 짓자. 참으로 좋다. 우리는 모두 그이의 사랑속에 꽃피여난 해바라기들이다.

《피— 정말 묻히지 않은수가 용해요.》

유철의 속도 모르고 쌍가매는 깔깔 웃었다.

《내가 왜 묻혀? 봉이동무도 잘 있었소?》

《정말 수고하셨겠어요. 모두들 걱정을 했어요.》

《고맙소. 동무들이 걱정할것 같아서 기어코 돌아왔소.》

《저 우리 작식대병실이 뜨뜻해요.》

봉이가 조심스레 말했다.

《아니요, 난 곧 강의준비를 해야 하오.》

박두현이가 귀틀집앞에 척 나서더니 기상나팔을 불었다. 두시간후 유철은 기다랗게 지은 병실안에 서있었다. 아직 복장은 색색이고 무장도 다 갖추지 못했지만 각지의 혁명조직에서 선발돼온 무장대원 60여명이 숨소리를 죽이고 앉아있었다.

봄이 오면, 푸르른 철이 돌아오면 이들은 총을 메고 원쑤를 치러 나갈것이다.

유철은 밤사이 벼르고 벼르던 말을 하였다. 공책우를 달리는 연필소리가 들릴뿐 이 조용한 눈덮인 귀틀막에 유철의 열기띤 목소리만이 높이 울렸다.

《동무들, 오늘은 나의 마지막 강의시간입니다. 이것으로써 동무들은 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무장로선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침들을 기본적으로 알게 되였습니다. 이제 군사훈련을 더 완성하고 사격술을 더 련마해서 봄과 함께 동무들은 싸움에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동무들에게 이야기하자는것은 우리가 적을 치는 싸움을 하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문제 즉 우리가 단순히 적을 치는 군대가 아니라 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군대이라는 점을 강조하자는것입니다.》

유철의 강의에는 무장대원들뿐아니라 혁명조직의 일군들도 참가하였다. 작식공작을 하고있는 쌍가매도 봉이도 한쪽 구석에 앉아 열심히 받아쓰고있다. 문가에 책상을 놓고 앉은 김익보도 박두성이도 다 열심히 강의를 들었다.

유철은 품에 간직해가지고 온 목책을 펼쳤다. 푸르허 가까운 그이의 아지트에서 그이의 말씀을 옮겨적던 그 얄팍한 공책은 이제는 부하고 부해서 책가위가 손두께만치나 두꺼워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하고 유철은 말했다.

《항일유격대는 우리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하여 일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진정한 인민의 무장력으로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선인민의 가장 큰 념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도 일제를 하루속히 타도하고 우리 조국의 자유독립을 다시 찾는것입니다. 그런것만큼 우리는 혁명력량을 총동원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크게 벌려 우리 조선인민의 이 절실한 념원을 이룩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그이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조선에서 모든 계급적압박을 청산하고 로동자, 농민이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착취 없는 사회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는 언제나 이러한 과업수행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하는 혁명의 군대로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철은 항일유격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에 대해 항일유격대의 계급적 성격, 그 구성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항일유격대의 사명과 그 강화발전을 위한 과업을 다시 강조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자신을 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에서 승리할수 없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항일빨찌산은 단지 적과 싸우는 전사일뿐만아니라 인민을 교양하고 선동하는 선전자로 되여야 하며 인민을 조직동원하는 조직자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군대이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남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숲우에 태양이 높이 솟아올랐다.

유철은 군중속에서 어떻게 정치사업을 할것인가에 대해 3시간이상이나 날날이 실례를 들어가며 강의했다.

23

산 사람에게는 산 사람의 생활이 있고 죽은 사람에게는 또 죽은 사람대로의 생활이 있다. 모아산기슭 주삼녀의 무덤이 있는 그 산비탈에는 하얗게 눈이 쌓였다. 진눈까비 내리던 이태전, 남편을 죽이려던

《흑룡강동지회》의 자객이 호젓하던 그 산비탈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진후 몇달동안은 사나운 까마귀떼들이 아침저녁으로 찾아와서는 눈덮인 나무가지에 흉한 부리를 닦으며 내려꽂혔다 솟아올랐다 하면서 까욱까욱 소란스럽게 울부짖었다. 경찰과 헌병,특무들이 송장을 찾겠다고 삼녀의 무덤주변을 몇달동안이나 뒤지고다녔다. 그러나 세월이 가자 마침내 까마귀도 개떼들도 얼씬하지 않았다.

정월 대보름날 이른아침이였다. 주태화는 현아와 아들 혜민이를 앞세우고 누이동생의 무덤을 찾았다. 꽁꽁 언 싸리를 한줌 꺾어 상석앞에 쌓인 눈을 쓸어내고 아이들에게 절을 시켰다.

현아는 여전히 울지 않았다. 울음을 모르는 아이,주태화는 이런 조카를 보는것이 마음에 언짢았다. 아이들은 울줄도 알아야 하고 떼도 쓸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밝은 얼굴로 웃게도 되는것이다. 주태화는 모진 세상풍파에 벌써부터 싸늘하게 얼어붙은 아이들의 마음을 녹이고 밝은 웃음을 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너무나 가난하였다.

명절날 옷 한벌을 해입히고 떡 한되라도 쳐먹이자면 그의 손톱에서는 피가 나야 했고 피가 나도록 일을 해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더 많았다. 이번 설만 해도 그렇게 악착스럽도록 일을 했건만 설빔은 해입히지 못했다. 떡도 치지 못했다. 현아에게는 감장고무신 한컬레를 사다주었고 아들에게는 밤을 밝혀 연을 만들어주는것으로 굼때지 않을수 없었다.

흙손과 자귀등속이 든 연장주머니를 차고 어깨엔 새끼수세미를 끝에 매단 기다란 대쪽퉁구리를 메고 헐어빠진 개털모자를 푹 눌러쓴 주태화는 해종일 아이들이 좋아할 모습을 머리속에 꿈꾸며 사나운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거리를 목이 쉬도록 외고다녔다.

《굴뚝소제,뻬치카,난로,구들들 고치려—》

주태화는 구들쟁이가 되였다. 그리고 그의 안해는 돈이 생기면 콩나물을 기르고 그것도 없으면 얼어붙은 강물을 깨고 삯빨래를 하였다.

현아도 이제는 그 가슴아프게 하던 공허한 시선에 아이들다운 순진한 빛이 어리였고 발갛게 익어가는 볼에 이따금 가벼운 웃음이 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때로 주태화는 아이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아서보다 제 울분에 스스로 애수를 느끼는것이였다. 이번 설명절만 해도 《유토피아》를 꿈꾸던 학생시절보다 더한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호화로운 명절을 선물하자고 한 계획이 허망하게 하나하나 허물어져나갔다. 주태화의 가슴은 쓰렸다.

현아가 외삼촌이 사다준 깜장고무신을 안고 깡충깡충 뛰며 좋아하는것도 어린것이 너무나 속이 깊어져서 외삼촌의 마음을 달래느라고 즐거운척해보이는것 같이만 생각되였다. 그것이 주태화에게는 서러웠다. 결코 큰 희망이 아니였다. 제국을 세우자는것도 아니요 달나라를 정복하자는것도 아니다. 불쌍한 어린것에게 조촐한 명절날의 즐거움을 주자는 가난한 지성의 이 간절한 소원도 현실은 용납해주지 않았다.

명절은 길기도 하였다. 섣달 그믐날부터 정월 보름날까지 집마다 빈지를 달아걸고 문마다 립춘방을 얼룩덜룩 써붙이고 술들을 퍼먹었다. 골목엔 폭죽 터뜨리는 소리가 요란하고 거리엔 가장행렬이 누벼다녔다. 아무도 굴뚝을 쑤시거나 구들을 고치자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주태화는 정초부터 누런 개털모자를 눌러쓰고 거리를 다니며 고문을 당하는것과 같이 신음소리를 내였다.

《굴뚝소제—난로, 뻬치카, 구들 고치려—》

그것은 사람의 넋과 육체가 한꺼번에 시들어가는 죄많은 현실을 분식하는 배부른자들의 갈보화장같은 그 역겨운 웃음과 노래에 대한 인간 주태화의 저주이기도 하였다.

아이들에게 서러운 자극을 주고 자기에게는 그보다 더한 아픔을 주던 괴롭던 명절도 이제는 마지막이다. 거리엔 다시금 생활이 되살아날것이고 그러면 어지러운 누데기도 쓸어나와서 조카와 자식들의 초라한 모습이 그속에 묻히게도 될것이다. 그러면 어데서 하루품을 팔아서 찬밥 한덩이를 얻어먹고 저녁에 동전이라도 받게 될는지 모른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눈깔사탕이라도 사줄 가능성이 생기는것이다.

주태화는 흰눈에 덮인 넓은 땅을 저으기 가슴이 후련해서 바라보았다.

《현아야, 넌 이젠 몇살이지?》

《아홉살.》 현아는 외삼촌의 얼굴을 말똥말똥 바라보며 희망에 넘쳐서 대답했다. 아홉살이면 학교에 보내준다고 외삼촌과 외숙모가 말했던것이다.

《아홉살이면 어떻게 되니?》

《아홉살이면》하고 현아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학교에 보내준댔어.》

《그럼 학교에 가야지.》

주태화는 현아가 《학교에 가》하고 대답하지 않는것이 언짢아서

일부러 큰소리로 말했다.

《난 학교에 안가나?》

혜민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혜민이도 학교에 가야지. 그렇지만 혜민이는 아직 여섯살이기때문에 너무 작아서 못가. 이담에 아홉살이 되면 혜민이도 학교에 가지.》

《치— 난 현아보다 큰데 뭐. 싸움도 내가 이겨.》

《허허허, 그럼 혜민이도 학교에 받아달라고 해볼가? 이녀석, 싸움만하면 학교에 가는줄 아니?》

주태화는 마음이 밝아져서 혜민이를 번쩍 안아올렸다. 그리고 누이동생을 다시한번 돌아본후 발길을 돌렸다.

《가자, 이젠 집에 가서 영민이랑 같이 놀아라. 나는 돈 벌러 가야겠다.》

집에 돌아오니 동업자가 된 배나무골의 한희도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있었다.

《또 산소에 갔다오우다?》

고목등걸처럼 마루에 쭈그리고앉아 풀썩풀썩 곰방대를 빨고있던 한희도는 내키지 않는 어조로 인사를 하더니 끙하고 허리를 일으켰다.

《너희들 춥겠구나, 이리 오너라.》

한희도는 현아와 혜민이를 한손에 하나씩 끌어잡고 까만 눈동자들을 들여다보더니 연장망태를 뒤져 군고구마 두개를 꺼내여 한개씩 쥐여주었다. 점심도시락옆에 꼭 붙여놓았던 고구마는 따끈따끈하였다.

《애비도 무심하지, 쯧쯧.》

고구마를 받아쥐고 고개를 갑삭 숙이는 현아를 바라보며 한희도는 중얼거렸다.

배나무골의 사람들은 누구나 주삼녀를 잊지 않고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먼길을 돌아서라도 가끔 현아를 찾아보고 하다못해 속옷 한가지라도 걸쳐주고 갔다. 그들은 삼녀가 목숨으로 지켜낸 그 조직을 오늘도 억세게 지키고있었으며 적들의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에도 굽히지 않고 싸우고있었다. 싸움이 벅차고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더 자주 현아를 찾아왔다. 그런가운데서도 한희도네 일가는 더 직심스러웠다. 그렇게 자주 아이를 찾아다니고 각근히 돌봐주는 과정에 자연 주태화하고도 가까와져서 마침내 동업자가 돼버린것이다.

아이들이 노랗게 벗겨진 고구마를 들고 문문 피여오르는 김을 불며 영민이를 찾아 방안으로 달려가자 한희도는 눈귀에 잡혀진 잔주름을

펴고 마루로 돌아섰다. 곰방대를 털어서 허리에 찌르고 어깨에 끈을 해서 걸친 벙어리장갑을 툭툭 털어 손에 끼고 연장망태를 둘러메였다.

《오늘도 일감 맞다들리기는 케가 틀렸수다. 이놈들이 어쩌자고 정초부터 개싸다니듯하는판에 누가 한가하게 아궁이를 뜯자고 하겠소? 송장 맞다들리기가 십상이지. 유격근거지근방에 왜놈들이 울바자를 치다싶이 둘러섰다우다.》

체소하고 입이 무거운 한희도는 언제나 자기 의사를 곧바로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암시하는데 그치였다.

《근거지는 유격대가 있으니 그런다쳐도 요즘 보면 조선사람 사는 고장이면 아무데나 마구 불질을 하며 돌아가니 참 사람의 목숨이 파리목숨보다 더 값이 없다는말이요.》

주태화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한참 있다가 한결 목소리를 낮추어서 덧붙였다.

《듣자니 대대적인 〈토벌〉이 있을 모양이더군요. 우리도 무슨 다른 마련을 보아야겠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설마하니 굶어죽기야 하겠소. 다 살아가게 되겠지요.》

한희도는 좀 퉁명스레 받았다. 비록 그의 말은 짧았으나 그가 조직과 련결되여있다는것을 아는 주태화는 언제나 그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어느날밤 주태화는 뜻밖에도 집에 찾아온 배윤종을 만났다. 실은 그 며칠전에 어용신문사의 정치부 부부장이란 직함이 박힌 명함 한장을 두고 갔었는데 그 뒤등에 꼭 만나자는 당부가 적혀있었다. 주태화는 물론 그것을 보는 즉시로 등잔불에 살라버렸는데 이자가 또 찾아온것을 보니 왜 그런지 가슴이 철렁하였다.

배는 어용신문의, 그것도 정치부의 부부장이란 어마어마한 관직에도 불구하고 전이나 다름없는 극히 민간적인 차림을 하고있었다.

쿨렁한 외투에 방한모도 없이 산발한것모양 머리를 헝클어뜨렸는데 워낙 유자껍질처럼 여드름자국이 숭숭한 검고 두꺼운 얼굴껍질로 보아 도무지 추위 같은것은 느낄상싶지 않은 인상이기도 하였다.

《요—주군, 기어코 만났네그려. 이 전대미문의 인정기근시대에 내가 자네를 두번씩이나 찾아왔다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래, 가내제절이 다 무고하신가?》

배윤종은 큼직한 손을 덮씌우듯 주태화의 손을 틀어쥐였다. 주태화는 배가의 직분에다 《인정기근시대》가 어쨌다는따위 어줍잖은 수작이 마음에 걸렸다.

《자네가 찾아올줄은 몰랐네. 듣자니 출세를 괜찮게 한 모양이던데 나같은 구들쟁이에게 볼일이 있다는것은 참으로 뜻밖이네그려?》

《허— 첫인사부터 가시가 돋쳤군. 내 일전에 명함을 놓고 갔다가 후회를 했네. 자네같이 융통성이 없는 인간이 그 명함을 보면 필경 나를 박쥐같은 무리로 알것 같더란말야. 하긴 박쥐가 많지. 정치계도 문화계도 모두 전환과 전향의 선풍이 불고있네. 허허허,그러니 자네가 나를 오해할만도 하지. 모아산에서 굴뚝을 쑤실지언정 일제의 국록은 먹지 않겠다는 자네의 결곡한 마음에 비추어볼 때 배윤종이는 타락한것인지도 모르지. 하나 주군,사람을 그렇게만 봐서는 안돼. 인생은 수학도 부기도 아닌 그야말로 인생이거던.》

배윤종은 마당가에 서서 의례 하던 버릇대로 산발한 머리를 연방 쓸어넘기고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도 연신 안쪽을 기웃거리며 안으로 청해주었으면 하는 눈치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주태화는 아이들이 이미 잠들었고 가시주름 박힌 안해가 어두운 등잔불아래 누데기바느질감을 펼쳐놓고있는 랭기 어수선한 그 방으로 배가를 끌어들이고싶지 않았다.

배가는 주태화의 그런 마음속을 눈치채자 깨끗이 방안으로 들어갈 희망을 단념해버리고 다시 태화의 손을 덥석 그러잡으며 밖으로 끌었다.

《이 사람,아직 보약을 먹지는 않겠지? 생각하면 반년만의 뜻깊은 상봉인데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맹숭맹숭해서야 우정이 깃들일 틈바구니도 없지 않겠나? 무엇인가 좀 껴입고 나오게.》

주태화는 하는수없이 배윤종의 뒤를 따라나갔다. 어느 카페 으슥한 곳에 앉은 윤종은 독한 양주를 연거퍼 몇잔 들이키더니 얼근해지자 녀급을 쫓아버렸다.

《술이 당기지 않는 모양이군.》

윤종은 눈꼬리를 까부장해가지고 긴장되여 앉아있는 주태화를 힐끔 치여다보더니 말했다.

《자네 지사 흉내를 내는것은 격에 어울리지 않는걸. 곧은 막대기는 잘 부러지는 법이야.》

주태화는 묵묵히 까놓은 호콩을 씹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부러지는것도 휘여지는것도 그따위 까다로운 단어들은 다 잊어

버린 사람이야. 인생은 그야말로 인생이니 나는 자식들과 조용히 살기를 원할뿐이야. 이런 양주는 구들쟁이에게는 너무 사치해서 주저할뿐이네.》

《하하하, 과시 주태화다운 말이군. 자네가 아마 나를 오해하고있는 모양인데 난 〈민족성개량〉으로부터 〈황도정신선양〉으로 기발을 바꾸어 멘 최남선이류와는 다른 인간이야. 물론 내가 어용신문에 밥줄을 걸게 된것은 그닥 떳떳한 일은 못되지. 하나 범을 잡자면 범의 굴에 들어가야 하네.》

《허— 그러니 자네가 부의나 무등대장이라도 암살할 계획을 가진 모양이군그래？》

《야유는 미덕이 못돼. 자네가 입이 독한것은 새삼스러운것도 아니지만 구들쟁이의 독설은 곧장 신치안유지법에 갖다 건다는것을 알아야 하네.》

《위협인가？》

주태화는 벌써 갈 차비로 허리를 일으키며 말했다.

《앉게！》 배윤종은 날쌔게 주태화의 허리를 잡아앉히며 조용히 말했다.

《자네 나한테 품고있는 감정을 풀어야 하네. 내가 두번씩이나 자네를 찾아간것도 실은 내가 자네를 막 모른척할수 없는 처지이기때문이야.》

《무슨 이야긴가？》

《긴히 할 이야기가 있네. 하지만 그리 덤빌 필요는 없네.》

《난 래일 또 일나가야 할 사람이야.》

《그럼 이야기하지. 별로 유쾌한 이야기는 못되네. 실은 내가 어용신문에 간것도 내딴엔 나대로 이놈들의 내막을 잘 알아두었다가 력사앞에 폭로하자는 나대로의 포부가 있었지만 그걸 자네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불문에 붙이세. 한동화가 문교부의 촉탁으로 들어간것은 이미 알고있을테지？ 그자와 내가 결렬한지도 오래야. 나는 그런 미꾸라지같이 시세를 따라 헤염쳐달아나는놈들은 생리적으로 혐오감을 느끼네. 한데 자네 같은 꽁생원도 나는 찬성할수 없어. 이번에 이리로 오면서 관동군사령부의 중요인물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졌는데, 참 자네도 알겠군. 노무라주임참모말이야？》

주태화는 묵묵히 호콩을 씹으며 배윤종의 벌겋게 피가 번진 유자상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파쑈치고는 꽤 세련됐더군. 그 사람도 이번에 여기로 왔네. 유격대출몰에 전 관동군이 뒤설레고있네. 그 사람이 아마 관

동군에서도 제일 수완가인 모양인데 적색구역은 말할것 없고 주변의 조선인부락 전반에 대해 강경책을 쓸 의향인 모양이더군.》

《새삼스러운것도 아니지. 여기서는 벌써 집단부락이라는것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도네.》

《이 사람아, 집단부락이 아니야. 내 얼마전에 령사관에 갔더니 눈치가 적색구역과 주변 조선인부락에 대한 〈토벌〉에 앞서 〈요시찰인〉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일제히 단행할 모양이야. 한데 이번 검속은 성격이 성격인것만큼 간단하지 않을거란말일세. 어느 나라에서든지 파쑈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에 한몽둥이로 휩쓰는것이 보통이거던. 도이췰란드를 보게. 유럽 중심에 있는 맑스, 엥겔스와 괴테, 하이네를 배출한 그 나라에서도 히틀러가 집권하자 피비린내나는 탄압이 시작됐거던. 수일전에 보도됐지만 〈국회의사당방화사건〉이라는것도 실은 공산당 탄압의 구실을 만들어내자는것이라는것쯤 자네도 한때 날리던 기자이니 모를리 없겠지? 그러니 속이 좁은 섬나라사람들이 오죽하겠나? 특히 최근 그들의 감정은 좋지 못하네. 유격근거지를 치겠다고 나갔던것들이 요영구에서도 연통라자에서도 정통을 얻어맞고 쫓겨온데다가 듣자니 그들의 근거지에서는 지난 가을부터 혁명정권이 서서 민주주의적개혁을 했다는군. 내 작년에 피뜩 자네를 만난적도 있지만 그때 벌써 그자들이 약이 올랐더란말이야. 공산당을 내부로부터 부셔보려고 〈민생단〉을 만들었는데 별 신통한 효과도 못본채 좀 야비한 속만 드러냈거던. 지금 그들의 눈엔 피발이 섰어. 자네 알는지 모르지만 노무라란자가 이번에 와서 령사관에 틀고앉아 군경장관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 비수같애. 대규모적인 〈토벌〉계획이 섰단말이네. 그래서 너무 바빠서 그길로 자네한테 달려갔던것이네. 자네는 몰라. 아직 세상물계를 모른단말야. 자네는 내 명함을 보고 그저 심상하게 생각했겠지?》

주태화는 참을성있게 듣고있다가 조용히 대답하였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네. 그리고 장시간 생각하던 끝에 그 명함을 불살라버렸네.》

배윤종은 벌겋게 피가 올랐던 얼굴에 일순 검은 빛이 스쳐지났다. 두꺼운 푸르죽죽한 입귀가 약간 떨렸다. 그러나 다음순간 머리칼을 신경질적으로 쓸어넘기고 껄껄 웃었다.

《그건 아무래도 좋아. 사실은 나도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라 인차 잊어버렸지. 한데 오늘 성경무청에 들렸더니 일이 시작됐더란말일세.

그리고 그 명단에 물론 자네 이름도 있고 꽤 상세한 자료도 첨부되여있더군. 물론 자네가 독서회에 참가한것도 있고 령사관경찰에 출입한것도 있고 또 자네 매부이야기도 있더란말일세. 그래 부랴부랴 또 이렇게 찾아온걸세. 지금이야말로 결정적인 행동을 요하는 시각이야.》

《자네가 그런 문건까지 볼수 있었다는것은 나한테 시사해주는것이 많네. 그래 자네 생각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나?》

《그걸 자네가 몰라서 묻나? 자네 그 도전적인 무위도식을 버리고 세상에 나서야 한단말이야.》

《나는 나와 나의 동료들의 신성한 직업을 모욕한데 대해 응당 자네 아래턱에 한대 먹일 도덕적권리가 있지만 체면을 봐서 참을테니 자네도 말조심하는것이 좋겠네.》

주태화는 여전히 호콩을 까먹으면서 조용한 투로 말했다.

《거 무슨 말버릇인가? 점점 교양까지 잊어버리는 모양이군. 하여간 자네가 그것때문에 모욕을 느낄 필요는 없네. 내가 지나친 우정에 자네의 처신이 안타까운 나머지 한 소리가 아닌가? 제발 건주정을 하지 말게.》

《그래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거야?》

《신문사에 나오게.》

《자네네 신문사에?》

《그렇네. 정치부가 마음에 안들면 학예부 같은데라도 나와서 슬렁슬렁하면 오해를 피할수 있겠는데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 자네자신을 망치고 가족까지 망칠 필요가 어데 있겠나?》

가족이라는바람에 문득 현아 생각이 났다. 마침 썩은 호콩이 씹혔다. 그는 쓴것을 밸을가 하다가 운명을 삼키듯 꿀꺽 삼켜버렸다.

《용건은 그것뿐인가?》

《왜 이러나?》

《나는 이미 신문을 그만둔 사람이네. 내가 그 자유주의신문이나마 걷어치운것은 세상을 편리하게 사는 재간이 없기때문이야. 〈황군 공비 소탕에서 혁혁한 전과달성〉 이러한 말을 조작해내는 재간과 심장을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했네. 자네가 전환을 했건 전향을 했건 그런건 나도 상관 안할테니 자네도 내가 구들쟁이를 하든 감옥에 채여들어가든 상관 말게. 나도 이젠 어지간히 매맞고 짓밟히

는 묘리를 체득했기때문에 그닥 무서워하질 않네.》

주태화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일어났다.

《아니 이 사람아… 개자식, 어디 보자.》

사흘후 주태화는 령사관의 사복경찰들에 묶이여 지하감방에 끌리여갔다.

새학기가 시작되였다. 이웃집구장네의 키꺽다리자식은 새 가방을 메고 새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아도 혜민이도 학교에 들어갈수 없었다.

따뜻한 양지쪽 담장밑에 앉아 현아는 담밑에 뾰족이 내민 새싹을 시름없이 매만지고있다. 등에서 외사촌동생 영민이가 앉아있는것이 싫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소녀는 입을 꼭 다물고 사금파리로 담밑을 팠다. 그렇게 파주면 빨리 풀이 자라나서 꽃이 필것만 같았다. 외숙모는 꽃이 피면 아저씨가 돌아온다고 하였다.

마침내 영민이가 울어제꼈다. 현아는 일어나서 허리를 추석거리며 얼리였다. 그러나 영민이는 그치지 않는다. 영민이는 배가 고픈것이였다. 하지만 집에는 아주머니도 없고 밥도 없다. 아주머니는 빨래함지를 해 이고 빨래를 나갔다. 빨래를 많이 하면 아저씨가 없어도 학교에 보내줄수 있다고 했건만 현아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집에는 돈이 없다. 그래서 때때로 죽도 몇끼씩 건느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든다는 학교에 어떻게 가랴.

《얘 영민아, 이제 엄마가 사탕 사온댔다.》

현아는 벌써 거짓말을 할줄 안다. 빈궁한 생활은 아이를 올되게 한다. 그는 수상한 사람들이 물으면 아버지가 죽었다고 대답한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것, 언젠가는 자기들을 데리러 온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현아야, 내 그새끼 돌로 까주었다.》

혜민이가 씩씩거리며 달려오더니 바지춤을 추켜올리며 말했다.

《누구말이냐?》

《구장네새끼, 난 학교 가봤다.》

《얘, 그따위들한테 가지 말어. 더럽다.》

《내가 문앞에서 들여다보는데 그자식이 저희 학교라고 가래. 그래서 돌멩이로 까주고 달려왔지뭐. 그새끼 또 까줄래.》

《너 그러다가 순사한테 잡혀가면 어떻게 할래?》

《도망가지뭐. 아버지는 왜 도망가지 않았을가?》

《너 아버지 소리 하지 말라는데 또 하는구나.》

《너하고도 못하니?》

《그럼.》

《그럼 안해. 현아야, 난 배고파.》

《지금은 밥 없어. 아주머니가 와야 해.》

《체, 아버지 없으니까 만날 밥 안준다—》

현아도 혜민이도 담밑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아직도 눈발에 묻혀있는 먼 산발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어데 있을가? 아이들은 서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얘 혜민아, 우리 저기 가서 우리 노래 부를가?》

《응, 우리 노래 부르자.》

아이들에게는 그들끼리만 부르는 그들의 노래가 있다. 현아가 가르쳐주었고 혜민이가 배운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그들에게는 그들만이 아는 장소가 있다.

아이들은 손을 잡고 강가의 버들숲으로 갔다. 불리다 남은 눈가루가 희슥희슥 가지에 앉아있는 버들숲은 앙상하고 메말라보였다.

그것은 언젠가 현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여졌으며 어머니가 혁명을 위하여 싸우다가 붙잡힌 바로 그 버들숲이였다. 그러나 현아는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현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줄로 이어진듯이 지금은 앙상하기만 한 이 버들숲에 마음이 끌렸다.

아이들은 버들숲에 몸을 감추고앉아 아무도 듣지 못하게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누리에 붙는 불이요
철쇄를 마스는 마치라

24

1933년 봄.

태양은 가까이, 더 가까이 땅우로 다가오는듯하였다. 지구는 정열에 불타서 환성을 지르며 저 엄격한 력사의 궤도를 줄달음쳐갔다. 비록

전쟁의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워있고 유럽한복판에 히틀러의 검은 하겐클로이쯔가 음산한 그늘을 던지고있다 해도 그리고 1931년 9월이래 일제의 만주침략을 둘러싸고 지루하게도 끌어오던 서유 《신사》들의 말시비가 결국은 1933년 5월의 저 수치스런 《당고협정》으로 막을 내렸다 해도 결코 정의는 매장되지 않았으며 력사는 여전히 인류리상의 그 지점을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 억세게 앞으로 나아가고있었다.

일제는 만주를 날강도와 같이 강점하고 계속 금주로, 이해에는 마침내 열하로 침공해들어갔으나 그들의 침략이 급진적인 그만큼 완만하고 지루하고 《신중》하게 거듭 연구하고 론의하고 타산한 끝에 영국귀족 로듣 릿튼을 책임자로 하는 조사단을 만주로 파견한 《국제련맹》은 1931년 만주침략으로부터 시작한 그 론의를 1933년의 열하침략에 이르러서야 겨우 결론을 보았는데 결국 그것은 미국과 《국제련맹》성원국들의 두목인 영국, 프랑스가 일제의 괴뢰 《만주국》을 승인하고 각각 자기 대사로 하여금 일제장교에 의해 궤짝에 포장되여 장춘으로 호송되여간 《만주국》집정폐하 부의에게 신임장을 갖다바치게 한 은근한 의례행사로 끝장을 보았다. 이리하여 얼핏 보매 침략은 표창되고 부정의는 찬양되였으며 전쟁은 미화되였다. 아시아에는 미영프 《신사》들에 의해 고무된 또 하나의 전쟁미치광이가 팽팽하게 살쪄갔다.

그러나 다가오는 봄을 막지 못하듯이 자유와 해방과 참다운 삶의 권리를 위한 인류의 영원한 지향을 막을 힘은 없었다.

—에스빠냐에서 인민전선폭동이 터졌다.

—네데를란드순양함에서 인도네시아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인디아에 공산당이 창건되였다.

1933년의 봄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이 뜻깊은 해에 어두운 아시아대륙을 비치며 우뚝 솟은 조종의 산 백두산은 그 모습이 더욱 숭엄해보이였다. 백설을 이고 구름우에 아득히 솟아오른, 진리와도 같이 청백하고 정기로운 그 기상은 아직도 세기적인 잠에 취해있는 광막한 대륙에 서리발 찬 빛발을 내뻗쳤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날이 공고확대되여가는 조선혁명의 거점, 유격근거지에서 세계최초로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시고 몸소 그것을 구현하는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933년 1월의 요영구전투, 1933년 1월과 4월, 5월에 진행된 소왕청전투 그리고 3월의 쟈피거우전투 등 수많은 전투를 통하여

인민들이 자기의 진정한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령활하고 대담무쌍한 유격전술과 전법을 창조하시였다.

인민들에게는 백전백승의 무기가 준비되였고 원쑤들에게는 멸망의 구렁텅이가 마련되였다.

한편 20년대이래 력사의 숙제로 남아있던 반제통일전선과 반제공동행동문제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혁명적이며 원칙적인 로선 그리고 그이의 헌신적인 직접적활동에 의해 빛나는 구현을 보게 되였다.

조선혁명은 앙양의 한길을 치달아올랐다. 밀림과 골짜기, 산기슭과 벌판에 조선항일빨찌산의 우등불이 어두운 밤을 불태우며 황황 타올랐다. 그것은 암운이 드리운 아시아대륙을 비치였으며 력사적인 전환을 앞두고 몸부림치는 지구에 거대한 추진력을 부여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추켜드신 조선혁명의 홰불은 광활한 대지 구석구석으로 번져갔다. 이르는곳마다에 유격대가 태여났다. 어제날의 가난하고 천대받던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이 오늘은 마치와 낫, 붓을 총칼로 바꾸어메고 원쑤 일제를 치는 판가리싸움터로 달려나왔다.

그리하여 1933년은 정열과 위훈의 해로, 투쟁과 창조의 해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박한 인민들이 자기의 위대한 정치적수령의 령도를 받듦으로써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자기 힘의 위대성을 인식하는 그런 해로 무르익어갔다.

백리허밀림에도 봄이 왔다.

봄과 함께 먼 산발을 타고 **김일성**동지께서 련속 적을 타격하시여 전국적으로 혁명이 고조되고있는 소식이 태고연한 밀림을 뒤흔들어놓았다.

하강에 눈석임물은 넘치고 광야에 수리개는 높이 나래쳐올랐다.

이 광막하고 거치른 땅에 첫 인민의 무장대오가 조직되는 날 유철은 유격대의 선포를 준비하느라고 밤을 새웠으나 새벽같이 꼬지개섬가에 나왔다.

발밑에서는 흰 거품을 물고 봄시위물이 소용돌이치며 흘러갔다. 물안개가 피여올라 밀림은 흰 구름우에 둥실 솟아오르는것만 같다. 메새소리가 어지러이 귀전을 스쳤다. 청신한 바람, 아름다운 물소리, 새소리, 어디선가 손저어 부르는듯한 자연의 은근한 속삭임이 가슴을 높뛰게 했다.

유철은 맑은 물에 세면을 하고 달아오른 머리에 연방 찬물을 끼얹었다. 그리고 멀리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남쪽하늘을 향해 똑바로 섰다.

그이의 가르침을 받고 1년반에 걸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곳 하강지구에서의 자기 사업을 마음속으로 총화하였다.

물론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유철은 아직도 위대한 그분의 전사로서 너무나 부족점이 많으며 이 넓은 땅에서 그이의 위대한 구상을 펼만한 혁명의 기둥감이 되지도 못한다. 그러나 혁명의 전사 유철은 오직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전사라는 그 하나의 자랑을 가지고 싸우며 살아가는 조선무산계급의 아들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무지와 몽매 속에 잠자고있던 이 거치른 숲속에 태여나려고 하는 인간예지의 가장 빛나는 산물인 혁명적무장력이 비록 어리고 약하다 해도 이 대오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 투쟁의 기치로 쳐들고있다.

유격대는 자라날것이다. 유격대는 수리개처럼 광야에 높이 나래쳐오를것이다. 그리하여 조선혁명승리의 저 아득한 지평선까지 한시도 멈추지 않고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싸움의 길을 억세게 날아갈것이다.

유철은 허리에 찬 권총을 지그시 눌러보았다. 그이께서 이 총을 넘겨주시며 하시던 따뜻한 고무와 가지가지 당부의 말씀이 어제런듯 귀가에 쟁쟁하였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에서, 혁명에서 승리하는것만이 우리의 부모형제들과 처자들을 영원히 살리며 참되게 사랑하는 길이라는것을 잊지 맙시다. 혁명가의 불타는 사랑은 혁명을 하는데서 표현됩니다.》

사나운 눈바람 휘몰아치던 푸르허근방의 높은 산마루에서 마지막 들려주시던 그 말씀이 가슴노리한복판에 뜨겁게 마쳐왔다.

새 군복을 입고 이 권총을 찬 이러한 모습으로 그이앞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싶었다. 그리고 이렇게 군복을 입고 이렇게 총을 차고 현아를 한품에 안아보고싶었다. 어떤 세상풍파도 막아줄것이다. 어떤 간악한 원쑤도 우리 조선의 아이들을 못건드리게 할것이다. 만일 지금이라면, 만일 지금처럼 이 손에 이와 같은 총이 쥐여져있었다면 수많은 조선의 녀인들의 원한과 피눈물을 풀어주고 그들을 불행으로부터 지켜주었을것이다.

유철은 눈을 감았다. 설음 많았던 자기 생애에서 가장 뜻깊고 장쾌한 이날 이 아침에 자기 가슴을 허비여주는, 이제는 이미 손닿지 않는 저세상의 안해와 먼곳의 아이를 생각하며 유철은 지그시 어금이를 깨물었다.

앞으로도 원쑤로부터 막아줘야 할 조선의 안해들과 아이들은 얼마든지 있다. 내 자식과 안해에게 못다한 사랑을 이 총에 재워 조선의 모

든 안해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원쑤를 쏠것이다. 그것이 혁명전사로서의 나의 사랑이며 나의 복수이다.

숲변두리에 금빛 아침노을이 번져왔다. 새롭게 유격대가 태여난 숲을 살살이 비치며 동이 터왔다. 그 찬란한 해빛을 받으며 유철은 숲속에 닦아놓은 광장을 향해 억세게 걸어갔다. 유격대는 이미 광장에 정렬해서서 력사적인 선포의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새벽까지도 론쟁이 계속되였었다. 총은 혁명조직의 이름으로 한자루한자루 수여해야 한다느니 유격대는 문자 그대로 유격대인만큼 이런 행사도 유격대의 특성에 맞게 해야 할것이라느니 하는 론의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론의들이 이 숲속에 태여나는 첫 인민의 무장력에 대한 사랑과 긍지에서 온것이였다. 그렇기때문에 일정한 결론도 얻지 못한채 헤여졌지만 결국 계획된 시간이 되자 저렇게 그 어느 정규군도 못따를만큼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추어 정렬해있는것이다.

유철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앞줄에 선 사람들은 비록 형형색색이지만 모두 총들을 메였다. 그러나 뒤줄에 선 사람들가운데는 아직 빈손으로 칼만 차고있거나 그나마 아무것도 못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한옆에 따로 선 작식대와 재봉대의 녀성대원들가운데는 아직 군복을 못입은 대원들조차 있다. 큰개와 가막골 그리고 안골 등의 호제회며 부녀조직들에서 밤을 새워가며 물감을 들이고 바느질을 다그쳤으나 아직 천도 모자라고 시간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정렬해 선 63명의 대오는 완전한 하나의 전투대오이다. 이것은 조종의 산 백두산을 주봉으로 그 뿌리에서 뻗어내린 위대하고 거창한 조선혁명의 산발을 이루는 허다한 산봉우리들가운데 하나인것이다.

대렬우익에 대장으로 임명된 박두성이 서서 초조하게 시간을 기다리며 서성거리고있다. 삼덕이, 치복이, 성덕이, 효범이도 있다. 백리허목재판과 가막골광산에서 온 로동자들의 얼굴도 보인다. 그리고 얼마전 현성아지트를 박두현에게 인계하고 돌아온 로채숙이와 마차부 안명길의 얼굴도 보인다. 작식대대렬에 서있는 김규화—쌍가매의 흥분한 모습, 강봉이의 긴장된 얼굴.

유철은 낯익은 얼굴들을 하나하나 더듬으며 그들과의 사이에 얽혔던 사연들을 더듬어보았다. 그들은 모두가 헐벗고 굶주리며 천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오늘은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저렇게 손에 무장을 들고 나섰다.

무엇때문인지 기쁘기만 해야 할 이 시각에 유철의 눈굽은 뜨거워올랐다. 그는 잠시 서서 눈을 슴벅거리다가 마음을 진정하고 귀틀집으로 들어갔다.

유격대선포를 축하하기 위해 온 지방 조직대표들과 함께 대렬앞에 나선 유철은 하강지구혁명조직의 위임에 의하여 백리허반일유격대의 조직을 선포하고 붉은기를 수여했으며 조직에서 비준된 간부명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전체 유격대원과 하강지구 당조직의 이름으로 멀리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충실할데 대한 맹세를 드렸다.

그는 말하였다.

《동무들, 노래에도 있는바와 같이 우리는 이 암흑에 덮인 누리를 불태우는 혁명의 불이요, 계급사회의 철쇄를 우리의 총창으로 뚜드려부시는 조선무산계급의 마치입니다. 우리는 어제날까지도 일제의 총칼과 지주, 자본가들의 억압에 눌리여 집을 잃고 논밭을 잃고 사랑하는 부모처자를 잃고 마침내는 조국과 고향산천을 잃어버린 피압박무산대중이였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은 얼마이며 우리가 빨린 피땀은 얼마입니까? 우리들의 가슴은 한숨에 썩고 우리들의 청춘은 눈물에 시들었습니다. 조국의 산천은 피바다에 잠기고 동포들의 원한은 천지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억센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피바다속에서 총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동무들! 가슴에 맺히고 서린 원한을 풀 날은 왔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사랑하는 동포형제자매들의 해방을 위하여, 우리 안해들과 어린것들의 훌륭한 미래를 위하여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무장로선을 받들고 원쑤를 치러 용진용진 앞으로 나아갑시다.》

유철의 머리속에는 지나간 생활의 가시덤불길이 환등같이 얼핏얼핏 스치고 지나갔다. 그 어두운 생활의 토막토막들은 그대로 대오에 선 사람들의 머리속에 떠오르는 그들모두의 생활이였고 원한이였으며 또한 복수에 대한 맹세이기도 하였다.

유격대선포가 끝나자 대오는 그대로 숲속을 행진해나갔다. 광야는 벌써 푸르러가고있었다. 유격대는 초원을 헤치고 원쑤를 치러 싸움의 길을 떠나갔다. 현성부근 삼인가나루의 수비대를 치러 가는것이였다.

그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영광스러운 항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하시던 1932년 4월 25일부터 만 1년이 지

난 봄날의 일이였다.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거창한 조선혁명의 줄기찬 산줄기가 마침내 하강의 밀림에 이르러 우뚝 솟아오른 하나의 봉우리, 백리허반일유격대는 이날 붉은기아래 첫 전투를 벌렸다.

이튿날 아침 유철은 그이로부터 간곡한 교시와 과업을 받고 떠나온 이래 1년반에 걸치는 자기 사업을 총화하고 백리허반일유격대의 조직과 그 첫 전투에 관한 보고를 경건한 마음으로 작성하였다.

그 다음날이였다. 하강지구의 모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그이께 드리는 흠모의 정과 축원을 안고 김기창이가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김일성**동지께로 떠나갔다. 유철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창이를 마차에 태워 배웅해보냈다.

찬란한 해빛을 안고 기창이는 점점 멀어져갔다. 고개도 둔덕도 없는 벌판이라 리별은 오래도 끌었다.

《이젠 그만 들어가십시오—》

기창이는 벌써 몇번째 뒤돌아보고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그때마다 유철은 웃으며 마주 손을 흔들었다. 기창이는 머지 않아 장군님을 만나뵙게 되겠구나 생각하니 길림에서부터 그이를 뵈옵자고 함께 헤매여 다니던 그 길들이 절로 떠올랐다. 그이에 대한 기창이의 흠모의 정과 충성심을 생각할 때 이번 기회에 기창이가 선발된것이 자기 일처럼 기쁘기도 하고 미덥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유철의 마음은 무엇때문인지 허전하였다.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문건에 반영했고 다른 자그마한 일들에 대해서는 날날이 주의를 주었으니 무슨 실수가 있으랴만 발길은 선뜻 돌아서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창이가 보이지 않을만큼 멀어지면 저도 모르는사이에 채찍을 들어 마차를 내몰게 되였다. 이윽고 유철이도 이처럼 돌아서지 못하는 자기 마음이 무엇이라는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리움이였다. 기창이는 단순히 보고를 가지고 가는것이 아니라 하강의 혁명조직과 유격대가 그이께 드리는 충성의 맹세를 가지고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뵈오러 가는 것이다. 기창이가 직접 그이를 뵈옵고 자기의 사업과 이곳 혁명조직이며 유격대활동에 대해 보고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 걷잡을수 없이 가슴이 설레였다. 그이께서는 여전히 건강하실가? 보고를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가? 혹시 또 걱정을 끼쳐드리지나 않을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그의 몸을 앞으로만 끌어가는것이였다.

마침내 기창이의 모습은 저멀리 숲굽이를 돌아서 사라졌다. 유철은 흠칠 놀라 급히 말채찍을 휘둘렀다. 숨가쁘게 달려오는 마차소리를 듣고 기창이가 길가에 서서 기다렸다. 유철은 마차에서 뛰여내려 기창이의 어깨를 잡았다.

《한가지 잊어버렸소. 우리 사업과 형편에 대해 물으시는대로 낱낱이 말씀드리되 그이께 걱정을 끼쳐드려서는 절대로 안되오. 이것을 꼭 명심하오.》

《허허허, 참.》 기창이는 기가 차다는듯이 한바탕 웃더니 말했다.

《알겠습니다. 벌써 그 말씀을 몇번이나 했는지 아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내가 아무려면 그만한것도 모르겠습니까? 이젠 그만 돌아가십시오. 40리도 더 왔습니다. 좀 더 나가면 위험합니다. 내가 유철동지 마음을 다 리해합니다.》

《정말 부탁하오.》 유철은 좀 게면쩍어져서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5월의 눈부신 해살이 그들을 비치고있었다.

25

안골은 지난가을에 첫 《토벌》을 맞은 이래로 벌써 세차례나 《토벌》을 겪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치안부대신》의 명의로 《치안경비통첩》이 발포되여 이제는 집도 몇채 안남고 움막들만 옹기종기한 안골에 새로 자위단이 조직되였다. 단장으로는 현성으로 도망쳐갔던 곰보 윤철목이 다시 내려왔다.

봄과 함께 유격대에 대한 소식으로 세상은 설레였다. 아침에 유격대의 한 부대가 어느 성시를 쳤다는 소문이 들려오는가 하면 저녁에는 벌써 웃동네에 붉은기를 휘날리며 유격대가 나팔을 불며 지나갔다고들 하였다. 안골사람들도 그러한 소식들에 마음이 들썽해서 어디선가 유격대가 나타나기를 은근히 마음속으로 기다렸다.

유독 박병섭로인만은 이 봄을 내내 울분에 차서 보냈다. 숲으로 떠나간줄로만 알았던 아들의 소식을 몰라 몸이 달아있던 로인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던것이다. 달포전에 강필재가 말파리를 끌고 현성에 갔다가 어느 정미소에서 서사노릇을 하고있는 두현이를 보고 와

서 안쓰던 안경을 끼고 수염을 길러서 서툰 사람은 얼른 분간 못하겠지만 내 눈이야 속이겠는가고 하면서 안타까와하였다.

로인의 가슴엔 울화가 끓어번졌다. 사회주의요 뭐요 할 때는 그것이 비록 비위에 맞지 않았어도 어쨌든 세상의 큰일을 도모하자는것이였다. 뿐만아니라 이마적에 와서 보면 사회주의자란 자기가 생각는것과는 정반대로 애국자들이다. 한데 바로 그것을 깨치게 된 이때에 아들이라는것이 사회주의에서 떨어져나가 용렬하게 정미소 서사노릇이나 하여 구복을 채우자고든다는것이 눈앞을 캄캄하게 하였다.

설마 그놈이 그렇게까지 더럽게 변할수야 있을가 해서 의심도 해보았으나 들려오는 소문을 미루어보건대 놈이 족히 그럴수 있는 위인인것 같았다. 눈치로 보아 딸 죽심이가 어떤 혁명조직에 가담하고있는것이 분명한데 아무리 따져보아야 어린것이 속을 주지 않는것도 실은 오래비의 그런 못난짓이 부끄러워 감추어진것이였다고 짐작이 갔고 아들녀석이 지척에 있으면서 한장 소식이 없는것도 자기의 떳떳하지 못한 처신이 스스로 면구하여 감히 애비앞에 나서지 못한것이라고 생각되였다.

자기가 나라를 찾자는 뜻을 굽힌것도 분하고 또 원쑤들이 동네를 재더미로 만들어도 눈 한번 임의로 흘겨보지 못하는 처지가 된것이 뼈가 저리도록 통분한데 뒤일을 기대했던 아들마저 그 모양이 됐다는것을 생각하니 로인의 눈앞은 막막해지는것이였다.

더구나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그의 슬픔과 아픔을 갑절로 키질하였다. 그자신은 이미 형세가 궁하고 힘이 진하여 10년동안 메고다니던 총칼을 꺾고 이렇게 할일없이 물러나앉았는데 그가 여태 어줍잖게만 보아오던 상스러운 젊은이들이 원쑤들을 맞받아 총을 들고 일어났다. 그것도 잡도리가 그 옛날 독립군들이 하던것과는 처음부터 판다르다. 칠성이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조선을 건지실분이 나서시였다. 그분께서 조선사람모두가 총을 들고 무장로선에 떨쳐나서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분인즉 바로 김형직선생님의 자제분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라고 했다.

박병섭은 자기의 뜨뜨미지근한 태도에 스스로 화도 나고 아들의 용렬한 처신이 분하기도 하여 늘 속을 앓았다. 그러면서도 사방에서 들려오는 유격대의 활동소식에 안타까이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왜놈들은 봄과 함께 유격대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그것을 막아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제일 유격대의 출몰이 심한 백리허숲변두리

의 적색부락들에 대한 《토벌》을 강화하는 한편 숲을 멀리 둘러싸고 도처에 포대들을 쌓고 군대,경찰들을 배치했으며 하다못해 자위단이라도 박아넣었다. 백리허목재판과 숲속의 길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경찰을 턱없이 증강하였다.

안골에서도 정희겸이네 집 포대를 손질하는 한편 새로 큰개부락 턱밑으로 바싹 들이대고 두개의 포대를 새로 쌓아올렸다. 집을 다 불태우고 재더미우에 가까스로 움막을 꾸리고 사나운 겨울을 난 동네사람들은 씨뿌릴 겨를도 없이 포대공사에 끌려나갔다.

박병섭은 전과 마찬가지로 동네 골목골목을 누벼다니며 사람들을 호령하였다.

《에끼 이놈,그게 누구를 죽이자는 불구멍인줄 알고 그걸 나가서 쌓는단말이냐! 괘씸한놈! 썩 돌아서지 못할가!》

그러나 포대공사를 막기에는 그의 힘은 너무나 약하였다. 호령소리에 목은 갈렸으나 윤철목이 총을 차고 그 가죽채찍을 한번 공중에 대고 휘두르면 박병섭자신도 함부로 입을 벌리게 되지 않았다. 게다가 왜놈군대들이 득실거렸다. 세월은 갈수록 어렵게만 되여가는듯하였다.

그러는가운데도 골목골목에 삐라가 나붙었다. 포대공사장 담벽에도 원목더미에도 밤마다 일제를 규탄하는 삐라와 격문이 나붙었다.

병섭로인도 자기의 목이 쉰 호령소리보다 그 말없는 삐라가 더 많은것을 사람들에게 호소하고있다는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하였다. 실은 그자신도 그러한 삐라를 읽으며 거기서 스러져가는 자기 마음의 등불을 지탱하고있는것이였다.

그런 어느날 밤이였다. 야밤삼경에 불시에 총소리가 울려퍼졌다. 문득 깨여나니 골목으로 어지러이 말발굽소리가 짓쳐나가고있었다. 포대공사장어방에서 콩볶듯 맞불질을 해대는 소리가 메아리쳐왔다.

《이게 무슨 소리냐?》

로인은 신뒤축을 꺾어신고 마당으로 뛰여나가며 딸에게 물었다. 벌써 사립문을 벗기고 밖으로 달려나가던 죽심이가 《유격대가 왔어요.》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병섭로인이 포대공사장으로 달려나갔을 때는 전투는 이미 끝난 뒤였다. 자위단과 경찰들은 얼결에 좀 대항하다가 송장만 10여개 남겨놓고 어둠속으로 줄행랑을 놓고말았다.

유격대는 기마부대였다. 땀이 번지르르 내돋은 이마우에 군모를

뒤로 제껴쓴 사람이 말우에 높이 앉아 큼직한 1호 모젤을 공중높이 쳐들고 연설을 하고있었다.

대장인듯싶은 그 사람 두리엔 7～8명 대원들이 홰불을 쳐들고 서있었고 그앞에는 붉은기가 휘날리고있었다.

대장은 석쉼하게 쉰 목소리로 짤막짤막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중강에서 온 무장대요. 우리는 오늘밤 여러분들을 압박착취하던 일제와 그 주구들을 무자비하게 소멸해버렸소.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보건대 계급적각성이 부족하오. 여러분은 응당 우리 무장대를 원호해야 할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무장대를 반대하는 왜놈들을 도와서 포대를 쌓아주었소. 이것은 옳지 못하오. 이 동네에 반동분자가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요. 자 오늘밤 당장 우리의 계급적원쑤들을 처단합시다.》

환희에 들끓던 동네사람들의 마음은 어정쩡해졌다. 대장은 거듭거듭 반동분자를 적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동네사람들은 어리둥절하여 말을 못하고있었다. 그들은 기다리던 유격대가 와서 왜놈들을 쳐없애는바람에 속이 시원하였으나 자기들가운데 원쑤들을 도운 반동분자가 있다는 말에는 저마다 속이 떠끔하였다. 그런중에도 박병섭로인은 억이 막혀 마음속으로 개탄하였다.

(동네사람들이 왜놈들을 도왔다는 말을 듣고도 내가 아직 하늘을 향해 머리를 두고있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인가?)

이때 심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현성으로 통한 신작로쪽에서 어지러운 말발굽소리가 들려왔다. 뒤미처 한 무장대원이 급히 달려오더니 대장에게 보고하였다.

《적들이 반격해옵니다. 한개 중대 이상 되는 수비대가 숲기슭을 따라 포위를 형성하고있습니다.》

《좋소, 오늘밤에 한바탕 해보기요.》

대장은 권총끝으로 모자를 바로잡아놓더니 소리높이 웨쳤다.

《동무들, 원쑤를 치러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자!》

《와—》

불과 20여명의 기마대원들은 함성을 지르며 어둠속을 달려갔다.

밤이 새도록 강을 사이에 두고 동네와 숲기슭사이에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적들은 한걸음한걸음 다가들더니 마침내 강을 넘어섰다. 그래도 중강의 무장대원들은 포대며 허물어진 토담그늘에 의지하여 맞불질을 해댔다. 대장은 어느새 모자를 다시 뒤통수로 밀어붙이고 이골목 저골목

으로 말을 몰아다니며 싸움을 지휘하였다. 동네사람들도 손에 땀을 쥐고 밤을 밝혔다. 청장년들과 젊은 아낙들이 무장대원을 도와 물도 끓이고 진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싸움의 형세는 불리해졌다. 전투장은 차차로 동네가운데쪽으로 옮겨져 왔다. 총소리에 놀란 개들이 공포에 질려 흰 이를 드러내고 짖어댔다. 탄알이 이영을 벗기고 담을 허물어뜨렸으며 장독대의 항아리들을 와지끈하고 마사뜨렸다.

이런무렵 또다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물방아간부근에서 강을 넘어선 적수비대의 기본집체가 불의에 배후로부터 타격을 받은것이였다. 백리허밀림속으로부터 강한 화력습격을 받은 일제수비대놈들은 당황하여 막 포위를 압축하려던 동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뒤로 돌아섰다. 숲속에는 얼마마한 무력이 나타났는지 모르나 화력습격에 뒤이어 맹렬한 기세로 함화를 들이댔다.

전투장은 숲쪽으로 옮겨졌다. 적들은 불의타격을 받은데다 상대의 위력을 대중할수 없는지라 처음부터 내뺄 궁리를 하였다. 그런 눈치를 먼저 채기라도 한듯 숲속에서는 신작로를 차단해놓고 정확한 묘준사격으로 한놈한놈 적들을 쓸어눕혔다. 그러면서도 한걸음한걸음 적들을 숲쪽으로 끌어당길뿐 마을을 점령할 기도는 전혀 없는것 같이 보이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마당앞에서 안절부절못하고 서성거리던 박병섭로인은 어디에 갔다오는지 어두운 골목을 숨가쁘게 달려오는 딸 죽심이를 발견하고 물었다.

《우리 유격대가 왔어요. 이제 보세요. 저놈들은 몽땅 녹아날거예요.》

《우리 유격대라니?》

《우리 유격대말이예요. 두성이오빠랑, 쌍가매랑 가있는 우리 유격대말이예요.》

《그래? 우리 유격대가 저렇게 싸움을 하러 나왔어?》

병섭로인은 끝없는 감개에 사로잡혀 총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오는 어둠속을 바라보았다.

백리허반일유격대는 도강지점을 장악하기 위하여 현성부근 삼인가나루의 수비대를 치고 그곳에 눌러앉아 주민들과 배사람들, 류벌로동자들속에서 며칠간 정치공작을 하다가 어제 저녁녘에야 꼬지개섬으로 돌아왔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안골의 혁명조직으로부터 중강의 무장소조가 나타났다는 통보가 오고 뒤미처 적들이 동네를 포위하여 무장소조

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있다는 보고를 가지고 죽심이가 달려왔었다.

그 즉시로 비상소집신호가 숲속을 울리고 유격대는 안골을 향하여 떠났다. 안골은 어느 모로 보든지 백리허반일유격대가 해방시켜야 할 연고가 있었다. 단지 그것을 여태까지 미루어온것은 동네가 큰길가에 있는 적통치구역과의 경계선인데다 아직도 청소한 유격대무력으로서는 있을수 있는 적의 상시적인 반격으로부터 동네를 지켜내기 힘들것이며 따라서 마을사람들에게 곤난과 위험을 줄것이라는 점을 고려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일단 적아간에 싸움이 붙은 이상 더는 주저할수 없었다. 게다가 중강의 무장소조를 위험속에서 구원해야 하였다. 유철은 그들을 진작부터 만나기 위하여 애써온것만큼 그런 의미에서도 전투를 미룰수 없었다.

김일성동지의 무장투쟁로선을 받들고 장강류역을 따라 사처에서 유격대들이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것은 그자체로써 인민들속에 커다란 정치적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중에는 아직도 **김일성**동지의 로선과 방침을 정확히 모르는데로부터 이러저러한 편향을 범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중에도 정대호가 지휘하는 중강지구의 무장소조는 기마대로서 활발한 전투활동을 진행하고있으나 거칠고 과격한 점이 많았다. 유철은 열정 하나만 가지고 혁명과 같은 복잡한 사업을 다 해제끼려는 그들의 태도가 안타까왔다. 그렇기때문에 벌써 여러차례 지휘부 당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여러 형태의 무장부대들에 영향을 주며 가능하면 한 대오로 통합할데 대한 방책을 토의해왔었다. 그러나 일정한 근거지도 없이 말을 타고 초원을 종횡무진으로 달려다니는 그들을 만날 재주가 없었다. 정대호네 소조는 중강지구에서 일어났으나 붉은기발 하나를 쳐들고 중하강지구를 마음닿는대로 뛰여다녔다. 사기는 왕성하고 전투기능은 높아 부딪치는 적은 모조리 쓸어눕혔다. 정대호라면 적들도 부들부들 떨었다. 그들의 소조는 전원이 말을 탔고 이미 적들에게서 로획한 경기도 한자루 메고다닌다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들의 눈부신 활동과 빛나는 전과에 비해볼 때 인민들속에서의 여론은 반드시 좋은것만도 아니였다. 그들은 정치사업이라는것을 몰랐다. 통일전선을 리해하지 못하였다. 《계급적원쑤를 무자비하게 치라!》 이것이 그들의 구호였다.

그들의 불타는 혁명열의를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한시바삐 그들을 만나야 했다.

《차라리 잘됐수다.》

어둠속을 달리며 박두성이 말했다. 그것은 오래 끌어오던 안골해방전투를 마침내 단행하게 된것을 념두에 둔것인지 아니면 정대호네 소조를 만나게 된것을 념두에 둔것인지 대중할수 없었다.

유철은 잠시 말없이 달리다가 짤막하게 말했다.

《마을로 쳐들어가서는 안되겠소.》

《네?》

《적은 한개 중대이상이나 된다는데 동네에 배기면 인민들에게 화를 입힐거요. 어떻게 하든지 숲으로 끌어내야 하오.》

《정찰이 먼저 떠났으니 적정을 보고 전투를 조직하지요.》

《적을 물리친 다음 동네를 지킬 대책도 생각해야 하오. 우리가 마을을 해방한 이상 인민들의 생활도 우리가 책임져야 하오.》

삼인가전투에서 이미 첫 전투를 치른데다 무장도 기본적으로 해결되였고 게다가 자기들의 일가친지가 사는 동네를 해방한다는바람에 유격대의 전투사기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았다.

캄캄한 어둠속이였지만 낯익은 지형지물에 의거한 그들의 전투행동은 정확하였다. 정찰에 의하여 적의 기본집체가 물방아간을 중심으로 강뚝을 따라 전개해있다는것을 확인한 박두성은 유철의 지시에 따라 적을 숲속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배후로부터 불의에 맹타격을 가하였다. 한편 일부 력량을 큰길에 매복시켜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전투는 날이 밝도록 계속되였다.

말을 타고 마을을 덮치려던 적들이 방향을 돌려 숲속으로 쳐들어왔다. 숲속은 어두웠지만 적들이 엎드린 강기슭쪽은 묵은 강냉이짚낟가리가 불타는바람에 환하게 바라보였다. 더구나 급해맞은놈들은 그런것도 모르고 웩웩 볶아치며 달려오다간 쓰러지군하였다.

나무가지를 쓸어눕히며 숲을 울리는 총소리, 하늘로 목을 뽑아들고 울어대는 군마의 비명소리.

《목숨이 아깝거든 총을 놓고 항복하라!》고 웨쳐대는 유격대원들의 함화소리, 여기에 녀대원들의 노래소리까지 합치여 숲은 거세게 몸부림쳤다.

《저 짚단낟가리어방에 놈들의 지휘부가 있소. 보시오, 아끼시마란놈도 보이오.》

유철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며 슬그머니 싸창을 뽑아들었다.

《동무들, 저 짚단낟가리옆의 적들을 소멸하시오! 일제히 쏘앗!》

박두성이 흥분하여 숲이 찌렁 울리게 명령을 내렸다. 콩볶듯이 총소리가 터져올랐다.

유철은 어둠속에 얼핏 나타났다가 사라지군하는 아끼시마의 대모테안경을 겨누었다가 그놈이 또다시 어둠속에 사라지는바람에 몇놈 쏘아눕히고는 싸창을 내리였다.

그리고 옆을 돌아보았다. 저만치 쌍가매—김규화가 커다란 분비나무 밑둥에 한무릎을 꿇고앉아 총을 겨누고있다. 땅땅! 마침 예광탄이 날카로운 직선을 그리며 곧장 불붙는 짚단낟가리로 날아갔다. 쌍가매는 입을 꾹 다물고 침착하게 격발기를 잡아제끼더니 다시 총탁판을 어깨에 갖다댔다. 듬직하고 어엿한 그 모습을 보니 유철은 촉박한 전투정황도 잊어버리고 히죽이 미소를 그리였다.

방아간어방과 동뚝 그리고 짚단낟가리 근방에서 연방 적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앗! 곰보—》

쌍가매의 놀란 목소리에 앞을 바라보니 과연 자위단장 윤철목이가 권총을 뽑아들고 10여명 자위단원들을 앞으로 내몰며 달려온다.

《규화동무, 침착하게 겨누시오!》

유철은 쌍가매에게로 다가가서 조용히 부추겨주었다. 쌍가매는 얼핏 유철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거렸다.

유철은 저도모르게 긴장되여 싸창을 틀어쥐고 마른침을 삼켰다.

땅! 야무진 총소리가 울리자 메돼지처럼 달려오던 윤철목은 네활개를 쩍 벌리며 빙그르르 맴을 돌더니 수수밭고랑에 태질을 당하듯 쓰러지고말았다.

《동무들!》 박두성이 한손을 높이 쳐들고 웨쳤다. 《원쑤들은 공포에 떨고있다. 사자와 같이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자! 돌격 앞으로!》

《만세—》 어둠속에서 유격대원들이 우렁차게 함성을 지르며 내달렸다. 그러자 동뚝과 밭고랑에 엎디여있던 적들은 얻어맞은 개구리새끼들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신작로쪽으로 꿋꿋이 내빼기 시작했다. 돌격서렬 한가운데 서서 연방 방아쇠를 당기며 달려나가던 유철은 문득 발뚝을 혼자 살살 기여가는 한놈의 얼굴에서 번쩍하고 불빛을 반사하는 대모테안경을 발견했다.

《이놈!》

유철은 우뚝 걸음을 멈추고 서서 그놈을 겨누었다. 그 순간 아끼

시마란놈도 어떤 힘에 이끌려서인지 이쪽을 돌아보았다. 자기쪽을 겨누고있는 총구를 느끼자 그놈은 넋이 나가서 발고랑을 딩굴었다. 유철의 싸창이 불을 토하였다. 《악—》 아끼시마는 멱 잘리운 짐승처럼 한소리 크게 울부짖더니 한손으로 넙적다리를 움켜쥐고 그대로 동뚝을 내리굴렀다. 그래도 악운이 센 그놈은 정통을 면한 모양으로 첨벙 물속에 뛰여들어 죽을기를 써서 물을 헤여갔다.

유철은 천천히 동뚝으로 걸어갔다. 강바람이 불어와서 그의 군복자락을 날렸다. 아끼시마는 어푸어푸 물을 들이키며 잠겼다 솟아났다 하더니 가까스로 저쪽 기슭에 기여올랐다. 물에 빠진 새앙쥐같이 함씬 젖은놈의 몰골이 불붙는 짚낟가리의 불빛속에 드러났다. 아끼시마는 이젠 살았구나 하고 생각한 모양 얼핏 이쪽을 돌아보았다. 그 순간 유철은 지그시 싸창의 방아쇠를 당겼다.

《으악—》

명주필을 찢는것 같은 아끼시마의 마지막 비명이 밤공기를 쨌다. 유철은 천천히 돌아서서 유격대원들이 섬멸전을 들이대고있는 저쪽 동뚝어방을 바라보았다.

새벽녘에 이르자 물방아간에 의지하여 검질기게 발악하던 적 기병들도 강기슭에 널려있는 송장들을 대충 건어가지고 강기슭을 따라 도망치고말았다.

전장수색을 끝내고보니 중강의 무장소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알아보니 목재판쪽으로 난 큰길로 빠지는것을 보았다는 대원들이 많았다. 유철은 잠시 마을쪽을 돌아보았다. 반년나마 심혈을 기울였던 옛공작지를 해방한 지금 유철의 마음도 전례없이 설레였다. 지난 늦가을의 폭동을 마지막으로 안골을 떠나 여태까지 다른 공작때문에 한번도 가볼 기회가 없었던 동네였다.

그사이 이미 꾸려놓고 온 조직들을 통해 대충 실정은 료해하고있었고 미진한채 남겨놓고 온 일들도 거지반 아퀴가 지어졌었다. 그러나 아직 미결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다. 조령감도 박병섭로인도 그저 안골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있을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선 사람들이 그리웠다. 《토벌》도 수삼차 겪어서 마을은 많이 불타버렸다는데 또 간밤의 전투때문에 적잖게 놀랐을 그곳 낯익은 사람들의 생활이 한없이 궁금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중강의 무장소조를 아주 놓쳐버

릴지도 모른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마을에 들어가 사업할데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박두성에게 주고 자기는 대원 10여명을 데리고 인차 정대호네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갔다.

한편 박두성이는 유철의 지시를 받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까스로 누르며 대오를 이끌고 마을로 들어갔다. 아무리 진정하려 해도 그의 발걸음은 반달음으로 변했다.

마음이 설레이는것은 비단 두성이만이 아니였다. 대렬선두에서 걸어가는 삼덕이도 효범이도 치복이도 성덕이도 그리고 규화도 봉이도 모두가 마음이 급하여 반달음을 놓다싶이 바삐 걸었다.

그러나 정작 동구밖에 이르렀을 때 대렬은 흠칫하고 멈추어섰다.

동네는 너무나 처참한 모습을 하고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낯익은 그 안골동네가 아니였다. 고간이 반나마 불탄 정희겸이네 집과 다른 지주네 큰집들,요행 외따로 떨어져있는 몇몇 집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반 불타고 없었다. 정희겸이네 포대가 유난히 우뚝 솟아있고 야학방 앞에 있던 한그루 봇나무가 절반이나 그슬린채 새눈이 트고있었다.

간밤 전투때 불탔다는 포대에서는 아직 연기가 그슬리고있었다.

사람들은 움막이나 불탄 집자리에 그슬린 기둥감을 뻗치고 거적때기로 바람을 가리고있었다. 사나운 겨울을 이 폐허우에서 난 동네사람들의 정상이 가슴을 쳤다.

유격대가 온다는 소리에 동네사람들은 그러한 움막거적을 들치고 달려나왔다. 맨발로 바지춤을 움켜쥐고 조무래기들이 달려온다. 로인들이 담배대를 분주히 휘저으며 헤엄치듯 달려온다. 아낙네들이 머리수건을 풀고 머리를 쓸어넘기며 달려온다.

그들은 반가와라 저마다 소리쳤다.

《우리 군대가 왔다.》

《뒤집 두성이성님이 대장이 되여왔다.》

《쌍가매가 총을 메고 온다—》

동네사람들은 대렬이고 뭐고 돌볼새 없이 낯익은 얼굴들을 찾아내여 붙안고 돌아갔다.

《이 사람 삼덕이.》

쇠스랑대로 어느 집자리의 불을 끄고있던 조령감이 쓰러지듯이 삼덕의 가슴에 매달렸다. 반년사이에 로인은 몰라보게 늙어버려서 머리는 새하얘지고 허리는 길마처럼 꾸부러졌는데 짓무르기 시작한 눈귀로

연방 이슬이 괴여 떨어졌다.
《아바이.》 규화가 군복차림으로 뛰여왔다.
조령감은 한참 눈을 슴뻑거리더니 그만 입을 딱 벌렸다.
《아니 이게 쌍가매가 아니냐? 네가 정말 부엌데기 쌍가매란말이냐?》
《그래요, 저예요. 제가 쌍가매예요.》
규화도 조령감의 손을 잡고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바이, 이젠 쌍가매가 그전날의 쌍가매가 아닙니다.》
삼덕은 로인의 앙상한 어깨를 부서질가 조심하듯 조용히 쓸며 말했다.
《쌍가매는 아바이처럼 이름도 성도 이 더러운 세상에 다 빼앗겼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은 저 **김일성**장군님의 성을 따라 김씨로 하고 이름을 규화라고 달았습니다. 부엌데기 쌍가매는 영원히 없어지고 유격대 전사 김규화가 태여난셈입니다.》
《장하이, 장해. 사람이 새로 태여난것 같다고 했더니 이름까지 달아주었군. 고마운 일이야. 내 돌아가신 쌍가매 에미, 애비를 대신해서 임자들에게 치하를 하네. 세상에 이런 고마울데가 어데 있겠나? 내 그놈들이 죽어넘어지는것을 내 눈으로 보았네.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조령감은 그만에야 목이 메여 허리춤에서 수건을 풀어 눈굽을 훔쳤다.
《모두가 **김일성**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의 덕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불쌍한 사람들에게 살길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구말구, 모두가 그분의 높으신 은덕때문이지. 그분이 아니더면 내 언제 이런 날을 보고 죽겠나.》 그러더니 불시에 조령감은 눈굽을 훔치던 손을 번쩍 쳐들고 소리높이 웨쳤다.
《**김일성**장군님 만세!》
폭풍과 같은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어른도 아이들도 늙은이도 아낙네도 일제히 두손을 쳐들고 동네가 떠나가라 숲이 떠나가라 웨쳤다.
《**김일성**장군 만세!》
이윽고 벅찬 감격의 물결이 천천히 가라앉자 두성은 새삼스럽게 사위를 둘러보았다.
동네사람들과의 상봉은 감격적이기도 했지만 또한 가슴아프기도 했다. 생활은 말이 아니였다. 식량도 종곡도 없었다. 조령감은 빈 움막에서 뜨내기처럼 홀로 지낸다는것이였다. 그들은 유격대가 왜놈들을 족치는것을 방금 본 뒤끝이라 그저 기뻐서 어쩔줄 몰라할뿐 생활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두성의 가슴을 무겁게 하였다.

두성은 적들이 달아난 방향으로 정찰병들을 내보내고 적의 반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작로에 멀찌감치 전초대를 내보내는 한편 곧 마을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우선 집들을 지어야 하였다. 분대장들을 불러 며칠 이곳에서 묵으면서 동네사람들의 생활문제도 해결해줄겸 진정한 인민의 무장력으로서의 유격대에 대한 인식도 옳게 주고 그들속에서 반일선전도 해야겠다는것을 말했다. 유격대원들은 마을사람들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일을 도우며 선전사업을 진행하였다.

그중에서도 규화와 강봉이의 활동은 눈부시였다.

방금 유격대가 왜놈들을 통쾌하게 쓸어눕히는것을 본 동네사람들은 그 사자같은 유격대원들속에 쌍가매도 섞여있다는바람에 놀라와서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규화는 워낙 일에 막히는데가 없는 처녀였다. 그는 닥치는대로 농사일이건 부엌일이건 척척 해제끼며 일제와 지주,자본가들을 반대해서 싸워야 하고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수 있다고 소박하고 실감있는 말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밤이면 동네아이들과 처녀들에게 혁명가요를 가르쳤다.

《세상에 별일이여.》

동네아낙네들은 군복을 입자 몰라보게 아름다와지고 어엿해진 규화가 참말 쌍가매가 옳기나 한가 하고 서로 쑥덕거리다가는 저마다 턱을 크게 끄덕거리며 중얼거렸다.

《혁명이 좋긴 좋은가보야.》

유격대 전사 김규화로 변신한 부엌데기 쌍가매는 사람들이 왜 혁명을 해야 하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산 직관물과도 같았다.

그날밤이였다. 유격대원들은 동네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숲속에 잠자리를 잡았다. 사실 60여명의 대원들이 골고루 나누어 들만한 집도 없었다. 게다가 방금 적들이 쫓겨가서 언제 되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주민지대에서 숙영하는만큼 이부자리를 갖추고 베개를 높이 벨 형편이 못되였다. 동네 주변 여기저기에 우등불을 피워놓고 마을사람들을 청해다 세상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불렀다. 간밤의 전투때문에 놀랐던 동네사람들의 가슴도 저으기 가라앉았다.

밤이 이슥하여 우등불은 하나하나 죽어가고 동네도 점차 괴괴한 정적속에 묻혀들어갔다. 간간이 보초들이 낮게 부르는 군호소리가 울

려올뿐 풀숲에서 벌레 우는 소리만 높아갔다.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였다. 밤안개가 축축히 대지를 덮고있었다. 숲의 우중충한 그늘 어디선가 알수 없는 귀신이 음모라도 꾸미고있는것만 같은 음산한 밤이기도 하였다.

유철은 동네사람들이 숙영지에서 다 돌아간 밤중에 대오로 돌아왔다. 숲속을 아무리 수소문해보아야 중강의 무장소조를 찾을수는 없었다. 하는수없이 대원 몇동무를 시켜 계속 목재판을 중심으로 찾아보게 하고 그자신은 동네로 돌아왔다. 그리고 잠들어가는 숙영지들을 돌아보았다. 동네를 코앞에 두고 더구나 부모들이 기다리는 제집을 두고 한지잠을 자는 대원들을 보니 속이 좋지 않았다.

삼인가전투이래 계속되는 행군과 전투 그리고 고된 로동을 생각할 때 응당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줘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적들의 있을수 있는 반격과 인민들에게 끼칠 페를 생각하여 로숙을 조직하지 않을수 없었다. 대원들은 물론 흔연히 접수했고 인민들을 위하여 한지잠을 자는데 대해 궁지까지도 느끼는것이였다. 그러나 유철은 그들 역시 응당 아낌과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것을 생각할 때 무엇인가 자꾸만 뉘우쳐졌다.

대원들은 강냉이짚단을 펴놓고 그우에 배낭을 베고 누워서 드렁드렁 코를 골고있었다. 치복이는 아버지의 물레방아간이 코앞에 있었으나 대오에서 떨어지지 않고 남먼저 드러누웠는데 벌써 꿈을 꾸는지 잠결에 히죽히죽 웃고있었다.

유철이가 숙영지들을 다 돌아보고 마감으로 그전에 야학방으로 쓰던 농막자리로 갔을 때였다. 야학방은 물론 불타고 허물어졌다. 그러나 지붕만 불타고 기둥의 일부와 구들만은 남아있었다. 그것이나마 맨 한지보다는 나을것 같아 녀성대원들의 숙영지로 돌렸는데 그 마당앞에서 두 그림자가 머리를 맞대고 소곤거리고있었다. 가만히 눈여겨보니 보초를 서고있는것은 규화이고 마주선것은 로채숙이였다.

《웬일이요? 자지 않고…》

유철은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유철동지, 저 소리 들어보세요.》

규화가 그답지 않게 겁에 질린 소리로 말했다.

《정말 이상해요. 꼭 사람의 울음소리 같애요.》

로채숙이도 약간 고개를 기우뚱하니 제끼고 숲쪽을 가리켰다.

유철은 그들이 가리키는 어둠속을 바라보았다. 큰길과 숲이 잇달

린 어방쯤되는곳이였다. 그러자 유철의 머리끝도 쭈뼛해졌다. 틀림없이 짐승의 울음소리는 아니다. 간간이 흐느끼다가는 쿨쩍거리는가 하면 무엇인가 토막토막 웨쳐대는 소리도 들린다. 큰길가에서 나는듯한 그 소리가 그렇게 가냘프게 들리는것으로 보아서는 사람의 목소리라고 단정하기 힘드는 점도 없지 않다.

《저 길가에 사냥군들의 허물어진 움막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나는 소리 같아요.》

규화가 총을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봅시다.》

유철이 급히 걸음을 옮겨놓자 로채숙이 당황해서 말했다.

《혼자 가셔서 일없겠어요? 누구 부르랍니까?》

《일없소. 어린애 목소리 같소.》

《그럼 저라도 같이 가겠어요.》

움막 가까이 다가가자 아닌게 아니라 《엄마— 엄마—》하고 부르는 다 쉬여버린 어린애의 목소리가 똑똑하게 들려왔다.

유철은 달렸다. 채숙이도 주먹을 쥐고 숨가쁘게 달렸다. 그들의 발자국소리를 들어선지 울음소리는 뚝 그쳤다. 캄캄한 어둠속이였다. 희미한 큰길과 우중충한 나무줄기가 떠오를뿐 움막이 어디쯤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불을 만듭시다.》

유철은 주머니를 뒤져 성냥과 휴지장을 한꺼번에 꺼냈다. 채숙이가 나무밑 어둠속을 더듬어 삭정이를 그러모으는데 바로 지척에서 《엄마— 왜 그래? 난 무서워—》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울렸다.

움막은 코앞에 있었다. 거적도 없는 휑한 땅굴속에서 가쁜 숨소리가 들렸다. 가까스로 삭정이끝에 불을 켜달고 비쳐보니 한절반 허물어진 그 움막속에 웅크린 두 그림자—이미 숨져가는 어머니와 아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쓰러져있었다.

유철은 불자루를 채숙이에게 넘겨주고 한자깊이도 되나마나한 그 움막속으로 뛰여들었다. 녀인은 다 꿰진 누데기보짐을 베고있었다. 머리가 귀바퀴를 다 가리도록 자란 대여섯살이나 나뵈는 총각애가 어머니의 목을 쥐고 안타까이 흔들고있었다. 녀인의 몸에는 이미 온기가 없었다. 채숙이가 내비치는 불빛이 공허하게 뜬 그 녀자의 눈동자에 저승의 불빛처럼 얼른거렸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나이도 병도 짐작할수 없는 녀인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엄마—엄마—엄마—》

아이는 미친듯이 어머니의 볼을 쓸고 흔들고 마침내는 제 얼굴을 갖다대고 마구 비벼댔다.

문득 녀인의 소나무껍질처럼 터슬터슬 튼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순—봉—아—》

너무나 가냘픈 소리였다. 그나마 그 녀인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였다.

《채숙동무, 빨리 동네에 뛰여가서 박병섭로인을 좀 불러오시오. 그리고 촉기를 만난 모양인데 미음이라도 좀 끓이게 하고 동무는 로인을 데리고 곧 오시오.》

《알았습니다.》

채숙이는 불자루를 넘겨주기가 무섭게 어둠속을 달아났다.

그러나 박병섭로인이 침통을 뽑아들고 숨을 헐썩거리며 달려왔을 때는 모든것이 다 끝장난 뒤였다.

유철은 녀인의 보짐에서 찾아낸 헌 홑이불로 시신을 가리워놓고 그 머리맡에 광솔불을 빤히 켜놓았었다. 그리고 그앞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앉아 머리를 숙이고있었다. 그의 무릎을 베고 울다가 지쳐빠진 어린 상주가 쌕쌕 잠들고있었다. 아이는 자면서도 흐느낌소리를 내였다.

《어찌된 일인가?》

로인은 여기가 질려 목소리를 죽이고 물었다.

《길가던 아낙입니다. 아마 굶은 끝에 열병이라도 만난것 같습니다.》

유철은 단정히 앉은채 조용히 대답하였다.

《뉘집 아낙인지 모르겠군?》

로인은 조용히 유철이곁으로 다가앉으며 물었다.

《모르지요. 말 한마디 없이 숨을 모았습니다. 아마 고향을 버리고 이 험한곳까지 들어왔을 때는 필시 가난한 농사군네 집 아낙이겠지요. 남편까지 로상에서 잃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한 아낙입니다.》

유철은 잠든 아이의 수북이 자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채숙동무.》 잠시후 유철은 흐느낌소리를 씹어삼키고있는 채숙에게 말했다. 《순봉이를 업고 가서 뭘 좀 먹여주시오. 오래 굶은 모양이니 미음부터 조심해서 먹이시오. 어머니가 이 애를 우리 손에

맡기고 갔으니 우리가 책임지고 길러야 할것 같소. 그리고 박두성동무에게 이야기해서 몇사람 이리로 좀 보내주시오. 고인을 위하여 하루밤밤을 샙시다. 이 이름도 못남기고 원통히 눈감은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누이를 위하여 같이 고향이야기라도 나누어줍시다.》

채숙이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대답도 못하고 잠든 아이를 조심스레 받아안으며 연방 턱을 떠는 채숙이와 춤추는 광솔불그늘에 비친 유철의 조용한, 너무나 조용한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며 박병섭로인은 이름도 래력도 모르는 길손의 령전에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깊숙이 수그렸다. 조선이 자기의 가난한 한 딸을 잃어버린 이 어두운 밤에 로인은 참으로 인간을 사랑할줄 아는 미더운 후생들을 눈앞에 보았다. 그리하여 일생을 머리굽힐줄 모르던 그는 허심하게 그 웅숭깊은 인간들앞에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의 가슴을 그처럼 허비여놓고 간 불쌍한 고인의 넋앞에 깊이깊이 머리를 숙였다.

이튿날 녀인을 숲속에 묻었다.

순봉이는 애초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후날 자라면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리라. 그러나 외삼촌도 없는 어린것에게 지금 당장 어머니를 땅속에 묻는 광경을 보일 필요는 없다.

제물도 상주도 없는 장례는 간단하였다. 그러나 유철은 될수록 일을 오래 끌었다. 다문 얼마간이라도 같이 있어주고싶었다. 생각하면 다 부질없는 일이지만 어쩐지 발길이 돌아서지 않았다.

그날밤 숙영지로 박병섭로인이 찾아왔다.

《내 그대와 좀 할말이 있어 찾아왔소.》

로인의 유난스런 말투에 유철은 당황하였다.

《왜 이러십니까? 말씀 낮추십시오.》

《아니, 그렇지 않네. 사람이란 제 분수를 알아야 하지. 나와 호젓이 좀 만나주었으면 좋겠네…》

유철은 어리둥절한채 로인의 뒤를 따라갔다. 로인의 손에는 삽과 곡괭이가 들리여있었다. 유철은 그것을 받아쥐려 하였으나 로인은 한사코 뿌리쳤다. 그리고는 아무말도 없이 수걱수걱 숲속으로 들어갔다. 자작나무숲을 벗어나 어느덧 음산한 물안개가 떠도는 부채소늪가에 이르렀다. 로인은 삽과 괭이를 나무밑에 놓고 사방을 둘러보며 방위를 더듬었다. 이윽고 커다란 잣나무밑에다 발뒤축으로 보이지도 않는 금을 긋더니 고개를 끄덕거렸다.

《여기로군, 여기를 파야겠어. 좀 거들어주겠나.》
로인은 손바닥에 침을 탁 밸더니 곡괭이질을 시작하였다. 유철은 영문도 모르고 로인이 시키는대로 일손을 거들었다.
《가만 가만 상하겠군.》
구뎅이가 삽자루 기장만큼 깊어졌을 때 로인이 유철이를 젖혀놓고 혼자 들어가 삽끝으로 땅밑을 더듬었다. 삽끝에 딱딱 하고 무엇인가 굳은것이 마치는 소리가 났다.
《있긴 있군.》
로인은 혼자소리를 하더니 땀을 철철 흘리며 둘레를 싹 긁어내고 다 썩어가는 판자쪽을 뜯어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총이지.》
로인은 허리를 일으키며 자랑에 차서 말했다.
《총이라니요？》
유철은 영문을 몰라서 다시 물었다.
《우리가 왜적과 싸우다가 마침내 힘이 진해 뿔뿔이 흩어질 때 그 총들을 모두 꺾어던지고 나쁜놈은 지어 내다 판놈까지 있네. 헌데 그래도 후날 혹시 쓸 일이 있을가 해서 내 수중에 간직해두었던것을 묻어두었더니 마침 뜻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요긴하게 쓰게 되였네그려.》
유철은 총이란 말에 귀가 번쩍 뜨이기도 하였으나 그보다 로인의 정성에 감복하여 말을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로인은 구뎅이가에 쭈그리고 앉더니 이마의 땀을 훔치고나서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리고는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일전에 그대한테 들은바 있지만 김형직선생의 자제분께서 사람을 옳게 가르치시고 거느리신다는것을 깊이 믿게 되였네. 그분께서 빛을 잃은 내 나라를 건져주실분이라는것을 이 늙은 백성은 깊이 믿네. 이 총은 비록 변변치 못하지만 그래도 내 몸에 남아있던 나라에 대한 정성이네. 길이 있으면 내 이 마음을 그대가 그분께 전해주었으면 좋겠네. 만약에 이것들이 나라 찾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나는 여한이 없겠네. 내가 묻을 때 기름을 듬뿍 바르고 또 기름종이로 겹겹이 싸두었으니 총은 아직 쓸만할걸세. 생각하면 이 총을 눈물과 함께 땅속에 묻던 그날의 한이 오늘에사 풀리는듯하네.》
《선다님.》 유철은 잠시 말을 맺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이었다. 《고맙

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선다님의 뜻을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은 새로 싸움을 벌린 저희들에게 얼마나 요긴하게 쓰일지 모릅니다. 참,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백성의 도리도 못다 지킨 사람에게 너무 그러지 말게. 차라리 내가 송구하네. 그저 부탁은 내 성의를 받아달라는것과 또 혹 나같은것도 쓸모가 있거던 유격대에 받아주었으면 하는거네.》

《선다님을요?》

《물론 내가 나이 이미 50이 넘었으니 꺼리는바도 없지 않을걸세. 허나 기왕엔 나도 산을 타기를 호랭이같이 하던 사람이야. 하다못해 내가 젊은이들에게 산속 미립이라도 대줄수 있을것 아닌가? 그러니 그대가 한번 잘 상의해보기를 바라네. 내가 늙은것이 이런 청을 하는데는 나로서 남에게 말 못할 사연도 없지 않네.》

《그건 무슨 말씀인지요?》

《내 그대에게야 무슨 말을 못하겠나? 그대도 아다싶이 내 밑으로 자식이라고는 두현이 한놈이 있을뿐인데 그놈이 저번 폭동후에 종적을 감추었더니 후에 듣자니 그놈이 저 거리에 나가 정미소의 서사노릇을 하고있다지 않겠나? 내 그놈을 자식치부를 하지 않기로 했네. 여기 있을 때만 해도 수작이 미타하다 했더니 종내 그런 길로 떨어지고말았네그려. 내 평생을 두고 비루한것을 가장 역스럽게 보는 터이라 그놈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 한이 골수에 사무치네.나라가 이 모양인데… 나라를 광복하자는 싸움이 바야흐로 무르익어갈 때 내 집에서는 내놓을 군사감이 없네그려. 그러니 내 흰수염을 날리면서도 원쑤를 치러 나서야겠네. 자고로 충의지사는 국난을 당하여 나이를 돌아보지 않는 법이네.》

유철은 로인의 강직하고 고결한 마음에 머리가 수그러졌다. 이러한 로인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혁명조직과 유격대가 누구를 믿고 싸워나가겠는가?

유철은 비록 원칙은 아니지만 로인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리라 마음먹었다.

《선다님,선다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조직과 토의해보겠지만 틀림없이 선다님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것입니다. 아닌게아니라 우리에게는 총 잘 쏘는 사람도 적고 산을 잘 타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데 선다님께서 두현동무에 대한 오해는 푸셔야겠습니다. 두현동무는 타락한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사람아, 그게 무슨 말인가?》
로인은 흥분하여 유철의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
《여보게, 그애가 정말 아직 사람구실을 하고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깊은 사연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현동무는 지금도 훌륭히 싸우고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것은 물론 선다님 한분만 알고계셔야 합니다.》
《알고말고…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내비치겠나? 그애가 국사에 참여하고있다면 내가 작두날우에 올라선들 그 말을 할가.… 음—아무렴 그렇겠지, 우리 박씨문중에 그런 오랑캐종자가 태여날수야 없지.…》
로인은 담배를 뻐끔뻐끔 빨면서 고개를 크게 끄떡거렸다.
《내 팔에 힘이 솟네. 나를 기어이 유격대에 받도록 해주게.》
로인은 불시에 고개를 돌리더니 간청하였다.
《하하하, 알겠습니다. 토의해보겠습니다.》
《꼭 토의해주게. 이 늙은것을 섭섭치 않게 해주게. 내 참으로 이 밤은 기쁘기 한량없네. 난 그저 그대만 믿고 기다리겠네.》
밤이 깊어서 두사람은 두자루의 총을 파내여가지고 동네로 돌아왔다.

26

순봉이는 처음 며칠동안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 그러나 규화랑 채숙이랑 녀대원들이 번갈아 얼리고 김치복이가 수수깡으로 장난감사람도 만들어주고 또 우습강스러운 말을 해주군해서 낮동안은 얼떨한 가운데 잊어버리고있었다.
한편 마을에서의 정치사업도 괜찮게 되여나갔다. 농민들의 곤난한 식량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목재판으로 가는 말파리를 습격하여 적잖은 식량과 무기, 물자들도 해결하였다.
안골에서의 공작을 결속짓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침 숲에서 련락병이 달려왔다. 정대호네 무장소조가 꼬지개섬에 와있다는것이였다.
가재울의 지방조직을 지도하기 위하여 그쪽에 가있던 유철은 련락을 받고 부랴부랴 부대를 이끌고 꼬지개섬으로 돌아왔다.
정대호는 그 어마어마한 이름이나 요란하게 난 소문에 비해서는 체

소하고 어딘가 초라해보이기도 하는 30안팎의 사나이였다.

그는 꼬지개섬 늪가에 대원들을 풀어놓고 그자신은 광장 한쪽구석에 있는 진대통우에 김익보와 나란히 걸터앉아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그의 대원들은 늪속에 말을 몰아넣고 목욕을 하는 한편 말시중을 들고있었다.

유철이가 인솔한 대오가 노래를 부르며 질서정연하게 행군해들어오자 이윽히 바라보던 정대호의 입가에 야릇한 웃음이 떠올랐다. 통채로 구멍새가 자드락자드락한 가무잡잡한 그의 얼굴에서 시원하게 툭 트인것은 영채도는 눈뿐이였는데 그 눈마저 야릇한 웃음에 실오리처럼 가느다랗게 쪼프려졌다.

유철은 박두성이가 대오를 헤치도록 맡겨두고 진대통께로 다가갔다. 그뒤로 순봉이를 안은 채숙이와 규화가 따라오고 뒤미처 박두성이도 따라왔다.

《저 동무가 유철동무요.》

김익보가 일어서며 정대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지 않아도 다 짐작했소.》 정대호는 얼굴에 띠우고있던 그 야릇한 웃음을 싹 거두고 표정이 댕댕해져서 중얼거렸다. 《아이랑 데리고 다니는것을 보니 혁명은 잘하겠군. 게다가 녀자들까지 달고다니거던.》

그의 목소리는 아무 꺼리낌이 없어서 유철의 귀에까지 똑똑히 들려왔다. 로채숙이와 규화의 표정은 금시에 해쓱해졌다.

《하하하, 정대호동지시오?》 유철은 일부러 호탕하게 웃으며 한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갑소.》

《난 별로 반가울것도 없소.》

정대호는 시쁜 표정으로 잠시 손을 맞잡더니 인차 움츠리고는 무슨 생각이 났던지 군모를 벗어서 진대통우에 내던졌다. 짧게 깎은 장난꾸러기같은 머리가 나타났다. 얼굴이 질려 서있던 규화와 로채숙이도 그 순간에 그만 웃음을 지었다. 정대호의 그런 거치른 동작가운데는 아무래도 미워할수 없는 어떤 선천적인 순진성이 깃들어있었다.

《허허— 첫인사가 만만찮군. 그래도 우린 동무네를 만나자고 술한 애를 썼소.》

유철은 정대호에 대해 이미 들은 이야기도 있는만큼 계속 서글서글 웃으며 말했다.

《난 아이를 안고 녀성들이랑 데리고 다니며 혁명하자는 사람은 처음 봤소.》

정대호는 푸접없이 툭 내쏘았다.

《왜? 이 아이가 우리 혁명하는 목적을 더 잘 깨우쳐주지 않소? 이 아이는 불쌍한 조선무산로력대중의 한 딸이 혁명의 품에다 맡기고 간 고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훌륭한 미래를 주자는것이 피를 흘리며 진행하는 우리 혁명의 목적이 아니겠소?》

《보아하니 동무도 리론가구만.》 정대호는 유철의 조용한 말투에 어떤 위압을 느꼈음인지 롱비슷하게 말을 비틀었다. 《하지만 난 리론을 캐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혁명하러 다니는 사람이요. 대체 혁명이란 무자비해야 한단말이요. 고아나 줏고 다니다가 언제 혁명을 하겠소? 그런게 다 소부르죠아사상이란말이요.》

유철은 정대호의 짤막한 머리칼과 정력이 팽팽 뭉친듯한 그의 체소한 몸매를 바라보며 시종 너그럽게 웃었다.

《옳소. 혁명에서는 원쑤들에게 무자비해야 하오. 하지만 이 애는 원쑤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해야 할 계급적의무가 있는 고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무자비해서야 누가 우리 혁명을 지지하겠소?》

《별소리를 다 하거던. 그애가 진짜 우리 무산계급의 아들인가 아닌가 하는것은 그애를 눈구뎅이속에 내던져보면 알수 있소. 부르죠아가 아니라면 그애는 눈구뎅이속에서도 무산자답게 일어설거요. 이 정대호는 젖도 떨어지기전에 고아가 되여 박달나무도 얼어터진다는 추위에 내버려졌댔소. 하지만 난 이렇게 살아있고 오늘은 유격대원이란말이요. 그따위 값눅은 인정은 쓸데없소. 우리는 오직 계급앞에 충실할뿐이요. 통털어 동무네가 하는것을 보니 유격대라는것을 잔뜩 틀을 만들어가지고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다니는데 그런데서 무슨 혁명이 생기겠느냐말이요? 하긴 전날 내가 신세를 좀 지긴 했지만…》

정대호는 재차 진대통의 모자를 집어들어 머리우에 척 올려놓았다.

《동무, 희떠운 소리 작작 하지 못하겠는가?》

뒤에서 박두성의 징소리 같은 우람찬 소리가 터져올랐다.

《이건 또 누구야?》

정대호는 까딱도 않고 돌아보더니 빙그레 웃었다.

《흥, 키가 들썩 큰걸 보니 동무가 박두성이로군.》

《동무, 말을 삼가는게 좋겠소. 이 동지는 **김일성**동지로부터 직접 과업을 맡고 여기로 파견되여온 동지요.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게 좋겠소.》

《아니 박동무, 아무렴 이 정대호가 그만것도 모르고 여기로 찾아온

줄 아오? 나도 그걸 알기때문에 **김일성**동지 말씀을 들으러 여기까지 왔단말이요. 도대체 동무가 말을 삼가는게 좋겠소. 형세가 우리는 어차피 합쳐야 하겠는데 그러면 피차 어색해지지 않겠는가말이요.》

박두성이는 얼굴이 수수떡처럼 시뻘개가지고 씩씩거렸으나 다른 사람들은 정대호의 말에 모두 웃었다. 그의 소박하고 단순하고 천진하기까지 한 언행이 무엇때문인지 사람들의 가슴을 유쾌하게 만들었다.

유철이가 순봉이를 돌아보며 웃자 정대호는 무슨 힘에 끌렸는지 주머니에서 권총 탄알 두개를 꺼내여 순봉의 손에 쥐여주고 매우 서투른 솜씨로 얼리려들다가 사람들이 웃는바람에 홱 돌아서서 낯을 찌프렸다.

《체, 별걸 가지고 사람을 골탕먹이거던. 동무들, 인정과 혁명을 한데 얼버무려서는 안된단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주장이요. 혁명은 무자비해야 한단말이요.》

그리고는 유철을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보더니 썩은 콩이라도 씹은것 모양 다시 상을 찌프리고 말했다.

《난 사실 그렇다고 해서 동무의 생각에 꼭 반대하는것은 아니요. 보는바와 같이 나는 리론이 모자라는 사람이요. 그대신 싸움은 잘한단말이요. 그러니 결국 나는 동무의 생각에 찬성할수밖에 없소. 자, 나한테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들려주오.》

정대호가 순봉이문제를 두고 찬성한다는것인지, 혹은 두 무장대오의 합동문제를 두고 찬성한다는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것을 통털어 찬성한다는것인지 똑똑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철에게 명백한것은 정대호가 바탕과 심장이 순결한 사람이며 허위와 가식을 모르는 솔직한 사람이며 무엇보다도 혁명에 대해 충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그것이였다.

《좋소. 그러나 나는 동무의 모든것에 대해 다 찬성할수는 없소.》 유철은 밝은 기분으로 다시한번 그의 손을 틀어쥐며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혁명의 길에서 충실하겠다는 립장이 서로 같기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였소. 앞으로 서로 비판과 방조를 하면서 조선혁명의 길에서 함께 싸워나가기요.》

며칠후 두 무장대는 합동하였다.

조직의 결정에 따라 유격대의 명칭은 하강반일유격대라 부르게 되였다! 유철은 혁명조직들을 계속 지도하면서 부대에서 정치위원공작

을 하기로 되였다.

1중대장으로 임명된 정대호는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회의장을 나오자 시무룩해있는 2중대장 박두성의 어깨를 툭 쳤다.

《보라구, 서로 같은 중대장이 되지 않았나?》

《흥!》 두성은 입이 쓰거워 코방귀를 뀌며 돌아섰다. 그러나 정대호는 추근추근 따라가며 약을 올렸다.

《난 무엇보다도 동무의 그 시뿌둥한 얼굴을 보는것이 기분이 좋거던.》

《정 이럴테야?》

《어쩔텐가? 뚝심을 한번 써보겠는가? 해볼테면 해보자구. 내가 씨름을 해도 동무쯤 멧다치는것은 문제가 없단말이야!》

《중대장이 됐으면 중대장답게 구는것이 좋겠네.》

《왜 씨름에서 동무를 멧다치면 그것도 괜찮지.》

《정 겨루어볼테야?》

《자, 접어들어보게!》

박두성은 약이 올랐던김이라 우르르 달려들어서 단숨에 배지기를 떠올렸다. 그러나 정대호는 제 말과 같이 씨름에서도 만만치 않았다.

《흥, 쓰기는 쓴다.》 정대호는 허리를 착 까부리고 한발을 두성의 사채기에 잔뜩 지리걸고는 버들가지처럼 몸을 가볍게 휘청거리며 별 험구를 다했다.

두 중대장사이에 씨름이 붙었다는바람에 숲속에서 대원들이 까맣게 모여들었다. 늪에서 말을 씻기던 기마대원들도 웃동을 벗은채로 맨말을 타고 달려왔다.

정대호가 만판 큰소리를 치며 돌아가다가 마침내 쾅하고 락엽무지에 꺼꾸로 박히는 순간 숲이 떠나갈듯한 박수갈채소리와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두성은 넘어져서 낑낑거리는 정대호를 잡아일으켰다.

《어디 상하지 않았나?》

박두성은 그제야 정대호라는 사람의 속을 안듯하여 은근히 물었다.

《체 상하긴, 동무 같은사람한테 상해가지고야 이 정대호가 어떻게 혁명하자고 나섰겠나? 자, 한번 더 안아보자구.》

두 사나이는 뜨거운 우정이 서로의 가슴으로부터 가슴으로 흘러드는것을 느끼면서 무쇠같이 불거져오른 근육과 근육을 맞부딪치며 승부를 다투었다.

그날밤 정대호는 부대를 거느리고 첫 전투를 떠났다. 백리허목재판의 산림경찰을 치고 수많은 무기탄약과 함께 말 70여필을 로획해왔다.

부대는 기병으로 개편되였다.

정대호의 련락병으로 임명된 전날의 아지트공작원 안명길이 새하얀 부루말 한필을 유철에게 끌고 왔다.

유철은 순봉이를 데리고 나가 말을 돌아보았다. 밤눈에도 앞가슴의 근육이 울뚝불뚝하고 발목이 잘룩한것이 금시 날을것만 같은 날씬한 말이였다.

《순봉아, 말 타보겠니?》

《응.》

유철은 안장도 안지운 맨등에 몸을 날려 닝큼 올라타고는 손을 뻗쳐 순봉을 가슴에 안아올렸다.

《끼랴!》

갈기를 한웅큼 움켜쥐고 옆구리를 뒤꿈치로 가볍게 구르니 말은 목을 휘저으며 숲속을 달려나갔다.

《야—》

순봉이가 환성을 질렀다.

어두운 숲속 그늘을 누비며 새하얀 말은 류성과 같이 늪가로 빠져나왔다. 초여름 싱그러운 바람이 귀전을 울렸다. 울창한 숲속을 벗어나자 하얀 초생달빛이 은은하게 깔려있는 늪이 나타났다.

《끼랴!》 유철은 연방 말배때기를 걷어찼다. 말은 바람을 안고 늪가를 달렸다. 물속의 달이 듬성듬성한 꼬지개등걸과 물속에 드리운 버들가지를 헤치며 따라왔다.

《무섭지 않니?》

《무섭지 않아, 자꾸만 가자, 자꾸만 가자!》

순봉이는 두손으로 유철의 군복자락을 꼭 잡고 소리쳤다.

《그래, 자꾸만 가자, 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이렇게 세차게 달려가자!》

말은 고요한 밤과 숲과 늪에 싱그러운 바람을 일으키며 질풍같이 달려갔다.